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6

서행록

西行錄

3

송지행 宋志行 지음
송석년 宋錫年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행록(西行錄)》으로 하였다.
2. 《서행록》 3는 송지행의 1792년 9월 15일부터 1839년 3월 25일까지 기록한 일기와 송석년의 1821년 2월 20일부터 1792년 4월 1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3.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4.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6.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일러두기	2
목차	3

송지행 宋志行

임자년(1792) 9월	7
향산일기	32
갑인(1794) 정월	63
병진년(1796) 11월	93
무오년(1798) 9월	122
경신년(1800) 3월	150

송석년 宋錫年

신사년(1821) 2월 20일	169
신사년(1821) 11월 19일	192
계미년(1823) 3월 일	207
계미년(1823) 8월 일	239
정해년(1827) 9월 일	263
무자(1828) 4월 일	272
무자년(1828) 9월 11일	306
신묘년(1831) 10월 일	332
임진년(1832) 윤 9월 일	355
영행일기 기해년(1839) 3월 일	380

서행록 西行錄 ③

송지행 宋志行



임자년(1792) 9월

壬子九月

▪15일. 행장을 꾸려 서울로 출발할 때에 남촌(南村) 형님과 삼정(森亭) 두 이종(姨從)형님이 와서 머물다가 작별하였다. 비가 그친 뒤에 길을 나서 과역(過驛)¹⁾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봉포(鳳浦) 송도감(宋都監)이 찾아와서 만났다. 오후에 길을 나서 용전(龍田) 나주댁에 이르러 묵었다. 재동(齋洞) 초천(艸川) 형님과 순천 손님이 해질 무렵에 와서 머물렀다. 이날 50리를 갔다.

十五日. 治發京行時, 南村兄主及森亭兩姨從兄主來留作別. 雨歇後發程, 至過驛中火秣馬. 鳳浦 宋都監來見. 午後上程, 至龍田 羅州宅留宿. 齋洞 艸川兄主及順天客, 黃昏來留. 是日行五十里.

▪16일. 맑았다. 아침 전에 군배(君培)와 윤급(允乃) 씨가 찾아와서 만났다. 아침을 먹은 뒤에는 덕철(德哲)도 왔다 갔다. 오후에 죽동(竹洞)에 이르러 묵었다.

十六日. 晴. 朝前君培及允乃氏來見. 食後德哲亦來見而去. 午後至竹洞留宿.

▪17일. 새벽녘에 아침을 먹고 낙안(樂安) 읍내에 이르러 약노(若老) 씨를 만난 다음 곧바로 길을 나서 유점(楡店)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천평(泉坪)²⁾에 이르니 이미 해가 저물었다. 이날 70리를 갔다.

十七日. 曉頭朝飯, 至樂安邑內, 見若老氏, 卽爲上程, 至楡店酒幕中火. 至泉坪, 已黃昏矣. 是日行七十里.

▪18일. 일찍 밥을 먹고 길을 나서 영정(咏亭)에 이르러 잠시 이야기를

1) 과역(過驛) :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과역면(過驛面)의 마을 이름이다.

2) 천평(泉坪)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천평마을이다.

나누었는데,³⁾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즉시 길을 돌려 지신천변(智申川邊)에 이르러 언갑(彦甲)을 만나 길에서 옷 보따리를 전해 주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용계(龍溪)⁴⁾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나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동막(東幕)마을⁵⁾ 어귀에서 최장선(崔長善)과 박성헌(朴成憲)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채찍을 재촉하여 역동(驛洞)에 이르니 이미 해가 지고 어스름할 때였는데, 마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을 무릅쓰고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60리를 갔다.

十八日. 早飯登程, 至咏亭暫話, 而見其景象, 極爲可憐, 寧不忍見. 卽爲回程, 至智申川邊, 逢彦甲, 路中傳給其衣襖. 促鞭至龍溪中火, 日已夕矣. 至東幕村前, 逢崔長善, 朴成憲, 立談後, 促鞭至驛洞, 已黃昏時分, 而無馬廄, 故冒昏至谷城邑內留宿. 是日行六十里.

■19일. 새벽에 길을 나서 중진원(中津院)⁶⁾에 이르렀는데 수해가 크게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증산(甌山) 주막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올 여름의 물난리 때문에 길이 몹시 험악해져서 주포(周浦)에서 오수(獒樹)⁷⁾까지 종일토록 걸어갔는데, 길 좌우로 보이는 수해의 참상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농사 작황도 좋지 않아 흉년을 면치 못한 것처럼 보이니 백성들의 사정이 가련하였다. 임실(任實)의 야당리(野塘里)

3) 영정(咏亭)에……나누었는데 : 영정은 영귀정(詠歸亭)으로 순천시 주암면의 영귀마을에 있다. 이곳에 사매(舍妹)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온 가족이 병을 앓아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매와 나누며 마음 아파한 것 같다.

4) 용계(龍溪)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용계리이다.

5) 동막마을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서계리를 말한다. 서계리는 읍의 제일 위쪽에 있다하여 동막(東幕) 마을이라 하였는데, 서쪽에 계곡이 있다하여 서계리로 바뀌었다. 동막은 마을 서편의 형제봉(兄弟峰)이 동쪽을 향하여 장막을 쳐 놓은 듯한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지형이 형제장군이 군막을 치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유래 되었다 전해지고 있다.

6) 중진원(中津院) : 중진(中津)은 순자진(鶻子津)으로, 곡성군 북쪽으로 10리 되는 남원(南原)경계의 대로(大路)에 있었고, 순자원(鶻子院)은 순자진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섬진강을 건널 수 있게 설치된 중진원교(中津院橋)가 있었다.

7) 오수(獒樹)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으로, 과거 역참이 있던 지역이다. 역참일 당시 오수역은 남원, 구례, 광양, 순천 등 호남 지역의 역참을 관할하던 대형 역참이었다.

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十九日. 曉頭登程, 至中津院, 水瘴大發, 咫尺不辨矣. 至甌山酒幕, 秣馬中火. 以今夏水破之故, 道路極惡, 自周浦終日徒步, 至獒樹, 則沿路水破之狀不可言. 且農形不登, 所見未免歉歲, 民事可憐. 至任實 野塘留宿. 是日行八十里.

■20일. 날이 채 밝기 전에 길을 나서 노고소회(奴古所回)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전주 부내(全州府內)의 주인집에 이르니 주인은 마마로 손녀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온 집안이 경황이 없으므로 서문 밖 여점에 가서 머물기로 했다. 가는 길에 우연히 경성(京城)의 이 석사(李碩士)를 만나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그가 머무는 객점으로 가서 묵었다. 집안에 보낼 편지를 집주인에게 써서 주고, 인편을 기다려 부치게 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二十日. 未明登程, 至奴古所回, 中火秣馬. 至全州府內主人家, 主人以其孫女之逝於西神, 舉家無況, 故往留於西門外旅店. 蓋於中路偶逢京城 李碩士, 相約同行, 故往尋其所留店留宿, 而書給家書於主人, 使之待便付送. 是日行八十里.

■21일. 파루(破漏)⁸⁾를 칠 때에 길을 나서 삼례(參禮)에 이르니 동쪽이 비로소 밝아 왔다. 능측(陵側)⁹⁾까지 50리를 가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은진(恩津)¹⁰⁾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二十一日. 破漏時登程, 至參禮, 東方始明. 至陵側五十里秣馬. 至恩津留宿. 是日行百里.

8) 파루(破漏) :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종각의 종을 33번 치던 일을 말한다. 이 쇠북을 치고 나면 도성(都城) 안의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9) 능측(陵側) : 삼례와 여산의 중간지점인 것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 능은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백제시대 무덤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으로 보인다. 이 능은 마한(馬韓)의 무강왕(武康王)과 그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며, 백제 무왕(武王)과 선화비(善花妃)의 능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10) 은진(恩津) :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옛 지명으로, 은진이라는 지명은 덕은(德恩)과 시진(市津)의 두 현이 합쳐서 생긴 것이다.

■22일. 날이 채 밝기 전에 길을 나서 정천(定川)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비가 올 것 같아 걱정스럽다. 효포(孝浦)¹¹⁾ 어귀에서 흥양(興陽) 김형갑(金衡甲)을 만났다. 서울에서 온 자들이 지나가는 편에 구두로 소식을 전했다. 채찍을 재촉하여 금강(錦江)을 건너 신점(新店)에서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二十二日。未明登程，至定川秣馬，而似有雨意，可悶。至孝浦前路，逢興陽金衡甲。自京來者，口傳消息於過去便。促鞭渡錦江留新店。是日行百里。

■23일. 날이 채 밝기 전에 길을 나섰는데, 새벽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마치 가랑비가 내리는 것처럼 옷이 다 젖어버렸다. 40리를 가서 인주원(仁周院)¹²⁾에 이르자 겨우 안개가 그치기 시작했다. 원터[院垞]¹³⁾에서 아침을 먹고 50리를 가서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길에 올랐다. 두어 마장(馬場)도 못가서 우연히 주동(鑄洞) 종인(宗人)을 만나, 시호(諡號)가 아직 명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안삼거리(天安三渠里)¹⁴⁾ 점에서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대개 흥년의 긴 노정이다 보니 애초에 동행이 없어서 마음이 매우 답답하였는데, 이 석사(李碩士)와 나란히 말을 타고, 또 녹도에서 온 경한(京漢)을 만나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뻐다.

二十三日。未明登道，而曉霧彌天，不辨咫尺，若細雨狀，衣服盡濕。行四十

11) 효포(孝浦)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기동이다. 신라 경덕왕 때의 효자 향덕(向德)이 살았던 마을이 계룡면 신기리인데, ‘효포’ 또는 ‘효가리(孝家理)’라고 불리게 된 것은 향덕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그의 허벅지 살을 베어낸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이곳 효포에서부터 남쪽으로 널티, 경천역, 노성으로 이르는 길은 전통시대의 역제가 폐기될 즈음에 발발한 동학농민전쟁을 치른 역사적인 길이다.

12) 인주원(仁周院) :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인주원 마을이다.

13) 원터[院垞]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원집이 있었다. 파발 제도가 잘 갖춰졌던 조선 시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 약 12km 정도마다 역을 두고 공용 여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 이러한 편의 시설이 있는 마을에는 ‘관터[館基]’, ‘관말[館村]’, ‘원터[院里, 院垞, 院村, 院洞]’, ‘역말[驛村, 驛里]’ 등의 이름이 붙었다.

14) 천안삼거리(天安三渠里) : 천안시의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하여 조선 시대에 삼남대로(三南大路)의 분기점이었던 삼거리로, 길손을 재워주는 원과 주막이 즐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천안)에는 고을 남쪽 6리에 삼기원(三岐院)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삼거리를 말한다. 지금의 삼룡동(三龍洞) 지명도 1914년 이 삼거리와 용마산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里，至仁周院，晚霞始霽矣。朝飯院垞，五十里程也，秣馬登程，不過數馬場，忽逢鑄洞宗人，聞知諡號之尙不命下至。天安三渠里店留宿。是日行九十里。蓋險歲長程，初無同行，故心切鬱鬱矣，既與李碩士聯鞭，又逢京漢之自鹿島來者，同與行役，可喜可喜。

■24일. 새벽에 길을 나서 성환(成歡)¹⁵⁾까지 4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갈원(葛院)¹⁶⁾에 이르자 비가 내렸는데, 크게 쏟아질 것 같지 않아서 채찍을 재촉하여 희도치(希道峙)에 이르렀다. 대개 이때부터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니 말 세 마리가 나란히 갈 수 없어 이 석사가 먼저 갔다. 고개(古介)에 이르러서는 녹도의 하인이 뒤쳐져 두어 마장 떨어졌고, 우리 일행은 가장 뒤쳐져 1리쯤 더 떨어졌다.

멀리서 보니 이 석사가 말에서 내려 두서너 사람과 비를 맞고 서 있기에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채찍을 재촉하여 가는데, 녹도의 하인이 또한 그곳에 당도하여 즉시 그 자들을 추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 사람은 달아나 산에 오르고 한 사람은 달아나 짐을 내려놓으며 창황히 바삐 움직이니 비로소 도적놈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둘러 가 보니 본래 이들은 세 놈으로, 두 놈은 이미 달아나고 한 놈은 아직도 맞서 버티면서 서로 옷을 잡고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이 뒤미처 도착하자 그도 생각하지 못한 터라 비로소 스스로 기가 꺾이는 모양새였다. 이에 함께 동행하여 서둘러 진위(振威, 경기도 평택의 옛 지명) 읍내에 이르렀다.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주막에 들어가 편히 쉬었다. 그 사이에 위태로웠던 상황이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날 90리를 갔다.

二十四日。啓明登程，至成歡四十里，朝飯秣馬。至葛院雨作，而似無大注意之意，故促鞭至希道峙。蓋是時雨下不息，三馬不得聯轡，李碩士最先行。至古介，鹿島下人落後數馬場，吾行最落後一里許矣。遙見李碩士下馬，與數三人，立於雨中，故意謂路逢相知人與之酬酢。促鞭前進之際，見鹿島下人，亦

15) 성환(成歡) : 천안시 서북부에 있는 읍 이름이다. 성환읍 성환리에 성환역(成歡驛)이 있었다.

16) 갈원(葛院)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로, 옛 관원들이 묵어가던 숙소가 있던 곳이다.

當於其處，卽以左右追擊，一人走之上山，一人走之下擔，倉黃奔走，始知爲賊漢。促行當之，則本是三漢，二漢已走，一漢猶與相拒，互執衣襟，爭鬪不止。及吾三人追至，則渠亦出其不意，始有自沮之態。因與同行，促至振威邑內。雨下如注，入幕安歇。其間危凜之狀不可言。是日行九十里。

▪25일. 동틀 무렵 길을 나서 유천(柳川)까지 4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과천(果川, 경기도 중남부에 있는 시)까지 50리를 가서 묵었다.
二十五日. 平明登程, 至柳川四十里, 朝飯秣馬. 至果川五十里留宿.

▪26일. 동틀 무렵 길에 올랐다. 강을 건너 이문동(里門洞)¹⁷⁾에 이르러 이 석사와 작별하고 주인댁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주인댁 내행차(內行次, 부인의 행차)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二十六日. 平明登程. 渡江至里門洞, 與李碩士相別, 至主人宅朝飯. 主人宅內行次, 尙不下去, 故因留焉.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¹⁸⁾에 가서 종친들을 만나고 왔다.
二十七日. 朝飯後, 往鑄洞, 見僉宗而來.

▪28일. 아침 전에 천노(千奴)를 데리고 예조(禮曹)에 가서 안리(安吏, 성이 안씨인 아전)를 만났다. 대개 성상께서 시호를 내려 주도록 재촉하신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흥양 본관 정만시(鄭萬始)¹⁹⁾가 응교(應校)가 되어 15편의 시장(諡狀)²⁰⁾ 중 다섯 사람의 시호만을 행하고 우리 선조의

17) 이문동(里門洞)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던 마을로서, 마을에 이문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 우리말로 '이문골', '이문안'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18) 주동(鑄洞) : 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예장동·주자동·충무로2가·충무로3가·필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이곳에 조선시대에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 내던 주자소(鑄字所)가 있었기 때문에 주자골이라 하고, 한자명으로 주자동이라 하였으며 줄여서 鑄洞이라 하였다.

19) 정만시(鄭萬始) : 1745~1800. 자는 일지(一之), 호는 정와(靜窩), 본관은 온양(溫陽)이다. 경기 출신으로 1782년 임인알성시에 과거에 급제를 하였으며, 주요 관직은 삼사 이랑(三司 吏郎)을 지냈다.

20) 시장(諡狀) : 죽은 뒤에 자손들이 시호(諡號)를 조정에 청할 때 죽은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行

시호는 준비해 두지 않았으니 가탄스럽다. 그길로 주동으로 가서 종친들과 종일토록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예조 안리(安吏)와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 무렵에 다시 예조에 갔으나 이 좌상(李左相)·황 판서(黃判書)·판서 이익정(李益烜)²¹⁾·공서린(孔瑞麟)²²⁾·제말(諸末)²³⁾ 등 다섯 사람의 시호와 시사(施舍) 낙점이 아직 내리지 않았기에 나와서 차동(車洞)²⁴⁾에 머물렀다.

二十八日. 朝前率千奴往禮曹見安吏. 盖自上催促賜諡之舉已多日, 而興陽本官鄭萬始爲應校, 十五諡狀中, 只行五人諡號, 而吾先祖不預, 可歎. 因往鑄洞, 終日談話, 盖其禮曹 安吏有約故也. 日暮時, 更往禮曹, 則李左相, 黃判書, 李判書益烜, 孔瑞麟, 諸末五人諡號及施舍落點, 尙不下矣. 因爲出來, 留車洞.

▪29일. 일찍 천노(千奴)를 예조로 보냈다.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二十九日. 早送千奴於禮曹. 日午後始來, 而別無消息, 可悶.

▪10월 1일. 일찍 예조로 갔더니 다시 논의한 일이 있어 정동관(鄭東觀)²⁵⁾을 응교

蹟)을 기록하여 적은 글이다.

21) 이익정(李益烜) : 1699~1782.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명숙(明叔)이다.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현손이며,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의 아들이고, 영조 때 공조 판서를 지낸 이성규(李聖圭)의 아버지이다. 《한국인물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2) 공서린(孔瑞麟) : 1483~1541.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희성(希聖), 호는 휴암(休巖),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기묘사화 때 투옥되었으며, 그 후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선비들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여러 번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대사헌,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23) 제말(諸末) : 고성(固城)의 천민(賤民)으로, 임진왜란 때에 웅천(熊川)·김해(金海)·정암(鼎巖) 등지에서 대승(大勝)을 거두었다. 그 공이 관재우(郭再祐)와 함께 조정에 알려져 성주 목사(星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으므로 공적을 크게 나타내지 못하였다. 제말에 대한 내용은 성주(星州)의 《선생안(先生案)》에 실려 있다. 정조(正祖) 때에 병조 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24) 차동(車洞) : 중구 의주로1가·순화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수렛골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25) 정동관(鄭東觀) : 1762~1809. 1783년(정조7) 21세에 친시(親試) 병과(丙科)에 합격하였다. 《일성록》

(應校)로 삼고 한광식(韓光植)²⁶⁾을 사인(舍人)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급히 주동(鑄洞)으로 가서 응교에게 청탁하는 서간을 써서 전송하게 하였다. 돌아와 이르기를, “이미 조영국(趙榮國)²⁷⁾과 김준용(金俊龍)²⁸⁾ 두 사람의 시호는 의논하였으나 나머지 사람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가탄스럽다.

十月初一日. 早往禮曹, 則有更議之舉, 以鄭東觀爲應校, 韓光植爲舍人云, 故急往鑄洞, 得請簡於應校, 送傳於闕內, 則回云, “已以趙榮國、金俊龍二人議諡, 餘人不爲.” 可歎.

■2일. 다시 예조로 가서 곡절을 상세히 묻고, 다시 논의가 있었는가를 재차 물었으나,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기에 곧바로 돌아왔다. 종인(宗人) 사수(士洙)가 아침 일찍 와서 보고 갔다. 밤에 비가 왔다. 밥을 먹은 뒤에 복룡(卜龍)이 비로소 와서, “내일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初二日. 復往禮曹, 詳問委折, 復問有更議云否, 答曰: “無之.” 故卽爲回來. 宗人士洙, 早朝來見而去. 夜雨. 食後卜龍始來云, “以明日下去.”

■3일. 이른 아침에 복룡이 돌아가기를 고하므로 집에 보낼 편지를 부쳐 보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으로 가서 종일토록 이야기하다가 왔다.

初三日. 早朝卜龍告歸, 故付送家書. 食後往鑄洞, 終日談話而來.

의 기록을 보면, 1792년(정조16) 9월 29일에 응교에 임명되었다 하였고, 12월과 이듬해 3~4월의 기록에도 응교로 삼는다는 기록이 보인다.

26) 한광식(韓光植) : 1729~1800. 본관은 청주, 자는 일지(一之), 호는 일재(一齋)이다. 1762년(영조3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1777년(정조1) 증광문과별시에서 급제하였다. 부수찬·수찬·의정부 검상·승지 역임하였으며, 경종대왕수정실록(景宗大王修正實錄)의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편찬하는데 참여하였다.

27) 조영국(趙榮國) : 1698~1760.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군경(君慶). 호는 월호(月湖), 시호(諡號)는 정헌(靖憲)이다. 영조(英祖) 경술(庚戌)년에 문과(文科)에 오르고 벼슬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다.

28) 김준용(金俊龍) : 1586~1642.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수부(秀夫)이다. 광해군 원년(1609)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재임하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사를 이끌고 광교산에 이르러 격전을 벌인 끝에 청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세상을 떠난 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충숙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4일. 일찍 송현(松峴)²⁹⁾으로 가서 안 교리(安校理)를 조문하고, 그길로 민 진사 집에 갔더니 부재중이었다. 그래서 예조에 갔는데 안리(安吏)는 궐에 들어가서 만나지 못했다. 다시 호동(壺洞)³⁰⁾으로 갔으나 자직(子直)이 선산에 성묘를 가서 만나지 못하고, 그 아들만 보고서 돌아왔다. 다시 예조에 들어가 안리(安吏)를 만났는데, 다시 의논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니 가탄스럽다. 곧바로 나와 버렸다.

初四日. 早往松峴, 吊安校理, 因往閔進士家, 則不在, 故往禮曹, 則安吏入闕不遇. 轉往壺洞則子直作楸行未遇, 只見其子, 因爲回來. 更入禮曹見安吏, 則決無更議之舉云, 可歎. 卽爲出來.

■5일. 차동(車洞)에서 머물렀다. 사수가 찾아와서 보고 돈 한 냥을 주었다.

初五日. 留車洞. 士洙來見, 給一兩錢.

■6일. 차동에 머물렀다.

初六日. 留車洞.

■7일. 새벽안개가 진시(辰時, 오전 7~9시)까지도 짙게 깔려 있었다. 해가 뜰 무렵에 조겸(趙謙)·홍 침지(洪僉知)와 서로(西路)³¹⁾로 길을 떠났다. 길을 나설 즈음에 죽을 먹고 술을 마시며 참봉과 백건(伯健) 형제와 작별하였다. 말에 올라 사현(沙峴) 전석치(磚石峙), 창릉(昌陵)³²⁾ 여현(礪峴),³³⁾ 신원(新

29) 송현(松峴) :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와 건너편 종로문화원 사이에 있던 고개로서,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재라 하고 한자명으로 송현이라고 하였다.

30) 호동(壺洞) : 종로구 원남동에 있던 마을로서, 황참의다리 동북쪽에 있는데 모양이 호리병과 같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31) 서로(西路) : 평안도와 황해도, 즉 관서(關西)와 해서(海西)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2) 창릉(昌陵) : 예종(睿宗)과 그의 계비 한씨의 능으로,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龍頭里)에 있다.

33) 여현(礪峴) : 흥은동네거리에서 은평구 녹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이 고개 석벽에 자연동(自然銅)인 속칭 산골이 산출되므로 산골고개라 하고, 여현이라고도 불렀다.

院)³⁴⁾ 망실치(望賓峙)를 넘어 고양(高陽)까지 5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벽제(碧蹄)·헌음령(憲陰嶺)³⁵⁾·세류점(細柳店)·신점(新店)을 거쳐 파주(波州) 읍내까지 가서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서관의 아름다운 풍광 들은 적 있어	西關佳麗飽曾聞
안개 속 채찍을 울리며 백문 ³⁶⁾ 을 나왔네	霧裡鳴鞭出白門
지금 떠나는 향산 천 리 길	此去香山千里路
풍광이 어찌 그리 들던 대로인가	風光何似所云云

해가 질 무렵에 일행이 상재(喪災)가 생겨 머물 객점에 들어갔는데, 고을 수령이 또한 나와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흥 침지가 하루 종일 크게 취하여 속된 말을 지껄이니 그 고민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주인집 안방을 얻어 피하여 잠을 잤다. 다행히 별 탈이 없었다.

初七日。曉霧至辰時量大塞矣。平明與趙廉及洪僉知，作西路之行。登程之際，食粥飲酒，遂別參奉及伯健兄弟。上馬踰沙峴 磚石峙、昌陵 礪峴、新院望賓峙，至高陽五十里，朝飯秣馬。自碧蹄、憲陰嶺、細柳店、新店，至波州邑內留宿。是日行百里。口吟一絕，“西關佳麗飽曾聞，霧裡鳴鞭出白門。此去香山千里路，風光何似所云云。”黃昏時分，有一行喪災，入所住之店，而主官亦出來，只隔一牆，而洪也終日大醉，肆發俚語，其苦悶危凜之狀，不可言。

34) 신원(新院) :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조선시대에 새로 이곳에 원(院)을 설치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신원동의 서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새원이라고도 하였다.

35) 헌음령(憲陰嶺) : 1864년에 편찬된 《대동지지》에 따르면, 한양에서 의주까지 연결된 간선도로인 의주로(義州路)는 병천거리를 지나 유대소록반현(踰大小綠礮峴)-양철평(梁鐵坪)……벽제역(碧蹄驛)-헌음령(憲陰嶺)-세류점(細柳店)…… 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저본의 ‘踰’는 ‘憲’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36) 백문(白門) : 본래 서남방의 별칭으로, 도성의 서문이나 남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백(李白)의 시 <양반아(楊叛兒)>에 “어느 곳이 사람들 맘 가장 끄는가, 까마귀가 우는 백문 벼들이라네.[何許最關人，烏啼白門柳.]”라고 하였다.

艱得主者內房避宿，幸得無事耳。

▪8일. 이른 새벽에 말에게 꼴을 먹이고 길을 나서 10리 임진강에 이르니 날이 비로소 밝았다. 말 위에서 시 한 절구를 읊었다.

파평관 밖 새벽 닭 우는 소리에	坡平館外聽晨鷄
첫 새벽 찬 서리 밟고 십리 길 갔네	冥踏寒霜十里蹊
채찍질하며 곧장 임진강을 건너는데	鳴鞭直渡臨津水
고개 돌려 고향 바라보니 시야가 아득하네	回首鄉關望眼迷

또 한 수를 읊었다.

왕성을 보장 ³⁷⁾ 하는 백 리 고을	保障王城百里州
서쪽 경기에 진을 쳐 거대한 요새로세 ³⁸⁾	西畿鎮作大咽喉
하늘은 뜻이 있어 기이한 형세 늘어놓았는데	天應有意排奇勢
땅은 어찌 무심히 명승지를 묻는가	地豈無心問勝區
어지러운 세상엔 산하가 나라의 보배요	世亂山河爲國寶
화평한 시절엔 풍물이 사람을 노닐게 하네	時和風物供人遊
긴 강은 참호요 바위는 성가퀴가 되니	長江爲塹巖爲堞
북쪽 오랑캐 황금 채찍 던지지 못하노라	北虜金鞭不敢投

동파(東坡)를 지나 장단(長端)에 이르렀다. 대개 그 산천의 기세가 매우 밝고 고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고장이니 정승 집안의

37) 보장 : ‘보장(保障)’은 국가를 보위(保衛)하는 성벽이나 기반이 되는 지역이란 뜻으로, 위정자가 백성을 잘 보호함으로써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든든한 울타리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공적을 가리킨다.

38) 거대한 요새로세 : 원문의 ‘인후(咽喉)’는 목구멍과 같은 곳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要塞)의 땅인 요충지를 말한다.

분묘가 곳곳에 있었다. 덕수(德水)³⁹⁾와 도라(道羅),⁴⁰⁾ 진봉(進鳳)⁴¹⁾의 산을 바라보니, 여러 백악이 모두 완만하고 부드러워 사랑스러웠다. 멀리 송악산(松嶽山)을 바라보니 웅려하고 삼엄하여 하늘을 찌를 기세가 삼각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대하고 원대한 기운은 나은 듯하였다. 오산(烏山)에 이르니 안개가 주막에서 50리까지 짙게 깔려 있었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판문(板門) 취적교(吹笛橋)와 탁타교(橐駝橋)를 건너 남대문으로 들어갔다. 인가가 즐비하였으나 집들이 매우 좁았다. 주막집에 들어가 탁주 한 사발을 마시고 바로 만월대(滿月臺)⁴²⁾에 올랐는데, 그 무너진 담과 부서진 주춧돌 등 보이는 것마다 온통 황량하였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오백년 전 고려의 궁궐 만월대에	五百前朝滿月臺
풀 시든 저물녘 멀리서 지팡이 짚고 왔네	夕陽衰草遠筇來
백마 타고 주나라로 조회 가는 길 아니지만	雖非白馬朝周路
가던 길 멈추고 옛 슬픔에 젖어보네	留作行人感古哀

책적을 재촉하여 청석동(靑石洞)⁴³⁾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39) 덕수(德水)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과 대화면에 걸쳐 있는 덕수산을 말한다.

40) 도라(道羅) : 옛 장단군 중서면(中西面), 진남면(津南面)에 있는 도라산을 말한다.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지역이며 고려 왕조의 수도 개경(開京)과 이웃하는 곳에 위치해 고려문화권에 속한 지역이다. 도라산에 대한 명칭은 《신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리(東國輿地志)》 등의 문헌상에는 ‘都羅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道羅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도라산과 관련된 구전 기록에, 고려 충렬왕이 때때로 이 산에 올라가 놀이를 즐겼는데 그 때마다 꼭 궁인(宮人) 무비(無比)를 데리고 갔으므로 사람들은 무비를 가리켜 ‘도라산(都羅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41) 진봉(進鳳) : 개성의 동남쪽에 있는 진봉산을 말한다. 저본의 ‘封’은 ‘鳳’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42) 만월대(滿月臺) :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松嶽山)에 있는 고려 시대의 궁궐터이다. 919년(태조2) 정월에 태조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래 1361년(공민왕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 왕들의 주된 거처였다.

43) 청석동(靑石洞) :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고동면(古東面)에 있는 청석굴[靑石峴]을 말한다.

初八日. 凌晨秣馬登程, 至十里臨津江, 日始開東矣. 馬上口占一絕, “坡平館外聽晨鷄, 冥踏寒霜十里蹊. 鳴鞭直渡臨津水, 回首鄉關望眼迷.” 又吟一律, “保障王城百里州, 西畿鎮作大咽喉. 天應有意排奇勢, 地豈無心問勝區. 世亂山河爲國寶, 時和風物供人遊. 長江爲壑巖爲堞, 北虜金鞭不敢投.” 過東坡, 至長端. 蓋其山川氣勢, 極甚明麗, 爲吾東之第一勝鄉, 相家墳墓, 處處有之. 望見德水、道羅、進鳳, 諸白岳諸婉軟, 可愛. 遙見松嶽, 雄麗森嚴, 其插天氣勢, 似不及三角, 而長遠之氣似勝矣. 至烏山, 交烟撥所幕五十里. 朝飯秣馬, 過板門, 至吹笛橋橐駝橋, 入南大門. 人家雖擻比, 而但其家舍制度, 甚狹窄矣. 入酒家飲一盃濁醪, 直上滿月臺, 見其類垣敗礎, 滿目荒涼矣. 遂吟一絕, “五百前朝滿月臺, 夕陽衰草遠筇來. 雖非白馬朝周路, 留作行人感古哀.” 催鞭至靑石洞留宿. 是日行百里.

■9일. 이른 새벽에 길에 올랐는데 산길이 험악하고 산세가 구불구불하였다. 구금천(舊金川) 읍내에 이르자 비로소 날이 밝아왔다. 계정(鷄井)·두석애(豆石崖) 수문(水門)을 지나 옛 금천을 통하여 저제곡교(猪諸谷橋)를 건넜다. 그 다리 길이는 한눈에도 족히 한 마장(馬場)은 되보였으니, 이곳이 바로 경기와 황해 양도의 경계선이다. 냉정점(冷井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사곡(蛇谷) 칠현(漆峴), 응봉장점(鷹峯場店) 칠현을 지났다. 평산 읍내 앞에는 태백산성(太白山城)⁴⁴⁾이 있었다. 남천(南川) 금교역(金郊驛, 현 황해도 금천군의 역명), 석종발소(石宗撥所)⁴⁵⁾ 총수(蔥秀)⁴⁶⁾ 55리를 가서 유숙했다.

44) 태백산성(太白山城) : 황해도 평산군 산성리 태백산에 있는 고구려 때의 돌성이다. 성벽의 바깥 부분은 돌로 쌓아서 만들고 내부는 흙을 채워 지었다. 성벽에는 5개의 치(雉)를, 동서남북의 육축(陸築) 위에는 문루를 세웠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동문과 서문은 조선 시대에 세운 것이다

45) 발소(撥所) : 서울과 의주 사이의 길가에 군데군데 있던 역참으로, 정류소라고도 한다. 원래 중국의 역(驛)을 뜻하는 몽골어의 한역어(漢譯語)이다. 1864년에 편찬된 《대동지지》에, ‘석종발소(石宗撥所)’는 보이지 않고 ‘석우발소(石隅撥所)’라는 명칭이 보인다.

46) 총수(蔥秀) : 저본의 ‘총수(叢叢)’는 황해도 평산(平山)의 ‘총수(蔥秀)’의 오기로 고쳐서 번역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1권 <황해도(黃海道) 평산도호부(平山都護府)>에 총수산(蔥秀山)은 부의 북쪽 30리에 있으며 총수관(蔥秀館)은 중국 사신이 머무르던 곳이라고 한다.

初九日. 凌晨上程, 山路險惡, 山勢縈回. 至金川邑內, 日始明. 過鷄井, 豆石崖水門, 通舊金川, 渡猪諸谷橋. 其橋延袤爲, 初見洽滿一馬場, 是爲京畿、黃海兩道之界也. 至冷井店, 朝飯秣馬. 過蛇谷漆峴、鷹峯場店漆峴. 平山邑內前, 有太白山城. 南川 金郊驛、石宗撥所、蔥秀五十五里留宿.

■10일.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다. 소교점(燒橋店)·안성발소(安城撥所)·차령(車嶺)·세교(細橋)·병풍암(屏風巖)을 지나 서흥(瑞興, 황해도 중북부에 있는 군) 읍내까지 50리를 갔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며 그 평원의 넓은 들판을 살펴보니 논은 한 뼘기도 없고 온통 밭이었다. 남중(南中, 호남) 사람의 소견으로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논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애초에 수답(水畓)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이 논보다 낫기 때문일 것이다. 서흥읍은 민가가 뽁뽁이 늘어서 있었다. 경기(京畿)에서부터 지나온 고을은 송도(松都)를 빼고는 작은 고을이 아닌 곳이 없었는데, 이 서흥읍은 매우 큰 고을이었다. 북쪽에 있는 산성은 그 둘레와 터가 평산(平山)의 태백성(太白山城)에 비해서는 자못 웅장했으나, 송도(松都)의 대흥산성(大興山城)⁴⁷⁾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름은 태양(太陽)이라고 했다. 말에게 꼴을 먹인 뒤에 수월점(水越店)·차령(車嶺)·서산발소(西山撥所)·흥수원(興水院)·검수(黔數) 등 40리를 가서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대개 산천의 기세가 장파(長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는데, 혹 산세(山勢)가 좌우로 서로 이어지고 둘러쌓여 물이 흐르는 곳이 없었으니 매우 괴이하다. 그 가운데 움푹 파인 구멍이 있어 빗물이 쏟아지면 반드시 그 구멍으로 새니 괴이하고도 괴이하였다.

初十日. 凌晨上程. 過燒橋店、安城撥所、車嶺、細橋、屏風巖, 至瑞興邑內五十里. 朝飯秣馬, 觀其平原曠野, 無一片水田, 皆是田也. 以南中所見言之, 則作畓處處有之, 而初無水畓者, 蓋其田之所出, 勝於畓故也. 瑞之爲邑, 閭閻擲比. 自畿至此所過之邑, 惟松都外無非殘邑, 而此邑則極雄府也. 北有山城, 其周回基址, 比於平山之太白, 頗雄壯, 而不及松都之大興, 名謂太陽

47) 대흥산성(大興山城) : 개성부(開城府)의 천마산(天磨山)과 성거산(聖居山) 중간에 있는 석축(石築) 산성으로 1676년(숙종2)에 축조되었다.

云矣. 秣馬後, 過水越店、車嶺、西山撥所、興水院、黔數四十里留宿. 是日行九十里. 蓋山川氣勢, 太不及長坡, 或有山勢左右相連回抱, 無水流之處, 甚可怪也. 其中空陷有穴, 天水所注, 必漏其穴, 可怪可怪.

■11일. 닭이 울 때 길을 나서 함녕(咸寧)까지 20리를 갔다. 동쪽 하늘에 먼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비가 내린 데다가 흥 침지의 말이 복통이 있었으므로 막소에서 조금 쉬었다. 비는 개지 않았으나 말의 병에 조금 차도가 있어 길을 떠났다. 봉산(鳳山) 10리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여러 방법으로 말을 치료했으나 끝내는 나아질 기세가 없으므로 결국 흥 침지는 뒤쳐지고 말았다.

이에 시종 혼(混)과 길을 나섰더니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간신히 동선령(洞仙嶺)⁴⁸⁾을 넘었다. 조남발소(鳥南撥所)에 이르러 국수와 떡을 사 먹었는데, 봉산이 그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황주 읍내(黃州邑內)까지 10여 리를 가서 묵었다. 날도 저물었지만 바람이 차고 길이 얼어붙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조남(鳥南) 객점에 이르니 또한 명승지였다.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엄연히 석문(石門)이 되었는데, 바위의 형상은 층층이 바둑돌을 쌓아 놓은 듯하였고, 박계(朴桂)⁴⁹⁾로 지탱한 듯 중천에 높이 솟아 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 절묘한 곳이었다.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찬비 개니 세찬 바람 불어오고	冷雨初晴風力緊
동선령 위에 눈이 흩날리네	洞仙嶺上雪浮浮
밤낮없이 서도 ⁵⁰⁾ 길 떠나 얻은 것 무엇이런가	日夜西征何所得

48) 동선령(洞仙嶺) : 현재의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주군, 봉산군과의 분기점에 위치한 고개로 정방산(正方山)의 동남쪽에 있는 험준한 요새이며 서북의 관문이다. 옛날에 신선이 내린 고개라 하여 '동선령'이라 한다.

49) 박계(朴桂) :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서 네모진 모양으로 납작하게 빚어 바삭 말린 뒤에 기름에 튀겨 꼴을 바르고 그 위에 튀밥이나 깨고물을 앞뒤에 입힌 유밀과(油蜜果)를 말한다.

50) 서도 : 서도(西道)는 서관(西關)으로,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칭하는 말이다.

묘향산 풍물을 비단 주머니⁵¹⁾에 담았노라 香山風物錦囊捉

조남산성(鳥南山城)에서 또 한 수를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열성조 서쪽 변방 근심 예사롭지 않아	列聖西憂不等閑
동선령 아래에 겹겹의 관문 만들었네	洞仙嶺下設重關
산성의 초목 몇 겁이 지났던가	山城草木何年劫
초막살이 형편 풍년에도 고달프도다	峽戶生涯樂歲艱
정갈한 솔떡은 진귀한 맛을 뽐내고	精白松餠誇異味
맑고 단 차조술은 쇠한 얼굴 따뜻하게 하네	清甘秫酒煖衰顏
서툰 시 낭랑히 읊조리며 훌훌히 떠나니	浪吟拙句忽忽去
정겨운 풍경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리	風景多情待我還

十一日. 鷄鳴登程, 至咸寧二十里. 天始開東, 而雨作且洪馬腹痛, 故小歇幕所. 雨雖不霽, 馬病小差, 離發到鳳山十里, 朝飯秣馬. 多方治馬, 而終無差勢, 洪遂落後. 遂與混廉登程, 則寒風大作, 艱辛踰洞仙嶺. 至鳥南撥所, 買食麵餅, 蓋鳳山之名故也. 至黃州邑內四十里留宿. 日力雖暮, 而風寒冷凍, 無前進之路. 至鳥南之店, 亦名勝之地. 兩山相拱, 儼作石門, 而石狀疊積如累基, 如撐朴柱, 高挿半天, 信奇絕處也. 吟一絕, “冷雨初晴風力緊, 洞仙嶺上雪浮浮. 日夜西征何所得, 香山風物錦囊捉.” 鳥南山城又吟一律, “列聖西憂不等閑, 洞仙嶺下設重關. 山城草木何年劫, 峽戶生涯樂歲艱. 精白松餠誇異味, 清甘秫酒煖衰顏. 浪吟拙句忽忽去, 風景多情待我還.”

■12일. 몹시 춥다. 동틀 무렵 길을 떠나 구현(駒峴)까지 40리를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사치스럽고 화려한 여점을 내 평생 처음 보았다. 여막(旅幕)과

51) 묘향산……주머니 :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시를 비유한다. 원문의 ‘금탁(錦囊)’은 금낭(錦囊)과 같은 말로 시를 적어서 넣는 비단 주머니이다. 당(唐)나라의 시인인 이하(李賀)가 날마다 명승지를 다니면서 해(奚)라는 어린 종에게 비단 주머니[錦囊]를 지고 따르게 하여 시를 짓는 즉시 주머니에 담았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新唐書 卷203 文藝列傳下 李賀》

장랑(長廊)⁵²⁾은 기와집이 아닌 것이 없고, 그 규모를 보면 경성(京城)의 좋은 집 모양과 다름이 없었다.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출발하여 구현을 넘으니, 이곳은 바로 황해와 평안 두 도의 경계이다. 중화(中和)에 이르니 참으로 웅장한 고을이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재송원(栽松院)⁵³⁾에 이르러 대동강 동쪽 언덕의 장림(長林)을 보니 수십 리가량 되었다. 기자(箕子) 때에 심어 놓은 수목이라고 하는데 울창하게 숲을 이루었고, 길은 솟돌처럼 판판하였다. 서둘러 대동강을 건너 여점(旅店)에서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十二日. 極寒. 平明登程, 至駒峴四十里朝飯, 旅店之侈麗, 平生初見. 旅幕及長廊, 無非瓦家, 見其制度, 則無異京城好家舍模樣. 秣馬後, 離發踰駒峴, 則此是黃海·平安兩道之界也. 至中和, 則儘雄府也. 催鞭至栽松院, 見大同江東崖長林, 可數十里. 稱云箕子時所植樹木, 而鬱鬱成林, 其道如砥矣. 急渡大同江, 留旅店. 是日行百里.

■13일. 동틀 무렵 출발하여 노복과 말을 영변(寧邊)의 주인집으로 먼저 보내고는 시종 혼(混)과 대동루(大同樓)에 올라 두루 살펴본 뒤에 이어서 연광정(練光亭)⁵⁴⁾에 올랐다. 사방 벽에 걸린 제영시(題詠詩)가 선배들의 저술(著述)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그 풍 중에 “긴 성벽 한 면⁵⁵⁾에는 넘실넘실 흐르는 물이요, 큰 들판 동쪽 언저리에 점점이 솟아 있는 산이로세.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⁵⁶⁾라는 시구는 참으로 그림으로 그려낸 듯하였는데,

52) 장랑(長廊) : 대궐 문이나 집 대문의 안쪽 좌우에 죽 붙어서 벌여있는 행랑으로, 군사들이 입직하거나 하인들이 거처하였으며,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53) 재송원(栽松院) : 평양부 남쪽 11리 떨어진 곳에 있던 역원(驛院)인데, 원 주위에 소나무가 몇십 그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卷51권 평안도 평양부》

54) 연광정(練光亭) : 대동강변 덕바위(德巖)에 있는 정자로 고구려 때 세워진 이래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장방형 평면의 누정 두 채가 7자 모양으로 붙은 형태다. 관서8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풍치가 빼어나다.

55) 긴 성벽 한 면 : 저본의 ‘西’는 ‘一’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이 글귀는 연광정의 서쪽 주련에 쓰인 고려 때 장원(壯元)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의 <부벽루시(浮碧樓詩)>이다. 김황원이 부벽루(浮碧樓)에 올랐다가 이전 사람들의 제영(題詠)들을 취하여 모두 불살라 버리고 이 한 연(聯)을 얻었는데, 날이 다하도록 잊지를 못하자 통곡하며 내려왔다고 한다.

56)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이 부벽루에서 보는 황홀한 절경을 “긴 성벽 한쪽 면에는 넘실넘실

큰 글자로 새겨 두 기둥에 붙여 놓았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하루에 서쪽으로 백 리 길 달려왔건만	一日西驅百里餘
단군 기자 목은 자취 이미 폐허가 되었네	檀箕陳跡已丘墟
높다란 성은 천년을 흘렀고	高城閱劫千年後
넓은 벌판엔 시월 초순의 서리가 내렸네	大野經霜十月初
얼어붙은 먼 포구에 돛 그림자 차갑고	遠浦氷生帆影冷
물에 비친 장림의 언덕 풍경 멀도다	長林水落岸容疏
고요히 기댄 난간 옆으로 강물은 흘러가는데	欄頭靜倚江聲立
빼어난 경치 즐필로 다 형용하기 어렵구나	勝槩遍難拙筆書

다시 성 위의 영명사(永明寺) 부벽루(浮碧樓)에 올라가 모란봉(牧丹峯)과 을밀대(乙密臺)를 보고, 능라도(凌羅島)와 백운탄(白雲灘)이 보았다. 마침내 성 바깥쪽으로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석벽이 우뚝 솟아 있고, 가운데에 ‘청류벽(清流壁)’이라 새겨져 있었다. 큰 강을 굽어보니 길이가 10리 남짓 되었다. 장도문(長渡門)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가니 여염집이 즐비하여 송도보다 나았는데, 대개 그 내룡(來龍)⁵⁷⁾이 매우 완만하여 한 곳도 높은 봉우리가 없고 모두 평지행룡(平地行龍)⁵⁸⁾의 지세였다. 영주인 집에서 아침을 먹고 부벽루에서 <삼연(三淵)>⁵⁹⁾의 시에 차운하였다.

강물이요(長城一面溶溶水), 넓은 벌 동쪽 끝으로는 띄엄띄엄 산들일세(大野東頭點點山)”라고 시를 써내려 가다가 다음 시구가 떠오르지 않아 한심스러워서 통곡하며 붓대를 쥐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부벽루의 승경을 보고 지은 미완성의 시 두 연이 연광정 주련에 원문과 번역문으로 걸려 있다.

57) 내룡(來龍) : 산맥이 시작되는 곳을 가리키는 풍수 용어이다.

58) 평지행룡(平地行龍) : 행룡(行龍)은 풍수지리에서, 높고 낮은 산이 멀리 뻗어 나간 산맥을 이르는 말이다.

59) 삼연(三淵) :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익(子益)이다. 김수항(金壽恒)의 셋째 아들로 김창집(金昌集)과 김창협(金昌協)의 동생이다. 형 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가 진도의 배소(配所)에서 사사되자 형들과 함께 경기도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문집에 《삼연집》, 저서에 《심양일기(瀋陽日記)》, 《문취(文趣)》 등이 있다.

평양이 좋다는 말 예전부터 들었노니	昔聞平壤好
하루아침의 유람 하늘이 빌려준 것이라	天借一朝遊
산세는 황량한 벌판을 담아내더니	山勢容荒野
물빛은 높은 누각에게 양보하였네	水光讓高樓
누대에 머물며 을밀을 불러보고	臺留招乙密
우뚝한 벼랑에 서서 맑은 강물을 굽어보네	壁立俯清流
기이한 경치 따로 있노니	別有奇觀處
텅 빈 강의 달빛 배를 가득 채우네	江空月滿舟

칠성문(七星門)⁶⁰⁾에서 나와 채 1리(里)를 못 가 송림 안 기자묘(箕子墓)⁶¹⁾로 들어갔다. 묘 앞에 작은 비각(碑刻)이 세워져 있고, 기자묘 좌우에는 각각 두 석인(石人)을 세웠다. 묘 뒤에는 작은 돌을 세워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용미(龍尾)임을 알 수 있다. 마침내 뒤 기슭에서 큰길로 나와 순안(順安)까지 50리를 갔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길을 나서 청치천점(晴雉川店)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60리를 갔다.

十三日。平明離發，先送奴馬於寧邊主人家，遂與混僊，上大同樓周觀後，因上練光亭。四壁題咏，無非前輩著述，而其風則所謂，“長城西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一句真畫出矣，以大字刻之，付兩柱之中矣。遂吟一律，“一日西驅百里餘，檀箕陳跡已丘墟。高城閱劫千年後，大野經霜十月初。遠浦氷生帆影冷，長林水落岸容疏。欄頭靜倚江聲立，勝槩遍難拙筆書。”自城上又上永明寺。浮碧樓，見牧丹峯、乙密臺望，見凌羅島、白雲灘。遂自城外沿江而下，石碧斗起，中刻清流壁，俯臨大江，長可十里餘。自長渡門，入見城中，閭閻櫛比，優勝松都，而蓋其來龍甚婉嫩，無一處高峯，都是平地行龍矣。朝飯於營主人家，於浮碧樓，次三淵韻，“昔聞平壤好，天借一朝遊。山勢容荒野，水光讓高樓。臺留招乙密，壁立俯清流。別有奇觀處，江空月滿舟。”出自

60) 칠성문(七星門) : 평양 모란봉(牧丹峯)에 있는 성문으로, 전형적인 고구려성이다. 현재의 문루는 조선 숙종대에 개수한 것이다. 을밀대(乙密臺) 쪽에서 등성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성벽과 만수대에서 북쪽으로 뻗은 성벽을 여긋나게 쌓고, 그 두 성벽 사이에 가로세워 성문을 세웠다.

61) 기자묘(箕子墓) : 고대 기자 조선의 시조인 기자(箕子)의 묘로, 평양시 기림리(箕林里)에 있다.

七星門, 未滿一里餘, 自松林中, 入箕子墓. 墓前立小碑刻, 箕子墓左右, 各立兩石人, 墓後立小石, 是知爲龍尾也. 遂自後麓出大路, 至順安五十里. 秣馬登程, 至晴雉川店留宿. 是日行六十五里.

■14일. 어제 초저녁부터 눈이 내려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동틀 무렵에 출발하여 냉정발소(冷井撥所)에 이르러 요기를 한 다음, 숙천 읍내(肅川邑內)까지 15리를 가서 아침을 먹었다. 이날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게다가 길 위는 눈을 쓴 곳도 있으나 쓸지 않아 눈이 수북한 곳도 있어 말굽이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간신히 운암발소(雲巖撥所)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75리를 갔다.

十四日. 自昨日初昏雨雪, 達夜不止. 平明時發程, 至冷井撥所療飢, 至肅川邑內四十五里朝飯. 是日或雪或雨. 且路上或掃, 或不掃雪滿, 馬蹄不得任意前進, 可歎. 艱辛到雲巖撥所留宿. 是日行七十五里.

■15일. 밤을 새고 닭이 울 무렵에 눈이 비로소 개었는데 호랑이의 피해가 많은 곳이어서 일찍 출발하지 못하였다. 행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중원(中原)의 호랑이가 강을 건너와 안주(安州) 경내에서 죽인 사람의 수가 5~60명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먼동이 틀 무렵 길을 떠나 안주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한 다음, 백상루(百祥樓)⁶²에 올랐다. 백상루는 성의 서쪽계에서 청천강(淸川江)과 안주성 안의 천만 호 집들을 굽어보고 있으니, 참으로 빼어난 모습이였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서쪽 변방 빼어난 경관 참으로 끝이 없어	西塞奇觀儘不窮
안주에서 또 백상루의 풍광 얻었어라	安州又得百祥樓
청천강은 난간을 휘감고 넘실넘실 흘러가고	淸川繞檻鳴濤漲
묘향산은 난간에 임하여 자욱한 안개 떠 있네	香巖臨軒積氣浮

62) 백상루(百祥樓) :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에 있는 고려 시대의 누정으로 청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다. 백상루란 이름은 여기서 백 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볼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관서팔경 중 으뜸으로 꼽혔다.

부벽루 아래로 시원스레 툭 트여 거침이 없고	爽豁不居浮碧下
월파루 끝은 웅장하고 드높음 독차지하였네	雄高剩占月波頭
전생 인연에 행여 이런 강산 있었던가	夙緣倘有江山否
우리 동방 최고의 명승지 맘껏 보았도다	看盡吾東最勝區

망일문(望日門)으로 나와 청천강을 건너 수종점(樹宗店)까지 60리를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그대로 묵었다.

十五日. 達夜鷄鳴時, 雪始霽, 而虎患大盛, 不得早發. 行人皆言, “中原之虎, 渡江而來, 安州一境殺人, 迨五六十命”云. 開東登程, 至安州邑內, 秣馬療飢, 遂上百祥樓. 樓臨城西, 俯壓淸川江, 及城中千萬家, 儘勝區也. 遂吟一律, “西塞奇觀儘不窮, 安州又得百祥樓. 淸川繞檻鳴濤漲, 香巖臨軒積氣浮. 爽豁不居浮碧下, 雄高剩占月波頭. 夙緣倘有江山否, 看盡吾東最勝區.” 自望日門出, 渡淸川江, 至樹宗店六十里朝飯, 日已夕矣, 因留宿焉.

■16일. 일찍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영변(寧邊)에 이르렀다. 철옹성(鐵甕城)⁶³ 만노문(萬弩門)⁶⁴으로 들어가 곧바로 관문에 이르러 통자(通刺, 명함을 내놓고 면회를 청함)하고, 곧바로 대아(大衙)에 들어갔다. 그 성지(城池)를 보니, 참으로 천참(天塹, 천연의 요충지)의 관사(官舍)이며 웅장한 고을이었다.

十六日. 早發行四十里, 抵寧邊. 入鐵瓮城萬弩門, 直至官門通刺, 卽入大衙. 觀其城池, 儘天塹官舍, 眞雄府也.

■17일. 대아(大衙)에 머물렀다. 폭설이 내리고 몹시 추웠다.

十七日. 留大衙. 大雪極寒.

63) 철옹성(鐵甕城) : 고구려 때 처음 쌓은 본성·약산성과 조선 시대 때 쌓은 신성·북성 등 4개의 부분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 시대까지 서북 방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네 방향이 깎아지른 낭떠러지로, 항아리 입구와 같이 생긴 까닭에 철옹성이란 이름이 붙었다.

64) 만노문(萬弩門) : 영변 철옹성의 정문인 남문으로, 완월문, 고연주성문, 은주루라고도 불린다.

■18일. 오늘은 바로 약산(藥山)⁶⁵의 서장대(西將臺)⁶⁶에서 성조(城操, 성에서 하는 군사훈련)하는 날이다. 일단 천주사(天柱寺)⁶⁷로 들어가 잠시 쉬면서 추위를 피한 뒤, 채찍을 재촉하여 서장대로 올라갔다. 서장대는 약산(藥山)의 제일봉(第一峯) 서쪽에 있는데, 평안도 전역을 높이 누르고 있고 그 터가 매우 견고하여 철옹(鐵瓮)이라는 호칭에 딱 들어맞았다. 시력(視力)이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저 땅의 산천이 지척에 있는 듯하고, 북쪽으로는 묘향산(妙香山)⁶⁸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청천(淸川)을 내려다보았다. 가없이 너른 들판은 무릎 아래에 펼쳐져 있고 못 봉우리는 첩첩히 쌓여 마치 돌을 포개 놓은 것 같았다. 이날 3천 병마를 거느리고 성 위에 도열하여 종일토록 무예를 연마하였다. 마침내 올시 한 수를 읊었다.

관서에서 일찍 약산이 명성을 드날렸으니	西關夙擅藥山名
기모 ⁶⁹ 가 남긴 정채 귀신의 도끼로 이루어진 것이리	氣母留精鬼斧成
넓은 벌판에 그누가 천자나 우뚝 서는 것을 다투라	大野誰爭千尺立
끝없는 하늘에 만년토록 혼자서 지탱하였네	長天獨任萬年撐
형세는 제일가는 금성탕지 ⁷⁰ 의 요충지이며	形便第一金湯地

65) 약산(藥山) : 조선 태종실록에는 “약산은 사방이 높고 험하고 바위들이 깎은 듯이 서 있어 하늘이 만든 성이라고 일컬으며, 의주와 삭주, 강계 등 여러 고을 중에서 군사를 모으기에 적당한 곳”으로 기록돼 있다.

66) 서장대(西將臺) :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할 수 있도록 산성 서쪽에 높이 만든 대를 이르던 말이다.

67) 천주사(天柱寺) :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약산 동대(東臺)의 동남쪽에 있는 절이다. 1684년(숙종 10) 창건하였으며, 1722년(경종2) 중수하였다. 진달래가 온 산을 덮는 봄철에는 약산동대와 천주사가 꽃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하다 하여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불렸다.

68) 묘향산(妙香山) : 묘향산은 원래 영변군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향산군(香山郡)으로 분할되었다. 주봉은 비로봉(毘盧峰)이다. 기암과 괴봉 등 명승풍치가 둘레 160km나 되는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다. 원래 연주(延州) 고을에 속한 산이라는 뜻에서 ‘연주산’이라고도 하고 바위들이 유달리 희고 정갈하다는 의미에서 ‘태백산’으로도 불렸는데,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이 누운 향나무가 많아 사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산이라 하여 11세기부터 묘향산이라 하였다.

69) 기모 : 기모(氣母)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이다.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복희(伏羲)가 자연의 대도(大道)를 터득하여 기모(氣母)를 가지게 되었다.[伏羲得之, 以襲氣母.]”라 하였는데, 그 주석에 ‘기모’는 ‘원기(元氣)’라고 하였다. 《남명집(南冥集)》 <원천부(原泉賦)>

70) 금성탕지 : 원문의 ‘금탕(金湯)’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이다. 금으로 조성한 성과 끓는

보루와 장벽 ⁷¹ 은 돌도 없는 철옹성이라	保障無雙鐵瓮城
성상은 변방을 향한 근심 잊지 못하여	聖主邊憂猶不忘
태평 시대에도 군대를 단련시키네	太平時節鍊軍兵

밤 2경에 호령하고 횃불을 들어 올리니 멀리서 보면 화성(火城)과 같았다. 잠시 뒤 불이 꺼지자 파진(罷陳)하였다. 영감(令監)과 모든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나는 서운사(棲雲寺)에 가서 묵었다.

十八日. 是日即藥山西將臺城操日也. 先行入天柱寺, 暫憩禦寒. 遂催鞭上西將臺, 則臺在於藥山第一峯之西, 而高壓平安一道, 其基址甚固, 鐵瓮之號, 眞得題語也. 眼力雖不及, 而彼地山川, 如對咫尺, 北望香山, 西瞰淸川. 大野無邊膝下, 羣峯磊磊, 若累石之狀. 是日率三千兵馬, 羅列城頭, 終日鍊武. 遂吟一律, “西關夙擅藥山名, 氣母留精鬼斧成. 大野誰爭千尺立, 長天獨任萬年撐. 形便第一金湯地, 保障無雙鐵瓮城. 聖主邊憂猶不忘, 太平時節鍊軍兵.” 夜二更, 號令舉火, 遠若火城. 稍間掩火, 因罷陳, 令監及諸人皆下去, 而余則往留於棲雲寺.

■19일. 아침 전에 관아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동대(東臺)⁷²에 올라 좌우를 두루 살펴보았다. 대개 장대(將臺)⁷³와 다름이

물이 흐르는 해자라는 뜻으로, 견고한 성지를 말한다. 《한서》 권45 <괴통전(劄通傳)>에 “반드시 성을 고수하려면 모두 금성과 탕지로 만들어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71) 보루와 장벽 : 원문의 ‘보장(保障)’은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돌이나 흙 등으로 만든 견고한 보루와 장벽을 말한다. 춘추 전국 시대 조(趙)나라 간자양(簡子鞅)이 윤탁(尹鐸)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양(晉陽)을 다스리게 하자 윤탁이 “세금을 많이 거둘까요, 보장(保障)이 되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간자(簡子)가 보장이 되게 하라고 답한 고사가 있다. 《十九史略通攷 卷1 春秋戰國時代》《通鑑節要 卷1 周紀 威烈王》

72) 동대(東臺) : 영변의 약산(藥山)에 있다. 약산은 철옹성의 진산(鎭山)으로 주위의 다른 산에 비하여 가장 험준하며 경관이 뛰어난 승지(勝地)이다. 약산 제일봉을 중심으로 동쪽에 기암괴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가운데 5m가량 높은 곳에 주위가 20여m 정도의 반석이 마치 대(臺)와 같이 되어 약산동대(藥山東臺)라 이름한다. 관서팔경(關西八景)의 하나이다.

73) 장대(將臺) : 산성이나 성곽 등의 동쪽에 만들어 놓은 대(臺)를 말한다. 산성에는 대체로 동서남북의 네 군데에 장대가 있고, 장수들은 각 장대에서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지휘했다.

없었는데, 그 석벽이 우뚝 솟아 대를 깎아 만든 것 같으니 그 빼어난 경치를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다만 천지가 온통 눈발이고 날씨마저 추워서 오래 앉아 끝까지 구경할 수가 없으니 안타까웠다. 마침내 천주사로 내려갔다가 그길로 돌아왔다.

十九日. 朝前自衙中送人馬. 食後登東臺, 周觀左右, 盖與將臺無異, 而其石壁斗起, 奄成削臺, 其勝槩不可盡言, 而但雪滿乾坤, 日氣又寒, 不得久坐終遊, 可歎. 遂下天柱寺, 因爲下來.

▪20일. 아주 늦게 길을 떠나 여성령(呂星嶺)을 넘어 창고에서 묵었다. 이날 60리를 갔다.

二十日. 最晚發程, 踰呂星嶺, 宿於倉. 是日行六十里.

▪21일. 얼음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이때는 첫추위라서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붙지 않았다. 창고지기가 전하는 말을 들으니, 어제부터 사람과 말이 비로소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얼음이 이제 막 얼어서 맑기가 유리과 같아 맑은 모래와 흰 돌을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였으나 그 위태로운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먼저 노복과 말을 건너가게 한 뒤에 강을 건너 평지를 밟고 나서야 비로소 생기가 돌았다.

몇 마장을 지나지 않아서 신창(新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하행정(下杏亭) 주막에 이르러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곧바로 산으로 향했다. 절까지 10여 리를 채 못 갔는데 여승(輿僧)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에서 내려 수레를 타고 곧장 보현사(普賢寺)⁷⁴에 이르러 관음전(觀音殿)에서 묵었다. 이날 50리를 갔다.

二十一日. 乘冰渡江, 是時初寒, 冰不緊凝. 聞倉直所傳, 則自昨日人馬始渡

74) 보현사(普賢寺) : 평안북도 영변군 북신현면의 묘향산에 있는 절이다. 고려 초기인 968년(고려 광종19) 창건 당시에는 매우 작은 사찰이었다고 한다. 1028년(고려 현종19) 이후부터는 탐밀(探密)과 평화(宏廓)이 243칸의 건물을 이룩하여 묘향산의 대표적인 가람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역대 국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과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귀중한 기록들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당시 청허휴정은 경상도 양산의 통도사(通度寺)에 보관되어 있던 석가여래사리를 보현사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云, 而清水初合, 淨若琉璃, 明沙白石, 歷歷可數, 其危凜之狀, 不可盡言. 先渡奴馬, 後乃渡江, 方踏平地, 始有生意. 不過數馬場, 到新倉朝飯. 促鞭至下杏亭酒幕, 暫時秣馬, 卽爲入山. 未到寺十餘里, 輿僧已來待矣. 遂下馬乘輿, 直到普賢寺, 觀音殿留宿. 是日行五十里.

▪22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견여(肩輿)를 타고 안심사(安心寺)⁷⁵에 올랐다. 안심사는 보현사(普賢寺)보다 오래전에 지어진 절이다. 그 터는 비록 석봉에 있으나 사면의 토맥(土脈)이 매우 편안하였다. 절 뒤에는 무수한 부도와 석비(石碑)가 있는데, 대개 이 절을 창건한 이래로 명사(名師)들이 있으면 반드시 절에 부도(浮屠)를 세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상원암(上院庵)⁷⁶으로 올라갔다. 나머지는 향산일기(香山日記)에 들어 있다.

二十二日. 朝食後, 肩輿上安心寺. 比是普賢寺, 舊創之寺, 而其基址雖在石峯之中, 而四面土脈, 極爲安穩矣. 寺後立無數浮屠, 無數石碑, 盖此寺創始後有名師, 則必建浮屠於此寺故也. 遂上上院, 餘在香山日記中.

75) 안심사(安心寺) : 향나무와 사철나무[萬年枝, 冬靑]가 많은 묘향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찰이다. 사명은 “중국 선종사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가 2조 혜가대사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다”라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특히 고려 말기에 인도에서 온 고승 지공대사의 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76) 상원암(上院庵) : 향산 제1경이자 최고의 암자이다. 상원암의 현판은 추사 김정희(金正喜)의 유작이다. 상원암 본전 뒷마루에서 묘향산의 인호대 등을 조망하는 것을 으뜸으로 꼽는다. 본전 상량문에 의하면, 고려 말에 창건된 상원암은 1580년에 중창한 것을 1794년에 다시 중수한 것이다.

향산일기 香山日記

장차 묘향산에 들어가려 하면서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우리 동방 곳곳의 명승지 중에	東國名區某某處
약산의 풍경이 서관의 으뜸이라	藥山風景最西關
약산동대 ⁷⁷⁾ 의 장관이야 따질 것 없어라	壯觀不足東臺與
멀리 보이는 묘향산 백설로 단장하였네	望蜀香岑白雪間

나는 어렸을 적에 풍악산(楓岳山, 금강산)을 유람하였고, 중년에는 두류산(頭流山, 지리산)을 구경하였다. 우리나라의 산 중에 다만 두 산수의 사이를 살펴보았다. 비록 통취(通趣)는 없으나 식견이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금강산은 천하제일의 명산이요, 두류산은 그 다음인데 묘향산과는 어금지금하다.”라고 하였으므로 매번 묘향산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런데 남북은 아득히 떨어져 있고 길[道里]은 매우 멀어 거의 2천여 리에 가까우니, 이 산을 구경하는 남쪽 사람은 천백 중에 한둘도 안 될 것이다.

임자년 가을, 나는 선조(先祖)의 시호를 청하는 일로 경성(京城)에 와서 머물렀다. 그때 차동(車洞)의 민 영공(閔令公)이 영변의 수령으로 있었는데, 영변은 향산읍(香山邑)이다. 나에게 한번 구경 오라기에 마침내 10월의 날에 서쪽으로 길을 나섰다.

대개 우리나라 평안도의 승경은 묘향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경할 만한 곳이 많다. 송경(松京, 개성)은 옛 도읍으로 경물이 처량하고 평양은 웅부(雄

府)로 풍경이 아름다운데, 만월대(滿月臺)⁷⁸⁾와 취적교(吹笛橋)⁷⁹⁾는 송경의 명승지이고, 연광정(練光亭)과 부벽루(浮碧樓)는 평양의 승경지이다. 그 나머지 황주(黃州)의 월파루(月波樓)와 안주(安州)의 백상루(百祥樓)도 경치가 빼어난 곳인데, 모두 묘향산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 승경을 유람하는 일행들이 다 볼 수 있다. 약산의 동·서대나 철옹성 같은 곳도 모두 우리나라의 유명한 곳이다. 이 때문에 천 리 먼 길을 바람과 눈보라를 무릅쓰고 1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철옹성에 들어갔다. 곧바로 대아(大衙)로 갔더니 손님과 주인 간에 손을 맞잡고 매우 기뻐하였다. 다음날 운 좋게도 성안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3천 병마를 거느리고 원수대(元帥臺)⁸⁰⁾에서 조련하고, 이어서 약산 서장대(西將臺)에 오르더니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곧바로 약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랐다. 장졸들이 모두 벼랑을 타고 나무를 휘어잡으며 어관진(魚貫陣)을 이루고 산성으로 들어가 호령하였다. 이날은 눈바람이 몰아쳐서 몹시 추웠다. 성 위에서 열을 지어 진세(陣勢)를 펼치고 비로소 군령을 내려 호궤(犒饋)⁸¹⁾한 뒤 이어 등(燈)을 달게 하였다. 10리의 성 위에 일시에 횃불이 올라 불빛이 환하게 비추었는데, 흰 눈으로 뒤덮인 산에 불빛이 일제히 길을 밝혀 참으로 장관이었다.

해가 저물어 파진하자 일제히 하산하였는데, 나는 술기운이 오른 데다가 유람한 곳은 관서에서도 가장 칭송받는 곳임에라! 청천(淸川)의 큰 강은 빙 둘러있어 성 오른쪽에서 내려다보면 한 줄기 얼음 가닥 같고, 묘향(妙香)의 높은 산은 구불구불 뻗어 있어 성 왼쪽에서 멀리 바라보면 일천 송이 부용

78) 만월대(滿月臺) : 고려의 정궁으로, 919년 태조가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궐한 이래 1361년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다. 본래 특정한 명칭은 없었으나 고려 멸망 이후 조선시대부터 만월대라 불리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 공동발굴 사업이 8차례 진행되었다.

79) 취적교(吹笛橋) : 개성시 덕암리에 있었던 고려 시대의 돌다리이다. 천마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곱돌천과 개성시 용흥동에서 흘러내리는 마미천이 합쳐져 사천강으로 흘러드는 합수목으로, 개경 이남 지역에서 개경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에 세워져 있었다. 2007년 개성에서 주춧돌 및 지지돌 등이 발굴되었다.

80) 원수대(元帥臺) : 함경북도(咸鏡北道) 경성군(鏡城郡)에 있었다.

81) 호궤(犒饋) : 군사(軍士)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

77) 동대 : 약산의 제일봉에 있는 큰 바위로, 구룡강과 대령강, 멀리 묘향산 등을 조망하는 풍광이 아름다워서 이유대, 김소월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시의 소재로 삼았다.

(芙蓉)과 같으니, 참으로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요충지라 이틀만 하였다. 마침내 두세 사람과 서운사(棲雲寺)로 가서 묵었다.

다음날 동대(東臺)로 올라가니 평안도의 40여 개 주(州)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 마치 태산(泰山)의 개밋둑과 같았다. 북쪽 땅 천만여 리가 하늘 끝에 아득하여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어서 비록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통쾌한 승경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뒤로도 여러 날을 묘향산에 갔다.

將入香山一絕, “東國名區某某處, 藥山風景最西關. 壯觀不足東臺興, 望蜀香岑白雪間.” 余小也遊楓岳, 中歲看頭流. 吾東四山之中, 第觀其二山水之間. 雖無通趣, 而有識者稱, “金剛則天下第一, 頭流則次之, 香山則伯仲”云, 故每有一見香山之願, 而南北夙絕, 道里絕遠, 將近二千餘里, 則南人之看此山者, 則千百人無一二焉. 壬子秋, 余以先祖請謚事, 來留京城矣. 其時車洞 閱令公宰寧邊, 寧邊則香山邑也. 要余一觀, 故遂以十月之日, 登程西征. 蓋我國西關之勝, 除非香岳外, 亦有可觀處多. 松京舊都, 景物悲涼, 平壤雄府, 風景佳麗, 滿月臺、吹笛橋, 松京之名區也, 練光亭、浮碧樓, 平壤之勝槩也. 其餘黃州之月波樓, 安州之百祥樓, 亦皆名勝之處, 而皆在於香山路次, 則其遊玩之勝, 一行可盡. 至若藥山之東、西臺及鉄瓮城, 俱是吾東之有名處也. 是故千里長程, 觸冒風雪, 首尾十日, 始入鉄瓮城. 直入大衙, 則賓主之歡欣可掬, 而翌日幸城操也. 食後率三千兵馬, 組練於元帥臺, 因上藥山西將臺, 鳴囉擊鼓, 直上藥山之最上峯, 將士皆緣崖攀木, 便成魚貫陣, 入山城號令, 是日風雪極寒. 列成陣勢於城頭, 始以軍令犒饋, 因使懸燈. 十里城頭, 一時舉火, 火光照耀, 而白雪滿山之中, 火色齊明, 眞壯觀也. 日昏破陣, 一齊下山, 而余則爲酒力所困, 而且其遊玩之處, 爲關西最稱! 晴川大江周回, 於城右俯視, 若一帶水條, 妙香高山逶迤, 於城左遠望, 如千朵芙蓉, 眞所謂金湯之地也. 遂與二三人, 向棲雲寺留宿. 翌日上東臺, 則西關四十餘州, 羅列於眼下, 若泰山之丘垤. 北地千萬餘里, 幪杳於天外, 眼力所窮, 雖不得盡詳, 而其通爽之勝, 不可言矣. 其後數日入香山.

▪20일. 창고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日. 至於倉留宿.

▪21일. 얼음을 타고 청석강(靑石江)을 건넜다. 아침을 먹고 50리를 가서 향산동(香山洞) 아래에 이르니 보현사(普賢寺)의 승도 10여 명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말에서 내려 가마를 타고 사자항(獅子項)을 지나 관음전(觀音殿)으로 들어갔다. 보현사는 그 규모가 지극히 웅대하여 이른바 대웅전(大雄殿)과 만세루(萬歲樓), 요사(寮舍)⁸²⁾ 등이 모두 매우 사치스러웠다. 이날 보현사에서 머물렀다.

二十一日. 乘冰渡靑石江. 朝飯行五十里, 至香山洞下, 普賢寺僧徒十餘人, 先爲待候矣. 遂下馬肩輿, 過獅子項, 入觀音殿. 大抵此寺, 極其宏傑, 所謂大雄殿 萬歲樓及他寮舍, 皆極奢美矣. 是日留普賢寺.

▪22일. 눈이 올 듯한 기미가 있어 아침을 먹은 뒤에 급히 가마에 올라 안심사(安心寺)에 이르렀다. 안심사는 바로 보현사의 본찰(本刹)로, 고금(古今) 대사(大師)들의 부도가 모두 이 절의 뒤에 있었다. 부도는 상중하 3줄로 늘어서 있는데, 한 줄에 10여 개의 부도를 세워 놓기도 하였다. 가장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부도에는 반드시 석비(石碑)가 있었다. 상원암 뒤편을 올라다보니 일천 봉우리가 하늘에 솟아 있고 석벽이 줄지어 서 있어 제법 중향성(衆香城)⁸³⁾과 흡사하였다,

눈이 이미 내리기 시작하였으므로 급히 가마에 올랐다. 비탈길 잔교(棧橋)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는 가마를 멈추고 걸어서 갔다. 10여 리를 가니 길은 끊어지고 가파른 절벽인데 위에 쇠줄이 있어 아래로 6~7장 드리워져 있었다. 이에 승도들에게 먼저 올라가게 하고 나는 맨 나중에 줄을 잡고 올라갔다. 몇 걸음도 못 가서 다시 쇠줄이 있고 아래로 10여 장 드리워져 있으니 그 위태로운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간신히 위로 올라가니 석대(石臺)가 늠름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이름은 ‘인호대(引虎臺)’라고 하는데, 이곳에

82) 요사(寮舍) : 사찰의 승려들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83) 중향성(衆香城) : 금강산의 내금강 마하연(摩訶衍) 뒤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하얀 바위 봉우리들을 일컫는 명칭이다.

앉아 있으니 상원암(上院庵)⁸⁴⁾의 용연폭포(龍淵瀑布)⁸⁵⁾, 대야폭포(大也瀑布), 용각석(龍角石)과 암자 뒤의 늘어선 석각(石角)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두루 살펴보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이 보이지 않고 좌우로 깎아놓은 듯한 모습이 마치 풍악의 백운대(白雲臺)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차이와 기이한 자취가 백중의 형세라 말할 수 없다. 기 대사(機大師)⁸⁶⁾의 시에 차운하였다.

서쪽 변방의 산천 별안간에 지나가니	西塞山川瞥眼過
묘향산의 진경 찾으려는 숙원 오래 되었네	尋眞宿債妙香多
구름이 걷히니 형악이 선경을 드러내고	雲開衡岳探仙境
눈이 개니 용문이 기녀의 노래 들려주네	雪霽龍門聽妓歌
쇠줄에 바람 울어 아슬아슬하나 어찌할 수 없고	鐵索風鳴危莫奈
잔교에 빙판이 미끄러워 위태로우나 어찌하라	石棧冰滑險如何
돌아와 한밤중에 등잔불 피우고 앉았는데	歸來夜半挑燈坐
다행히 고승이 있어 줄구로 화답하네	幸有高僧拙句和

이어 인호대 위에서 수십 보를 걸어 깎아지른 벼랑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는데,

84) 상원암(上院庵) :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妙香山)에 있는 절로, 고려 시대에 창건됐다고 한다. 상원암 상량문에 의하면 1580년(선조13) 중창했다고 하며, 상원암 불량비(佛糧碑)에 의하면 1794년(정조18)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한다.

85) 용연폭포(龍淵瀑布) : 묘향산 상원동 등산길 산주폭포의 왼쪽에 있는 폭포로, 길이가 105m로서 북한에서 가장 긴 누운폭포이다. 묘향산의 법왕봉(法王峰, 1,391m)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직경 3m, 깊이 1.5m 되는 용소에 찻다가 넘치는 모습이 용의 비늘 모양을 닮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화하여 용소에서 용이 올라가면서 물이 넘친다는 의미로 용연폭포라고 하였다.

86) 기 대사(機大師) : 언기 대사(彦機大師, 1581~1644)로, 속성(俗姓)은 장씨(張氏), 본관은 죽주(竹州), 호는 편양당(鞭羊堂), 법랍(法臘)은 53세였다. 서산 대사(西山大師)의 법사(法嗣)로 금강산과 묘향산 등에 주로 거주하였다. 《白洲集 卷18 鞭羊堂彦機大師碑》 한편 신익성(申翊聖)의 《낙전당집(樂全堂集)》 권7 <유금강소기(遊金剛小記)>에는 “기공이 천덕암에 거주한다.[機公居天德菴]”라고 하였다. 11세에 출가하여 휴정(休靜)의 제자인 현빈(玄賓)에게 계(戒)를 받은 뒤, 금강산에서 교학과 함께 참선을 했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묘향산 휴정의 밑에서 선 수행을 했고, 이후 휴정의 법(法)을 이어받았다. 그 뒤 남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승들에게 깨달음을 점검받았으며, 금강산 천덕사(天德寺), 구룡산 대승사(大乘寺), 묘향산 천수암(天授庵) 등에서 선과 교를 함께 가르쳐 명성을 떨쳤다.

그 깎아지른 벼랑은 비탈지듯 산에 의지하여 한 갈래 돌길이 있었다. 마침내 상원암(上院庵)으로 들어가 풍경(風景)을 두루 살펴보니, 사방의 석벽(石壁)과 계단 아래 폭포(輻布)는 명승지라 할만 했다. 다만 바위 빛깔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고 폭포의 흐름도 웅장하지 않으니 이것이 흠이었다. 왼쪽에 있는 용각(龍角)은 대개 그 거석(巨石)이 10여 장(丈)이나 우뚝 서 있었는데, 위에는 두개 돌이 똑바로 서 있어 그 형상이 마치 용의 뿔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 것이다. 이때 쌓인 눈이 녹지 않은 데다가 또 한창 눈이 내리고 있어 곧바로 내원암(內院庵)으로 갈 수 없었다. 또 낙엽이 길을 뒤덮고 그 위로 눈이 쌓이니, 만약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위태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도로 내려왔다. 삼연(三淵)의 시에 차운하였다.

세 갈래 폭포는 온종일 쏟아져 내리는데	三道飛泉盡日春
불국의 첩첩산중에 ⁸⁷⁾ 들어와 앉았네	坐來佛國亂山中
만겁의 석대 신령한 범이 꿇어앉은 듯	臺留萬劫蹲靈虎
천 길 폭포수 성난 용이 일어난 듯하네	瀑落千尋起怒龍
층층바위는 신군 ⁸⁸⁾ 의 자취 굳게 닫고	層巖牢鎖神君跡
쌓인 눈은 속객의 자취 깊이 봉하였네	積雪深封俗客蹤
웃으며 묻노니 연하는 어느 누가 관장하는가	笑問烟霞誰管領
노승은 말없이 종을 울릴 뿐이라	老僧無語自鳴鍾

곧바로 향로전(香爐殿)으로 들어가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옥시(玉匙),⁸⁹⁾ 갈건(葛巾), 장삼(長衫)을 두루 보다가 관음전(觀音殿)으로 돌아와 앉아 요기하였다. 또 바로 견여(肩輿)를 타고 내원암(內院庵)으로 올라가 향산운사(香山雲舍)를

87) 첩첩산중에 : 원문의 ‘난산(亂山)’은 높낮이가 가지런하지 않게 여기저기 어지러이 솟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88) 신군 : 신군(神君)은 도가(道家)의 신(神)을 말한다. 《史記 封禪書》

89) 옥시(玉匙) : 옥시금약(玉匙金鑰)의 준말이다. 《황정경(黃庭經)》에, “옥시와 금약이 저대로 완고하다.[玉匙蕭身完鑿.]”라 했고, 그 주에, “옥시는 이[齒]요 금약은 혀라.”라고 하였다.

보았는데, 이는 곧 퇴계(退溪)의 친필(親筆)이다. 또 사암(思庵)의 시율(詩律)이 있었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사암이 시와 퇴계가 직접 쓴 글씨	思庵之律退溪筆
고요함 속에 어찌 이처럼 보배를 얻을 수 있으랴	靜也何能得此珍
당시의 충의가 오래토록 나무처럼 서 있고	忠義當年多樹立
성조에서 인재를 배양함 또한 산인이네	聖朝培養亦山人

묘향산의 경치로는 상원암(上院庵)과 이 암자가 가장 빼어났다. 암자 위에는 금강굴(金剛窟)이라는 석굴(石窟)과 서산(西山)이 수도(修道)하던 두어 칸의 초당이 있다. 인하여 벽에 쓰인 시에 차운하였다.

오래되고 기이한 바위 굴에	古奇巖竇屋
신명의 가호로 대사가 거쳐하였다네	神護大師居
이두석 ⁹⁰⁾ 에게 말을 건네 보고 싶으나	欲語鱗頭石
패엽서 ⁹¹⁾ 에 이끼의 흔적만 남아 있네	苔痕貝葉書

확 트인 그윽한 경치가 상원암에 못지않는데, 이 암자가 바로 서산(西山)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다. 서산의 시에도 차운하였다.

적막하여 산이 졸고 있는 듯한데	寂寞山如睡
도도나무 ⁹²⁾ 위에 새벽닭 소리 들려오네	桃都廳曉鷄

90) 이두석 : 원문의 '이두(鱗頭)'는 종이나 술, 궁궐의 섬돌, 비석 머리 등에 장식하는 뿔 없는 용의 형상으로, 벽사와 수호의 의미가 있다.

91) 패엽서 : 불서(佛書) 또는 불경(佛經)을 이른다. 고대 인도에서 패다라(貝多羅) 나무의 잎에 불경을 쓴 데서 유래하였다.

92) 도도나무 : 원문의 '도도(桃都)'는 전설에 나오는 나무 이름이다. 《현중기(玄中記)》에 의하면 "동남쪽에 도도산이 있고 그 위에 큰 나무가 있어 도도라 이름하는데, 가지끼리 서로의 거리가 삼천 리나 되고, 그 위에는 하늘 닭 한 마리가 있다. 아침 해가 떠올라 햇살이 이 나무를 비추면 하늘 닭이 울고 못 닭이 일제히 따라 운다.[東南有桃都山, 上有大樹, 名曰桃都, 枝相去三千里, 上有一天鷄, 日初出, 光照此木 天鷄則鳴,

서산대사 참 선정에 들어가니⁹³⁾
명성과 절조 법왕⁹⁴⁾과 나란하네

西山眞入定
名節法王齊

임진년의 거의(擧義)⁹⁵⁾도 이 암자에서 있었으니 이는 비단 지역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충의도 여기에 완전히 드러난 듯하였다. 그러나 천석(泉石)은 상원(上院)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밖의 단군굴(檀君窟)과 단군대(檀君臺)⁹⁶⁾는 특별히 기이한 모습은 없었지만, 다만 우적암(牛跡巖) 위에 소의 흔적이 완전한 데다가 송아지의 자취도 있으니 참으로 괴이하였다. 대개 그 산이 비록 기이한 풍경은 없었지만, 겹겹이 포개진 병풍과 같이 무수히 둘러싸여 있어 몇 리도 확 트인 곳이 없었고, 입석(立石)도 그다지 흥미로운 것이 없었다. 풍악(楓岳)으로 말하자면, 두류산(頭流山)과 백중(伯仲)의 형세라고 말할 수 없으니, 조금 낮더라도 새로 흥미로울 것이 없었다. 쌍계(雙溪)와 천석(泉石)의 아름다움은 다만 서북쪽 변방에 자리하여 우리나라의 보장의 형세가 되었으며, 또 남쪽으로 수백 리를 뻗어 평양 천 년의 도움이 되었으니, 그 기세의 웅건하고 광대함은 극에 달하였다고 할 만하다. 장차 묘향산을 나가며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눈이 가득 덮인 때 향악의 진경 찾으니
강산은 온통 옥빛으로 들쭉날쭉하여라

香岳尋眞雪滿時
江山一色玉參差

群鷄皆隨之鳴.]”라고 하였다. 《太平御覽 卷918》

93) 선정에 들어가니 : 원문의 '입정(入定)'은 불교 용어이다. 중이 고요히 앉아 마음을 수렴하여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을 입정이라고 한다.

94) 법왕 : 부처님은 법문의 주인이며, 중생을 교화함에 자유자재하다는 뜻으로 본래는 부처님을 지칭한 말이었으나 진리를 깨달은 높은 스님에게도 쓴다.

95) 임진년의 거의(擧義) : 1592년에 왜적이 침입하자 절에 있던 73세의 서산대사(西山大師)는 전국에 격문을 보내 의승(義僧)이 일어나도록 독려했다. 자신도 묘향산을 중심으로 의승을 모아 평양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96) 단군굴(檀君窟)과 단군대(檀君臺) : 단군굴은 묘향산 향로봉 남쪽에 위치한 아란봉 아래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단군이 나라를 다스리며 머문 곳이라고 한다. 단군대는 두타봉 서쪽에 위치하며 단군굴에서 산정상으로 1리 정도 떨어져 있다. 주변의 높고 험한 봉우리가 단군대를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어서 세상에서는 단군의 강림처로 전한다.

이천 리 밖 호남에서 온 나그네
이곳에 다시 올 날 기약할 수 없구나

二千里外湖南客
此地重來未可期

안심사, 다야폭, 인호대, 상원암, 산주폭, 용연폭, 천신폭, 용각석, 불영대, 조원암, 내보현, 보발암, 단군굴, 단군대, 만폭동, 우족대, 강선대, 금강굴, 사리각, 내원암, 무릉폭, 견불암, 불지암, 천주석, 국진굴, 극락전, 영산전, 대장전, 대웅전, 만세루, 금화봉, 설령.

二十二日. 有雨雪之意, 食後遂急上輿, 至安心寺. 安心卽此寺本刹, 而古今大師之浮屠, 皆在此寺之後. 列上中下三行, 而一行或立十餘浮屠, 而最所知名者, 則必有石碑矣. 仰觀上院之後, 千峯插天, 石壁列立, 頗似衆香城矣. 雪已作之, 遂急上輿. 其磴路棧橋之最危處, 息輿徒步. 行十餘里, 路絕壁立, 上有鉄索, 下垂六七丈. 於是使僧徒先上, 余卽最後緣索而上. 不及數步, 更有鉄索, 下垂十餘丈, 其危凜不可言. 艱辛緣上, 則有石臺起, 名曰引號臺, 坐此則上院庵、龍淵瀑、大也瀑、龍角石及庵後列立之石角, 一一可詳矣. 徘徊周觀, 則下瞰無地, 左右如削, 彷彿若楓岳之白雲臺, 而其大小之殊, 奇異之跡, 不可謂伯仲矣. 次機大師韻, “西塞山川瞥眼過, 尋眞宿債妙香多. 雲開衡岳探仙境, 雪霽龍門聽妓歌. 鉄索風鳴危莫奈, 石棧氷滑險如何. 歸來夜半挑燈坐, 幸有高僧拙句和.” 因自臺上行數十步, 從削崖而前, 盖其削壁依山如坂, 有一條磴路. 遂入上院庵, 周觀風景, 則其四面石壁, 及階下瀑布, 可謂名區, 而但其石色不甚潔白, 瀑流亦不雄壯, 是可欠也. 左有龍角, 盖其巨石屹立十餘丈, 上有兩石直立, 狀如龍角故云爾. 是時積雪未消, 且時方雪來, 萬無直向內院之路. 且落葉塞路, 上覆積雪, 若失一足, 則危不可言云, 故還爲下來. 次三淵韻, “三道飛泉盡日春, 坐來佛國亂山中. 臺留萬劫蹲靈虎, 瀑落千尋起怒龍. 層巖牢鎖神君跡, 積雪深封俗客蹤. 笑問烟霞誰管領, 老僧無語自鳴鍾.” 直入香爐殿, 遍觀西山大師玉匙及袈葛巾長衫, 還坐觀音殿療飢. 又卽肩輿上內院, 見香山雲舍, 是卽退溪親筆. 又有思庵詩律. 遂吟一絶, “思庵之律退溪筆, 靜也何能得此珍. 忠義當年多樹立, 聖朝培養亦山人.” 此山之景, 上院及此庵, 最爲名勝. 上有石窟, 名謂金剛窟, 數間菴, 卽西山修道之處也. 仍次壁上韻曰, “古奇巖竇屋, 神護大師居. 欲語螭頭石,

苔痕貝葉書.” 通爽幽曩, 不下於上院, 而此菴卽西山久留之所. 又次西山韻曰, “寂寞山如睡, 桃都廳曉鷄. 西山眞入定, 名節法王齊.” 且壬辰舉義, 亦於此菴, 非特地之爲好, 其人之忠義, 如宛見於此矣. 然而泉石不及於上院, 而其他檀君窟、檀君臺, 別無奇異之景, 但牛跡巖上有牛跡宛然, 且犢牛之跡, 是可怪也. 盖其爲山, 雖無奇景怪態, 而恰似屏障之疊重, 回抱無數, 無數里通爽之處, 且立石甚無興味. 若論於楓岳, 則不可謂伯仲於頭流, 則稍勝而無新興. 雙溪泉石之美, 但居西北極邊, 爲吾東保障之勢. 且南走數百里, 爲平壤千年之都, 其氣勢之雄健磅礴, 可謂極矣. 將出香山吟一絶曰, “香岳尋眞雪滿時, 江山一色玉參差. 二千里外湖南客, 此地重來未可期.” 安心寺, 多也瀑, 引虎臺, 上院菴, 散珠瀑, 龍淵瀑, 天神瀑, 龍角石, 佛影臺, 祖院菴, 內賢贊, 賓鉢菴, 檀君窟, 檀君臺, 滿瀑布, 牛足臺, 降仙臺, 金剛窟, 舍利閣, 內院菴, 舞凌瀑, 見佛菴, 佛智菴, 天柱石, 國陣窟, 極樂殿, 靈山殿, 大莊殿, 大雄殿, 萬歲樓, 禁火峯, 雪嶺.

■23일. 아침을 먹은 뒤에 승려들과 만세루(萬歲樓)에 다시 올라가서 제도를 두루 살펴보았다. 천왕문(天王門)에서 나와서 하행정(下杏亭) 주막 앞에 도착하니, 송(宋)씨 성을 가진 추봉(秋奉)이라는 자가 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에게 머물러 기다리라 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말에서 내려 그 아들과 주막으로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이른바 송 풍헌(宋風憲)이란 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구워 온 산평 1마리와 소주 1병을 즉시 앞에 내놓았다. 그에게 산에 올라갔을 때, 송(宋)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근처에 산다는 말을 듣고 따라간 하인에게 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송씨가 이를 듣고 와서 기다렸던 것이다. 말이 분명치는 않지만 그의 족파(族派)는 강계(江界)⁹⁷⁾에서 3대 전부터 이곳에 와 살면서 지금은 관인(關人)

97) 강계(江界): 강계는 오늘날 북한 자강도에 속하지만, 1800년대에는 평안북도에 속하였다. 그 이전에 강계는 북방의 군사요충지로 1413년 강계도호부가 되었다. 지금도 강계는 자강도의 도 소재지이다.

이 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관인(關人)이라는 것은 역리(驛吏)⁹⁸의 직무이다.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바로 헤어지고 신창(新倉)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三日. 食後與諸僧, 更上萬歲樓, 周觀制度. 遂自天王門出行, 到下杏亭酒幕之前, 則有宋姓人秋奉者, 來待已久, 而使其子留待, 渠則還入其家矣. 遂下馬入幕, 暫時談話之際, 所謂宋風憲者來見, 見其爲人, 乃完福人也. 預炙生雉一首, 燒酒一壺, 卽爲前進. 盖再昨上山時, 聞宋姓人近住之由, 有欲見之意於隨去下人矣, 宋也聞此, 而來待故也. 聞其族派, 則語不分明, 而云自江界三世前來接此土, 方爲關人云, 所謂關人, 是驛吏役也. 小語後, 卽爲告別, 至新倉留宿.

■24일. 창고에서 아침을 차려 주어서 일찍 아침을 먹었다. 청석강(靑石江)이 반쯤 얼었기 때문에 곧바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 옛 동래(東萊)⁹⁹에 이르러서 다리로 강을 건넜다. 수문동(水門洞)¹⁰⁰에서 여선령(呂仙嶺) 큰길로 나와 곧바로 관아로 들어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二十四日. 倉庫進朝飯, 早食後, 以靑石江之半冰, 不得直渡, 沿流而下. 至舊東萊, 從橋渡江. 自水門洞, 出呂仙嶺大路, 直入衙中, 日已夕矣.

■25일. 관아에서 머물렀다.

二十五日. 留衙中.

■26일~27일. 관아에서 머물렀다.

二十六日七日. 留衙中.

98 역리(驛吏) : 역(驛)에 소속되어 신역(身役)의 하나인 역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아전(衙前)·이서(吏胥)이다. 역리의 직역(職役)은 군사 정보나 왕명을 전달하거나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가 중요한 업무였다.

99 동래(東萊) : 평안북도 구장군 구장읍의 옛 이름이다. 《영변군지》에, “영변대도호부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나무숲이 우거진 산천경계가 좋은 고장이라 하여 동녘의 숲지대라는 뜻으로 동래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100 수문동(水門洞) : 평안북도 운전군 옥야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28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나서 만노문(萬弩門, 철옹성의 정문인 남문)을 나와 수종(水宗)까지 40리를 가서 여막(旅幕)에서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오후에 길을 떠났다. 소착(蘇鑿)이 반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 내려가 청천강(淸川江)을 건너고, 안주(安州) 읍내에서 머물렀다. 이날 70리를 갔다.

二十八日. 未明登程, 出萬弩門, 至水宗四十里旅幕, 中火秣馬. 午後發程, 以蘇鑿之半冰, 挾流而下, 渡淸川江, 留安州邑內. 是日行七十里.

■29일. 사람과 말이 너무 많은 데다가 관짐[官卜]이 너무 무거워 초참(初站)까지 빨리 달려갈 수 없었다. 이에 아침을 먹고 동이 틀 무렵에 출발하여 숙천(肅川) 읍내까지 60리를 가서 묵었다.

二十九日. 人馬衆多, 且官卜頗重, 不得初站疾驅, 因爲朝飯, 平明發行, 至肅川邑內六十里留宿.

■30일. 한밤중에 말에게 꼴을 먹였다. 닭이 울자 출발하여 30리 냉정발소(冷井撥所)에 이르니 먼동이 텅다. 순안 읍내(順安邑內)까지 6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갈현(葛峴)에 이르러 홍상룡(洪尙龍)과 서로 작별하였는데, 말이 지금 절뚝거리고 있으니 가탄스럽다. 평양(平壤) 영주인(營主人)¹⁰¹ 집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은 110리를 갔다. 오늘 동지사(冬至使)의 행차가 평양영(平壤營) 안에 들어와 매우 소란스러웠다.

三十日. 中夜秣馬. 鷄鳴發行, 行三十里冷井撥所, 東方始明. 至順安邑內六十里, 朝飯秣馬. 至葛峴, 與洪尙龍相別, 而鬣者現有蹇病, 可歎. 至平壤營主人家留宿. 是日行一百十里, 而冬至使行次, 今日入平壤營中, 甚擾矣.

■11월 1일. 강을 건너는 것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동틀 무렵 출발하여 대동루(大同樓) 앞에 이르러 요기하고 강을 건너 중화(中和)까지 50리를 가서 묵었다.

101 영주인(營主人) : 감영(監營)에 딸린 이속(吏屬)으로, 각 고을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던 사람을 말한다. 영저리(營邸吏)라 이르기도 한다.

十一月初一日. 以越江之遲滯, 平明發行, 至大同樓前, 療飢渡江, 至中和五十里留宿.

■2일. 한밤중에 말에게 꼴을 먹이고 닭이 울기 전에 출발하여 황주(黃州, 황해도 북쪽에 있는 군)까지 50리를 갔는데,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월파정(月波亭)¹⁰²에 올라 강산(江山)을 구경하다가 조남(鳥南)에 이르러 요기했다. 눈비가 쏟아지므로 채찍을 재촉하여 동선령(洞仙嶺)¹⁰³을 넘고 함룡(咸龍)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初二日. 夜半秣馬, 鷄鳴前發行, 至黃州五十里, 尙未開東. 登月波亭, 遊觀江山, 至鳥南療飢. 雨雪大作, 促鞭踰洞仙嶺, 至咸龍留宿. 是日行百里.

■3일. 밤사이 눈이 그쳤다. 한밤중에 말에게 꼴을 먹이고 서흥(瑞興)까지 60리를 가니 아침 해가 비로소 떠올랐다. 날씨가 몹시 추워서 오후에 길을 나섰다. 총수(叢數)까지 50리를 가서 묵었다. 내려갈 때는 저물녘에 이 점(店)에 들어가 새벽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산수(山水)를 두루 구경할 수 없었다. 지금 푸른 벼랑의 청강(淸江)을 보니 또한 아름다운 강산(江山)인데, 관사(館舍)만이 우뚝 서 있고 거주하는 백성들은 모두 탄막(炭幕)살이로 살아가니 산수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였다.

初三日. 以夜間雪霽. 夜半秣馬, 至瑞興六十里, 朝日始紅. 日氣極寒, 午後登程, 至叢數五十里留宿. 下去時, 黃昏入此店, 曉頭發行, 故未得周觀山水矣. 今觀蒼壁淸江, 亦好江山, 而但館舍巍然, 居民皆是以炭幕姿生, 惜乎山水不得主人也.

■4일.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는 데에 겁이 났다. 닭이 울자 말에게 꼴을 먹였다. 평산 읍내(平山邑內)까지 25리를 가니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응봉(鷹峯) 주막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102 월파정(月波亭) : 황해도 황주성 동쪽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103 동선령(洞仙嶺) : 황해북도 봉산군 구읍리의 서북쪽 사리원시, 황주군, 봉산군과의 분기점에 있는 영으로, 옛날 신선이 내린 고개라 하여 동선령이라 하였다 한다.

청석동점(靑石洞店)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105리 길을 갔다.

初四日. 以昨日極寒, 惻於早發. 鷄鳴秣馬. 至平山邑內二十五里, 日始明矣. 至鷹峯幕, 朝飯秣馬. 至靑石洞店留宿. 是日行一百五里.

■5일. 닭이 울자 출발하여 오정문(五井門)에서 송경(松京)까지 25리를 가서 아침밥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시종 혼(混)과 춘백(春白)이 송경(松京)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 한참 지체되었는데, 일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나만 먼저 출발하였다. 청파(靑坡)까지 3리쯤 못 가서, 우연히 흥양(興陽) 사람 신막금(申莫金)을 만났다. 천 리 밖 길에서 고향(故鄕) 사람을 만났으니, 그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날이 저문 까닭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고 즉시 동파 여점(東坡旅店)으로 향하였다. 해가 다 넘어가서 더 길을 갈 수 없을 듯했는데, 임진강(臨津江)이 반쯤 얼어붙어 무사히 건너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얼음을 깨서 운항하는 배가 있다고 하므로 급히 서둘러 나룻가에 달려가니 해가 누엿누엿 어두워지고 있었다. 즉시 강을 건너 임진점(臨津店)에 머물렀다. 이날 95리를 갔다.

初五日. 鷄鳴發行, 自五井門入至松京二十五里, 朝飯秣馬. 盖以混僣及春白, 有松京處置事, 移時遲滯, 而事不趁時區處, 故不得已, 余獨先發. 至靑坡未及三里許, 忽逢興陽人申莫金. 千里之外路, 逢故鄕人, 其喜幸勝言? 以日暮之故, 不得久話, 卽向東坡旅店, 則日力似不可前進, 而聞臨津半冰, 利涉極難矣. 特以敲氷行船云, 故急急馳至津頭, 日將黃昏矣. 卽爲渡江, 留臨津店. 是日行九十五里.

■6일. 초저녁부터 눈발이 펄펄 날리다가 닭이 울자 개였고, 또 함께 머무는 사람이 자못 수상했기 때문에 동틀 무렵 출발하였다. 파주(坡州) 서흥치(瑞興峙)를 지나다가 영변(寧邊)으로 가는 상겸(尙謙)과 점산(占山)을 만나 말을 멈추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벽제(碧蹄)까지 6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이날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폭설이 내렸다. 가는 길의 고생스러운 상황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오후에 길을 재촉하여

공장 차동(車洞)으로 들어가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말을 먹일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점(旅店)에 노복과 말을 보냈다. 이날 100리를 갔다.

初六日. 自初昏時, 雨雪浮浮, 鷄鳴時開霽, 而且同留之人, 頗殊常故, 開東發行. 過坡州 瑞興時, 逢尙謙及占山之去寧邊, 便駐馬暫話. 至碧蹄六十里, 朝飯秣馬. 是日大雪沒膝, 其行路艱辛之狀, 何可勝言. 午後促行, 直入車洞, 日已昏黑矣. 以喂馬之無路, 不得已送奴馬於旅店. 是日行百里.

▪7일. 눈과 추위가 크게 일어나 출입할 수 없어 종일 차동에 머물렀다.

初七日. 雪寒感大作, 不得出入, 終日留車洞.

▪8일. 이날은 바로 동짓날이다. 천 리 먼 길 떠나온 나그네가 다시 아름다운 절기를 만나 감회가 절로 간절하므로 주동(鑄洞)에 가서 군택(君澤)을 불러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初八日. 是日即冬至日也. 千里作客, 再逢佳節, 感意自切, 往鑄洞要君澤, 終日談話而來.

▪9일. 동이 틀 무렵, 궐내에서 소찰(小札)이 도착하였는데, 주인 영감이 전 완백(完伯)으로 있을 때 죄인이 첩을 거느린 일로 삭직까지 당하였다니, 한탄스럽다. 담종(痰腫)에 독기(毒氣)가 마구 퍼진 데다가 극심한 추위로 종일 차동에서 머물렀다.

初九日. 平明自闕內小札來到, 主人令監, 以前完伯時罪人率妾事, 至於削職, 可歎. 痰腫大端肆毒, 且以極寒, 終日留車洞.

▪10일. 크게 눈이 내렸다. 종기 치료 때문에 편치 않아서 경모궁(景慕宮) 조한(趙漢)의 막사에 와서 머물렀다. 진 주부(陳主簿)를 불러서 종일 얘기를 나누었다.

初十日. 大雪. 以瘰癧治療之不安, 來留於景慕宮 趙漢之幕, 要來陳主簿, 終日談話.

▪11일. 밥을 먹은 뒤에 종기를 터트리니 농이 많이 나왔다. 이날 밤에 또 큰 눈이 내렸다.

十一日. 食後, 破瘰濃汁大出. 是夜又大雪.

▪12일. 몹시 추웠다.

十二日. 極寒.

▪13일. 오늘도 몹시 추웠다. 주동(鑄洞)과 차동(車洞)에 사내종을 보내면서 화살처럼 빨리 돌아오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날씨가 추운 데다가 종기는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가망이 없고, 추운 날씨에 길을 떠나 바람에 상할까 염려스러워 덩그러니 여막(旅幕)에 앉아 있으니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마음이 매우 답답하여 큰 병이 될 것만 같으니, 이를 장차 어찌할꼬. 十三日. 又極寒. 送奴於鑄洞及車洞, 而還歸思如矢, 而日寒如此, 且瘰氣無時日快復之望, 當寒作行傷風, 可慮. 塊坐旅幕, 此何景色. 思之鬱鬱, 若成大病, 此將奈何?

▪14일. 밥을 먹은 뒤에 차동으로 갔다.

十四日. 食後往車洞.

▪15일. 주동에 가서 제종(諸宗)들을 만나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十五日. 往鑄洞見諸宗, 終日談話而來.

▪16일. 아침 전에 주동에서 사내종을 보냈기에 보전(譜錢, 족보 만드는 비용) 60냥을 보냈다.

十六日. 朝前自鑄洞送奴, 故送譜錢六十兩.

▪17일. 이날은 바로 조비(祖妣)의 제삿날이다. 마음이 매우 심란하여 하루 종일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밤에 꿈자리도 뒤숭숭하였으니, 아마도 집안 걱정 때문인 것 같다. 밤에 일어나 홀로 앉아 있다가 한참 뒤에 다시 누웠다.

十七日. 是日卽祖妣祀日也. 懷事甚惡, 終日不出一步. 夜夢又煩亂, 想必家中之思慮所致也. 夜起獨坐, 移時就枕.

▪18일. 흐리고 쌀쌀하였다. 명릉(明陵)¹⁰⁴에 사내종과 말을 보냈는데, 이는 이 석사(李碩士)가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十八日. 陰冷. 送奴馬於明陵, 李碩士之請送也.

▪19일. 내일 출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내간(內間, 안채)에서 만류하고 심지어 기다리기까지 하였다. 이날 또 보전(譜錢) 10냥을 보내면서 그대로 머무는 것으로 정하였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화살 같고 답답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十九日. 決以明日發行矣, 自內間挽止, 甚至且有所待者. 是日又送譜錢十兩, 因留爲定. 歸思如矢之中, 鬱不可言.

▪20일.

二十日.

▪21일.

二十一日.

▪22일.

二十二日.

▪23일. 10관(貫)의 동(銅)을 사수(士洙)에게 보냈다.

二十三日. 送十貫銅於士洙.

104) 명릉(明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번지 서오릉 안에 있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두 번째 계비 인원왕후의 무덤이다.

▪24일.

二十四日.

▪25일. 호조(戶曹)에 가서 좌랑(佐郎)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二十五日. 往戶曹, 與佐郎, 移時談話而來.

▪26일. 눈이 왔다.

二十六日. 雪.

▪27일.

二十七日.

▪28일. 군택(君澤)과 기지(器之)가 왔다 갔다.

二十八日. 君澤及器之, 來見而去.

▪29일. 돈 4냥을 기지에게 빌려 왔다

二十九日. 錢四兩貸來於器之.

▪12월 1일.

十二月初加.

▪2일. 눈이 내렸다.

初二日. 雪.

▪3일. 기지와 예조에 가서 안일득(安一得)을 만나고 왔다.

初三日. 與器之往禮曹, 見安一得而來.

▪4일.

初四日.

▪5일. 내가 내려가지 못하므로 설을 쇠기 전에 종과 말을 보내고 기지의 돈을 도로 갚았다. 며칠 전부터 기지가 날마다 와서 머물렀는데, 비록 나그네의 심정을 위로한 것이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내려갈 것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섭섭하였다.

初五日. 以吾之不得下去, 於歲前送奴馬, 器之錢還報. 自數日器之連日來留, 雖慰客懷, 非久下去云, 預爲缺然.

▪6일.
初六日.

▪7일. 눈이 내렸다.
初七日. 雪.

▪8일.
初八日.

▪9일.
初九日.

▪10일. 중학(中學)¹⁰⁵에서 학제(學製)¹⁰⁶를 실시하였으므로 일찍 호조(戶曹)에 나가 정해진 의막(依幕)에 머물러 기다렸다. 한참 지나서 파장하였으므로 곧바로 나오려고 할 때에 도로 호조에 들어가 효묘(孝廟) 영묘(英廟)의 어필을 봉심하고 돌아왔다.

初十日. 設學製於中學, 故早往戶曹, 所定依幕留待. 移時破場, 故卽爲出來

105) 중학(中學) : 선비를 가르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중학(中學)의 사학(四學)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

106) 학제(學製) : 성균관 대사성이 매년 사계절에 사학(四學)의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이다. 제술(製術)과 강서(講書)를 시험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바로 생진시(生進試)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之際, 還入戶曹, 奉審孝廟、英廟御筆而還.

▪11일. 주동(鑄洞)으로 갔으나 교리(校理)가 입직 중이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치회(釋會) 형제만 보고 왔다. 며칠 전부터 점점 추워지고 있다.
十一日. 往鑄洞, 校理入直, 故不得相面, 只見釋會兄弟而來. 自數日來漸寒.

▪12일.
十二日.

▪13일. 영감(令監)이 동의금(同義禁)¹⁰⁷이 되었다.
十三日. 令監爲同義禁.

▪14일.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에 관(館)에 들어갔다가 저녁때에 비를 무릅쓰고 돌아왔다.
十四日. 雨. 早朝入館, 夕時冒雨而來.

▪15일.
十五日.

▪16일. 영감(令監)이 들어왔다.
十六日. 令監入來.

▪17일. 눈이 내렸다. 주동(鑄洞)에 다녀왔다. 사수(士洙)와 귀남(龜南) 종인(宗人)이 와서 보고 갔다.
十七日. 雪. 往鑄洞而來. 士洙及龜南宗人, 來見而去.

107) 동의금(同義禁)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조선 시대 의금부(義禁府)의 종이품 벼슬이다.

▪18일. 눈이 내렸다. 오늘은 도목 정사(都目政事)¹⁰⁸를 하는 날인데, 영감(令監)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十八日. 雪. 是日爲都政日也, 令監爲大司憲.

▪19일.

十九日.

▪20일.

二十日.

▪21일.

二十一日.

▪22일. 눈이 내렸다.

二十二日. 雪.

▪23일.

二十三日.

▪24일. 폭설이 내렸다.

二十四日. 大雪.

▪25일.

二十五日.

108) 도목 정사(都目政事) : 관원의 치적을 종합하여 심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영전시키거나 좌천 또는 파면시키는 것.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데 6월에 하는 것을 권무정(權務政), 12월에 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다.

▪26일.

二十六日.

▪27일. 영감(令監)이 헌장(憲長)¹⁰⁹이 되었으므로 이날 주동(鑄洞)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二十七日. 令監爲憲長, 是日往鑄洞, 談話而來.

▪28일. 귀남(龜南) 종객(宗客)이 왔다 갔다.

二十八日. 龜南宗客, 來見而去.

▪29일. 새벽에 군택(君澤) 부자가 왔다 갔다.

二十九日. 曉頭君澤父子, 來見而去.

▪30일. 일찌감치 사헌부 유사를 보내 경주인(京主人)¹¹⁰과 흥양(興陽) 호장(戶長)을 불러오게 했는데, 유사가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가 애초에 부르러 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분통이 터졌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갔다. 오는 길에 군택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오후에 경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호리(戶吏)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괴이하고 괴이하다.

晦日. 早送憲府司有, 招來京主人及興陽戶長, 而司有者, 以不來爲言, 可知其初不往招, 憤憤. 食後往鑄洞. 來路逢君澤, 立談而來. 午後京主人來言, “戶吏不來”云, 可怪可怪.

109) 헌장(憲長) : 사헌부의 우두머리 곧 대사헌을 말한다.

110) 경주인(京主人) : 중앙과 지방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서울에 파견된 향리를 말한다. 경주인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어, 상경하는 지방민 및 하급관리 등에게 잠자리와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 또는 군역 복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관리·군인들이 각 관청에 배치되어 종사할 때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책임을 졌다.

■계축년(1793) 1월 1일

癸丑元月初一日.

■2일. 연일 몹시 추웠다. 오늘은 주동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初二日. 連日極寒. 是日往鑄洞, 暫話而來.

■3일.

初三日.

■4일.

初四日.

■5일. 이 선달(李先達)이 선물과 세찬(歲饌)을 보내왔다.

初五日. 李先達, 送饋歲饌也.

■6일. 대가(大駕)가 사직단(社稷壇)에 거둥하여 기곡 대제(祈穀大祭)¹¹¹⁾를 지냈다. 흥양(興陽) 경주인(京主人)이 흥양 상인을 데리고 왔다. 김득성(金得成)의 동생이 와서 보고 갔다.

初六日. 大駕舉動於社壇, 祈穀大祭. 興陽 京主人, 率來興陽商賈人. 金得成之弟, 來見而去.

■7일. 인일제(人日製)¹¹²⁾를 행하였다.

初七日. 行人日製.

111) 기곡 대제(祈穀大祭) : 매년 음력 정월 첫 신일(辛日)에 그해의 풍년을 빌기 위하여 사직(社稷)에서 임금이 친히 지내는 제사이다.

112) 인일제(人日製) : 성균관의 원점 유생(圓點儒生)을 대상으로 인일인 1월 7일에 보는 제술 시험이다. 특교(特敎)가 있을 경우에만 방외 유생(方外儒生)까지 통틀어 시험하였다.

■8일. 주인 영감이 지영(祇迎)¹¹³⁾하는 일로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고¹¹⁴⁾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석사(李碩士) 형제 및 귀악(龜岳)과 함께 의금부의 의막(依幕)에 함께 가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에 정동(貞洞)에 들러 종인(宗人) 익상(翼庠)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감기가 끝내 쾌차하지 않았으니 한탄스럽다.

初八日. 主人令監, 以祇迎事, 在禁推故, 與李碩士兄弟及龜岳, 同往禁府依幕, 終日談話, 而來路入貞洞, 見宗人翼庠, 暫話而來. 感氣終不快差, 可歎.

■9일. 폭설이 내렸다. 의금부에 가서 잠시 의막(依幕)에 머물다가 그대로 예조에 갔는데, 원행(園幸, 능원(陵園)에 거둥)하는 판하(判下)¹¹⁵⁾가 매우 바빴기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전동(典洞)의 이승지(李承旨) 집에 들렀으나, 승지가 대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곧바로 의막(依幕)으로 와서 한참 동안 머물러 기다리다가 끝내 풀어 주라는 전지(傳旨)가 없었으므로 즉시 나왔다.

初九日. 大雪. 往禁府暫留依幕, 因往禮曹, 以園幸之判下甚紛忙, 故暫與立談. 來路入典洞李承旨家, 則以承旨詣闕, 故不得相見. 卽來依幕, 移時留待, 終無放釋傳旨, 故卽爲出來.

■10일. 이른 아침에 흥양(興陽)의 본택(本宅)에 갔는데, 사랑은 모두 봉하여 닫혀 있고 인적이 없이 고요하였으므로 하인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벽제(碧蹄)로 갔다고 하기에 즉시 내려왔다. 얼마 뒤에 영감이 풀려났다.

初十日. 早朝往興陽本宅, 則舍廊盡封閉, 而寂無人跡, 故呼僮問之, 則渾眷往碧蹄云, 故卽爲下來. 移時餘令監蒙放出來矣.

113) 지영(祇迎) : 아래 관원이 아침에 윗 관원을 공손히 맞이하던 예(禮)를 말한다.

114)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고 : ‘금추(禁推)’는 의금부에서 죄인을 심문하던 일을 말한다.

115) 판하(判下) : 소청(訴請) 또는 죄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임금이 판결하여 명을 내리는 결재이다.

- 11일.
十一日.
- 12일. 대가(大駕)가 수원(水原)의 원소(園所)¹¹⁶⁾에 행차하였다. 이날 주동(鑄洞)에 가서 상언(上言)¹¹⁷⁾할 내용을 정서(正書)¹¹⁸⁾하였는데, 미처 다 베껴 쓰지 못하여 남겨 두고 왔다.
十二日. 大駕幸水原園所. 是日往鑄洞, 正書上言, 而未及盡寫, 故留置而來.
- 13일. 일찍 주동(鑄洞)에 가서 정서(正書)를 마치고 왔다.
十三日. 早往鑄洞, 盡書而來.
- 14일. 환궁하셨기 때문에 석종(石宗)에 가서 상언을 올리고 관광하다가 왔다. 이날은 극도로 추웠다.
十四日. 還宮故, 往石宗呈上言, 爲觀光而來. 是日極寒.

- 15일.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상언이 한 장(丈)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서(吏胥)의 말을 들으니 망일(望日, 음력 보름날)을 영절(令節)로 여기기 때문에 재가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중순(仲順)을 예조 판서의 집에 보내도록 권하고 왔다. 이날 밤에 영감과 좌랑(佐郎) 주서(注書), 이백건(李伯健) 형제와 함께 다리를 밟는¹¹⁹⁾ 행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냉정동(冷井

116) 수원(水原)의 원소(園所) : 장조(莊祖,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장조의 장지는 처음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배봉산(拜峰山)에 있었던 영우원(永祐園)이었다. 정조가 즉위 후 수원 화산(花山)으로 이장하여 현릉원(顯陵園)이라 하였고, 그 뒤 용릉(隆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17) 상언(上言) :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정문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

118) 정서(正書) : 초잡았던 글을 정식으로 베껴 쓰는 일이다.

119) 다리를 밟는 : 원문의 '담교(踏橋)'는 음력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던 일이다. 서울에서는 광통교(廣通橋)를 중심으로 하여 열두 개의 다리를 밟으면, 그 해의 재액(災厄)을 면한다 하여 달 아래에서 즐거이 놀던 풍속이 있었다.

洞) 민 첨지(閔僉知)의 집에 들러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들으니 새벽닭이 벌써 요란하게 울고 있었다.

十五日. 早往禮曹, 上言無一丈下來, 而聞吏胥之言, 則以望日爲令節之故, 不爲判下矣. 勸送仲順於禮判家而來. 是夜與令監及佐郎 李注書 伯健兄弟, 同作踏橋之行, 來路入冷井洞 閔僉知家, 達夜談話. 來路聞曉鷄已亂唱矣.

- 16일.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우리 집안이 올린 상언은 계하(啓下)¹²⁰⁾를 받지 못했으니 탄식할 만하다. 즉시 돌아왔다.
十六日. 早往禮曹, 則吾家上言, 不爲啓下, 可歎. 卽爲還來.

- 17일.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가서 작별을 고하고 왔다. 이날 번철(燔鐵)¹²¹⁾을 설치하여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의 생일에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였다.
十七日. 食後往鑄洞, 告別而來. 是日設煮鐵爲餉, 吾晬日, 可幸可感.

- 18일. 일찌감치 주교(舟橋) 송상원(宋尙元)의 집에 가서 흥양 가는 인편을 물어보고 왔다.
十八日. 早往舟橋 宋尙元家, 探問興陽往便而來.

- 19일.
十九日.

- 20일. 오늘은 영감(令監)의 생신(生辰)이다. 저동(苧洞)의 참판 이의행(李義行), 냉정동(冷井洞)의 민 첨지(閔僉知), 고동(雇洞)의 승지 이사렴(李承濂),

120) 계하(啓下) : 임금에게 재가(裁可)를 받음을 이른다.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재가하게 되면 '계(啓)'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에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121) 번철(燔鐵) : 원문의 '차철(煮鐵)'은 번철을 달리 이르는 말로, 전이나 고기 따위의 여러 가지 음식을 지지거나 볶을 때 쓰는, 솥뚜껑처럼 생긴 둥글넓적한 무쇠 그릇이다. 전번(煎盤), 전철(煎鐵)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조관(朝官)들이 많이 왔다. 종일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파하였다.
二十日. 是日令監生辰也. 亭洞 李參判 義行, 冷井洞 閔僉知, 雇洞 李承旨 思濂, 其他朝官多來矣. 終日醉飽而罷.

▪21일.
二十一日.

▪22일. 또 입골(笠骨)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간(內間)과 영감(令監)이 모두 한사코 만류하였으나, 돌아가고픈 마음이 화살과 같았다. 또 흥양(興陽)의 내행(內行)이 출발하였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싶어 낙안(樂安) 최가(崔哥)의 고마(雇馬)¹²²를 얻고 도화(道化, 고흥의 옛 지명)의 해의(海衣) 상인을 데려와 그에게 말을 몰게 하였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출발하여 강에 이르니 말이 야위고 병들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천 리 길을 갈 가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복가(卜家) 상원(尙元)의 집으로 내려가 차동(車洞)으로 들어갔더니 막 술상을 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대로 묵었다.

二十二日. 又設笠骨, 故內間及令監皆強挽, 而以歸心之如矢. 且興陽內行離發, 故欲與同行, 得樂安 崔哥雇馬, 率道化海衣賈人, 使之驅馬. 作別發行至江, 則此馬瘦病不前, 萬無千里致身之慮, 故不得還爲入來, 下卜家尙元家, 入去車洞, 則方設盃盤矣. 遂因爲留宿.

▪23일. 일찍 청리(靑梨)로 가서 한마리의 말을 구하여 값을 치르기로 약속하고서 도로 차동(車洞)으로 돌아왔다. 말 값 20동(銅)을 변통하여 오는 길에 황장계(黃長溪)와 백현(柏峴)의 김선달(金先達)을 만나 잠시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즉시 말을 사서 출발하여 오산(烏山)까지 40리를 가서 묵었다.

二十三日. 早往靑梨, 求得一馬, 決價相約, 還爲入去車洞. 推移二十銅馬價, 而來路逢黃長溪及栢峴 金先達, 暫與相話於路次. 卽爲買馬發行, 至烏山四

122) 고마(雇馬): 시골 관아(官衙)에서 민간으로부터 징발하여 쓰던 말을 말한다.

十里留宿.

▪24일. 동이 틀 무렵에 길을 나서 수원(水原) 읍내에 이르렀는데, 길에서 영광(靈光)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 동행하였다. 중저(中底)까지 60리를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말이 잘 먹지 못한 데다가 병의 기미가 있었다. 길을 나서 진위(振威)에 이르니 말이 몹시 지쳤기에 결국 걸어서 소사(素沙)까지 50리를 갔다. 말이 전혀 먹지 못하는 것이 복통(腹痛) 때문임을 알고서 다방면으로 치료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닭이 울 때야 비로소 차도가 있었다. 이른바 영광(靈光) 사람은 먼저 떠났고, 나는 뒤에 처졌다. 올해는 흉년이 특히 심하여 길에서 도적의 우환이 매우 많았는데, 천 리 먼 길을 혼자 몸으로 나섰으니 근심과 괴로움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늦은 아침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북기점(北機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덕평(德坪)까지 90리를 가서 묵었다.

二十四日. 平明登程, 至水原邑內, 路逢靈光下去人, 因與同行. 至中底六十里朝飯, 而馬不善喂, 且有病機矣. 遂上程至振威, 鬻者頗困, 遂徒步至素沙五十里. 馬專不食, 始知腹痛故也, 多方治療, 夜不接目, 鷄鳴時, 始有差勢. 所謂靈光人, 先爲出去, 余則落後. 今年凶荒特甚, 路上賊患頗多, 而千里長程, 隻身發程, 憂惱不可言. 晚朝飯後發程, 至北機店秣馬, 至德坪九十里留宿.

▪25일. 비가 왔다. 매우 늦게 출발하여 인주원(仁州院)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五日. 雨. 最晚發程, 至仁周院留宿.

▪26일. 밤에 비가 내렸다. 동틀 녘에 길을 나서 광정(廣亭)¹²³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공주(公州) 신점(新店)에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금강(錦江)의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길을 재촉하여 나루터에 이르자 배가 이미 도착해 있어서 다행이었다. 즉시 배에 올라 중류(中流)에 이르자 풍량이 크게 일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는데,

123) 광정(廣亭):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배가 썩고 낡아서 사방으로 물이 새니 그 두려운 상황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가까스로 강을 건넌 뒤 서둘러 채찍질하여 효포(孝浦)에 이르러 술을 사 마시고 요기를 하였다. 중도에 고읍(古邑)의 김 생원(金生員)을 만나 흥양(興陽)의 소식을 물었으나, 전혀 알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판치(板峙)에 이르러 해의 형세로는 정천(定川)까지 갈 수 있지만, 그곳은 시기(時氣)¹²⁴⁾ 때문에 정결한 집이 없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판치(板峙)에 머물렀다. 밤에 위 아랫집들을 보니 모두 등불을 밝히고 한밤중에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모두 병을 앓고 있는 집들이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二十六日. 夜雨. 平明發程, 至廣亭朝飯, 公州 新店秣馬. 聞錦江水漲, 渡江未易云, 極可慮也. 催行至津頭, 則船已到泊, 可幸. 卽卽上船, 至中流, 風浪大作, 波濤跳入船中, 而船且朽傷, 四邊水漏, 其悚懼之狀, 不可言. 艱辛利涉, 促鞭至孝浦, 沽酒療飢. 中路逢古邑 金生員, 問興陽消息, 則專然不知, 可歎. 至板峙, 日勢則能進定川, 而時氣無一家乾淨云, 故不得已, 留板峙矣. 夜見上下家, 皆明燈中夜煎粥, 俱是方痛之家也. 是日行九十里.

■27일. 동틀 무렵에 출발하여 저교(楮橋)까지 7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삼례(參禮)까지 60리를 가서 묵었다. 이날 밤에 각 관(官)의 내행(內行)이 이 점(店)에 와서 머물고 있었기에 부득이 피폐한 막사로 들어갔다. 방문(房門)에 지창(紙窓)이 없는 데다가 행인(行人)들이 많이 들어와 어수선하고 근심스러운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마저 들어오니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二十七日. 開東發行, 至楮橋七十里, 朝飯秣馬, 至參禮六十里留宿. 是夜以各官內行, 來留此店, 不得已入疲廢之幕. 房無紙窓, 且行人多入, 紛擾憂惱中, 方痛者亦入, 危悚之狀, 何言?

■28일. 동틀 무렵에 출발하여 전주 부내(全州府內) 주인집에 이르니 관가의 내행(內行)이 행차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또 성주(城主)가 막 들어왔기

124) 시기(時氣) : 때에 따라 유행하는 상한이나 전염성 질환을 말한다.

때문에 매우 시끌벅적하였다. 그래서 남문(南門) 밖 강진(康津) 집 여막(旅幕)으로 나가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노고암(老古巖)까지 70리를 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오후에 임실(任實)의 굴암(窟巖)까지 30리를 돌아가서 묵었다.

二十八日. 開東發行, 至全州府內主人家, 則官家內行次來留. 且城主方入來, 故極爲紛聒, 故出南門外康津家旅幕, 暫爲秣馬朝飯. 至老古巖七十里秣馬, 午後至任實 窟巖回三十里留宿.

■29일. 닭이 울 때부터 눈이 내려 한 자가 넘게 쌓이더니, 아침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눈이 그쳤다. 이에 아침을 먹은 다음 오수천변(葵樹川邊)에 이르러 우연히 도화(道化)의 김이록(金履祿)을 만나서 동행하였다. 사곡(蛇谷)에 이르렀는데 말을 먹이는 도구가 없으므로 증산(甌山)의 주막 사내를 찾아갔으나, 모두 다 아파 누워서 계속 거절하였다. 결국 사망당점(事亡唐店)까지 70리를 가서 간신히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하였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채찍을 재촉하여 주포(周浦)까지 10리를 가서 묵었다.

二十九日. 自鷄鳴時雪下深尺雪, 朝飯時始霽, 故因爲朝飯, 至葵樹川邊, 偶逢道化 金生 履祿, 因與同行. 至蛇谷, 無秣馬之具, 前進甌山幕漢, 盡皆痛臥, 揮却不已, 故遂至事亡唐店七十里, 艱辛秣馬療飢. 日已夕矣, 催鞭至周浦十里留宿.

■2월 1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나섰다. 곡성 읍내(谷城邑內)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불로치(不老峙)까지 50리를 가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영귀정(咏歸亭)에 이르러 먼저 소식을 물어보려고 온 집안이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매(舍妹)를 나오라고 했다. 잠시 울타리 밖에서 보니 오래지 않아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한 데다 어린아이도 병이 들어 낫지 않고 있으니, 그 광경이 근심스럽고 답답하였다. 천평(泉坪)의 소식을 물었는데, 그도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하므로 집에 들어가자고 않고 곧장 낙수(洛水)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이날 100리를 갔다.

二月初一日. 未明登程. 至谷城邑內朝飯, 至不老峙五十里秣馬. 至咏歸亭,

先問消息, 舉家方痛, 而舍妹要出. 暫見於籬外, 則非久餓死丁寧, 而且兒少沒痛未蘇, 景色愁阻矣. 問泉坪消息, 則亦方痛云, 故不爲入去, 直驅至洛水, 日已黑矣. 是日行百里.

▪2일. 닭이 울 때부터 비가 내렸다. 돌아가고픈 마음이 화살과 같은데, 비가 다시 내리니 고민스러움을 말할 수가 없다. 늦은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 추동(楸洞)까지 40리를 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사교(四橋)에 이르러 묵었다.

初二日. 自鷄鳴時雨作. 歸心如矢, 而雨意更作, 悶不可言. 向晚因朝飯登程, 至楸洞四十里, 秣馬療飢, 至四橋留宿.

▪3일. 매우 늦게 길을 떠나 과역(過驛)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初三日. 最晚發程, 至過驛秣馬後, 遂還家.

갑인(1794) 정월

甲寅正月

▪16일. 참찬(參贊) 선조에게 선시(宣諡)한다는 기별을 듣고 곡강 상사(曲江上舍) 척형(戚兄)과 간천 상사(良川上舍)와 날을 약속하여 동행하기로 했는데, 두 상사는 뒤처지고 나는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양강(楊江)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용전(龍田) 나주덕에서 머물렀다.

十六日. 聞參贊先祖宣諡之奇, 與曲江上舍戚兄及良川上舍, 約日同行, 而兩上舍則落後, 余則朝飯後登程. 至楊江中火, 留龍田 羅州宅.

▪17일. 용전재(龍田齋)에서 문회(門會, 문중의 모임)에 참석했다.

十七日. 參門會於龍田齋.

▪18일. 용전에 머물렀다.

十八日. 留龍田.

▪19일. 낙안(樂安) 백현(栢峴)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오는 길에 매곡(梅谷)에 들어가 창문(昌文) 종내(宗內)를 조문한 다음 어렵사리 광주(光州) 덕(宅)에 왔다. 곡강 상사(曲江上舍)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천 상사(良川上舍)가 종일토록 오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다.

十九日. 往樂安 栢峴中火. 來路入梅谷, 吊昌文宗內. 艱來光州宅, 曲江上舍已來待, 而良川上舍, 終日不來, 可怪.

▪20일. 길을 나서기로 마음을 정하였으나, 화옥(華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며 기다렸다. 아침에 화옥이 남양에 와서 머물렀는데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하여서 오늘 출발하지 못했다. 곡강의 상사가 먼저 길을 떠나고 나는 다시 용전에 머물게 되니 답답할 노릇이다.

廿日. 決意發程, 華玉不來之故留待矣. 朝間華玉來留南陽, 而見敗於馬故, 不得以今日發行. 曲江上舍, 先爲發程, 余則還留龍田, 悶悶.

▪21일. 화옥이 말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어 내지(內地)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므로 다시 용전(龍田)에서 머물렀다.

廿一日。聞華玉致敗於馬事，入去內地云，故更留龍田。

▪22일. 지난밤에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더니 다음날에 종일토록 크게 바람이 불었다.

廿二日。去夜大雷電雨雹，自翌終日大風。

▪23일. 아침을 먹은 뒤에 화옥이 남양(南陽)에서 행장을 꾸려 왔으므로 오후에 길을 나섰다. 장도교(莊島橋) 근처에 이르러 성경(誠卿) 소식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채찍을 재촉하여 추동(楸洞)에 이르렀다. 종형(宗兄) 세언(世彦)은 이미 4일 전부터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길 가는 중에 만나게 되어서 함께 묵었다. 덕능(德能)도 와서 머물렀다.

廿三日。食後華玉自南陽治行而來，故午後登程。至莊島橋邊，聞誠卿消息，則漠無形影，促鞭至楸洞。宗兄世彦已於四日前留待，路次而相逢，故因與聯枕。德能又來留。

▪24일. 날이 밝을 무렵 길을 나서 동점(銅店)에서 아침을 먹었다. 우산(牛山)에 들어가 안 형중(安衡仲) 형을 조문하고는 이어 점심을 먹었다. 대개 성경이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상중인 종매(從妹) 임가(林家)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함께 길을 나섰다. 낙수(洛水)에 이르러 화옥 숙질과 헤어지고, 천평(泉坪)으로 들어가 묵었다.

廿四日。平明登程，至銅店朝飯。入牛山吊安兄衡仲，因爲中火。蓋誠卿先來到此，留其從妹林家，故同與登程。至洛水，與華玉叔姪分路，入泉坪留宿。

▪25일. 궁호(弓湖)에 이르자 화옥(華玉)이 와서 머물며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지신(智信)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곡성(谷城)의 동막(東幕)에 이르러 묵었다.

廿五日。至弓湖，華玉來留留待矣。暫話後，至智信中火，至谷城 東幕留宿。

▪26일. 새벽에 일어나 말에게 꼴을 먹였으나 말이 먹지 않아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아침을 먹은 뒤에 여정을 시작하여 원천(源川)¹²⁵⁾에 이르렀다. 화옥(華玉)과 헤어질 때 나는 원천(源川)으로 향하고, 화옥(華玉)은 수종(水宗)으로 향하여 내일 오수(獐樹)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천천히 걸어 주포(周浦) 여막(旅幕)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는데 전혀 먹지 않으니 괴이하고 걱정스럽다. 즉시 길을 나서 10여 리를 가다가 우연히 매형 제언씨(濟彦氏)와 노우(盧友, 노씨 성의 벗)를 만나 도중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내려와 고룡서원(古龍書院)¹²⁶⁾에 머물렀다.

廿六日。曉起秣馬，則鬣者不食，故不得早發，因爲朝飯後啓行，至源川。與華玉分路，余向源川，華玉向水宗，約以明日會于獐樹。緩行至周浦旅幕，秣馬則全不食，可怪可慮。卽爲登程行十餘里，偶逢妹兄濟彦氏及盧友，暫話路次，同爲下來，留古龍書院。

▪27일. 풍설(風雪)이 매우 심했다. 말이 먹으려 들지 않기에 걸어서 오수(獐樹)에 이르렀다. 화옥(華玉)이 오지 않았는데, 행인(行人)들의 말을 전해 들으니 전석치(磚石峙)에서 머물며 기다린다고 하여서 인편을 통해 기별을 부치고 그대로 오수(獐樹)에 머물렀다.

廿七日。風雪極惡。以馬之不食，徒步至獐樹，則華玉不來，而傳聞行人之言，則留待於磚石峙云，故因便付奇，因留獐樹。

▪28일. 밤에 눈이 내렸다. 날이 밝기 전에 사도(蛇渡) 사람을 전석치(磚石峙)에 보내고, 나는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려니 답답하였지만 말에게 꼴을 먹이고 실 수 있게 한 것만은 위로가 되었다. 아침을 먹을 때에 화옥(華玉)이 비로소 도착하였기 때문에 즉시 길을 나섰다. 임실(任實)의 굴암(窟巖)에

125) 원천(源川) : 원문은 '■川'인데, 결락된 1자는 여정의 동선으로 보았을 때 다음 도착지인 '원천(源川)'으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126) 고룡서원(古龍書院) :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창주서원(滄洲書院)'을 말한다. 옥계(玉溪) 노진(盧禎, 1518~1578)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는데, 정유재란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사우(祠宇)만 보존되어오다가 1600(선조33)년에 '창주(滄洲)'라 사액되어 '창주서원'으로 개칭하였다.

이르러 점심을 먹고, 노구암(老狗巖)에 이르러 유숙(留宿)하였다.
 十八日. 夜雪. 未明送蛇渡人磚石峙, 余則留待悶悶, 但秣馬歇息, 是可慰也.
 朝飯時, 華玉始到, 故即爲登程. 至任實 窟巖中火, 到老狗巖留宿.

■29일. 꼭두새벽에 길을 나서 부내(府內)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삼례(參禮)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우연히 절구 한 수를 읊어 용성(龍城)의 석사(碩士) 장계희(張啓晦)에게 주었는데, 대개 오수(獒樹)에서부터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객사에서 만난 백면서생	逆旅相逢白面郎
용성 절사의 성씨 당당도 하여라	龍城杰士姓堂堂
천 리 길 동행하며 나랏길 구경하였는데	千里同行觀國路
그대는 호두 ¹²⁷ 의 향기 지닌 사람이구려	高名挾許虎頭香

만마동(萬馬洞)¹²⁸에서 읊시 한 수를 읊었다.

만마를 어느 해에 지나갔던가	萬馬何年過
야윈 말 타고 이날을 증명해 보네	羸驂此日證
깊은 골짜기라 하늘이 작아 보이고	洞深天爲小
개간된 산이라 길이 평평하네	山關路因平
촌락은 벼랑 따라 늘어져 있고	村落緣崖仄
사천은 눈으로 뒤덮여 더욱 맑네	沙川助雪清
고인 냇물에 산 기운은 빼어나니	水淳山氣秀
통하는 곳에 완영이 자리하였네	通處是完營

127 호두 : 호두(虎頭)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귀인의 상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관상 보는 사람이 반초(班超)를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제비의 턱이고 범의 머리인지라 날아서 고기를 먹을 것이니, 이는 만리후에 봉해질 상이다.[燕頰虎頭, 飛而食肉, 此萬里侯相也.]”라고 하였는데, 그 후에 과연 그 말대로 서역(西域)을 평정하고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128 만마동(萬馬洞) : 현재 전북 완주군 남관으로, 남원에서 전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만마관(萬馬關)이 있어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로 인하여 전주천을 만마탄(萬馬灘)이라고도 한다.

十九日. 曉頭登程, 至府內朝飯, 至參禮留宿. 是日偶吟一絕, 贈龍城 張碩士 啓晦, 蓋自獒樹同行故也. “逆旅相逢白面郎, 龍城杰士姓堂堂. 千里同行觀國路, 高名挾許虎頭香.” 於萬馬洞吟一律曰, “萬馬何年過? 羸驂此日証. 洞深天爲小, 山關路因平. 村落緣崖仄, 沙川助雪清. 水淳山氣秀, 通處是完營.”

■30일.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하여 황화정(皇華亭)¹²⁹ 안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길에서 곡강(曲江)의 척형(戚兄)을 생각하며 읊시 한 수를 읊었다.

금호의 어진 아우와 곡강의 형	琴湖賢弟曲江兄
약속한 날 찬바람 속에 먼 길 함께 떠났네	約日寒風共遠征
금산으로 먼저 간 것은 일 때문이나	先去金山緣有事
완부에 늦게 온 건 실로 정리가 아니로다	晚來完府實非情
금강에 혹여 외로이 나는 기러기 지나가면	錦江倘過孤飛雁
초포에 벼를 부르는 꾀꼬리 한창 울어대리	草浦方吟喚友鶯
상사 ¹³⁰ 의 무리 안에 가난한 서생들 ¹³¹	上舍叢中窮措大
청춘을 헛되이 보내 과거 급제 못하였네	青春虛送未成名

이성(尼城)에 이르러 묵었다.

晦日. 未明發行, 至皇華亭中火. 路上憶曲江戚兄, 咏一律曰, “琴湖賢弟曲江兄, 約日寒風共遠征. 先去金山緣有事, 晚來完府實非情. 錦江倘過孤飛雁, 草浦方吟喚友鶯. 上舍叢中窮措大, 青春虛送未成名.” 至尼城留宿.

129 황화정(皇華亭) : 전북 익산군 여산면 마전리 황화정 동네에 있던 정자로,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황화정은 전라도 신구(新舊) 전라도관찰사들이 교대하는 장소였는데, 국왕으로부터 전라도관찰사로 제수받으면 황화정에서 신·구 임무 교대식인 교귀식(交龜式)을 치르고 전주 조경묘에 숙배(肅拜)하는 것이 순서였다.

130 상사 : 상사(上舍)는 생원과 진사의 별칭으로, 옛날 태학에서 생원과 진사는 상사(上舍), 즉 위치에 거처하였기 때문이다.

131 곤궁한 서생들이 : 원문의 ‘조대(措大)’는 초태(醜駝)에서 유래한 말로, 가난한 서생을 말한다. 어떤 선비가 가난하여 식초를 지고 동네를 돌면서 팔아 생계를 꾸리던 데서 비롯되었다.

■2월 1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나 효포(孝浦)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금강(錦江)을 건너 화원(花源)에서 묵었다. 이날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가 간천(良川) 척질(戚侄)이 감기 때문에 심하게 아프니 걱정스럽다.

二月初一日. 未明登程, 至孝浦中火, 渡錦江, 宿花源. 是日風氣甚寒, 且良川戚侄, 以感氣大痛悶慮.

■2일.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하여 금계(金溪)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북기(北機)에서 묵었다.

初二日. 未明發行, 至金溪中火, 宿北機.

■3일.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하여 소사(素沙)에서 점심을 먹고, 진위(振威) 읍내에서 묵었다.

初三日. 未明發行, 至素沙中火, 宿振威邑內.

■4일. 동틀 녘에 길을 떠나 오산(烏山)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옛 수원(水原)에 들어가 멀리 원소(園所)를 바라보고, 화산(花山) 용주사(龍珠寺)¹³²에 들어가서 절을 두루 살펴보니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화옥(華玉)의 시에 차운하고 절구 한 수를 지어 베풀었다. 성진(性眞) - 1자 원문 결락¹³³ 성진은 바로 흥양(興陽) 금탑사(金塔寺)¹³⁴의 승려인데, 이 절에 와서 머물면서 부처와 승려를 공양(供養)한다고 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먼 길을 돌아 천 리를 왔으니	迂路來千里
화산에서 성진을 찾아가 보리라	花山欲訪眞

132) 용주사(龍珠寺) : 조계종의 절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에 위치해 있다. 이 절은 신라 말기인 854년에 염거화상(廉巨和尚)이 지었고, 원래 이름은 갈양사(葛陽寺)였다. 고려 때인 10세기에 확장되었다. 조선 정조 때에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정조의 명으로 18세기에 다시 지어졌다.

133) 1자 원문 결락 : 원문은 '性眞養眞'인데, '眞'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

134) 금탑사(金塔寺)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절로, 신라 선덕 여왕 6년(637)에 원효가 창건하였다가 정유재란 때에 소실된 것을 왕순(王淳)·궁현(窮玄) 대사가 중건하였다.

진정한 도인 석장을 날리고 떠났기에¹³⁵⁾
마음속에 품은 사람 만날 수 없으라

眞飛錫杖去
不見意中人

원운(元韻)은 다음과 같다.

영주¹³⁶⁾에서 온 그대
화산에서 참된 본성을 길렀네
나 또한 영주의 선비요
- 1, 2자 원문 결락 - ¹³⁷⁾

爾自瀛州至
花山養性眞
我亦瀛州士
■■塔上人

마침내 채찍을 재촉하여 신수원(新水原)에 이르니 촌락이 조밀하고 인물이 변화함이 작년 봄보다 갑절이나 더했다. 또 영성(營城)의 역사(役事)로 돌을 운반하여 길 좌우에 늘어놓은 것이 10여 리에 걸쳐 있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 군포천(軍布川)에서 묵었다.

初四日. 平明啓行, 至烏山療飢. 入舊水原, 望見園所, 入花山 龍珠寺, 周觀梵宇, 最極侈美矣. 暫爲秣馬, 次華玉韻, 咏一絕寫性眞養眞. 盖眞也, 卽興陽 金塔僧也, 來住此寺, 爲供佛僧云, 詩曰, “迂路來千里, 花山欲訪眞. 眞飛錫杖去, 不見意中人.” 元韻, “爾自瀛州至, 花山養性眞. 我亦瀛州士, ■■塔上人.” 遂促鞭至新水原, 村落之稠密, 人物之繁華, 有倍於昨春. 又營城役運石, 列置於路之左右者, 彌亘於十餘里矣. 中火後, 宿軍布川.

135) 응진(應眞)이……가버렸으니 : 원문의 '응진(應眞)'은 범어(梵語)인 나한(羅漢)을 의역(意譯)한 말로, 진도(眞道)를 터득한 사람을 뜻하며, '석장(錫杖)'은 스님의 지팡이를 말한다. 석장을 날린다는 것은 곧 옛날 고승 은봉(隱峰)이 오대산(五臺山)을 유람하고 회서(淮西)로 나가서는 석장을 던져 공중으로 날아서 갔다는 고사에서 온 말인데, 전하여 승려들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행각(行脚)하는 것을 말한다. 진(晉) 나라 손작(孫綽)의 '유천태산부(游天台山賦)'에 “진정한 도인은 석장을 날려 허공을 밟고 다닌다.[應眞飛錫以躡虛]”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136) 영주 : 영주(瀛州)는 흥양(興陽)의 별칭으로, 고흥(高興)을 말한다. 그 외 고양(高陽)이라고도 한다.

137) 1, 2자 원문 결락 : 원문은 '■■塔上人'인데, '塔上人'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

▪5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나 과천(果川)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남태령(南泰嶺)을 넘고 강을 건너 이문동(里門洞)에 이르렀다. 화옥(華玉), 장계희(張啓晦)와 헤어지고 장 황주(張黃州)의 집에 들렀다. 장형백(張亨伯)의 소식을 물었더니 장단(長湍)으로 나갔다고 하여서 곧장 차동(車洞) 주인댁으로 왔는데, 별 탈 없이 이미 혼례를 치른 뒤였다.
初五日. 未明登程, 至果川朝飯. 促鞭踰南泰嶺, 渡江至里門洞. 與華玉及啓晦分路, 入張黃州家, 問張亨伯消息, 則出去長湍云, 故直來車洞主人宅, 姑無故已行昏禮矣.

▪6일. 먼 길에 지치고 동상례(東床禮)¹³⁸도 치렀기 때문에 이날 마침내 차동(車洞)에서 사도(蛇渡) 하인 편에 집으로 보낼 편지를 써서 부쳤다.
初六日. 以路困及設東床禮, 故是日終車洞書付家信於蛇渡下人便.

▪7일.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가니 교리가 입직하여 만나지 못하고, 치회(釋會) 형제만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곧장 이문동(里門洞)¹³⁹의 장우(張友, 장씨 성의 벗)에게 갔으나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또 팔패(八牌)에 가서 송상원(宋尙元)을 만나고 왔다.
初七日. 食後往鑄洞, 校理入直不遇, 只見釋會兄弟. 來路直往里門洞 張友, 尙不來矣. 又往八牌, 見宋尙元而來.

▪8일. 비가 내렸다.
初八日. 雨.

138) 동상례(東床禮) : 혼례를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집에서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로, 동상례라고도 한다.

139) 이문동(里門洞) :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던 마을로서, 마을에 이문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우리말로 '이문골', '이문안'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서울에 이문이 설치된 것은 조선 세조 때로 도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9일. 보슬비가 내렸다.
初九日. 細雨.

▪10일. 주동 각처에 갔다가 예조(禮曹)의 직방(直房)¹⁴⁰으로 가서 안리(安吏)를 만났다. 다시 경모궁(景慕宮)으로 가서 박 상사(朴上舍)와 고향 사람을 만나고 왔다.
初十日. 往鑄洞各處, 因向禮曹直房 見安吏. 轉向景慕宮, 見朴上舍及鄉人而來.

▪11일.
十一日.

▪12일.
十二日.

▪13일. 경모궁 앞에 가서 고향 사람을 만나고 왔다.
十三日. 往景慕宮前, 見鄉人而來.

▪14일.
十四日.

▪15일.
十五日.

▪16일. 죽동(竹洞)에 가서 종인(宗人)을 만나고 왔다. 옥당 서리와 하인에게 각각 돈 3냥을 나누어 주었다.
十六日. 往竹洞, 見宗人而來. 玉堂 書吏及下人處, 錢各三兩處下.

140) 직방(直房) : 조방(朝房)이라고도 하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조회(朝會) 때를 기다리느라고 모여 있던 방이다. 대궐문 밖에 있었다.

■17일. 아침을 먹기 전에 박 상사(朴上舍) 형제와 소년(少年) 둘이 와서 보고는, “돌아가신 상사(上舍) 형님의 효행(孝行)으로 인해 호백(湖伯,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가 도착하였다.”라고 하기에 함께 가서 안리(安吏)와 예판(禮判)을 만나고 왔다. 저녁에 형백(馨伯)이 ㅊ덕(ㅊ德)에서 비로소 들어와 만나고 갔다.

十七日. 食前, 朴上舍兄弟及兩少年來見, 因云“故上舍兄主, 以孝行, 湖伯狀啓來到.”云, 故同往見安吏及禮判而來. 夕間馨伯, 自ㅊ德始爲入來, 來見而去.

■18일. 아침 전에 이 흥양(李興陽)이 사람을 시켜 만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왔다. 사수와 형백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아침을 먹은 뒤에 간촌(看村)의 송생(宋生)과 창포(倉浦)의 김생(金生)이 비로소 와서 내려간다고 하였으므로 집에 보낼 편지를 부쳤다. 팽갑(彭甲)이 와서 말하기를, “임질(林侄)이 아파서 누워있습니다.”라고 하므로 가서 만나 보았다. 박씨 척족(戚族)을 만났는데, 양언(良彦)도 올라왔기에 비로소 만났다.

十八日. 朝前, 李興陽使人邀見, 故往見而來. 士洙及馨伯來見而去. 朝後, 看村 宋生及倉浦 金生, 始來言下去, 故付家書. 彭甲來言, “林侄痛臥”云, 故往見. 邀見朴戚, 而良彦亦上來始見.

■19일.

十九日.

■20일.

二十日.

■21일. 꼭두새벽에 밥을 먹고 궐문 밖에 갔다. 박씨 척족(戚族)도 모두 와서 모였는데 오늘은 바로 삼일제(三日製)¹⁴¹가 있는 날이다. 동이 틀 무렵

141) 삼일제(三日製) : 유생의 학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제술 시험으로, 절일제(節日製)의 하나이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관각(館閣)의 여러 당상관이 성균관에 모여 거재생(居齋生)과 지방 유생에게 제술(製述)만으로 시험을 보인다.

돈화문(敦化門, 창덕궁 정문)으로 들어가 진선문(進善門)¹⁴²에서 숙장문(肅章門)¹⁴³ 앞까지 장막을 설치하고 좌정(坐定)하였다. 잠시 뒤에 인정전(仁政殿)¹⁴⁴으로 들어오라는 명이 있었기에 인정문(仁政門)¹⁴⁵으로 들어갔다. 동편의 인정전 월랑(仁政殿月廊)¹⁴⁶에 앉아 ‘근원이 있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밤낮으로 흘러서 구덩이를 채우고 난 뒤에 나아가 사해에 이른다.[原泉混混, 不捨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¹⁴⁷라는 부제(賦題)¹⁴⁸로 부(賦)를 지어 올렸다. 대개 경과(慶科)¹⁴⁹를 치르는 날이라서, 팔도의 과유(科儒)들이 모두 전정(殿庭)에 모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142) 진선문(進善門) :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지나 금천교(錦川橋)를 건너면 나오는 중문(中門)이고 창덕궁 창건 무렵에 세워졌으며 1908년 인정전 개수공사 때 헐렸다가 1999년 복원공사를 완료하였다.

143) 숙장문(肅章門) :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을 통과하여 금천교(錦川橋)와 진선문(進善門)을 지나면 진선문 맞은편에 나오는 중문(中門)이다. 숙장문은 성종 6년(1475) 좌찬성 서거정이 지어 올린 이름을 성종이 낙점하여 사용된 이름으로, 일제에 의해 헐렸다가 1996년 시작된 복원공사를 통해 재건되었다.

144)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의 정전(正殿)으로, 조정의 각종 의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을 하던 곳이다.

145) 인정문(仁政門) :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에 이르는 정문으로, 국왕 즉위식이 거행된다. 인정문은 태종 5년 창덕궁의 창건 때 다른 전각들과 함께 지어졌다. 효종·현종·숙종·영조 등 조선왕조의 여러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다.

146) 인정전 월랑(仁政殿月廊) : 월랑(月廊)은 궁궐이나 사찰과 같이 규모 있는 건물에서 앞이나 좌우에 줄지어 만든 건물을 지칭한다. 비슷한 의미의 말로는 행랑, 행각, 상방이 있다.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도 모양의 형식을 갖춘 것도 있고, 건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종묘의 월랑은 익실의 끝에서 직각 방향으로 연결한 건물을 말한다.

147) 근원이……이른다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나오는 구절로, “근원 있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밤낮으로 흘러서 구덩이를 채우고 난 뒤에 나아가 사해에 이른다. 학문에 근본이 있는 자가 이와 같은지라 이 때문에 취한 것이다.[原泉混混, 不捨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하였다. 이는 사람이 실제 행실이 있으면 그만두지 않고 점차 진보하여 지극한 경지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2월 21일(기묘)에 “인정전에 나아가 삼일제를 행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148) 부제(賦題) : 과거를 보일 때 과문(科文)의 부(賦)를 지으라고 내는 글제목이다.

149) 경과(慶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는 과거이다. 이는 특별히 대궐 뜰에서 보이므로 정시(庭試)라 하며 문무과(文武科)에 한하였다.

二十一日。曉頭食飯，往關門外。朴戚亦皆來會，而是日乃三日製也。平明入敦化門，自進善門，至肅章前，設幕坐定。有頃有入仁政殿之命，故入仁政門。坐東邊月廊製進，‘原泉混混，不舍晝夜，盈科而進，放乎四海’賦，而盖當慶科之日，八道科儒，咸集殿庭，其數夥多，不可言矣。

■22일.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입시하라는 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귤문 밖에 나아가니 입격한 300명이 모두 와서 모였다. 둔화문(敦化門), 진선문(進善門), 숙장문(肅章門)으로 들어가 머물며 기다렸다. 차례로 추창(趨蹌)하여¹⁵⁰ 협양문(協陽門)¹⁵¹으로 들어가 장문(莊門) 세 곳을 지나서 편전(便殿)에 들어가 부복(俯伏)하였다. 지척에서 성상의 얼굴을 보게 되니 그 영광스러움과 행운은 더 말할 것이 없고, 그러한 장관(壯觀) 또한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차상(次上)¹⁵²한 100인에게는 상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의 이름도 상을 받는 명단 안에 들어 있어서 조금 씩씩하였다. 상을 받은 뒤 사배례(四拜禮,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물러갔다.

二十二日。出榜入格，因有入侍之命，故早朝進詣關門外，入格三百數，皆來會矣。入敦化、進善、肅章門留待。次第趨入協陽門，歷莊門三處，入便殿俯伏，則咫尺天顏，其爲榮幸，已無可言，而其壯觀，亦平生初見也。限次上百人頒賞，而吾名亦參賜賞中，頗爲落莫矣。受賞後，行四拜禮而退。

■23일. 서반(西泮) 김재광(金再光)의 집에 들어갔다. 오후에 다시 예조에 갔다가 신시(申時, 오후 3시~5시까지) 무렵에 과장(科場)으로 들어가 밤을 새웠다.

150) 추창(趨蹌)하여 : 예도에 맞게 허리를 굽히고 종종걸음을 치며 걷는 것을 말한다. 임금을 알현할 때나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갈 때 갖추는 예법이다.

151) 협양문(協陽門) : 창덕궁에 있는 왕의 침전인 희정당과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大造殿) 영역으로 드나드는 정문이다. 창덕궁이 창건되던 1405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괄의 난 등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어 유지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창덕궁을 개조하던 때에 훼손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빈 터만 남아 있다.

152) 차상(次上) : 시권(試券)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급 가운데 차상은 등수에 들지 못한 것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시권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급은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 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나뉜다.

二十三日。入西泮 金再光家，午後復來禮曹，申時量入場中達夜。

■24일. 축시(丑時, 오전 01~03시까지)가 지나서 출제(出題)되었다. 이에 ‘소아의 3편을 익히게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벼슬길을 가르치는 것이다.[宵雅肄三, 官其始也.]’라는 제목으로¹⁵³ 부를 지어 올렸다.

二十四日。丑時後出題，故製進‘宵雅肄三，官其始’賦。

■25일. 해가 뜨자 과장을 나와 다시 반촌(泮村)¹⁵⁴에 들어갔다. 또 그날 신시(申時) 무렵에 월근문(月觀門)¹⁵⁵으로 들어가서 좌정하고 장원봉(壯元峰)¹⁵⁶에서 밤을 새웠다.

二十五日。日出出場，復入泮村。又其日申時量，入月觀門坐定，壯元峰達夜。

■26일. 출제한 “문무 겸비한 길보여.[文武吉甫]”¹⁵⁷를 지어 올렸는데, 오늘은 바로 알성일(謁聖日)¹⁵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방(出榜)하였고 과장(科

153) 소아의……제목으로 : 원문의 ‘소(宵)’자는 ‘소(小)’자와 통용하는 것으로, 《시경》의 <소아(小雅)>를 가리키며 <녹명>, <사모>, <황황자화>는 벼슬살이하며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노래한 시이다. 《예기(禮記)》<학기(學記)>에 “<소아>의 <녹명>, <사모>, <황황자화> 등 세 편의 시를 익히는데 이는 벼슬살이하며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학생에게 기대한 것이다.[宵雅肄三, 官其始也.]” 하였다.

154) 반촌(泮村) :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의 일대이다. 성균관을 ‘반궁(泮宮)’이라고도 하는데, 반촌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성균관(成均館) 사역인들이 거주하는 성균관 인근 동네이다. 이들 사역인들은 성균관에서 문묘(文廟) 수직(守直), 관원 사환(使喚), 관생의 식사 제공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입역(立役)이 편한 성균관 주변에 모여 살게 되었다.

155) 월근문(月觀門) : 월근문은 1779년에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 북쪽에 조성한 창경궁의 동북부 궁장(宮牆)에 설치된 문이다.

156) 장원봉(壯元峰) : 창경궁 근처의 언덕을 미화하여 표현한 듯하다.

157) 문무 겸비한 길보여(吉甫)여 : 《시경》<유월(六月)>에 나오는 구절로, “잠깐 험운을 정벌하여 태원에 이르도다. 문무 겸비한 길보여, 만방이 법으로 삼도다.[薄伐玁狁，至于太原。文武吉甫，萬邦爲憲.]” 하였다. 이 시는 주(周)나라 왕실이 쇠미해진 틈을 타서 험운(玁狁)이 서울까지 쳐들어오자 선왕(宣王)이 윤길보(尹吉甫)에게 험운을 정벌하도록 명하여, 윤길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158) 알성일(謁聖日) : 임금이 문묘에 참배하는 날을 말한다.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2월 26일(갑신)의 기사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알성시 문무과를 시취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場)에서 나와 즉시 차동(車洞)으로 와서 묵었다.

二十六日. 出題製進“文武吉甫”, 是日乃謁聖日也. 日暮時出榜, 出場卽來車洞留宿.

▪27일. 팔도의 문중 모임이 있는 날이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 보소(譜所)¹⁵⁹에 가니 동종(同宗)들이 일제히 모여 있었다. 납부하지 않은 명전(名錢)¹⁶⁰을 모두가 책임지기로 하였기에 견책당할 뻔한 것을 다행히 면할 수 있었다. 다음 달 20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간행하기로 하였다. 문경(文經)도 와서 모였다.

二十七日. 乃八道門會日也. 食後往鑄洞譜所, 則同宗齊會矣. 舉皆責名錢之不納, 幾乎見責, 幸而得免, 以來月念日定限入梓. 文經亦來會矣.

▪28일. 차동에 머물렀다. 동향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므로 약간의 글을 써서 집에 소식을 부쳐 보냈다. 아침을 먹은 뒤에 근동(芹洞)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二十八日. 留車洞. 同鄉諸人皆下去, 故付送家信若干字. 食後往芹洞, 暫話而來.

▪29일. 새벽부터 비가 왔다.

二十九日. 自曉頭雨來.

▪3월 1일. 형백(馨伯)이 돌아갈 것을 고하였는데, 양언(良彦)이 먼저 갔으므로 문중(門中)에 서신(書信)을 부쳐 보냈다. 오는 길에 이문동(里門洞)에 들어가 형백을 보고 왔다.

三月初一日. 馨伯告歸, 而良彦先去, 故付送書信於門中. 來路入里門洞, 見馨伯而來.

159) 보소(譜所) :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160) 명전(名錢) : 족보를 간행할 때 종중(宗中) 남자 사람의 이름에 붙이는 돈으로, 대개 수단(收單)과 편집, 간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전으로 충당하였다.

▪2일. 형백의 편에 가서(家書)를 부쳐 보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연동(蓮洞)에 가서 이 판서(李判書)와 그의 아들 응교(應校)를 만났고, 오는 길에 안현(安峴)에 들러 예판(禮判)을 만나보았다. 전동(磚洞)에 갔으나, 이조 판서가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왔다.

初二日. 付送家書於其便. 食後往蓮洞, 見李判書及其子應校, 來路入安峴見禮判. 入磚洞, 則吏判不在, 故不見而來.

▪3일. 송현(松峴)에 가서 안 교리(安校理)를 만났는데, 화옥도 왔다. 함께 민 진사(閔進士)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다시 예조(禮曹)에 가서 안리(安吏)와 상세히 논의하여 상사(上舍) 형님의 효행에 관한 회계(回啓)¹⁶¹를 올렸다. 오는 길에 안현(安峴)에 들렀으나 예판이 궐에 들어갔으므로 진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곧장 죽동(竹洞)으로 왔는데 종인(宗人)이 부재중이었다. 이에 그길로 주동(鑄洞) 교리(校理) 종인에게 갔으나, 이미 용강(龍岡)으로 떠나고 없어서 단지 치회(禪會) 형제와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왔다.

初三日. 往松峴見安校理, 華玉亦來矣. 同往閔進士家, 暫話後, 回往禮曹, 與安吏詳論, 上舍兄主孝行回啓. 來路入安峴, 則禮判入闕內, 故只與進士暫話, 直來竹洞, 則宗人不在, 故卽往鑄洞 校理宗, 已去龍岡, 只與禪會兄弟, 暫話而來.

▪4일. 비가 내렸다.

初四日. 雨.

▪5일.

初五日.

161)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에 대하여 심의(審議)하여 보고를 하던 일이다. 회달(回達)이라고도 한다.

▪6일. 바로 한식일(寒食日)¹⁶²이다. 객지살이 중의 한식이라 마음이 갑절이나 근심스럽다. 백건(伯健)이 만나자고 하기에 잠깐 근동(芹洞)¹⁶³에 갔더니 술과 떡을 대접하였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고령(高嶺)에 올라왔다. 화류(花柳)를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꽃 소식이 까마득하였다. 내려와서 차동(車洞)으로 곧장 왔다.

初六日。卽寒食日也。客中冷節，懷思倍切悶悶。伯健要見，故暫往芹洞，則饋以酒餅矣。移時談話後，上登高嶺，欲觀花柳，而尙杳然矣。卽爲下來，直來車洞。

▪7일.
初七日.

▪8일. 주동에 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왔다.
初八日。往鑄洞，移時談話而來。

▪9일.
初九日.

▪10일. 주동에 가서 답간(答簡)을 받아 왔다. 병동(屏洞)의 지옥(之玉) 종인이 떠나겠다고 하기에 야간에 편지를 써서 부쳐 보냈다.
初十日。往鑄洞，受答簡而來。屏洞之玉宗人告去，故夜間修書付送。

▪11일.
十一日.

162) 한식일(寒食日) : 원문의 '냉절(冷節)'은 한식(寒食)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163) 근동(芹洞) : 중구 을지로5가에 있던 마을로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논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나릿골로 불렀으며,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12일. 아침을 먹은 뒤에 전동(磚洞)으로 갔으나, 이조 판서가 궐내로 들어가 또 만나지 못했다. 곧장 안현(安峴)에 가서 예조판서를 만나보고, 다시 예조로 갔는데 안리(安吏)를 만나지 못하여 곧바로 경모궁(景慕宮)으로 향했다. 사람을 시켜 화옥(華玉)을 오라고 하여 도포(道袍)로 갈아입도록 하고, 호동(壺洞)으로 가서 진 판관(陳判官)을 만났다. 또 호동(壺洞)으로 가서 박 곡성(朴谷城)에게 조문하였다. 또 죽동(竹洞)으로 향하였으나 사수를 만나지 못하고 왔다.

十二日。食後往磚洞，則吏判入闕內又未見。直往安峴見禮判，轉往禮曹，則不見安吏，直向景慕宮。使人要華玉，換着服道袍，往壺洞見陳判官。又向壺洞，吊朴谷城。又向竹洞，不遇士洙而來。

▪13일.
十三日.

▪14일. 아침을 먹기 전에 사수(士洙)와 귀남(龜南) 종객(宗客)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十四日。朝前士洙及龜南宗客，來見而去。食後往鑄洞，談話而來。

▪15일. 아침을 먹은 뒤에 건(健)·순(順) 형제, 옥여(旭汝)와 함께 송현(松峴)으로 갔다. 이어 육각치(六角峙)의 필운대(弼雲臺)에 올라 종일토록 꽃을 감상하였는데, 저녁 무렵에 송현(松峴)에서 차를 보내왔다. 그러므로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고 왔다.
十五日。食後與健、順兄弟旭汝往松峴。因上六角峙 弼雲臺，終日賞花，而夕間茶饋自松峴來，故醉飽而來。

▪16일. 저녁을 먹은 뒤에 주동에 가서 묵었다. 의주(義州)의 김선상(金善相)이라는 사람과 오늘 밤 만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어둠을 무릅쓰고 간 것이다.
十六日。夕食後，往鑄洞留宿。蓋義州 金善相人，而今夜有約相會，故冒昏而去。

▪17일. 건(健)·순(順) 두 벗, 옥여(旭汝)와 함께 화류(花柳)를 구경하려고 길을 나섰다. 마침내 서소문(西小門) 위로 올라가 성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거닐면서 구경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곡성(曲城)으로 올라가서는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었다.

따사로운 기운 물씬 피어올라 봄 성에 가득하니	氤氳和氣滿春城
오늘은 먼 길 온 길손의 심정일랑 모두 잊으리	此日渾忘遠客情
집집마다 꽃이 만발하고 버들 빛도 한창인데	不但萬家花柳色
노래 소리 풍악 소리 한데 뒤엉켜 요란하구나	繚亂歌聲雜管聲

옥여가 먼저 읊었다.

봄기운 가득한 도성에 꽃이 한창 만발하여	春滿長安花滿城
한가한 날 변화한 거리에서 호탕한 정취 즐기네	繁華暇日矜豪情
화류 속에 술잔 들고 아름다운 봄날에 취하노니	一樽芳艸醉佳節
동풍 따라 사죽 ¹⁶⁴ 소리 곳곳마다 울려 퍼지누나	絲竹東風處處聲

저녁에 내려왔다.

十七日. 與健、順兩友及旭汝, 作花柳之行. 遂上西小門, 循城而北, 步步遊玩, 處處逍遙, 因上曲城, 遂吟一絕, “氤氳和氣滿春城, 此日渾忘遠客情. 不但萬家花柳色, 繚亂歌聲雜管聲.” 旭汝先吟曰, “春滿長安花滿城, 繁華暇日矜豪情. 一樽芳艸醉佳節, 絲竹東風處處聲.” 夕間下來.

▪18일. 비가 내렸다. 아침에 응제(應製)¹⁶⁵의 명을 듣고, 비를 무릅쓰고 근동

164) 사죽 : ‘사죽(絲竹)’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총칭으로, 사는 현악기며, 죽은 관악기를 말한다.

165) 응제(應製) : 임금의 명에 의하여 임시로 치르는 과거(科擧)에 시문(詩文)을 지어 시험을 보는 것을 말한다. 《정조실록》 1794년 3월 18일 기사에,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의 무사들에게 봄철에 행하는 활쏘기 시험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제술 시험을 베풀고 합격한 유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芹洞)에 가서 고시(古詩)를 지어 올리고 왔다.

十八日. 雨. 朝聞應製之令, 冒雨往芹洞, 製進古詩而來.

▪19일.

十九日.

▪20일. 주동(鑄洞)에 가서 송별하였는데, 용강(龍岡) 아객(衙客)¹⁶⁶이 내려오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二十日. 往鑄洞送別, 龍岡衙客之下來, 諸人而來.

▪21일. 아침을 먹기 전에 청배(靑排) 상원(尙元)의 집에 갔는데, 흥양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다. 밥을 먹은 뒤에 죽사(竹寺) 신종재(申宗才)가 지방군[鄉軍]으로 어제 들어와 가서(家書)를 전해 주었는데, 별 탈 없이 무사하다는 소식이어서 여러 달의 근심스럽던 마음을 조금 풀 수 있었다.

二十一日. 食前往靑排 尙元家, 欲探興陽消息而來矣. 食後竹寺 申宗才, 以鄉軍昨日入來, 來傳家書, 卽平信也, 稍解累月愁悶之懷.

▪22일. 벗들과 또 화류(花柳)의 봄 경치를 구경하려고 옥각치(六角峙)에서 필운대(弼雲臺)¹⁶⁷를 소요하다가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지난번 진경 찾아 이 산에 올랐을 때	向日尋眞上此山
향기로운 꽃 여린 가지 사이로 어우러졌는데	香葩交暎嫩枝間
지금 오니 꽃은 떨어지고 유람객도 얼마 없어	今來花落遊人少
때에 따라 골짜기도 잠시 한가롭기만 하여라	溪壑隨時亦暫閑

166) 아객(衙客) : 고을 수령을 찾아와 지방관아에 묵고 있는 손님을 이르던 말이다.

167) 필운대(弼雲臺) : 경북궁 서쪽 인왕산의 필운동에 있던 명승지로,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 뒤뜰에 있는 높은 암벽이다. 필운대 근처에 특히 살구나무가 많아서 예로부터 도성의 시인묵객들이 봄에 찾는 명소 중 하나였다고 한다.

옥류동(玉流洞)¹⁶⁸)으로 갔다가 필운대로 돌아와서 요기를 한 뒤에 석양 무렵 내려왔다. 이날 밤에 상당한 비가 내렸다. 봄이 된 뒤에 처음으로 내린 비라서 자못 보리를 파종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많이 내리지 않고 금세 갠 것이 흠이었다.

二十二日. 與諸友, 又作花柳之行, 自六角峙, 倘佯於彌雲臺, 吟一絕, “向日尋眞上此山, 香葩交映嫩枝間. 今來花落遊人少, 溪壑隨時亦暫閑.” 因往玉流洞, 還來彌雲臺, 療飢後, 乘夕陽而來. 是夜頗雨, 盖入春後初雨也, 頗有長麥播種之喜, 而不多即晴, 可欠.

■23일. 비가 개인 뒤에 하늘빛이 선명하였다.

二十三日. 霽後光明.

■24일. 아침을 먹은 뒤에 경모궁(景慕宮)의 조가(趙哥) 집에 갔더니, 조한(趙汗)과 아한(兒汗)이 모두 부재중이었다. 그래서 반촌(泮村)의 재광(再光) 집에 가서 화옥(華玉)을 보러 가자고 하였더니, 화옥(華玉)은 어제 미음(溪陰)¹⁶⁹)에 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현(梨峴) 내사거리(內四渠里)에 와서 흥양 지방군의 주인을 찾아갔는데, 수표교(水標橋)¹⁷⁰) 앞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우연히 이리(李吏)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동(竹洞)으로 왔는데, 사수(士壽)가 부재중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주동(鑄洞)으로 왔다. 치회(穉會)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에 차동(車洞)으로 왔다.

168) 옥류동(玉流洞) : 종로구 옥인동·통인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글자 그대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도성지도>에는 인왕산 아래의 수원처로 표시되어 있었다. 옥동·옥골이라고도 불렀다.

169) 미음(溪陰) : 강동구 암사동의 광나루 동쪽 한강이 꺾여 흐르는 곳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노수포, 독포라고도 하였다.

170) 수표교(水標橋) : 수표교는 현재 장충공원 내에 있다. 원래는 청계천에 있었던 것을 1959년 청계천 복개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 왔다. 세종 23년(1441년) 물 높이를 재는 ‘수표(水標)’를 다리 옆에 세워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종 때 나무로 만든 수표는 썩는 문제가 발생하여 성종 때 돌로 만들어 다시 세웠다고 한다.

二十四日. 食後往景慕宮 趙哥家, 則趙汗及兒汗皆不在, 故往泮村 再光家, 要見華玉爲言, 則華玉昨日出去溪陰云, 故來梨峴內四渠里, 尋訪興陽鄉軍主人, 而不知水標橋頭. 偶逢李吏, 暫話來竹洞, 則士壽不在, 故暫憩後來鑄洞. 暫與穉會相話, 夕間來車洞.

■25일. 일찍 일어나 경기 감영의 중영(中營)에 가서 주인령(主人令)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건(健)·순(順), 여러 젊은이들과 함께 남산(南山)에 가서 꽃을 구경하고 왔다.

二十五日. 早起往京畿監營 中營, 與主人令, 移時談話而來. 食後與健、順及諸年少, 同往南山, 看花而來.

■26일. 이른 아침에 상원(尙元)이 와서 말하기를, “고향 사람 중에 내려가는 인편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집에 보낼 편지를 써서 전하여 부칠 계획이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반촌(泮村)으로 가서 박 상사(朴上舍)의 소식을 물었더니, 나갔다고 하기에 북사동(北寺洞)으로 방향을 돌렸다. 복숭아꽃이 온 산을 뒤덮어 참으로 그림속의 강산 같고 비단으로 산골짜기를 수놓은 듯하였다. 종일토록 오르내리면서 회포를 풀다가 왔다.

二十六日. 早朝尙元來言, “有鄉人下去便.” 故修家書傳付之計. 食後往泮村, 問朴上舍消息, 則出去爲言, 故轉向北寺洞. 桃花遍山, 眞畫中江山, 錦繡溪壑也. 終日上下, 暢懷而來.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박 상사가 와서 만났다. 함께 한림(翰林) 이 흥양(李興陽)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 필운대(彌雲臺)에 대한 울시 한 수를 추가로 지었다.

애써 백척의 필운대에 올라
종일토록 꽃그늘에 앉았네
붉은 꽃잎은 이슬을 머금어 영롱하고
진홍의 색채는 바람을 시기하여 더욱 짙네

強登臺百尺
終日坐花陰
含露丹鬚淨
妬風絳色深

사람들은 시냇가에 옹기종기 앉아있고	芳磈人簇簇
나무들은 화려한 거리에 뻗뻗하게 서 있네	綺陌樹林林
금년 봄날의 농사 만족스러우니	春事今年足
벗들과 함께 곳곳을 찾아다니네	携朋處處尋

二十七日. 食後朴上舍來見, 因與同往翰林 李興陽家, 暫話而來, 追作弼雲臺一律, “強登臺百尺, 終日坐花陰. 含露丹鬚淨, 妬風絳色深. 芳磈人簇簇, 綺陌樹林林. 春事今年足, 携朋處處尋.”

■28일. 이른 아침에 청배(靑排) 상원(尙元)의 집에 가서 관가 하인 편에 집에 보낼 편지를 부치고 왔다.
十八日. 早朝往靑排 尙元家, 付送家書於官下人便而來.

■29일. 이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김이록(金履祿)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창동(倉洞)에 가서 박 참의(朴參議)를 만나고, 이어 주동(鑄洞)에 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죽동(竹洞)으로 가서 사수(士壽)를 만나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명동(明洞)의 순창(淳昌) 집에 들렀으나, 진사(進士)가 없었으므로 곧장 나와서 잠간 광교(廓橋)의 주서(注書) 집에 들렀다가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왔다.
二十九日. 早朝未起, 金履祿來見而去. 食後往倉洞見朴參議, 因往鑄洞, 移時相話, 轉向竹洞見士壽. 來路入明洞 淳昌家, 則進士不在, 故卽爲出來, 暫入廓橋 注書家, 小話而來.

■4월 1일. 아침을 먹은 뒤에 송현(松峴)의 안 교리(安校理) 집에 갔더니 화옥(華玉)이 벌써 도착해 있었는데, 전에 이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어 안현(安峴)에 가서 예판(禮判)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다시 호동(壺洞)으로 향하여 박 상인(朴喪人)을 만나고, 지나는 길에 진 판관(陳判官)을 잠깐 만났다. 또 유동(楡洞)에 가서 석사(碩士) 유자일(兪子一)을 만나고, 조점(趙店)에 갔더니 화옥도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함께 요기하고 왔다.
四月初一日. 食後往松峴 安校理家, 則華玉已來到, 盖前已有約會話矣. 因往安峴見禮判, 小話後, 轉向壺洞見朴喪人, 歷路暫見陳判官. 又往楡洞見兪碩士 子一, 又往趙店, 則華玉亦來待矣. 因與療飢而來.

■2일. 백건(伯健)과 한동(翰洞)에 가서 이 흥양(李興陽)을 만나 잠간 동안 이야기하고 왔다.
初二日. 與伯健往翰洞見李興陽, 稍間談話而來.

■3일. 옥여(旭汝) 삼종형제(三從兄弟), 건(健)·순(順) 형제와 뇌암(磊巖)에 가서 회포를 풀었는데, 여러 젊은이들이 오언 율시를 먼저 지었으므로 나도 갑작스럽게 율시를 지어냈다.

걸어서 서문 밖으로 나오니	步出西門外
시내 따라 그윽한 경치 펼쳐지네	沿溪境始幽
꽃을 보다가 늙은 이 몸 부끄럽고	看花羞老漢
애써 시구 찾다가 시를 양보하였네	覓句讓詩流
지팡이 짚고 산기슭을 따라서	携杖依山脚
갓끈을 씻으려 물가에 앉았네	濯纓坐水頭
내 나이 반백 년이 지났으니	吾年經半百
즐거운 일은 유람하는 것이네	樂事是傲遊

또 다음과 같다.

북쪽 산기슭에 방초의 향내 뚝해지니	北麓芳菲歇
서쪽 시내에 즐거운 일 아득하구나	西溪樂事幽
앉았노라니 산이 더욱 푸르르고	坐來山愈碧
가는 곳마다 물이 다투어 흐르네	行處水爭流

시를 짓노라니 저마다 푸른 눈빛이오¹⁷¹⁾
 술동이를 드니 모두 검은 머리¹⁷²⁾로세
 명승지에서 맛보는 끝없는 흥취
 우리들의 이런 유람에 있어라
 송로(松老)

覓句惟青眼
 携樽揔黑頭
 名區無限興
 吾輩有斯遊

저녁노을은 버랑에 붉게 돌아나는데
 봄빛은 산꼭대기에서 다해 가는구나
 가지고 온 술병에 남은 술이 있으니
 시를 읊조리며 온종일 노닐어 보세
 취암(醉菴)

夕陽生壁面
 春色盡山頭
 携酒有餘酒
 吟詩永日遊

또 다음과 같다.

꽃이 떨어지자 소나무 숲은 무성해지고
 명승지는 한적하고 고요하기만 하네
 재갈재갈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활기차고
 굽이굽이 시냇물은 어지러이 흘러가네
 푸른 방초 독 위에 파릇파릇 돌아나고
 취하여 부르는 노래 언덕 위에서 끊어지네
 새로 시를 지어 벽면에 써 붙이니
 이처럼 멋진 유람을 누가 알겠는가
 임계(林溪)

花落多松樹
 名區閑且幽
 嚶嚶啼鳥活
 曲曲亂溪流
 綠草芳堤上
 酣歌斷岸頭
 新詩題壁面
 誰識是真遊

初三日. 與旭汝三從兄弟及健、順, 往磊巖暢懷, 而諸年少, 出五律先成, 故猝構曰: “步出西門外, 沿溪境始幽. 看花羞老漢, 覓句讓詩流. 携杖依山脚, 濯纓坐水頭. 吾年經半百, 樂輩是傲遊.” 又 “北麓芳菲歇, 西溪樂事幽. 坐來山愈碧, 行處水爭流. 覓句惟青眼, 携樽揔黑頭. 名區無限興, 吾輩有斯遊.” 松老. 又 “花落多松樹, 名區閑且幽. 嚶嚶啼鳥活, 曲曲亂溪流. 緣草芳堤上, 酣歌斷岸頭. 新詩題壁面, 誰識是真遊.” 林溪. 又, “層巖十丈下, 閑坐松陰幽. 好鳥林中聒, 清溪洞裡流. 夕陽生壁面, 春色盡山頭. 携酒有餘酒, 吟詩永日遊.” 醉菴.

■4일. 아침을 먹은 뒤에 아현(阿峴)에 가서 민 낭청(閔廊廳)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다시 근동(芹洞)으로 와서 건(健)·순(順) 형제와 한동(翰洞)으로 가서 종일토록 글을 논하고 왔다.

初四日. 食後往阿峴, 訪閔廊廳不遇. 還來芹洞, 與健、順兄弟往翰洞, 終日論文而來.

■5일. 비가 내렸다. 근동(芹洞)에 가서 건·순과 한 수의 의(義)를 짓고 왔다.

初五日. 雨. 往芹洞與健、順, 做一首義而來.

■6일. 비가 내렸다. 근동에 가서 또 한 수의 의(義)를 지었다. 저녁에 함께 한동에 가서 글을 논하고 왔다.

初六日. 雨. 往芹洞又做一義. 夕間同往翰洞, 論文而來.

■7일. 비가 내렸다. 화옥이 와서 만나고 갔다. 오후에 여러 젊은이들과 종루

또 다음과 같다.

높다란 층층바위 열 길이나 솟아있고
 그윽한 숲 그늘에 한가로이 앉아 있네
 예쁜 새들은 숲속에서 시끄럽게 울어대고
 맑은 시냇물은 골짜기 안으로 흐르네

層巖十丈下
 閑坐松陰幽
 好鳥林中聒
 清溪洞裡流

171) 푸른 눈빛이오 : 원문의 ‘청안(靑眼)’은 반가운 눈길로, 뜻이 맞는 친구와의 만남을 뜻한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숙된 사람을 만나면 백안(白眼) 즉 흰 눈자위를 드러내어 경멸하는 뜻을 보이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안 즉 검은 눈동자로 대하여 반가운 뜻을 드러낸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簡傲》

172) 검은 머리 : 원문의 ‘흑두(黑頭)’는 검은 머리란 뜻으로, 곧 젊은 나이를 말한다.

(鐘樓)에 가서 백등(百燈)을 구경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비를 맞고 오다가 의복이 모두 젖었으니, 한탄스럽다.

初七日. 雨. 華玉來見而去. 午後與諸少年, 往鍾樓觀百燈, 而回路雨作. 冒雨而來, 衣巾盡濕, 可歎.

■8일. 비가 내렸다. 오후에 비가 그치자 어깨의 통증 때문에 한동에 가서 이 흥양(李興陽)에게 침을 맞고 왔다. 길을 따라 걸어둔 관등(觀燈)¹⁷³이 가히 장관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주인령(主人令)과 함께 동산(東山)에 올라가 관등을 구경하고, 또 남평(南平)과 노상(路上)으로 가서 관등을 보고 돌아왔는데 밤이 이미 깊었다. 이에 잠자리에 들었다.

初八日. 雨. 午後雨歇, 往翰洞, 以肩臂之痛, 受針李興陽而來. 沿路觀燈, 可謂壯觀, 夕飯與主人令, 上東山觀燈, 又與南平往路上, 觀燈而歸, 夜已深矣. 因爲就睡.

■9일.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가서 치회(釋會)를 만나고, 반촌(泮村)으로 길을 돌려 화옥을 만나고 왔다.

初九日. 朝食後, 往鑄洞見釋會, 轉向泮村, 見華玉而來.

■10일. 비가 내렸다. 저녁때 영감(令監)이 정청(庭請)¹⁷⁴하는 일로 비를 무릅쓰고 대궐에 이르렀다. 전해 듣기를,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뜰에 서 있었다고 하니 근심스러웠다.

初十日. 雨. 夕間令監以庭請事, 冒雨詣闕矣. 傳聞達夜冒雨庭立云, 悶悶.

■11일. 비가 내렸다. 아침 전에 한동에 가서 한참 동안 글을 논하고 왔다.

十一日. 雨. 朝前往翰洞, 移時論文而來.

173) 관등(觀燈) : 음력 4월 초 8일, 즉 석존(釋尊)의 탄일(誕日)을 기념하는 일로서 집집마다 등(燈)을 다는 등의 행사를 말하고, 법사(法事)는 불가(佛家)에서 행하는 공양(供養) 등의 행사를 말한다.

174) 정청(庭請) :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서 계(啓)를 올리고 전교(傳敎)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12일. 정오 무렵에 갑자기 모화관(慕華館)에 동가(動駕)¹⁷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경기 영문(京畿營門) 앞으로 갔다. 군병이 이미 진(陣)을 쳤는데, 감영에 어가를 멈추었기에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돌아왔다.

十二日. 午間猝聞動駕於慕華館之奇, 急往京畿營門前, 則軍兵已結陣, 而駐駕于監營, 故移時觀光, 卽爲下來.

■13일. 또 동가(動駕)한다는 기별을 듣고 칠패(七牌)로 갔더니 이미 명을 거두셨으므로 즉시 돌아왔다. 저녁에는 비가 왔다.

十三日. 又聞動駕之奇, 往七牌, 則已寢令, 故卽爲還來. 夕間雨作.

■14일. 비가 내렸다.

十四日. 雨.

■15일.

十五日.

■16일.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동(竹洞)에 가서 사수(士壽)를 만나고 왔다.

十六日. 食後往鑄洞談話, 因往竹洞, 見士壽而來.

■17일. 아침을 먹기 전에 한림(翰林)에 가서 글을 논하고 왔다.

十七日. 食前往翰林, 論文而來.

■18일.

十八日.

■19일. 흥양(興陽) 사환(使喚)이 와서 소식을 전하여 비로소 집에서 온

175) 동가(動駕) :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편지를 보았다. 유행성 전염병¹⁷⁶이 집안에 침범하여 여식이 경통(經痛)을 앓고 있다고 하니, 놀라고 염려됨을 어찌 다 말하랴.

十九日. 興陽 使喚來傳消息, 始見家書, 則時氣犯於家中, 女息經痛云, 驚慮何言.

▪20일. 주동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二十日. 往鑄洞, 談話而來.

▪21일. 귀남(龜南)종객(宗客)과 흥양(興陽)사람이 내려왔으므로 같이 청파(靑坡)로 가서 송별하고 왔다. 오전에 화옥(華玉)이 와서 보고갔다. 마필(馬匹)을 샀다.

二十一日. 龜南宗客及興陽人下來, 故同往靑坡送別而來. 午前華玉來見而去. 買馬匹.

▪22일. 주동(鑄洞)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오는 길에 유수(留守) 댁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다.

二十二日. 往鑄洞穩話, 來路入留守宅暫話, 因爲出來.

▪23일.

二十三日.

▪24일. 아침 전에 한동(翰洞)에 가서 이 흥양(李興陽)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정오 무렵에 출발하여 군포막(軍布幕)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四日. 朝前往翰洞, 見李興陽作別. 午間發行, 至軍布幕留宿.

▪25일. 동틀 무렵 길을 나서 수원(水原)을 지나가는데 그 성역(城役)의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석재(石材)로 길이 막혀 대로(大路)를 경유할 수 없으니 시내를 따라 우회하여 간신히 나와 중저점(中底店)

176) 유행성 전염병 : 원문의 '시기(時氣)'는 사시(四時)의 기운이 사기(邪氣)로 작용한 것으로, 계절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소사(素沙)에 이르자 바람이 크게 일어나 날리는 먼지가 눈앞을 가리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미 100여 리 길을 왔으니 말에게 병이 생길까 걱정되어 이에 머물러 묵었다.

二十五日. 平明登程, 過水原, 其城役之煩巨, 不可勝言. 石材塞路, 不得由大路, 沿溪迂回, 艱辛出來, 至中底店中火. 至素沙, 風氣大作, 飛塵溢目, 不得前進, 且已行百餘里, 則恐馬生病, 因爲留宿.

▪26일. 동틀 무렵에 출발하여 어렵사리 앞 강을 건너 천안읍점(天安邑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금전(金田)에 이르니 잠깐 비가 내렸다가 이내 그쳤다. 원터[院基]에 이르러 다시 말에게 꼴을 먹였다. 가랑비가 그치지 않는 데다가, 동풍까지 세게 불어 걸을 수가 없으므로 인주원(仁周院)에 머물렀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는데 쟁기질하기에 알맞을 정도로¹⁷⁷ 흡족하게 내렸다.

三十六日. 平明發行, 艱渡前江, 至天安邑店, 秣馬朝飯. 至金田, 乍雨乍歇至院基, 更爲秣馬. 細雨不止, 且東風大作, 不得行步, 故留仁周院. 是夜雨作, 洽滿一犁.

▪27일. 빗줄기가 그치지 않아 일찍 출발하지 못하다가 해가 뜰 때 비로소 길을 나섰다. 금강(錦江)을 건너 효포(孝浦)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채찍을 재촉하여 사교(沙橋)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七日. 以雨勢不止, 不得早發, 日出時始登程. 渡錦江, 至孝浦秣馬. 促鞭至沙橋留宿.

▪28일. 동틀 무렵에 길을 떠나 여산(礪山)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오후에 삼례(參禮) 10여 리를 지나 다시 말에게 꼴을 먹였다. 곧바로 완부(完府)를 지나 신원(新院)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듣자니 마을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고 하였다. 쌍정(雙亭)에 이르러 어렵사리 촌가(村家)를

177) 쟁기질에 알맞을 정도로 : 원문의 '일려(一犁)'는 논밭을 갈기에 알맞도록 내린 봄비를 가리킨다.

언어 유숙하였는데, 날은 저물고 또 작두가 없어 장초(長草)를 말에게 먹였다.
二十八日. 平明登程, 至礪山邑內, 秣馬療飢. 午後過參禮十餘里, 更爲秣馬.
直過完府, 將留新院, 聞村染大熾. 至雙亭, 艱得村家留宿而日暮, 又無斫刀,
以長草秣馬.

■29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나서 노구암(老狗巖)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잠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임실(任實) 굴암(窟巖)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증산(甌山)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九日. 未明登程, 至老狗巖朝飯, 暫爲秣馬. 至任實 窟巖秣馬, 至甌山
留宿.

■30일. 곡성(谷城) 역곡(驛谷)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천평(泉坪)에 이르러 묵었다.

三十日. 至谷城驛谷, 秣馬療飢. 至泉坪留宿.

■5월 1일. 새벽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소령(疏嶺)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재동(齋洞)에 이르자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五月初一日. 曉食後發行, 至疏嶺秣馬. 至齋洞, 日已昏黑矣.

■2일. 정오 무렵에 들어왔다.

初二日. 午間入來.

병진년(1796) 11월

丙辰十一月

■20일. 출발하여 조생(趙甥)을 데리고 직접 동촌(東村)에 가서 묵었다.

二十日. 發行而率趙甥, 親往東村留宿.

■21일. 유둔(油屯) 시장 근처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이에
용전(龍田)에서 머물렀다.

二十一日. 到油屯市邊, 秣馬療飢, 因留龍田.

■22일. 추워서 행장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데다 약노(若魯) 씨가 출타하였기
때문에 또 용전(龍田)에서 머물렀다.

二十二日. 寒以行具之未辦及若魯氏出他之, 故又留龍田.

■23일.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눈이 내렸다. 일찍 밥을 먹고 길에 올랐다.
백정(白亭)에 이르러 약노(若魯)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즉시 출발하여
추동(楸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눈바람이 크게
일어났지만 눈을 맞으며 길을 나서 가까스로 무동정(茂童亭)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이날 60리 길을 갔다.

二十三日. 朝晴暮雪. 早飯登程, 至白亭, 與若魯氏暫話, 卽發至楸洞, 秣馬
療飢. 風雪大作, 冒雪登道, 艱到茂童亭, 日已昏矣. 是日行六十里.

■24일. 맑았다. 이른 새벽에 사람을 고용해 우산(牛山)¹⁷⁸의 안덕로(安德老)
집에 보내 서간(書簡)을 전하게 하고 돌아오는 편을 기다렸다가 길에
올랐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천평(泉坪)¹⁷⁹에 이르러 묵었다. 노갯돈 1냥이
들어왔다. 이날 30리 길을 갔다.

178) 우산(牛山)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이다.

179) 천평(泉坪)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천평마을이다.

二十四日。晴。凌晨雇人，送牛山 安德老家傳書簡，待回便上程，日已晚矣。至泉坪留宿。路資錢一兩入。是日行三十里。

▪25일. 맑았다. 일찌감치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궁호(弓湖)에 이르러 허척(許戚)을 위문하였다. 이날은 바로 허척의 길례일(吉禮日)이다. 술잔을 올리고 잠시 쉬었다가 서둘러 정자로 돌아왔다. 잠시 사희(士希)와 생질녀를 만났는데, 생질녀가 끌어안고 큰 소리로 통곡하니 그 마음이 서글펐다. 석곡(石谷)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다음, 동막(東幕)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60리 길을 갔다.

二十五日。晴。早飯後上程，至弓湖吊許戚，是日即許戚吉禮日也。進酒盃暫休，催歸亭。暫見士希及甥姪女，甥姪女抱之大哭，其情慼矣。至石谷秣馬中火，到東幕留宿。是日行六十里。

▪26일. 동틀 무렵 길을 나서 증산(甌山)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오수(檜樹)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90리를 갔다.

二十六日。平明登程，到甌山，秣馬中火。至檜樹留宿。是日行九十里。

▪27일. 아침에 눈이 내리고 늦게 갠다. 날이 밝기도 전에 눈이 내려서 입모(笠帽)¹⁸⁰를 쓰고 길에 오르니 차가운 눈발이 길을 막았다. 눈이 내리자마자 얼어붙어 말이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노구암점(老狗巖店)에 도착하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눈이 개고 햇살이 나오니 길이 질퍽거리 잠시도 걸을 수가 없었다. 해질 무렵에 부내(府內) 영주인 집에 도착하였다. 어른들은 모두 안 계시고 어린 주인만 있었는데, 하는 일이 매우 서투르니 탄식할 만하다. 올 때에 두치(斗峙)에서 우연히 정언후(鄭彦厚)를 만나 말로 소식을 전했다. 주인집에서 공사지자(公事持者)¹⁸¹인 소동(小童)

180) 입모(笠帽) : 갓 위에 덮어 쓰는 우구(雨具)로서, 유지(油紙)로 만들며 원추형(圓錐形)이고 정점(頂點)으로부터 아래로 방사형(放射形)으로 많은 주름이 있어 접으면 쥐는 부채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

181) 공사지자(公事持者) : '지자(持者)'는 지방 관아들 사이에서 공문이나 물건 따위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지자군(持字軍)이라고도 한다. 《韓國漢字語辭典》

을 만나 집에 보낼 편지를 부쳤다.

二十七日。朝雪晚晴。未明雪作，笠帽登程，凍雪塞路。雪下即水，馬不能前。艱到老狗巖店，秣馬中火。雪霽陽生，行路泥濘，不得暫時徒步。薄暮到府內營主人家，大主皆不在，猶少主在，事多生疏，可歎。來時斗峙偶逢鄭彥厚，口傳消息。到主人家，逢公事持者小童付家信。

▪28일. 아침에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이른 아침에 천노(千奴)를 동지(同知) 김지행(金之行)의 집에 보냈더니, 즉시 그 아들을 보내왔기에 돈 2냥을 내주어 참빗을 사 오게 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는데 날이 이미 늦었다. 삼례(三禮)까지 3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능측점(陵側店)에 이르자 눈이 마구 쏟아져 잠깐 사이에 한 자나 쌓였으니, 객지 생활의 울적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날 50리 길을 갔다.

二十八日。朝日甚溫和矣。早朝送千奴於金同知 之行家矣。即送其子，故出給錢二兩，使之買眞梳而來。朝飯後登程，日已晚矣。至參禮三十里中火，催鞭至陵側店，雪已大作，頃刻盈尺，客中愁鬱，不可言。是日行五十里。

▪29일. 흐렸다. 동틀 무렵 길을 떠나 여산(礪山)에 이르렀는데, 선산(先山)에 투장한 자가 파서 옮기겠다는 기별을 듣고 곧장 서울로 향했다. 은진(恩津) 읍내까지 5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우연히 서울 손님 심 석사(沈碩士)를 만나서 동행하여 정천(定川)까지 40리를 가서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그저께 만마동(萬馬洞, 전주시 만마동)에서 울시 한 수를 읊었다.

말을 재촉하여 만마동으로 달리는데
먹구름 풀리지 않고 북풍이 일어나네
이처럼 강산의 기운이 매섭기만 하니
언제쯤 천지에 따스한 봄기운 오려나
눈을 밟고 겨우 삼백 리 길을 왔지만
얼음 밟으며 반 천 리 여정 어찌 가려나

匹馬催驅萬馬洞
頑陰不解朔風生
是時粟烈江山氣
何日陽和天地精
踏雪纔行三百里
踐冰那到半千程

-1,2자원문 결락⁻¹⁸²⁾ 옛 친구 응당 내 생각할 터이니 故舊應思我
서쪽 먼 하늘 바라보며 멀리 정만 보내네 西望長天遠送情

서로 돌아보며 왔던 길을 헤아려 보니 相顧計前程
덕평까지 삼십 리 길이었네 德坪三十里

二十九日. 陰. 平明登程, 至礪山, 聞先山偷葬者, 掘移之奇, 直向京路, 至恩津邑內五十里中火, 而偶逢京客沈碩士, 因與同行, 到定川四十里留宿. 是日行九十里. 再昨萬馬洞, 咏一律曰: “匹馬催驅萬馬洞, 頑陰不解朔風生. 是時粟烈江山氣, 何日陽和天地精. 踏雪纔行三百里, 踐水那到半千程. 故舊應思我, 西望長天遠送情.”

유천점(柳川店)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初二日. 寒. 鷄鳴登程, 至振威中火, 盖路上無非冰坡, 馬不着足, 十顛九倒, 艱辛入幕, 其寒苦不可言. 再昨公州路上, 口吟五絶曰: “落日公山路, 炊烟傍雪起. 相顧計前程, 德坪三十里.” 至柳川店留宿. 是日行九十里.

■30일. 몹시 추웠다. 꼭두새벽 길을 나서 효포(孝浦)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광정(廣亭)까지 80리에 이르자 날이 이미 저물고 눈이 또 내렸다. 광정에서 머물렀다.
三十日. 極寒. 曉頭登程, 至孝浦療飢. 至廣亭八十里, 日已暮, 雨雪且作矣. 留廣亭.

■3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나 화성(華城)에 이르렀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서 새로 지은 성가퀴 뒤로 화려한 경관이 많았지만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니 안타까웠다. 심 석사(沈碩士)와 진잠(鎭岑)의 유 서방(柳書房)과 동행하여 과천(果川)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출발할 때에 눈이 쏟아져 눈밭을 맞으며 남태령(南泰嶺)을 넘었고, 동작강(銅雀江) 가에 이르러서는 얼음을 타고 사장(沙場)에 이르렀다. 심 석사와 유 서방 두 사람과 서로 술을 마시며 작별하고 청배(靑排) 송상원(宋尙元)의 집에 들어가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12월 1일. 날이 쌀 무렵 길을 나서 천안(天安)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날씨가 비할 데 없이 추웠다. 채찍을 재촉하여 성환(成歡)까지 90리를 가서 묵었다.
十二月初一. 質明登程, 至天安邑內中火. 日寒無比. 催鞭至成歡九十里留宿.

初三日. 未明登程, 至華城. 尙開東, 城堞新築後, 多所侈觀, 而不得詳覽而過, 是所恨也. 與沈碩士及鎭岑 柳書房同行, 至果川邑內, 中火秣馬. 臨發雪大作, 冒雪越南泰嶺, 到銅雀江頭, 乘冰至沙場. 與沈, 柳兩人, 相飲作別, 入靑排 宋尙元家留宿. 是日行九十里.

■2일. 추웠다. 닭이 울자 길을 나서 진위(振威)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개 길이 빙판이 아닌 곳이 없어서 말이 발을 잘 딛지 못하여 열 번 넘어지고 아홉 번 거꾸러지며 가까스로 주막에 이르렀으니, 그 추위와 고통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그저께 공주(公州) 길 위에서 오언 절구를 읊었다.

■4일. 맑았다.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차동(車洞)에 가서 비로소 황해 감사[海伯]의 기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날 몹시 추웠다.
初四日. 晴. 早飯後往車洞, 始知海伯之奇. 是日極寒.

해가 떨어진 공산 길에 落日公山路
밥 짓는 연기 눈 속에 피어오르네 炊烟傍雪起

■5일. 추웠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注洞)에 가서 종인(宗人)들을 만나고 날이 저문 뒤에 나왔다.
初五日. 寒. 食後往注洞見諸宗, 日暮後出來.

182) 1, 2자 원문 결락 : 원문은 ‘故舊’인데, ‘故舊’과 결자의 관계를 알 수 없어 결락된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다.

▪6일. 추웠다. 아침을 먹기 전에 칠패(七牌)에 가서 생원 윤열(尹烈)을 만나 우리 집안의 세덕(世德)을 언급하고, 오는 길에 곧바로 근동(芹洞)으로 가서 벗 이건(李健)·이순(李順) 형제를 만났다. 또 이 흥양(李興陽)을 만나고 왔다. 初六日. 寒. 食前往七牌見尹生員 烈, 言及吾家世德, 而來路直向芹洞, 見李友健順伯仲. 又見李興陽而來.

▪7일. 요통(腰痛)이 매우 심했으나 가까스로 근동(芹洞)에 가서 이 흥양(李興陽)을 만났다. 또 칠패(七牌)에 갔으나 윤 생원(尹生員)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이날은 몹시 추웠다. 初七日. 腰痛大發, 艱往芹洞見李興陽. 又往七牌, 不見尹生員而來. 是日極寒.

▪8일. 또 몹시 추웠다. 대체로 금년의 추위에 대해 모두들 근래에 처음 있는 추위라고 했다. 요통이 그치지 않았는데, 또 감기까지 겹쳐 몸이 오한으로 심하게 떨렸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팔선(八仙)의 집을 청해 얻어서 불을 많이 때고 땀을 흘리자 한기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허리 병은 그대로였다. 初八日. 又極寒. 大抵今年之寒, 皆云近來初有云. 腰痛不止, 又患感氣大寒戰, 故不得已, 請得八仙家, 多爇取汗, 寒氣小減, 而腰病自如矣.

▪9일. 이른 아침에 칠패에 가서 윤 생원을 만나 대략을 말한 뒤에 곧장 팔선의 집에 와서 머물렀다. 初九日. 早朝往七牌見尹生員, 略言大槩後, 卽爲來留於八仙家.

▪10일. 종일토록 병을 조리하였다. 이날부터 날씨가 조금 풀렸다. 初十日. 終日調病. 自是日日氣稍解矣.

▪11일. 온화하였다. 이른 아침에 영감(令監)을 만나고 나와서 아침밥을 먹은 뒤에 주동(注洞)으로 가서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다시 칠패로 가서 윤 생원을 만나 한참 동안 정담을 나누고 왔다.

十一日. 溫和. 早朝見令監, 因爲出來, 朝飯後往注洞, 終日談話, 而來路轉往七牌見尹生員, 移時穩話而來.

▪12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온화하였다. 어제 행차할 때에 요통(腰痛)이 나아진 듯하였기 때문에 온종일 차가운 곳에 머물렀는데, 밤이 되자 또 심하게 아팠다. 이에 온돌방에서 몸조리하였다. 十二日. 朝陰晚和. 昨日之行, 腰痛似向差, 故終日所處無非冷突, 夜又大痛, 遂溫突調治.

▪13일. 몸조리하였다. 十三日. 調.

▪14일. 이른 아침에 가서 영감(令監)을 만나고 곧 나와 말 몇 마리를 팔았다. 十四日. 早朝往見令監, 卽爲出來賣馬匹.

▪15일. 조금 눈이 내렸다. 요통이 끝내 조금도 차도가 없어 출입할 수 없는데, 큰일이 여러 가지이니 초조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十五日. 小雪. 腰痛終無小差, 不得出入, 而大事多端, 焦悶不可言.

▪16일. 일찌감치 가서 황해 감사를 여점(旅店)에서 만났다. 이어서 근동(芹洞)에 가서 이 흥양(李興陽)과 이 석사(李碩士)를 만나 보았다. 또 칠패에 가서 윤 생원(尹生員)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춘백(春伯)이 말을 도로 물렸기 때문에 천노(千奴)로 하여금 청배(靑排)로 견송(牽送)하게 하였다. 十六日. 早往見海伯於旅店, 因往芹洞見李興陽及李碩士. 又往七牌見尹生員, 談而來. 春伯者還退馬匹, 故使千奴牽送靑排.

▪17일. 일찍 황해 감사가 머물고 있는 곳에 갔으나 어수선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왔다. 이날은 황해 감사가 떠났다. 十七日. 早往海伯所住處, 撓不能相面而來. 是日海伯出去.

▪18일. 비가 내렸다.

十八日. 雨.

▪19일. 행장을 꾸려 천노(千奴)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十九日. 治送千奴還鄉, 而情懷頗不安矣.

▪20일. 눈보라 치고 추웠다. 송산(松山)과 윤생(尹生) 두 사람이 와서 보고 갔다.

二十日. 雪風寒. 松山 尹生兩人來見而去.

▪21일. 매우 추웠다. 윤생이 또 왔으므로 함께 청배(靑排)에 가서 상원(尙元)을 보고 왔다.

二十一日. 極寒. 尹生又來, 故同往靑排, 見尙元而來.

▪22일. 매우 추웠다.

二十二日. 極寒.

▪23일. 또 추웠다.

二十三日. 又寒.

▪24일. 추웠다.

二十四日. 寒.

▪25일. 일찍 주동(注洞)에 갔으나 보지 못하고 오는 길에 청배의 상원 집에 들렀다. 마침 흥양(興陽) 사람이 왔기에 집에 보낼 편지를 부치고 왔다.

二十五日. 早往注洞不見, 而回路入靑排 尙元家. 興陽之人適來, 自其處付家書而還.

▪26일. 추웠다.

二十六日. 寒.

▪27일. 칠패에 가서 윤 생원을 보고 왔다.

二十七日. 往七牌見尹生員而來.

▪28일. 날씨가 조금 풀렸다. 이날 주동(注洞)에 가서 보청주인(譜廳主人)을 만나서 종현(鐘峴)에 함께 갔다가 송 교리(宋校理)를 만나고 돌아왔다.

二十八日. 日氣稍解. 是日往注洞見譜廳主人, 因與同往鐘峴, 見宋校理而還.

▪29일. 저녁에 여러 나그네들과 단문(團門)에서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노닐었는데 이날 밤에 절구 한 수를 지었다.

거문고와 한잔 술에 번잡한 가슴 후련해지니	琴破煩襟酒■憂
늘그막 객지살이의 괴로움일랑 조금도 없네	暮年客苦十分無
집안사람은 오늘밤의 즐거움 알지 못하리니	家人不識今宵樂
나를 생각하며 부질없이 얼마나 애를 태울런고	浪作愁懷幾憶吾

二十九日. 夕與諸客, 琴酒團門而遊, 是夜咏一絕曰: “琴破煩襟酒■憂, 暮年客苦十分無. 家人不識今宵樂, 浪作愁懷幾憶吾.”

▪30일. 조금 화창하였다. 근동(芹洞)에 가서 이 흥양을 만나고, 또 아현(阿峴)에 가서 송 진사(宋進士)를 만나고 돌아왔다.

晦日. 稍和. 往芹洞見李興陽. 又往阿峴見宋進士而還.

▪정사년(1797) 1월 1일. 날씨가 자못 따뜻하였다.

丁巳正月初一日. 日氣頗溫和.

▪2일. 아침 전에 근동에 가서 이 흥양을 만나고 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과 종현에 가서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初二日. 朝前往芹洞見李興陽而來. 食後往鑄洞及鍾峴, 終日談話而來.

▪3일. 청배에 가서 집에 보낼 편지를 부치고 왔다. 날씨가 매우 흐렸다.

初三日. 往靑排付家書而來. 日氣甚陰霾.

▪4일. 맑았다.

初四日. 晴.

▪5일. 청배(靑排)에서 곧장 주동(注洞)으로 향하였다. 날씨가 자못 풀리자 동풍이 크게 불었다. 또 진흙길이 무릎까지 빠졌기 때문에 간신히 주동(注洞)에 이르렀는데, 열이 오르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녁나절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길을 재촉하니 아까처럼 땀이 나는 것이 병이 난 것 같았다. 초경(初更) 무렵 몹시 춥고 떨려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모두들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부터 먹고 마시는 것이 매우 줄었고, 밤사이에 다섯 여섯 일곱 차례 설사를 하고 두세 차례 구토(嘔吐)를 하였다. 누워 있을 때에 경욱(景旭)의 버선과 옷을 겹쳐 입었는데 밤이 지나 아침이 될 때까지 끼입고 있었다.

初五日. 自靑排直向注洞, 日氣頗解, 東風大吹. 又泥路沒膝, 故艱辛到注洞, 氣熱上昇, 虛汗遍體. 夕時回路, 日暮促行, 汗出如俄, 疑有生病. 初更時頗寒戰, 故問於傍人, 則皆曰不然. 自其夕食飲甚減, 夜間泄瀉五六七, 嘔吐數三次. 臥時加覆景旭襪衣, 度夜而間朝.

▪6일. 추울 때는 감당할 수 없이 춥고 사지(四肢)는 마비되기 때문에 즉시 팔선(八仙)의 집으로 나가 불을 지피고 온돌을 따뜻하게 했지만 구토와 설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식후에 다시 사랑(舍廊)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웠지만 추위를 버틸 수 없어 또다시 팔선의 집으로 가야 했다.

初六日. 寒不可當, 四體麻木, 故卽出八仙家, 爇火溫突, 而吐瀉不止, 故食後復入舍廊, 閉門而臥, 寒不敢支, 當復出八仙家.

▪7일. 전날부터 정기산(正氣散)을 연이어 쓰고 소합환(蘇合丸)을 함께 썼으나 끝내 뚜렷한 효험이 없으니 초조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달인 약(煎藥)을 계속 쓰고 있으나 식음을 전폐(專廢)하고 있으니 비록 보약을 쓴들 병이 곧바로 차도를 보이지 않고, 먹어도 원기를 도울 수 없다. 그런데도 소용되는 돈이 하루에 7, 8전(錢)이니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하겠는가. 영동(永洞)의 이신효(李信孝)와 배생(裴生)이 와서 보고 간 후 집안 소식을 대강 들었다. 그런데 여아(女兒)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입으로는 전해 들었지만 편지에는 없으니 의심스럽고 괴이하였다. 선달 17일 밤에 꿈이 흉하더니, 그 병이 마침 발병한 것이 그때에 생긴 것이라면 다행이다.

初七日. 自前日連用正氣散兼用蘇合丸, 終無顯效, 焦悶不可言. 連用煎藥, 而又食飲專廢, 故雖用補製, 病不卽差, 食不補中, 而所用一日七八錢, 此將奈何. 永洞 李信孝及裴生來見而去, 略聞家信, 而女兒病奇, 口傳有之, 而書則無之, 可疑可怪. 臘月十七日夜夢凶矣. 其病適發, 其時生則幸也.

▪8일. 차동(車洞)의 내행차(內行次, 부인의 행차)가 해영(海營, 황해도 감영)으로 출발하였는데, 길목 밖 지척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경욱(景旭), 현숙(顯叔)과 작별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병의 위중함을 알 수 있다.

初八日. 車洞內行次 發向海營, 而留在門外咫尺之地, 不得與景旭、顯叔作別, 其病之重, 可知矣.

▪9일. 공생(孔生) 두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고 석아(錫兒)의 편지를 전하고 갔다. 오후부터 눈이 오다가 비가 내렸다.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는데 간병(看病)할 사람이 없으니, 비록 하루아침에 죽게 되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천노(千奴)는 애초에 내려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스스로 편하고자 하는 말로 인하여 내려보낸 것이었는데, 이처럼 뜻밖의 위급한 병이 생겼으니, 이를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初九日. 孔生兩人來見, 傳兒書而去. 自午後雪作而雨下. 病勢漸重, 看病無人, 雖一朝奄然, 何以知之? 千奴初不欲下送矣. 因人自便之言下送, 而有此

意外危病, 此將奈何?

▪ 10일. 몹시 추웠다. 정형교(井陘橋)의 김 주부(金主簿)에게 진맥(診脈)하여 병을 살펴보라고 하였더니, “금년의 감기(減氣)가 매년 이와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5~6의 약봉(藥封)을 사용하여 오늘 저녁에 달여 쓰십시오.”라고 하므로 즉시 지어 와서 기다렸다. 이생과 배생 두 사람이 만나보고 갔다.

初十日. 極寒. 要井陘橋 金主簿, 趁脈看病, 則“今年減氣, 每每如此, 而尚未的知, 使用五六藥封, 今夕煎用”云, 故卽爲製來以待. 李、裴兩生來見而去.

▪ 11일. 몹시 추웠다. 병세가 위중한데 약효가 전혀 없고 원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동(注洞)의 종인 익정(翼貞)이 와서 보고 갔다.

十一日. 極寒. 病勢沈重, 專無藥效, 眞元漸奪, 奈何? 注洞宗人翼貞來見而去.

▪ 12일. 또 몹시 추웠다. 병세가 조금도 변동이 없고 추운 날씨가 또 이와 같으니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을 사내가 가는 편에 향서(鄉書)를 부쳤다. 이(李)와 배(裴) 두 사람이 또 찾아와 보고는 길을 떠나기 어려워하고 측은해 하는 기색이 많았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민 남평(閔南平)이 찾아와서 보고 갔으며, 특히 백건(伯健)은 하루에 두 번 안부를 묻기도 하며 오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와 같이 몹시 추운 때에 왕래하던 사람도 끊기기 마련인데, 매년 가엽게 여기는 기색으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가니 지극히 감사한 일이었다.

十二日. 又爲極寒. 病勢小無變動, 日寒又如此, 此將奈何? 付鄉書於邑漢去便, 李、裴兩人又爲來見, 多有難離惻然之色. 多感閔南平來見而去, 惟伯健則一日或再問, 無日不來. 如此極寒, 絕無往來之人, 每以矜閔之色, 來問而去, 極感極感.

▪ 13일. 추웠다. 병세가 점점 위중해졌다. 보는 사람들은 번고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운명이라 한들 어찌하겠는가. 다만 천노(千奴)를 보내 버린 한 가지 일만이 마음속에 원통하게 맺혀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만사가 모두 재가 되겠지만, 다만 우둔한 자식 하나가 생계를 꾸려 가지 못하게 될까 이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송동(宋洞)의 종인(宗人)과 향객(鄉客)이 두서너 번 찾아와서 보고 갔다.

十三日. 寒. 病勢漸重, 觀者意其逢變, 吾亦未由, 此眞命也, 奈何? 但送奴一事, 冤結心頭. 人生身後, 則萬事皆灰, 而但愚魯一子, 使不得料生, 是所恨也. 宋洞宗人及鄉客數三來見而去.

▪ 14일. 병세가 비록 더하거나 덜하지는 않았으나 새벽부터 정신이 한 가닥 맑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대개 5~6일 전부터 연이어 계고(鷄膏, 닭고기를 삶은 곰국)를 쓰고, 그 밖에 치담(治痰, 담병을 치료함)을 위한 조제를 쓰지 않은 것이 없다 보니 이날 아침부터 숨 가쁜 증세가 달라진 듯하고 숨을 쉴 때 어깨가 들썩이는 증세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혹 만에 하나라도 살아날 길이 있다면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리는 일이 누구인들 간절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지 나도 모르게 탄식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선비(先妣, 죽은 어머니)의 기일(忌日)인데 단지 나 한 사람만 있을 뿐이고, 이미 사문(師門)의 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 지금 또 천 리 밖에서 와병(臥病) 중이라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또 하루의 재계를 잡지 못한다면 이는 나의 불효한 죄이니, 비록 객지에서 죽더라도 감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는가.

十四日. 病勢雖不加減, 自曉頭精神, 似有一綿開明之意. 蓋自五六日來, 連用鷄膏, 及他治痰之製, 無不備用, 自是朝喘促之症, 似有變動, 肩息之症亦止. 意或有萬一得生之路, 而調攝等節, 誰爲親切乎? 思之及此, 不覺咄咄, 然今日卽先妣忌日, 而只有吾一人, 已以門事, 不得祀者累矣. 今又臥病於千里之外, 不知祀事之行否. 又不得執一日之齋, 是吾不孝之罪, 雖死客地, 誰敢怨尤也?

■15일. 배생(裴生)이 돌아가겠다고 하니 어렵사리 몇 줄을 써서 부쳐 보냈다. 저녁에 이 석사(李碩士)가 4냥의 동(銅)을 가지고 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송진사(宋進士) 부자와 백건(伯健)이 찾아와서 보고 갔다.

十五日. 裴生告歸, 艱草數行, 付而去之. 夕間李碩士持來四兩銅. 夕飯後, 宋進士父子及伯健來見而去.

■16일. 이른 아침에 남평(南平)이 김 주부(金主簿)를 오라고 하여 그에게 맥(脈)을 짚어 보고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어제부터 손발과 복부에 부기가 점차 일어나서였다. 김 주부가 와서 보고 가미모령탕(加味冒苓湯) 3첩을 지어 주었으므로 그때에 지어 온 것을 즉시 달여 복용하고, 저녁 무렵에 또 1첩을 복용하였다. 며칠 전부터 대변을 너무 자주 보았고, 오늘 밤엔 연이어 다섯 차례 대변을 보았는데, 이 또한 별증(別症)¹⁸³⁾이니 불안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十六日. 早朝南平要來金主簿, 使之看脈看病, 而自昨日手足及腹部, 浮氣漸發矣. 金主簿來見, 製用加味冒苓湯三貼, 故自其時製來, 卽煎服之, 夕時又服一貼, 而自數日前, 大便顯有頻數之點矣. 今夜連下五次, 此又別症, 危不可言.

■17일. 시종 상(尙)이 데려온 의관(醫官)은 예전에 안면이 있는 서 주부(徐主簿)였다. 맥을 짚어 살핀 뒤에 곧바로 말하기를, “병은 특별히 염려할 것이 없으니, 다만 잘 조절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병이 날 때부터 연이어 계고(鷄膏)를 사용하였는데, 설사 때문에 달인 것을 물리치고 양고(胖膏)를 써서 대신 보충하였다. 읍의 사내 이득이(李得伊)가 돌아갈 것을 고하였기 때문에 집에 보낼 편지에 몇 자를 써서 백건(伯健)에게 부치려 했는데, 오지 않으니 괴이하다.

十七日. 尙僉要來一醫官, 卽前日知面人徐主簿也. 看脈後便曰: “病則別無可慮, 但善調攝也.” 自得病日, 連用鷄膏矣. 以泄瀉之故, 煎而却之, 用胖膏

183) 별증(別症): 병이 위독해서 달려 일어나는 다른 증세이다.

以爲代補之地. 邑漢李得伊告歸, 故修家書數字, 以付伯健, 不來可怪.

■18일 경유(景猷)가 와서 보았다. 종일토록 편안히 잠을 잤다. 낮에 꿈속에 천노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 기쁜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한참 뒤에 잠에서 깨어나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상원이 주동(注洞)에 가서 돈 62냥을 납부하고 왔다. 주동(注洞)에서 온 편지에 연시지(延諡紙)를 물리었다는 기별이 있었다. 이렇게 시급한 때에 이 일을 장차 어찌해야 좋겠는가. 나의 병이 이와 같아서 궤문 밖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주동(注洞) 사람을 시켜 대신 수고로이 마련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힘을 다하였으니, 매우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약간의 근력(筋力)이 며칠 설사를 하느라 모두 소진되어 말이 소리를 이루지 못하고 소리가 목에서 나오지 않아 숨이 곧 넘어갈 지경이라 아침에 저녁 일을 보장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저녁 무렵에 김 주부(金主簿)가 찾아와서 보고는 설사로 계고를 이미 중지했으니 오래지 않아 저절로 낫겠지만 남은 열이 여전히 오락가락하니, 인동차(忍冬茶)를 쓰면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저녁 무렵 백건(伯健)이 와서 보고 갔다.

十八日. 景猷來見. 終日安枕. 午夢千奴忽來現, 喜不可言, 移時睡覺, 回顧無有. 尙元往注洞, 納錢六十二兩而來. 注洞之書, 有延諡紙退托之奇, 當此急時, 此將奈何? 吾病如此, 不得出入門外, 專使注洞之人, 代勞措備矣. 其處不殫勞苦, 多方宣力, 極爲感幸. 若干筋力, 都消於數日泄瀉, 言不成聲, 聲不出喉, 氣息奄奄, 若不保朝夕矣. 夕間金主簿來見, 泄瀉鷄膏既止, 不久自差, 餘熱尙有往來, 又用忍冬茶則好矣云. 夕間伯健來見而去.

■19일. 이른 아침 이흥양(李興陽)이 삼노(三奴)에게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게 하였다. 날이 저문 뒤에는 이(李)·공(孔) 등 여러 사람과 김각(金珪), 최생(崔生)이 찾아와서 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다.

十九日. 早朝李興陽, 使三奴書問. 晚後李、孔諸人及金珪、崔生來見, 移時談話而去.

▪20일. 아침에는 상원(尙元)이 1냥의 돈을 가지고 찾아왔다. 간촌(看村)의 두 박생(朴生)이 이제 막 고향으로부터 와서 집안 소식을 전하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경모궁(景慕宮) 조한(趙漢)의 집을 가리키고 갔다. 고향 사람이 찾아왔고, 김생(金生)이 배[生梨] 5개를 사 왔다.

二十日. 朝尙元持一兩錢來見. 看村兩朴生, 新自鄉來爲傳家信, 喜幸喜幸. 問住接處, 指景慕宮 趙漢家而去. 鄉人來見, 金生買生梨五介而來.

▪21일.

二十一日.

▪22일. 주동(注洞)의 종인(宗人)이 찾아와서 상세히 말하기를, “연시(延諡)¹⁸⁴에 필요한 제구(諸具)들을 이미 다 준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관교(官敎, 임금이 내린 사령장)를 청하여 쓸 때 가서 만날 길이 전혀 없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二十二日. 注洞宗人來見, 詳言“延諡諸具之已盡準備”, 但官敎請寫時, 萬無往見之道, 此將奈何?

▪23일. 눈발이 날렸다. 이날은 바로 춘상갑(春上甲, 입춘 뒤의 첫 번째 갑자일)이다.

二十三日. 有飛雪點下, 是日卽春上甲也.

▪24일. 주동(注洞)의 종인(宗人)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주자 장인(鑄字匠人)을 다른 곳에 빼앗겨 사람을 시켜 그 기계(器械)를 빼앗아 오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환전(換錢)을 아직 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어긋날 염려가 있으니 한탄스럽다. 고향 사람 여러 명이 모두 찾아와서 보고 갔다. 전해 듣기로, 산양(山陽)의 안사강(安士剛)이 여점(旅店)에 와서 머물고 있다고

184 연시(延諡) : 시호를 받는 의례적인 행사로, 선시관(宣諡官)이 시호를 받들고 나오면 그 본가에서 해당 인물의 신주를 모시고 나와 시호를 받는 의식을 행하는 일을 말한다.

하는데, 병 때문에 가서 볼 방도가 없으니 서글프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二十四日. 注洞宗人來見爲言, “鑄字匠人之見奪於他處, 使人往奪其器械”云, 而以換錢之尙未入手, 故事有違之慮, 可歎. 鄉人數輩, 皆來見而去, 傳聞山陽 安士剛, 來留於旅店云, 而病無往見之道, 悵歎何極.

▪25일.

二十五日.

▪26일. 사동(沙洞)의 최생(崔生)이 찾아와서 만났다. 상원(尙元)이 주동(注洞)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한창 간행(刊行)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가서 만날 길이 전혀 없으니, 한탄스럽다.

二十六日. 沙洞 崔生來見, 而尙元自注洞來言, “方張刊役”云, 而萬無往見之道, 可歎.

▪27일. 어제부터 마음에 번민스러운 증세가 있어서 이른 아침에 팔선(八仙)을 김 주부(金主簿) 집에 보냈더니, 답하기를, “간병(看病)하기 위해 나갔다가 3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으니 한탄스럽다. 우선 소생(蘇生)과 강생(姜生) 두 사람이 돌아가겠다고 고하였기 때문에 가서(家書)를 부쳐 보냈다.

二十七日. 自昨日中焦似有煩悶之症, 故早朝送八仙於金主簿家, 則答云“看病次出去, 已三日不來云,” 故不得已空還, 可歎. 姑蘇、姜兩生告歸, 故付家書以送.

▪28일. 간촌의 박생(朴生) 두 사람이 돌아갈 것을 고하였기 때문에 구전으로 병이 차도가 있다는 기별을 가지고 갔다. 이 흥양(李興陽)은 연일 노복에게 서신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관교지(官敎紙)¹⁸⁵를 창동(倉洞)의 박 승지(朴

185 관교지(官敎紙) : 임금의 교지나 중앙 관서의 공문서용 한지인데, 주로 관아에서 사령(辭令)이 사용한 종이이다.

承旨) 집에 보냈는데, 나는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것에 실려 가려고 했다. 박 영(朴令)이 두세 번 전갈(傳囑)하여 “병이 이미 이와 같으니 비록 오지 않더라도 어찌 일의 체모에 손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고지(誥紙)만 보냈다. 저녁 무렵에 써서 보냈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조 낭관은 전적으로 원 좌랑(元佐郎)을 의지하였는데, 원 좌랑이 공적인 일 때문에 사직원을 내어¹⁸⁶⁾ 반드시 체차되었을 것이라 하니,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조 낭관 4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회헌(晦軒) 조 상서(趙尙書)가 선시(宣諡)하는 행렬에 갔으며, 한 사람은 사직서를 냈고, 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윤기(尹愴)¹⁸⁷⁾라고 하였는데 소식을 서로 물어볼 곳도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이날은 세수하고 머리도 빗었지만 종일토록 정신이 매우 편치 않아 답답하였다.

二十八日。看 朴兩人告歸，故口傳病差之奇而去。李興陽連日送奴書問。送官教紙於倉洞 朴承旨家，而以余病之莫可運動，故初欲擔去矣。朴令再三傳囑，“病既如此，則雖不來，豈有損於事體乎？”云，故只送誥紙矣，夕間書送，喜幸不可言。吏郎則專恃元佐郎矣，元也以公故呈旬，必遞爲意云，此將奈何？吏郎四人中，其一已去於晦軒 趙尙書宣諡之行，一則呈旬，一則未入，其餘一人，卽尹愴云，而無聲息相問處，奈何？是日洗手梳髮矣，終日神氣甚不安，悶悶。

▪29일. 대가가 화성(華城)에 거둥하였다. 이른 아침에 주동(注洞) 종인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천노(千奴)가 근간에 올 것만 같은데, 밤낮으로 몹시

186) 사직원을 내어 : 원문의 ‘정순(呈旬)’은 낭관(郎官)이 사임하려 할 때 10일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上官)에게 사직서(辭職書)를 올리는 것을 이른다.

187) 윤기(尹愴) : 1741~1826.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경부(敬夫), 호는 무명자(無名子)이다. 1773년(영조49)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20여 년 간 학문을 연구하였다. 1792년(정조16)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초사(初仕)로 종부시주부, 예조·병조·이조의 낭관으로 있다가 남포현감·황산찰방을 역임하였다. 이후 중앙에 와서 《정조실록》의 편찬관을 역임하였다. 벼슬이 호조참의에까지 이르렀다. 저서로 《무명자집(無名子集)》 20권 20책이 있다.

기다려도 끝내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二十九日。大駕幸華城。早朝注洞宗人來見而去。千奴之來似在近間，而晝夜苦待，終無消息，悶悶。

▪30일. 아침을 먹은 뒤에 산양(山陽)의 벗 안사강(安士剛)과 김각(金玉)이 찾아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다. 백건(伯健)이 와서 윤기(尹愴)의 거주지와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다. 이우(李友, 이씨 성을 가진 벗)가 자세히 알므로 이우로 하여금 통언(通言, 의사를 전달함)하게 하였더니 내일 마땅히 찾아가 물어볼 것이라고 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三十日。食後山陽 安友 士剛、金玉來見，移時談話而去。伯健來問尹愴居住及何樣人，則李友詳知，故因使李友通言，則明當探問云，可幸。

▪2월 1일. 날씨가 매우 화창하다. 오늘 대가가 환궁하는 날이다. 병으로 감히 볼 수는 없으나 그 행차¹⁸⁸⁾를 상상할 수 있었는데, 환궁이 평안하였으니 매우 다행이다. 지난번 집에 연달아 편지를 보내어 천노를 그믐 전에 올라오게 하였는데, 정월이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어찌면 집 아이가 나의 병 소식을 듣고 천노와 함께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지체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찌하여 그렇게 소식이 없겠는가?

二月初一日。日氣甚清和。今日大駕回鑾之日也。病雖不敢望，其清蹕可想，回鑾安穩，伏幸伏幸。前次連書於家，使千奴晦前上來，而正月已盡，杳無消息，鬱鬱之懷，不可言。無乃家兒聞吾病奇，與之偕來，故如是遲滯耶？何爲而然耶？

▪2일. 벗 백건이 이조 정랑 윤기에게 통언하여 답한 내용이 자못 의향이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다만 나의 병이 이와 같아 가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니, 이것이 유감스럽지만

188) 행차 : 원문의 ‘청필(淸蹕)’은 임금이 행차할 때 길을 깨끗이 쓸고 통행하는 사람을 비키게 하는 것으로, 곧 임금의 행차를 말한다.

어찌하겠는가.

初二日. 健友通言於尹吏郎, 所答頗向意云, 可幸. 但吾病如此, 不得往見面, 請彼之所料, 未知何如, 是可恨也, 奈何?

■3일. 공생(孔生)이 찾아와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다.

初三日. 孔生來見, 終日談話而去.

■4일. 벗 백건이 일찍 와서 이조 정랑 윤기의 족속이 윤 이랑(尹吏郎)에게 가서 편지를 가져왔는데, 대개 윤 이랑이 내가 직접 뵈고 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청한 것을 의아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병세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진술하여 이조에서 숙직하고 있는 팔선(八仙)을 이조(吏曹) 직방(直房)¹⁸⁹으로 보냈다. 주동(注洞)의 종인(宗人) 자승(子昇)이 찾아와서 만났는데, 또 공전(工錢)¹⁹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갔다. 천노(千奴)가 오기만을 몹시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서 정득(貞得)에게 점을 쳐 보게 하였더니, 궤에 “이번 달 14일에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드시 이와 같을 리는 없겠지만 오늘내일하면서 초순이 되도록 오지 않는다면, 연회일은 점점 다가오고 행기(行期, 길 떠나는 기한)는 지체되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오후에 조카 호(豪)가 노복과 말을 데리고 오니, 병중에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조 낭청이 좌랑(佐郎) 윤기(尹愷)를 청득(請得, 청촉(請囑)하여 허락을 얻음)하려 하였기 때문에 궤내에 관고(官誥, 사령장)를 들여보냈는데, 오늘 정사를 아직 열기 전이라 옥새를 찍지 못하였으니 서글프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조의 색구(色驅)¹⁹¹가 와서 만났는데, 흥양의 연회는 물력이 부족하여서 연회의 날을 3월 17일로 물려 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189) 이조(吏曹)의 직방(直房) : 직방은 조방(朝房)이라고도 하는데, 조정 관리들이 조회 시각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방으로, 궁성(宮城) 밖에 관아마다 따로 있었다.

190) 공전(工錢) :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해 준 대가로 주는 품삯을 말한다.

191) 색구(色驅) : 높은 벼슬아치가 부리는 하인의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이다.

색구에게 분부하였다. 색구가 말하기를, “내연(內宴)¹⁹² 날짜를 만약 여러 날 뒤로 물린다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전에 정한 24일에 연회를 베풀기 위해 행차하겠다고 이미 공사(公事)를 발송했기에 중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며칠을 물린다면 변통할 수 있는 방도가 있겠지만, 3월 보름 이후로까지 미루게 된다면 이는 곧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조(本曹)가 별 탈 없이 출발할지를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기한을 정한다면 그믐과 초하루 사이가 매우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관상감(觀象監)¹⁹³에 사람을 보냈더니 김 동지(金同知)가 다시 날을 택하여 왔다.

初四日. 健友早來, 裁尹吏郎之族抵尹吏郎書來, 而盖尹吏郎, 以吾之不面請, 而轉請爲訝云, 盛陳吾病勢之由, 於吏曹直中, 故送八仙於吏曹直房. 注洞 子昇宗人來見, 又言工錢苟艱之狀而去. 千奴苦待不來, 故使貞得問卜, 則卦云“今十四日必來”云. 必無如此之理, 而今日明日, 拖至初旬而不來, 則宴日漸迫, 而行期滯遲, 此將奈何? 午後豪姪, 率奴馬而來, 病裡喜幸, 不可言. 吏郎請得尹佐郎 愷, 故入送官誥於闕內矣, 未及於今日開政, 不得安寶, 恨歎何極? 吏曹 色驅來見, 而興陽宴次, 物力不足, 故宴日以三月十七日退定云, 故以此意, 分付於色驅, 則色驅言“內宴日, 若多日遲退, 則事多難便. 前定廿四日, 設宴行次之意, 已爲發公事難中止. 若退數日, 則可以有變通之道, 若至於三月望後, 則此卽之必行, 未可期也. 且本曹之無故發卽, 未可預知”云, “爲定限晦初間危好”云, 故卽送人於觀象監, 金同知更擇以來.

■5일. 이(李)와 공(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연회하는 날을 다시 택하고 이조 낭청에게 가서 고하였는데, 조카 호(豪)가 약고개[藥峴]¹⁹⁴의 이랑(吏郎)

192) 내연(內宴) : 내진연(內進宴)의 약칭으로, 곧 내빈(內賓)을 모아 베푸는 잔치를 말한다.

193) 관상감(觀象監) : 조선 시대, 천문, 지리학, 역수(曆數), 기후 관측, 각루(刻漏)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이르던 말이다.

194) 약고개[藥峴] : 지금의 서울시 중구 중립동(中林洞)에 위치한, 만리동(萬里洞) 입구에서 충정로(忠正路) 3가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서대문 밖에 있었다. 이곳에 약초를 재배하는 밭이 있던

집을 전후로 왕래하였다. 서간(書簡)과 연길지(涓吉紙)를 청배(靑排)의 김아(金兒)에게 써 주고 급히 내려보냈는데, 내일 새벽에 행장을 꾸려 출발하려던 참이기 때문이다.

初五日. 李、孔兩人來見，以宴日更擇，往告吏郎，而豪姪前後往來於藥峴 吏郎家。書給書簡及涓吉紙於靑排 金兒，急走下送，而將以明日曉頭治發。

■6일. 오늘 정사에서 옥새를 찍었다. 주동(注洞) 자승(子昇)이 이른 아침에 와서 말하기를, “노복과 말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인데 하향(下鄉)을 서두르다가 조섭(調攝)을 잘못할까 염려스럽다면서 가형(家兄)이 저더러 가서 만나보고 이 말을 전하라기에 찾아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李)와 공(孔) 두 사람 모두 찾아와 만났는데, 내일 고향으로 출발하려 한다고 하니, 쓸쓸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이날 아침을 먹기 전부터 오한(惡寒)의 기운이 있더니 이어 두통(頭痛)과 신열(身熱)이 일어나고, 또 종일토록 심하게 앓았다. 저녁에 김 주부(金主簿)가 찾아와서 보고는 삼소음(參蘇飲) 2첩(帖)을 복용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지어 먹었다. 밤이 깊은 뒤에야 조금 나아졌다.

初六日. 今日政安寶. 注洞 子昇, 早朝來言 “聞奴馬上來云, 未及蘇完之前, 急於下鄉, 有失攝之患, 故家兄使吾往見, 爲言此說, 故來見”云矣. 李、孔兩人皆來見, 將以明日發向鄉路云, 不無落漠之懷也. 是日自朝前有惡寒之氣, 因發頭痛身熱, 又作終日大痛. 夕間金主簿來見, 使服參蘇飲二帖, 故即製服之. 夜深後小差.

■7일. 이른 아침에 이조 서리(吏曹書吏)와 방직 사령(房直使令)¹⁹⁵들이 어보를 찍은 관고(官誥)를 받들고 와서는 예채(例債)¹⁹⁶를 요구하니, 각각의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195) 방직 사령(房直使令) : 방직은 관아의 심부름꾼의 하나인 방지기이며, 사령은 여러 관사(官司)에서 잡무를 보는 하급 관원 혹은 심부름꾼을 말한다.

196) 예채(例債) : 전례(前例)에 따라 바치는 돈이나 물품으로,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수고비를 말한다.

요구에 수응하여 통례원(通禮院)¹⁹⁷으로 보냈다. 서원(書員)¹⁹⁸이 왔기에 거행 규례(舉行規例)를 상세히 물어 조목조목 열거하여 써 오게 하여 흥양(興陽)으로 전송(傳送)하도록 하였다. 해영(海營)의 서간(書簡)이 도착하였고 돈도 올라왔다. 이 선달(李先達)에게서 돈이 또한 도착하였는데, 바라던 바와 크게 어긋나니 탄식할 만하다.

初七日. 早朝吏曹書吏及房直使令輩, 奉監官誥安寶, 因索例債, 各各酬應, 以送通禮院. 書員來見, 故詳問舉行規例, 使之條列書來, 以爲傳送興陽之地. 海營書簡來到, 而錢亦上來. 李先達處錢亦來到, 大違所望, 可歎.

■8일. 천노(千奴)를 시켜 150냥과 송 첨지(宋僉知)의 책값 5냥을 주동(注洞)에 지워 보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오한과 미약한 통증이 있었다. 오늘도 비록 통증이 줄지는 않았지만 시험해 보려는 생각에 오후에 남평(南平) 댁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다시 아랫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저녁 무렵에는 약고개[藥峴]에 갔으나, 윤랑(尹郎)이 부재중이니 섭섭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찬 공기를 쐬고 돌아왔더니 몸의 통증이 매우 심하여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혼미해졌다. 김 주부(金主簿)가 안신환(安神丸)¹⁹⁹을 가지고 왔는데, 감기가 들었다며 출입이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밤 3경 초에야 두통과 신열(身熱)이 그치며 정신이 조금 맑아졌는데, 아마도 학질의 기운인 것 같으니 매우 괴이하다.

初八日. 使千奴負送一百五十兩及宋僉知冊價錢五兩於注洞. 自數前連日, 有惡寒微痛之症矣. 是日則痛勢雖不減, 欲爲試驗之計, 午後往南平宅, 暫話後, 轉往下家, 小話而來. 夕間往藥峴, 則尹郎不在, 悵悵何言. 觸寒歸後,

197) 통례원(通禮院) : 국가의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198) 서원(書員) : 조선 시대에 각 관청에서 사환잡역(使喚雜役) 및 문서, 회계, 공사전달(公事傳達) 등을 맡았던 향리(鄉吏)를 가리킨다. 주로 서리(書吏)가 없는 관청에 배속된 아전의 하나로서 서리(胥吏)보다 격이 낮다.

199) 안신환(安神丸) : 감초(甘草), 마아초(馬牙硝), 맥문동(麥門冬), 백복령(白茯苓), 산약(山藥), 용뇌(龍腦), 주사(朱砂), 한수석(寒水石)으로 구성된 것으로, 심신이 허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라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身痛大發，昏昏以度矣。金主簿持安神丸而來，謂發感氣，不緊出入云。夜三更初，頭痛及身熱即止，神氣小快，必是瘧氣也，可怪可怪。

■9일. 아침에 안신환 2제(劑)를 복용했다. ■■는 김동지가 전후로 낸 약값이다.

初九日。朝服安神丸二劑。■■金同知前後藥價。

■10일. 아침을 먹은 뒤에 병든 몸을 부축하여 말에 올라 창동(倉洞)에 가서 승지(承旨) 박기정(朴基正)을 만나 관교(官敎)를 써 준 뜻과 그 밖에 연시(延諡)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 늦게나마 감사를 드렸다. 한참 말을 주고받고는 이어서 주동(注洞)에 가서 판인(板印)하는 일을 보았다. 종일토록 얘기를 나누다가 요기를 하고 나왔는데, 정신과 기운이 쇠약해져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초저녁에야 진정되었다.

初十日。食後扶病上馬，往倉洞見朴承旨 基正，追謝書給官敎之意及他延諡凡節。移時酬酢，因往注洞見板印之役。終日談話，療飢後出來，神氣沮喪，不省人事，初昏鎮定。

■11일. 이조에서 숙직하던 중에 급보(急報)하기를, “2일은 또한 국기일(國忌日, 군주나 왕후의 제삿날)이므로 감히 입계(入啓, 계장을 왕에게 올림)할 수 없으니 급히 고쳐 택일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4일로 다시 택하여 들여보냈더니 또 와서 “이날도 또 국기일이다.”라고 하므로 다시 택일할 예정이다.

十一日。自吏曹直中急報“初二日亦國忌，不敢入啓，急急改擇”云，故以初四日，改擇入送，則又來云“又是國忌”，故更擇爲計。

■12일. 날씨가 매우 사나워서 떠날 수가 없었다. 또 이조 낭청이 하번(下番, 당직)한다고 들었지만 가서 전혀 만날 길이 없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정오 무렵에 색구(色驅)가 또 급히 와서 내달 1일도 국기일(國忌日)이므로 입계할 수 없다고 하기에 부득이 전에 정한 29일로 정하여

해질녘에 이조에 써서 보냈다. 급히 약고개[藥峴]로 가서 윤 좌랑(尹佐郎)을 만나 병으로 만나 보지 못한 뜻을 말하고는 이어 청배(靑排)에 가서 묵었다. 十二日。風日極惡，不得發行，又聞吏郎之下番，而萬無往見之道，奈何奈何？午間色驅，又急來初一日，又是國忌，不可入啓云，不得已以前定廿九日，乘昏書送於吏曹。急往藥峴見尹郎，以謝病未相見之意，因向靑排留宿。

■13일. 이른 아침에 조카를 윤랑(尹郎)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고 오게 하였다. 창동(倉洞)에 천노(千奴)를 보내어 박 령(朴令)에게 전갈(傳喝)하게 하였는데, 박 령(朴令)이 입궐하였다고 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팔선(八仙)과 김 객(金客)이 모두 와서 모이고, 오득(五得) 형제도 모두 찾아왔다.

길을 나서 강가에 이르자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간신히 강을 건너 과천(果川)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그치지 않았고 자못 한기(寒氣)까지 있었는데 채찍을 재촉하여 갈산(葛山)까지 40리를 갔다. 요기를 한 다음 미륵당(彌勒堂)까지 20리를 가서 유숙하였는데, 연시(延諡)하는 날짜를 앞당겨 정한 뜻을 김 객(金客)에게 써 주고 먼저 가게 하였다. 그러나 발병[足病]으로 서둘러 갈 수 없어서 권 서방(權書房)을 갈산(葛山)에 먼저 보내어 어제 떠난 이·공 두 사람 편에 급히 가서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十三日。早朝送姪客於尹郎，使傳馬而來。送千奴於倉洞，傳喝朴令，而朴令入闕云。食後八仙及金客皆來會，五得兄弟皆來見。登程至江頭，盲風大作。艱辛渡江，至果川，風吹不止，頗有寒氣，促鞭至葛山四十里。療飢至彌勒堂二十里留宿，而以延諡日進定之意，書給金客，使之先去云矣。以足病不得急往，故已於葛山先送權書房，急往傳書於昨去李、孔兩人便。

■14일. 밤사이 편안히 잠을 이루고, 또 별다른 증세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해가 뜨자 길을 나서 화성(華城)에 이르러 요기를 한 다음, 오산(烏山)까지 50리를 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소사(素沙)까지 40리를 가서 묵었다.

十四日。夜間安寢，又無別症之作，可幸。日出登程，至華城療飢，至烏山五十里，秣馬中火。至素沙四十里留宿。

■15일. 동이 틀 무렵 길을 나서 성환(成歡)에 이르러 잠시 말에서 내려 요기를 하였다. 천안(天安)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는데, 김 객이 발병이 심하여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또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원터[院基]가 모조리 불에 탔다고²⁰⁰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덕평(德坪)까지 30리를 가서 묵었다.

十五日. 平明登程, 至成歡, 暫爲下馬療飢. 至天安邑內, 秣馬中火, 而金客足病大端, 專不運動, 可悶. 又細雨或下, 而院基盡入回祿云, 故不得已至德坪三十里留宿.

■16일. 동이 틀 무렵 길을 나서 원터를 지나가는데 불과 두서너 집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그 모습이 근심스럽고 가슴 아팠다. 인주원(仁周院)에 이르러 요기하고, 모란원(牧丹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금강(錦江)을 건너 경천(敬天)²⁰¹에서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十六日. 平明登程, 過院基, 不過數三家僅免, 餘皆燒燼, 景色愁痛矣. 至仁周院療飢, 至牧丹院, 秣馬中火. 渡錦江至敬天留宿. 是日行百里.

■17일. 귀남(龜南) 김생(金生)이 발병 때문에 계속 고마(雇馬)²⁰²를 타고 왔는데, 지금은 동행할 수 없다고 하니 가없고 걱정스럽다. 팔선(八仙)과 헤어지고 곧바로 금산(錦山)으로 향하였다. 몇 달 동안 그의 집에서 손님으로 있었던 데다가 또 정성을 다해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인데, 중도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니 섭섭한 심사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김생(金生)은

200 불에 탔다고 : 원문의 '회록(回祿)'은 오회(吳回)와 육종(陸終), 곧 전설상의 불의 신을 말한다. 옛날의 제왕 전욱(顓頊)의 손자와 그 아우 오회, 아들 육종이 뒤를 이어 화정(火正)이 되었는데, 세 사람 모두 직무에 충실하고 공명정대하여 화신(火神)으로 섬겼다. 회록은 오회와 육종을 줄인 말이므로 '회록(回祿)'이라 해야 할 것이, '록(陸)'과 '록(祿)'은 음이 서로 통하여 '회록'으로 관례화되었는데, 화재를 '회록지재(回祿之災)'라고 한다.

201 경천(敬天)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에 속하는 법정리로, 경천역(敬天驛)이 있어 경천(敬天)이라 하였다.

202 고마(雇馬) : 조선조에 지방 관아에서 백성으로부터 고용하여 쓰는 말이다.

마을 앞에서 뒤쳐졌다. 그 또한 노자가 적다고 하니 몹시 가련하였다. 이성(尼城)에 이르러 요기하고 초고(草稿)에 도착하였다. 권 서방(權書房)이 수삼 일 동안 길을 재촉하여 갔으나 끝내 이·공의 일행을 만나지 못하고, 사교(沙橋)에서 이춘영(李春英)을 만나서 데리고 왔다. 그러므로 시기를 어긴 잘못이라 책망하고는 함께 데리고 왔다. 은진(恩津)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능촌(陵村)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十七日. 龜南 金生, 以足病連騎雇馬矣, 今則不得同行云, 可矜可悶. 與八仙分路, 直向錦山. 累月作客於渠家, 又是盡誠救病之漢, 中路分張, 情事悵缺, 不可言. 金生於村前落後, 渠又行資之小云, 極可矜憐. 至尼城療飢, 行到草稿, 則權書房者, 數三日促行, 終不及李、孔之行, 逢李春英於沙橋, 因爲領來, 故責以違期之失, 因與率來. 至恩津, 秣馬中火. 至陵村留宿. 是日行九十里.

■18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우연히 나주(羅州) 사람을 만났다. 그는 금호(錦湖)의 방손(傍孫)이라고 하였으므로 잠시 그와 집안 소식과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에 올라 길을 나섰는데, 빗방울이 이따금 떨어지고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반드시 비 올 징조가 있으니 걱정스러웠다. 채찍을 재촉하여 삼례(參禮)에 이르렀다. 찰방(察訪)인 김척(金戚)을 만나 보고자 하니, 병이 나서 약을 복용하였다는 문리(門吏, 문지기)의 말에 김척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나 보다고 생각하였다. 요기하고 조촌(助村)의 앞들에 이르니 비가 크게 내려 옷이 모두 젖었다. 간천(良川)에 이르자 비가 바로 개었다. 부내(府內)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서문 밖 여점(旅店)에 앉았다. 천노(千奴)에게 주인집에 가서 흥양(興陽)의 지자(持者)²⁰³와 군휘(君徽)가 올라왔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게 하였다. 잠시 있다가 천노가 군휘를 데리고 왔으므로 함께 말을 타고 남문 밖 여점에 이르러 안장을 풀고 여막에 들어가 유숙할 작정이었다. 즉시 첨지(僉知) 김지행(金持行)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여점(旅店)으로 돌아와 묵었다. 이날 50리를 갔다.

203 지자(持者) : 지방 관아들 사이에서 공문이나 물건 따위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지자군(持字軍)이라고도 한다. 《韓國漢字語辭典》

밤에 흥양(興陽)의 소식을 상세히 물어보니, 연회를 베풀 비용이 터무니없다고 하였다. 비록 염려스럽다 하더라도 이랑(吏郎)이 이미 출발하였을 것이니 장차 어찌 하겠는가.

十八日. 早朝發行, 偶逢羅州人, 云是錦湖傍孫, 故暫與敘族談話. 上馬登程, 則點雨時下, 天氣昏黑, 必有雨徵, 可悶. 促鞭至參禮, 欲見察訪 金戚, 則所謂門吏云有病服藥意者, 金戚之不欲見故也. 療飢至助村前野, 雨勢大作, 衣服盡濕. 至艮川, 則雨即晴矣. 至府內下馬, 坐西門外旅店. 使千奴往主人家, 問興陽 持者及君徽上來與否矣. 須與千奴引君徽而來, 故同與上馬, 至南門外旅店, 鞍入幕爲留宿計. 即往金僉知 持行家, 暫與相話, 即還旅店留宿. 是日行五十里. 夜間詳問興陽消息, 則設宴之資孟浪云, 雖爲憂慮, 然吏郎想已發行, 將奈何?

■19일. 새벽녘에 군휘(君徽)와 작별하고, 노구암(老狗巖)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오수(獒樹)에 이르러 또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전석치(磚石峙)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110리를 갔다.

十九日. 曉頭與君徽作別, 至老狗巖, 朝飯秣馬. 至獒樹又秣馬, 至磚石峙留宿. 是日行百十里.

■20일. 날이 밝아 올 무렵에 길을 나서 남원(南原) 읍내(邑內)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방천등(防川登)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석곡원(石谷院)에 이르자 날이 이미 저물어 천평(泉坪)에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 그때 괴치(怪峙)에서 들으니 연아(年兒, 아들 석년(錫年))가 천평(泉坪)에 와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二十日. 質明登程, 至南原邑內療飢. 至防川登, 秣馬中火. 促鞭至石谷院, 日已暮矣, 不得入去泉坪而來. 時怪峙聞年兒來待泉坪矣, 還爲入去云耳. 是日行百里.

■21일. 동이 틀 무렵 길을 나서 무동정(茂東亭)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벌원(伐院)에 이르러 잠시 요기를 하고 대강(大江)의 용전(龍田)에 이르니 이미 초경(初更)이었다. 즉시 도청(都廳)²⁰⁴에게 기별을 보냈더니 모두 도착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이날 100리 갔다.

二十一日. 平明登程, 至茂東亭, 秣馬中火. 至伐院暫爲療飢, 至大江龍田, 已初更矣. 卽爲通奇於都廳, 則俱爲來到矣. 夜雨. 是日行百里.

■22일. 잠시 원등(院登)의 도청에게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즉시 들어왔다.

二十二日. 暫往院登 都廳, 暫話卽爲入來.

204) 도청(都廳) : 나라에 큰 예(禮)나 역사(役事)가 있을 때 도감(都監)을 설치하는데, 도감에 딸린 벼슬의 하나로 낭관(郎官)의 우두머리이다.

무오년(1798) 9월

戊午九月

■2일. 행장을 꾸려 서울로 출발하였다. 대개 지난해에 연시(延諡)한 뒤로 처음 길을 나선 것인데, 시호(諡號)를 내려 줄 때의 예관(禮官)에게 사례(謝禮)를 할 생각이다. 과역(過驛)에 이르니 봉동(鳳洞)의 송 도감(宋都監)과 지정(池亭)의 신생(申生)이 요로(要路)에서 전송하였다. 이어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탄포(炭浦)에 이르렀다. 남원(南原)의 생아(甥兒)가 도중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병동(屏洞)에 와서 묵었다.

初二日. 治發京行, 蓋爲年前延諡後初行也, 爲謝宣諡時禮官之意也. 至過驛, 鳳洞 宋都監、池亭 申生, 要路餞行. 因爲秣馬, 至炭浦. 南原甥兒留待路中, 故暫話後, 來宿屏洞.

■3일. 오후에 연아(年兒, 아들 석년)와 조카 호(豪)를 돌려보내고 종인(宗人)인 지각(之珪)과 동행하여 낙안(樂安)에 이르렀다. 상중(喪中)에 있는 낙승(樂承) 박씨 집에서 묵었다.

初三日. 午後還送年兒及豪姪, 與宗人之珪同行, 至樂安. 樂承 朴哀家留宿.

■4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서면로(西面路)에 이르러 이 좌수(李座首) 형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동정(茂童亭)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순천(順天) 천평(泉坪)에 와서 머물렀다.

初四日. 朝食後, 至西面路, 逢李座首兄弟暫話. 至茂童亭中火, 來留順天泉坪.

■5일.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금곡(金谷) 이 생원(李生員) 집에 이르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귀정(歸亭) 앞길에서 우연히 조 석사(趙碩士)를 만나 곧바로 조생(趙甥)의 서간(書簡)을 전하고 나서 서둘러 석곡(石谷) 시장가에 이르니 사헌(士憲)이 기다리고 있는 지 오래였다. 그대로 석곡 박사(朴哥)의 점막(店幕)에 머물렀다. 대개 서울 사람 김성삼(金聖三)을

기다리려는 것이었는데 종일토록 오지 않으니 한탄스럽다.

初五日. 食後登程, 至金谷 李生員家暫話. 至歸亭前路, 偶逢趙碩士, 卽傳趙甥書簡, 急到石谷市邊, 士憲留待已久矣. 仍留石谷 朴哥店幕, 蓋欲留待京人金聖三故也, 終日不來, 可歎.

■6일. 일찍 출발하여 불우치(不憂峙)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곡성(谷城) 이천(離川)에서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창화점(昌和店)에 이른 뒤에 남성(南省) 방생(房生) 집을 찾아갈 때 말이 석교(石橋)에서 떨어져 짐바리가 모두 젖었으므로 몹시 화가 났다. 도리산(道里山)방생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면서 성산(聲山) 기지(器之)의 병 소식을 들었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初六日. 早發至不憂峙朝飯. 谷城 離川中火秣馬. 至昌和店後, 尋入南省 房生家之際, 馬落石橋, 所馱卜物盡濕, 可憤可憤. 至道里山 房生家留宿, 聞聲山 器之病報, 極可慮也.

■7일. 일찍 출발하여 사곡(蛇谷)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야당(野塘)에 이르러 묵었다.

初七日. 早發至蛇谷, 中火秣馬. 至野塘留宿.

■8일. 밤에 가랑비가 오다가 새벽에 개었다. 일찍 출발하여 굴암(窟巖)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노고암(爐古巖)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전주 부내(全州府內)에 이르러 먼저 사헌(士憲)과 노복과 말을 영주인(營主人) 집에 보내고, 곧장 김 동지(金同知) 집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영주인(營主人) 집에 가서 묵었다.

初八日. 夜微雨曉晴. 早發至窟巖療飢. 至爐古巖, 朝飯秣馬. 至全州府內, 先送士憲及奴馬於營主人家, 徑往金同知家, 暫話後, 往營主人家留宿.

■9일. 밤에 비가 오다가 늦게 개었다. 비가 그치지 않아 일찍 출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빗을 사 두는 일을 제때 하지 않아서 머물며 기다리려니 고민스러웠다. 날이 저문 뒤에 김 동지가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즉시

빚을 샀다. 또 염포(染布)와 마경(磨鏡) 등의 물건을 김 동지의 아들에게 부치고 곧바로 출발하였다. 찬바람이 심하게 불어 간신히 능 옆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즉시 출발하여 여산 신점(礪山新店)에 이르러 유숙할 즈음, 천만뜻밖에도 팔선(八仙)이 나타나니 매우 기뻐다. 밤에 잠깐 비가 왔다.

初九日。夜雨晚晴。以雨意之不霽，不得早發。且以質梳未及事，留待苦憫。晚後金同知送其子，故即爲質梳。且付染布及磨鏡等物於金子，即爲發行。寒風大作，艱到陵側，日已暮矣。暫爲秣馬，即發至礪山新店，留宿之際，千萬意外，八仙來現，喜喜。夜暫雨。

▪10일. 꼭두새벽에 길을 떠났다. 사교(沙橋)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효포(孝浦)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初十日。曉頭發程。至沙橋，中火秣馬。至孝浦，日已暮矣。

▪11일. 일찍 출발하여 금강(錦江) 모래톱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광정(廣亭)까지 5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우연히 광주(光州) 평장동(平章洞) 김 참봉(金參奉)과 서울 사람을 만났다. 순귀(順歸)하는 말²⁰⁵을 사헌(士憲)이 세내어 타고 왔다. 천안(天安)까지 50리를 가서 묵었다.

十一日。早發至錦江沙頭療飢。至廣亭五十里，朝飯秣馬。偶逢光州平章洞金參奉及京人。順歸馬士憲貫馬騎來。至天安五十里留宿。

▪12일. 김 참봉과 동행했다. 일찍 출발하여 성환(成歡)까지 4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진위(振威)까지 50리를 가서 요기하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중저(中底)까지 20리를 가서 묵었다.

十二日。因與金參奉同行。早發至成歡四十里，朝飯秣馬。至振威五十里，療飢秣馬。至中底二十里留宿。

205 순귀(順歸)하는 말 :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사람의 인편에 따라 오는 말을 말한다.

▪13일. 꼭두새벽에 길을 나서 갈산(葛山)까지 6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동작(銅雀)을 건너 청파(靑坡)에 들어가 묵었다.

十三日。曉頭登程，至葛山六十里，朝飯秣馬。渡銅雀，入靑坡留宿。

▪14일.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가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흥양(興陽)의 지자(持者)가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그 편에 집으로 편지를 부쳤다.

十四日。食後往鑄洞，終日談話而來。聞興陽持者下去，便付家書。

▪15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차동(車洞)에 갔더니, 주인은 때마침 도승지(都承旨)가 되어 입직하여 경모궁(景慕宮) 거동할 때에 배종하였으므로 다만 진사 옥여(旭汝)와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퇴근한 뒤에 잠시 주인을 만나고 곧바로 내려와서 청파(靑坡)에서 묵었다. 밤에 비가 왔다.

十五日。早食後往車洞，則主人時爲都承旨入直，陪景慕宮舉動，故只與進士旭汝，終日談話。申退後，暫見主人，即爲下來，靑坡留宿，夜點雨。

▪16일. 주동에 가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파에 와서 머물렀다.

十六日。往鑄洞，終日相話，來留靑坡。

▪17일. 차동에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十七日。往車洞因留。

▪18일. 근동(芹洞)에 가서 이 석사(李碩士)와 이 흥양(李興陽)을 만나고 차동에 머물렀다.

十八日。往芹洞見李碩士及李興陽，留車洞。

▪19일. 춥다. 아침을 먹기 전에 내려와서 사헌과 함께 주동(注洞)으로 가서 종일토록 있다가 왔다.

十九日。寒。食前下來，與士憲往注洞，終日而來。

▪20일. 합동(蛤洞)에 가서 윤 남포(尹藍浦)를 만나고, 오는 길에서 이 흥양(李興陽)을 만났다.

二十日. 往蛤洞見尹藍浦, 而來路見李興陽.

▪21일. 일찍 예조(禮曹)에 가서 안일득(安一得)을 만나서는 백현(栢峴)의 예사(禮斜) 문서를 주었다. 오는 길에 민 선전(閔宣傳)의 집에 들어가 조문하고 왔다.

二十一日. 早往禮曹 見安一得, 因給栢峴禮斜文書. 來路入閔宣傳家, 吊喪而來.

▪22일. 또 주동(鑄洞)에 가서 이야기하고 오는 길에 박 승지(朴承旨)를 만나고 왔다.

二十二日. 又往鑄洞談話, 而來路見朴承旨而來.

▪23일. 차동에 머물렀다.

二十三日. 留車洞.

▪24일.

二十四日.

▪25일. 감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었다.

二十五日. 以感氣不得出入.

▪26일. 박 상사(朴上舍)가 반촌(泮村)에서 찾아왔다. 사헌(士憲)과 지환(之煥)이 찾아와서 만났다.

二十六日. 朴上舍自泮村來見. 士憲及之煥來見.

▪27일. 주동(注洞)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윤 남포가 찾아와서 보고 갔다. 밤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어 추웠다.

二十七日. 往注洞暫話而來. 尹藍浦來見而去. 夜雨風寒.

▪28일. 추웠다.

二十八日. 寒.

▪29일. 맑고 화창하였다.

二十九日. 晴而和.

▪10월 1일. 주동(鑄洞)에 갔다 왔다.

十月初一日. 往鑄洞而來.

▪2일.

初二日.

▪3일.

初三日.

▪4일. 날씨가 계속 화창하여 겨울철 같지 않았다. 이날 합동(蛤洞)에 가서 윤 남포(尹藍浦)를 보고 왔다.

初四日. 日氣連和, 不若冬節矣. 是日往蛤洞, 見尹藍浦而來.

▪5일. 아침을 먹기 전에 근동(芹洞)에 가니 백건(伯健)이 요기거리와 술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는데, 가난한 집에 폐를 끼치니 도리어 편치 않았다. 밤에 뇌우가 퍼붓고 우박이 내렸다.

初五日. 朝前往芹洞, 伯健備療飢及酒而饋之, 貧家貽弊, 還爲不安, 夜雷雨電雹.

▪6일.

初六日.

▪7일. 주인영감이 도령(都令, 승지)이 되어 새벽에 대궐에 나아갔다. 이날 치통과 감기를 치료할 작정으로 청파(靑坡)의 순흥(順興) 집에 와서 머물렀다.

初七日. 主人令爲都令, 曉頭詣闕. 是日以齒痛及感氣, 爲調治計, 來留靑坡順興家.

▪8일. 종일 비가 왔다. 아침 전에 사헌(士憲)이 파주(坡州)로 길을 떠났는데, 비가 그치지 않아 중도에서 낭패를 당했을 것이 뻔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初八日. 終日雨. 朝前士憲作坡州之行, 而雨勢不止, 中路見敗必矣, 爲慮萬萬.

▪9일. 듣자니, 치회(穉會)가 포천(抱川)의 묘소에 간다고 하므로 이른 아침에 내열(乃悅)과 함께 주동(注洞)에 갔다. 한낮이 되어서야 작별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차동(車洞)에 가서 유숙하였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가 침구(寢具)를 미처 가져오지 못하여 몹시 추워 편안히 잠들 수가 없었다. 새벽에 도령(都令)이 입궐한 뒤에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初九日. 聞穉會作抱川墓行云, 故早朝與乃悅同往注洞. 至日中作別, 且有多般酬酢而來. 朝飯後, 往車洞留宿, 日氣猝寒, 且寢具未及持來, 寒冷不得穩寢. 曉頭都令之詣闕後, 始着一睡.

▪10일. 추웠다. 저녁 무렵 내려왔다. 청파에서 묵었다.

初十日. 寒. 夕間下來. 靑坡留宿.

▪11일. 흐리고 추웠다. 청파에서 머물렀다.

十一日. 陰而寒. 留靑坡.

▪12일. 차동, 근동, 합동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十二日. 往車洞及芹洞、蛤洞, 談話而來.

▪13일. 주동(注洞)에 갔다 왔다.

十三日. 往注洞而來.

▪14일. 차동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내려왔다.

十四日. 往車洞, 夕間下來.

▪15일.

十五日.

▪16일. 흥양이 와서 천노가 올라온다고 기별해 주었는데, 여산(礪山)에서 뒤쳐졌다고 하였다. 고대하던 끝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十六日. 興陽來言千奴上來之奇, 而礪山落後云, 苦待之餘, 稍可寬心.

▪17일. 주동(注洞)에 가서 정오(正午)에 돌아오니 천노가 왔다. 집안 소식을 상세히 들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책값이 태반이나 오지 않았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十七日. 往注洞向午出來, 千奴來矣. 詳聞家信可幸, 而但冊價錢太半不來, 此將奈何?

▪18일. 보책(譜冊) 두 질(秩)을 흥양(興陽) 하인 편에 보냈다.

十八日. 送二秩譜冊於興陽下人便.

▪19일. 차동으로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객지생활의 고충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十九日. 往車洞而日氣甚寒, 客苦不可言.

▪20일. 추웠다. 예조에 가서 낙안(樂安)의 예사 문서(禮斜文書)를 찾아오는 길에 주동(注洞)에 들어가 일 처리가 부실한 이유를 크게 꾸짖고 왔다.

二十日. 寒. 往禮曹, 推尋樂安禮斜文書, 而來路入注洞, 大責處事不實之由而來.

▪21일. 주동(注洞)에 가서 참판 조윤형(曹允亨)²⁰⁶에게 재동서원(齋洞書院)²⁰⁷의 편액을 받아 왔다.

二十一日. 往注洞, 受來齋洞院額於曹參判允亨.

▪22일. 창동(倉洞)에 가서 박 승지(朴承旨)를 만나고 왔다.

二十二日. 往倉洞見朴承旨而來.

▪23일~27일. 그믐날까지 연일 혹 주동(注洞)으로 가고, 혹 청파(靑坡)에 가서 보책(譜冊)을 추심(推尋)하여 부쳐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장황(粧纒)²⁰⁸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스러웠다.

二十三日四日五日六日七日. 至晦日連日, 或往注洞, 或往靑坡, 以爲推尋譜冊付送之計, 而粧纒未易, 悶悶.

▪11월 1일. 비가 내렸다.

至月初一日. 雨.

▪2일. 청파(靑坡)에 가서 박 상사(朴上舍)와 함께 상원(尙元)의 집에 머물렀다. 서울에 머물기로 완전히 정하고 용산(龍山) 성삼(聖三)의 집에 천노(千奴)를 보내어 말을 팔려고 계획하였다.

初二日. 往靑坡, 與朴上舍同留尙元家. 完定留京, 送千奴於龍山 聖三家, 以爲賣鬣之計.

206) 조윤형(曹允亨) : 1725~1799.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치행(禪行), 호는 송하옹(松下翁)이다. 그림과 글씨에 능하였는데, 풀·대나무 등의 목화를 잘 그렸다. 글씨는 초서·예서를 잘 써서 일찍이 서사관(書寫官)을 역임하였으며, 위로는 대신들로부터 아래로 조례(卑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의 글을 얻으려 하였다.

207) 재동서원(齋洞書院) : 여산 송씨 충강공 송간(宋侃)을 주벽으로 송대립(宋大立), 송심(宋諶), 송순례(宋純禮), 송희립(宋希立), 송건(宋建)과 김시습(金時習) 등 15위를 향사하는 곳이다. 1785년(정조9) 최초 건립 당시 여산 송씨 송간(宋侃), 송대립(宋大立), 송심(宋諶)과 고흥 유씨 유탁(柳濯), 영광 정씨 정연희 등을 봉안하기 위해 두원면 운곡리에 운곡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208) 장황(粧纒) : 장황(裝潢)이라고도 하며, 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책이나 화첩(畫帖), 족자 따위를 만드는 것, 혹은 만든 것을 말한다.

▪3일. 겨우 21냥의 돈만 받고 마필(馬匹)을 팔아 보청(譜廳)에 지급하였다. 남은 돈은 천노에게 보내려고 하였는데 날이 저물어서 보내지 못했다. 나와 화옥(華玉)은 각각 헤어졌다.

初三日. 只捧二十一兩錢, 放賣馬匹, 以給譜廳, 零錢資送千奴, 而以日暮不得發送. 余與華玉, 各各分張.

▪4일. 해가 뜰 무렵 행장을 꾸려 천노를 보냈다.

初四日. 平明治送千奴.

▪5일. 눈비가 내렸다.

初五日. 雨雪.

▪6일. 눈이 내렸다.

初六日. 雪.

▪7일~9일. 주동(注洞)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는 길에 또 박 령(朴令)을 만나고 왔다.

初七日八日九日. 往注洞暫話, 而來路又見朴令而來.

▪10일. 비가 내렸다.

初十日. 雨.

▪11일~17일. 몹시 추웠다.

十一日二日三日四五六七日. 極寒.

▪18일~19일.

十八日九日.

▪20일. 밤에 눈이 내렸다. 아침에 청파에 가서 고을 사람 편에 집에 보낼

편지를 부쳤다.

二十日. 夜雪. 朝往青坡. 付家書於邑人便.

▪21일~24일. 청파(靑坡)에 가니 상원이 출타하여 만나보지 못했는데, 마침 고을의 인편인 지자(持者)가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二十一日二日三日四日. 往靑坡, 尙元出他不見, 而適有邑便持者, 故暫話而來.

▪25일.

二十五日.

▪26일. 일찍 주동(注洞)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비가 크게 내리더니 천둥소리가 괴이하였다. 밤에 큰비가 내렸다.

二十六日. 早往注洞, 暫話促行而來, 雨卽大作, 天動可怪, 夜大雨.

▪27일. 종일토록 가랑비가 내렸다. 3, 4월에 내리는 비와 같이 내리니 더욱 괴이한 일이다.

二十七日. 終日細雨, 若三四月之雨, 尤可怪也.

▪28일. 몹시 추웠다.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다.

二十八日. 極寒極寒. 多有凍死者.

▪29일. 춥고 눈이 내렸다.

二十九日. 寒雨雪.

▪30일.

晦日.

▪12월 1일. 조금 따뜻해졌다.

十二月初一日. 稍和.

▪2일. 날이 봄처럼 따뜻하였다. 오늘 태학(太學)으로 가서 화옥(華玉)을 찾아갔더니 마침 출타 중이었다. 다만 안 교리(安校理)의 동생인 진사(進士)가 방에 있었기에 머물며 화옥(華玉)이 오기를 기다렸다. 날이 이미 저문 데다가 또 같이 목을 뜻이 있어 재궁(齋房)에 머물렀다.

初二日. 日暖如春. 是日往太學訪華玉, 則適出他. 獨安校理之弟進士在房, 故留待華玉之來, 日已暮矣. 且有聯枕之志, 留齋房.

▪3일. 아침 식당이 마감된 뒤에 박 곡성(朴谷城)의 아들 박문환(朴文煥)이 찾아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장연(長淵)의 진사 김달성(金達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돌아오는 길에 미장동(美牆洞)에 들어가 이 별제(李別提)를 조문하고 나왔다.

初三日. 朝食堂後, 朴谷城之子文煥來見敘話. 又要長淵 金進士 達成暫話, 來路入美牆洞, 吊李別提而出來.

▪4일. 조금 추웠다.

初四日. 稍寒.

▪5일. 조금 따뜻하였다.

初五日. 稍和.

▪6일. 이른 아침에 청파(靑坡)에 가니 마침 지자(持者)가 있었다. 어제 올라왔다가 내일 출발한다고 하였는데, 고향 소식을 자세히 물어볼 때에 지자가 갑자기, “담양(潭陽)의 생원님이 상(喪)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니 놀랍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자못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비록 정확한 소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놀랍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즉시 올라와서 편지를 써서 내려가는 편에 부쳐 보냈다.

初六日. 早朝往靑坡, 適有持者. 昨日上來, 明日發行云, 詳問鄉信之際, 厥

漢粹云, “潭陽 生員主喪出”, 不勝驚悼, 頗如夢中. 雖不知的奇, 而驚歎曷勝? 卽爲上來, 修書付送於下去便.

▪7일. 폭우가 쏟아졌다.

初七日. 雨大注.

▪8일. 밤에 눈이 내렸다.

初八日. 夜雪.

▪9일.

初九日.

▪10일. 추웠다.

初十日. 寒.

▪11일. 청파(靑坡)에 가서 권 서방(權書房)에게 1냥 3전 4푼의 채전(債錢, 남에게 빚을 진 돈)을 얻어 오는데 추웠다.

十一日. 往靑坡, 得一兩三錢四分債錢於權書房而來寒.

▪12일. 몹시 추웠다. 아침을 먹기 전에 주동(注洞)에서 종을 보내 돈을 재촉하였으므로 아침을 먹은 뒤에 1냥을 가져와서 자(子)에게 주고 왔다.

十二日. 極寒. 朝前注洞送奴促錢, 故食後持一兩, 給子而來.

▪13일. 또 몹시 추웠다.

十三日. 又極寒.

▪14일. 또 극도로 추웠다.

十四日. 又極寒極寒.

▪15일. 이른 아침 잠에서 깨기도 전에 영감(令監)이 일어나라고 하여서 옷깃을 끌고 올라갔더니, 김 동지가 생일이라 하여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갖추어 가지고 왔다. 함께 먹고 마시다가 문득 절구 한 수를 읊어 하례하였다.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었다며²⁰⁹⁾

人生七十古來稀

두 공부²¹⁰⁾ 시 속에 부러움과 감탄 자아냈네

工部詩辭艷歎唏

더구나 우리 영감 장수의 복록 더하시니

況我令公增壽福

뜰 가득 채색 찬란한 노래자의 옷이로세²¹¹⁾

滿庭斑斕摠萊衣

인하여 역대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과하였다.

十五日. 早朝未起, 令監要起, 故牽衣上去, 則金同知以其壽日, 盛具酒饌而來, 同與飲啖, 粹吟一絕以賀曰: “人生七十古來稀, 工部詩辭艷歎唏. 況我令公增壽福, 滿庭斑斕摠萊衣.” 因穩話歷代事而罷.

▪16일. 추웠다.

十六日. 寒.

▪17일. 추웠다.

十七日. 寒.

▪18일. 19일. 이른 아침에 군포(渾甫)와 장대장동(張大將洞)에 가서 김 찰방

209) 인생……드물었다며 : 두보의 <곡강(曲江)> 시에 나오는 구절을 가리킨다. “퇴청해서는 날마다 봄옷을 전당잡히고, 강나루에서 실컷 취해 돌아오네. 술빛은 가는 곳마다 있어도, 인생의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네.[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었다.

210) 두 공부 : 공부(工部)는 검교 공부 원외랑(檢校工部員外郎)을 지낸 두보(杜甫, 712~770)의 별칭이다. 두보는 70세까지 살지는 못하고 59세에 세상을 떠났다.

211) 노래자의 옷이로세 : 원문의 ‘내외(萊衣)’는 노래자(老萊子)의 옷이라는 말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인 노래자는 효성으로 아버지를 섬기어, 일흔 살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다고 한다. <小學 稽古>

(金察訪)을 만나고 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화옥(華玉)이 와서 만나고 갔다.
十八日. 十九日. 早朝與渾甫, 往張大將洞, 見金察訪而來. 食後華玉來見而去.

▪20일. 추웠다. 김 동지를 위해 만시(挽詩)를 대신 지었다.

한 가닥 영서처럼 마음이 밝게 통하니 ²¹²⁾	靈犀一點暗通明
젊어서부터 맺은 교유의 정 형제와 같네	自少交情若弟兄
이품의 높은 직함 자헌대부에 오르고	二品崇卿資憲秩
칠순의 큰 복에 자손들도 빼어나네	七旬胡福子孫英
지팡이 ²¹³⁾ 짚고 느린 걸음으로 찾아뵈니	鳩筇緩步曾相訪
백발의 늙은이 온화하게 맞아주었네	鶴髮雍容底處迎
조만간 머나먼 저승길을 따라가리니	早晚長隨泉下路
만가 부르며 북망산 가는 길 먼저 전송하네	輻歌先送北邙塋

저녁에 우연히 독감에 걸려 밤새도록 크게 앓았다.

二十日. 寒. 爲金同知代述挽詩曰: “靈犀一點暗通明, 自少交情若弟兄. 二品崇卿資憲秩, 七旬胡福子孫英. 鳩筇緩步曾相訪, 鶴髮雍容底處迎. 早晚長隨泉下路, 輻歌先送北邙塋.” 夕間偶得毒感, 達夜大痛.

▪21일. 추웠다. 종일토록 심하게 앓았다.

二十一日. 寒. 終日大痛.

212) 영묘한 무소 뿔 : 영서(靈犀)는 영험한 무소의 뿔을 말하는데, 흔히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특히 무소의 뿔 가운데 백색의 무늬가 양쪽 끝으로 통해 있는 것은 그 감응이 아주 빠르다고 한다. 중국 만당 시기의 시인 이상은(李商隱, 812~858)의 <무제(無題)>에 “몸에는 쌍으로 나는 채봉의 두 날개가 없고, 마음에는 서로 통하는 한 가닥 영서가 있네.[身無彩鳳雙飛翼, 心有靈犀一點通.]”라고 하였다.

213) 지팡이 : 원문의 ‘구궁(鳩筇)’은 손잡이 부분을 비둘기 모양으로 조각한 지팡이로 예전에 임금이 나이 많은 신하에게 비둘기처럼 소화를 잘 시키라는 의미에서 내려 주었는데 구장(鳩杖)이라고도 한다.《後漢書 志5 禮儀中》《呂氏春秋 仲秋記》

▪22일. 몹시 추웠다. 사랑(舍廊)이 쌀렁하여서 노비 시늬[時老味]의 방으로 나와 머물렀다.

二十二日. 極寒. 以舍廊之疏冷, 出留於時老味房.

▪23일. 추웠다. 종일토록 몹시 아팠다. 또 설사 증세가 매우 심각하니 몹시 염려스럽다.

二十三日. 寒. 終日大痛. 又得泄瀉症甚危重, 極可悶慮.

▪24일. 추웠다.

二十四日. 寒.

▪25일. 몹시 추웠다. 병세가 조금 나아졌으나 끝내 완쾌될 기약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전해 듣기로는 이러한 병증은 양서(兩西) 지방에서 두루 퍼져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사망자가 많아 큰 고을의 경우는 하룻밤에 4, 5 십 명이 죽었다고 하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

二十五日. 極寒. 病勢稍減, 而終無快完之期, 可悶. 傳聞此症, 自兩西彌漫, 無人不痛, 又多死亡, 至於大邑府, 則一夜所亡四五十云, 極可慄慄.

▪26일. 날씨가 조금 풀렸다. 저녁 무렵에 사랑으로 돌아왔다.

二十六日. 日氣稍解. 夕間還舍廊.

▪27일. 눈이 내려 다시 추웠다. 병 또한 점점 차도가 있으니 다행이다. 시득(時得)을 반궁(泮宮)에 보내어 박 진사(朴進士)의 소식을 물으니 또한 감기 때문에 크게 아프다고 하였다.

二十七日. 雪還寒. 病亦漸差, 可幸. 送時得於泮中, 問朴進士消息, 則亦以感氣大痛云.

▪28일. 추웠다. 일전에 이 선달(李先達)이 송도에서 객사했다고 들었는데, 참담하고 또 참담한 일이다. 올해의 독감은 전에 없던 것으로 사망자가 계속

생기는데, 양서(兩西)의 경우는 길이 막혀 끊길 정도이다. 경성(京城)에도 일시에 크게 번져 길 위에 간간이 쓰러져 죽은 시체가 있고 집집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 늙고 쇠약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병증이 남쪽 지방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아마 아직 내려가지 않았을 뿐이다.

二十八日。寒。日前聞李先達，客死於松都云，慘矣。慘矣慘矣。今年毒感，前古所無，死亡相繼，至於兩西，則行路阻絕。京城亦一時大熾，道上間有僵屍，家家戶戶，無人病痛。老殘必死之症，未知南中則何如，而應未及下去耳。

■29일. 추웠다. 흥양(興陽)의 호장(戶長) 설리(薛吏)가 집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였지만, 이는 다만 공간(空簡)²¹⁴일 뿐이니 분(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二十九日。寒。興陽戶長薛吏，持家書來傳，只是空簡，憤不可言。

■30일. 추웠다.

三十日。寒。

■기미년(1799) 1월 1일. 바람이 불지 않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몸의 병이 비록 쾌차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회복될 기미가 있으니 다행이다. 저녁에 눈보라가 크게 일어났다. 흥양(興陽)의 호장(戶長) 설리(薛吏)가 가서(家書)를 받아서 인사하고 떠났다. 또 한기(寒氣)가 들어 이불을 끌어안은 채 날을 보냈다.

己未元月初一日。無風不甚寒烈。身病雖不快差，漸有蘇完之機，可幸。夕間風雪大作。興陽戶長薛吏受家書，仍爲辭去。又爲寒粟擁衾度日。

■2일. 아침을 먹기 전에 경유(景猷)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기에 가서 세찬(歲饌)을 먹고 왔다. 종일 한기가 들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니, 답답하다.

初二日。朝前景猷送人要之，故往喫歲饌而來。終日寒粟擁衾而臥，悶悶。

214) 공간(空簡): 선물이나 예물이 딸리지 않은 편지를 말한다.

■3일. 종일 많은 눈이 내리고 몹시 추웠다.

初三日。終日大雪極寒。

■4일. 날씨가 조금 맑아져 다행이지만 조사(朝士, 조정의 관리)가 사망했다는 기별이 하루에 네다섯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두려움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저녁 무렵 다시 쌀쌀해지면서 비가 내렸다.

初四日。日氣稍清和，可幸，但朝士死亡之奇，日不下四五人，懍懍不可言。夕間復爲陰冷而雨作。

■5일. 날씨가 조금 나아졌다.

初五日。日氣差勝。

■6일. 아침을 먹기 전에 박 진사(朴進士)가 반궁(泮宮)에서 찾아왔는데, 몹시 아팠던 곡절을 자세히 말해주었으니 그 위태로움이 심하였다. 다만 각각의 병으로 인사를 살피지 못하여 생사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얼굴을 마주하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初六日。朝前朴進士，自泮宮來見，而備說其大痛之由，危凜甚矣。但各病不省，不知存沒矣，今而相面，喜幸不可言。

■7일. 아침을 먹기 전에 남평(南平) 댁에 가서 문병하고 왔다. 이는 병이 든 뒤에 처음으로 나갔다 들어온 것이다. 오후에 비가 온종일 내렸다.

初七日。朝前往南平宅，問病而來，此是病後，初出入也。午後雨作終日。

■8일. 아침을 먹기 전에 몹시 추웠다. 다만 날씨가 매우 맑아서 일단 기록해 두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청파(靑坡) 상원(尙元)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는데, 그 집안 사람 모두가 현재 앓고 있다고 하였다.

初八日。朝前甚寒烈，而但日氣甚清烈姑記之。食後往靑坡尙元家，暫話而來，其家舉皆方痛云矣。

▪9일. 날씨가 매우 싸늘하더니 저녁 이후부터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初九日. 日氣甚陰冷, 自夕後風雪作.

▪10일.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많이 내려서 종각(鍾閣)의 큰 길에도 행인(行人)이 전혀 없으니 시정(市井)에서 장을 열지 못하였다. 마침내 근래 없던 큰 추위가 닥쳤다.

初十日. 風雪大作, 至於鍾閣大道, 全無行人, 市井不得開市. 遂爲挽近所無之大寒.

▪11일. 어제보다는 날이 조금 풀렸는데 아직도 몹시 추웠다.

十一日. 稍解於昨日, 而猶爲極寒.

▪12일. 점차 화창해졌다. 감기가 크게 기승을 부려 사망자가 잇따르고 심지어 경상(卿相)의 집에서도 관을 다스리지 못하여 7, 8일이 지났는데도 성빈(成殯)²¹⁵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많이 있었다. 들리는 말로는 팔도가 다 그렇다고 하니, 몹시 두려운 일이다.

十二日. 漸和. 感氣大熾, 死亡相因, 至於卿相之家, 不得治棺, 過七八日, 不得成殯者, 間多有之. 傳聞八路同然云, 極可畏也.

▪13일. 비로소 주동(鑄洞)에 갔더니, 상하의 집안 노인들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 오는 길에 창동(倉洞)에 들어가 박 승지(朴承旨)를 만나보니, 또한 병이 심하여 이불을 안고 누워 있으므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十三日. 始往鑄洞, 則上下家老人, 方痛云矣. 來路入倉洞見朴承旨, 則亦方痛而擁衾, 暫話而來.

▪14일. 날씨가 조금 풀렸다. 식후에 청파(靑坡) 상원(尙元)의 집에 가서 흥양(興陽)의 제태(祭馱, 제수(祭需)를 실은 짐바리) 하인으로 온 자를 보고자

215 성빈(成殯) : 장사를 지내기 전에 빈소를 차리는 것을 말한다.

하였는데 없다고 하니, 괴이하다. 감기가 가는 곳마다 크게 기승을 부리니 중도에 아파 눕는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한성부(漢城府)²¹⁶에서 초보(抄報, 뽑아 보고함)하였다. 오부(五部)²¹⁷에서 죽은 자가 4만 8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남쪽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十四日. 日氣稍解. 食後往靑坡 尙元家, 欲見興陽祭馱下人來者而無之云, 可怪. 感氣到處熾盛, 無奈中路痛臥而然耶? 今日自漢城府抄報, 死亡於五部者, 乃爲四萬八千餘名云, 而南中消息, 寂然無聞, 悶苑不可言.

▪15일. 온화하고 청명하다. 오늘은 바로 기일(忌日)이다.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 아침을 먹은 뒤에 경욱(景旭)과 냉동(冷洞)의 김 찰방(金察訪)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노닐다가 월암(月巖)에 가서 심 도정(沈都正)을 만나 한참 동안 머물며 이야기하고 왔다.

十五日. 溫和清明. 今日則卽忌日也. 心懷之惡, 不堪言不堪言. 食後與景旭, 往冷洞 金察訪家暫話, 聽琴而遊, 因往月巖見沈都正, 移時留話而來.

▪16일. 장차 화옥(華玉)을 만나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광교(廓橋)에 이르렀다. 화옥도 우리를 보러 왔기에 경득(景得)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十六日. 將見華玉次入館行, 至廓橋, 則華玉亦爲見我而來. 因入景得家, 暫時相話而分.

▪17일. 아침을 먹기 전에 내 생일이라고 하여 내간(內間, 안채)에서 술과

216 한성부(漢城府) : 조선왕조 수도의 행정구역 또는 조선왕조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의 명칭이다.

217 오부(五部) : 조선 시대 한성부에 설치한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의 부의 종5품 아문으로 오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법 사항과 교량·도로·반화(頒火, 매년 병조에서 써 오던 불씨를 버리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던 의식)·금화(禁火)·가대타량(家垆打量, 집터 측량),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검시하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안주를 갖추어 대접하니 매우 감격스러웠다. 저물녘에 근동(芹洞)에 가서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왔다.

十七日. 朝前謂我晬日, 自內間具酒饌以饋之, 伏感伏感. 晚後往芹洞, 飽喫酒肉而來.

■18일. 청파(靑坡)에 가서 흥양(興陽)의 소식을 묻고자 하였으나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호서와 영남에 독감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사망자가 서울만큼 심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권 서방(權書房)이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대접하였다.

十八日. 往靑坡, 欲問興陽消息, 而無往來人, 不得聞知, 而傳聞自湖中嶺南, 毒感大熾, 而死亡不如京中之甚云. 權書房具酒肴而饋之.

■19일. 입관(入館)하는 길에 예조(禮曹)에 들렀다가 안일득(安一得)을 만났더니 춘행(春幸, 봄철 원행)이 필요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지난겨울의 본 계획에서 상언(上言) 한 장을 올리지 못한 것과 크게 어긋나니,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반재(泮齋, 성균관 별칭)에 들어가니 화옥(華玉)이 마침 나를 기다리며 홀로 앉아 있었다. 이에 함께 머물며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十九日. 入館之路, 歷入禮曹見安一得, 則春幸似不必云. 經冬本計, 大違於不呈一丈上言, 恨歎奈何? 入泮齋, 華玉方待我獨坐矣. 因與同留夜話.

■20일. 화옥과 함께 장성(長城) 김직휴(金直休) 여관(旅館)에 갔으나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남원(南原) 박 석사(朴碩士)만 만나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동부(東部)로 들어가서 민 남평(閔南平)을 만나려 했으나 입직하였다. 한참 뒤에 또 옛 동부(東部)에 들어가 안 만호(安萬戶)를 찾아갔는데, 또한 입직하여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二十日. 與華玉同往長城 金直休旅館, 則出他不逢, 只見南原 朴碩士. 來路入東部, 見閔南平入直. 移時又入舊東部, 尋訪安萬戶, 則亦入直, 未逢而還.

■21일. 이날은 바로 영감(令監)의 생신이다. 술상을 차려 민 영장(閔營將)과

유 고성(柳固城)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배불리 먹고 파하였다.

二十一日. 是日即令監晬日也. 有盃盤, 與閔營將, 柳固城諸人, 同爲飽喫而罷.

■22일. 이른 아침에 화옥(華玉)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그 숙모의 부음을 전하였다. 일찍부터 염려하던 일이었지만, 갑자기 이 기별을 듣게 되어 너무 놀랍고 슬펐다. 날마다 남쪽의 소식을 들으니 감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노복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서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二十二日. 早朝華玉送人寄書, 傳其叔母之訃. 是所夙慮, 而忽聞此奇, 極爲驚悼. 日聞南中消息, 感氣極惡云, 奴者尙不來到, 其爲悶慮, 不可言.

■23일. 새벽에 성균관에 들어가 화옥(華玉)을 위로하였다. 아침을 먹고 나와 옛 동부(東部) 안 만호(安萬戶)의 집에 들렀으나, 안 만호가 또 입직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주동(注洞)에 들렀더니, 치회(釋會)가 그 손자와 제수씨를 잃었으므로 위로하고 왔다.

二十三日. 曉頭入泮中, 致慰華玉. 朝飯後出來, 歷入舊東部 安萬戶家, 則安也又爲入直, 故不得相面. 仍入注洞, 則釋會喪其孫及弟嫂, 故致慰而來.

■24일. 밤에 가랑눈이 내려 날씨가 매우 싸늘하였다.

二十四日. 夜微雪甚陰冷.

■25일. 날씨가 청명하였지만 바람 기운이 몹시 차고 매서웠다. 아침 전에 청파(靑坡)에 가서 소식(消息)을 묻자 애초에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괴이한 일이다. 아침을 먹은 뒤에 박 상사(朴上舍)가 찾아왔기에 오는 2일에 출발하자고 약속하였다.

二十五日. 日氣雖清朗, 風氣甚寒烈. 朝前往靑坡問消息, 則初不得聞云, 可怪. 朝後朴上舍來見, 約以來初二日發行爲計.

■26일. 근동(芹洞)으로 가서 백건(伯健)을 만나고, 이어 아현(阿峴)에 가서 민 판서(閔判書)를 조문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청파(靑坡)로 내려가 잠시

상원(尙源)을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순동(巡洞) 조 순창(趙淳昌)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二十六日. 往芹洞見伯健, 因往阿峴吊閱判書. 回路下去青坡, 暫見尙源. 來路入巡洞 趙淳昌家, 暫話而來.

■27일. 아침 전에 차동(車洞)의 참봉(參奉) 김겸(金謙) 집에 가서 광주(光州)의 참봉 박윤추(朴允樞)를 만나고 왔다.

二十七日. 朝前往車洞 金參奉 謙家, 見光州 金參奉 允樞而來.

■28일. 경유(景猷)와 함께 동부(東部)에 갔다가 경모궁(景慕宮)으로 가서 화옥(華玉)을 만났다. 말을 사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소식이 없으므로 해질 무렵에 도로 나왔다.

二十八日. 與景猷同往東部, 因向景慕宮見華玉. 待其買馬, 而終無消息, 日暮時, 還爲出來.

■29일. 아침을 먹은 뒤에 청파(靑坡)로 갔으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오는 길에 합동(蛤洞)의 윤 장령(尹掌令) 집에 들렀으나 병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 또 근동(芹洞)에 들어가 중순(仲順)을 보고 왔다.

二十九日. 食後往靑坡, 不聞消息, 故來路入蛤洞 尹掌令家, 以病故不得相見. 又入芹洞見仲順而來.

■2월 1일. 날씨가 매우 청명하여 참으로 좋았다.

二月初一日. 日氣甚靑朗, 可愛.

■2일. 새벽에 동구(洞口)에 가서 안일득(安一得)을 만나 거등을 뒤로 미루게 된 기별을 상세히 듣고, 오는 길에 신문(新門) 안의 송 진사(宋進士) 집에 들어가 서로 작별하였다. 오는 길에 대차동(大車洞) 김 참봉의 집에 들어가서 참봉 김윤추(金允樞)를 만나고 왔다.

初二日. 曉頭往洞口內見安一得, 詳聞停退舉動之奇. 來路入新門內宋進士

家, 相與作別, 而來路入大車洞 金參奉家, 見金參奉 允樞而來.

■3일. 밥을 먹은 뒤에 박 상사(朴上舍)가 와서 말을 샀다고 하였으므로 7일에 길을 떠나기로 약속하였다.

初三日. 食後朴上舍來言買馬云, 故約以七日發程.

■4일. 백건(伯健), 연로(蓮老)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다가 창동(倉洞)에 이르러 헤어졌다. 나는 곧바로 명례동(明禮洞)으로 향하여 이상주(李商州)와 상중(喪中)인 도사(都事) 광헌(光憲)을 조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에 고동(雇洞)에 들어가 이 승지(李承旨)의 아들 선달(先達)을 조문하고 왔다.

初四日. 與伯健、蓮老, 作伴步行, 至倉洞分張. 余則直向明禮洞, 吊李商州 與其哀都事 光憲相話. 回路入雇洞, 吊李承旨之子先達而來.

■5일. 아침을 먹기 전에 근동(芹洞)에 가서 한참을 서로 이야기하고 왔다. 저녁에 김 참봉(金參奉)의 집에 가서 머물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작별하고 왔다.

初五日. 朝前往芹洞, 移時相話而來. 夕往金參奉家留話, 作別而來.

■6일. 아침을 먹은 뒤에 청파(靑坡)에 가서 상원(尙源)을 만나 내일 출발하여 그의 집에서 유숙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세히 전달하고 왔다. 저녁 무렵에 성균관에서 사람을 보내 내일 직접 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 머물렀는데, 내간(內間)에서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준비하여 전송해 주었다. 경욱(景旭) 또한 사적으로 술과 안주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먹고 마셨다.

初六日. 早飯後, 往靑坡見尙源, 備傳明日發行, 留宿渠家之意而來. 夕間自泮中送人, 明日直來爲言故更留, 而自內間盛備酒肴以餞. 景旭亦私備酒肴, 達夜飲啖.

■7일. 아침을 먹은 뒤에 주인 집 노새를 타고 청파(靑坡)로 오니 화옥(華玉)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즉시 길에 올라 승방(僧房)에 도착하여

요기하고 말에게 꼴을 먹인 뒤에 노새와 화옥을 돌려보내고 도보로 군포천(軍布川)에 이르러 묵었다.

初七日. 早飯後, 騎主家驪子來青坡, 則華玉已來待, 故即爲登程, 到僧房, 療飢秣馬後, 還送驪子與華玉, 徒步至軍布川留宿.

▪8일. 닭이 운 뒤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많이 내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출발하여 화성(華城)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이포(泥浦)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우연히 전주(全州)의 마부(馬夫)를 만나 말을 세내어 걸음을 대신하였으니 다행이다. 갈원(葛院)에 이르러 묵었다.

初八日. 鷄鳴後, 風雪大作. 質明發行, 至華城朝飯, 至泥浦秣馬. 偶逢全州馬夫, 貰馬代步, 可幸. 至葛院留宿.

▪9일. 싸늘하였다. 북기막(北機幕)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원터(院垆)에 이르러 묵었다. 남쪽 지방 관행(官行)의 행차에 상일(喪日)을 네다섯 번이나 만났으니, 금년의 운기(運氣)가 참혹함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初九日. 陰冷. 至北機幕, 中火秣馬. 至院垆留宿. 盖南中官行之行, 喪日逢四五, 今年運氣之慘毒, 從此可知矣.

▪10일. 공주(公州)의 신막(新幕)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정천(定川)에서 묵었다. 해가 남아있는 동안 이성(尼城)에 갈 수는 있지만 전주의 마부 때문에 이곳 신막에 머물러는 것이다.

初十日. 至公州 新幕中火 留宿於定川. 日力則可往尼城, 而全州 馬夫故, 欲留於此幕故也.

▪11일. 저교(楮橋)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능 근처에서 묵었다.

十一日. 至楮橋中火, 留宿於陵側.

▪12일.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나서 삼례(參禮)에 이르렀다. 찰방(察訪, 김척)

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병사(兵使) 부임하는 행차가 도착하여서 만날 수가 없었다. 병천(并川)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전주에 이르니 비가 내렸다. 빗속을 뚫고 신원(新院)에 이르러 묵었다.

十二日. 未明登程, 至參禮. 欲見察訪, 而兵使赴任之行來到, 故不得相面. 至并川秣馬, 至全州雨作. 冒雨行至新院留宿.

▪13일. 밤에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아서 늦게야 비를 맞으며 길을 떠났다. 우연히 세마(貰馬)를 얻어 노구암(老狗巖)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였다. 굴암(窟巖)에 이르러 화옥(華玉)을 막중(幕中)에 기다리게 하고 읍내로 들어갔다. 곧바로 주관(主官)을 만나고 나서 화옥을 오게 하여 함께 머물렀다.

十三日. 夜雨不止, 晚後冒雨登程. 偶得貰馬, 至老狗巖, 秣馬朝飯. 至窟巖, 留華玉於幕中, 往邑內, 即見主官, 因要華玉同留.

▪14일. 서둘러 밥을 먹고 길에 올랐다. 야당(野塘)에 이르러 우연히 김득성(金得成)의 아우를 만나 비로소 흥양(興陽)의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을 타고 오수(熬樹)에 이르러 곧장 증산(甌山)에 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비가 계속 쏟아지니 한참을 머물며 쉰 뒤에 비를 맞으며 길을 떠났다. 원산(圓山) 방 서방(房書房) 집에 이르러 묵었다. 의복이 비에 다 젖었다.

十四日. 促飯登程. 至野塘, 偶逢金得成之弟, 始聞興陽消息. 大槩騎其馬, 至熬樹, 直來甌山, 秣馬療飢. 雨作連注, 移時留歇後, 冒雨作行, 至圓山 房書房家留宿. 衣服眞濕.

▪15일. 새벽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유치(狹峙)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석곡(石谷) 박가(朴哥)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흥양 아객(衙客)의 형상(行喪)이 먼저 도착하여 함께 머무를 수 없었으므로 다른 여막으로 옮겼다. 흥양의 마부들이 모두 와서 만났는데, 천노(千奴)와 오노(五奴)가 이미 출발하여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한창 속으로 답답해하고 있던 즈음에 오노가 서울에서 뒤따라 도착하였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한천(寒泉) 형님과 나주(羅州) 형님이 상(喪)을 당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애통해하던 중에 집안의 안부를 대략 들었는데, 저들이 출발할 때에 가족(家屬, 처·첩을 말함)이 한창 병을 앓고 있어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고 하니, 여전히 걱정스럽다.

十五日. 曉飯作行. 至谷城邑內秣馬, 至狹峙療飢. 到石谷 朴哥家, 則興陽衙客行喪先到, 不得同留, 故移入他幕. 興陽 馬夫輩皆來見, 聞知千奴 五奴已爲發行上去, 故方爲訝苑之際, 五奴自京跟到, 喜幸喜幸. 始聞寒泉兄主羅州兄主喪奇, 痛悼中略聞家間安否. 渠輩發行時, 家屬方痛, 未出場云, 猶爲悶慮.

▪16일. 동틀 녘 표진(表津)을 건너 천평(泉坪)에 이르렀다. 아침을 먹은 뒤에 상중(喪中)인 차규진(車奎眞)이 그 선조를 운암 사우(雲巖祠宇)에 제향(祭享)하는 일 때문에 마침 그 서원에 왔다가 곧바로 찾아와서 만났다. 나와 화옥(華玉)에게 그 서원에 가자고 하더니 술과 안주를 내왔다. 오후에 우산(牛山)에 화옥을 보냈는데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 눈이 내렸다.

十六日. 平明越表津到泉坪. 朝飯後, 車哀 奎眞以其先祖雲巖祠宇祭享事, 適來其院, 卽爲來見. 要去余與華玉於其院, 進酒肴. 午後送華玉於牛山, 不無悵然之懷矣. 是日午後雨雪.

▪17일. 비가 갠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옥(華玉)이 필시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대로 천평에 머물렀다.

十七日. 雨意不霽, 故意謂華玉必不發行. 因留泉坪.

▪18일.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아침을 먹은 뒤 느즈막에 잠깐 비가 갠으므로 즉시 비를 무릅쓰고 길에 올랐다. 오리치(五里峙)에 이르자 비가 크게 내려 의복이 모두 젖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였다. 부득이 무동정(茂東亭)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하였다. 화옥이 어제 지나갔다는 것을 물어서 알고는, 곧바로 비를 맞으며 출발하였다. 여암막(餘巖幕)에 이르니

여암막 기둥에, ‘화옥(華玉)은 어제 그 여암막에 머물고 있다가 고읍(古邑)에 있는 벗 박양언(朴良彦)의 집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써서 걸어 두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좌수(李座首)의 집에 들어가니 이생(李生)이 정성스레 대접해 주었다. 온돌(溫突)에 약간이라도 의복을 말릴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十八日. 終日雨注. 朝飯後, 向晚乍霽, 故卽爲冒雨登程. 至五里峙雨大作, 衣服盡濕, 進退維谷. 不得已至茂東亭, 秣馬療飢. 問知華玉昨日過去, 因卽冒雨發行. 至餘巖幕, 則幕柱書揭華玉昨留其幕, 發向古邑 朴友 良彦家云, 而日已夕矣. 不得已入李座首家, 則李生款接. 溫突略燥衣服, 可幸.

▪19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고읍(古邑)의 마을 앞에 이르렀다. 양언(良彦)의 집에 노복을 보내어 화옥(華玉)이 머물며 기다리는지 살펴보게 했는데, 박우(朴友)가 오라고 하였으므로 고읍(古邑)에 들어가 아침을 먹었다. 병동(屏洞)의 송지각(宋之珪)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돌아오는 길에 신기(新基)로 가서 약노(若魯) 씨의 궤연(几筵)에 조문하고 한참을 위로하다가 면교(面橋)로 방향을 바꾸어 나주 형님의 상(喪)에 조문하였다.

十九日. 早朝登程, 至古邑村前. 送奴於良彦家, 探知華玉留待, 而朴友要之, 故入古邑朝飯. 至屏洞 宋之珪家, 中火秣馬. 來路往新基, 吊若魯氏几筵, 移時致慰, 轉向面橋, 吊羅州兄主喪.

▪20일. 일찍 밥을 먹고 과역(過驛)을 지나니 아들 석년(錫年)이 노복과 말을 거느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천평의 질객(姪客)이 석촌(石村)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기별을 듣고 노복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오래지 않아 남촌의 형님이 질객(姪客)을 데리고 왔으므로 요기를 한 뒤에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日. 早飯至過驛, 年兒率奴馬來待矣. 又聞泉坪姪客徘徊於石村之奇, 送奴要之矣. 非久南村兄主, 率姪客來到, 故療飢後, 卽爲還家.

경신년(1800) 3월

庚申三月

▪2일. 가아(家兒)와 이웃에 사는 벗 유하영(柳夏榮)을 데리고 서울을 향하여²¹⁸⁾ 길을 떠났다. 과역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상중(喪中)에 있는 와坪(瓦坪) 이씨(李氏) 집에서 머물렀다.

初二日. 率家兒及隣友柳夏榮, 作西笑之行. 至過驛秣馬, 留瓦坪 李哀家.

▪3일. 면교(面橋)의 용전(龍田)에 머물렀다. 이는 대개 삼정(森亭)의 이종(姨從)형님 형제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우회하여 기다리려는 생각에서 그랬다.

初三日. 留面橋 龍田, 盖以森亭姨兄主昆季, 約與同行, 故故爲逶迤留待之意也.

▪4일. 우연히 안동정(雁洞丁) 우점(于漸) 형제들을 만나 동행하다가 벌교(伐橋)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삼정(森亭) 가는 길에 도중에서 서로 마주쳐서 함께 길을 떠났다. 낙안(樂安)에 이르러 기동(基洞)의 이우(李友)의 집에서 유숙(留宿)하였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

初四日. 偶逢雁洞丁 于漸兄弟同行, 至伐橋秣馬. 森亭之行, 相逢於中路, 同爲作行, 至樂安, 基洞 李友家留宿. 是夜雨.

▪5일. 맑다. 광청(廣淸)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용계(龍溪)에서 묵었다.

初五日. 晴. 至廣淸中火, 宿龍溪.

218) 서울을 향하여 : 원문의 '서소(西笑)'는 원래 서울 또는 천자가 있는 곳을 그리워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서울을 향해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漢)나라 환담(桓譚)이 지은 《신론(新論)》〈거폐(祛弊)〉에 "사람들이 장안(長安)의 음악을 들으면 문을 나가 서쪽으로 장안을 향해 웃고, 고기가 맛이 좋으면 푸줏간 문을 마주 보며 씹는다.[人聞長安樂, 則出門向西而笑, 肉味美, 對屠門而嚼.]"라는 구절이 보인다.

▪6일. 비가 오다. 불우치(不憂峙)에 이르자 비가 내렸다. 이에 점심을 먹고 곡성 읍내에서 묵었다.

初六日. 雨. 至不憂峙雨作, 因爲中火, 宿谷城邑內.

▪7일. 증산(甌山)에서 점심을 먹고 오수(葵樹)에서 묵었다.

初七日. 中火甌山, 宿葵樹.

▪8일. 노구암(老狗巖)에서 점심을 먹고 전주 부내(全州府內)에서 묵었다. 가서 김 동지(金同知)를 만나 16냥의 돈을 남겨 주고 항선(缸鎰)을 사 오도록 하였다.

初八日. 中火老狗巖, 宿全州府內. 往見金同知, 留贈十六兩錢, 使買缸鎰.

▪9일. 삼례(參禮)에 이르자 비가 내려서 머물렀다. 우연히 장성(長城)에 사는 벗 임후장(林厚長)을 만나서 동행하였다.

初九日. 至參禮, 雨作因留. 偶逢長城 林友 厚長, 因與同行.

▪10일. 일찍 출발하여 여산(礪山)에서 점심을 먹었다. 연산(連山)에 이르러 포정동(匏井洞)의 이생(李生) 집에서 묵었다.

初十日. 早發至礪山中火. 至連山, 匏井洞 李生家留宿.

▪11일. 아침을 먹은 뒤에 출발하였다. 판치(板峙)에서 점심을 먹고 공주(公州)의 수촌 촌사(水村村舍)에서 묵었다.

十一日. 朝飯後離發. 中火板峙, 宿公州 水村村舍.

▪12일. 비가 내렸다. 그대로 머물렀다.

十二日. 雨. 因留.

▪13일. 아침을 먹은 뒤에 비가 올 기색이 잠시 멈추기에 즉시 길을 떠났다. 차령(車嶺)에 이르자 비가 세차게 쏟아져 어쩔 수 없이 원터에서 머물렀다.

十三日. 朝飯後雨意乍止, 卽爲發程. 至車嶺雨大作, 不得已留院基.

▪14일. 비가 개지 않았지만 곧바로 길을 나섰다. 천안 읍내(天安邑內)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실음소(失音所)에 이르러 묵었다.

十四日. 雨雖不霽, 卽爲發程. 至天安邑內中火, 至失音所留宿.

▪15일. 소사(素沙)의 아교(阿橋)에 이르니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한참을 지체하다가 간신히 강을 건넌 뒤에 점심을 먹고, 화성(華城) 용주사(龍珠寺)에 이르러 묵었다.

十五日. 至素沙 阿橋, 水漲不得渡. 移時遲滯, 艱辛濟江, 因爲中火, 至華城 龍珠寺留宿.

▪16일. 사근천(沙斤川)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진흥탕에 길을 나서 시흥(始興) 읍내에서 묵었다.

十六日. 至沙斤川中火. 汚路作行, 宿始興邑內.

▪17일. 주인이 마필을 사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새벽에 매매를 하였다. 노량(露梁)까지 걸어서 육사묘(六死墓)²¹⁹를 배알하였는데, 단지 성(成)·박(朴)·이(李)·유(兪) 네 선생의 표갈(表碣)만 있고, 하(河)·류(柳) 두 선생의 묘에 표석(表石)이 없어²²⁰ 자세히 알 수 없으니, 한탄스럽다. 다만 묘의 모습이 무너져서 겨우 몇 줌의 배토(杯土)만이 무덤을 덮고 있는데, 사초를 개수하고 영축(營築)할 사람이 없었다. 삼가 생각건대, 육신(六臣)의 절의는

219 육사묘(六死墓) : 1456년(세조2) 단종 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을 하다가 순절한 사육신묘(死六臣墓)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다. 사육신은 ‘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박팽년·유응부’ 등 여섯 명의 충신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함께 거사를 계획했던 김질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죽음을 당했지만, 숙종 대에 이르러 복권되었다.

220 하(河)·류(柳)……없어 : 하위지(河緯地)와 유성원(柳誠源)을 말한다. 사육신묘는 원래 박팽년(朴彭年)·유응부(兪應孚)·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의 묘만 있었고, 하위지(河緯地)와 유성원(柳誠源)의 묘는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1977~1978년까지 사육신 묘역의 정화 공사를 할 때, 하위지와 유성원의 가묘(假墓)를 추봉(追封)하여 사육신의 묘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만고토록 세울 강상(綱常)이라 할 만한데도 수호할 사람이 없어 장차 매몰되어 징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길 가는 사람들의 탄식과 지사(志士)들의 눈물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루터에 이르러 앞다투어 강을 건널 때 멀리 언덕 위를 바라보니 팔아 버린 말이 나루에 와서 서 있었는데, 이는 필시 물리려는 계책인 것이다. 선공(船工)을 재촉하여 급히 강을 건넜다. 우연히 사두(沙頭)에서 고마(雇馬)를 얻어 짐을 싣고 말을 타고서 채찍을 재촉하여 청파(靑坡) 송상원(宋尙源)의 집에 이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끌고 찾아와서 곤란한 말을 하고 도로 물렸다. 아침을 먹은 뒤에 차동(車洞)의 팔선(八仙)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동행하여 들어가 영감(令監)을 만났는데, 온 집안이 무탈하였다.

十七日. 曉頭主者有願買馬匹之意, 故因爲買賣. 徒步至露梁, 拜謁六臣墓, 只有成、朴、李、兪四先生表碣, 河、柳兩先生之墓無表石, 不得詳知, 可歎. 但墓貌崩頽, 僅有數杯土封域, 而無人改莎營築. 竊念六臣之節, 可謂綱常萬古, 而守護無人, 將至於埋沒無徵之境, 行路之咨嗟, 志士之隕涕, 曷可勝言? 至津頭, 爭先渡江之際, 遙見岸上, 所賣之馬, 來立津頭, 必是欲退之計也. 催促船工, 急急渡江. 偶於沙頭得雇馬, 馱而騎之, 催鞭至靑坡 宋尙源家矣. 不移時持馬來訪, 困說還退矣. 朝飯後, 至車洞 八仙家住着, 同行入見令監, 舉家姑無恙矣.

▪18일. 근동(芹洞)에 가서 서봉(書封)에 내타인(內打印)²²¹하였다.

十八日. 往芹洞, 書封內打印.

▪19일. 예조에 가서 안일득(安一得)을 만나 상언(上言)²²²하는 일을 상의하였다.

221 내타인(內打印) : 시권을 제출할 때 예조좌랑(禮曹佐郎)이 타인관(打印官)이 되어 오시(午時)에 시권을 거두어서는 시폭(試幅)과 시폭의 연결처(連貼處)에 예조의 인을 찍은 뒤 돌려준다. 이를 내타인(內打印)이라 한다.

222 상언(上言) : 주로 집안 일로 백성이 임금에 진정(陳情)하는 글을 올리는 것, 또는 그 글을 말한다. 상언의 내용을 보면, 주로 자손이 조상을 위해서거나 또는 사림(士林)이 선열(先烈)을 위해서 올리기도 하고, 충절(忠節)·효행(孝行)·정렬(貞烈)에 대한 정표(旌表)·증직(贈職)이나 신원(伸冤) 등을 위해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서식(書式)이 있다.

오는 길에 대묘동(大廟洞)에 들어가서, 삼정(森亭)의 접(接)²²³과 임 상사(林上舍)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문동(里門洞)에 머물고 있다는 기별에 다시 이문동(里門洞)으로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十九日. 往禮曹見安一得, 相議上言事. 來路入大廟洞, 問森亭接及林上舍, 方留里門洞之奇, 轉入里門洞, 暫話而來.

▪20일. 밥을 먹은 후에 민 상사(閔上舍)와 여러 동접(同接)들과 함께 성균관에 들어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소(二所)²²⁴의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시험장은 협소한데 사자(士子)들이 너무 많아 세 곳으로 통설하기에 이르렀다. 노숙하며 밤을 새웠다.

二十日. 食後與閔上舍及諸同接, 入成均館. 中火後, 因入二所場中, 則場中狹少, 士子甚多, 至以三所通設矣. 夜間經宿露處.

▪21일. 동이틀 무렵에 출제(出題)하였는데, 시제는 바로 '일취월장 학유집희우광명(日就月將學有緝熙于光明)'²²⁵이었다. 간신히 글을 지어 차필(借筆)²²⁶하여 시권을 제출하고 먼저 시험장을 나왔다. 동대문 밖에 이르러 구경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차동(車洞)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一日. 平明出題, 即日就月將, 學有緝熙光明也. 僅構借筆納卷, 先爲出場. 至東大門外, 觀光還宮, 卽還車洞主人家.

▪22일. 이른 아침에 예조 직방(禮曹直房)에 갔다가 상언(上言)이 내려지지

223) 접(接) : '접'은 글방 학생들이나 과거에 응하는 유생들이 모여 이른 동아리를 말한다.

224) 이소(二所) : 문과 초시와 회시 때의 시험장의 하나로, 시험장을 각각 둘로 나누어 제1시험장은 일소(一所), 제2시험장은 이소라고 불렀다. 일소는 예조에, 이소는 성균관에 설치하였다. 《無名子集文稿 冊14 記丙戌別試事》

225) 일취월장 학유집희우광명(日就月將學有緝熙于光明) : 날로 나아가며 달로 진전하여 학문을 계속 궁구하고 연마하여 광명한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詩經 周頌 敬之》

226) 차필(借筆) : 남에게 대신 글씨를 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않았음을 알고 즉시 돌아왔다. 오늘은 인일제(人日製)²²⁷를 설행하였으나 상언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상언은 내리지 않으셨다. 천 리 먼 곳에서 와서 이 일을 경영하였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낙막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날 계노(癸奴)를 보냈다.

二十二日. 早朝往禮曹直房, 知上言之不下, 卽爲回還. 是日設人日製, 而以上言之故, 不得入場矣. 上言不下. 千里遠來, 經營此事, 而事既不成, 其落漠不可言. 是日送癸奴.

▪23일. 온종일 팔선의 집에서 머물렀다.

二十三日. 終日留八仙家.

▪24일. 이종형님, 후장(厚長)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종각(鍾閣) 행랑(行廊)에 가서 술을 마시고 요기를 하였다. 나는 주동(注洞)으로 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오는 길에 창동(倉洞)의 박 감사(朴監司) 집에 들러 그때 들어온 기별을 물어보고 왔다. 이종형님의 참방(參榜)²²⁸은 축하할 만하였다.

二十四日. 與姨兄主及厚長諸人, 同往鍾閣行廊後, 飲酒療飢. 余則往注洞, 移時談話, 來路入倉洞 朴監司家, 問其時入來之奇而來. 姨兄主參榜, 可賀.

▪25일.

二十五日.

▪26일. 경모궁(景慕宮)에 가서 이종형님의 참방을 축하하고, 화옥을 만나러 왔다.

二十六日. 往景慕宮, 賀姨兄主參榜, 要見華玉而來.

227) 인일제(人日製) : 인일(人日)인 음력 1월 7일을 가절(佳節)로 보아 이날에 보이는 과거 시험을 말한다. 이때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보였다.

228) 참방(參榜) : 과거의 합격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과거 합격자의 명단을 적어 게시하는 것을 방목(榜目) 또는 방(榜)이라 하고 여기에 참여되는 것을 참방이라 한다.

▪27일. 주동(注洞)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종현(鍾峴) 갑산(甲山)의 집에 들렀으나 주인은 보지 못하고, 이 도사(李都事)가 그의 집안 하인[家僮]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흥동(長興洞)으로 들어가 이 충주(李忠州)를 만나고 왔다.

二十七日. 往注洞暫話. 來路入鍾峴 甲山家, 不見主人, 因見李都事率其家僮. 入長興洞見李忠州而來.

▪28일. 예조에 갔다 왔다.

二十八日. 往禮曹而來.

▪29일. 또 예조에 갔더니, 화옥(華玉)과 성경(誠卿)이 찾아와 만나고 갔다.

二十九日. 又往禮曹, 華玉及誠卿來見而去.

▪30일. 젊은 사람들과 필운대(弼雲臺)에 가서 화류(花柳)를 구경하고 왔다.

晦日. 與少輩, 往弼雲臺, 花柳而來.

▪4월 1일. 창동(倉洞)에 가서 박감사(朴監司)를 만나고, 이어 독송정(獨松亭)에 가서 문중 어른의 상(喪)을 조문하였다. 다시 주동(注洞)으로 돌아갔다가 마침 군회(君會)와 주인을 만나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이날 화옥(華玉)이 떠났다.

四月初一日. 往倉洞見朴監司, 因往獨松亭, 弔門長之喪. 轉往注洞, 適逢君會與主人, 終日談話而來. 是日華玉去.

▪2일. 밥을 먹은 뒤에 아이들을 경모궁(景慕宮)에 보내고 나는 피곤해 누워 있었다. 낙안(樂安)의 강 서방(姜書房)이 찾아와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등고치(登高峙)에 올라가서 잠시 회포를 풀고 왔다.

初二日. 食後送兒輩於景慕宮, 余則困臥矣. 樂安 姜書房來見, 終日相話, 而夕間登登高峙, 暫暢而來.

▪3일. 경모궁(景慕宮)에 가서 이종형님을 만났는데 과거를 본 뒤였다. 오는 길에 금호문(金虎門) 밖으로 들어가 송계순(宋啓舜)과 숙질을 보고 왔다.

初三日. 往景慕宮見姨兄主, 觀科之後. 來路入金虎門外, 見宋啓舜叔侄而來.

▪4일. 아침을 먹은 뒤에 과거의 방(榜)이 발표되었는데, 이종형님의 과거에 대한 일이 낙막하니 한스럽다. 이날 주인이 도승지가 되었다.

初四日. 朝食後榜出, 而姨兄主科事, 落漠可恨. 是日主人, 爲都承旨.

▪5일. 건(健)·순(順) 두 형, 경욱(景旭)의 형제들과 등고치(登高峙)에 올라가 종일토록 화류(花柳)를 구경하며 회포를 풀었다. 조카 희(希)의 병이 끝내 쾌차되지 않았으니 고민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저녁에 술에 취해 돌아왔다.

初五日. 與健, 順兩兄及景旭昆季, 上登高峙, 終日花柳暢懷, 而希侄之病, 終不快差, 悶悶不可言. 夕間乘醉而歸.

▪6일. 아침 전에 운오(允五)와 계천(啓天)이 찾아와서 관등(觀燈) 뒤에 곧바로 길을 떠나자고 약속하고서 갔다. 아침을 먹은 뒤에 건(健)·순(順), 경욱(景旭) 등 여러 벗들과 경복궁(景福宮)에 가서 경회루(慶會樓)의 옛터와 여탑(御塌)의 터를 두루 살펴보았다. 담장이 부서지고 주춧돌이 파손되어 몹시도 가슴 아프니, 우리 동방의 백성들이 어찌 남쪽 오랑캐에게 원수 갚기를 꺼려서야 되겠는가. 저녁에 왔다.

初六日. 朝前允五及啓天來見, 約以觀燈後卽爲發程之意而去. 食後與健, 順及景旭諸友, 往景福宮, 周觀慶會樓舊址及御塌基址. 頽垣敗礎, 極其傷感, 吾東君民, 豈可忌讐於南寇哉? 乘夕而來.

▪7일. 또 벗들과 종루(鐘樓)로 가서 길에서 등죽(燈竹)과 등불을 파는 등의 여러 가지 놀이를 보고 왔다. 이날 밤에 비가 왔다. 사희(士希)가 서울에 들어온

뒤부터 시종 건강이 좋지 않고, 병세가 심했다 덜했다²²⁹)를 반복하며 말끔히 낫지를 앓았다. 돌아갈 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매우 염려스러웠는데 어제부터 점차 회복될 가망이 있으니 기쁘고 다행스럽다.

初七日. 又與諸友往鍾樓, 路上見燈竹及賣燈雜戲而來. 是夜雨. 士希自入京後, 終始不健, 苦歇異常, 病不快差. 歸期漸迫, 深以爲慮, 自昨日現有漸蘇之望, 可喜.

■8일. 아침 전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개었다. 아침을 먹은 후에 비가 내리더니 종일토록 부슬비가 내렸다. 저녁에 비가 조금 덜해지자 성안에서는 조금씩 등을 달았다. 집 아이들은 등고치(登高峙)에 올라 관등(觀燈)하고, 나는 경욱(景旭)과 사랑(舍廊)에 머물렀다.

初八日. 朝前乍雨旋晴. 食後雨作, 終日霏微. 夕間少歇, 城中稍稍懸燈, 家兒輩上登高峙觀燈, 余則與景旭留舍廊.

■9일. 새벽에 주인 영감이 입궐(入闕)하려다가 잠시 서로 작별인사를 하였다. 이날 아침에 감홍로(甘紅露)²³⁰에 시달려서 신시(申時, 오후 3~5시 사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몹시 취했다. 오후에 길을 나서 청파(靑坡)에 이르렀다. 이종형님, 여러 사람과 길동무가 되어 갈산(葛山)에 이르러 묵었다.

初九日. 曉頭主令將詣闕, 暫與相別. 是朝爲甘紅露所惱, 至晡大醉. 午後發程, 至靑坡. 與姨兄主及諸人作伴, 至葛山留宿.

■10일. 화성(華城)에 이르러서 아침을 먹고 용주각(龍珠閣)과 다른 누각을 두루 살펴본 다음, 채찍을 재촉하여 진위(振威) 읍내에 이르렀다. 이종형님과

229) 병이 심했다 덜했다 : 원문의 고흥(苦歇)은 병을 오래 앓는 중에 병이 더했다 덜했다 하는 일을 말한다.

230) 감홍로(甘紅露) : 원문의 '감(監)'은 '감(甘)'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고려 시대부터 전해진 평안 지방의 감홍로(甘紅露)는 관서감홍이라 하여 명주로 알려졌다. 감홍로는 소주에 사용되는 부재료에 따라 술 이름이 달라지는, 이른바 혼성주(混成酒)의 한 가지다. 곡주를 빚어 소줏고리로 증류한 뒤, 온갖 약재를 넣어 우려낸다. 여러 번 소주 내리기를 거친 술일수록 고급술로 통한다. 감홍주(甘紅酒)라고도 부른다.

사희(士希)는 말을 타고 먼저 갔는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 동행한 사람들과 진위(振威)에 머물렀다.

初十日. 至華城朝飯, 周觀龍珠閣及他樓觀, 促鞭至振威邑內. 姨兄主與士希, 騎馬先行, 而雨作, 故不得已與同行諸人, 留振威.

■11일. 비가 그쳤다. 달구리(鷄鳴, 닭이 울 무렵)에 출발하여 갈원(葛院)에 이르자 비로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천안 북기점(天安北機店)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덕평(德坪)에 이르러 묵었다.

十一日. 雨歇. 鷄鳴發行, 至葛院, 始開東矣. 至天安北機店秣馬, 至德坪留宿.

■12일. 동이 틀 무렵에 길을 나서 모란원(牧丹院)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금강(錦江)을 건너 효포(孝浦) 부동리(釜洞里)의 이 석사(李碩士) 집에 머물렀다.

十二日. 平明登程, 至牧丹院中火. 渡錦江, 留孝浦 釜洞 李碩士家.

■13일. 이종형과 길을 나섰는데, 나는 먼저 가서 정천(定川)에서 송양조(宋讓祚) 일행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산(連山) 사슬치점(沙瑟峙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잠시 포정동(匏井洞)의 이 서방(李書房) 집에 들어가 장선(長善)²³¹ 마을 이름과 노차(路次)를 물었다. 서둘러 가서 연산(連山) 읍내와 거사리(居士里)²³², 인천(仁川)²³³을 지나 장선(長善)의 사헌(士憲) 집에 이르니 날은 저물어 저녁이 되었다. 주객(主客)이 서로 만나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231) 장선(長善) :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장선리이다. 장선(長善) 마을은 산등성이가 길게 뻗어있어 긴산→장산(長山)→장선(長善)으로 변했다고도 하고, 산등성이가 마치 긴 뱀과 같다고 해 장사(長蛇)→장산→장선(長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형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긴 산등성에서 나온 말이다.

232) 거사리(居士里)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이다.

233) 인천(仁川)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이다. 옛 이름은 '인내'라 하며 현재도 인내 뚝, 인내 장터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조선지리지》(연산)에 '인내[仁川]'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十三日. 與姨從兄作行, 余則先行, 至定川, 逢宋讓祚一行暫話. 至連山 沙瑟峙店秣馬, 暫入匏井洞 李書房家, 問長善村名及路次. 促行過連山邑內, 居士里, 仁川, 至長善 士憲家, 日已夕矣. 主客相逢, 喜不可言.

■14일. 장선(長善)에 머물렀다. 사헌(士憲)의 집 아이, 인서(仁瑞)와 옥계동(玉溪洞)²³⁴에 들어가 수석점(水石店)을 두루 살펴보고 우암(尤菴)의 <옥계동> 시에 차운하였다.

바람과 안개 모두 비단 주머니에 거두었는데	風烟都括錦囊收
맑은 시내엔 바위 돌에 굽이쳐 흘러가누나	只有清溪噴石流
흘러가는 것이야 멈추게 할 수 없나니	逝者縱然留不得
오직 원천 ²³⁵ 에 내맡길 뿐이랴오	惟能管領發源頭

또 읊었다.

뾰뾰한 나무숲에 기이한 바위 적으나	樹密奇巖小
깊은 산속에 괴이한 새들 많구나	山深怪鳥多
쏟아지는 폭포소리 참으로 장쾌하니	最宜懸瀑響
원망하는 듯 노래하는 듯하구나	如怨又如歌

이어 한 고개를 넘어 안심사(安心寺)²³⁶에 들어가니, ‘적설루(積雪樓)’라는

234 옥계동(玉溪洞) : 전라북도 완주군 옥계동으로,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과 천등산 두 산 사이 협곡에 있었다.

235 원천 : 주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조그맣고 모난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물노니 어찌하면 저처럼 맑을까, 원천에서 팔팔 쏟아져 내려서라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고 하여, 학문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읊었다.

236 안심사(安心寺)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大菴山)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안심사(安心寺) 경내(境內)에 ‘적설루(積雪樓)’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허되었다.

세 글자가 있는데, 이는 우옹(尤翁)이 쓴 것이다. 벽에는 점필재(佔畢齋), 울곡(栗谷), 중봉(重峯) 세 선생의 사운(四韻) 시가 있었지만 어수선해서 미처 화답할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에 내려와서 사헌의 집에서 머물렀다.

十四日. 留長善, 與士憲家兒及仁瑞, 入玉溪洞, 周觀水石店, 次尤菴 玉溪洞韻, “風烟都括錦囊收, 只有清溪噴石流. 逝者縱然留不得, 惟能管領發源頭.” 又吟, “樹密奇巖小, 山深怪鳥多. 最宜懸瀑響, 如怨又如歌.” 因踰一嶺, 入安心寺, 額有積雪樓三字, 而是尤翁筆. 壁有佔畢齋, 栗谷, 重峯三先生公字四韻, 而擾未及奉和. 夕時下來, 留士憲家.

■15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두치(斗峙)²³⁷를 넘어 신거(信居)에 이르자 비로소 대로(大路)가 나왔다. 봉상(封上)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전주 부내(全州府內)로 들어가 곧장 서문 밖 여점(旅店)으로 갔으나, 삼정(森亭) 일행을 그림자도 찾을 수 없으니 이상하였다. 남문 밖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로 만났다. 곧바로 김 동지(金同知)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항선(缸鑪)을 찾아 가지고 왔다.

十五日. 朝食後, 踰斗峙, 至信居, 卽始得大路. 至封上秣馬, 入全州府內, 直往西門外旅店, 則森亭一行, 寂無影響, 可怪. 行至南門外, 始與相逢. 卽往金同知家, 暫話後, 推尋缸鑪而來.

■16일. 오원(葵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말편자를 박았다. 우연히 망동(望洞)의 흥수(興水)를 만나 집안의 소식을 상세히 물은 뒤에 오수(檜樹)에서 머물렀다.

十六日. 至葵院, 秣馬挿鉄. 偶逢望洞 興水, 詳問家中消息後, 至檜樹留.

■17일. 꼭두새벽에 출발하여 둔덕(屯德) 권 부자(權富者) 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사곡(蛇谷)에 이르자 비가 내렸다.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주포(周浦)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비가 그치자 채찍을 재촉하여 괴치(怪峙)에

237 두치(斗峙)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을 대곡리로 넘어가는 재 이름이다. 말치 또는 마치(馬峙)로 불리우기도 하며 옛 국도이다.

이르렀다.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비가 다시 내리니 길을 재촉하여 불우치(不憂峙)에 이르러 묵었다.

十七日. 曉頭發行, 至屯德 權富者家朝飯. 至蛇谷雨已作, 不得已冒雨, 至周浦中火. 雨止促鞭, 至怪峙. 日已夕而雨更作, 促行至不憂峙留宿.

■ 18일. 석곡(石谷)에 이르러 이종형님과 헤어지고, 나는 귀정(歸亭)에 들어가 시를 읊고 아침을 먹었다. 이종형님은 궁각(弓角)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다. 무동정(茂東亭)에서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낙승(樂乘)의 상중(喪中)인 박씨 집에 이르니 날은 이미 저물고 주인 내외는 모두 없었다. 그대로 그 집에 머물렀다.

十八日. 至石谷, 與姨兄主分路, 余則入咏歸亭朝飯. 姨兄主往弓角, 因不相逢. 至茂東亭中火. 至樂乘 朴哀家, 日已昏暮, 而主人外內皆空, 因留其家.

■ 19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과역(過驛)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고 왔다.

十九日. 早飯後登程, 至過驛中火而來.

아! 이는 선고(先考) 절와부군(節窩府君)²³⁸께서 우리 집안의 보첩(譜牒)과 선조 충강공(忠剛公)의 시호(諡號)를 청하는 일로 서행(西行)한 것을 기록한 일기(日記)이다.

아! 선조가 아름다운 행적을 남겼는데도 자손이 그것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 선조를 잊어버린 것이요, 선조가 아름다운 행적이 없는데도 자손이 거짓말을 꾸며서 치켜세운다면 이는 자기 선조를 기만한 것이다. 잊어버린 것과 기만한 것이 비록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불의(不義)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그러므로 문인(文人)이나 학사(學士)들이 그 선조의 덕을 스스로 기술한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은 스스로 그 세가(世家)의 실보(實譜)를 기술하여 선열(先烈)을 잊지 않았으며, 주자(朱子) 또한 위옹(韋翁)²³⁹의 행록(行錄)을 기술하되 선조의 뜻을 기만하지 않았으니 후세 사람들이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불초가 비록 옛사람의 만분의 일이라도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만 어찌 감히 거짓말로 꾸며 선조의 덕을 기만하겠는가.

아! 우리 선고(先考)께서는 충효 집안의 명성을 잘 따라 선업을 빛내고 후손을 위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삼아 10여 년 동안 서울을 오르내리는 것이 거의 수십 차례였는데,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恩典)이 특별히 내려 백대(百代)의 보첩(譜牒)이 능히 완성되었다.

아! 진실로 우리 선조의 순수한 충성과 아름다운 절의가 대범하고 특출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조정의 은전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또한 우리 선고의 선조를 위한 성의(誠毅)가 지극한 것이 아니었다면 또한 어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다만 선인(先人)이 뜻을 두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 있다. 이는 근대(近代) 양세(兩世)에 시호(諡號)를 청하는 일로 여러 차례 상언(上言)을 올렸는데 끝내 은전을 받지 못하였다. 이

238) 절와부군(節窩府君) : 송지행(宋志行)을 가리킨다. 부군(府君)은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239) 위옹(韋翁) : 주자의 부친인 위재(韋齋) 주송(朱松, 1097~1143)으로, 남송 고종 때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위재는 호이고 자는 교년(喬年), 시호는 헌정(獻靖)이다. 남송 고종 때 이부랑(吏部郎)의 벼슬을 지냈으나 간신 진회(秦檜)가 주도하는 금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하다가 폄적되었다. 저서로 《위재집(韋齋集)》 등이 있다.

때문에 통탄스럽기 그지없지만, 깊이 생각해보건대 한 집안의 대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의 형편상 끝내 쉽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혹 시운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 일의 전말이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불초(不肖)가 감히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위의 기록은 헛수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 혹은 물에 잠겨 자획(字畫)을 판별하기도 어렵고 혹은 먼지 속에 파묻혀 문리(文理)를 이해하기도 어려워 세월이 오래되면 장차 유실(遺失)되고 훼손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 같았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수집하고 베껴 써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우리 집안의 유물²⁴⁰로 만들고, 장차 우리 선고의 자손 된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하여 척연(惕然)히 계술(繼述) 선대의 사업을 계승)하게 하고 이 책을 열람하여 출연(愴然)히 느끼고 사모하여 백세(百世)토록 실추되지 않게 한다면 또한 어찌 선조를 계승하고 후손에게 복록을 물려주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에 감히 외람됨을 잊고 대강의 전말을 서술하였다.

승정기원 후 네 번째 신미년(1811) 중춘에 불초고(不肖孤) 석년(錫年)이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쓰다.

嗚呼! 此先考節窩府君, 爲吾家譜牒與先祖忠剛公請諡事, 西行錄日記也. 噫!, 先祖有美實, 而子孫不述焉, 則是忘其先也; 先祖無美實, 而子孫飾虛辭稱道之, 則是誣其先也. 忘與誣雖殊, 其陷於不義則一也. 是故文人學士, 自述其先德者, 不可殫記. 太史遷自述其世家實譜, 而不忘其先烈, 朱夫子亦述其韋翁行錄, 而不誣其先志, 後世踵之. 不肖雖不敢望古人之萬一, 而安敢飾虛辭誣先德也? 嗚呼! 吾先考克遵忠孝家聲, 以光先裕後爲己責, 十餘年間, 上下京洛將至數十度, 而贈諡之恩典特蒙, 百代之譜牒克成. 噫! 苟非吾先祖精忠姱節磊落偉卓, 安能蒙朝家之全? 亦非吾先考爲先誠毅之極, 亦

安能就其事乎? 但先人之有志, 未就者存焉. 近代兩世請諡事, 累呈上言, 終未蒙恩典. 庸是爲痛遺恨, 蓋深竊想一家之大事, 同時并成, 事勢之終未易而然歟? 抑或運會之不迴而然歟? 嗚呼! 事之顛末, 詳記於是錄, 則非不肖所敢贅者, 而竊恐右錄隨年隨記, 或水沈而字畫難辨, 或塵埋而文理難曉, 歲久年深, 將未免遺失而毀傷, 故敢此收集臚, 合爲一卷, 以爲吾家之青氈, 將使爲吾先考之子孫者, 想其事而惕然繼述, 覽是編而愴然感慕, 以至百世而不墜, 則亦豈非承先貽後之道也耶? 茲敢忘猥, 略敘顛末.

崇禎紀元後, 四辛未之仲春, 不肖孤 錫年, 泣血謹書.

240) 청전(靑氈): 대대로 전승된 가업(家業)이나 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원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이여, 그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儉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는 고사가 있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王獻之》

서행록 西行錄 ③

송석년 宋錫年



신사년(1821) 2월 20일

辛巳二月二十日

지난 경신년(1820) 3월, 나는 아버님을 모시고 상경하여 서울에서 몇 달을 머물다가 왔다. 금년 신사년(1821)에 서재(西齋)²⁴¹ 선조의 행록(行錄)을 개간하기로 해서 오촌(鰲村) 장석(丈席)²⁴²의 서문을 받아 오도록 문중(門中)에서 나와 이찬(而贊)에게 위임하였다. 그래서 지금 호행(湖行)에 필요한 행장을 꾸려서 경성(京城)으로 갈 계획이다.

去庚申三月, 余陪親上洛, 留京數月而來矣. 今年辛巳, 西齋先祖行錄, 將欲開刊, 而受弁卷之文於鰲村丈席之意, 門中屬余及而贊, 故今將治發湖行, 仍向京城計矣.

▪2월 20일. 길을 나서 과역(過驛) 시장 근처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남양(南陽)에 이르러 이찬(而贊), 강동(江洞) 윤익(允益)과 내일 함께 출발하기로 약속하였다. 저물녘에 재동(齋洞)에 이르러 묵었다.

二月二十日. 發程至過驛市邊療飢. 抵南陽, 與而贊及江洞 允益, 明日發程爲約, 暮抵齋洞留宿.

241) 서재(西齋) 선조 : 송간(宋侃, 1405~1480)으로, 본관은 여산(礪山), 호는 서재(西齋)이다. 세종·문종·단종의 3조를 섬겨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1455년 왕명으로 남방을 순시하고 돌아오다가 단종이 영월로 쫓겨 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영월에 가서 복명하고, 고향 여산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하였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삼년상을 마치고, 흥양(興陽) 마륜촌(馬輪村) 산정(山亭)에 숨어 지냈다. 10여 년 뒤에 가족이 찾아냈으나 항상 술에 만취하여 산천을 돌아다니며 대성통곡하므로 모두들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생애를 마쳤는데, 지금도 그곳을 서재동(西齋洞)이라 한다.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12월 21일에 충강(忠剛)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242) 오촌(鰲村) 장석(丈席) : 송치규(宋耜圭, 1759~1838)로,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기옥(奇玉), 호는 강재(剛齋)이며, 송시열(宋時烈)의 6대손이다. 순조 때 이조참판까지 올랐으나 모두 사퇴하였고, 현종 때 정헌 대부에 올랐다. 천성이 온순하고 의리에 투철하여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문인 100여 명이 상복을 입고 상여를 따랐다. 이이, 김장생의 학문을 계승하여 '이기일원론'을 주장하였으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송치규의 온순한 성정에 스승인 김정목이 호를 강재라 지어 주었다고 하는데, 51세 때 회덕의 오촌으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는 오촌을 자신의 호로 사용한 듯하다. 저서로 《강재집(剛齋集)》이 있다.

▪ 22일. 길을 나서 벌교(筏橋)에 이르러 요기하고, 미태정(米太亭)에 이르러 묵었다. 50리를 갔다.

二十二日. 發程至筏橋療飢, 抵米太亭留宿. 行五十里.

▪ 23일. 일찍 출발하여 무동정(舞童亭)²⁴³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영귀정(詠歸亭)²⁴⁴에 이르러 주점(酒店)에서 동행을 기다리다가 잠시 영귀정에 들어가 외종수(外從嫂, 외삼촌의 며느리)를 만나 요기하였다. 용계(龍溪)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곡성 땅이다.

二十三日. 早發至舞童亭朝飯. 至詠歸亭, 留同行於酒店, 暫入歸亭, 見外從嫂, 仍爲療飢. 抵龍溪留宿. 行七十里, 谷城地也.

▪ 24일. 일찍 출발하여 묘치(貓峙)²⁴⁵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주포(周浦)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남원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二十四日. 早發至貓峙朝飯, 抵周浦幕中火. 抵南原邑內留宿. 行七十里.

▪ 25일. 아침을 먹은 뒤에 선자지(扇子紙) 2속(束), 죽청지(竹淸紙) 2속, 황필(黃筆) 1단(單), 장지(壯紙) 1속을 샀다. 길을 나서 오수(槲樹)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야당(野塘)에 이르러 묵었다. 50리를 갔다. 임실(任實) 땅이다.

二十五日. 朝飯後, 買扇子紙二束, 竹淸紙二束, 黃筆一單, 壯紙一束. 發程至槲樹中火, 抵野塘留宿. 行五十里. 任實地也.

243) 무동정(舞童亭)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 소재 죽산 마을로, 지금은 주암댐으로 인해 수몰되었다. 죽산 마을은 풍수지리상 정자 밑에서 아이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개촌 당시 무동정(舞童亭)이라 불리었는데, 서울 가는 길목이었다고 한다.

244) 영귀정(詠歸亭) : 순천시 주암면 마전리 영귀마을 마천 양수장 자리에 있었던 영귀당(詠歸堂)으로, 삼탄(三灘) 조태망(趙泰望, 1678~?)의 별장이다. 말년에 화순에서 활동했던 양거안(梁居安, 1652~1731) 등이 남긴 차운시[次趙泰望詠歸亭韻]가 있다. 정자는 이후 사라졌다가 구한말에 중건되었다.

245) 묘치(貓峙)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과 곡성읍 경계에 있는 고개로 '괘재(교양이재)'라고도 부른다.

▪ 26일. 일찍 출발하여 굴암(屈岩)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애치(艾峙)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부내(府內)에 이르렀다. 80리를 갔다.

二十六日. 早發至屈岩朝飯. 抵艾峙中火, 抵府內. 行八十里.

▪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각종 물품을 사고, 영주인(營主人) 편에 집으로 편지를 부쳤다.

해 저문 뒤 길을 나서 삼례(參禮)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二十七日. 朝飯後, 買各種物品, 付家信於營主人. 晚後發程, 至參禮留宿. 行三十里.

▪ 28일. 새벽에 출발하여 능측(陵側)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여산(礪山)에 이르러 시조(始祖) 산소(山所)에 들어가 성묘한 뒤에 내려왔다. 산지기 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산지기 김복손(金福孫)이 술을 사 와서 올렸다. 이어 점심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소로(小路)로 들어가 기용(機舂)을 지났다. 호동(狐洞) 주점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연산(連山)²⁴⁶ 땅이다.

二十八日. 曉發至陵側朝飯. 至礪山入始祖山, 所省拜後下來. 山直家仍爲中火, 山直者金福孫 沽酒以進. 仍爲午飯後發程, 入小路歷機舂, 抵狐洞酒店留宿. 行七十里. 連山地也.

▪ 29일. 일찍 출발하여 동산동(東山洞)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직산(稷山, 충남 천안지역 옛 지명) 읍내를 지나 개치(皆峙)²⁴⁷를 넘어 두거리(豆巨里) 시장 근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진령(鎭嶺) 읍내를 지나 유성(油城) 시장 근처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공주(公州) 땅이다.

二十九日. 早發至東山洞朝飯, 歷稷山邑內越皆峙, 至豆巨里市邊中火. 歷鎭峯邑內, 抵油城市邊留宿. 行八十里. 公州地也.

246) 연산(連山) :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247) 개치(皆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개치골과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3월 1일. 일찍 출발하여 신탄(新灘) 시장 근처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오촌(鰲村)²⁴⁸에 도착하였다. 40리를 갔다.

三月初吉. 早發至新灘市邊中火, 得達鰲村. 行四十里.

■행랑에서 잠시 쉬면서 통자(通刺, 면회를 청하던 일)한 다음, 곧바로 들어가 장석(丈席)을 뵈고 올라온 연유를 말씀드렸다. 행랑으로 물러나와 용담(龍潭) 정재팔(丁載八)·황간(黃澗) 신희진(愼協眞)과 함께 묵었다.

小憩廊底通刺, 卽爲入謁丈席, 仍敘上來之由. 退來廊底, 與龍潭 丁載八、黃澗 愼協眞同留宿.

■2일. 다시 들어가 고하였는데, 장석(丈席)은 담벽증(痰癖症)과 치질(痔疾)로 간혹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끔끔 앓았다. 이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왔으니 걱정스럽다.

初二日. 更爲入告, 而丈席以痰癖痔疾, 間或呻吟於酬酢之間, 故不得受許而退, 悶悶.

■3일. 장석(丈席)께서 비록 허락하지 않았지만 친히 행록(行錄)을 상고하여 자세하게 논평하였는데, 편차(篇次)가 뒤죽박죽이고 지운 글자가 꽤 있어서 긴요하지 않은 뜻이 있는 듯하였다. 이에 교정(校正)을 청했더니 《둔학집(遜壑集)》²⁴⁹을 내보이시며, “이것은 바로 충강공(忠剛公, 송간(宋侃))의 왕복 서간인데, 비록 몇 편에 불과하나 오히려 행록 한 권보다 낫네.”라고 말씀하셨다. 대략 산정(刪正)²⁵⁰은 하였으나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니 걱정스럽다.

248) 오촌(鰲村)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 앞에 있는 바위가 자라 모양이라 하여 자라울이라 부르다가 일제 강점기에 오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49) 둔학집(遜壑集) : 조선 전기의 문신 송경원(宋慶元, 1419~1510)의 시문집으로 상·하 2권 1책이다. 1826년(순조26)에 초간본이 나왔고, 1921년에 중간본이 나왔다. 중간본의 책머리에 1920년에 쓴 김영한의 중간서문과 1826년에 쓴 송치규의 <둔학실적서(遜壑實蹟序)>가 있고, 책 끝에 윤태일의 발문과 송증현의 중간발문이 있다. 상편에 시·서·논·기 등과 하편에 전·가장·행장·묘지 등이 실려 있다.

250) 산정(刪正) : 글의 쓸데없는 자구를 없애고 다듬어서 글을 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初三日. 丈席雖爲不許, 親考行錄, 仔細評論, 以篇次之渾雜, 文字之頗鎖, 似有不緊之意. 故請以校正, 則出示《遜壑集》曰: “此是忠剛公往復書, 則雖數篇猶勝於行錄一卷云云.” 而略爲正刪, 然尙未蒙許, 悶悶.

■4일. 매일 아침저녁으로 간청하였다. 이는 다만 좌우의 여러 벗들이 곁에서 잘 말해 준 데다가 장석(丈席)께서 먼데서 올라온 노력과 비용²⁵¹을 특별히 헤아려 지극히 잘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3~4일 머무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다. 오후에 예폐(禮幣)²⁵²를 드렸다. 장석(丈席)께서 병으로 예를 행하기 어려운데도 이처럼 예폐를 받아주신 것은 모두 두터운 대우에서 나온 것이다. 목사공(牧使公)의 《정충록(精忠錄)》에 대한 일도 또한 예폐를 드렸으니 매우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初四日. 連日朝夕懇請. 非但左右諸益從傍善告, 且丈席特恕遠方之勞費, 極爲善待, 故留底三四日受爽諾, 午後納幣. 丈席病不能行禮, 而受此禮幣, 此莫非待之厚. 牧使公《精忠錄》事, 亦爲納幣, 感幸感幸.

■5일. 사랑에 머물며 때때로 나아가고 물러 나왔다. 산정(刪正)도 하였다.
初五日. 留廊底有時進退, 亦爲刪正.

■6일. 오촌(鰲村)에 들어가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십여 일 온갖 고초 겪은 끝에	萬苦千辛十日餘
이제야 간신히 인후한 고을에 이르렀다네	間關始到里仁廬
마을 앞 흐르는 냇물 드넓고 뒷산은 높은데	前川水闊山高後
그 사이 초가 있어 장자 ²⁵³ 가 살고 있네	中有茅宮長者居

251) 노력과 비용 : 원문의 ‘노비(勞費)’는 육체적인 노동과 금전적인 비용을 말한다.

252) 예폐(禮幣) : 고마움과 공경하는 뜻에서 보내는 물품을 말한다.

253) 장자 : ‘장자(長者)’는 덕망이 있는 사람을 뜻으로, 여기서는 오촌 송치규를 가리킨다.

윤익(允益)이 차운하였다.

고향을 뒤로하고 북쪽 향해 온 지 십여 일	背南首北十日餘
험한 여정 끝에 이곳에 이르렀어라	間關行色到此廬
물 따라 밀려온 자라가 이른 듯한 마을인데	水流鰲退格當村
그 위에 하늘이 내린 장자가 살고 있구나	其上天然長者居

이찬(而贊)이 용담(龍潭) 정재팔(丁載八)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객지에서 같은 도의 친구를 만나니	客裡相逢同道友
예전에 본적 없어도 더욱 오랜 친구 같아라	曾雖無面倍知舊
함께 모여 놀지도 못하고 도로 이별하는데	團遊未極還爲別
어느 때나 다시 손을 맞잡을른지 모르겠네	不識何時更握手

나도 그에게 주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오촌 문하 높은 제자 중 이런 사람 있다니	鰲門高弟有斯人
그 용모 단아하고 몸가짐 신중하여라	端雅其容謹飭身
오손도손 맘껏 즐기지 못하고 이별하는데	未極團樂旋贈別
푸르고 푸른 강가 나무 새봄을 들렀구나	蒼蒼江樹帶新春

윤익이 주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객지에서 만난 사람과 친구를 맺었나니	客地逢人結親友
교분의 깊고 친밀함이 옛 친구 같아라	交契深密如故舊
가련타 한 자리에 모여 얼마간 얘기 나누는데	可憐一席多少話
머지않은 훗날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려나	早晚他時更握手

내가 차운하였다.

고상한 친구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逢初敘話是高友
오랜 친구인 듯 한참을 앉아 회포를 풀었네	坐久論懷若故舊
몇날 며칠 밤베개를 나란히 하여도 부족하니	聯枕數宵猶不足
회화나무 꽃 노래지면 ²⁵⁴ 다시 만나 손을 맞잡으세나	槐秋爲約又摻手

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선조의 일 경영하려 현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經營先事到賢門
다행히 저버리지 않고 정성스런 은택 베푸시네	幸被不遐眷眷恩
그믐 이래로 실컷 취하고 배불리 먹으니	承晦以來精醉飽
한 무더기 화한 기운 ²⁵⁵ 에 사시가 훈훈하네	一團和氣四時薰

初六日. 入鰲村, 吟一絕曰: “萬苦千辛十日餘, 間關始到里仁廬. 前川水關山高後, 中有茅宮長者居.” 允益次曰: “背南首北十日餘, 間關行色到此廬. 水流鰲退格當村, 其上天然長者居.” 而贊贈龍潭 丁載八韻曰: “客裡相逢同道友, 曾雖無面倍知舊. 團遊未極還爲別, 不識何時更握手.” 余贈之曰: “鰲門高弟有斯人, 端雅其容謹飭身. 未極團樂旋贈別, 蒼蒼江樹帶新春.” 允益贈之曰: “客地逢人結親友, 交契深密如故舊. 可憐一席多少話, 早晚他時更握手.” 余次曰: “逢初敘話是高友, 坐久論懷若故舊. 聯枕數宵猶不足, 槐秋爲約又摻手.” 又吟一絕曰: “經營先事到賢門, 幸被不遐眷眷恩. 承晦以來精醉飽, 一團和氣四時薰.”

254) 회화나무 꽃 노래지면 : 원문의 ‘괴추(槐秋)’는 회나무 꽃이 누렇게 변할 무렵의 가을이라는 뜻이다. 당(唐)나라 때 과거에 실패한 응시생들이 6월 이후 계속 장안(長安)에 머물러 공부하면서 서로 간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실력을 점검한 뒤 회나무 꽃이 노랗게 될 즈음에 해당 관원에게 새로 지은 글을 작성하여 천거되기를 원했으므로 ‘회나무 꽃이 노래지면 수험생들이 바빠진다.[槐花黃, 舉子忙.]’라는 말이 유행했다. 《南部新書 卷乙》

255) 한 무더기 화한 기운 : 사양좌(謝良佐)가 정호(程顥)의 인품을 평가하기를 “명도 선생은 온종일 단정히 앉아 있을 때에는 흙으로 만든 소상과 같았으나, 사람을 대하면 완전히 한 덩어리의 화기였다. [明道先生, 終日端坐, 如泥塑人, 及至接人, 則渾是一團和氣.]”라고 하였다. 《近思錄 卷14 觀聖賢》

■6일. 장석(長席)의 병이 심해서 서문(序文)은 나중에 짓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막 상경하려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대로 머물렀다.

初六日。丈席以呻吟之致，序文以後爲約，故方欲上京，而爲雨所關，仍留。

■7일. 장석에게 하직하고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형강(荊江)을 건너 월은사(月隱寺) 아래를 지나 문의(文義) 읍내에 이르러 잠시 군사 훈련하는 것을 본 뒤 점심을 먹었다. 병암(屏岩) 주점을 지나 저물녘에 어금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初七日。辭丈席，食後發程。渡荊江，歷月隱寺下，抵文義邑內，暫見鍊兵，仍爲中火。歷屏岩酒店，暮抵어금酒幕留宿。行七十里。

■8일. 오촌(鰲村)에서 경성까지 삼백여 리라고 하는데, 이번 동행한 이들이 화양동(華陽洞)을 보고 싶다고 하니 백여 리 길을 돌아가야 했다. 일찍 출발하여 십치(十峙)를 넘어 청천(淸川) 장터에서 아침을 먹었다. 화양동(華陽洞)에 도착하여 경천벽(擎天壁)²⁵⁶을 먼저 보고 다음은 운영담(雲影潭)²⁵⁷을 보았다. 진덕문(進德門)으로 올라가 곧바로 환장암(煥章菴)²⁵⁸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도포(道袍)를 입고 내려와서 서원(書院)의 유사방(有司房)²⁵⁹인 소양실(昭陽

256) 경천벽(擎天壁) : 화양구곡의 제1곡인 경천벽은 화양동 계곡 어귀에 있으며 절묘하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마치 하늘을 떠받들며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경천벽’이란 “하늘을 떠받치는 벽이다”는 의미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곧 의리”라는 숨은 뜻이 담겨 있다.

257) 운영담(雲影潭) : 화양구곡의 제2곡인 운영담은 경천벽에서 400m 정도 위에 있는 계곡이다. 맑은 물이 모여 소(沼)를 이루고 있으며, 하늘의 구름 그림자가 계곡 물속에 맑게 비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58) 환장암(煥章菴) : 충청북도 속리산 화양계곡에 있던 암자 이름인데, 1907년경에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채운암(彩雲菴)이란 사찰이 들어서 있다. 《송자대전》 부록 제7권 연보의 <송정 47년(1674) 갑인, 선생 68세>에 의하면, “노봉(老峯) 민공 정중(閔公鼎重)이 연경(燕京)에 가서 의종황제(毅宗皇帝)의 ‘비례부동(非禮不動)’ 4자(字)를 쓴 수필(手筆)을 얻어 와서 선생에게 주었다. 선생이 드디어 시냇가 절벽에 모각하고 그 곁에 암자(庵子)를 세워 승려들에게 지키게 하고, 환장암(煥章庵)이라 이름하여 그 진본을 암자 속에 간직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259) 유사방(有司房) : 회계 및 기록, 제수 마련 및 점검, 제사 절차 협의, 회의 주관 등을 담당하는 유사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室) 주인을 만난 뒤에 《심원록(審院錄)》에 서명하였다. 곧바로 만동묘 전직(萬東廟殿直, 만동묘를 지키는 사람)과 서원 창고지기를 불러 서원 문을 열고 자리를 깔아 공경히 알현한 뒤에 노선생(老先生) 영정(影幀)을 봉심하였다. 다음은 만동묘(萬東廟)에 나아가 봉심하였는데, 묘우(廟宇)는 3칸으로 첫째 칸 후벽에는 해와 달을 그려 놓았고, 그 아래에 신종황제(神宗皇帝)의 허위(虛位)를 세워 놓았다. 둘째 칸에는 해와 달 그림 아래에 의종황제(懿宗皇帝)의 허위를 세워 놓았다. 교의(交椅, 신주를 모시는 의자) 아래에 긴 함[櫃子] 하나가 있기에 전직에게 물어보니, 축판(祝板)과 지방(紙榜)의 패문(牌文)이라고 하였다. 이에 하나하나 살펴본 뒤에 중문(中門)으로 나왔다.

담장 아래의 왼편에 비각(碑閣)이 있기에 들어가 둘러보았다. 청옥석(靑玉石) 사면(四面)에 전후의 사적(事蹟)을 새겨 놓았는데, 글은 도암 선생(陶菴先生)²⁶⁰이 지은 것이며 전서(篆書)는 유 상국(兪相國)²⁶¹이 쓴 것이었다. 한차례 읽어보니 아, 이 만동묘에 들어와 이 글을 보는 사람치고 누구인들 감회가 일지 않겠는가.

두루 완상한 뒤에 세 번째로 금사담(金沙潭)²⁶²을 보았다. 금사담 위에 한 칸짜리 정사(精舍)가 있었는데, 바로 노선생(老先生)이 그 때에 거처했던 암서재(巖棲齋)²⁶³

260) 도암 선생(陶菴先生) : 이재(李穡, 1678~1746)로,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회경(熙卿), 호는 도암이다. 1702년(숙종28)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대제학을 거쳐 의정부 좌참찬에 이르렀다. 신임사화에 숙부 이만성(李晩成)이 처형되자, 벼슬을 버리고 강원도 인제의 설악에 들어가 성리학을 닦는 데 힘썼다. 1725년(영조1),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받자 소를 올려 소론 세력을 몰아낼 것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인으로 퇴거하여 후진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저서로 《도암집》 등이 있다.

261) 유 상국(兪相國) : 유척기(兪拓基, 1691~1767)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 호는 지수재(知守齋)이다. 신임사화 때 소론의 연관 이거원(李巨源)의 탄핵을 받고 동래(東萊)에 안치(安置)되었다가 1725년(영조1)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났다. 1739년 우의정에 오르자, 신임사화 때 세자 책봉 문제로 연좌되어 죽은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爾命) 두 대신의 복관(復官)을 건의해 신원(伸冤)시켰다.

262) 금사담(金沙潭) : 화양구곡 중 제4곡이다. 맑은 물속에 보이는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 하여 ‘금사담’이라고 한다.

263) 암서재(巖棲齋) : 1666년 송시열(宋時烈)이 제4곡인 금사담(金沙潭) 절벽 위에 정면 세 칸 규모의 작은 서재를 짓고 북재(北齋) 또는 암재(巖齋)라고 불렀는데, 훗날 우암의 수제자인 권상하(權尙夏, 1641~1721)에 의해 암서재(巖棲齋)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우암이 말년을 보내면서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었으며, 우암 사후 우암의 제자들에게 강학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다. 네 번째로 읍궁암(泣弓巖)²⁶⁴을 보았다. 이 바위는 노선생이 효종대왕(孝宗大王)의 기일이 되면 눈물을 흘리던 곳이다. 읍궁암 위에 세워진 작은 돌비석에 선생의 절구 한 수가 새겨져 있었다.

이날이 무슨 날이던고	此日知何日
외로운 충정 상제께서 내려다보시리	孤衷上帝臨
새벽에 일어나 통곡하고 나서	晨起痛哭後
무릎 안고 다시 길게 시 읊었노라	抱膝更長吟

시구는 윤헌주(尹憲柱)²⁶⁵의 글씨로 쓰여 있다.

환장암(煥章庵)에 올라가 승통(僧統)²⁶⁶을 불러 운한각(雲漢閣)²⁶⁷ 어필(御筆)을 봉심하였다. 동쪽 벽에 ‘비례부동(不禮不動)’ 네 글자 큰 글씨가 걸려 있고, 서쪽 벽에 ‘사무사(思無邪)’ 세 글자 큰 글씨가 걸려 있었다. 판자 아래에는 8석(石)이 있는데 그것을 두드리면 각각의 소리가 난다 하여서 ‘팔음석(八音石)’이라고 하였다.

두루 살펴본 뒤에 나와 어필함(御筆函)을 내어와 열어 살펴보니, 바로 만력(萬曆崇禎)의 어필(御筆) 3권, 정축년(大統曆) 1권, 어필 1자루가 있었다. 두루 완상한 뒤에 다섯 번째로 능운대(凌雲臺)²⁶⁸를 보고, 여섯

264 읍궁암(泣弓巖) : 화양계곡 제3곡에 있다.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기술잡록(記述雜錄)〉 ‘채지홍(蔡之洪)조에, “우암이 해마다 효종의 휘신(諱辰)인 5월 4일이면 반드시 이 바위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고 곡을 하였기 때문에 ‘읍궁(泣弓)’이라 이름하였다.[先生每年五月四日諱辰, 必西望哭, 臨於此巖, 故名以‘泣弓’.]”라고 하였다.

265 윤헌주(尹憲柱) : 1661~1729. 자는 길보(吉甫),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음보(蔭補)로 참봉(參奉)·봉사(奉事)를 지내고, 1698년(숙종24) 알성 문과에 장원하여 전적(典籍)·정언(正言)·헌납(獻納)을 거쳐 도승지·형조 판서·호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북도 안무사(北道按撫使)로 나가 무신난을 토평한 공으로 1748년(영조24) 분무 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에 추록되고, 영의정을 추증받았다.

266 승통(僧統) : 교단과 승려를 통솔하는 승려의 관직을 말한다.

267 운한각(雲漢閣) : 송시열(宋時烈)은 의종(毅宗)의 친필인 ‘비례부동(不禮不動)’을 민정중에게 받아 1674년(현종15)에 화양리에 있는 절벽에 새기고 그 원본은 환장암(煥章庵) 옆에 운한각(雲漢閣)을 지어 보관하고, 그곳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268 능운대(凌雲臺) : 화양구곡 중 제6곡이다. 큰 바위가 시냇가에 우뚝 솟아 그 높이가 구름을 찌를

번째로 망성대(望星臺)²⁶⁹를 보았는데, 망성대의 오른쪽 벽에 ‘비례부동(不禮不動)’이 새겨져 있었다. 일곱 번째로 와룡암(臥龍巖)²⁷⁰을 보고, 여덟 번째로 학상대(鶴裳臺)²⁷¹를 보았으며, 아홉 번째는 파곶(巴串)²⁷²을 보았다. 그 가운데 기이한 절경은 파곶·학상대·망성대·운영담이었다.

대저 화양동(華陽洞)의 수석(水石)들은 우리나라 제일 명승지 중 세 장관에 해당된다. 온갖 승경 등을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나의 졸필(拙筆)로 그 만분의 일도 형용할 수가 없지만, 환장암 벽 위에 선생의 시가 있기에 부족한 솜씨나마 삼가 차운하였다.

낙양산 ²⁷³ 에 펼쳐진 화양 골짜기	華陽洞關洛陽山
엄숙하신 황제 영혼 여기에 의탁했구나	穆穆皇靈寄此間
우암과 수암 ²⁷⁴ 이 전후로 뜻을 두어	尤老遂翁前後意
여러 암벽들 별천지를 이루었도다	取諸岩壁別人寰

이찬(而贊)이 차운하였다.

———
 듯하여 능운대라 한다.

269 망성대(望星臺) : 제5곡 침성대로, 우뚝 치솟은 높이가 수십 미터인데, 그 아래 “비례부동”이란 의종의 어필이 새겨져 있으니 이름하여 침성대라 했다. 또한 평평한 큰 바위가 첩첩이 겹쳐져 있고 그 위에서 성진을 관측할 수 있다 하여 침성대라 한다.

270 와룡암(臥龍巖) : 제7곡인 와룡암은 긴 바위의 모습이 꼭 용이 드러누워 있는 듯한 모양새를 가졌다 하여 와룡암이라 부른다. 와룡암은 능운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271 학소대(鶴巢臺) : 저본의 ‘학상대(鶴裳臺)’는 화양 제8곡 ‘학소대(鶴巢臺)’의 오키로 보고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학소대는 청학 바위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하여 학소대라 명명하였는데, 와룡암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272 파곶(巴串) : 화양계곡의 마지막 절경인 제9곡으로, 계곡 전체에 회고 넓은 바위가 펼쳐져 있으며, 그 위로 흐르는 물이 마치 용의 비늘을 꿰어 놓은 것처럼 보여 파천이라고도 부른다.

273 낙양산 : 충북 괴산군 화양리에 있는 산이다. 화양동은 속리산 서쪽 기슭 낙양산(洛陽山) 아래에 있다.

274 수암 : 원본의 ‘수옹(遂翁)’은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로, 본관은 안동,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한수재(寒水齋)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이다.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화양동에 만동묘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제향하였다. 저서에 《한수재집(寒水齋集)》, 《삼서집의(三書輯疑)》 등이 있다.

해동의 빼어난 절경 뽑내는 화양산
중국 천지가 이 사이에 있었구나
만고강상 뜻을 붙잡아 세워
선생의 높은 의리 속세를 벗어났네

海東絕勝華陽山
中國乾坤在此間
萬古綱常扶植意
先生高義出塵寰

윤익(允益)이 차운하였다.

별천지가 낙양산에 빙 둘러 있고
대명의 일월이 그 사이를 비추네
이웃을 돌아보고 구하는 맘 끝이 없어
두 황제의 영혼 속세를 벗어났도다

別區環立洛陽山
大明日月照此間
顧隣球傍不朽思
二帝靈魂出塵寰

환장암(煥章菴)에서 묵었다.

初八日。自鰲村抵京城三百餘里云，而以此作行者，欲見華陽洞之意，逶迤百餘里。早發越十峙，抵清川市邊朝飯，得達華陽洞門。初見擎天壁，再見雲影潭。上進德門，直抵煥章菴中火。着道袍下來，院有司房昭陽室見主人後，書名《審院錄》，卽招萬東廟殿直及書院庫子，開門設席。祇謁後，奉審于老先生影幀。次詣萬東廟奉審，則廟宇三間，而第一間後壁畫日月，其下設神宗皇帝虛位，第二間日月之下，設懿宗皇帝虛位，交椅下有一長櫃子，故問于殿直，則盛以祝板與紙榜牌云，故箇箇奉玩後，出來中門。牆下左邊，有碑閣入玩，則青玉石四面刻前後事蹟，而文則陶菴先生所製，篆則俞相國筆，一次讀下，噫！入此廟，觀此書者，孰不無興感之懷哉？周玩後，三見金沙潭，上有一間精舍，老先生居此時巖栖齋也。四見泣弓巖，巖卽老先生，位孝宗大王諱日，揮泣之處也。巖上立小石碑，刻先生詩一絕曰：“此日知何日，孤衷上帝臨。晨起痛哭後，抱膝更長吟。”之句而尹憲柱筆也。上煥章菴，招僧統，奉審雲漢閣御筆，則東壁掛非禮不動四大字，西壁掛思無邪三大字。板下有八石而扣之，則各聲音云，故謂之八音石。遍觀後出來，奉出御筆函，開金審則卽萬曆崇禎御筆三卷，丁丑大統曆一卷，御筆一柄。周玩後，五見凌雲臺，六見望星臺，臺之右壁，刻非禮不動。七見臥龍岩，八見鶴裳臺，九見

巴串，其中奇絕者，巴串、鶴裳臺、望星臺、雲影潭也。大抵華陽之水石，我東之第一勝處三壯觀，百勝等坐聞，故以吾拙筆，不能摸寫其萬一耳。煥章菴壁上有老先生韻，故忘拙謹次曰：“華陽洞關洛陽山，穆穆皇靈寄此間。尤老遂翁前後意，取諸岩壁別人寰。”而贊次曰“海東絕勝華陽山，中國乾坤在此間。萬古綱常扶植意，先生高義出塵寰。”允益次曰“別區環立洛陽山，大明日月照此間。顧隣球傍不朽思，二帝靈魂出塵寰。”宿煥章菴。

■9일. 일찍 출발하여 괴산읍(槐山邑)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고, 음성(陰城)의 당동(棠洞)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90리를 갔다.
初九日。早發至槐山邑，乃中火，抵陰城 棠洞酒幕留宿。行九十里。

■10일. 일찍 출발하여 현치(玄峙)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용산(龍山登)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진촌(陳村)을 채 못 가서 김 대비(金大妃)²⁷⁵의 부음(訃音)을 들었다. 진촌(陳村)에 도착하여 묵었다. 100리를 갔다. 죽산(竹山, 경기도 안성지역 옛 지명) 땅이다.
初十日。早發至玄峙朝飯，抵龍山登酒幕中火，未及陳村，聞金大妃喪訃音，抵陳村留宿。行百里，竹山地也。

■11일. 새벽에 출발하여 좌전(坐箭)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양지(陽地)²⁷⁶ 신주막(新酒幕)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용인(龍仁)²⁷⁷ 어후내에 이르러 묵었다. 100리를 갔다.
十一日。曉發至坐箭朝飯，抵陽地新酒幕中火。抵龍仁 어후내留宿。行百里。

275) 김 대비(金大妃) : 정조의 비(妃)인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를 말한다. 1762년(영조38) 10세 때 세손빈(世孫嬪)에 책봉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천성이 온후하고 청렴하여 일생을 검소하게 보냈으며, 생전에 여러 차례 존호(尊號)를 올렸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821년 3월 9일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예경자수효의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이고, 능호는 건릉(健陵)이다.

276) 양지(陽地)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277) 용인(龍仁) : 지금의 용인시로, 한반도 및 경기도의 중심에 있으며, 동쪽은 이천시, 서쪽은 수원시와 화성시, 남쪽은 안성시·평택시, 북쪽은 성남시·광주시와 접한다.

■12일. 일찍 출발하여 광주(廣州) 삼거리(三巨里)에서 아침을 먹고, 연구뽕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서빙고진(西水庫津)에 이르러 간신히 청파(靑坡) 박후근(朴厚根)의 집을 어렵사리 찾아가서 묵었다. 60리를 갔다. 후근은 흥양(興陽) 문등(門登) 사람인데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十二日. 早發至廣州三巨里朝飯, 抵 연구뽕酒幕中火. 抵西水庫津, 艱尋靑坡朴厚根家留宿. 行六十里. 厚根卽興陽門登之人, 居此地也.

■13일. 차동(車洞)의 민 판서(閔判書) 집에 가서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후근의 집으로 돌아와 묵었다.

十三日. 往車洞閔判書宅, 與主人暫敘, 還來厚根家留宿.

■14일. 새벽에 주인과 홍화문(弘化門) 밖에 가서 성복(成服)한 곡반(哭班)²⁷⁸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최복(衰服)을 갖추어 입은 만조백관(滿朝百官)들이 엄숙하게 모여 있었다. 10여 리를 늘어서서 때를 기다렸다가 예를 행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애통해하는 일 중의 하나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곧바로 주인집으로 나와서 아침을 먹고, 주인과 묘동(廟洞)²⁷⁹에 가서 보성(寶城) 종인(宗人) 공서(公瑞)를 찾아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곧바로 주인집으로 돌아와 묵었다.

十四日. 曉卽與主人往弘化門外, 參成服哭班, 而是時滿朝百官俱衰服, 濟濟來會. 羅立十餘里, 待時行禮, 此亦普痛中一初見也. 卽爲出來主人家朝飯, 與主人往廟洞, 訪寶城宗人公瑞. 暫話後, 卽爲出來主人家留宿.

■15일. 차동(車洞)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주인집 겸동(僉童, 어린 하인)을 거느리고 근동(芹洞)²⁸⁰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갔으나 주인이

278 곡반(哭班) : 국상(國喪) 때에 곡(哭)하는 벼슬아치의 반열(班列)을 말한다.

279 묘동(廟洞)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廟洞)으로, 조선조 역대 임금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종묘가 있는 곳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280 근동(芹洞)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에 있던 마을로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논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나릿골로 불렀으며,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부재중이라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소문(西小門)으로 왔다. 동행과 태평동(太平洞)²⁸¹의 진사 송영재(宋永載)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인이 정성껏 대접해 주어 기쁘고 다행스러운 중에도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회포를 푼 뒤에 창동(倉洞)에 가서 승지 이광헌(李光憲)의 집을 찾아가더니 낙동(絡洞)으로 이주하였다고 하기에 찾아가으나 이 승지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나갔다고 하므로 만나지 못했다.

이광문(李光文)의 집에 찾아 갔더니, 주인은 지난해에 부친 상(喪)을 당하여 현재 상중(喪中)이었는데, 광문(光文)은 출타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만 그 아우에게 조문하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회동(晦洞)의 송 장성(宋長城) 집에 찾아가 장성(長城)의 부친 익형씨(翼亨氏) 형제를 만났다. 두 노인이 정성스레 대접해 주었으나 서글픈 감회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회포를 풀고 돌아오는 길에 필동(筆洞)의 본관(本官) 집에 들어가 본관(本官)의 대인부친을 만나고 곧바로 나왔다.

十五日. 往車洞暫話後, 率主家僉童, 往芹洞李參奉家, 以主人之不在, 不得相面, 來西小門. 與同行往太平洞宋進士永載家敘話, 主人款接喜幸中, 悲懷不可禁. 移時祇敘後, 往倉洞尋李承旨光憲家, 則移居于絡洞云, 故尋往則李承旨以慶州府尹出去云, 故不得相面. 尋往李光文家, 則主人年前, 遭其大人喪, 方在喪中, 而光文則出他不得相面, 只與其弟吊慰. 暫話後, 尋往晦洞宋長城家, 見長城大人翼亨氏兄弟, 則兩老人款接, 不勝悲感之心矣. 移時祇敘, 來路入筆洞本官家, 見本官之大人, 卽爲出來.

■16일. 태평동(太平洞)의 송 진사(宋進士) 집에 가서 《장릉지(莊陵誌)》²⁸²를

281 태평동(太平洞)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북창동·서소문동·태평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서소문동에 조선시대에 중국 사신을 머물게 하고 접대하던 태평관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태평관골이라고도 하였다.

282 장릉지(莊陵誌) :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강원도 영월로 추방되어 죽기까지의 사실과 속중 때 복위된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1711년에 박경여(朴慶餘)와 권화(權和)에 의해 목판본 4권 2책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이 책은 1711년(숙종37) 당시 영월부사 윤순거(尹舜舉)가 편찬한 《노릉지(魯陵誌)》 2권을 구지(舊誌)라 하고, 그 뒤 박팽년(朴彭年)의 9세손 경여가 권화와 함께 속지(續誌) 2권을 증보해 《장릉지》라고 개제하였다. 구지인 《노릉지》는 노산군(魯山君)의 능호(陵號)에 따른 것이고, 구지와 속지를 합편, 개제한 《장릉지》는 노산군이 속중 때 단종으로 복위된 뒤의 능호인 장릉(莊陵)에 따른 것이다.

보고 싶다고 누누이 부탁하였더니, 다른 곳에서 구해 오겠다고 하기에 오후에 다시 오기로 약속하였다. 삼청동(三清洞)의 승지 이헌기(李憲綺) 집으로 갔으나 승지가 궂내로 들어가 만나지 못하고, 그 아우인 주서(奏書) 헌위(憲緯)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동(壺洞)의 남상(南相) 집에 갔으나 남상(南相)도 입궐하여 만나지 못했다. 돌아오는 도중에 길에서 공서(公瑞)를 만나 잠깐 이야기하다가 오후에 나오겠다고 하기에 좋다고 답하였는데, 종각에 와서 기다려도 끝내 오지 않았다. 오는 길에 태평동에 들렀더니 진사가 《장릉지》를 얻어 오라고 종씨(從氏)의 집에 노복을 보냈는데, 잃어버려서 없다고 답하였더니 한탄스럽다. 곧바로 나와 주인집으로 갔는데, 공서(公瑞)가 찾아왔다가 우리들이 없어서 도로 들어갔다고 하니, 한탄스럽다.

十六日. 往太平洞 宋進士家, 以《莊陵誌》得見之意, 累累言托, 即求得他處云, 故以午後更來爲約. 往三清洞 李承旨 憲綺家, 則承旨入闕內, 不得相面, 與其弟奏書憲緯暫敘. 往壺洞 南相家, 則南相亦入闕, 不得相面, 而來路逢公瑞於路上, 暫話以午後出來爲言, 故答以好矣, 而來待鍾閣, 終不來, 故來路入太平洞, 則進士以《莊陵誌》得來之意, 專爲送奴於其從氏家矣. 答以見失不在云, 可歎, 而即爲出來主人家, 則公瑞出來, 以吾輩之不在, 還爲入去云, 可歎.

■17일. 아침을 먹고 태평동(太平洞)으로 가서 진사(進士)와 작별하였다. 이어 경성동(京成洞)의 이림천(李林川) 집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회동(晦洞)으로 가서 익형(翼亨) 씨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차동(車洞) 민 석사(閔碩士)의 집으로 갔으나 주인이 부재중이어서 작별하지 못하였다. 이어 민치명(閔致明)의 집에 들렀더니 정성스레 맞이하고는 술을 사와서 권하였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서소문(西小門) 밖의 이참봉(李參奉) 집으로 갔는데, 이 참봉은 정묘년에 작고하였고, 그 동생도 작고하였으니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세상²⁸³이라 말할 수 있겠다. 참봉의 아들 희(堦)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인도 그 부친의 풍도가 있고,

283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세상 : 원문의 '창상(滄桑)'은 창상지변(滄桑之變)으로, 큰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이 되고, 뽕나무밭이 변하여 큰 바다가 된다는 말이다. 흔히 세상의 변화가 매우 심함을 비유하는데,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과 같다.

자못 은근한 뜻이 있었다. 또한 술을 사서 올리니 기쁘고도 슬펐다. 이어 작별한 뒤에 약고개[藥峴]²⁸⁴의 박 영암(朴靈岩) 집에 가서 오위장(五衛將) 송인서(宋璘瑞)의 소식을 물었다. 신문(新門) 밖으로 이주하여 폐문동(閉門洞)의 심 도사(沈都事) 집에 살고 있다고 하였으나 날이 저문 탓에 찾아가지 못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十七日. 朝飯往太平洞, 與進士作別. 仍往京成洞 李林川家, 敘話後, 往晦洞, 拜辭于翼亨氏兄弟. 出來車洞 閔碩士家, 則主人不在, 故不得作別. 仍入閔致明家則款接, 仍爲沽酒以勸. 移時敘話後, 仍往西小門外李參奉家, 則參奉丁卯年作故, 其弟氏亦爲作故, 可謂滄桑世界. 只與參奉之子堦暫敘, 則主人亦有乃父之風, 頗有慇懃之意, 亦以沽酒以進, 可喜可悲. 仍爲作別後, 往藥峴朴靈岩家, 問宋五衛將 璘瑞消息, 則移居于新門外, 居閉門洞 沈都事家云, 而以日暮之致, 不得往尋, 出來主人家.

■18일. 가랑비가 내렸다. 아침 전에 이찬(而贊)과 비를 무릅쓰고 폐문동(閉門洞)의 오위장(五衛將)이 사는 곳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의복이 모두 젖어버렸으니 매우 속상했다. 아침을 먹은 뒤에 날씨가 개기를 기다렸다가 행장을 꾸려 동진(銅津) 어귀에 이르렀다. 광풍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모래가 날려 눈앞에 가득하였는데, 배를 타자 바람의 형세가 더욱 심하여 매우 위태로웠다. 간신히 강을 건너 승방(僧房) 주막²⁸⁵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지지현(遲遲峴)²⁸⁶을 넘어 화성(華城)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284 약고개[藥峴] : 지금의 서울시 중구 중림동(中林洞)에 위치한, 만리동(萬里洞) 입구에서 충정로(忠正路) 3가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서대문 밖에 있었다. 이곳에 약초를 재배하는 밭이 있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285 승방(僧房) 주막 : 승방평(僧房坪)에 있었던 객점을 말한다. 승방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던 마을로서, 마을 뒷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 앞쪽에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승방뜰·심방뜰이라고도 불렸다.

286 지지현(遲遲峴) : 지지대(遲遲臺)고개로, 수원과 의왕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고개이다. 《화성지》에 따르면 원래는 사근현이었는데 정조가 '미륵현' 그 후에 다시 '지지현(遲遲峴)'으로 고쳤다고 한다. 사근현(沙近峴)이라고 한 것은 고개 아래에 사근침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지(遲遲)'라고 한 것은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고 돌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곳에서 한참 지체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 정조는 이곳에 장승과 표석을 세웠고, 1807년(순조7)에 지지대 서쪽에 지지대비와 비각을 건립하였다.

十八日。微雨。朝前與而贊，冒雨往居閉門洞五衛將所在處，暫紱而來，衣服盡濕，可憤可憤。食後待霽治發，到銅津頭，狂風大作，飛沙滿目，而爲乘船，以風勢之極惡，萬分危凜。艱渡至僧房酒幕中火。越遲遲峴，抵華城留宿。行七十里。

■19일. 갈 길이 바쁜 탓에 일찍 출발하여 두루 살피지 못하고, 다만 용두각(龍頭閣)만을 보았는데 그 구조가 기묘하였다. 다시 출발하여 하류천(下柳川)²⁸⁷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오산(烏山)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소사(素沙)에 도착하여 묵었다. 80리를 갔다.

十九日。早發以行忙之致，不能周觀，而但見龍頭閣，則制甚奇妙。移發至下柳川朝飯，抵烏山中火。到素沙留宿。行八十里。

■20일. 일찍 출발하여 실음소(失音所)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직산(稷山) 천안 옛 지명 삼거리에 이르러 길에서 장달소(張達紹)를 만났다. 그가 집에서 온 편지를 전했는데, 집안에 별 탈 없는 것이 다행스럽고, 집을 떠난 지 30일 만에 소식을 듣게 되니 몹시 기뻐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하여 천안읍(天安邑) 어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김제역촌(金堤驛村)²⁸⁸의 주막에 이르러 회덕(懷德)의 노차(路次)²⁸⁹를 묻고, 이어 소로(小路)로 길을 잡아 고동령(高東嶺)을 넘어 전의(全義)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90리를 갔다.

二十日。早發至失音所朝飯。抵稷山三巨理，路上逢張達紹。乃給家信，而家中別無故幸喜，離家三十日，始見消息忻喜。暫話作別，抵天安邑前中火。到金堤驛村酒幕，問懷德路次，仍爲小路作行，越高東嶺，抵全義邑內留宿。行九十里。

■21일. 일찍 출발하여 글길리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연기(燕岐) 삼거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용정(龍亭) 나무를 지나 오촌(鰲村)에 도착하였다. 80리 길을 갔다.

287 하류천(下柳川)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아랫버드내 마을이다.

288 김제역촌(金堤驛村)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역말마을이다.

289 노차(路次) : 길 가는 중 잠시 쉬기 위해 길가에 마련하는 임시 거처를 말한다.

장석(丈席)의 환후는 아직 쾌차하지 않았고, 또 근래 일어난 국상(國喪)으로 곡반(哭班)에 참여하느라 읍내를 왕래하고 있는 데다 조섭을 잘못하는 일이 있으니 매우 걱정스러웠다. 우리들이 상경한 뒤로 요청했던 문자를 지어 두었으리라 생각하였는데, 계속 겨를이 없어 유념하지 못했다고 하니 걱정스러웠다.

二十一日。早發至글길리酒幕朝飯，抵燕岐三巨里中火。到龍亭津，得達鰲村，行八十里。丈席患候未快，且近以國恤哭班往來邑內，又有失攝之道，可悶可悶。意謂吾等上京後，所請文字製置矣。連汨無暇，不得留念云悶焉。

■22일. 여러 날을 머물러 있으면서 청한 문자를 받아가려는 생각에 동행 윤익(允益)을 오후에 행장을 꾸려 내려 보냈다. 객지에서 서로 헤어지니 서글픈 마음을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二十二日。欲爲多日留連，奉請文字受去之意，同行允益，午後治發下送。客裡相分，悵懷不可言。

■23일. 이찬과 읍내로 가서 주관(主官) 송유재(宋儒載)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돌아왔다. 저녁 무렵에 장석(長席)께 문후(問候)를 드렸더니, 장석께서 말씀하시기를, “머칠 동안 머물러 있어도 그 사이에 어찌 지어줄 방법이 없네.”라고 하셨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어찌할 수 없는 형세일 듯하므로 내일 출발하려고 마음먹었다.

二十三日。與而贊往邑內，見主官宋儒載暫話，卽爲還來。夕間問候於丈席，則丈席曰：“數日留連，伊間製給無可奈”云云，故反以思之，則事勢似然不得已，明日發程爲計。

■24일.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장석 댁에서 아침을 마련해 주어 매우 감사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 추수할 무렵에 다시 오겠다 아뢰고 그대로 하직(下直)하였다. 비를 무릅쓰고 행장을 꾸려 출발한 것은 비가 심하게 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몇 리를 채 못 가서 큰비가 내렸다. 비를 맞으며 20리까지 갔으나 비가 멈추지 않아 멀리 갈 수 없기에 그대로 머물렀다.

二十四日。自朝微雨。朝飯丈席宅備給，可感可感。食後以秋成更來告白，仍

下直。冒雨治發者，以雨意之似不大端故矣。行未數里雨大注，冒雨至二十里，以雨勢之不止，不得遠行，仍留。

▪25일. 아침 전에 출발하여 유성(油城) 시장 근처에서 아침을 먹었다. 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오후에 조금 갠 기미가 있어서 비를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척치(尺峙)를 넘어 신도(新都)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비가 내리는 탓에 바삐 지나가느라 들어가 보지를 못하니 한탄스럽다. 개태치(開太峙)에 이르러 묵었다. 50리를 갔다.

二十五日。朝前發程，至油城市邊朝飯。以雨勢之不止，留待稍霽矣。午後少有霽意，故冒雨發程。越尺峙，歷新都洞口，而以雨意之致，忙迫過之，而不得入觀，可歎。抵開太峙留宿。行五十里。

▪26일. 일찍 출발하여 직산(稷山) 삼거리에서 아침을 먹고, 여산(礪山)의 삼치(三峙)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전주 삼례(參禮)의 대천(大川)에 이르러 묵었다. 110리를 갔다.

二十六日。早發抵稷山三巨里朝飯，抵礪山之三峙中火。抵全州 參禮 大川留宿。行百十里。

▪27일. 일찍 출발하였다. 노자(路資)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내(府內) 영주인(營主人) 집에 들러 변통할 요량으로 주인집에 들어갔으나 주인이 부재중이라서 곧바로 길을 나섰다. 신외(新隈)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임실(任實)의 방동(方洞) 송연규(宋延奎) 집에 가서 묵었다. 80리를 갔다. 주인은 돈학공(遯壑公)²⁹⁰의 자손이다.

二十七日。早發。以路資之不足，入府內營主人家，辨通意專，入主人家，則主人不在，故即爲發程抵新隈中火，即到任實 房洞 宋延奎家留宿。行八十

290) 돈학공(遯壑公) : 송경원(宋慶元, 1419~1510)으로, 본관은 여산(礪山), 호는 돈학이다. 김종직·남효온 등과 교류하였다. 1455년 음보로 전라도사에 임명되었다. 1457년(세조3) 단종이 영월에 유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종형 송간(宋侃)과 함께 영월로 달려가 문밖에서 복명하고 돌아왔다. 단종이 사사되자 송간과 함께 계룡산으로 들어가 2년간 복상하였다. 그 뒤 출세를 단념하고 임실 백이산(伯夷山)에 은거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里。主人則遯壑公子孫也。

▪28일.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대곡(大谷)의 송낙철(宋樂喆)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이어 야당(野塘)의 송규천(宋奎天) 집에 이르니 주인은 부재중이고, 그의 일가 노인인 필동(必東)만 있었다. 거기서 묵었다. 30리를 갔다.

二十八日。食後發程，抵大谷 宋樂喆家中火。仍抵野塘 宋奎天家，則主人不在，只有其一家老人必東。仍爲留宿。行三十里。

▪29일. 아침 전에 길을 나서 오수(熬樹)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가랑비가 내렸기 때문에 비를 무릅쓰고 이찬(而贊)은 매안(梅岸)으로 가고, 나는 원산(圓山)의 방 서방(房書房) 집에 가기 위해 그길로 헤어졌다. 간신히 원산(圓山)을 찾아갔으나, 방례(房禮)의 3형제는 각각 남북으로 떨어져 살고, 족질(族姪) 필흥(弼興)만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기에 찾아갔더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거기서 그대로 묵었다. 50리를 갔다.

二十九日。朝前發程，抵熬樹朝飯。以微雨故，冒雨而贊向梅岸，余則欲入圓山 房書房家，仍爲分路。艱尋圓山，則房禮之三兄弟，各分南北，只有族姪弼興至今居在，故尋訪則忻然迎接，仍爲留宿。行五十里。

▪30일. 이찬(而贊)을 중주원(中周院)에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나루 어귀에 이르렀다. 한낮[日中]에 이찬을 기다리다가 절구 한 수를 지었다.

동행이 좋은 줄 알지 못했는데	不識同行好
지금 뒤쳐져 보니 알겠어라	今因落後知
강변을 서성이다 생각하노니	徘徊江上意
어제 아침의 기약 잊었을까 걱정이네	恐負昨朝期

오후에 도착하였으므로 바로 길을 나서 곡성(谷城) 유치(猶峙)에 이르러 묵었다. 50리를 갔다.

晦日。與而贊約以中周院留待，故到津頭。日中待而贊，吟一絕曰：“不識同行好，今因落後知。徘徊江上意，恐負昨朝期。”午後來到，故仍爲發程，抵谷城 獵峙留宿。行五十里。

■4월 1일. 일찍 출발하여 용계(龍溪)²⁹¹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귀정(歸亭 영귀정을 말함)에 이르러 잠시 외종수(外從嫂, 외삼촌의 며느리)를 만난 다음, 그길로 출발하여 광천(廣川)²⁹²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었다. 낙안(樂安) 사미정(四美亭)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四月初吉. 早發至龍溪朝飯. 抵歸亭暫見外從嫂, 仍發抵廣川中火. 抵樂安四美亭留宿. 行八十里.

■2일. 일찍 출발하여 이찬은 여암(餘岩)에 들어가고, 나는 서령(西嶺)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벌교(筏橋)에 머물러 있다가 이찬을 만나 백정자(柏亭子)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이찬은 바로 들어갔다. 나는 사촌(社村)의 문경(文卿) 씨에게 들렀으나 부재중이고, 사여(士汝) 씨와 공찬(公贊)만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용전(龍田)으로 돌아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성산(城山)으로 올라가 묘 아래에 있는 상석(床石)²⁹³을 살펴보았다. 저녁에 재동(齋洞)에서 묵었다. 60리를 갔다.

初二日. 早發而贊則入餘岩, 余則至西嶺酒幕朝飯. 留筏橋逢而贊, 抵柏亭子中火, 而贊則直爲入去. 余則入社村 文卿氏不在, 只有士汝氏、公贊, 故暫敘後, 入來龍田. 暫話直上城山, 墓下見床石, 暮托齋洞留宿. 行六十里.

■4일. 윤익(允益)이 함께 그의 집에 갔기 때문에 동행하여 남양(南陽) 이찬의 집으로 들어가 요기하였다. 오한이 크게 일어나고 통증도 매우 심하여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통증이 사그라들어서 이찬과 강동(江洞)

윤익(允益)의 집으로 갔으나, 한번 누운 뒤로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연일 고통에 시달렸지만, 끝내 차도가 없었다.

初四日. 允益同往渠家, 故同行入南陽 而贊家療飢. 寒栗大發, 痛勢亦爲大端, 稍待鎮定而終止, 故與而贊往江洞 允益家, 一臥以後, 不省人事. 連日苦痛, 而終無差勢.

■10일. 교자(轎子)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이 위중하여 못져누웠다. 初十日. 載轎還家, 而仍危臥病.

291) 용계(龍溪):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근처의 마을 이름이다.

292) 광천(廣川):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이다.

293) 상석(床石): 무덤 앞에 제물(祭物)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로 만들어 놓은 상(床)이다.

신사년(1821) 11월 19일

辛巳十一月十九日

■금년 봄 2월에 충강공(忠剛公) 선조 행록(先祖行錄)을 개간(開刊)하는 일로 오촌(鰲村, 송치규) 장석(長席)에게 서문(序文)을 청하기 위해 이찬(而贊), 윤익(允益)과 동행하여 오촌에 갔었다. 당시 장석이 마침 병환 중이라서 글을 받지 못하고 가을을 기약하고 돌아왔다. 이번 겨울 종중의 협의에서 또 나에게 갔다 오라고 하였으므로 11월 19일에 길을 나서 석촌(石村) 송계석(宋啓錫)의 집에 이르러 묵었다. 20리를 갔다.

今年春二月, 以忠剛公先祖行錄開刊事, 請序文於鰲村 丈席之意, 與而贊及允益, 同行往鰲村矣. 其時丈席, 適患身恙, 不得受文, 秋以爲期而來矣. 今冬宗議, 又以余往還, 故乃於十一月十九日發程, 抵石村 宋啓錫家留宿. 行二十里.

■20일. 대곡(大谷)의 형님과 증아(曾兒)가 동행하여 용전(龍田) 무안(茂安)댁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二十日. 大谷兄主及曾兒同行, 抵龍田 茂安宅留宿. 行三十里.

■21일. 아침 전에 이찬(而贊)이 오촌(鰲村)에게 부칠 서간(書簡)을 가지고 왔다. 형님들과 증아(曾兒)와 함께 유둔(油屯) 시장 근처로 가서 행장을 꾸리고 문중의 제종(諸宗)들과 작별한 다음 길을 나섰다. 낙안(樂安)의 평촌(平村) 주점에 이르러 묵었다. 20리를 갔다.

二十一日. 朝前而贊來付鰲村書簡. 與諸兄主及曾兒, 往油屯市邊治行, 與門中諸宗, 作別發程. 抵樂安平村酒店留宿. 行二十里.

■22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리는 비 때문에 일찍 출발하지 못하였다가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추동(楸洞) 주점 어귀에서 올라가는 한 행인을 만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물었더니, “전주(全州)로 갑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동행하여 무동정(舞童亭)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낙수(洛水)

에 이르러 묵었다. 동행한 사람은 장흥(長興) 벽사(碧沙)에 살고, 성명(姓名)은 김방업(金房業)인데, 용모가 단아하고 말은 신중하였으니 여행 중 고초를 겪는 상황에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50리를 갔다.

二十二日. 自曉至朝, 爲雨所戲, 不得早發, 仍朝飯發程. 至楸洞酒店前, 逢一行人上去者, 問向何處, 則答曰: “向全州”云, 故仍爲同行, 抵舞童亭中火. 暮抵洛水留宿. 同行之人, 在於長興 碧沙, 而姓名金房業也. 容貌端雅, 言語慎重, 足慰行中苦楚之狀矣. 行五十里.

■23일. 새벽에 출발하여 광천(廣川)에서 아침을 먹었다. 용계(龍溪)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다음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二十三日. 曉發抵廣川朝飯. 抵龍溪中火, 抵谷城邑內留宿. 行七十里.

■24일. 새벽에 출발하여 순자강(淳子江)²⁹⁴을 건너고 관정(關亭)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남원에 있는 증산(甌山) 주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침 흥양목(興陽牧)의 관하인(官下人, 관가의 하인)을 만났는데, 내려가는 길이 너무 바빠 서신을 쓸 수 없어서 구두로 집에 소식을 전했다. 저녁에 임실(任實) 야당(野塘)의 송계천(宋啓天) 집에 간 것은 종인(宗人)과 동행하고 싶어서였는데,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니 한탄스럽다. 그대로 묵었다. 동행했던 방업(房業)은 곧장 야당(野塘) 주점으로 향했다. 80리를 갔다.

二十四日. 曉發越淳子江, 抵關亭朝飯. 抵南原 甌山酒店中火, 適逢興陽牧官下人, 下去偏忙未修書, 只傳口信於家中. 暮抵任實 野塘 宋啓天家者, 欲與宗人同行矣. 不得同行云, 可歎. 仍爲留宿. 同行房業, 則直向野塘酒店. 行八十里.

■25일. 새벽에 출발하여 야당 주점에 이르러 방업(房業)과 동행하였다. 말치

294) 순자강(淳子江) : 전남 곡성에 있는 섬진강의 상류로, 섬진강 중에서 대강면 방동리 앞에서부터 곡성군 장성리 뒤 제방까지 즉, 요천수가 흐르는 물과 합류된 지점까지를 순자강이라 한다. 대부분 순자강(鶉子江), 순강(鶉江)이라고 표기하는데, 저자는 ‘蓴子江’, ‘淳子江’으로 기록하였으니, 순자강(鶉子江)의 오기인 듯하다.

(末峙)를 넘고 두곡(杜谷)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애치(艾峙)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전주 부내(全州府內)에 이르렀다. 방업(房業)을 따라 벽사(碧沙)의 주인인 장영손(張永孫) 집에 머물렀는데, 영손은 영문(營門)의 도사령(都使令)이었다. 80리를 갔다.

二十五日. 曉發至野塘酒店, 與同行房業. 越末峙, 抵杜谷朝飯. 抵艾峙中火, 暮抵全州府內. 因房業留碧沙主人張永孫家, 永孫卽營門都使令也. 行八十里.

■26일. 아침 전에 본가(本家)의 서간을 찰방 이용(李壙)에게 전하려 했으나, 아침을 먹은 뒤에 곧바로 들어왔으므로 마두(馬頭)²⁹⁵ 영리(營吏)인 김서목(金瑞穆)을 통해 비장소(裨將所)²⁹⁶에 들어갔다. 이 찰방(李察訪)을 만나 한참 동안 조용히 이야기한 것은 대개 순찰사(巡察使)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순찰사가 일찍이 《장릉지(莊陵誌)》를 교정(校正)했으니 《장릉지》 안에 수록된 <충강공사실(忠剛公事實)>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알아보고 싶다는 것과 몇 줄의 발문(跋文)을 청하려 한다는 뜻을 찰방에게 전하였다. 찰방이 말하기를, “내사(內使)가 순찰사께서는 지금 신병(身病)을 앓고 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므로 《서재행록(西齋行錄)》만 두고 주인집으로 나와 이 찰방(李察訪)의 기별을 기다렸다. 종일토록 기별이 오지 않으므로 저녁을 먹은 뒤에 영소(營所)에 가서 마두를 불러 함께 비장소(裨將所)로 갔으나 찰방이 잠자리에 들어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주인집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는데 김노(金奴)가 발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치료하고 있다 운운하였다.

二十六日. 朝前傳本家書簡於李察訪 壙, 則食後卽爲入來, 故因馬頭營吏金瑞穆, 入裨將所, 見李察訪. 移時穩敘者, 盖欲見巡相, 而巡相曾已校正《莊陵誌》, 則相想必知誌中所載忠剛公事實, 故欲爲探知. 且請數行跋文

295) 마두(馬頭) :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296) 비장소(裨將所) : 비장은 막비(幕裨)·막객(幕客)·막빈(幕賓)·막중(幕中)·좌막(佐幕)이라고도 하는데,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등에 딸린 막료(幕僚)를 가리킨다.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규례화하였다.

之意, 言及於察訪, 則察訪言, “內使道適患身恙, 未得入見云”, 故只留《西齋行錄》, 而出來主人家, 以待李察訪之奇矣. 終日不來, 故夕食後, 往營所要馬頭, 偕往裨將所, 則察訪就枕, 不得更見. 還來留主人家, 而金奴以足疾, 不得運動, 故因臥治療云云.

■27일. 아침 전에 다시 비장소(裨將所)로 갔으나 찰방이 선화당(宣化堂)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 김노(金奴)는 발을 치료하기 위해 그대로 주인집에 머물렀다. 김방업(金房業)과 이별할 때 방업이 말하기를, “제가 도모한 일이 만약 성사된다면 오래 머무를 것이고 성사되지 않는다면 내일 내려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아침 전에 사람을 사서 짐을 지우고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지만, 객지에서 종과 주인이 서로 헤어지게 되어 심난한 마음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이에 출발하여 용산교(龍山橋)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통천등(通泉登)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여산(礪山)의 산지기 집에 도착하였다. 이날 종과 주인이 서로 떨어져서 이곳에 이른 것은 내일 시조(始祖) 산소(山所)에서 있을 동지향사(冬至享祀)에 참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종(諸宗)들과 산지기의 집에서 머물렀다.

二十七日. 朝前更往裨將所, 則察訪入去宣化堂, 故不見. 金奴則治療次, 仍留主人家. 與金房業相別之際, 房業曰: “吾之所營事, 若成則久留, 不成則明日下去云矣.” 食前雇人負卜, 不得已發程, 客中奴主相分, 慣亂心懷, 難可堪抑. 仍發抵龍山橋朝飯, 抵通泉登中火. 暮抵礪山山直家. 是日奴主相離, 得達此處者, 欲參明日冬至享祀於始祖山所故也. 與諸宗留山直家.

■28일. 새벽부터 눈비가 오더니 정오까지 그치지 않았다. 달리 우구(雨具)가 없으니 묘정(墓庭)의 제례를 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오후에 부득이 산지기 집을 청소하였다. 저물녘 예를 행할 때에 나에게 축(祝)을 하라고 하여서 외람되이 그 예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실로 어찌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히려 행해지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온종일 비가 내리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二十八日。自曉雨雪，至午不止。別無雨具，墓庭祀禮，極爲難行，故午後不得已灑掃山直家。至暮時，仍爲行禮時，以余爲祝，故冒當其禮，而寔出於不得之權道，猶愈於不行耶。終日其雨，達夜不止。

■29일. 아침 전에 비가 바로 그쳤다. 아침을 먹은 뒤에 홍주(洪州)의 종인(宗人)인 해주(海柱), 하주(廈柱)와 산소에 올라가 성묘한 뒤에 산지기 집으로 내려와 음복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전주(全州)의 고용인을 내려보냈다. 제종들과 산지기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노복의 발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매우 답답하였다. 저녁때에 김노(金奴)가 발을 싸매고 들어왔기에 다급히 발병에 대해 물으니 조금 차도가 있어 부르튼 발로 올라왔다고 하였다. 매우 염려스럽던 중에 종과 주인이 만났으니, 그 사이의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二十九日。朝前雨乃止。食後與洪州宗人海柱 廈柱，上山所省拜後，下來山直家，參飲福班，而下送全州雇人。與諸宗留山直家，未知奴者之足疾如何，故心甚悶悶矣。夕時金奴裹足入來，故急問足疾，則小有差勢，繭足上來云。深慮之中，奴主相面，其間忻喜，不可容言。

■12월 1일. 아침 전에 길을 나서 치등 주막(峙登)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은진(恩津) 삼거리(三거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다음, 길을 나서 몇 리를 채 못 가서 앞에 큰 내를 만났다. 내를 건널 때에 김노가 발을 헛디터 등에 짊어졌던 짐이 반이나 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가까스로 천변으로 나와 손으로 젖은 옷을 짜서 벌에 말리고 행낭(行囊)에 있던 남은 바지로 갈아입었으니, 그간의 실상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간신히 연산(連山) 중개태(中開泰)에 이르러서 묵었다. 50리를 갔다.

十二月初吉。朝前發程，抵峙登酒幕朝飯。抵恩津三巨里中火，仍爲發行，未數里前當大川。越川之時，金奴失足，背上負卜爲水半流。艱出川邊，笊手燎衣，而換着行囊之留袴，其間實狀，不可盡詳。艱抵連山 中開泰留宿。行五十里。

■2일. 새벽에 출발하여 개태령(開泰嶺)을 넘고 선창(船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이곳은 바로 신도(新都)의 하구(下口)인데, 돌아올 때에 구경하려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지나갔던 곳이다. 진치(盡峙)와 산정령(散亭嶺)을 넘어 공주(公州)의 유성(油城) 시장 근처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오촌(鰲村)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80리를 갔다.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내리던 비는 오촌에 이르니 곧 눈이 되었으므로 지나는 길의 질퍽거리는 상황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간신히 이곳에 도착하니 다리 통증이 심했다. 봄에 여기 왔을 때에 용담(龍潭) 정재팔(丁載八)을 만났었는데, 이번 여행길에서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었다. 정 석사(丁碩士), 옥천(沃川)의 석사 금석로(琴錫老), 임천(林川)의 석사 정현석(鄭玄錫)과 함께 용운(龍雲)의 집에 머물렀다.

저녁을 먹은 뒤에 들어가 장석(丈席)을 알현하니 기후(氣候)는 일단 편안해 보였으나 숙환(宿患)의 여러 증세가 여전히 낫지를 않으니 걱정스럽다. 장석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번고가 발생하는 해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번에 다시 얼굴을 본 것이 기쁘고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대가 부탁한 글은 몸의 병 때문에 아직도 짓지 못하였으니 도리어 편치가 않네.”라고 하셨다.

初二日。曉發越開泰嶺，抵船倉朝飯，此地即新都下口也。來時欲玩之意，只爲望見而過。越盡峙 散亭嶺，抵公州 油城市邊中火，抵鰲村，日已暮矣。行八十里。去廿八九兩日雨，到此見之，則乃是雪也，行路之泥濘不可言。艱到此處，脚痛大發。春間來此時，逢龍潭 丁載八矣。今行相面可幸。與丁碩士、沃川 琴碩士 錫老、林川 鄭碩士 玄錫，同留龍雲家。夕飯後入謁丈席，氣候姑爲安寧，而宿患諸症，尚亦未瘳悶悶。見我而言曰：“如此變年，慮無所不到，今此更面，雖爲喜幸，君之所托文字，以身病尚不得製置，還爲不安云云耳。”

■3일. 다시 들어가 알현하니 며칠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기에 옷깃을 여미고서, “어찌 감히 분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격몽요결(擊蒙要訣)》을 가지고 앞으로 가서 배움을 청하였더니, 장석(丈席)

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중봉(重峯) 조선생(趙先生)²⁹⁷이 항상 《격몽요결》과 관술²⁹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가던 중이라도 만약 배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술로 불을 밝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었네. 내가 비록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 한 마디 가르침을 아끼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어 교수(教授)가 되어 은미한 말과 심오한 뜻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통하게 하셨다. 잠깐이나마 가르침을 받아도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듯한데, 더구나 오랫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어떠하겠는가. 행랑으로 나와 세 군자와 함께 머물렀다.

初三日. 更爲入謁, 則以數日留連爲可云, 斂衽而對曰: “敢不依教?” 而持擊蒙要訣, 進前講業, 則丈席曰: “昔重峯 趙先生, 常載要訣與明松而行, 雖行路之中, 若有講業之人, 燃其明松, 教之不倦, 則余雖無爲人之師, 何靳一教乎?” 仍爲教授, 微辭奧旨, 令人心神, 豁然貫通. 暫時薰陶, 如在春風中, 而況於親炙之久者乎? 出來廊底, 與三君子同留.

■4일. 행랑에 머물렀다.

初四日. 留廊底.

■5일. 몹시 추웠다. 행랑에 머물렀다. 저녁을 주인댁에서 마련해 주니 참으로 고마웠다.

初五日. 極寒. 留廊底. 夕飯自主人宅備給, 感荷良深.

■6일. 아침을 또 준비해 주니 부담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편치 않다는 뜻을 누차 말씀드렸더니 또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제군(諸君)들과 함께 사랑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297 중봉(重峯) 조선생(趙先生) : 조헌(趙憲, 1544~1592)으로,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 또는 후율(後栗)이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금산전투(鎭山戰鬪) 때 전사하였다.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에게 배웠고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저서에 《중봉집》이 있다.

298 관술 : 송진이 많이 영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로, 불이 잘 붙으므로 예전에는 여기에 불을 붙여 등불 대신 이용하였다.

나누다가, 나는 먼저 나왔다. 금 석사(琴碩士)가 밤이 깊은 뒤에 나와서 말하기를, “요청한 문자의 초고를 보여 주어서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대하던 차에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웠다.

初六日. 朝飯又備給, 不勝不安, 故以不安之意, 累次陳達, 則亦以不然之意言及耳. 夕飯後, 與諸君入去舍廊, 移時奉話, 余則先出矣. 琴碩士深夜後出來而言曰: “所請文字記草出示, 故見而來矣.” 企待之餘, 聞此喜消息, 忻幸忻幸.

■7일. 오늘 아침밥도 주인댁에서 준비해 주었다. 장석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을의 수령이 자녀 상(喪)을 당하였으니 가서 만나 보고 위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 기별은 듣지 못하였지만 마땅히 들어가 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읍내로 들어갔으나, 훈금(閹禁)²⁹⁹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사랑에 들어갔더니 문자를 내보이시면서 내게 읽어 보라고 하셨다. 이에 한차례 읽고 나자 장석의 아들 지(枝)와 흥성(欽成)에게도 읽어 보게 하셨다. 또한 한차례 읽으니 그대로 내주어서 행랑채로 가지고 왔다. 60여 일 끝에 글을 받들고 나왔으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이날 전주(全州)의 최수일(崔洙一)도 요청한 글을 개정(改正)하기 위하여 도착하였다.

初七日. 朝飯亦自主人宅備給. 丈席曰: “本倅遭其子女喪, 未可往見而致慰耶?” 余對曰: “此奇則未聞, 而當入見矣.” 食後入去邑內矣, 以閹禁之致, 不得見而爲出來. 夕飯入去舍廊, 則以文字出示, 而使余讀之爲教, 故一次讀下, 則又使其子枝·欽成讀之, 亦以一次讀下, 則仍爲出給, 故持來廊底. 六旬之餘, 奉出文字, 其喜何可言? 是日全州 崔洙一, 亦以請文改正次來到.

■8일. 석사 최수일이 객들로 번잡한 탓에 정서(正書)하지 못하고 내일 일찍 출발하겠다고 하였다. 모레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일의 형세가 급박하여 동행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299 훈금(閹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初八日. 以客煩之致, 不得正書, 明日早發云, 故約以再明日同行爲言, 則事勢急矣, 不得同行云, 可歎.

■9일. 최 석사(崔碩士)가 그대로 출발하였는데, 동행하지 못하니 너무 아쉬웠다. 아침 전에 정서(正書)하기 시작하여 아침을 먹은 뒤에 다 쓰고, 다시 《서재실기(西齋實記)》와 편차(編次)를 바로잡았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재원(齋院)의 이름은 ‘송씨세충사(宋氏世忠祠)’로 정하였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고을에 남양(南陽)의 송씨(宋氏)가 있고, 그 선대에 세충(世忠)이라는 이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립되는 점이 있어 아직까지 편액을 걸지 못했었다. 이것을 혐의스럽게 여긴다면 다시 다른 이름을 정하여 써서 주겠다고 이미 여러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답하기를, “어찌 이것을 가지고 혐의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또한 두 가지로 써서 주셨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부했던 것은 다 읽었지만 너무 급하게 섭렵했다는 탄식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매우 흠이라 하겠다.

저녁 때 대흥(大興)의 성영석(成永錫)도 왔는데, 사람 됨됨이가 신중하고 사랑할만한 데다가 나와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 기뻐다. 저녁도 주인대에서 준비해 주었다. 밥을 먹은 뒤에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을 고하였다. 장석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늙고 병들어 훗날 서로 만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테니 무척 서글프다…….” 하였다. 이에 내년 봄에 와서 뵈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더니, 장석이 “가을이 좋지만 거리가 6백여 리나 되니, 다시 만나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라고 하였다. 자못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이 있었으나 애써 하직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흡성(歙成)과도 작별 인사를 하니 또한 마음이 서글펐다. 행랑채로 나와 머물다 올시 한 수를 지어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오늘 처음 만났으나 오랜 친구 같아라
산에는 수북이 눈이 쌓이고 강물은 얼어붙었네
못 어진이들 모두 사문의 제자이니
참된 공부 실천하여 스스로 기약할 만하여라

今始相逢若故舊
山多積雪水冰時
群賢俱是斯門弟
踐履眞工自可期

初九日. 崔碩士仍爲發程, 不得同行, 大是欠事欠事. 朝前始正書, 食後畢書, 更正《西齋實記》與編次, 幸幸耳. 齋院號以宋氏世忠祠爲定, 則生所居鄉中有南陽 宋氏, 而其先世有世忠名字, 故仍爲枝梧, 尙未揭額, 以此爲嫌, 則更定他號書給之意, 曾已累此告白矣. 今日答以, “豈可以此爲嫌哉?” 亦以二件書給, 忻幸忻幸. 所業則盡讀, 而未免忙迫涉獵之歎, 欠事欠事. 夕時大興成永錫, 亦爲入來, 爲人慎重可愛, 厥亦於吾有相愛之情, 可喜. 夕飯亦以主人宅備給, 食後夜深奉話, 仍爲告別, 則丈席曰: “吾老且病矣, 日後相面稍間未易, 甚悵云云.” 故以明春進拜之意, 仰告則丈席曰: “秋則好矣, 而六百餘里之程, 更面豈可易也?” 頗有悵缺之意, 強爲拜辭, 退與欽成作別, 亦有悵意. 出來廊底, 留咏一律, 贈同苦諸人曰: “今始相逢若故舊, 山多積雪水冰時. 群賢俱是斯門弟, 踐履眞工自可期.”

■10일. 동틀 무렵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 작별하고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다. 신탄(新灘) 시장 근처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밤에 내린 눈으로 몹시 추위 고민스러운데, 유성(油城) 시장 근처에 채 못 가서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다. 간신히 유성에 도착하여 떡을 사 요기하고 눈을 맞으며 길을 나섰다. 눈발이 날려 눈앞을 막고 한기가 뺏속까지 스며들어 실로 견디기 어려웠다. 산정령(散亭嶺) 진치(盡峙)를 넘고 선창(船倉)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이 주막은 신도(新都)에 가까운 곳이다. 이번 길에는 신도에 들어가 두루 구경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산과 들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자세히 구경할 수 없었다. 이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한 멀리 바라만 보고 지나가니 매우 안타까웠다. 개태령(開泰嶺)을 넘어 간신히 연산(連山)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初十日. 平明與同苦諸人作別, 治行發程. 抵新灘市邊朝飯. 夜雪極寒悶悶, 未及油城市邊, 風雪大作. 艱到油城, 買餅療飢, 冒雪登程. 飛雪滿目, 寒氣逼骨, 實爲難堪. 越散亭嶺 盡峙, 抵船倉酒幕中火, 此幕即新都近地也. 大擬今行入新都周玩矣, 雪滿山野, 不能詳玩, 故不得入見, 亦爲望見而過, 大是欠事欠事. 越開泰嶺, 艱抵連山邑內留宿. 行八十里.

■11일. 아침을 먹고 새벽에 출발하였다. 은진(恩津) 삼거리(三巨里) 주막에 이르러 시내를 건널 때에 대석(臺石)이 얼어 있어 있는 바람에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졌는데, 물이 무릎 위까지 차올라 옷이 모두 젖어버렸다. 겨우 냇가로 나왔으나 땅도 얼어 있었다. 이런 혹한에 해도 뜨기 전에 이런 번고를 만났으니, 어찌하여 이번 길에 나와 노복으로 하여금 왕래함에 이처럼 낭패의 지경에 이르게 한단 말인가. 간신히 1리를 갔는데, 젖은 옷이 굳어가고 발이 너무 시려서 걸을 수 없기에 버선을 벗으려고 하니 손가락이 굳어 벗을 수가 없었다. 노복을 시켜 간신히 벗고 얼어버린 버선을 새 버선으로 바꾸어 신었으니, 행로의 어려운 실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시암(柿岩) 주점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요기를 하고 전주 삼례(參禮)에 이르러 묵었다. 90리를 갔다.

十一日. 仍朝飯曉發, 抵恩津三巨里酒幕後. 越川之際, 臺石凍滑, 失足立水, 水過膝上, 衣下盡濕. 才出川邊, 卽地旋凍, 當此極寒, 朝前逢此變, 如何此行使我奴主往來, 致敗至於此境耶? 艱行一里, 濕衣堅動, 脚足甚寒, 不能行步, 故欲脫襪子, 則指直不得脫. 使奴者艱脫, 凍襪換着新襪, 則行路之艱狀, 不可言. 抵柿岩酒店, 暫憩療飢, 抵全州 參禮留宿. 行九十里.

■12일. 새벽에 출발하여 용산교(龍山橋)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부내(府內)의 장영손(張永孫) 집에 도착하였다. 잠시 쉰 뒤에 서산서원(西山書院)³⁰⁰에 가서 최수일(崔洙一)을 만났다. 대개 오촌(鰲村)에서 서로 작별할 때, 내려가는 길에 찾아가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주인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에 주인을 데리고 가서 이 찰방을 만났더니, 사또(使道)가 감기에 걸린 데다 온갖 업무로 복잡하여 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두고 간 책자를 사또께 드렸더니 사또가 한 편을 다 열람하시고는, “일찍이 《장릉지(莊陵誌)》를 교정(校正)한 적이 있다.”했다고 하였다. 《서재실기(西齋實記)》를 두고 전에 남겨 둔 책자(冊子) 《서재행록(西齋行錄)》을 말함)는 가지고 나와 주인집에서 묵었다.

300 서산서원(西山書院) : 조선 인조(仁祖) 때 전주(全州)에 건립한 사우(祠宇)로, 최양(崔嶺)·최덕지(崔德之)·송영구(宋英耆)·이계맹(李繼孟)·이흥발(李興淳)·이기발(李起淳) 등을 배향하였다.

十二日. 曉發抵龍山橋朝飯, 得達府內 張永孫家. 小憩後, 往西山書院, 訪見崔洙一. 蓋鰲村相別時, 有下去路尋訪之約故也, 其忻喜何可盡言? 還來主人家, 夕飯後, 率主人往見李察訪, 則使道非但感氣, 百務多端, 不得見謁云, 而頃留冊子, 納于使道, 則使道盡覽一篇, 而曰: “曾已校正於《莊陵誌》”云矣. 留《西齋實記》, 前留冊子, 則持而出來, 主人家留宿.

■13일. 아침 전에 주인을 데리고 가서 이 찰방(李察訪)을 만나 “어떻게든 주선하여 사또[使道]를 뵈게 해 주십시오.”라고 누누이 간청을 하였다. 찰방이, “이때 마침 강등을 당하였으니 영문(營門)에 청탁하는 것이 피차가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형편상 그러할 것 같았다. 문장(文章)을 청하는 일도 훗날에 하자고 하기에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즉시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 종이를 사려고 지방(紙房)에 들어갔으나 사사로이 팔 수 없다고 하기에 그냥 나와 출발하였다. 노고암(老酒岩)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소로(小路)로 들어가 어렵게 임실(任實) 방곡(房谷) 송연규(宋延奎)의 집을 찾아가 묵었다. 50리를 갔다.

十三日. 朝前率主人往見李察訪, 而曰: “某條周旋, 入謁使道之意.” 累累懇請, 則察訪曰: “此時適當貶時, 于謁營門, 彼此如何.” 云, 勢似然矣. 請文事亦以後日爲言云云, 故待明春, 更來爲約, 卽爲出來主人家. 仍朝飯發程, 而以買紙次入紙房, 則不能私賣云, 故旋發. 抵老姑岩酒幕中火. 入小路, 艱尋任實 房谷 宋延奎家留宿. 行五十里.

■14일. 오전에 종이를 사고 즉시 출발하여 두곡(杜谷)에 이르러 묵었다. 20리를 갔다.

十四日. 午前買紙, 卽發抵杜谷留宿. 行二十里.

■15일. 밤에 눈이 내렸다. 새벽에 출발하여 임실(任實) 읍내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고개를 넘어 간신히 현동(玄洞) 송기렴(宋基濂)의 집을 찾아가으나 기렴은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 아들 전(楨)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돈학문적(遯壑文蹟)》을 보고자 하였다. 그 문적이 모두 신안서원(新安書院)³⁰¹에 있다고 하므로 신안서원(新安書院)에 이르렀다.

신실(神室)은 동서로 나누어 만들었는데, 서실(西室)은 주부자(朱夫子)의 영정(影幀)을 걸어 쌍창(雙窓)으로 여닫게 되어 있고, 동실은 돈학(遯壑) 송경원(宋慶元, 1419~1510)·신재(新齋) 한호겸(韓好謙, 1535~1579)·만회당(晩晦堂) 한필성(韓必聖, 1625~1691)·홍운정(鴻雲亭) 한명유(韓鳴愈)·거묵당(巨墨堂) 송시태(宋時態) 등 6현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신실(神室)은 새로 만들어 깨끗하였지만 서원의 사당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어진 이를 사모하는 도리가 매우 개탄스럽고 애석하였다. 참배하고 봉심(奉審)한 뒤에, 송연영(宋延英)과 한원택(韓元宅)에게 요구하여 문적(文蹟)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전주의 이 생원(李生員)이 지난번에 가지고 갔다고 하였다. 문적을 볼 수 없으니, 한탄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대로 길을 나서 대곡(大谷)의 송낙철(宋洛哲) 집에 이르러 묵었다. 20리를 갔다.

十五日。夜雪。曉發抵任實邑內朝飯，越嶺艱尋玄洞 宋基濂家，則基濂出他，不得相面，只與其子楨暫敘，欲見《遯壑文蹟》矣。其文蹟盡在新安書院云，故抵新安書院，則神室分作東西，而西室則掛朱夫子影幀，以雙窓開閉，東室則宋遯壑、韓新齋、晩晦堂、鴻雲亭、宋巨墨堂六賢妥靈之所也。神室則新創鮮明，而院貌尙未成樣，其於慕賢之道，甚爲慨惜。參謁奉審後，要宋延英及韓元宅，欲見文蹟，則全州 李生員，頃來持去云，故不得尋見，可歎耳。仍爲發程，抵大谷 宋洛哲家留宿。行二十里。

■16일. 일찍 출발하여 야당(野黨)의 송계천(宋啓天) 집에 이르렀다. 마침 신안의 석사 한용(韓溶)과 다른 두 사람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301 신안서원(新安書院)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서원으로, 1588년(선조21)에 신재(新齋) 한호겸(韓好謙)의 문하들이 스승을 위해 세웠으며, 정유재란으로 불탄 것을 1669년(현종10)에 다시 복립하였다. 처음에는 이서(李舒, 1332~1410)와 한호겸만을 봉안하였으나, 1788년(정조12)에 사림들의 결의에 따라 돈학(遯壑) 송경원(宋慶元), 만회당(晩晦堂) 한필성(韓必聖), 홍운정(鴻雲亭) 한명유(韓鳴愈), 거묵당(巨墨堂) 송시태(宋時態)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훗날 김수(金洙)·강백진(康伯珍)을 추가하여 모두 8현을 배향하였다.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사동(蛇洞)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소로(小路)로 들어가 큰 고개 하나를 넘어 어렵사리 도산(道山)의 족질인 필흥(弼興) 집을 찾아가서 묵었다. 70리를 갔다.

十六日。早發抵野塘 宋啓天家，適逢新安 韓碩士 溶與他二人暫敘。仍朝飯發程。抵蛇洞中火。入小路，越一大嶺，艱尋訪道山族姪弼興家留宿。行七十里。

■17일. 아침을 먹고 일찍 출발할 때 눈이 내렸다. 이에 눈을 맞으며 유치(狹峙)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기에 가까스로 영귀정(咏歸亭)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十七日。仍朝飯早發時雪作，仍爲冒雪，抵狹峙中火。大雪作咫尺不辨，艱抵咏歸亭留宿。行八十里。

■18일. 밤에 눈이 내렸다.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 원동(院洞)의 이상룡(李尙龍) 집에 들렀더니 주인 부자(父子)가 한사코 붙잡았지만,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 낙수(洛水)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미태정(米太亭)에 이르러 묵었다. 60리를 갔다.

十八日。夜雪。仍朝飯發程，入院洞 李尙龍氏家，則主人父子堅挽，而以行忙不得留發程。抵洛水中火，抵米太亭留宿。行六十里。

■19일. 첫닭이 울자 상인과 동행하여 서령(西嶺)에 이르니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벌교(筏橋)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사촌(社村)에 들어가 요기하였다. 용전(龍田)의 무안(茂安) 댁에 이르러 묵었다. 50리를 갔다.

十九日。鷄初鳴，與商賈同行抵西嶺，則始開東矣。抵筏橋朝飯，入社村療飢。抵龍田 茂安宅留宿。行五十里。

■20일. 아침 전에 문대씨(文大氏)와 종친들이 찾아와서 만났다.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구룡정(九龍亭)에 들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 길을 나서 과역(過驛) 시장 근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대곡(大谷)의 형님과 천노(千奴)를 만나 집안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증아(曾兒)가 순종(唇腫, 입술이

붓는 것이 아주 심하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으니 걱정스러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그길로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日. 朝前文大氏與諸宗來見. 食後發程, 入九龍亭. 暫紱後登程, 抵過驛市邊中火. 逢大谷兄主及千奴, 始聞家信, 則曾兒以唇腫大端云. 聞不勝悶慮, 仍爲同行歸家.

12월 3일 오촌 동방록

송석년 무술생 수이 여산 사람 흥양 거주
송흙영 임술생 자량 은진 사람 회덕 거주
정현석 갑인생 군범 광주 사람 임천 거주
정재팔 계해생 순거 의성 사람 용담 거주
금석로 병진생 영수 봉성 사람 옥천 거주

十二月初三日鰲村同房錄

宋錫年 戊戌 壽而 礪山人 居興陽
宋欽悅 壬戌 子良 恩津人 居懷德
鄭玄錫 甲寅 君範 光州人 居林川
丁載八 癸亥 舜舉 義城人 居龍潭
琴錫老 丙辰 永叟 鳳城人 居沃川

계미년(1823) 3월 일

癸未三月日

▪3월 21일. 길을 나설 때에 문등(門登)의 종인(宗人)이 그 족계(族契)의 돈 10냥을 신행(驢行)³⁰²으로 주고, 성리(城里)의 종인 사달(士達)이 돈 3전(三錢)을 신행으로 주었다. 윤일(允日)은 돈 1전(一錢)을 신행으로 주고, 망동(望洞)의 종인은 돈 2전(二錢)을 신행으로 주었으며, 김희서(金喜瑞)는 돈 1전(一錢)을 신행으로 주었다.

대곡(大谷) 형님, 가아(家兒)와 길을 나서 석촌(石村)의 송계석(宋啓錫)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탄포(炭浦)에 이르러 곧장 종과 말을 사교(四橋)로 보내고 나는 송창(松倉)에 가서 도감(都監) 송경렬(宋敬烈)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감이 술을 사서 주고, 또 돈 5전(五錢)을 신행으로 주었다. 저녁에 재동(齋洞)에 이르러 묵었다.

三月二十一日. 發程之際, 門登宗人以其族契錢一兩驢行, 城里宗人士達以三錢錢驢行, 允日以一錢錢驢行, 望洞宗人以二錢錢驢行, 金喜瑞以一錢錢驢行. 與大谷兄主及家兒發行, 抵石村 宋啓錫家中火. 至炭浦, 直送奴馬於四橋, 余則往松倉, 與都監 宋敬烈暫話, 沽酒以進, 又以五錢錢驢行. 暮抵齋洞留宿.

▪22일. 아침 전에 나와 사교(四橋)의 가교(柯橋) 형님 댁에서 아침을 먹은 뒤에 문중(門中)의 종친들과 유둔(油屯) 시장 근처에 갔다. 노자(路資)가 준비되지 않아서 출발을 멈추었다가 점심을 먹고 길을 나섰다. 사촌(社村)에 이르러 대곡 형님과 가아(家兒)를 돌려보냈다. 낙안(樂安) 서령(西嶺) 주막에 이르러 동향(同鄉)을 만나 동행하였는데, 안동(鴈洞)의 친구 정여환(丁汝煥)과 사교(四橋)의 족질인 필(秘) 형제, 그리고 정두화(丁斗華)이다. 함께 머물며 30리를 갔다. 해가 질 무렵에 정 진사(丁進士)도 와서 함께 머물렀다.

302) 신행(驢行): 여행하는 자에게 주는 돈과 물품을 말한다.

二十二日. 朝前出來, 四橋 柯橋兄主宅朝飯後, 與門中諸宗, 往油菴市邊. 以路資不備停行, 仍午飯發程. 至社村, 還送大谷兄主及家兒. 至樂安 西嶺酒幕, 逢同鄉同行, 則鴈洞 丁友 汝煥與四橋族姪珽兄弟及丁斗華也. 仍爲同留, 行三十里. 日落時, 丁進士亦來同留.

■23일.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미타정(彌勒亭)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길을 나설 때 낙안 형님과 용동(龍洞) 신 석사(申碩士)를 만나 낙수(洛水)까지 함께 가서 점심을 먹었다. 길을 나서 중도에서 비를 만나 옷이 다 젖어버렸으므로 길을 재촉하여 광천(廣川)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60리를 갔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한탄스럽다. 대촌(大村)의 윤보(允甫)도 와서 기다리다가 함께 묵었다. 밤새도록 비가 심하게 퍼부었다.

二十三日. 早朝發行, 至彌陀亭朝飯. 發程之際, 逢樂安兄主及龍洞 申碩士, 仍爲同至洛水中火. 發程至中路逢雨, 衣服盡濕, 促行至廣川酒幕留宿. 行六十里. 爲雨所戲, 不得前進, 可歎. 大村 允甫, 亦爲來待, 仍爲同宿. 達夜雨大注.

■24일. 아침에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에 아침을 먹고 잠시 원동(院洞)의 이상룡(李尙龍) 집에 갔다.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에 주막으로 내려왔는데, 비가 개어서 그길로 길을 떠났다. 영귀정(咏歸亭)에 들러 외종 형수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잠시 쉰 뒤에 출발하여 석곡(石谷)에 이르러 잠깐 쉬었다가 울목정(栗木亭)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60리를 갔다.

二十四日. 朝雨不止, 故仍朝飯, 暫往院洞 李尙龍氏家, 暫敘後, 下來酒幕. 雨勢開霽, 故仍爲發程, 入詠歸亭, 見外從嫂, 則景像不忍見. 暫憩後發程, 抵石谷暫憩, 抵栗木亭中火. 抵谷城邑內留宿. 行六十里.

■25일.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 순자강(蓴子江)을 건너고, 주포(周浦)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돈 1전(錢)을 주인집 사내에게 주며 《서재실기(西

齋實記)》를 도산(道山)의 송필흥(宋弼興) 집에 전해 달라고 하였다. 길을 떠나 남원읍(南原邑)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나는 먼저 향교(鄕校)로 출발하여 실기(實記) 한 권을 전한 뒤 곧바로 출발하여 전석치(磚石峙)³⁰³를 넘어 임실(任實) 야당(野塘)에 이르렀다. 동행은 먼저 주막으로 가고, 나는 송필동(宋弼東) 씨의 집에 들러 실기 한 권을 신안서원(新安書院)에 전하게 하였는데, 예조에 재록(載錄)했는지에 대해 묻기에 아직 재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서원을 세운 지가 이미 오래인데 어찌서 재록하지 않았느냐며, 신안서원(新安書院)은 작년에 실었는데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장계의 초고를 청하여 주막으로 가지고 와서 여환(汝煥)에게 베껴 오도록 하였는데, 이는 나도 예조에 소장을 올리려는 계획에서였다. 등서한 장본(狀本)은 뒤에 붙였다. 저녁을 먹은 뒤에 주막으로 나와 동행들과 함께 머물렀다. 90리를 갔다. 낮에 남원 길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천릿길 동행한 열세 사람	千里同行十有三
호남에서 북쪽 여행길 떠나 왔네	北征行色自湖南
며칠이나 걸려야 경성에 도착할꼬	間開幾日京城到
훗날 고생한 만큼 즐거움도 볼 수 있으리	可見他時苦盡甘

정 진사(丁進士)가 화답하였다.

늦봄 삼월 서쪽으로 떠나는 천릿길	西行千里暮春三
산색은 푸르르고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네	山色蒼蒼水盡南
천 자나 높은 용문 계수나무 잡은 곳에서	千尺龍門攀桂地
오늘 함께한 고초와 즐거움 떠오르리	却思今日共辛甘

303) 전석치(磚石峙) : 일명 '박석고개'로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과 사매면 대올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박석치는 비포장 시절에 고갯마루가 지표 유출에 의한 토양침식으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얇고 넓적한 돌을 깔아 놓은 데서 유래하였다.

신윤보(申允甫)가 화답하였다.

곤륜의 한 줄기 빼어난 삼각산	崑崙一脈角秀三
천지간에 정신 온통 남쪽에 있네	天地精神盡在南
천릿길 떠나온 노고 도리어 잊어버리고	千里還忘勞苦我
어사화 어주가인 듯 술동이 가득 달기만 하네	賜花御酒滿樽甘

정 진사(丁進士)가 또 읊었다.

밤새 비는 강남에 쏟아져 다리가 잠기고	夜雨江南水沒橋
푸른 회화나무 길을 막고 보리는 허리까지 잠겼네	靑槐擁路麥齊腰
이번 길 용꿈을 꾸 나그네 누구인가	此行誰是龍夢客
들새가 노래하는 것도 비웃는 것도 같구나	野鳥如歌又似嘲

내가 화답하였다.

짚신 신고 지팡이 끌며 오작교 ³⁰⁴ 를 걷노라니	竹杖芒鞋步鵲橋
잘룩한 허리의 미인들 성에 가득하네	盈城美女盡纖腰
이번 길 봄을 만끽하기 위해 온 게 아니건만	此行不是貪春客
혹여 옆 사람 비웃을까 두렵구나	或恐傍人有笑嘲

二十五日. 早朝發程, 越葦子江, 至周浦酒幕朝飯. 傳《西齋實記》於道山 宋弼興家之意, 出給錢一錢主漢. 發行抵南原邑, 乃中火秣馬. 余則先發鄉校, 傳實記一卷, 卽發越磚石峙, 抵任實 野塘. 同行則先去酒幕, 余則入宋弼東氏家, 傳實記一卷于新安書院, 問禮曹載錄, 故姑未載錄云爾, 則建院已久, 而何其不載乎? 新安書院則昨年載, 而所入不小云, 故請其狀草, 持來酒幕, 使汝煥膽書以來者, 余亦欲呈禮曹計耳【膽書狀本附後】. 夕飯後, 出來酒幕,

304) 오작교 : 원문의 '작교(鵲橋)'는 남원 광한루(廣寒樓)에 있는 오작교(烏鵲橋)를 말한다.

與同行同留. 行九十里. 午間南原路上, 咏一律曰: “千里同行十有三, 北征行色自湖南. 間關幾日京城到, 可見他時苦盡甘.” 丁進士和曰: “西行千里暮春三, 山色蒼蒼水盡南. 千尺龍門攀桂地, 却思今日共辛甘.” 申允甫和曰: “崑崙一脈角秀三, 天地精神盡在南. 千里還忘勞苦我, 賜花御酒滿樽甘.” 丁進士又號曰: “崑崙一脈角秀三, 天地精神盡在南. 千里還忘勞苦我, 賜花御酒滿樽甘.” 余和曰: “竹杖芒鞋步鵲橋, 盈城美女盡纖腰. 此行不是貪春客, 或恐傍人有笑嘲.”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향교에 가서 교임(校任)³⁰⁵ 송상혁(宋象赫)을 만나 실기(實記) 한 권을 전한 뒤, 예조에 소장을 올리고 명첩(名帖)을 얻는 일에 대해 논의하니 답하기를, “소장을 먼저 본관(本官)에 올리고, 다음은 감영(監營)에 올리며, 다음은 예조(禮曹)에 올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도유(道儒)의 이름을 얻은 뒤에 영문(營門)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훗날 영문에 올릴 때 명서장(名書狀)과 인교도서(印校圖書)를 얻어 교복(校僕, 향교의 종)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주인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일의 형세가 그러할 듯하므로 동행과 상의하여 이러한 뜻으로 문중에 보낼 서간과 가신(家信)을 써서 영주인 편에 부쳤다. 점심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삼례(參禮)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二十七日. 朝飯後, 往鄉校見校任 宋象赫, 傳實記一卷, 論其呈曹得名帖事, 則答曰: “呈本官, 呈營門, 呈禮曹云云.” 故今得道儒名後, 呈營門何如, 則他日呈營時, 得名書狀印校圖書, 使校僕呈出爲可而不許, 故還來主人家, 思之則事勢似然, 故與同行相議, 以此意書送書簡於門中, 及家信於營主人便. 午飯後發程, 抵參禮留宿. 行三十里.

▪28일. 일찍 출발하여 능측(陵側)³⁰⁶에서 아침을 먹었다. 여산(礪山) 읍내에

305) 교임(校任) : 조선 시대, 향교를 운영하고 교생들을 교육하는 향교의 직원을 이르던 말이다.

306) 능측 : 삼례와 여산의 중간 지점인 것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 능은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백제시대 무덤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으로 보인다. 이 능은 마한(馬韓)의 무강왕(武康王)과 그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며, 백제 무왕(武王)과 선화비(善花妃)의 능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이르러 동행과 작별하고, 홀로 심천(深川) 야촌(野村)의 동종(同宗) 함(涵) 집에 가서 실기 한 권을 전한 다음, 점심을 먹고 나와 장승등(長承登) 주막에서 말편자를 박았다. 날이 아직 이른데 그 다음으로 임실(任實) 야당(野塘)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동종(同宗) 연영(延英)과 동행하여 오촌(鰲村)에 들어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종일토록 머물러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으니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50리를 갔다.

二十八日. 早發至陵側朝飯, 抵礪山邑內, 與同行作別, 獨入深川 野村同宗涵家, 傳實記一卷, 仍午飯出來, 長承登酒幕插馬鐵, 日尙早矣, 而次入任實 野塘, 卽同宗延英約爲同行入鰲村故也. 終日留待, 而終不來到, 悶悶. 行五十里.

■29일. 임실(任實) 종인(宗人)이 끝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출발하여 은진(恩津)의 기촌(機村)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연산읍(連山邑) 상개태(上開泰) 주막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주막 문밖을 나서자마자 마침 한 소년을 만났는데, 살고 있는 곳을 물었더니 회덕(懷德) 죽림(竹林)에 사는 익환(益煥) 송치응(宋致應)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야기를 나누며 개태령(開泰嶺) 윗주막을 넘어 대추와 떡을 사서 먹고, 두거리(豆巨里) 저잣거리(藥酒)에 이르러 약주(藥酒)를 사서 마셨다. 송 석사(碩士)는 일이 있어 시장 인근에서 조금 뒤처지고 나 홀로 가다가 저녁에 공주(公州) 유성(油城) 시장 근처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100리를 갔다. 밤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유성의 객점에 홀로 머물러 있자니	獨宿油城店
마음을 끝내 진정시킬 수가 없구나	心懷竟未收
어찌하여 밤 깊도록 비는 내리는지	如何深夜雨
객지살이 나의 근심 더해만 가네	添我客中愁

밤새 비가 내려 흐릿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가 그치지 않았다.³⁰⁷⁾

307) 밤새……않았다 : 내용상 29일의 기록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의 기록으로 보인다.

二十九日. 任實宗人, 終不來到, 故不得已早發, 至恩津 機村酒幕朝飯. 抵連山邑上開泰酒幕, 秣馬中火. 纔出幕們外, 適逢一少年, 問其所居, 則懷德 竹林居宋益煥 致應也. 仍爲談話, 越開泰嶺上酒幕, 賣棗餅相喫, 抵豆巨里市邊, 賣藥酒相飲. 宋碩士有事市邊落後, 余則獨行, 暮抵公州 油城市邊酒幕留宿. 行百里. 夜吟一絕曰: “獨宿油城店, 心懷竟未收. 如何深夜雨, 添我客中愁.” 夜雨晦晦, 朝起視之, 雨不止.

■30일. 아침을 먹은 뒤에 빗줄기가 약간 누그러졌기에 길을 나서 정오에 오촌(鰲村)으로 들어갔다. 장석(丈席)을 들어가 뵈고 그 내부인(內夫人)의 상(喪)을 위로한 뒤 물러나 상제(喪制)³⁰⁸⁾에게도 또한 위로하였다. 장석(丈席)의 건강이 근래에 더욱 악화되어 몇 년 사이에 모습이 더욱 쇠약해지니 걱정스러웠다.

잠시 쉬고 나서 행랑으로 나와 점심을 먹은 뒤에 실기(實記) 한 권과 가지고 온 약간의 물건을 드렸다. 장석(丈席)이 먼저 세충사(世忠祠)³⁰⁹⁾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지난번 흥양(興陽)의 송원(宋鏞)이 왔을 때 한 말이 있었는데, 육(六)자를 세자(世字)로 고치라는 뜻의 편지였다고 하였다. 내가 “출발하기 며칠 전에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라고 답하자 장석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육충사(六忠祠)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교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대로 묵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임실(任實) 종인 두 사람도 왔다. 행랑에 한 객이 머물고 있기에 거주하는 곳을 물었더니 같은 도에 사는 광양(光陽)의 박정일(朴槿一)이라 하였다. 그를 만난 반가움은 다른 사람을 만난 반가움과 달리 더욱

308) 상제(喪制) :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 상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09) 세충사(世忠祠) :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여산송씨 송간(宋侃)을 주벽으로 송대립(宋大立), 송심(宋謹), 김시습(金時習) 등 11위를 향사하는 사우(祠宇)인 서동사(西洞祠)의 이전 명칭으로, 1785년 최초 건립 당시 윤곡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이후 1796년 송간의 유거지인 동강면 마륜리 서대동에 윤곡사 강당을 옮겨 세충사로 개칭하였으며, 1801년(순조1) 송건, 송순례, 송희립을 추배하여 일문 육충사(一門 六忠祠)라 이름하였다. 이후 1833년 세충사, 1846년(헌종12)에 매월당 김시습을 함께 봉안하면서 서동사로 칭하였고, 1868년 서원철폐령 때 훼손되었다가 1956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지으면서 재동서원(齋洞書院)이라 하였다.

갔다. 그대로 함께 머물렀다. 30리를 갔다.

晦日. 食後雨勢稍歇, 故發程午時入鰲村, 入謁丈席, 致慰其內夫人喪, 退與喪人亦致慰, 丈席氣候近以添重, 數年之間, 衰象漸甚悶悶. 暫憩後, 出來廊底, 午飯後, 入納實記一卷與持來略干物. 丈席先言以世忠祠之事, 頃者興陽 宋鏞來到, 有云云說話, 以六字改世字之意折簡矣, 故余答曰: “臨發前數日奉覽矣.” 丈席曰: “與人相話, 不可以六忠祠爲可”云, 故答曰: “依教施行矣.” 仍爲留宿. 夕飯後, 任實宗二人亦來. 廊底留一客, 故問其所居, 則乃同道光陽 朴楨一也. 其喜與他有別, 幸幸. 仍爲同留. 行三十里.

■4월 1일. 아침에 비가 오다가 저녁 무렵에 개었다. 해주(海州)에서 이 마을로 와서 살고 있는 박치환(朴致煥)은 전에 왔을 때에 서로 어긋나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길에 다행히도 만나게 되니 매우 기뻐다. 박 석사도 나를 보고 정성껏 맞이해 주니 또한 매우 다행스러웠다.

지난달 소상(小祥) 때에 약간의 회원(會員)이 문회계(文會契)를 약속하였다고 하므로 나도 계안(契案)에 이름을 넣어 돈 1냥을 납부하고 계안좌목(契案座目)을 베껴 왔다.-계안(契案)은 뒤에 붙였다.-

장석(丈席)은 자운동(紫雲洞)에 행차하셨기에 임실 동종(同宗)과 그대로 하직하였다. 성동(性洞)에 보낼 책자는 상주(喪主)에게 부탁하고, 이어 출발하여 다박동천(多朴洞川)을 건넜다. 마포(麻浦)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연기(燕岐)의 삼가(三嘉)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40리를 갔다.

四月初吉. 朝雨晚晴. 自海州來寓此村朴致煥, 前來時相違未見矣. 今行幸爲相見, 幸幸. 朴碩士亦見我款待, 亦爲幸幸. 去月小祥時, 略干會員約爲文會契云, 故余亦添名於契案, 納錢一兩, 契案座目謄來【契案附後】. 丈席行次紫雲洞, 故與任實同宗, 仍爲下直. 性洞所去冊子, 付託於喪主, 仍發程抵多朴洞川越涉, 至麻浦酒幕, 中火秣馬. 抵燕岐 三嘉酒幕留宿. 行四十里.

■2일. 일찍 출발하여 미정지천(尾亭地川)에 이르렀다. 내를 건너 청주(淸州)의朝天원(朝天院)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전의(全義) 읍내 시장

근처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덕평(德平)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천안 신은(新恩)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90리를 갔다.

初二日. 早發至尾亭地川越川, 抵淸州 朝天院酒幕朝飯. 至全義邑內市邊暫憩, 抵德平酒幕, 中火秣馬. 天安 新恩酒幕留宿. 行九十里.

■3일. 일찍 출발하여 직산(稷山) 삼거리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소사(素沙) 주막³¹⁰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주막에 들어갈 때 보성(寶城)의 정영각(鄭永穀)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막으로 들어갔는데, 점심을 먹고 길을 나섰을 때 도중에 다시 만났다. 그길로 동행하여 수원(水原) 오산(烏山) 시장 근처에 이르러서 묵었다. 100리를 갔다. 어제 신은(新恩) 주막에 머물고 있을 때, 말을 탄 두 명의 길손과 함께 위아래 방에 머물렀는데, 오늘도 동행하여 위아래 방에 머물렀다.

初三日. 早發至稷山三街酒幕朝飯. 抵素沙酒幕, 中火秣馬. 入幕之際, 逢寶城 鄭永穀, 暫話入幕, 中火後發程, 中路更逢. 仍爲同行, 抵水原 烏山市邊留宿. 行百里. 昨日留新恩酒幕時, 與馬上二客, 留上下房, 亦爲同行, 留上下房.

■4일. 일찍 출발하여 이천(泥川) 중저(中底) 주막에 이르러 임실의 한용(韓瑢)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을 먹었다. 화성읍(華城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갈산(葛山) 어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르기에 돌아보니 바로 남원(南原)의 현대(顯大) 이문욱(李文旭)이었다. 이어 말에서 내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욱에게 말을 타게 했다. 과천(果川) 읍내에 이르러 잠시 쉬다가 남태령(南泰嶺)³¹¹ 아래에 이르러 당동(唐洞) 신준(申俊) 종형제를 만났는데,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고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다. 잠시 이야기를

310) 소사(素沙) 주막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소사마을에 있었던 객점이다.

311) 남태령(南泰嶺) : 서울에서 과천을 지나 수원으로 가던 길로서 삼남대로의 첫 번째 큰 고개이다.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은 호현(狐峴, 여우재)이다. 정조대왕이 사도세자 묘를 참배하러 가는 도중에 이 고개 이름을 물었을 때 ‘여우고개’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못했는데, 과천 아전이 ‘남태령’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남태령’으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나누다가 피차의 갈 길이 바쁘기에 집에 편지를 써서 보내지는 못하고, 단지 무사히 올라왔다는 소식만 말로 전하고 서로 헤어졌다.

고개를 넘을 때 동행하는 마상객(馬上客)에게 살고 있는 곳과 성명을 물었더니, 한 사람은 충청도 문의(文義)³¹²의 덕지(德地)에 사는 범석(範錫) 오성홍(吳聖洪)이며, 또 한 사람은 금구(金溝) 백일(白日)에 사는 위팔(渭八) 강원달(姜元達)이라 하였다. 이에 통성명을 하고 보니 오 석사도 오촌(鰲村)으로 들어가는 집안사람이었다. 나중에 서로 찾아가기로 약속하고서 그대로 동행하였다. 승방(僧房) 주막에 이르러 임실(任實) 동행과 두 길손은 뒤쳐지고, 나는 길을 재촉하여 나루터에 이르러 즉시 나루를 건넜다.

저녁에 청파(靑坡)의 박영대(朴永大) 집에 이르니 낙안 형님이 오늘 오전에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무사히 올라왔으니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웠다. 주인 내외(內外) 모두 별 탈이 없고, 동향(同鄉)에서 함께 온 이들도 별 탈 없이 올라와 성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즉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대로 묵었다. 110리를 갔다. 밤에 비가 내렸다. 初四日. 早發抵泥川 中底酒幕, 逢任實 韓瑢, 暫話朝飯. 抵華城邑中火. 抵葛山前, 有一人呼之故顧見, 則乃南原 李顯大 文旭也, 仍爲下馬暫話, 使文旭騎馬, 至果川邑內暫憩, 至南泰嶺下, 逢唐洞 申俊從兄弟, 以落榜學子下鄉人也. 暫話彼此行色忙迫, 故不得付書於家中, 只以無事上來之意, 口傳相分. 越嶺之際, 與同行以馬上客, 問其所居與姓名, 則一則忠淸道 文義 德地居吳範錫聖洪也, 一則金溝 白日居姜渭八 元達也. 仍爲通姓名, 吳碩士亦爲入鰲村門庭之人也. 有後日相訪之約, 仍爲同行. 抵僧房酒幕, 任實同行與二客落後, 余則促行抵津頭, 卽爲越津. 暮抵靑坡 朴永大家, 則樂安兄主, 今日午前先爲入來留待矣. 亦爲無事上來, 幸幸. 主人內外俱無故, 同鄉同行, 亦爲無故上來, 入去城內云, 不卽相面, 可歎耳. 仍爲留宿. 行百十里. 夜雨.

■ 5일. 비가 내렸다. 종일토록 비가 그치지 않으니 출입할 수가 없어 주인집에서 누워 있었다.

312) 문의(文義)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구 청원군 문의면) 지역의 옛 지명이다.

初五日. 雨. 終日不止, 不得出入, 臥主人家.

■ 6일. 오후에 임실의 여해(汝梅)와 종인(宗人) 연영(延英)이 찾아왔기에 예조에 소장 올리는 일을 부탁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들어가는 바가 없지 않으니 미리 변통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낙안(樂安) 형님과 차동(車洞)³¹³의 민치항(閔致恒) 집에 가서 그 형제와 잠시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는 실기(實紀) 한 권을 주었다. 이어 서소문(西小門) 밖 이희(李堉)의 집으로 갔더니, 기쁘게 맞이하고 정성스레 대접하여 옛일을 회상하며 상심하는 기운이 많이 있었는데, 주인이나 객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잠시 회포를 푼 뒤에 참봉(參奉) 우종렴(禹宗濂) 집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申)과 박(朴) 두 벗은 모두 별 탈이 없었다. 그길로 정 진사(丁進士)가 머물고 있는 사관(舍館)으로 갔더니, 동행했던 이들 모두 아무 병 없이 올라왔고 서울에 들어온 뒤로 처음 만나니 그 기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잠시 쉬 뒤에 남대문 안 경주인(京主人) 집에 가서 김계한(金啓漢)·김이준(金履俊) 부자를 찾아가 만났다. 또한 서울에 들어온 뒤에 처음 본 것이다. 잠시 쉬 뒤에 그대로 약고개[藥峴]의 송 오위장(宋五衛將, 송인서(宋璘瑞))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격조했던 끝에 보는 것이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저물녘에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初六日. 午後任實 汝梅與宗延英來訪, 故托以呈禮曹之事, 則答曰: “不無所入, 而預爲變通而去.” 與樂安兄主, 往車洞 閔致恒家, 與其兄弟, 暫敘阻懷, 仍給實紀一卷. 仍往西小門外李堉家, 則忻迎款待, 多有感古傷心之氣, 主客一般. 暫敘後, 往禹參奉 宗濂家暫敘, 而申、朴兩友皆無故. 仍往丁進士舍館, 則同行皆無病上來, 而入京後初面也, 其喜可斗. 暫憩後, 往南大門內京主人家, 訪見金啓漢、金履俊父子, 亦爲入京後初見也. 暫憩後, 仍往藥峴 宋五衛將家暫敘, 累年久阻之餘, 其喜可言. 暫敘後, 乘暮出來主人家.

313) 차동(車洞) :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1가·순화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수렛골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추모동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태어난 터에 비석을 세우고 그를 추모했던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7일. 아침 전에 박종수(朴宗洙)가 와서 만나고 갔다. 오위장(五衛將)과 가교(柯橋)의 장우한(張羽漢)이 찾아왔기에 두 벗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장우한은 무과(武科) 초시(初試)에 참여하였으나 회시(會試)를 보러 갈 방도가 없어서 나를 보고 말을 청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내어 주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낙안(樂安)의 형님과 서소문(西小門)의 이 석사(李碩士) 집에 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안채에서 전하는 말에, 옛날을 생각해 보노라니 슬픈 마음을 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주인과 서소문(西小門) 안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정 진사(丁進士)의 사관(舍館)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주인집에 돌아왔다.

初七日. 朝前朴宗洙來見而去. 五衛將與柯橋 張羽漢來見, 兩友仍朝飯. 張也參武科初試, 而見會試之道無路, 故見我請馬匹, 故不得已許給. 食後與樂安兄主, 往西小門 李碩士家暫憩, 自內間有傳語, 推念疇昔, 不勝悲懷. 與主人入西小門內酒家, 沽酒以飲, 往丁進士舍館暫憩, 午後出來主人家.

■8일. 아침 전에 임실 종인(宗人) 연영(延英)이 찾아왔는데, 기쁜 나머지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천 리 먼 길에서 백대의 친척 만나	千里相逢百代親
처음 만나 기쁜 마음은 천륜에서 나온 것이리	逢初心喜自天倫
더구나 또 이번 길에 고락을 함께하니	況又今行同甘苦
그 누가 우리 세 사람의 깊은 정 만하랴	深情其孰我三人

남원(南原)의 문욱(文旭)도 찾아왔다. 이에 아침을 먹고 나서 문욱은 용산(龍山)으로 가고, 나는 낙안 형님, 임실(任實) 종인(宗人)과 묘동(廟洞)에 임실(任實) 사관(舍館)에 갔다. 한용(韓溶)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한우(韓友)와 진사 오우상(吳羽常) 집에 가서 예조에 소장 올릴 일을 논의하였는데, 실기(實記) 제장(製狀)을 보겠다고 하여 실기(實記) 한 권을 그의 집에 남겨 두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남계(南溪) 정민채(丁敏采)의 안부(安否)를 물었더니, 서간(書簡)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 오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였다. 내일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 답하기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출발하여 신 승지(愼承旨)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종묘동(宗廟洞)의 조 지사(趙知事) 집에 갔다. 보성(寶城)의 종인(宗人) 귀환(龜煥)을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형 두환(斗煥)이 어제 도성에 들어왔다고 하기에 곧바로 만나 예조에 올리는 일을 말하였더니 그도 좋다고 하였다. 나는,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다는데 빚을 얻을 길이 없으니 여기에서 만약 주선할 방도가 있으면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길로 성균관으로 가서 관인을 찍은 다음 날이 저물어서야 주인집에 돌아오니 오위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인수(朴寅洙)도 와서 함께 묵었다.

初八日. 朝前任實宗人延英來見, 忻喜之餘, 吟一絕曰: “千里相逢百代親, 逢初心喜自天倫. 況又今行同甘苦, 深情其孰我三人.” 南原 文旭亦來. 仍朝飯, 文旭往龍山, 余則與樂安兄主及任實宗人, 往廟洞 任實舍館. 與韓溶暫話後, 與韓友往吳進士 羽常家, 論其呈禮曹事. 見實記製狀之意, 置實記一卷於其家, 暫話後, 問南溪 丁敏采安否, 故書簡持來, 而自他處來到, 故未袖而來, 則明日袖, 而更來如何. 答曰: “明日更來而出.” 卽發入愼承旨家, 暫話後, 往宗廟洞 趙知事家. 訪寶城宗人龜煥暫敘, 則其兄斗煥, 昨日入城云, 故卽爲相面, 說及呈禮曹事, 則亦曰好矣. 余曰: “所入不小, 而得債之道無路, 自此若有周旋之道, 則變通爲可.” 仍往成均館打印, 乘暮還主人家, 則五衛將來待矣. 朴寅洙亦來同宿.

■9일. 아침을 먹은 뒤에 정 진사(丁進士)의 사관(舍館)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구리개동(九里介洞)의 박영수(朴永壽) 집에 갔다. 문욱(文旭)과 과장(科場)에 함께 들어가기로 약속한 뒤에 종묘동(宗廟洞)에 가서 구환(龜煥) 형제를 방문하였으나 출타하여 만나지 못했다. 오는 길에 구례(求禮)의 이지문(李志文)을 만나 빚 얻을 방도를 의논하였는데, 물어볼 만한 곳이 없다 하니 장차 어찌 한단 말인가. 해 진 뒤에 다시 오겠다 말하고 헤어졌다. 성균관 앞에 가서 문욱을 만나 함께 관주인(館主人)인 이쾌철(李快哲) 집에

들어갔다. 신시(申時)에 문을 열기 때문에 저녁을 먹은 뒤에 과장에 들어갔다. 문육의 동접(同接)³¹⁴과 정 진사(丁進士)의 동접(同接)을 찾아갔는데,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 초저녁 때에 동접들마다 등을 걸었다. 춘당대(春塘臺)의 백포장(白布帳) 안에 한 조각의 공지(空地)도 없이 등을 달고 등불을 밝힌 것이 끝이 없어 하나의 큰 장관이었다. 과거를 보는 유생의 모임은 전후로 처음인데, 경신년에 비해 더 많다고 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문육과 함께 월근문(月觀門)으로 나와 이쾌철(李快哲) 집에 머물렀는데,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이 많이 모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初九日. 食後往丁進士舍館, 暫憩後, 往九里介洞 朴永壽家. 與文旭同入場中之意相約後, 往宗廟洞, 訪龜煥兄弟, 則出他不得相見. 路逢求禮 李志文, 議得債之路, 則無問處, 此將奈何. 斜後更來爲言, 而相分往成均館前, 逢文旭同入館主人李快哲家. 申時開門, 故夕飯後入場中, 推尋文旭接與丁進士接, 則相去不遠也. 初昏時, 各接懸燈, 春塘臺白布帳內, 無一片空地, 懸燈觀燈無恨, 一大壯觀也. 科儒之會, 前後初度云矣, 比庚申年尤多云. 深夜後, 與文旭同爲出來月觀門, 留李快哲家, 而科儒多會, 不得就睡.

▪10일. 바로 정시(庭試)를 보는 날이다. 닭이 울 때 아침을 먹고 동접(同接)들과 월근문(月觀門)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동이 트자 전좌(殿座)³¹⁵하는 곳과 과장(科場)을 설치한 길을 바라보니, 모두 백포장(白布帳)으로 둘러놓았다. 처음에는 왕이 친림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옥련(玉輦) 임금의 수레만 나왔는데 군병과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은 왕이 거동할 때와 다름이 없으니 평생에 한번 보는 장관(壯觀)이었다.

묘시(卯時)에 출제(出題)하였으니, 바로 ‘흠명문사안안(欽明文思安安)’³¹⁶

314) 동접(同接) : 과거 응시를 앞두고 선비들이 한곳에 모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동아리 또는 그 구성원을 이른다.

315) 전좌(殿座) : 과거를 시행하거나 하례(賀禮)를 받는 것처럼 공식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이 그곳에 마련된 어좌(御座)에 나와 앉는 것을 말한다.

316) 흠명문사안안(欽明文思安安) : 《서경》〈우서(虞書) 요전(堯典)〉에 나오는 말로, 요 임금의 덕을 찬양하면서 “공경하고 밝고 빛나고 사려가 깊은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왔다.[欽明文思安安]”라고 하였다. 일부러 힘쓰지 않아도 그 덕성(德性)의 아름다움이 다 자연스러운 속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이었다. 문육 동접들과 이어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납번(納番, 답안지 제출)할 때에 혹 선비들이 밟혀 죽을까 하는 근심이 있어 마음이 몹시 두려웠다. 나 또한 납번하는 차례에 직접 들고 갔으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함께 온 동접 중에 소년을 시켜 납번하게 하였다. 낙안(樂安) 형님의 정초(正草)는 내가 가서 제출했는데, 그때에는 조금 덜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주인집으로 와서 잠시 쉬 뒤에 문육을 기다리는데 끝내 나오지 않으므로 먼저 나와 정 진사(丁進士)의 주인집으로 가서 잠시 쉬다가 경주인 집으로 돌아왔다. 김계한(金啓漢)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두 모레 출발하겠다고 말하였다.

初十日. 卽庭試日也. 鷄鳴時仍朝飯, 與同接入月觀門. 良久開東, 望見殿座處與設場之道, 則皆以周設, 而初有親臨之言矣. 未乃只出玉輦, 而軍兵與旗幟槍劍, 無異舉動時也, 平生一壯觀也. 卯時出題, 卽‘欽明文思安安’. 與文旭同接, 仍爲構草, 而納番之時, 或有士子踏死之患, 心甚悚然. 余亦納番次躬往矣, 不得前進, 來接中使少年納番. 樂安兄主正草, 則余往納之, 其時則稍歇故也. 卽爲出來主人家, 暫憩後待文旭, 則終不出來, 故先爲出來丁進士主人暫憩, 來入京主人家. 與金啓漢暫話, 而同鄉之人, 皆以再明日發程爲言耳.

▪11일. 이른 아침에 정 진사(丁進士)의 사관(舍館)에 갔다. 박종수(朴宗壽)와 삼청동(三清洞)에 가서 판서(判書) 이헌기(李憲綺)³¹⁷를 들어가 뵈었다. 먼저 한포재(寒圃齋)³¹⁸ 선생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대해 말을 꺼내니, “본손(本孫)이 선조(先祖)의 서원 건립을 주선하는 것은 매우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다음에 말한 우리 선조의 사액(賜額)을 청한 일은 대사(大事)가 속히 이루어져 갑자기 쉽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이번 길에

317) 이헌기(李憲綺) : 1774~1824.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822년 대사헌, 예조판서·수원부유수·우참찬·장례원제조를 지냈다.

318) 한포재(寒圃齋) : 이건명(李健命, 1663~1722)의 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강(仲剛)이다. 좌의정을 지냈으며, 1721(경종1)에 왕세제 책봉을 주청하여 실현하였으나, 신임사화 때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 시문과 소차(疏劄)를 모은 《한포재집(寒圃齋集)》 10권이 전한다.

예조에 올려 재록하려는데, 부족한 것은 대감(大監)이 예조 판서로 있을 때 일을 하는 것이 구차하지 않고, 이번에는 구차한 계책이 많이 있다 하니 답하기를, “아무 때에 재록(載錄)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이는 사액(賜額)을 청하는 계제(階梯)이니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아래 사랑(舍廊)으로 가서 그의 아우 한림(翰林) 헌위(憲緯)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재동(齋洞)의 임실(任實) 종인(宗人) 주인집에 들러 예조에 소장 올리는 일을 논의하였는데, “소장을 써 줄 사람이 없어서 애초에 성사가 안됐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급히 묘동(廟洞)의 귀환(龜煥) 주인집에 가서 상의하였는데 또한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아무쪼록 상의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반드시 소장을 얻어야 일이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흘러 듣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온 힘을 다해 이 석사에게 주선하는 방도에 대해 누누이 부탁하려고 하였으나, 이 석사가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저물녘에 경주인(京主人) 집에 가서 경주인과 상의해 보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오늘 내일 사이에 곧장 강문명(姜文明)을 찾아가 2백여 냥의 돈을 받아 올라오는 길에 그 중 50냥을 떼어 쓰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나머지 액수는 경주인의 이름으로 보증하여 일을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에 급히 재동(齋洞)으로 가서 여해(汝海)와 상의하였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저녁에 경주인 집으로 돌아왔다. 일이 급박하게 되었는데 끝내 변통할 방도가 없으니,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동행과 그대로 주인집에 머물렀다.

十一日。早朝往丁進士舍館。與朴宗壽，往三清洞，入謁李判書 憲綺。先言寒圃齋先生建院事，則答曰：“以本孫其先祖建院，周旋極未安。”次言生之先祖請額事，則大事速成，猝難不易云，故今行呈禮曹載錄，而所欠者，大監禮判時做事，則不爲苟且，今番多有苟且之計，則答曰：“某時載錄，亦可幸矣，此則請額之陞梯也，幸幸。”云矣。往下舍廊，其弟翰林 憲緯暫敘。來路入齋洞 任實宗人主人家，論其呈禮曹事，無入手之地，則初不成事云，故急往廟洞 龜煥主人家相議，亦爲悶慮云，“約以某條相議，必得狀後事可成，幸勿泛聽。”與李碩士，極力周旋之道，累累言托，李碩士出他不見。乘暮來京主人家，與京主人相議，則亦無奈何，而今明間，直訪姜文明，持二百餘兩錢，上來之道，厥錢中五十兩，推用爲可云云，餘數則以京主人名爲證處事云云。

故急往齋洞，與汝海相議，則不然云，故乘暮還京主人家。事成急迫，而終無變通之道，此將奈何？與同行仍留主人家。

▪12일. 돈 문제가 급하므로 일찍 일어나 서둘러 묘동(廟洞)으로 찾아가서 공서(公瑞)와 상의하였더니, 말하기를, “구례(求禮) 이 석사(李碩士)와 상의해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지하여 불러 와 상세히 의논하였더니, 조금은 도모할 만한 형편이 되어 매우 다행이었다. 내일은 바로 선고의 기일인데, 집안에서 과연 별 탈이 없이 제사를 잘 지내런지 모르겠다.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워 묘동(廟洞)에서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동향(同鄉)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머물렀다.

十二日。早起以錢事之急，促尋往廟洞，與公瑞相議，則云“以與求禮 李碩士相議”云，故通奇請來詳議，則稍有可圖之勢，幸幸。明日即先考諱日，而未知家中其果無故安行祀事耶。心懷難抑，自廟洞還來主人家，與同鄉諸益同留。

▪13일. 일찍 일어나 동향(同鄉)의 여러 친구들과 작별하였다. 올 때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내려갔지만 나는 예조에 소장 올리는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실로 난감하였다. 오늘이 비록 삼일제(三日製)이나 돈 문제가 판가름 나지 않아서 과장에 출입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급히 재동(齋洞)³¹⁹으로 갔더니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이미 과장에 들어갔다. 이에 급히 묘동으로 갔으나 공서(公瑞)도 과장에 들어가 상의할 수 없으니 답답하고 걱정스러웠다.

삼청동(三清洞)³²⁰의 이 판서(李判書, 이헌기(李憲綺))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흥양(興陽) 장보(章甫,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서원 건립하는 일의 전후 사적(事蹟)을 보고 싶다고 청하니 한번 보여 드리겠다 하고서 이에 책자를 드렸다.

319) 재동(齋洞) :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명칭은 계유정난에서 유래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때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자, 이곳을 재로 덮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곳은 잣골로 불렸고, 잣골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재동이다.

320) 삼청동(三清洞)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던 마을로, 도교의 뿌리로 도교 신인 태청(太淸)·상청(上淸)·옥청(玉淸)의 삼청성신(三清星辰)을 모신 삼청전(三清殿)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한참 뒤에 어디에서 온 음식을 나에게 나눠 먹자기에, 감히 먹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퇴상(退床)을 보내온 것이라 하여 배불리 먹었다. 음식은 모두 여행하면서는 보지 못한 것들이었으므로 매우 감사하였다. 한참 있다가 대감이 취하였으므로 나와서 다시 재동으로 가니 과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공서(公瑞)와 함께 이 석사(李碩士)를 뵈고 상의하였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재동(齋洞)으로 돌아왔다.

여해(汝海)와 예조에 소장을 올려 받은 제사(題辭)³²¹⁾를 즉시 예조 장방(長房)³²²⁾에 들어가서 재록(載錄)하려 했으나, 서리(書吏) 배광옥(裴光玉)이 밖에 나가 부재중이어서 재록하지 못하고 도로 주인집으로 와서 머물렀다. 十三日. 早起與同鄉諸益作別, 來時同行, 皆爲下去, 而余則以呈禮曹之事, 不得同行, 心懷實爲難堪. 今日雖三日製, 而以錢事之不得辦, 出入場中, 可歎. 急往齋洞, 則欲見之人, 已爲入場, 故急往廟洞, 則公瑞亦爲入場, 不得相議, 悶悶. 往三清洞 李判書家, 暫話後, 請其興陽 章甫, 以建院事前後事蹟欲見, 則答以一覽爲言, 故仍納冊子. 移時有自何來飲食, 使余分食, 而以不敢之意言及, 則饋以退床故飽食. 飲食皆以在行時, 不見之物也, 多感多感. 移時大監醉睡, 故仍爲出來, 更往齋洞, 入場之人皆出來. 與公瑞請李碩士相議, 明日更來爲言, 故還來齋洞. 與汝海呈禮曹得題, 卽爲入去禮曹 長房載錄, 則書吏 裴光玉出外不在, 故不得載錄, 還來主人家留.

■14일. 아침을 먹기 전에 신정(新亭)의 복금(卜金)을 데리고 묘동(廟洞)으로 갔다. 돈 한 냥을 가지고 한용(韓溶), 야당(野塘)의 종인(宗人) 연영(延英)과 장방(長房)에 들어가 재록(載錄)하려는데, 《전라도원록(全羅道院錄)》은 규장각(奎章閣)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현(六賢)의 사적(事蹟)을 기록해 두었다가 후일 착실하게 써서 들이라는 뜻으로 누누이 부탁의 말을 하였으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321) 제사(題辭) : 조선 시대에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의 좌편 하단 여백에 관에서 써 주는 판결문 또는 처결문을 말한다. 주로 관찰사나 순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에 내리는 판결문을 말하며, 수령에게 올린 민원서에 쓴 처분(處分)은 '제김[題音]'이라고 한다.

322) 장방(長房) : 서리(胥吏)들이 집무하거나 거처하는 방, 또는 서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주인집으로 나와서 약간의 물품과 실기(實記)를 가지고 주인과 예조에 가서 안 동지(安同知)의 아들 인성(寅成)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제 막 예조의 서리가 되었다. 약간의 물건을 주고서 강성주(姜聖周)에게 예사문(禮斜文)³²³⁾을 써 달라 부탁했었다고 녹사(錄事)³²⁴⁾에게 말하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배광옥(裴光玉)과 정성들여 써서 들여 달라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급히 묘동(廟洞)으로 가서 공서(公瑞)와 이 석사(李碩士)에게 내일 내려가겠다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저녁에 경주인 집에 이르니 김계한(金啓漢)이 동행들과 오후에 먼저 출발하였다고 하니, 한탄스럽다. 해가 진 뒤에 남대문(南大門) 강지문(姜之文)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내일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서소문(西小門)으로 나가 차동(車洞) 민 판서(閔判書)의 집으로 가서 주인 치항(致恒)과 함께 묵었다.

十四日. 食前率新亭 卜金往廟洞, 持百兩錢, 與韓溶 野塘宗人延英, 入長房載錄, 則《全羅道院錄》入奎章閣云. 故記草六賢事蹟, 使後日着實書入之意, 累累言托, 而心甚不安也. 出來主人家, 與主人持略干物及實記, 往禮曹, 訪安同知子寅成, 則卽見今才禮曹 書吏也. 給若干物, 托姜聖周禮斜文云言錄事, 則答曰: “不無所入云矣.” 日後與裴光玉, 着實書入爲言, 則如教爲計, 勿慮云云矣. 急往廟洞, 與公瑞及李碩士, 明日下去之意作別. 暮抵京主人家, 則金啓漢同行午後先發程云, 可歎耳. 日落後, 往南大門 姜之文所住處, 約以明日同行. 出西小門, 入車洞 閔判書家, 與主人致恒同宿.

■15일. 아침을 먹기 전에 회동(晦洞)에 가서 송영재(宋永載) 궤연(几筵)³²⁵⁾에

323) 예사(禮斜) : 예조에서 양자(養子)의 청원을 허가해 주던 제도 또는 그 공문이다.

324) 녹사(錄事) : 조선 시대 중앙 관서의 상급 서리직이다. 의정부와 중추부에 나뉘어 소속되었으며, 문반의 관부에는 의정부에서 무반의 관부에는 중추부에서 나누어 파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2품 이상의 실권이 있고 업무가 많은 관부나 대신들에게 배정되어 문서의 취급과 기록, 연락 업무, 공문서의 전달,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325) 궤연(几筵) : 궤연은 영좌를 말한다. 영좌는 영상(靈床)과 함께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시기 위하여 초종(初終)에 설치하는 것이다. 즉 아침이 되면 영상에서 영좌로 혼백을 모셔 놓고, 밤이 되면 다시 영좌에서 영상으로 혼백을 모신다. 다시 말해 영좌는 혼백이 거처하는 곳이고 영상은 혼백이 취침하는 곳이다.

조문하였다. 상제(喪制) 지순(持淳)을 위로하고 실기(實記) 한 권을 주었다. 위채 사랑에 올라가 장성(長城) 숙부 송익형(宋翼亨) 씨를 만나니, 나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어 매우 고맷다. 실기(實記) 한 권을 주고, 여산제각(礪山祭閣)을 영건하는 일에 대해 말하자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추수한 뒤에 올라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어 하직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난동(蘭洞)³²⁶의 이 참의(李參議)에게 들렀다. 마침 낙동(洛洞)의 승지 이광헌(李光憲)과 종제(從弟)인 참판 이광문(李光文)이 와 있어서 한 자리에서 만났다. 실기(實記)를 주었더니, 이광문도 책자를 청하였기 때문에 다음 인편을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액(賜額)을 청하는 일은 영읍(營邑)에 일을 고하는 날에 반드시 영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답하시기를,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 그 사이에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한포재 서원 건립에 관한 일은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대사(大事)는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니, 후일을 기다려 상의하세나.”라고 하였다.

오는 길에 송유재(宋儒載)에게 실기(實記) 한 권을 주었더니, 각처에 지급할 것을 전달하겠다고 하기에 여섯 권을 부탁하였다. 오는 길에 학교동(學橋洞)³²⁷ 강화(江華) 송면재(宋冕載)의 집에 들러 그의 아들 지학(持學)을 만나 실기 한 권을 주었다. 이어 서소문(西小門) 밖 이희(李禧)의 집으로 나와 작별하였다. 차동(車洞)의 민치항(閔致恒) 집으로 내려와 작별한 다음, 아래채 사랑으로 가서 치명(致明)과도 작별하였다. 약현(藥峴)으로 가서 오위장(五衛將 송인서(宋璘瑞)를 말함)과 작별하고 청파(靑坡)³²⁸의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326) 난동(蘭洞)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에 있던 마을로서, 조선 선조 때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이 이곳에 살면서 일가와 더불어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난정계연(蘭亭稔宴)을 자주 열었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한자명으로 난정이문동(蘭亭里門洞)·난정동(蘭亭洞)이라 하고 줄여서 난동(蘭洞)이라 하였다.

327) 학교동(學橋洞) : 송면재(宋冕載)의 집을 방문하고 이어 이동하는 동선으로 볼 때 ‘학교동(學橋洞)’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던 마을인 ‘학교동(鶴橋洞)’의 오기인 듯하다.

328) 청파(靑坡) : 서울 용산구의 청파동이다. 청파라는 이름은 ‘푸른 언덕’이라는 뜻인데, 청파동이 연화봉(蓮花峰)이라는 푸른 야산에 위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조선 세종 때 명인인 청파 기건이 거주하였던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강지명(姜之明) 부자, 강휘길(姜彙吉), 송순(宋淳)과 동행하여 오후에 길을 떠났다. 한강에 이르러 즉시 나루를 건너고 과천(果川)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十五日。食前往晦洞，吊宋永載几筵，與喪人持淳致慰，給實記一卷。上上舍廊，見宋長城叔翼亨氏，則見我忻待，可感可感。給實記一卷，仍說礪山祭閣營建事，則待秋爲計，秋成後上來同議爲可云矣。仍辭來路入蘭洞 李參議，則洛洞 李承旨 光憲及其從弟參判 光文適來會。仍見一座上，仍給實記，則光文，亦自請冊子，故待後便持來爲言。仍說請額事，所營事之日，必賴諸令監之力，答曰：“力不及處，則何其於間乎。”仍說“寒圃齋建院事，則何可易也。大事必有時矣，待後相議。”云矣。來路見宋儒載，給實記一卷，則各處所給，以傳致爲言，故囑六卷。來路入學橋洞 宋江華 冕載家，見其子持學，給實記一卷。仍出西小門外李禧家作別。下來車洞 閔致恒家作別，往下舍廊，致明作別。往藥峴，與五衛將作別，下來靑坡主人家。與姜之明父子及姜彙吉、宋淳同行，午後發程。到漢江，卽爲越津，抵果川邑內留宿。行三十里。

■ 16일. 새벽에 출발하여 사근천(肆覲川, 현 의왕시 왕림마을)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대황교(大皇橋)³²⁹ 근처에 이르러 동행과 용주사(龍珠寺)³³⁰에 들어가 승려 정현(貞賢)을 찾아보았다. 정현은 바로 흥양 탑승(興陽塔僧)이었는데, 지금은 이 절에 있다. 천보루(天保樓)³³¹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나니 정현이 점심을 내왔다. 밥을 먹은 뒤에 육당(陸堂)의 부처를 완상하니 다른 것과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불좌(佛座)³³² 좌우에 쌍대 유리등(雙臺琉璃燈)이 있었다. 정현이 말하기를, “이 등은 바로 선왕(先王, 정조) 때 어전의

329) 대황교(大皇橋) : 대황교의 본래 위치는 수원시 대황교동과 화성시 황계동의 경계에 있었는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138번지 부근의 황구지천이다. 《대동지지》를 보면 대황교가 남쪽으로 15리, 건릉(建陵)의 영내에 있다고 하였다.

330) 용주사(龍珠寺) : 경기도 화성시 화산(花山)에 있는 조선 후기 현릉원의 능사로 창건된 사찰이다.

331) 천보루(天保樓) : 용주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1983년 9월 19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 36호로 지정되었다. 1790년(정조14) 정조가 장헌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용주사를 세우고, 이때 대웅보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5호)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문루로 함께 세워진 것이 천보루이다.

332) 불좌(佛座) : 부처가 앉거나 서 있는 대좌를 말한다.

물건으로, 이 절에 하사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동쪽 편에 큰 목궤(木櫃)가 있어 열어 보니 또한 어전 책상(御前冊床)이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어 건릉(健陵)³³³ 아래로 가서 멀지 않은 곳에 능소(陵所)의 석물(石物)을 바라보니 또한 평생의 장대한 구경이었다. 길을 재촉하여 오산(烏山)³³⁴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十六日。曉發抵肆觀川朝飯。抵大皇橋邊，與同行入龍珠寺，訪貞賢僧，僧乃興陽塔僧，方在此寺者也。臥天保樓就寢後，賢也進午飯。飯後玩陸堂佛，則與他無別，而佛座左右，有雙臺琉璃燈，而賢僧曰：“此燈即先王以御前之物，賜此寺者也。”東邊有大木櫃，而開示則亦御前冊床也。此三物平生初見也。仍往健陵下，不遠之地，瞻望陵所石物，亦平生壯觀也。促行抵烏山留宿。行八十里。

■17일. 새벽에 출발하여 희도원(希到院)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성환(成歡)³³⁵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천안 신(新)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100리를 갔다.
十七日。曉發至希到院朝飯，抵成歡午飯。抵天安新酒幕留宿。行百十里。

■18일. 새벽에 출발하여 덕평(德平)³³⁶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모로원(慕露院)³³⁷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판치(板峙)³³⁸ 아래 소월(小越)에 이르러 묵었다. 110리를 갔다.

333 건릉(健陵) : 정조(正祖)의 능이다. 지금은 1821년(순조21)에 승하한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金氏)와의 합장릉(合葬陵)을 지칭한다.

334 오산(烏山) : 경기도 남서쪽에 있다. 옛날에는 서해에서 오산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여 오산(鰲山)이라 불렀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조선 중기에는 오미장(梧美場)으로 불리거나 다른 지방보다 까마귀가 유난히 많다고 하여 오산(烏山)으로 불렸다고 한다.

335 성환(成歡)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읍명으로, 성환을 성환리에 성환역(成歡驛)이 있었다.

336 덕평(德平) : 충청도 청주목(淸州牧)과 전의현(全義縣)의 경계에 있었던 마을 이름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소정리(小井里)와 운당리(雲堂里) 지역에 해당한다.

337 모로원(慕露院)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용리 양달마을에 있었던 역원(驛院)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공주에서 북쪽으로 1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며, 원래 명칭은 ‘모로원(毛老院)’이다.

338 판치(板峙)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면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十八日。曉發抵德平朝飯，抵慕露院午飯。抵板峙下小越留宿。行百十里。

■19일. 새벽에 출발하여 노성(魯城)³³⁹ 읍내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황화정(皇華亭)³⁴⁰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치등(峙登) 주막 어귀에 이르러 나는 성묘하기 위해 시조의 묘소에 들어갔다. 동행은 먼저 능측(陵側)으로 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성묘한 뒤 성묘록(省墓錄)에 이름을 쓰고 급히 능측으로 갔다. 동행이 오지 않아서 몹시 기다리던 중에 날이 저어서야 강(姜)과 송(宋) 두 벗이 왔다. 다른 동행은 마병(馬病)으로 오지 못해서, 두 벗과 묵었다. 100리를 갔다.

十九日。曉發抵魯城邑內朝飯。抵皇華亭午飯。至峙登酒幕前，余則省墓次，入始祖墓所，同行則先行約以陵側，故省墓後，書名《省墓錄》，急往陵側，則同行不來，故苦待中，暮時姜、宋兩友來。他同行則以馬病不來，只與兩友留宿。行百里。

■20일. 일찍 출발하여 삼례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부내(府內)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한여해(韓汝海)를 만나 영문(營門)에 소장을 올리는 일로 동행했던 사람을 몹시 기다렸다. 예조에 제출할 소장을 옷 보따리 속에 넣어 두었기 때문이었는데, 날이 저물 무렵 강문명(姜文明) 부자가 그의 일가 사람과 짐을 지고 왔다. 문서를 가지고 급히 남문(南門) 밖 주막에 가서 서장(書狀)의 초본을 썼으나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영(營)에 제출하지 못하고 서문(西門) 밖에 가서 강(姜)과 함께 머물렀다.

二十日。早發抵參禮朝飯，入府內午飯。逢韓汝海，以呈營門事，苦待同行者，禮曹呈狀入衣襟中故也。日暮時，姜文明父子與其一家人，負卜而來，故持文書，急往南門外酒幕書狀草，而以日暮之致，不得呈營，往西門外，與姜也同留。

339 노성(魯城) :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지명 유래는 이산현의 지형이 공자가 탄생한 중국 노나라 이구산(尼丘山)의 지형과 비슷하다 하여 ‘노(魯)자’를 따고 이산(尼山)의 성을 상징하는 ‘성’자를 따서 노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340 황화정(皇華亭) :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에는 충청도 땅이 아니라 전라도 여산읍(익산의 옛 지명) 소속이었는데, 임금으로부터 전라도관찰사로 제수받으면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 지역인 여산 황화정에서 신·구 임무교대식인 교귀식(交龜式)을 치르고 전주 조경묘에 숙배(肅拜)하는 것이 순서였다. 때로는 활터로도 이용했으며 현재는 비석만 남아 있다.

■21일. 감영에 소장을 내는 일 때문에 아침 전에 동행과 작별하였다. 남문 밖 주막에 가서 여해와 상의하니, 순찰사[巡相]가 공무를 보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초(狀草)와 들어갈 돈 한 냥을 들여보냈는데, 아침을 먹은 뒤까지도 오지 않아서 매우 걱정스러웠다. 오후에 유석하(柳錫夏)가 제출한 것을 가지고 왔다. 제음(題音)³⁴¹⁾은 뜻대로 되어 다행이지만, 재록하는 일은 영리(營吏)가, 《사원록(祠院錄)》이 선화당(宣化堂)³⁴²⁾에 들어 있다고 하므로 다만 써 달라 부탁만 하고 재록을 못하였다. 훗날을 기다려 다시 오겠다고 말하니 매우 걱정스러웠다. 이어 유석하에게 벼를 하자며 그 자(字)를 물으니 영원(永元)이고, 전주(全州)에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여해와 임실(任實)의 곽재(郭載) 남평중(南平仲)과 길동무를 하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러웠지만,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두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흠이었다. 애치(艾峙)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二十一日. 朝前與同行作別者, 以呈營故也. 往南門外酒幕, 與汝海相議, 則巡相公事云, 故入送狀草及所入錢一兩矣. 至食後不來, 可悶可悶. 午後柳錫夏, 呈出持來, 題音如意幸幸, 而載錄之事, 營吏云《祠院錄》入宣化堂, 只托錄以給, 而不得載錄, 待後日更來爲言, 可悶可悶. 仍與柳也許友, 問其字, 則永元也, 全州出入之人也. 仍與汝海及任實 郭載 南平仲, 作伴稍幸, 而同鄉之人, 盡爲下去, 故與他官之人, 同行欠事, 而抵艾峙留宿. 行三十里.

■22일. 일찍 출발하여 여해와 신곡(新谷)의 종인(宗人) 연구씨(延奎氏)의 집에 들어가 아침을 먹었다. 여해가 나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주인에게 말하였더니, 돈 한 냥을 내주었는데, 양식이 떨어진 끝이라 매우 감사하였다. 곧바로 출발하여 도마교(逃馬橋)³⁴³⁾ 근처에 이르러서 여해와 작별하였다.

341) 제음(題音) : 백성들이 관청에 올린 요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적어 아래로 회보하는 형식의 짧은 글을 말한다. 이두(吏讀)로 음을 '제김'이라고 한다.

342) 선화당(宣化堂) :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정청(政廳)으로, 고을의 동헌(東軒)에 해당한다. 정면 중앙에 '선화당(宣化堂)'이라는 편액(扁額)을 달았는데, 이는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宣上德而化下民] 건물'임을 뜻하였다.

343) 도마교(逃馬橋)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에서 내려온 시내에 놓인 나무다리로, 말이 건너다녔다 하여 도마교(道馬橋)라고 했다.

이어 곽평중(郭平仲), 평당(坪塘)의 종인 연영(延英)과 함께 굴암(屈岩)³⁴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평당(坪塘)³⁴⁵⁾ 주막에 이르러 평중(平仲)과 작별하고 연영(延英)과 그 집에 들어가 묵었다. 50리를 갔다.

二十二日. 早發與汝海入新谷宗人延奎氏家朝飯. 汝海以吾絕糧之由言及主人, 則以一兩錢出給, 絕糧之餘, 多感多感. 即發至逃馬橋邊, 與汝海作別. 仍與郭平仲 坪塘宗人延英, 至屈岩午飯. 抵坪塘酒幕, 與平仲作別, 與延英入其家留宿. 行五十里.

■23일. 아침을 먹고 늦게 길을 떠나 광암(廣岩)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자생(者省) 도산(道山)³⁴⁶⁾에 들어갈 때 김이준(金履俊) 부자와 김계한(金啓漢)이 뒤쫓아 와서 만났는데, 이들은 말이 병이 나서 여산(礪山) 땅에서 뒤쳐졌던 사람들이었다. 적막한 가운데 이렇게 동향(同鄉) 사람을 만났으니 그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이어 그의 말에 옷 보따리를 맡기고 곡성(谷城) 읍내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도산(道山)의 족질(族姪)인 필흥(弼興)의 집에 들렀으나, 필흥(弼興)이 마침 부재중이라 아이를 보내서 불러 오게 했다. 먼저 책자가 왔는가를 물었더니, 즉시 왔다고 하니 다행스러웠다. 책자는 올라갈 때 이 집안에 전달해 달라고 주주막(周酒幕)에 부탁한 것이다. 전달되지 않았으리라³⁴⁷⁾ 생각했는데, 마침 왔다고 하니 몇 마디 말을 한 뒤에 곧바로 출발하여 중진원(中津院)³⁴⁸⁾을

344) 굴암(屈岩)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345) 평당(坪塘)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앞들이 넓고 연못이 있다 하여 지형을 따라 들땡이라고 부르다가 한자로 '평당(坪塘)'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46) 자생(者省) 도산(道山) : 자생과 도산은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347) 전달되지 않았으리라 : 원문의 '부침(浮沈)'은 인편으로 보내 편지가 전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은선(殷羨)이 예장군(豫章郡)의 태수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즈음에 사람들이 1백여 통의 편지를 주면서 경성에 전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석두(石頭)까지 와서 모조리 물속에 던져 놓고는 "가라앉을 놈은 가라앉고 떠오를 놈은 떠올라라. 은홍교가 우편배달부 노릇을 할 수는 없다.[沈者自沈, 浮者自浮, 殷洪橋不能作致書郵。]"라고 말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世說新語 任誕》

348) 중진원(中津院) : 중진(中津)은 순자진(鶡子津)으로, 곡성군 북쪽으로 10리 되는 남원(南原) 경계의 대로(大路)에 있었고, 순자원(鶡子院)은 순자진(鶡子津)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섬진강을 건널 수 있게 설치된 중진원교(中津院橋)가 있었다.

건넜다. 저녁에 곡성 읍내에 도착해서 동행을 만나 함께 묵었다. 70리를 갔다.
二十三日. 仍朝飯晚後發程, 抵廣岩酒幕午飯. 入者省 道山之際, 金履俊父子及金啓漢追來相逢, 此則馬病落後於礪山地者也. 寂寥之中, 逢此同鄉之人, 其喜幸可斗. 仍付衣襪於其馬, 約以谷城邑內相逢. 入道山族姪弼興家, 則弼興適不在, 送兒請來. 先問冊子來云, 則即來云幸幸. 冊子上去時, 以此家傳致之意, 付託於周酒幕也. 意謂浮沈矣, 果來云, 數語後, 即發渡中津院. 暮抵谷城邑內, 逢同行同留宿. 行七十里.

▪24일. 새벽에 출발하여 묘치(貓峙)를 넘어 아침을 먹고, 석곡(石谷)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무동정(舞童亭)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二十四日. 曉發踰貓峙朝飯, 抵石谷酒幕午飯. 抵舞童亭酒幕留宿. 行八十里.

▪25일. 일찍 출발하여 미태정(米太亭)에서 아침을 먹고, 벌교(筏橋)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백정자(柏亭子) 어귀에 이르러 동행과 헤어지고, 나는 사촌(社村)에 들어가 잠시 쉬 뒤에 사교(四橋)의 가교(柯橋) 데크에 들렀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동(齋洞) 동면(東面)의 형님 장사지낸 일이 내일이라고 하므로 미옥(美玉)과 그길로 마륜(馬輪)에 갔다. 동편의 성운(聖允) 집에 들러 저녁을 먹었다. 재동 종가에 들어가 가묘에 배알하고, 귀연(几筵)에 절하고 곡한 뒤에 말할 수 없이 피곤하여 잠깐 눈을 붙였다.
二十五日. 早發至米太亭朝飯, 抵筏橋午飯. 抵柏亭子前, 與同行分路, 余則入社村, 暫憩後, 入四橋 柯橋宅. 敘話後, 言齋洞 東面兄主葬事明日云, 故與美玉, 仍往馬輪. 入東邊聖允家夕飯. 入齋洞宗家, 祇謁家廟, 拜哭几筵後, 困憊難狀, 暫爲接目.

▪26일. 새벽에 바로 행상(行喪)³⁴⁹하여 그대로 호행(護行)하였는데, 장지에 이르니 이조동(吏曹洞) 뒤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서남(西南)으로 끝없이 확 트여 있어 보통 사람의 안목과 식견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사시(巳時)

349 행상(行喪): 시신을 상여에 실어서 산소로 나르는 일을 말한다.

에 하관(下棺)하고 그길로 유둔(油屯) 시장 근처로 가니, 내가 내려왔다는 기별을 듣고 노소(老少)의 문원(門員)들이 모두 와서 모여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서울에서 썼던 돈 100여 냥을 각파(各派)에 나누어 기록하였다. 오후에 역소(役所)로 돌아와 제사를 지낸 뒤에 즉시 반혼(返魂)³⁵⁰하고 곧바로 초우(初虞)³⁵¹를 지냈다. 지정(池亭)에서 머물렀다.

二十六日. 曉即行喪, 仍爲護行, 而及至葬所, 則吏曹洞後最高峯, 西南滉瀟無涯, 以凡眼姑未可知也. 巳時下棺, 仍行油屯市邊, 則老少門員, 聞余下來之奇皆來會, 相與敘話後, 分錄京中所用百餘兩錢於各派. 午後還來役所, 行祭後, 仍即返魂, 即行初虞, 留池亭.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대곡(大谷) 형님, 동재(洞哉)와 함께 남계(南溪) 정내성(丁乃成)을 찾아갔으나 내성은 서재(書齋)에 갔기에 잠시 정사문(丁思文) 씨를 만나 보았다. 서재(書齋)에 이르러 신 승지(愼承旨)의 서간(書簡)을 내성에게 전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물녘에 재동(齋洞)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먹은 뒤에 호치(虎峙)에 가서 대옥(大玉) 부모의 병환을 묻고, 그대로 머물렀다.
二十七日. 食後與大谷兄主及洞哉, 訪南溪 丁乃成, 則乃成去書齋, 故暫見丁思文氏. 抵書齋, 傳愼承旨書簡於乃成, 移時敘話, 乘暮入齋洞. 夕飯後往虎峙, 問大玉親患, 仍留.

▪28일. 아침을 먹고 나서 오는 길에 윤동(輪東)에 들어가 성운(聖允)의 길례(吉禮)를 묻고, 탄포(炭浦)로 출발하였다. 경수(敬叟) 씨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노송정(老松亭)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남면(南面)의 가산(佳山) 김이준(金履俊) 집에 들러 옷보따리를 찾았다. 오는 길에 석촌(石村)의 송계석(宋啓錫)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350 반혼(返魂): 장례 후에 신주를 모시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반우(返虞)', '흉제(凶祭)'라고도 한다.

351 초우(初虞): 산소(山所)에서 장례(葬禮)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혼령(魂靈)을 위안(慰安)하기 위해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二十八日. 食後來路入輪東, 問聖允吉禮, 而發炭浦. 逢敬叟氏, 暫話後, 至老松亭酒幕午飯. 入南面 佳山 金履俊家, 推尋衣襟. 來路入石村 宋啓錫家, 暫話後, 乘暮還家.

문회계 文會契

송흠문 성안 경인 은진사람 청주 거주 (宋欽文 聖安 庚寅 恩津人 居清州)
 안동형 경통 정유 순흥사람 해주 거주 (安東亨 敬通 丁酉 順興人 居海州)
 김재봉 의지 계묘 광산사람 공주 거주 (金在鳳 儀之 癸卯 光山人 居公州)
 홍기영 사춘 남양사람 연기 거주 (洪沂泳 士春 南陽人 居燕歧)
 박치환 은문 을사 면천사람 회천 거주 (朴致煥 闇文 乙巳 沔川人 居懷川)
 김재대 건지 무신 광산사람 공주 거주 (金在大 健之 戊申 光山人 居公州)
 김이현 성서 무신 광산사람 공주 거주 (金彝鉉 聖瑞 戊申 光山人 居公州)
 박재병 남중 무신 밀양사람 청주 거주 (朴載丙 南仲 戊申 密陽人 居清州)
 임주례 성기 정사 상주사람 충주 거주 (林周豊 聖基 丁巳 尙州人 居忠州)
 김석현 성규 기미 광산사람 회천 거주 (金錫玄 聖圭 己未 光山人 居懷川)
 성영석 원로 신축 창원사람 대흥 거주 (成永錫 元老 辛丑 昌原人 居大興)
 송재옥 사형 갑자 본관 여산 천안 거주 (宋在玉 士衡 甲子 礪山人 居天安)
 정현석 군범 을묘 본관 광주 임천 거주 (鄭玄錫 君範 乙卯 光州人 居林泉)
 안성흠 성태 병진 본관 순흥 옥천 거주 (安聖欽 聖泰 丙辰 順興人 居沃川)
 고상의 유중 정미 본관 청주 음성 거주 (高尙義 由中 丁未 清州人 居陰城)
 권중건 사극 임술 본관 안동 서울 거주 (權中建 士極 壬戌 安東人 居京)
 금석로 영수 병진 본관 봉성 옥천 거주 (琴錫老 永叟 丙辰 鳳城人 居沃川)
 정재팔 순거 계해 본관 의성 용담 거주 (丁載八 舜擧 癸亥 義城人 居龍潭)
 한경복 백원 갑신 본관 청주 회천 거주 (韓慶福 伯源 甲申 清州人 居懷川)
 송수각 자신 본관 은진 회천 거주 (宋秀覺 子臣 恩津人 居懷川)
 김방기 중경 정사 태인 거주 (金邦基 仲環 丁巳 居泰仁)

박정일 윤겸 을미 본관 상주 광양 거주 (朴楨一 允謙 乙未 尙州人 居光陽)
 서택인 맹거 임자 본관 달성 대구 거주 (徐宅仁 孟居 壬子 達城人 居大邱)
 서영래 대여 경술 은진 거주 (徐榮來 大汝 庚戌 居恩津)
 송흠태 국언 계묘 태인 거주 (宋欽泰 國彦 癸卯 居泰人)
 최광악 응오 정해 본관 전주 금구 거주 (崔光岳 膺五 丁亥 全州人 居金溝)
 송노전 백도 신해 본관 덕수 해주 거주 (宋魯傳 伯道 辛亥 德水人 居海州)
 최달민 인침 정미 본관 전주 김제 거주 (崔達旻 仁瞻 丁未 全州人 居金堤)
 이주재 임신 본관 한산 해주 거주 (李周載 壬申 韓山人 居海州)
 송연영 국형 신해 본관 여산 임실 거주 (宋延英 國馨 辛亥 礪山人 居任實)
 송석년 수이 무술 본관 여산 흥양 거주 (宋錫年 壽而 戊戌 礪山人 居興陽)
 신재술 본관 평산 안동 거주 (申在述 平山人 居安東)

계미년 3월 정시 때 동행록 癸未 三月 庭試時 同行錄

송석필 윤계늘 송 도 (宋錫弼 尹啓訥 宋 濤)
 정두옥 송 현 박종수 (丁斗玉 宋 玠 朴宗壽)
 신상록 신일모 정두화 (申相錄 申一模 丁斗華)
 송석년 송 필 강하천 (宋錫年 宋 玘 姜河天)
 정두민 신천록 송 린 (丁斗玟 申天祿 宋 璘)

신안서원장³⁵²⁾ 新安書院狀

전라도 유생 유학(幼學) 최관현(崔寬賢) 등이 삼가 목욕재계하고 재배 후에 대종백(大宗閣, 예조판서를 달리 일컫는 말)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임실현(任實縣) 신안사(新安祠)는 바로 주 부자(朱夫子)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제사를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향사(鄉祠)³⁵³⁾와 사액(賜額)³⁵⁴⁾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선후의 다름이 있지만, 현인을 높이 받들고 도를 사모하는 정성만은 같습니다. 이미 현인을 높이 받들고 도를 사모함은 조정의 고관(高官)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때문에 사액(賜額)을 요청하는 문제는 일단 앞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지만 숭봉(崇奉)하는 일의 체모와 거행하는 의절(儀節) 같은 경우는 원래 피차의 구별이 없습니다. 더구나 주부자(朱夫子)의 사우(祠宇)는 우리나라의 제현과 더욱 달라서 천성(千聖)의 적통(嫡統)이 이에 빛나고 만세의 사도(師道)가 매우 엄하니, 특히나 십분 더 공경을 다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번 신안서원의 사례(事例)는 전부터 함평(咸平)의 자양사(紫陽祠)³⁵⁵⁾와 대략 엇비슷하므로 제반 의문(儀文, 의례에 관한 법도)을 건주어 동일하게

352) 신안서원(新安書院)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서원. 1588년(선조21)에 한호겸(韓好謙)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신안사(新安祠)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자 1669년(현종10)에 중건하였으며, 1788년(정조12)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송경원(宋慶元)·한필성(韓必聖)·한명유(韓鳴愈)·강백진(康伯珍)·송시태(宋時態)를 추가 배향(配享)하였다. 1819년(순조19)에는 함평의 자양서원(紫陽書院)에 안치된 주희(朱熹)의 영정을 이곳으로 옮겨와 주벽(主壁)으로 봉안함과 동시에 '신안(新安)'이라고 사액(賜額)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353) 향사(鄉祠) : 이름난 학자, 충신 등의 공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집을 세우고 제사지내는 사당(祠堂)을 말한다. 조선 중기에 학문의 권장을 위하여 지방에 서원과 정사(精舍)가 생겨나고 자기 조상들을 위하여 사우(祠宇)가 많이 건립될 때 생겨난 특징 있는 주민들의 사당이다.

354) 사액(賜額) : 임금이나 사당(祠堂)이나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扁額)을 내리던 일이다.

355) 자양사(紫陽祠) : 전남 함평에 있었던 사당으로, 주희(朱熹)를 향사(享祀)한 사당이다. 1783년에는 송시열(宋時烈)의 영정도 봉안하였다.

하였습니다. 봄가을의 제수(祭需)는 이미 본도(本道)의 순영(巡營)에서 많은 선비들의 정문(呈文)³⁵⁶⁾으로 인하여 본손(本孫)에게 관문(關文)³⁵⁷⁾을 보내 신칙하였는데, 자양사(紫陽祠)의 예에 의거하여 관(官)에서 제물을 갖추어 보내고, 원생(院生, 서원의 생도)과 보노(保奴)³⁵⁸⁾의 무리도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영읍(營邑)에서 정도(正道)를 지키는 성대한 뜻인데, 본원의 모양새가 조금 이루어져 규모와 제향 의례³⁵⁹⁾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으니, 삼가 사문(斯文)의 다행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팔도의 사원(祠院)은 모두 예조 관할입니다. 그리고 예조에 《사원록(祠院錄)》이 있으니 이미 사액(賜額)하고 사액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각각 부책(簿冊, 장부)이 있고, 그 중요한 도원(道院)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각별하니, 대개 또한 우리나라가 유학을 중시하고 도를 숭상하는 상전(常典)을 우러러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에 감히 우러러 호소하노니, 삼가 바라건대 공의(公議)를 굽어살피시어 임실(任實)의 신안사(新安祠)를 본조(本曹)의 《사원록》에 실어 일의 체모를 중히 하고 사람을 빛내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임오년(1822) 10월

全羅道儒生幼學崔寬賢等, 謹齋沐再拜, 上書于大宗伯閣下. 伏以任實縣 新安祠, 卽朱夫子影幀奉安之所, 而俎豆之享之有年矣. 鄉祠與賜額, 有公私先後之別, 而其爲尊賢慕道之誠則一也. 既有尊賢慕道, 則縉紳與士林亦一也. 是以請額一款, 不得不姑俟來頭, 而至若崇奉之事體, 舉行之儀節, 元無彼此之區別矣. 況朱夫子祠宇, 尤異於我東諸賢, 千聖之嫡統斯光, 萬世之師道至嚴, 尤當十分致敬, 不容疎忽處也. 今此新安事例, 自前與咸平紫陽

356) 정문(呈文) : 백성이 관청에, 또는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357) 관문(關文) : 원문의 '관칙(關勅)'은 관문(關文)으로,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公文)이다. 감결(甘結), 예칙(禮勅)이라고도 한다.

358) 보노(保奴) : 조선 시대 병영이나 관아 또는 서원 등에 딸리어 잡역에 종사하던 하례(下隸)를 말한다.

359) 제향의 의례 : 원문의 '향의(享儀)'는 제향(祭享) 후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을 말한다.

祠, 略相髣髴, 故諸般儀文, 比而同之. 春秋祭需, 已自本道巡營, 因多士呈文, 關飭本孫, 依紫陽祠例, 自官備送, 而院生保奴之屬, 亦有所措置者, 是皆營邑衛道之盛意, 而院樣稍成, 規模享儀, 庶盡誠敬, 竊不勝斯文之幸. 第伏念八路祠院, 俱是春曹所管, 而春曹有《祠院錄》, 無論已賜額未賜額, 各有簿冊, 其重道院所重, 則顧護自別, 盖亦仰體我國家重儒崇道之常典也. 生等茲敢仰籲, 伏願俯察公議, 以任實新安祠, 載入於本曹《祠院錄》, 以重事面, 以光士林, 幸甚.

壬午十月.

제사

춘조(春曹, 예조의 별칭)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는 본원에 경중이 되기에 부족하지만 선비들의 바람이 이미 이와 같으니 삼가 등록하여 예전의 일을 기록하다. 19일.

題辭. 春曹之載錄與否, 雖不足爲輕重於本院, 而士望既如此, 謹當載錄向事. 十九日.

계미년(1823) 8월 일

癸未八月日

봄에 상경하였을 때 재동(齋洞)의 육충사(六忠祠)를 예조에 재록(載錄)하는 일로 예조에 소장을 올렸으나 육충사(六忠祠)가 아직도 사액(賜額)되지 않은 것이 은전(恩典)의 흠이었다.

《사원록(祠院錄)》에 삼가 마땅히 써서 들어야 하니 이전에 받은 제사(題辭)를 재록(載錄)하기위해 장방(長房)³⁶⁰으로 들어갔는데, 서리 배광옥(裴光玉)이 말하기를, “《사원록》중 전라도권이 규장각(奎章閣)에 들어있으니 지금 바로 재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올 시기를 묻자 “조만간에는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므로 직접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번 가을 문중에서 또 나더러 가서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8월 그믐날에 길을 나섰다. 가아(家兒, 아들)를 데리고 천노(千奴)에게 짐을 지게 하여 과역(過驛) 시장 근처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노송정(老松亭)에 이르자, 천노(千奴)가 다리 병이 난 탓에 도로 들여보내고 우연히 사교(四橋)의 상덕(尙德)을 얻어 짐을 지게 했다. 탄포(炭浦)에 이르자 비가 내려 가아(家兒)는 마륜(馬輪)으로 가고, 나는 곧 비를 무릅쓰고 사교(四橋)의 가교(柯橋) 댁에 이르러 묵었다.

春間上京時, 以齋洞 六忠祠 春曹載錄事, 呈于禮曹, 六忠祠之尙未宣額欠典也. 《祠院錄》, 謹當書入, 向事之題, 載錄次入長房, 則書吏 裴光玉曰: “《祠院錄》全羅道卷, 入奎章閣, 則今方載錄, 無可奈何”云, 故問于出來之, “早晚無期”云, 故不得親見而來矣. 今秋門中, 又以余往見, 故八月晦日發程, 而率家兒, 使千奴負, 至過驛市邊療飢. 抵老松亭, 千奴以脚病之致, 還爲入送, 偶得四橋 尙德負卜, 至炭浦雨作, 家兒往馬輪, 余卽冒雨, 抵四橋 柯橋宅留宿.

▪9월 1일. 무안(茂安) 형님, 문대씨(文大氏)와 유둔(油菴) 시장 근처에 갔더니, 문중의 노소(老少) 몇몇 사람이 와서 모였는데, 사환(使喚, 잔심부름꾼)을 얻을

360) 장방(長房):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서리가 쓰던 방이다.

수가 없어 매우 걱정스러웠다. 마침 양리(楊里)의 석사 이계영(李啓榮)과 이순영(李淳榮) 종형제를 만났는데,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달리 동행이 없어 적막하던 중에 이처럼 동향(同鄉)의 친지를 만났으니 다행이었다. 내일 동행하기로 약속한 뒤에 사교(四橋)로 돌아와서 머물렀다.

九月初一日. 與茂安兄主及文大氏, 往油屯市邊, 則門中老少略干來會, 而使喚不得, 可悶可悶. 適逢楊里 李碩士、啓榮、淳榮從兄弟, 作京行之人, 別無同行寂寞之中, 得此同鄉親知之人, 可幸, 而以明日同行之意相約後, 還來四橋留.

■2일. 사환이 끝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으니 걱정스럽다. 아침을 먹은 뒤에 만복(萬卜)이란 자를 얻어 짐을 지게 하고 길을 떠났다. 사촌(社村)에 이르러 오위장(五衛將)을 조문한 뒤에 이 석사(李碩士)와 길을 떠나 벌교(筏橋)에서 점심을 먹었다. 서령(西嶺)을 넘어 기동(基洞)의 좌수(座首) 이형립(李亨立)의 집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初二日. 使喚終未完定, 可悶矣. 食後得萬卜者, 負卜發程. 抵社村吊五衛將後, 與李碩士發程, 抵筏橋中火. 越西嶺, 抵基洞 李座首 亨立家留宿. 行三十里.

■3일. 주인의 아들 순근(順根)도 동행하였으므로 우리 종에게 짐을 맡기고 그대로 길을 떠나 낙수(洛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나는 귀정(歸亭)에 들어가 잠시 외종수(外從嫂)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길을 떠나 저물녘에 석곡(石谷)에 이르러 묵었다.

初三日. 主人之子順根, 亦爲同行, 故付卜於吾之奴者, 仍爲發程, 抵洛水中火. 余則入歸亭, 暫見外從嫂, 卽爲發程, 暮抵石谷留宿.

■4일. 안개가 사방에 잔뜩 끼었기 때문에 삿갓을 쓰고 일찍 출발하여 울목정(栗木亭)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길을 떠나 몇 리 남짓 되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살고 있는 곳을 물어보니 흥양(興陽) 포두(浦頭)의 세동(細洞)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 성(姓)을 물었더니 명가(明哥)라고 하였는데, 명두혁(明

斗燐)과 사촌 관계인 사람이었다. 이름이 두엽(斗燐)이라는 사람, 대구(大邱)의 서인준(徐仁俊) 두 사람과 그대로 동행하여 남원(南原)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初四日. 以烟霧四塞之致, 冒笠早發, 抵栗木亭朝飯. 發程數里餘逢一人, 問所居則興陽浦頭細洞云, 故問其姓則明哥云, 而與明斗燐四寸之人也. 名斗燐及大邱 徐仁俊兩人, 仍爲同行, 抵南原邑內留宿. 行八十里.

■5일. 일찍 출발하여 전석치(磚石峙)를 넘어 오수(鰲樹)에 이르렀다. 나는 소로(小路)로 들어가 평당(坪塘)의 송연영(宋延英) 집에 이르렀으나 주인 부자가 모두 출타하여 만나지 못했다. 주막으로 나와서 점심을 먹고 있으니 뒤따라 당도하여서 다행이었다. 송연영(宋延英) 종형제를 마침 이 주막에서 만난 것은 요행이었다. 이어 작별하고 말치(361)를 넘어 굴암(屈岩)에 이르러 묵었다.

初五日. 早發越磚石峙, 抵鰲樹. 余則入小路, 抵坪塘 宋延英家, 則主人父子皆出他, 不得相面, 出來酒幕, 仍爲中火, 追後來到, 可幸. 延英從兄弟, 適逢此幕乃幸. 仍爲作別, 越斗峙, 抵屈岩留宿. 行七十里.

■6일. 일찍 출발하여 오원(烏院)³⁶²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한참 밥을 먹고 있을 때에 보성(寶城)의 공서(公瑞) 종인(宗人)이 왔다. 만나서 쉬었다가 그길로 동행하여 쌍정자(雙亭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부내(府內)에 도달하여 전성철(全聖哲)의 집에 머물렀다. 70리를 갔다.

初六日. 早發抵烏院朝飯. 方食之際, 寶城 公瑞宗人來, 相逢息後, 仍爲同行, 抵雙亭子中火. 得達府內, 留全聖哲家. 行七十里.

361) 말치 : 원문의 '두치(斗峙)'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과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사이의 고개이다. 말치 또는 마치(馬峙)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진안 마령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던 길목이어서 '마치'라 칭하였다고 한다.

362) 오원(烏院) : 관촌(館村)의 옛 지명이다. 고문헌에 관촌(館村)은 등장하지 않고, 임실의 북쪽 경계 지점에 있었던 상북면·하북면과 '오원역(烏原驛)' 또는 '오원(烏院)'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지리지》에 오원이 임실의 역으로 수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역(驛)이 2이니, 오원(烏原)·갈담(葛潭)이다."라고 하였다. 관촌은 객지에서 묵는 숙소라는 뜻인 객관(客館)의 뒷 글자에서 유래가 됐으며, 원(院)이나 역(驛)은 상당히 큰 규모의 국립 여행자 숙소를 뜻한다.

■7일. 재록하는 일로 일찌감치 가서 유석하(柳錫夏)를 만나 상의하였다. 그길로 함께 김제(金堤) 송상실(宋相實)이 머물고 있는 주인집에 가서 상의하였더니, 아침을 먹은 뒤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도로 주인집으로 나와 아침을 먹고 나서 다시 들어갔으나 요청한 영리가 오지 않았다. 게다가 동행이 길을 재촉하므로 내려올 때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정오에 길을 나섰다. 삼례(參禮)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능측에 이르러 묵었다. 50리를 갔다.

初七日。以載錄事，早往見柳錫夏相議，仍爲同往金堤 宋相實所旅主人家相議，則食後入來爲言，故還爲出來主人家朝飯，更爲入去，則所請營吏不來。且同行促行，故以下來時相約，午時登程。抵參禮中火，抵陵側留宿。行五十里。

■8일. 새벽에 출발하여 여산(礪山) 읍내에 이르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어 요기하고 사교(沙橋)³⁶³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소월(小越) 주막에 가서 묵었다. 100리를 갔다.

初八日。曉發抵礪山邑內，始開東矣。仍爲療飢，抵沙橋中火。暮抵小越酒幕留宿。行百里。

■9일. 일찌감치 판치(板峙)를 넘어 효포(孝浦)에서 아침을 먹었다. 금강(錦江)을 건너 모로원(慕露院)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먼저 떠나 광정(廣亭)³⁶⁴의 송상철(宋相喆)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한사코 만류하였다. 그러나 동행과 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출발하여 주인과 길가에 도착하였더니, 동행이 뒤쳐져 광정(廣亭)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길 가에서 동행을 만났다. 저녁에 팔풍정(八風亭)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저녁을 먹은 뒤에 계순(啓淳) 이여백(李汝伯)이 먼저 절구 한 수를 지었다.

363) 사교(沙橋) : 논산 은진면과 부적면의 논산천을 건너던 다리를 말한다.

364) 광정(廣亭) :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소재지의 마을이다. 삼남길이 통과하는 길목이고 서울로 가던 인마가 차령을 넘기 전에 한숨 돌리던 곳이다. 때문에 광정역(廣亭驛)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달을 보니 더욱더 고향 생각나는데	見月倍鄉思
푸른 하늘에 달 뜬 지 얼마나 되었던고	青天來幾時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中夜眠無暇
애오라지 짤막한 시를 지어보네	聊將短律詩

순근(順根) 경오(敬五)가 다음과 같이 차운(次韻)하였다.

뗏목 타고 천리 먼 길 온 나그네	浮槎千里客
구월의 용산 ³⁶⁵ 이 생각나는구나	九月龍山思
경성이 어디 있느냐 묻노니	京城問何在
큰 깃발 북쪽으로 돌아가네	大旆北歸時

계영(啓榮) 여심(汝心)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공주로 향하는 길 나그네 생각이 많은데	公州歸路客多思
오늘밤 달이 뜨니 더욱더 간절해지네	倍切今宵且月時
회포를 풀기 위해 담소를 나누다가	爲遣心懷談且笑
술과 시로 호걸스런 흥취 즐겨보네	正耽豪興酒還詩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맑은 밤 달빛에 걸으니 더욱 고향 생각나는데	清宵步月倍鄉思
더구나 누런 국화 한창인 중앙절이로다	況又重陽黃菊時
억지로 술잔 잡고 두세 잔을 마신 뒤	強把數三盃酒後
취한 끝에 호방한 흥취 일어 부질없이 시를 읊네	醉餘豪興浪吟詩

365) 용산 :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일찍이 정서 장군(征西將軍)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이 되었을 때, 한번은 중앙절(重陽日)에 환온이 용산에서 연회를 베풀어 그의 막료들이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맹가의 모자가 날려갔으나 맹가는 미처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풍류를 한껏 발휘했던 데서 온 말이다. 후에 중앙절에 높은 곳에 올라 모임을 갖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로 쓰였다. 《晉書 卷98 孟嘉列傳》

初九日. 早發越板峙, 至孝浦朝飯. 越錦江, 抵慕露院中火. 余則先行, 入壙亭 宋相詰家. 暫話欲發則堅挽, 而以同行難離之致, 卽發與主人來路邊, 則同行落後, 廣亭稍待, 路邊逢同行. 暮抵八風亭留宿. 行七十里. 夕飯後, 李啓淳 汝伯先吟一絕曰: “見月倍鄉思, 青天來幾時. 中夜眠無暇, 聊將短律詩.” 順根 敬五次曰: “浮槎千里客, 九月龍山思. 京城問何在, 大旆北歸時.” 啓榮 汝心次曰: “公州歸路客多思, 倍切今宵且月時. 爲遣心懷談且笑, 正耽豪興酒還詩.” 余次曰: “清宵步月倍鄉思, 況又重陽黃菊時. 強把數三盃酒後, 醉餘豪興浪吟詩.”

■10일. 일찍 출발하여 차령(車嶺)을 넘을 때에 여심(汝心)이 먼저 읊었다.

둥글고 네모난 천지의 험한 길 건너	涉險止方圓
누각에 오르니 마음이 더욱 넉넉하여라	登閣意益寬
참 공부는 가는 곳마다 있으니	眞工行處在
평안히 앉아 있을 것 뭐 있겠나	何必坐平安

여백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천 리 길 떠난 영주의 나그네	瀛洲千里客
고개를 넘으니 마음이 여유롭네	越嶺以爲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웃는 듯 성내는 듯	溪聲笑有怒
산세는 가도가도 편안하구나	山勢行且安

경오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길동무하며 떠난 천릿길	作伴千里路
동행하여 마음이 참으로 여유롭구나	同行意盡寬
어젯밤엔 공주의 길손이더니	昨夜公州客
오늘 아침엔 천안에 도착하였네	今朝到天安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부끄러워라 나의 시정의 졸렬함이여	愧我詩情拙
넉넉한 그대들 주량이 부럽기만 하여라	羨君酒戶寬
험난한 여행길 가도 가도 그치지 않으니	間關行不止
어느 곳이 장안이란 말인가	何處是長安

여심이 또 읊었다.

괴이한 바위 위태로운 듯 벼랑에 달려 있고	怪石懸如危
단풍은 연지를 찍어놓은 듯 붉게 단장하였네	丹楓色欲脂
우리들이 구경하는 곳에도	吾人覽物處
중양절 ³⁶⁶ 아니 잇고 누런 국화가 피었어라	重九黃花時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기암괴석은 꼭대기마다 솟아있고	怪石頭頭在
단풍은 곳곳마다 붉게 물든 연지로다	丹楓面面脂
느긋하게 지팡이 짚고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아	緩筇看有厭
날이 저물어 가는 지도 몰랐어라	不覺夕陽時

두엽(斗燁) 명이관(明以寬)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대여섯 사람 함께 부대끼며 떠난 길	五六人相與
걸고 또 걸으며 마음이 느긋해졌네	行行意有寬
돌아가는 길 어디메에 있으랴	歸程何處在
해 떨어지는 곳 바로 장안이라오	日下是長安

366) 중구 : 원문의 ‘중구(重九)’는 음력 9월 9일로 곧 중양절(重陽節)을 가리킨다.

덕평(德坪)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천안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직산(稷山) 삼거리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初十日. 早發越車嶺之際, 汝心先吟曰: “涉險止方圓, 登閣意益寬. 眞工行處在, 何必坐平安.” 汝伯次曰: “瀛洲千里客, 越嶺以爲寬. 溪聲笑有怒, 山勢行且安.” 敬五次曰: “作伴千里路, 同行意盡寬. 昨夜公州客, 今朝到天安.” 余次曰: “愧我詩情拙, 羨君酒戶寬. 間關行不止, 何處是長安.” 汝心又吟曰: “怪石懸如危, 丹楓色欲脂. 吾人覽物處, 重九黃花時.” 余次曰: “怪石頭頭在, 丹楓面面脂. 緩筇看不厭, 不覺夕陽時.” 明斗燁以寬次曰: “五六人相與, 行行意有寬. 歸程何處在, 日下是長安.” 抵德坪朝飯, 抵天安邑內中火. 抵稷山三巨里留宿. 行七十里.

■11일. 일찍 출발하여 성환(成歡)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즉시 출발하여 칠원(漆原)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다. 수원(水原) 오산(烏山) 시장 근처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十一日. 早發抵成歡朝飯, 卽發抵柒原中火. 抵水原 烏山市邊留宿. 行八十里.

■12일. 새벽에 출발하여 상유천(上柳川)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화성(華城)에 이르러 동행이 경치를 구경한 탓에 지체되어 뒤늦게 길을 떠났다.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러 잠시 쉬다가 마침 보성(寶城) 이성범(李聖範)을 만났는데 피차간에 알아보지 못하였다. 공서(公瑞)가 알려 주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날의 모습이 있는 듯하였는데, 피차간에 백발이 성성하였으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행하여 사근천(肆覲川)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과천 읍내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十二日. 曉發抵上柳川朝飯. 抵華城以同行玩景之致, 爲遲滯後發程. 抵遲遲臺暫憩後, 適逢寶城 李聖範, 彼此不知矣. 公瑞指示, 故詳觀則似有前日樣, 彼此白髮蕭蕭, 故不知. 仍與相話爲同行, 抵肆覲川中火, 抵果川邑內留宿. 行八十里.

■13일. 새벽에 출발하여 남태령(南泰嶺)³⁶⁷을 넘었다. 승방점(僧房店)³⁶⁸에 이르러 떡을 사서 요기한 다음, 강을 건너 수청거리점(水淸巨里店)에 이르렀다. 아침을 먹은 뒤에 청파(靑坡)의 길가에 이르러 동행과 서로 헤어지고, 나는 박영대(朴永大)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주인과 요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서소문(西小門) 밖 이희(李禧)의 집에 갔으나 주인은 부재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모르는 조관(朝官) 한 사람이 내게 묻기를, “홍양에 사십니까?”라고 하므로 내가 답하기를,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하자 이어 말하기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바로 회덕(懷德)³⁶⁹에 사는 장소(長小) 송명규(宋明圭)인데, 주인과 친사돈 관계인 사람이었다. 가지고 온 민어(民魚)를 노비에게 들여보내니 안채에서 말을 전하였는데 전일의 정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예조의 서리 안인성(安寅成)을 만나기 위해 예조에 갔더니 예조의 직방(直房)³⁷⁰으로 들어갔다고 하므로 그길로 직방(直房)으로 갔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주인에게 통지하게 했더니 곧바로 나왔다. 선 채로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서, 먼저 재록(載錄)했는지의 여부를 묻자 곧바로 재록하였다고 하였다. 술집에 함께 나가자고 청하자 옷을 입고 나왔는데, 곧바로 나오면서 《사원록(祠院錄)》을 가지고 나왔다. 직접 보니 과연 재록되어 있어 매우 다행스러웠다. 대개 이번 여행길은 전적으로 이 일을 보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이처럼 재록(載錄)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길로 함께 술집으로 나와 술을 사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액(賜額)을 청한 일에 대해 언급하였더니, 이 일은 큰일이라서 수령이 쉽사리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유생의 상소가 있더라도

367) 남태령(南泰嶺)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에서 과천시 과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368) 승방점(僧房店) : 승방평(僧房坪)에 있었던 객점을 말한다. 승방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던 마을로서, 마을 뒷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 앞들에 있던 마을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승방뜰·심방뜰이라고도 불렀다.

369) 회덕(懷德)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지역의 옛 지명이다.

370) 직방(直房) : 조방(朝房)이라고도 하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조회(朝會) 때를 기다리느라고 모여 있던 방이다. 대궐문 밖에 있었다.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기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첩미(帖尾)에 대한 일도 언급하니, 그가 관계된 바가 아니어서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관장하는 사람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기에 내일 다시 오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다. 광교(廣橋) 경주인(京主人) 집에 들어가 잠시 쉬다가 저물녘에 주인집으로 나왔다. 十三日. 曉發越南泰嶺, 抵僧房店, 買餅療飢, 仍爲越江, 抵水清巨里店. 朝飯後, 抵青坡路邊, 與同行相分, 余入朴永大家. 仍爲主人療飢, 暫憩後, 往西小門外李壻家, 則主人不在, 而有不知朝官一人, 而問余曰: “在興陽?”云, 故答曰: “何以知之?” 仍曰: “有知之道”云, 故仍與敘話, 則乃懷德居宋長小明圭, 而與主人親查人也. 持來民魚, 使奴婢入送, 則內間傳語出來, 不忘前日之意. 爲見禮吏 安寅成 往 禮曹, 則入去禮曹 直房云, 故仍往直房. 余則立門外, 使主人通奇, 則卽爲出來. 立談數語, 先問載錄與否, 則卽爲載錄云, 請與出去酒家, 則着衣出來矣. 卽爲出來, 而《祠院錄》持來, 親見則果爲載錄, 幸幸. 蓋此行專以爲見此事而來矣, 此事若此載錄, 可幸可幸. 仍與出來酒家, 買酒相飲敘話, 仍說請額事, 則此事大事也, 倅難易成, 雖有儒疏, 畢成難期云矣. 又論帖尾事, 則渠非所關, 不可詳知, 與所掌之人相議云云, 故以明日更來爲約而出. 入廣橋 京主人家暫憩, 乘暮出來主人家.

■14일. 아침 전에 흥양(興陽)의 공촌(貢村) 임일한(林一漢)이 찾아와서 보고, 이어 아침을 먹고 갔다. 아침을 먹은 뒤에 명두엽(明斗燁)과 길동무하여 청동(淸洞)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차동(車洞) 민 판서(閔判書)의 집에 들러 민치항(閔致恒)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그 마을 민치명(閔致明)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인은 지금 아내의 병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희(李壻)의 집에 갔으나 또 출타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아우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다. 우 참봉(禹參奉)의 집에 들렀더니 안동(鴈洞)의 진사 정두옥(丁斗玉)이 그 자리에 있었다. 뜻밖에 만나니 기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어제 입성(入城)했다고 했다. 이어 청동(淸洞)으로 갔더니 이 판서(李判書)가 병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아우 한림(翰林)과 판서의 아들만 만나 보았다. 오는 길에 재동(齋洞)으로 가서 진사 오우상(吳羽常)을 찾아가 임실(任實) 한용(韓溶)에

대해 물었다. 주인이 가서 보았더니 야당(野塘)의 종인(宗人) 형제와 한용(韓溶)이 함께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잠깐 만나 보고 주인집으로 나왔다. 十四日. 朝前興陽 貢村 林一漢來見, 仍爲朝飯而去. 食後與明斗燁, 作伴往淸洞之路, 余則入車洞 閔判書家, 與閔致恒暫話. 又往其村致明家暫話, 而主人方以內患憂慮云矣. 又往李壻家, 則又爲出他, 不得相面, 只與其弟暫話出來. 入禹參奉家, 則鴈洞 丁進士 斗玉在座, 意外相面, 忻喜難量, 昨日入城云矣. 仍往淸洞, 則李判書以病臥之致, 不得入見, 只見其弟翰林與判書之子. 來路往齋洞, 訪見吳進士 羽常, 問任實 韓溶. 主人往見, 則野塘宗人兄弟與韓溶同留云矣. 暫見而出來主人家.

■15일. 아침을 먹기 전에 남계(南溪) 정내성(丁乃成)이 와서 만났는데, 성에 들어온 뒤로 처음 보게 되니 매우 기뻐했다. 이어 같이 아침을 먹고 나서 정내성(丁乃成), 명생(明生, 명두엽(明斗燁))과 전의(典衣) 방동(房洞) 정내성의 주인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묘동(大廟洞)의 공서(公瑞)가 머물고 있는 사관(舍館)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서와 예조 직방(直房)에 같이 가자고 약속하였는데, 공서가 사랑(舍廊)에 들어갔다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몹시 기다리다가 홀로 직방(直房)에 가서 《사원록》을 꺼내어 보고 이어 베껴 썼다. 또 정장(呈狀, 관청에 내는 소장)하는 일을 논하였더니,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므로 나와서 오는 길에 정초지(正草紙)³⁷¹를 사가지고 왔다. 十五日. 食前南溪 丁乃成來見, 入城後初見, 忻喜忻喜. 仍與朝飯, 與乃成及明生同典衣房洞 乃成主人暫話. 往大廟洞 公瑞舍館暫話, 與公瑞同往禮曹 直房之意相約, 而公瑞入舍廊, 終不出來. 苦待不已, 獨往直房, 出見《祠院錄》, 仍爲謄書. 又論呈狀事, 則不無所入, 預備爲好云, 故出來, 來路買正草而來.

371) 정초지(正草紙) : 과거 시험에 사용하던 시지(試紙), 즉 과지(科紙)를 말한다. 알성시·정시 등 친림시 시지로 사용되었는데, 도련지보다는 지질이 떨어지는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였다. 응시자들은 시험보기 이틀 전에 응시자로 등록하는 녹명(錄名)의 절차를 밟았는데, 미리 준비한 시지와 사조(四祖)의 신원을 기록한 녹명단자를 함께 제출하면 녹명을 담당할 관원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녹명책에 이름을 올린 후 시지의 불함부분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면 이 시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정식 응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6일. 아침을 먹은 뒤에 명생(明生)과 과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소문(西小門) 밖 이희(李禧) 집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정초지(正草紙)에 타인(打印)하게 하였다. 이어 대묘동(大廟洞) 보성 접주인(接主人 주접(住接)하던 집의 주인) 집으로 갔다. 오후 비가 내리는 바람에 반촌(泮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성 접주인 집에서 그대로 머물렀다.

十六日. 食後與明生入場次, 入去西小門外李禧家, 使主人正草打印. 仍往大廟洞 寶城接主人家. 午後雨所戲, 不得入泮村, 仍留寶城接主人家.

■17일. 정시(庭試)를 보는 날이다. 꼭두새벽에 동접(同接)들과 과장에 들어가려고 관문(關門) 밖에 갔더니, 날이 밝기 전이라서 연달아 매달아 놓은 등(燈)이 하나의 큰 장관이었다. 이어 성균관 아래 집춘문(集春門)³⁷²으로 가서 간신히 문에 들어서니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과거보는 유생들이 모인 것은 봄에 열린 과거에 건주어 못하지 않았다.

진시(辰時)가 되어 출제(出題)되었다. 표제(表題)는, 주(周) 나라 신하들이 하례하였는데, 우(虞)와 예(芮)가 송사하러 왔다가 국경에 들어오는 날에 밭갈이를 하는 자가 밭을 양보하고 길 가는 자가 길을 양보하자 물러나 다투던 밭을 한전(閑田)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고 의작(擬作)하라[擬周群臣賀虞芮來訟入境之日耕者讓畔行者讓路退以所爭之田爲閑田]³⁷³였다. 그런데 우리 동접들뿐만 아니라 과장 안의 거의 절반이 백지를 내고 나왔다. 우리도 백지를 내고 저물녘에 나왔다. 오는 길에 차동 우 참봉(禹參奉)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인집으로 나왔다.

十七日. 乃庭試日也. 曉頭與同接入場次, 往關門外, 則日未明, 而接接懸燈,

372) 집춘문(集春門) : 창경궁 동북쪽 담장에 있는 궁문으로, 문모가 마주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이 문은 후원의 동문으로, 태학(太學) 서쪽 반교(泮橋)와 제일 가까워 역대 임금들이 태학으로 나갈 때에는 이 문을 경유하였다고 한다.

373) 주(周) 나라 의작하라 : 주 문왕(周文王)이 서백(西伯)이 되어 덕을 쌓자 사방에서 귀의하였는데, 그때 우(虞)와 예(芮) 두 나라에서 서로 국경의 전답을 다투어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판결을 받고자 주 문왕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주나라 백성들이 밭두둑을 서로 양보하고 행인들이 어른에게 길을 양보하는 광경을 보고 크게 감화되어 그 길로 돌아와 다투던 전답을 묵히고 평화스럽게 지냈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詩經 大雅 綿》《史略 卷1 周》

一大壯觀也. 仍往成均館下集春門, 艱辛入門, 始開東矣. 科儒之會, 比春科不下矣. 辰時良出題, 而乃表題題則‘擬周群臣賀虞芮來訟入境之日耕者讓畔行者讓路退以所爭之田爲閑田’而非但吾接也, 場中居半, 曳白而出, 吾亦曳白, 乘暮出來. 來路入車洞 禹參奉家暫話, 出來主人家.

■18일. 아침을 먹고 9월 제술시험이 시(詩)라는 소식을 들었다. 느즈막이 우 참봉(禹參奉)의 집에 들어갔으나, 정 진사는 일찍 밥을 먹고 떠났다. 그길로 성균관으로 갔더니 명륜당(明倫堂) 안팎이 모두 유생들로 가득차서 동접들을 만날 수가 없어 배회하고 있을 때에 보성(寶城)의 윤 석사(尹碩士)가 정여흠(丁汝欠)과 공서(公瑞)가 앉아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가서 만났을 때, 마침 소낙비가 쏟아져 자리를 옮기려고 나와서 대문(大門) 사이에 있는 한 사람 옆에 앉았는데, 그 구차한 상황을 형언할 수가 없었다. 차문(借文, 남을 시켜 시문을 짓게 함)하여 써서 보냈지만, 시험관³⁷⁴이 들어가는 바람에 납번(納番)할 수가 없었다. 저물녘에 주인집으로 나왔다.

十八日. 朝飯聞九月製之詩. 晚後入去禹參奉家, 則丁進士朝食去矣. 仍往成均館, 則明倫堂內外皆滿, 不得相逢同接, 徘徊之際, 寶城 尹碩士指示汝欠與公瑞坐處. 往見之際, 適驟雨, 移接出來, 坐一者之大門間者, 其苟且之狀, 不可形言. 借文書送矣, 以試官之入去, 不得納番. 乘暮出來主人家.

■19일. 아침을 먹은 뒤에 행장을 꾸리고 만복(萬卜)에게 가서(家書)를 부쳤다. 회동(晦洞)의 장성(長城) 송운재(宋雲載)에게 가서 그 대인의 상(喪)에 조문하였는데, 장성은 현재 담복(禫服)³⁷⁵을 입고 있었다. 윗사랑에 올라가 장성(長城)의 삼촌인 익정(翼廷) 씨를 만나고, 다시 아래 사랑으로 와서 서울의 동종(同宗), 각처의 제종들과 여산(礪山)의 시조(始祖) 산소(山所)에 제각(祭閣)을 짓는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어 예조에 정장(呈狀)할 글의 초안을 청하였더니, 장성의 재종(再從)인 진사(進士) 현재(顯載)가

374) 시험관 : 저본의 ‘識’는 문맥상 ‘試’의 오키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375) 담복(禫服) : 담제에 입는 의복이다.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담제(禫祭) 때 입는 옷으로, 흰색이나 옥색(玉色)이다.

초안을 작성해 주어 소매 속에 넣어 왔다. 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우 참봉(禹參奉) 집으로 들어가 정여흠(丁汝欠)과 함께 묵었다.

十九日. 食後治送萬卜付家書. 往晦洞 宋長城 雲載, 吊其大人喪, 長城方在禪服中矣. 上上舍廊, 見長城之三寸翼廷氏, 還來下舍廊, 與京中同宗及各處諸宗, 議礪山始祖山所祭閣營建事. 仍請禮曹呈狀文字構草, 則長城之再從進士 顯載構草, 故袖來. 來路以日暮之致, 入禹參奉家, 與丁汝欠同宿.

■20일. 이른 아침에 대묘동(大廟洞)의 공서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으나 공서가 부재중이었다. 또 구례(求禮) 이지문(李志文)을 만나 돈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는데, 이지문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직방(直房)에 가서 정장(呈狀) 문자(文字)를 부치고 내일 다시 오기로 약속하였다. 난동(蘭洞)의 승지 이광문(李光文)의 집에 갔으나 도승지가 입궐하여서 만나지 못했다. 낙동(駱洞)³⁷⁶의 참판 광정(光貞)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재실기(西齋實記)》 한권을 주고, 그에게 큰 형인 승지 덕에 전달해 달라고 말한 뒤에 그의 종씨(從氏)인 보덕(輔德) 광헌(光憲)의 집으로 내려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주인집으로 나왔다. 우 참봉 집에 들어가니 주인은 출타하였고, 정 진사와 함께 머물렀다.

二十日. 早朝往大廟洞 公瑞所住處, 則公瑞不在. 且見求禮 李志文相議錢事矣, 李亦不在, 不得已獨往直房, 付呈狀文字, 而明日更來爲約, 而往蘭洞 李承旨 光文家, 則以都承旨入闕, 不得相面. 往駱洞 參判 光貞家, 敍話後, 仍納《西齋實記》一卷, 使之傳致於其伯氏 承旨宅之意言及後, 下來其從氏 輔德 光憲家. 暫話後, 以日暮之致, 不得出來主人家. 入禹參奉家, 則主人出他, 與丁進士同留.

■21일. 정 진사(丁進士)가 오늘 내려간다고 말하였는데, 나는 정장(呈狀)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이른 아침에 대묘동(大廟洞)에 가서

376) 낙동(駱洞)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충무로1가·명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타락(우유)을 파는 집이 있었으므로 타락골이라고 했으며, 한자명으로 타락동(駱駱洞, 駱駱洞), 줄여서 낙동(駱洞)이라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공서(公瑞)와 그 아들 참(參)을 만나서 돈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다만 20관뿐이라 했다. 돈을 가지고 예조 직방(直房) 앞의 술집으로 가서 안인성(安寅成)을 기다렸다.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예조 본부에 일이 있어서 현재 본부에 있다기에 급히 갔다. 안리(安吏)와 함께 직방(直房)으로 와서 정장(呈狀)을 찾아보았더니, 제사(題辭)가 과연 뜻대로 되어 있어 다행스러웠다. 이어 약간의 물건을 주고 급히 대묘동(大廟洞)으로 가서 공서와 내일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회동(晦洞)³⁷⁷에 갔더니 여산(礪山) 제각(祭閣)에 관한 일로 통문(通文)을 주어서 가지고 왔다. 오는 길에 차동(車洞)의 이희(李堦) 집에 들렀으나 주인이 부재중이라서 작별하지 못하였다. 민치항(閔致恒)의 집에 들러 작별 인사한 다음, 그의 아우 민치명(閔致明) 집에 들어갔으나 마침 출타하여 작별하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럽다.

저녁에 주인집에 이르니 공서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 명생(明生, 명두엽(明斗燁))도 와서 그대로 함께 묵었다. 대개 내일 동행하여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二十一日. 丁進士今日下去爲言, 而余則以呈狀之致, 不得同行, 欠事欠事. 早朝往大廟洞, 見公瑞與其子參, 以錢相議, 只以二十貫云, 故持去禮曹 直房前酒家, 待安寅成矣. 稍久不來, 故問其故, 則有事於禮曹本府, 方在本府云, 故急往. 與安吏偕來直房, 推尋呈狀, 則題辭果爲如意, 可幸. 仍給略干物, 急往大廟洞, 與公瑞約以明日同行. 往晦洞, 則以礪山祭閣事通文以給, 故持來. 來路入車洞 李堦家, 則主人不在, 不得作別. 入閔致恒家, 仍爲作別. 入其弟致明家, 適出他, 不得作別, 可歎耳. 暮抵主人家, 則公瑞來待矣. 夕飯後, 明生亦來, 仍爲同宿. 盖明日同行, 下鄉之意也.

■22일. 아침 전에 공서와 함께 문내(門內)로 가는 길에 안리(安吏, 예조 서리 안인성)를 만났다. 문외(門外)의 안리(安吏)는 내가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주인집으로 온 것이었다. 이어 함께 경주인(京主人) 집에 갔다가 그길로

377) 회동(晦洞)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인현동1가·인현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작별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짐을 지고 길을 나섰다. 강을 건너 남태령(南泰嶺)에서 점심을 먹었다. 갈산점(葛山店)³⁷⁸에 이르자, 먼저 들어온 한 조관(朝官)이 있어 그에게 물었더니, 바로 천안(天安)에 사는 현진상(玄鎭祥)이라 하며 지금은 이조 정랑(吏曹正郎)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됨이 단아하였는데,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머물렀다. 40리를 갔다.

二十二日. 朝前與公瑞偕往門內之路逢安吏. 門外安吏, 爲見吾發行之意, 來于主人之家之意也. 仍與同往京主人家, 仍爲作別, 還來主人家. 朝飯後, 負卜發程, 越江抵南泰嶺中火. 抵葛山店, 則有先入一朝官問之, 則乃天安居玄鎭祥, 而今爲吏曹正郎也. 爲人端雅, 而仍與談話同留. 行四十里.

■23일. 새벽에 출발하여 화성(華城)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이침(泥砧)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진위(振威, 경기도 평택 옛 지명)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二十三日. 曉發抵華城朝飯, 抵泥砧中火, 抵振威留宿. 行八十里.

■24일. 먼저 출발하여 소사(素沙)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성환(成歡)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천안(天安) 삼거리(三巨里)에 이르러 해남(海南) 최진욱(崔震煜)을 만나 함께 머물렀다. 90리를 갔다.

二十四日. 先發抵素沙朝飯, 抵成歡中火. 抵天安三巨里, 逢海南 崔震煜同留. 行九十里.

■25일. 새벽에 출발하여 덕평(德坪)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차령(車嶺)을 넘어 광정(廣亭) 송상철(宋相喆)의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객점으로 나와 점심을 먹었다. 일신역(日新驛)³⁷⁹에 이르러 묵었다. 90리를 갔다.

二十五日. 曉發抵德坪朝飯. 越車嶺, 入廣亭 宋相喆家暫話, 而來于店中火.

378) 갈산점(葛山店)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내손동 경계인 갈뚝(갈미)마을이다. 갈산점은 조선시대에 광주군 의곡면에 속했다가 1914년에 수원군 의왕면이 되었다.

379) 일신역(日新驛)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에 위치한 중앙선의 철도역이다.

抵日新驛留宿. 行九十里.

■26일. 새벽에 출발하여 금강(錦江)을 건너려는데, 하늘이 아직 밝지 않아 달빛이 희미하고 등성등성 별빛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사공을 불러 금강을 건너와 판치(板峙)에서 아침을 먹었다. 초포(草浦)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올목(兀木)에 이르러 묵었다. 90리를 갔다.

二十六日. 曉發越錦江, 天未曉而月色依微, 疏星錯落. 呼船工渡來, 而至板峙朝飯. 至草浦中火, 至兀木留宿. 行九十里.

■27일. 새벽에 출발하여 황화정(皇華亭)에 이르자, 새벽빛이 이제 막 밝아왔다. 전라도의 첫 경계에 들어섰으므로 각각 시 한편을 지었는데, 공서가 먼저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이제야 전라도 경내로 들어오니	始入全羅境
때마침 새벽빛이 막 밝아오누나	時當曉色新
우리 전라도 길이라 하니	道吾之道也
정신이 한층 더 상쾌해졌네	快活更精神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경내로 들어서니 내 마음 한결 기쁘고	入境吾心喜
먼동이 트니 날이 점차 새로워지네	開東日漸新
오늘 아침 두 가지의 아름다움 함께하니	今朝兼二美
이제야 정신이 상쾌해지는구나	方覺爽精神

최진욱(崔震煜)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이른 새벽 우리 경내로 들어오니	凌晨入我境
고향의 맛 차츰차츰 생겨나 새롭네	鄉味漸生新

하늘이 어리석은 생각 한이 될 줄 알아
아침 햇살 비취 정신을 맑게 하네

天知恨迷意
初日照精神

이어 대추(大棗)와 떡을 사 먹고, 최진욱과 작별하였다. 소로(小路)에 들어가 여산(礪山)의 심천(深川)에 이르러 일가인 송함보(宋涵甫)와 아침을 먹고, 이어 <제각중건통문(祭閣重建通文)>을 전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여산읍(礪山邑)에 이르러 호산춘(壺山春)³⁸⁰을 사서 마시고 신점(新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삼례(參禮)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二十七日。曉發至皇華亭，曙色初明，全羅初境，故各作一聯，公瑞先吟曰：“始入全羅境，時當曉色新。道吾之道也，快活更精神。”余次曰：“入境吾心喜，開東日漸新。今朝兼二美，方覺爽精神。”崔震煜次曰：“凌晨入我境，節味漸生新。天知恨迷意，初日照精神。”仍買棗餅相食，與崔作別。入小路至礪山深川，與宋涵甫同宗朝飯，仍傳致<祭閣重建通文>。曉發抵礪山邑，買壺山春，至新店中火，至參禮留宿。行七十里。

■28일. 새벽에 출발하여 보성 대곡(大谷)의 이 석사(李碩士), 울촌(栗村)의 종인(宗人)과 동행하여 왈천(曰川)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부내(府內)의 서문(西門) 밖 전성철(全聖哲) 집에 이르자 진사 정여흠(丁汝欠)이 먼저 와서 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 두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여흠이 먼저 떠났다. 나는 공서와 북문 밖의 종인(宗人) 송민수(宋民洙) 집을 찾아가 제각통문(祭閣通文)을 전하고 유숙한 것은 영문(營門)의 《사원록(祠院錄)》에 재록하기 위해서였다. 서재(書齋)에서 묵고 있는데, 주인 송약수(宋若洙)의 백씨(伯氏)가 백대(百代)의 정의(情誼)로 반기며 우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직접 가서 술을 사 마시다가 객이 모두 취해서 돌아왔으니 그 마음이 매우 살뜰하였다.

二十八日。曉發與寶城 大谷 李碩士及栗村宗人同行，抵曰川朝飯。至府內

380 호산춘(壺山春) : 참쌀과 멥쌀로 세 번 빚은 술이다. 전라북도 여산(礪山)의 특주로서 여산의 별호가 호산(壺山)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술의 특징은 밀술을 두 번 담그고 다시 덧술을 하여 세 번을 담그는 데 있다. 조선 중엽 이후의 《산림경제》《주방문(酒方文)》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西門外全聖哲家，丁進士 汝欠先來，而留在此家，而數時談話，汝欠則發行，而余則與公瑞，訪于北門外宗人宋民洙家，傳祭閣通文留宿，欲爲營門《祠院錄》中載錄之意也。留宿書齋，而主人若洙之伯氏，而忻然有百代之誼，偕吾二人親往酒家，沽酒相飲，主客醉而歸，其意最爲慰勳。

■29일. 아침을 먹기 전에 출발하려고 하니 송민수(宋民洙)가 돈 1전 5푼으로 아침밥을 사먹으라고 주었다. 노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시 동(銅) 1관(貫)을 빌려 쓰기를 청하니, 송약수(宋若洙)가 한 젊은 종인(宗人)을 불러와 돈 2전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한 자리의 술값이나 하라며 도움을 주었다. 아침에 전성철(全聖哲)의 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은 뒤에, 유석하(柳錫夏)와 영운(永允)을 데리고 함께 서문(西門) 안의 송덕진(宋德璿) 집에 갔다. 그 사람은 바로 여산(礪山) 송(宋)씨로 부내(府內)에 살고 있을 때 나주(羅州) 주인이 되었는데, 영저(營底)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예방 영리(禮房營吏)³⁸¹인 정읍(井邑) 이동환(李東煥)과 주객(主客) 사이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몇 자 써주기를 청하자, 송덕진이 그의 가동(家僮, 어린 사내 종)을 불러 우리 두 사람을 영청(營廳)에 데리고 가서 예리(禮吏)에게 편지를 전하니 아전이 찾아내었다. 지난번 상경했을 때에 육충사(六忠祠) 열록(列錄)을 기록해 두었다가 《사원록》에 재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은 아직도 선화당(宣化堂)에 있고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리가, “안에서 나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착실히 기록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하고 돌아오니 마음이 매우 답답하였다.

장흥(長興) 벽사역(碧沙驛)의 역리(驛吏) 김방업(金邦業)은 재작년 오촌(鰲村)으로 가는 길에 마침 낙안 도중에서 만나 그대로 길동무하며 간 영저(營底)의 사람이다. 나와 정이 있어 육충사(六忠祠) 재록하는 일을 편지로 부탁하였는데, 그 조용한 때를 이용해서 예리에게 부탁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여 말했다. 돌아올 때 또 송덕진(宋德璿)을 만나 다시 편지로 부탁하고는 그대로 출발하여 남문 밖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정자동(亭子洞)에 이르러 묵었다. 25리를 갔다.

381 예방 영리(禮房營吏) : 예방은 조선 시대 지방관서에서 예전(禮典)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향리를 말하고, 영리(營吏)는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말단 관리를 말한다.

二十九日. 食前欲爲離發, 則民洙以一錢五分錢, 買食朝飯之意給之. 路貫不足, 故更請一貫銅貸用, 若洙招來一少宗人, 二錢持來云, 而惠以一時之酒債矣. 朝到聖哲家朝飯後, 與携錫夏、永允, 偕往西門內宋德璿家. 其人卽礪山之宋, 而居在府內時, 爲羅州主人, 而營底之有權者也. 其人與禮房營吏 井邑 李東煥, 主客相親之間, 故請以數字書, 則其人呼其家僮, 陪我二人往于營廳, 傳書于禮吏, 吏搜出. 頃者上京時, 書托六忠祠列錄, 欲載《祠院錄》矣. 右錄尙在宣化堂, 姑未出來, 故其吏言, “內待後出來之日, 着實載錄.”云, 故未得親見載錄而歸, 心甚忒忒. 與長興 碧沙驛吏金邦業, 卽再昨年鰲村之行, 適逢樂安路中, 仍爲作伴於營底之人也. 與我有情故, 書托六忠祠載錄事, 而乘其從容時, 言屬禮吏之意, 申申言之. 來時又見宋德璿, 更爲書托, 而仍以發行, 抵南門外中火, 抵亭子洞留宿. 行二十五里.

▪30일. 새벽에 출발하여 소로(小路)로 들어가자 임실(任室) 방동(房洞)의 동종(同宗)인 송염(宋濂) 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길을 나서려고 하니 주인이 한사코 만류하였다. 하늘에서도 가랑비가 내려 그 집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통문 1건을 베껴서 맡겨 두고 차차로 전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였다.

晦日. 曉發入小路, 抵任實 房洞同宗濂家朝飯. 欲爲發程, 則主人固挽. 天又細雨, 仍留其家, 而通文一件臚出留置, 次次飛傳之意言托.

▪10월 1일.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말치를 넘어 평당(平塘)의 종인(宗人)인 송계천(宋啓天)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곳의 종인(宗人)인 필동(弼東) 씨 형제가 서울에서 내려와 오촌(鰲村)으로 들어왔다고 하므로 장식(丈席)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에 오후에 곧바로 출발하여 사동점(蛇洞店)에 이르러 묵었다. 60리를 갔다. 밤중에 방구들이 얼음장 같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몹시 화가 났다. 새벽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먼동이 트자 닭이 막 울어대고
찬 새벽 시내물 소리 요란하네

曉色鷄初唱
寒聲澗有鳴

객창의 방구들 얼음장 같아 잠 못 이루니
손가락 꿈으며 앞길을 헤아려 보네

旅窓睡未穩
屈指計前程

공서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조룡산 내려가는 길에
새벽부터 눈 내리고 거센 바람 이는데
동종과 길동무하며 함께 오니
기나긴 여정의 지루함도 잊었어라

鳥龍山下路
晨發雪風鳴
同宗同作伴
忘却步長程

十月初吉. 仍朝飯後發程, 越斗峙, 至坪塘宗人啓天家中火, 而入此之意, 此處宗人弼東氏兄弟, 自京下來, 入于鰲村云, 故欲探其丈席之消息矣. 尙未下來, 故午後卽發, 至蛇洞店留宿. 行六十里. 夜間以突冷之致, 不得抵寢, 可憤可憤. 曉間吟成一絕曰: “曉色鷄初唱, 寒聲澗有鳴. 旅窓睡之穩, 屈指計前程.” 公瑞次曰: “鳥龍山下路, 晨發雪風鳴. 同宗同作伴, 忘却步長程.”

▪2일. 일찍 출발하여 은산(殷山)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소로(小路)로 들어가서 험준한 고개 하나를 넘어 도산(道山)의 족질(族姪)인 송필흥(宋弼興)의 집에 찾아갔다. 점심을 먹고 출발하려는데 주인이 한사코 만류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30리를 갔다. 닭을 잡아 잘 대우해 주니 매우 기뻐했다. 初二日. 早發抵殷山朝飯. 入小路, 越一峻嶺, 訪道山族姪弼興家. 午飯欲爲離發, 則主人堅挽, 故仍留宿. 行三十里. 殺鷄以善待, 可嘉.

▪3일. 새벽밥을 먹고 동틀 무렵에 길을 떠났다. 순자강(尊子江)을 건너 불노치(不老峙)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영귀정(咏歸亭) 마을 뒤편에 이르러 영귀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길에서 송국필(宋國弼)을 만나 몇 마디 말을 나누다가 영귀정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광청(廣淸)에 이르렀다. 마침 원동(院洞)의 이 석사(李碩士)를 만나 몇 마디 말을 나누다가 이 석사는 그의 집에 들어가고, 나는 공서(公瑞)와 주막(酒幕)에 머물렀다. 주막에는 먼저 들어온

염상(鹽商) 한 사람이 있었다. 함께 이 석사 집 앞에서 머물렀다. 90리를 갔다.
 初三日. 仍曉飯平明發程, 越葦子江, 至不老峙午飯. 抵咏歸亭村後, 欲入歸
 亭之際, 適逢國弼於路次, 數語而不入歸亭, 直抵廣清, 適逢院洞 李碩士數
 語, 而李碩士入其家. 余則與公瑞留酒幕. 幕則有先入鹽商一人矣. 同留李
 之家前也. 行九十里.

■4일. 함께 머물렀던 염상에게 집을 지게하고 동틀 무렵에 출발하였다. 낙수(洛水)에 이르러 공서와 헤어지면서 절구 한 수를 읊었다.

객지에서 우연히 만나니 기약했던 것보다 기쁘네	客地偶逢勝有期
중양절이라 누런 국화꽃마저 한창이네	維當重九菊花時
한 달 남짓 함께 고생하여 서운한 맘 사무치니	月餘同苦猶餘愴
이별에 임하여 다시 석별의 시를 읊노라	臨別還成惜別詩

공서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중도에서 만나자는 기약도 없이 만나	中路相逢以不期
저물면 머물고 새벽에 길 떠나기를 각각 때를 따랐네	夕留晨發各隨時
동행하여 동종의 정의가 배나 간절한지라	同行倍切同宗誼
이별에 임하여 몇 구의 시를 읊어보노라	臨別吟來數句詩

또 내가 한 수를 읊었다.

다리가 갈림길에 흰 구름이 일어나고	別路橋邊起白雲
낙엽 진 이별의 정자에서 헤어짐이 애석하네	離亭葉下惜相分
재삼 우두커니 서서 앞으로 가는 길 물어보고	再三立立前頭問
강가로 고개를 돌리며 어서어서 가시라 하네	回首江頭早早云

공서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고개 돌려 남쪽 팔영산의 구름 바라보다	回首南看八影雲
걸고 걷다 낙수에 와서 함께 온 길 갈라지네	行臨洛水路相分
동쪽 강물 하나의 띠처럼 넘실넘실 흘러가는데	東流一帶洋洋去
누구에게 이별하는 심회의 장단시를 말할거나	誰與離懷長短云

그길로 작별하였는데, 천리 길을 함께 고생을 한 뒤라서 그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길을 재촉하여 낙안의 기동(基洞) 어귀 정문등(旌門登)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주막 앞에서 여러 차례 이경오(李敬五)를 불렀는데 끝내 답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기별을 통하게 하였으나 경오(敬五)는 출타 중이고, 그의 대인(大人, 경오의 아버지)이 문 앞에 서서 내가 바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는 내게 그 집에 들어가 묵어가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쁜 탓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령(西嶺)을 넘어 추동(楸洞) 주막에 이르렀다. 염상과 서로 헤어지고 나서 집을 지고 벌교 시장 근처에 이르러 운동(輪東) 군직(君直) 씨를 만나서 동행하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밤을 틔타 용전(龍田) 무안(茂安) 댁에 들어가 유숙하고 나서야 비로소 집안 소식을 알게 되었다. 우선 별탈이 없다고 운운(云云)하니 매우 다행이었다. 90리를 갔다.
 初四日. 負卜於同留鹽商, 平明發抵洛水. 與公瑞相分, 仍吟一絕曰: “客地偶逢勝有期, 維當重九菊花時. 月餘同苦猶餘愴, 臨別還成惜別詩.” 公瑞次日曰: “中路相逢以不期, 夕留晨發各隨時. 同行倍切同宗誼, 臨別吟來數句詩.” 又吟一絕曰: “別路橋邊起白雲, 離亭葉下惜相分. 再三立立前頭問, 回首江頭早早云.” 公瑞次日曰: “回首南看八影雲, 行臨洛水路相分. 東流一帶洋洋去, 誰與離懷長短云.” 仍與作別, 千里同苦之餘, 其懷難抑. 促行抵樂安 基洞前旌門登療飢. 於幕前頻呼李敬五, 則終不答, 故使人通奇, 則敬五出他, 其大人立于門前, 知余之直過, 請余入于其家留宿而去云云, 而以行忙之致, 不得入去, 越西嶺, 抵楸洞酒幕. 與鹽商相分, 仍爲負卜, 抵筏橋市邊, 逢輪東 君直氏, 仍爲同行, 日已暮矣. 乘夜入龍田 茂安宅留宿, 始知家間消息. 姑無故云云, 幸幸. 行九十里.

■5일. 아침을 먹은 뒤에 가교(柯橋) 댁에 갔다가 머물다 가라 붙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初五日. 食後往柯橋宅, 以挽留之致, 仍留.

▪6일. 문대(文大) 씨, 미옥(美玉)과 유둔(油屯) 시장 근처에 갔더니 문중(門中)의 노소(老少)들이 내가 내려왔다는 기별을 듣고 몇몇이 모여 있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요기한 뒤에 짐을 지고 들어와 과역(過驛)에 이르자 날이 이미 저물었다. 밤을 틈타 집으로 돌아오니 밤은 이미 3경이었다. 初六日. 與文大氏及美玉, 往油屯市邊, 則門中老少, 聞余下來之奇, 略干來會, 仍與移時談話, 療飢後, 負卜入來, 至過驛, 則日已暮矣. 乘夜還家, 夜已三更矣.

정해년(1827) 9월 일

丁亥九月日

정해년(1827) 5월 순찰사(巡察使)가 먼저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으므로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하였다.

丁亥五月, 巡相以書先問, 故以回謝之意.

▪9월 25일. 길을 나서 과역(過驛)에 이르렀다. 잠시 쉬고 나서 구룡정(九龍亭)에 들어가니 남양(南陽)의 종친들이 마침 많이 모여 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사교(四橋) 댁에 이르러 묵었다.

九月二十五日. 發程抵過驛, 暫憩後, 入九龍亭, 則南陽諸宗, 適多會暫話, 暮抵四橋宅留宿.

▪26일. 문대(文大) 씨, 미옥(美玉)과 함께 돌곶이 시장 근처에 가서 문중의 종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교(四橋)로 돌아와서 묵었다.

二十六日. 與文大氏及美玉, 往芻串之市邊, 與門中諸宗相話, 而還來四橋留宿.

▪27일. 길을 나서 추동점(楸洞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기동의 좌수(座首) 이형립(李亨立)의 집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七日. 發程抵楸洞店中火, 抵基洞 李座首 亨立家留宿.

▪28일. 길을 나서 천평(泉坪)³⁸²에 이르러 묵었다.

二十八日. 發程抵泉坪留宿.

▪29일. 길을 나서 용계점(龍溪店)에서 점심을 먹었다. 곡성(谷城) 교촌(校村) 오익(吳燧)의 집에 이르러 묵었는데, 오익은 바로 천평(泉坪) 고창진(高

382) 천평(泉坪)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천평마을이다.

昌鎭)의 사돈집이다. 고창진의 아들이 현재 처가에 있기 때문에 만나 보려고 왔다. 이날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아서 몹시 괴로웠다.

二十九日. 發程抵龍溪店中火. 抵谷城 校村 吳燧家留宿, 吳燧即泉坪 高昌鎭 查家也. 昌鎭之子, 方在其妻家, 故欲見而來矣. 是日風日極不佳, 苦哉苦哉.

■10월 1일. 길을 나서 오수(鰲樹)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임실 국평(菊坪)³⁸³에 이르러 마을 어귀의 주점(酒店)에 노복과 말을 머물게 하고 종인(宗人) 송기렴(宋基濂)의 집에 들어갔으나, 종인은 마침 출타 중이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의 아들을 보냈다. 저물녘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길을 떠나지 못하였는데, 하서의 맏아들 전(楸)이 눈병을 앓은 지 지금 몇 달이 되어 현재 병으로 누워 있다고 하니, 매우 걱정스럽다. 저녁을 먹은 뒤에 하서와 함께 노복과 말이 있는 주점(酒店)으로 나와서 묵었다.

十月初吉. 發程抵鰲樹中火. 抵任實 菊坪, 留奴馬於村前酒店, 入宗人基濂家, 則宗人適出他矣. 以偕來之意, 送其子矣. 乘暮入來, 故不得發程, 而夏瑞之長子楸, 以眼疾今至數朔, 方在病臥云, 爲之悶悶. 夕飯後, 與夏瑞出來 奴馬所在酒店留宿.

■2일. 하서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막집 사내를 시켜 아침밥을 장만하여 올리라고 하였기에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말치[斗峙]를 넘어 노고암(老姑岩) 주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부내(府內)에 도착하여 영주인(營主人) 집에 들어갔으나 주인은 흥양(興陽)으로 내려가고, 주인의 아우가 마침 집이 있었는데 접대하지 못한다고 하니 몹시 민망하였다. 어쩔 수 없이 서문(西門) 밖 전성철(全聖哲)의 집에 가서 묵었다.

初二日. 夏瑞持來鷄一首, 使酒幕漢供進朝飯云, 故仍朝飯發程. 越斗峙, 抵老姑岩酒店中火. 得達府內, 入營主人家, 則主人下去興陽, 主人之弟, 適有家而不得接待云, 可悶可悶. 不得已抵西門外全聖哲家留宿.

383 국평(菊坪)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3일. 아침에 북문 밖에 가서 송약수(宋若洙) 씨를 만난 다음, 그의 아우인 송민수(宋民洙) 네 작은집을 찾아 갔는데 외출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결국 가랑비 때문에 막혀서 그대로 머물렀다.

初三日. 朝前往北門外, 見宋若洙氏, 尋其弟民洙小家, 則出外故不見, 而還來主人家. 是日終爲微雨所阻仍留.

■4일. 종일 비가 내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답답하였다. 저녁을 먹을 때에 길손 한 명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바로 연산(連山)에 사는 이 석사(李碩士)인데 순찰사의 일가라고 하였으며, 그의 이름은 이종수(李宗洙)였다. 건넌방에 보은(報恩) 손님이 며칠을 머물러 있었는데, 밥을 먹은 뒤에 마침 우리가 머무는 곳에 왔다. 그래서 그 성명을 물어 보니 윤제대(尹濟大)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나이를 물으니 나와 갑생(甲生)이었다. 그가 온 연유를 물었더니, 역전(櫟泉) 선생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과 각 고을 향교(鄉校)와 서원(書院)의 규례대로 돈을 수합하는 일을 순상(巡相)에게 청탁하려고³⁸⁴ 이 주막에 와서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묵었다.

初四日. 終日雨不得出外, 悶悶. 夕食時, 有一客入來, 故與之相話, 則乃連山居李碩士, 而與巡相一家云, 其名則宗洙矣. 越房有報恩客留連, 而食後適來吾留處, 故問其姓名, 則尹濟大爲名人, 問其年, 則與吾甲生. 問其來由, 則以櫟泉先生建院事, 各邑校院例付錢收合事, 稱念於巡相之意, 來留此幕云. 與之談話, 仍爲同宿.

■5일. 아침을 먹은 뒤에 이 석사(李碩士)와 남문 밖의 주점(酒店)에 가서 관아의 한 사람을 기다렸다. 끝내 오지 않았으므로 나는 영문(營門) 밖에 가서 마두 영리(馬頭營吏)를 불러 면회를 요청하도록 분부하였더니, “매우

384 청탁하려는 : 원문의 ‘칭념(稱念)’은 관원이 외방에 나아갈 적에 고관들이 사적으로 은근히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成宗實錄)》 9년 4월 8일 조에 “수령이 부임할 적에 그 지방 출신의 공경대부들이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전별하며 자기 노비들을 잘 봐 달라고 청하는 것이 상하 간에 풍속을 이루었는데, 이를 일러 칭념이라고 하였다.[凡守令之赴任也, 公卿大夫, 知與不知, 皆持酒肉而餞之, 請其奴婢完護, 上下成俗, 名之曰稱念.]”라는 말이 나온다.

어렵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두서너 번 부탁의 말을 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임실(任實)의 하서(夏瑞)가 들어왔다. 올라올 때 서로 약속하였는데, 기일에 맞추어 도착하였으니 다행이었다. 그대로 함께 머물렀다.

初五日. 食後與李碩士, 往南門外酒店, 待衙家一人矣. 終不來故, 余則往營門外, 招馬頭 營吏, 以通刺之意分付, 則答曰: “極難”云. 數三言托, 而終無聽從, 故不得已還來主人家. 夕飯後, 任實 夏瑞入來, 上來時相約矣, 及期來到, 可幸. 仍與同留.

■6일. 아침 전에 하서(夏瑞)와 남문(南門) 밖에 있는 석하(錫夏) 유영륜(柳永倫)의 집에 가니 영륜(永倫)이 매우 기뻐하며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밥을 먹은 뒤에 함께 목산(木山)의 이 감사(李監司) 집에 가서 감사의 손자 이서림(李瑞林)을 만났다. 주인은 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나와 세의가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었다. 영륜이 내가 올라온 연유를 말하였더니 이 석사가 말하기를, “마침 내가 병으로 누워있으니 영문(營門)에 통자(通刺)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돌아와 그길로 두 벗과 함께 송덕근(宋德瑾)의 집을 찾아 갔으나, 이제 막 영고(營庫)의 색리(色吏)³⁸⁵가 되어 지금은 영고(營庫)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의 아우 송덕찬(宋德燦)의 집으로 갔다. 내가 올라온 연유를 말하고, 통자할 길이 없으니 혹여 주선하여 힘써 줄 수 있겠냐고 하자 곧바로 마두(馬頭, 역마(驛馬)를 맡아보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 주었다. 마두(馬頭) 또한 응하지 않아 그길로 영고(營庫)에 갔다. 송덕근을 만나 그 연유를 말하였더니, 순상(巡相)의 서간(書簡)과 나의 명함(名銜)을 중방(中房)에 들여보냈다. 잠시 후에 들어오라는 명이 있기에 그길로 들어가 만나보았다. 순상에게 안부를 물은 뒤에 해가 지려고 하니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주인집으로 왔다. 하서, 영륜과 함께 머물렀다.

385) 색리(色吏): 지방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처리하던 하급 관리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는 향리(鄉吏)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初六日. 朝前與夏瑞, 同往南門外柳錫夏 永倫家, 永倫欣喜不已, 仍饋朝飯. 飯後偕往木山 李監司家, 見監司之孫瑞林, 則主人病臥不起, 稍知與吾世誼矣. 永倫敍吾上來之由, 則李碩士曰: “適吾病臥, 無營門通刺之道.” 故還來仍與二友, 尋宋德瑾家, 則今才營庫色, 方在營庫, 故不見而往其弟德燦家. 敍吾上來之由, 以通刺無路, 其或旋力耶? 仍爲裁書馬頭矣. 馬頭亦不應, 仍往營庫, 見德瑾敍其由, 則以巡相書簡與吾之名啣, 入送於中房矣. 俄而有入來之令, 故仍爲入見. 巡相敍寒暄後, 以日力之就有不能長話, 出來主人家, 與夏瑞及永倫同留.

■7일. 하서가 노복과 말을 거느리고 김제(金堤)³⁸⁶에 갔다. 오후에 비 때문에 막혀서 영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인집에 머물렀다.

初七日. 夏瑞仍率奴馬往金堤. 午後爲雨所阻, 不得入去營門, 仍留主人家.

■8일. 비가 와서 종일 주인집에 머물렀다. 올 때에 천평(泉坪)에 들어가 상삼(象三)과 서로 약속하였는데, 낮에 상삼이 들어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 고을 사원(祠院)의 사적(事蹟)을 감영(監營)에 보고하는 일에 대해 물었더니, “특별히 다른 뜻은 없고 각 사원의 사적(事蹟)을 보고자 한 것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밤이 깊은 뒤에 나와서 상삼과 함께 머물렀다.

初八日. 雨終日留主人家. 來時入泉坪, 與象三相約矣, 午間象三入來. 夕飯後, 入宣化堂談話, 而問其各邑祠院事蹟報營事, 則答曰: “別無他意, 欲觀各院事蹟云耳.” 夜深後出來, 與象三同留.

■9일. 아침을 먹은 뒤에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갔다. 상삼에게 일을 부탁하여 그 산송(山訟)에 관한 일을 건의하여 보냈는데, 마침내 제결(題決, 판결처분)을 얻어 오후에 나왔다. 하서가 김제(金堤)³⁸⁷에서 돌아와 이에 함께 머물렀다.

386) 김제(金堤): 저본의 ‘食堤’은 문맥상 지명으로, ‘金堤’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387) 저본의 ‘題’는 ‘堤’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初九日. 食後入宣化堂, 稱念象三, 以其山訟事立議送, 果如得題, 午後出來. 夏瑞自金堤還來, 仍與同留.

■10일. 밤에 비가 내렸다. 순상(巡相) 내행(內行)이 들어왔다고 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보은(報恩) 윤 석사(尹碩士, 윤제대(尹濟大)), 연산(連山)의 이 석사(李碩士)와 공북루(拱北樓)³⁸⁸ 아래에 가서 구경하고 왔다.

初十日. 夜雨. 巡相內行入來云, 故食後與報恩 尹碩士及連山 李碩士, 往拱北樓下, 觀光而來.

■11일. 아침을 먹은 뒤에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갔더니 순상(巡相)이 내아(內衙, 지방관아에 있던 안채)에 들어갔다고 하여 책방(冊房)으로 들어가 각처의 책객(冊客)³⁸⁹과 이야기하였다. 오후에 순상(巡相)이 선화당(宣化堂)에 나왔으므로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가 남겨 둔 서간(書簡)과 《충효록(忠孝錄)》을 찾은 다음 하직하고 나오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길을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十一日. 食後入宣化堂, 則巡相入內衙云, 入冊房與各處冊客談話. 午後巡相出宣化堂, 故入宣化堂, 推尋所留簡牘與《忠孝錄》, 仍爲下直而出來, 日已夕矣. 不得發程仍留.

■12일. 아침을 먹고 함께 머물렀던 윤 석사, 이 석사 등 여러 사람과 작별하였다. 이어 하서(夏瑞)와 길을 떠나 모람치에 이르러 묵었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태인(泰人)의 김영택(金永澤)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머물렀다.

十二日. 仍朝飯, 與同留尹、李諸人作別. 仍與夏瑞發程, 抵모람峙留宿. 偶逢一人, 則泰人 金永澤也. 與同留.

388) 공북루(拱北樓) :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었던 누각을 말한다. 조정에서 조령(朝令)을 받들고 사람이 내려올 때 부윤(府尹)이 나가 맞던 곳이다.

389) 책객(冊客) : 고을 수령의 비서(秘書)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으로 관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책방(冊房)이라고도 한다.

■13일. 새벽에 일어나니 말이 잘 먹지를 못해서, 나는 뒤처지고, 하서(夏瑞)와 김영택(金永澤)은 먼저 길을 나섰다. 나는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 저전우(楮田隅) 주점에 이르니 두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택과 작별하고 길을 나섰는데, 진창길에 무릎까지 빠졌다. 간신히 임실 운남(雲南)에 이르렀다. 하서(夏瑞)가 ■촌(■村)에 함께 들어가겠다고 하기에 그와 함께 들어가니 주인 최생(崔生)은 부재중이었다. 그대로 점심을 먹고 나니 하서가 돈 5전(錢)을 노자로 도와주었다. 곧바로 출발하여 가단(柯斷)에 이르러 묵었다.

十三日. 曉起鬻者不善食, 余則落後, 夏瑞與永澤先發程. 余則仍朝飯發程, 抵楮田隅酒店, 兩友待我矣. 與金也作別登程, 泥路沒膝, 艱抵任實 雲南. 夏瑞同入-缺-村云, 故與之同入, 則主人崔生不在. 仍爲午飯, 夏瑞得五錢錢購行, 故即發抵柯斷留宿.

■14일. 새벽에 출발하여 노령(蘆嶺)을 넘었다. 순창(淳昌) 읍내에 이르러 여막(旅幕)에 노복과 말을 남겨두고 화방재(畫舫齋)³⁹⁰에 갔다. 지난 10일에 내훈(乃勳)이 이곳에 와서 기다리다가 우리 일행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문암리(門岩里)로 들어가 문암리(門岩里)로 찾아오라는 뜻을 벽에 써 놓고 갔다. 그래서 교촌(校村) 뒤 주점으로 가 점심을 먹고, 길을 재촉하여 간신히 담양(潭陽)의 문암리를 찾아갔더니, 내훈이 내행(內行)³⁹¹을 거느리고 먼저 새벽에 길을 떠났다고 하였다. 교촌 뒤 주점(酒店)으로 돌아오니 밤이 이미 깊었다. 그대로 머물렀다.

十四日. 曉發越蘆嶺, 抵淳昌邑內, 留奴馬於旅幕, 往畫舫齋, 則去初十日, 乃勳來待此處, 以吾行之不及, 還入門岩里, 而尋門岩里來到之意, 書壁而

390) 화방재(畫舫齋) : 순창 읍성 관아에 달린 건물이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1957년에 편찬한 순창군지에 전하고 있다. 여암 신경준의 《여암유고》 권4에 기록된 <화방재기>에, “1769년에 세운 화방재는 당시 순창의 명승으로 알려진 응향각 주변에 자리했다. 응향각은 주위에 대숲과 나무들이 둘러싸 그윽한 맛이 있었으나 넓게 트인 경치를 볼 수 없어 응향각 서쪽 남지(南池)와 시내 사이 긴 언덕에 새로 누각을 세워 화방재라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391) 내행(內行) : 내행은 원래 길을 나선 부녀자를 말하는데,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여기서는 내훈(乃勳)의 안식구를 말하는 듯하다.

去, 故往校村後酒店中火. 促鞭艱尋潭陽 門岩里, 則乃勳率內行, 先曉發程云, 故還來校村後酒店, 則夜已深矣. 仍留.

■15일. 새벽에 출발하여 덕촌(德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물 무렵 영귀정(詠歸亭)에 이르러 묵었다.
十五日. 曉發抵於德村中火, 暮抵詠歸亭留宿.

■16일. 새벽에 출발하여 원동(院洞)의 이중규(李重奎) 집에 들어가니, 이우(李友)가 마침 다른 곳으로 나가고, 그의 부친 상엽(象燁) 씨가 있어서 아침을 먹었다. 곧바로 출발하여 사미정(四美亭)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장수동(長壽洞)으로 가려고 귀암(龜岩) 마을 어귀에 이르러 소로(小路)에 들어갔다. 갈용치(渴龍峙) 강이백(姜利伯)의 집에 들렀더니, 강생(姜生)이 마침 출타하였는데 날도 저물어 어쩔 수 없이 머물렀다. 밤에 비가 내렸다.
十六日. 曉發入院洞 李重奎家, 則李友適出他, 其大人象燁氏在, 仍爲朝飯. 卽發抵四美亭中火, 欲向長壽洞, 至龜岩村前入小路. 入渴龍峙 姜利伯家, 則姜生適出他, 而日力且暮, 不得已留. 夜雨.

■17일. 아침 전에 비가 내렸다. 느즈막이 길을 떠나 고개를 넘어 장수동(長水洞)에 이르렀다. 안 서방(安書房) 내외와 어린아이 모두 병이 없으니 매우 다행이었다. 그대로 머물렀다.
十七日. 朝前雨. 晚後發程, 越嶺抵長壽洞. 安書房內外與幼兒, 皆無病幸幸. 仍留.

■18일. 출발하여 주릿재³⁹²를 넘어 추동점(楸洞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사교(四橋)에 이르러 묵었다.
十八日. 發程越周老峙, 抵楸洞店中火. 暮抵四橋留宿.

392 주릿재 : 한자로 '주로치(周老峙)'라고도 한다. 벌교읍 추동리 대판이 마을 서쪽에서 존제산(尊帝山)을 넘어 울어면 유신리에 이어지는 고개이다. 긴 밧줄을 풀어놓은 것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새라고 하여 주릿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19일.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아 묵어 가려다가 지난달 길을 떠날 때에 천노(千奴)의 병이 위중하였는데, 아직 그 사이 생사가 어떠한지 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서둘렀다. 부득이 길을 떠나 구룡정(九龍亭)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과역(過驛)에서 점심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천노(千奴)의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나를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삼키는 것이 몹시도 참혹하였다.

十九日. 風日極不佳, 欲爲留宿, 而去月發行時, 千奴之病危重矣, 姑不知伊間生死之如何, 急於還家. 不得已發程, 入九龍亭暫話後, 抵過驛中火. 還家則千奴之病, 至於危境, 見我不言, 只飲泣之至, 慘矣慘矣.

무자년(1828) 4월 일

戊子四月日

무자년(1828) 4월 일, 《명현록(名賢錄)》을 간행하는 일 때문에 가서 보라고 문중(門中)에서 나에게 위임했다.

戊子四月日, 以名賢錄開刊事, 往見之意, 門中屬余故.

■4일. 출발하여 유천혜(柳千惠)의 집에서 묵었다.

初四日. 發行宿柳千惠家.

■5일. 가아(家兒)를 데리고 과역(過驛) 시장 근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신정(新亭) 정익후(鄭益后)가 3전의 돈을 노자로 도와주었다. 오는 길에 구룡정(九龍亭)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사교(四橋)에 이르러 묵었다.

初五日. 率家兒抵過驛市邊中火. 新亭 鄭益后以三錢助行. 來路入九龍亭暫話, 暮抵四橋留宿.

■6일. 밤에 내리던 비가 늦게야 맑아졌다. 오후에 시장 근처에 갔다가 왔는데, 문중(門中) 사람들이 비가 오는 탓에 오지 않아서 답답하였다.

初六日. 夜雨晚晴. 午後往市邊而來, 門中以雨戲之致, 不來悶悶.

■7일. 문중(門中) 사람들이 용전(龍田)에 와서 함께 모여 종일토록 문적(文蹟)을 수정(修正)하였다. 성리(城里)와 율지(律之)가 동행하겠다고 또한 나왔다.

初七日. 門中來會龍田, 終日修正文蹟. 城里 律之以同行之意, 亦爲出來.

■8일. 오전에 문적 수정이 다 끝났으므로 오후에 길을 나설 계획이었다. 중간촌(仲看村)의 박상현(朴祥顯)도 동행하겠다고 뒤늦게 말하였으므로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初八日. 午前文蹟修畢, 午後發程計矣. 仲看村 朴祥顯, 亦以同行之意追後云, 故不得發程, 仍留宿.

■9일. 아침을 먹은 뒤에 박우(朴友, 박상현(朴祥顯))가 마침 왔는데 행자(行資)를 아직 장만하지 못해서 11일에 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이에 길을 나서 장도(莊島) 시장에 이르니 송여옥(宋汝玉)과 신자운(申子允)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요기한 뒤에 길을 나서 서령(西嶺)을 넘어 정문등(旌門登)에 이르러 묵었다.

初九日. 食後朴友果來, 而以行資之未辦, 十一日發行爲言, 故仍爲發程, 抵莊島市, 宋汝玉 申子允來待矣. 療飢後登程, 越西嶺抵旌門登留宿.

■10일. 일찍 출발하여 모전등(茅田登)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나는 원동(院洞)에 들어가 잠시李宗엽(李宗燁) 어른을 만나 뵈고 출발하였다. 광천(廣川) 주막(酒幕)에 이르니 동행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쉬었다가 길을 나섰는데 가는 도중에 운자(韻字)를 부르며 여옥(汝玉)이 먼저 읊었다.

여행길에 함께 나선 두 노인과 두 소년
앞으로 가야할 길 영주에서 한양까지라네
대지팡이 짚고 걷고 걸으며 모두 말이 없으니
우리 무리 여러 사람인데 잠든 것만 같구나

二老行中兩少年
瀛洲前路漢陽邊
行行竹杖渾無語
吾黨諸人況若眠

율지(律之)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서울 길 나선 것이 몇 년 만이던가
이제는 귀밑머리 가득히 백발이 내려앉았네
지팡이 짚고 쇠한 다리로 간신히 걷노라니
나그네 맘 아득한데 잠잘 겨를 어디 있으랴

洛行經營問何年
今來白髮滿鬢邊
扶筇懶脚步步艱
客懷悠悠暇不眠

자운(子允)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백발 늙은이와 청년이 동행하여
한강 가를 향하여 길을 떠났어라

白首伴青年
路開漢水邊

마음속 말일랑 꺼리지 말아야지
흥취가 늦으면 오히려 잠을 재촉하리

莫諱心內說
興晚尙催眠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청년에서 노인까지 행장을 꾸려
태양 아래 멀리 서울 바라보며 가네
길동무 세 사람 모두 나의 벗이라
청아한 말 아끼지 않아 졸다 깨었네

行裝老路自青年
日下長安望眼邊
作伴三人皆我益
清談不惜警昏眠

저녁에 대초정(大抄亭)에 이르러 묵었다. 60리를 갔다.

初十日. 早發抵茅田登療飢, 余則入院洞, 暫見李丈 宗燁而發, 至廣川酒幕, 則同行留待矣. 暫憩後登程, 路中呼韻, 而汝玉先吟曰: “二老行中兩少年, 瀛洲前路漢陽邊. 行行竹杖渾無語, 吾黨諸人況若眠.” 聿之次曰: “洛行經營問何年, 今來白髮滿鬢邊. 扶筇懶脚步步艱, 客懷悠悠暇不眠.” 子允次曰: “白首伴青年, 路開漢水邊. 莫諱心內說, 興晚尙催眠.” 余次曰: “行裝老路自青年, 日下長安望眼邊. 作伴三人皆我益, 清談不惜警昏眠.” 暮抵大抄亭留宿. 行六十里.

■11일. 일찍 출발하여 석곡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또 절구 한 수를 읊었는데 율지(聿之)가 먼저 읊었다.

우리 일행 무작정 놀러 온 것이 아니니
매번 해 뜨기 전에 행장 꾸려 길을 재촉하네
용성³⁹³ 길에 접어들어 차례로 바라보노라면
넘실대는 맑은 물 굽이굽이 돌아 흘러가네

我行不是耽遨遊
每促行裝日未浮
路入龍城次第見
洋洋渟水曲幾周

393) 용성 : 용성(龍城)은 전라북도 남원시의 옛 이름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몇 발짝도 나가기 어려워 지팡이 짚고 나와
고단한 걸음 얼마나 걸어야 한강에 배 띄우려나
집을 떠나 비로소 용성 땅에 도착하니
맑은 물 이르자마자 다시 돌아 흘러가네

寸步難前杖出遊
間關幾日漢艤浮
離家始到龍城地
纔到渟江又浦周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천릿길 떠난 우리 일행 멋진 유람도 하는데
초심을 망각한 이 인생 허망하기만 하여라
어이 늘그막에 길을 나서 어이 그리 고생하나
매번 부러운 건 길 가득 덮은 짙은 그늘 뿐

千里吾行亦勝遊
初心忘却此生浮
路何老也尖何苦
每羨繁陰滿道周

자운(子允)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선조 은혜에 이미 배부른데 멋진 유람에 들떠
어느 날에나 서울에 닿아 회포를 풀거나
우리 여행길 경계하여 앞길만 보고 찾아가니
사방에 두루 펼쳐진 산 경치 다 두고 왔네

已飽先恩志勝遊
懷卷何日漢城浮
戒吾行李訪前路
行盡山光面面周

저녁에 남원 읍내에 도착하여 그 안에서 묵었다. 남문(南門) 밖 송만득(宋萬得)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 밥값으로 돈 1냥을 냈다. 송씨 성(姓)이라 하기에 그의 성관(姓貫)을 물었더니, 여산이 관향이라 하였다. 본래 이름이 석규(碩奎)인데, 영남 고령(高靈)에서 조금 살았다고 했다. 이날 70리를 갔다. 도중에 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석양빛 두른 사람의 그림자 동쪽에 머무는데
죽장 끌고 바삐 오니 성 안은 해가 저물었네

人帶斜陽影在東
忙携竹杖暮城中

누각 앞에 기이한 경관이 있는 듯하니
물에 스치는 수양버들 늦바람에 살랑이네

樓前若有奇觀處
拂水垂楊引晚風

율지(聿之)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해지는 석양에 달은 또 동쪽에서 떠오르고
지팡이³⁹⁴ 짚고 바삐 재촉하여 성안에 이르렀네
우리 선조의 훌륭한 교화 몇 년 전의 일이던고
향리가 순후하여 옛 풍도가 있구나

日暮斜陽月復東
鳩筇忙促到城中
吾先治化問幾年
鄉厚吏淳有古風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웅장한 해동에 용으로 이름난 성³⁹⁵
그 가운데에 모두 옹기종기 인가가 즐비하네
남쪽에서 걸어온 우리들 석양에 걸음을 재촉하니
눈 가득 보이는 경광 옛 나라의 풍경이로다

龍以名城壯海東
閭閻撲地盡其中
夕陽促我南來步
滿眼景光舊國風

자운(子允)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순자강³⁹⁶ 이북 산성의 동쪽
앞에는 연화가 그 가운데에 자욱하네
우리 가는 지름길을 어디 한번 물어보세
내일 아침 한강 누대에서 바람을 쐬고 싶네

淳江以北山城東
前有烟霞這箇中
借問吾行徑捷路
明朝欲及漢樓風

394 지팡이 : 원문의 '구공(鳩筇)'은 손잡이 부분을 비둘기 모양으로 조각한 지팡이로, 예전에 임금이나 많은 신하에게 비둘기처럼 소화를 잘 시키라는 의미에서 내려 주었다. '구장(鳩杖)'이라고도 한다.《後漢書 志5 禮儀中》《呂氏春秋 仲秋記》

395 용으로 이름난 성 : 남원의 교룡산성을 말한다.

396 순자강 : 순강(淳江)은 순자강(鶉子江)을 말한다. 위의 각주 54번 참조.

十一日. 早發抵石谷療飢. 又吟一絕, 聿之先曰: “我行不是耽遨遊, 每促行裝日未浮. 路入龍城次第見, 洋洋淳水曲幾周.” 余次曰: “寸步難前杖出遊, 間關幾日漢樓浮. 離家始到龍城地, 纔到淳江又浦周.” 汝玉次曰: “千里吾行亦勝遊, 初心忘却此生浮. 路何老也光何苦, 每羨繁陰滿道周.” 子允次曰: “已飽先恩志勝遊, 懷卷何日漢城浮. 戒吾行李訪前路, 行盡山光面面周.” 暮抵南原邑內宿, 南門外宋萬得家飯【錢一兩出】, 以宋爲姓, 故問其姓貫, 則以礪爲貫矣. 其本碩奎, 而才居嶺南 高靈云. 是日行七十里. 路中又吟一絕曰: “人帶斜陽影在東, 忙携竹杖暮城中. 樓前若有奇觀處, 拂水垂楊引晚風.” 聿之次曰: “日暮斜陽月復東, 鳩筇忙促到城中. 吾先治化問幾年, 鄉厚吏淳有古風.” 汝玉次曰: “龍以名城壯海東, 閭閻撲地盡其中. 夕陽促我南來步, 滿眼景光舊國風.” 子允次曰: “淳江以北山城東, 前有烟霞這箇中. 借問吾行徑捷路, 明朝欲及漢樓風.”

■12일. 일찍 출발하여 고개 아래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전석치(磚石峙)를 넘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푸른 벼랑의 흰 바위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그대에게 묻노니 어떤 승려가 소나무를 심었는가
방성의 웅장한 형세를 굽어보니
범이 꿰어앉은 듯 용이 웅크린 듯하여라
蒼崖白石最高峯
問爾何僧手植松
俯瞰方城雄壯勢
況如蹲虎又盤龍

율지(聿之)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전석치 봉우리 백보 오르고 또 오르니
보이는 건 면면이 이어지는 높고 낮은 소나무뿐
그대에게 청하노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일랑 꾸지말게
마음속에 경영한 구상대로³⁹⁷ 계룡으로 향하세나
百步登登磚石峯
但看面面高低松
請君莫作還鄉夢
意匠經營向鷄龍

397 마음속에 경영한 구상대로 : 원문의 '의장(意匠)'은 고안(考案)을 실제로 응용하는 일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시에 “경영하는 가운데 의장이 참담하다.[意匠慘淡經營中]”라고 하였다.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아침햇살 속에 천천히 걸어 저 언덕에 오르니	倦步朝陽陟彼岸
우뚝 솟은 오래된 바위 길고 짧은 소나무 있네	崢嶸老石短長松
살펴보니 곤륜산 줄기임을 알겠거니	看來認是崑崙脈
굽이굽이마다 산의 정령 용호를 달리게 하네	屈曲精神走虎龍

자운(子允)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힘겹게 지팡이 잡고 저 언덕에 오르니	強把鳩筇登彼岸
푸른 회화나무 그늘 가에 소나무도 푸르러라	綠槐陰畔又青松
풍광은 길가는 사람 발길을 멈추게 하니	風光能使行人住
앉아서 못 산에 웅크린 용들을 바라보노라	坐見群山某某龍

오수(葵樹)에 이르러 요기하고 각각 길을 나섰다. 나는 국평(菊坪) 송기렴(宋基濂)의 집에 들어갔으나, 하서가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 아들 송전(宋楨)만 만나보고 출발하였다. 야당(野塘)의 송필동(宋必必) 집에 들어가서 그 외아들 상(喪) 당한 것을 조문하였다. 또 송계천(宋啓天)을 조문한 다음 마을 앞 정자(亭亭) 아래로 내려오니 하서가 마침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인이 한사코 만류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머무르기로 하고, 주막(酒幕)으로 나와서 주점(酒店)에 두 벼를 머물게 한 다음, 율지와 야당으로 들어가 송연영(宋連英)의 집에 머물렀다. 오늘 밤은 선고(先考)의 기일(忌日)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었는데, 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니 슬픈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十二日。早發抵嶺下店朝飯，越磚石峙，吟一絕曰：“蒼崖白石最高峯，問爾何僧手植松。俯瞰方城雄壯勢，況如蹲虎又盤龍。” 聿之次曰：“百步登登磚石峯，但看面面高低松。請君莫作還鄉夢，意匠經營向鷄龍。” 汝玉次曰：“倦步朝陽陟彼岸，崢嶸老石短長松。看來認是崑崙脈，屈曲精神走虎龍。” 子允次曰：“強把鳩筇登彼岸，綠槐陰畔又青松。風光能使行人住，坐見群山某某

龍。” 抵葵樹療飢，各爲登程。余則入菊坪 宋基濂家，則夏瑞出他不見，只見其子楨而發。入野塘 宋必東家，吊遭其獨子喪。又吊宋啓天，下來村前亭下，則夏瑞適來，仍與相話。以主人之堅挽，仍留爲計之，出來酒幕，留兩友於酒店，與聿之入野塘，留宋連英家。今夜則先考忌日也，而前年以京行之致，不得將事於忌日，今年又如此，心懷之愴然，不可言之。

▪13일. 아침 전에 율지가 주점(酒店)에 나갔다. 나는 아침을 먹고 나서 하서와 함께 주점으로 나갔는데, 하서도 또한 《둔곡문적(遯壑文蹟)》을 부탁하였다. 그대로 작별하고 두치(斗峙)를 넘어 오원(烏院)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녹음이 짙은 사월이라 꽃들은 시들어 가고	花老繁陰四月時
길을 겁내 지팡이 끌고 가는 걸음 더디구나	携筇柵路步遲遲
언덕 숲에는 유난히도 바쁜 소리가 있으니	岸林別有忙勞響
온종일 꾀꼬리 가지를 오르내리며 노래하네	盡日鶯歌上下枝

율지(聿之)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먼 길 떠난 나그네 여정 한가할 틈이 없으니	遠程行色無閒時
늘 한스러운 건 밤은 짧고 땡별은 더디 지는 것	每恨夜短夏日遲
그대들 나에게 술 한잔 하길 권하기에	諸君勸我盃中物
술값을 계산하려면 꽃가지를 꺾어야겠네 ³⁹⁸⁾	欲計酒價折花枝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행장이 점차 무거워져 쉬는 횃수는 늘어가고	行裝漸重息多時
-------------------------	---------

398) 꽃가지를 꺾어야겠네 : 백거이(白居易)의 <동이십일취억원구(同李十一醉憶元九)> 시에 “꽃 필 무렵 함께 술 취해 봄 시름 달래었으니, 취하면 꽃가지 꺾어 술잔 세는 산가지 삼았지.[花時同醉破春愁，醉折花枝當酒籌.]”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白氏長慶集 卷14》

도로가 메말라 갈수록 걸음은 더디기만 하네	道路方乾去益遲
억지로 바삐 술잔만 자주 잡으니	強欲忙勞頻把酒
어느 곳에서 꽃가지 꺾어 술잔을 세라	觥籌何處折花枝

자운(子允)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지금 우리가 온 이곳 옛날 왔던 곳이건만	今我來斯昔到時
내딛는 걸음 더디고 해마저 더디 지는구나	步徐方覺方陽遲
호걸스런 정은 멋진 산을 보려는 것이 아니나	豪情不是看山好
두견과 꾀꼬리 노래 가락 길가 버들가지에 울리네	鶻曲鶯歌路柳枝

쌍정자(雙亭子)에 이르러 묵었다. 60리를 갔다.

十三日. 朝前聿之出去酒店, 余即仍朝飯, 與夏瑞偕出酒店, 而夏瑞亦以《遯壑文蹟》付託矣. 仍爲作別, 越斗峙, 抵烏院療飢. 又吟一絕, “花老繁陰四月時, 携筇脚路步遲遲. 岸林別有忙勞響, 盡日鶯歌上下枝.” 聿之次曰: “遠程行色無閒時, 每恨夜短夏日遲. 諸君勸我盃中物, 欲計酒價折花枝.” 汝玉次曰: “行裝漸重息多時, 道路方乾去益遲. 強欲忙勞頻把酒, 觥籌何處折花枝.” 子允次曰: “今我來斯昔到時, 步徐方覺方陽遲. 豪情不是看山好, 鶻曲鶯歌路柳枝.” 抵雙亭子留宿. 行六十里.

▪14일. 일찍 출발하여 지소(紙所)를 지나 냇가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완영(完營)의 서문(西門) 밖 옛 주인인 전성철(全聖哲) 집에 도착하니, 얼마 안 있어 당동(唐洞)의 박영규(朴榮珪)가 도착하였다. 출발할 때에 뒤따라오겠다며 약속했던 사람이다. 내일 도착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만난 것은 마침 뜻밖이라 피차간에 기쁜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할 수가 있겠는가. 오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대로 주인집에 머물렀다.

十四日. 早發過紙所, 抵川邊朝飯. 得達完營 西門外舊時主人全聖哲家, 俄已唐洞 朴榮珪來到. 即發行時, 以追後之意, 相約之人也. 意謂明日得達矣, 今日相逢, 果是意外, 彼此相喜, 何可盡言. 午前雨始, 仍留主人家.

▪15일. 아침을 먹은 뒤에 북문 밖의 송약수(宋若洙) 집에 갔으나, 마침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왔다. 영문(營門)으로 가서 순상(巡相)을 보고자 하였는데, 마두(馬頭)가 통자(通刺)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니, 간촌(看村) 박상현(朴祥炫)과 옹포(甕浦) 송격(宋格)이 도착하였다. 오후에 출발하여 삼례 천변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밥값으로 두 냇을 냈다.-

十五日. 食後往北門外宋若洙家, 則適出他不見而來, 往營門欲見巡相矣. 以馬頭不得通刺, 不見而還來主人家, 則看村 朴祥炫及甕浦 宋格來到. 午後而發, 抵參禮川邊酒幕留宿. 行三十里【飯錢二兩出】.

▪16일. 일찍 출발하여 상삼례(上參禮)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여산(礪山) 읍내에 이르러 신동(新洞)의 백교귀(伯交歸)를 만나 그대로 점심을 먹었다. 작천(鵲川)에 이르러 묵었다. 70리를 갔다.

十六日. 早發抵上參禮朝飯, 抵礪山邑內, 見新洞 伯交歸, 仍爲中火. 抵鵲川留宿. 行七十里.

▪17일. 일찍 출발하여 사교(沙橋)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수월점(水越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판치(板峙)를 넘어 효포(孝浦)에 채 못가서, 마침 성찬(聖燦)과 이 석사(李碩士)를 만났다. 이들은 신파(新波)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도중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고대도(高大道)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밥값으로 한 냇을 냈다.-

十七日. 早發抵沙橋朝飯, 抵水越店中火. 越板峙, 未及孝浦, 適逢聖燦及李碩士. 自新波下來之人, 路中暫話, 暮抵高大道留宿. 行八十里【飯錢一兩出】.

▪18일. 일찍 출발하여 금강(錦江)을 건너며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맑은 모래 푸른 물 돌아가는 나루를 묻노니	沙明水碧問津歸
한 줄기 아침 안개 양편 언덕에 떠다니네	一帶朝霞兩岸飛

눈 가득 멋진 경치 거두어 비단 주머니에 담나니
이러한 광경을 아는 사람 드물도다

滿目風烟收錦囊
箇中光景識人稀

중천에 까마귀가 나는 것 매번 두렵네
다시 술잔을 가져다 서로 주고받으니
서쪽 장안으로 들어가면 옛 친구 없으리라

中天每畏日鳥飛
更將盃酒聊相勸
西入長安故舊稀

율지(聿之)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북쪽을 향해 가는 길 금강에 들어서서
달빛 아래 지팡이 멈추고 떠가는 구름보네
천 리 먼 길을 걷고 또 걸어가니
처음 본 사람 많고 알던 사람 드물구나

路入錦江向北歸
停筇步月看雲飛
行行大道一千里
生面人多舊面稀

일신점(日新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광정(廣亭)에서 점심을 먹었다.
길보(吉甫)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출발하였는데, 차령에 오르니
회화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래와 통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사원(士元)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오늘도 낙성에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푸른 하늘에 구름 속 학이 날아가려 하네
금강이 가까우니 고향산천 점차 멀어지고
여기에 이르니 아는 얼굴 드물도다

當日洛城未得歸
欲將青天雲鶴飛
家山漸遠錦水近
到此面面識者稀

험준한 고개 간신히 넘어오니
맑은 그늘에 또 맑은 돌 샘물 있네
노래와 통소소리 둘 다 있으니
음악 소리에 취해 험난했던 앞길 잊었네

艱上嶺之險
清陰又石泉
歌簫兼有二
耽聽却忘前

고개를 내려와 서정점(西亭店)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十八日. 早發越錦江, 吟一絕曰: “沙明水碧問津歸, 一帶朝霞兩岸飛. 滿目風烟收錦囊, 箇中光景識人稀.” 聿之次曰: “路入錦江向北歸, 停筇步月看雲飛. 行行大道一千里, 生面人多舊面稀.” 士元次曰: “當日洛城未得歸, 欲將青天雲鶴飛. 家山漸遠錦水近, 到此面面識者稀.” 汝玉次曰: “錦水濟人幾北歸, 公山堞雉却南飛. 旅窓欲寄家鄉字, 消息蒼茫雁到稀.” 子鳳次曰: “扶老携筇第往歸, 中天每畏日鳥飛. 更將盃酒聊相勸, 西入長安故舊稀.” 抵日新店朝飯, 抵廣亭中火. 逢吉甫暫話而發, 上車嶺則槐陰下有歌簫. 暫憩陰下, 吟一絕曰: “艱上嶺之險, 清陰又石泉. 歌簫兼有二, 耽聽却忘前.” 下嶺抵西亭店留宿. 行八十里.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금강은 건너주는 사람 몇 번이나 북쪽으로 갔던가
공산성의 성가퀴³⁹⁹는 남쪽으로 날아
길손은 고향집에 소식을 전하려 하나
나는 기러기 드물어 소식이 아득하네

錦水濟人幾北歸
公山堞雉却南飛
旅窓欲寄家鄉字
消息蒼茫雁到稀

자봉(子鳳)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늙은이 지팡이 짚고 갔다 돌아오는 길

扶老携筇第往歸

▪19일. 일찍 출발하여 돌치고개 아래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직산(稷山) 삼거리(三德里)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성환(成歡)에 이르러 김노(金奴)가 짐이 무거운 탓에 그대로 뒤처지기에 동행과 짐을 나누어 소사(素沙)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밥값으로 돈 한 냥을 내었다. 내일은 왕고

399 성가퀴 : 원문의 ‘치첩(堞雉)’은 성 위에 낮게 쌓은 성가퀴를 말한다.

(王考) 제삿날인데, 집에 별 탈이 없이 편안히 지내는 지 모르겠다. 서글픈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十九日。早發抵芑峙嶺下店朝飯，抵稷山三巨里中火。抵成歡 金奴以卜重之致，仍爲落後，故分卜於同行，抵素沙留宿。行八十里【飯錢一兩出】。明日卽王考諱日也，未知家中無故安行耶。心懷之愴然，何可盡言。

■20일. 일찍 출발하여 칠원(柒原)에서 아침을 먹고, 오매(烏梅)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중도에서 절구 한 수를 읊었다.

가는 곳마다 풍광은 면면이 처음 보는 곳인데
밝고 수려한 산수에 인후한 마을⁴⁰⁰ 자리하였네
지팡이 끝에 하늘로 솟구치는 솔개의 그림자 날고
다리 아래 물 만난 물고기 맘껏 헤엄치네

到這風烟面面初
山明水麗里仁居
杖頭飛影凌天鷲
橋下浮沈率性魚

사원(士原)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북두의 변화한 서울은 처음 와보는데
상자가 당시에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네
객점의 여인 술값 요구할 줄만 아니
호남 길손은 고기 없는 밥상에⁴⁰¹ 한숨만 쉬네

北斗京華生面初
向子當年卜此居
店娥但知酒索錢
湖客惟恨食無魚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만나는 이들마다 객사에서 처음 보는데

面目無非逆旅初

400) 인후한 마을 : 원문의 '이인(里仁)'은 인후(仁厚)한 풍속이 있는 마을로, 《논어》〈이인(里仁)〉에 공자가 “이인이 아름다우니, 가려서 어진 곳에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으리오.[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라고 하였다.

401) 밥상엔……없으니 : 전국 시대 제(齊)나라 풍환(馮驩)이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이 되었을 때, 밥상에 고기반찬이 없자 장검의 칼자루(長鋏)를 두드리면서 “장검이어 돌아가자, 밥상에 고기가 없으니.[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노래했다는 고사가 있다. 《戰國策 齊策4》

산천 속에 이런 선비도 살고 있었구나
옆 사람은 무슨 생각에 앞길을 재촉하는 걸까
아마도 화성의 문 닫힐까 염려하는 것이리

山川有是士夫居
傍人底意催前路
恐或華城鎖鑰魚

자운(子胤)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우리 세 사람 이러한 장관 처음 보는데
나라의 기내 천리 땅 거처하는 곳도 넓구나
간간이 꽃과 주막에 술과 고기까지 있으니
북쪽에서 어찌 남방의 물고기를 부러워하리

年維三人壯觀初
千里邦畿亦廣居
往往花墟兼酒肉
北來何羨南方魚

대황교(大皇橋)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 출발하였다. 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버들이 어둠속으로 묻히려는데서쪽하늘 붉게타오르고
소나무는 폭포소리 들으며 맑은 시내에 드리우네
석양이 질 무렵 화성에 다다르니
지주 같은 푸른 산 먼 듯 가까운 듯하네

柳欲藏陰烈洞西
松能聽瀑倒清溪
夕陽歸路華城到
一柱青山遠近齊

사원(士元)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서쪽 가는 길에 왕성이 어디에 있는가 묻노라
모습을 바꾼 산하에 굽이굽이 시냇물 흐르네
은택을 입을 수양버들 좌우로 휘늘어져 있고
찌는 더위에 고달픈 길손들 앞뒤로 나란하네

王城何在問路西
換面山河曲曲溪
被恩垂柳左右分
惱熱行客先後齊

율지(聿之)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지팡이 짚고 다리에 오니 해는 이미 저물어
나는 갓끈을 씻으려 맑은 시내를 건너네

杖策橋邊日已西
我纓欲濯渡清溪

그 속의 고운 풍광 어떠한가 묻노라면
양 언덕에 버들과 느티나무 일색이랴오

箇中光景問如何
兩岸柳槐一色齊

화성 길에 들어서니 날이 이미 저물어
파릇파릇한 버들가지 대황 시냇가에 늘어졌네
고향산천 점차 멀어지고 왕성이 가까우니
동남의 연나라 조나라인 듯하여 크게 웃어보네

路入華城日已西
青青楊柳大皇溪
家山漸遠王城近
高笑東南燕趙齊

여옥(汝玉)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궁중 버들 그늘은 동쪽으로 해 그림자는 서쪽으로
산악에 조회⁴⁰²하니 시내에 다 함께 모였여라
기자 현인 이후 명이의 나라⁴⁰³
해내의 밥짓는 연기처럼 아홉 점의 운무인 듯하네⁴⁰⁴

御柳陰東日影西
朝宗山嶽會同溪
箕賢以後明夷國
環海人烟九點齊

저녁에 화성 북문 밖에 이르러 묵었다. 80리를 갔다. 여옥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누대와 성곽의 반은 도성에 있구나
겹겹이 연달아 몇 만의 집들이 즐비하네
행궁⁴⁰⁵이 여기에 머물렀는지 알고 싶었는데
휘휘 늘어진 수양버들 길 어긋남이 없구나

樓臺城郭半京華
匝匝連連幾萬家
欲識行宮留在此
依依楊柳路無差

사운(士胤)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산은 동쪽으로 그늘지고 해는 서쪽으로 지니
꽃을 찾아 버들을 따라 맑은 시내를 지나네
말을 타다 걷다 하는데 마치 하늘 길 가는 듯
다만 흠인 건 인생과 같지 않는 것일 뿐이라

山自東陰日自西
訪花隨柳過清溪
或騎或步如天道
只欠人生不與齊

二十日. 早發抵柴原朝飯, 抵烏梅中火. 路中吟一絕曰: “到這風烟面面初, 山明水麗里仁居. 杖頭飛影凌天鷲, 橋下浮沈率性魚.” 士原次曰: “北斗京華生面初, 何子當年卜此居. 店娥但知酒索錢, 湖客惟恨食無魚.” 汝玉次曰: “面目無非逆旅初, 山川有是士夫居. 傍人底意催前路, 恐或華城鎖鑰魚.” 子胤次曰: “年維三人壯觀初, 千里邦畿亦廣居. 往往花墟兼酒肉, 北來何羨南方魚.” 抵大皇橋, 小憩後仍發. 又吟一絕曰: “柳欲藏陰烈洞西, 松能聽瀑倒清溪. 夕陽歸路華城到, 一柱青山遠近齊.” 士元次曰: “王城何在問路西, 換面山河曲曲溪. 被恩垂柳左右分, 惱熱行客先後齊.” 聿之次曰: “杖策橋邊日已西, 我纓欲濯渡清溪. 箇中光景問如何, 兩岸柳槐一色齊.” 汝玉次曰: “御柳陰東日影西, 朝宗山嶽會同溪. 箕賢以後明夷國, 環海人烟九點齊.” 士胤次曰: “山自東陰日自西, 訪花隨柳過清溪. 或騎或步如天道, 只欠人生不與齊.” 乃元次曰: “路入華城日已西, 青青楊柳大皇溪. 家山漸遠王城近, 高笑東南燕趙齊.” 暮抵華城北門外留宿. 行八十里. 汝玉吟一絕曰: “樓臺城郭半京華, 匝匝連連幾萬家. 欲識行宮留在此, 依依楊柳路無差.”

내원(乃元)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402) 조회 : 원문의 '조종(朝宗)'은 고례(古禮)에 제후가 천자를 봄에 찾아뵙는 것을 조(朝)라 하고, 가을에 찾아뵙는 것을 종(宗)이라 하며, 《시경》 소아(小雅) 면수(沔水)에, “넘실대며 흐르는 저 물이여, 바다에 조종하도다.[沔彼流水 朝宗于海]” 하였다.

403) 기자……나라 : ‘명이(明夷)’는 동방의 일출지역인 한반도를 지칭한다.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무도(無道)할 때 밝음을 감추어 화를 면하였고, 마침내 동방으로 와서 도를 전하였고 한다. 《주역》의 <명이괘(明夷卦) 육오(六五)>에 “육오는 기자가 밝음을 감춤이니, 곧게 지킴이 이롭다. [六五 箕子之明夷 利貞]”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자가 조선에 이주한 사실을 기록한 가장 이른 문헌 자료이다.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404) 아홉 점 운무인 듯하네 : 높은 하늘 위에서 바라보이는 세상이 아홉 점의 운무(雲霧)처럼 작게 보인다는 말이다. 당나라 이하(李賀)의 시 <몽천(夢天)>에 “중국을 멀리 바라보니 아홉 점의 연기 같고, 한 웅덩이 바닷물도 한 잔 물을 쏟아부은 듯하네.[遙望齊州九點煙, 一泓海水杯中瀉.]”라는 구절이 있다.

405) 행궁(行宮) : 임금이 대궐을 떠나서 머무는 곳으로, 행재소(行在所)와 같다.

▪21일. 지지대 고개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과천(果川)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남태령(南泰嶺)을 넘고 강을 건너 청파동(靑波洞) 박영대(朴永大)의 집에 이르렀다. 영대는 입번(入番)하였는데, 별탈이 없었다.

二十一日。抵遲遲峴朝飯，抵果川邑內中火。越南泰嶺越江，至靑波洞 永大家，則永大入番，而別無故矣。

▪22일. 여독(旅毒) 때문에 일찍 출발하지 못했다. 오후에 차동(車洞) 민 석사(閔碩士)에게 갔으나 날이 밝을 무렵 마침 고향으로 떠나서 그 아들만 잠시 만나 보았다. 아래 사랑 주인(舍廊主人)인 치항(致恒)이 마침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서소문(西小門)으로 들어갔다. 정동(貞洞)의 석사 이희(李禧) 집에 갔으나 주인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찾아온 울지와 확교(確橋)⁴⁰⁶에 들어가 진사 유명도(柳榮度)의 집에 방문하였더니, 어서각동(御書閣洞)으로 이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 달부씨(達夫氏)의 서간(書簡)을 전달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二日。以路憊不得早發。午後往車洞 閔碩士，被明適作鄉行，只有其子暫見。往下舍廊主人致恒果在，暫話後。入西小門。往貞洞 李碩士 禧家，主人不在故不見，而來訪與聿之入確橋，訪柳進士 榮度家，則移居于御書閣洞云，故尋往其家，傳達夫氏書簡，還來主人家。

▪23일. 아침을 먹은 뒤에 동행과 서소문(西小門)으로 들어가 확교(確橋)에 갔다. 나는 송 판서(宋判書)의 집에 들러 판서 부자(判書父子)를 만나고 종각 쪽으로 돌아오니 동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대묘동(大廟洞)으로 가서 보성(寶城)의 종인(宗人) 귀환(龜煥)을 방문하였으나 마침 부재중이어서 통지하고, 지난해에 머물렀던 파정동(波井洞)의 기보(基甫) 집에 오니 주인은 일단 무고하였다. 한참 있으니 귀환이 마침 나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406) 확교(確橋)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과 신창동(새창골) 북쪽에 있던 다리이다. 1966년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이 고을에 학다리가 있어 마을 이름이 학교동(鶴橋洞)이 되었다고 하며, 일명 확교(確橋)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이 일대를 학다리골이라 하였는데,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살았던 곳이라고도 한다.

나누다가 올라온 연유를 이야기하였다. 그 먼저 서울에 도착하여 일의 기미를 살펴보았는데, 서울의 여론이 혹은 가하고 혹은 불가하다는 논의가 있으니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길로 술집으로 나와 술을 사 마시다가 나는 남동(南洞)에 가서 잠시 마전(麻田) 김민계(金民桂)를 만나고 주인집으로 왔다.

二十三日。食後與同行入西小門往確橋。余則入宋判書家，見判書父子，還來于鍾閣邊，則同行留待矣。仍往大廟洞，訪寶城宗人龜煥，適不在故通奇，而來于前年所住波井洞 基甫家，主人姑無故矣。移時龜煥果爲出來，與之相話，仍說上來之由，則渠則先到京中，探知事機，則京中物議，或可或不可之論，未知末稍之如何云。仍爲出來酒家，沽酒相飲，余則往南洞，暫見金麻田民桂，而來主人家。

▪24일. 아침을 먹기 전에 백운동(白雲洞)에 사는 주서(注書) 이인필(李寅弼) 숙질(叔侄)에게 갔다가 주인집으로 나왔다. 낮에 행장을 꾸려 김노(金奴)를 보내면서 집에 보낼 편지를 써서 부쳤다. 오후에 동행과 문내(門內)에 들어가서 나는 정동(貞洞)의 이 석사(李碩士, 이희(李禧))집에 갔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술과 떡을 사서 권하니 매우 감사하였다. 이어 주인집으로 나왔다.

二十四日。朝前往白雲洞 李注書 寅弼叔侄，出來主人家。午間治送金奴，修付家書。午後與同行入門內，余則往貞洞 李碩士家。而仍與之相話，買酒餅以勸，多感多感。仍爲出來主人家。

▪25일. 가랑비가 내렸다. 정오 무렵에 길가에 나가 요기한 다음, 나는 차동(車洞)에 들어갔다. 잠시 쉬고 나서 서소문(西小門)으로 들어가 관정동(館井洞)의 우 참봉(禹參奉) 집에 갔더니 참봉이 시골에서 막 들어왔다고 하므로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대(永大)의 집이 좁은 탓에 이곳으로 옮겨와 머물렀다고 말하였더니 참봉 또한 그리하라 답해 주었다. 유달부(柳達夫)와 정 진사(丁進士)의 서간을 전하고 영대(永大)의 집으로 나왔다.

二十五日。微雨。午間出去路邊療飢，余則入車洞。暫憩後，入西小門，往館

井洞 禹參奉家, 則參奉自鄉俄纔入來云, 故與暫話, 以永大家陝隘之致, 移留此處之意言及, 則參奉亦以答之矣. 傳柳達夫 丁進士書答, 而出來永大家.

■26일. 오전에 비가 왔다. 오후에 동행과 우 참봉의 집으로 옮겨 머물렀다.

二十六日. 午前雨. 午後同行移留於禹參奉家.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반송등(盤松登)에 가서 구관(舊官) 교리 남이형(南履炯)을 만났다. 동행과 함께 모화관(慕華館)⁴⁰⁷ 영은문(迎恩門)⁴⁰⁸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추문(秋門)⁴⁰⁹에 올라 잠시 쉬 뒤에, 나는 대묘동(大廟洞)에 가서 공서(公瑞)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사(金使)와 지종현(池宗玄)을 만나려고 기보(基甫)의 집에 갔으나, 두 사람 모두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오는 길에 서울의 주인집에 들어가니 경주인(京主人)도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주인집으로 왔다.

二十七日. 食後往盤松登, 見舊官南校理履炯. 與同行往慕華館 迎恩門, 來路登秋門暫憩後, 余則往大廟洞, 與公瑞暫話. 欲見金使及池宗玄, 往基甫家, 則兩人皆不在不見, 而來路入京主人家, 則京主人亦不在不見, 而來主人家.

■ 28일. 아침을 먹기 전에 정동(貞洞)의 이 석사(李碩士)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울지와 용동(龍洞)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갔더니, 참봉 경화(景華)가 순강원(順康園)⁴¹⁰ 참봉(參奉)으로

407) 모화관(慕華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었던 객관(客館)으로, 조선 시대에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이었다. 《궁궐지(宮闕志)》에는 태종 8년(1408)에 개경의 영빈관을 본 따 모화루를 건립하였다고 쓰여 있다. 그 후 세종 12년(1430)에 확장, 개수하여 모화관이라 개칭하였다.

408) 영은문(迎恩門) : 모화관(慕華館) 앞에 세웠던 문이다. 현재 독립문이 있는 곳의 바로 앞에 있었다. 새 임금이 즉위하여 중국사신이 조칙을 가지고 오면 임금이 친히 모화관까지 나오는 것이 상례였다.

409) 추문(秋門) : 경복궁 영추문(景福宮迎秋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서쪽에 있는 문이다.

410) 순강원(順康園) : 선조의 후궁으로 원종(元宗)의 생모인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무덤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다. 영조 대에 마련된 궁원제(宮園制)에 입각해 영조 31년 순강원의 명칭을 얻었다. 《光海君日記 5年 10月 29日》《英祖實錄 31年 6月 23日》

이제 막 입번(入番)하였다. 그 아들 용준(龍俊)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명현록(名賢錄)》 개간(開刊)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이어 명례동(明禮洞) 지금의 명동(明洞)의 참판(參判) 박종정(朴宗正)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니 공서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공서(公瑞)와 송 판서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공서는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고, 나는 주인집으로 나오니 옹포(甕浦)의 송격(宋格)이 내일 아침에 내려간다고 하므로 가서(家書)를 써서 부쳤다.

二十八日. 食前往貞洞 李碩士家, 暫話而來. 食後與聿之往龍洞 李參奉家, 則參奉 景華, 以順康園 參奉, 才入番矣. 只與其子龍俊暫敘後, 仍議《名賢錄》開刊事, 仍往明禮洞 朴參判 宗正家, 暫話而來, 則公瑞來待矣. 暫話後, 與公瑞入宋判書家, 移時談話後, 公瑞往其所住處, 余則出來主人家, 則甕浦 宋格, 明朝下去云, 故修付家書.

■29일. 주인집에서 머물렀다.

二十九日. 留主人家.

■5월 1일. 밥을 먹은 뒤 일행과 용동(龍洞)⁴¹¹의 이 참봉 집으로 가서 《명현록(名賢錄)》 개간(開刊) 일을 보고 돌아왔다.

五月初吉. 食後, 與同行往龍洞 李參奉家, 見《名賢錄》開刊事而還.

■2일. 밥을 먹은 뒤, 일행과 대묘동(大廟洞)⁴¹²으로 가서 공단(公瑞)을 불러 종묘 문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원록(祠院錄)》을 다시 부탁할 생각으로 그길로 예조의 당직 부서로 가니 아전 배광옥(裴光玉)은 마침 출타하였고, 아전 안인성(安寅成)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아전과 상의해보니, 배광옥이 없어 《사원록(祠院錄)》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411) 용동(龍洞) : 서울 노원구 하계동이다.

412) 대묘동(大廟洞) : 서울 종로구 훈정동·묘동·봉익동·종로3가·종로4가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대묘인 종묘가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대못골·대못골·대묘동·묘동'이라고도 하였다.

初二日。食後，與同行往大廟洞，要公瑞暫話於宗廟門外。以《祠院錄》更付之意，仍往禮曹直府，則裨吏 光玉適出他，安吏 寅成昨年身故云。故與他吏相議，則裨吏不在，不知《祠院錄》之在，故還來主人家。

▪ 3일. 문적의 수정(修正) 때문에 주인집에 남아있었다. 오후에 정동(貞洞)⁴¹³에 갔는데 이 석사가 없었다. 다만 그의 아우 이훈(李勳)하고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니, 석사 이혜길(李惠吉)이 혼자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 이혜길이 집으로 가자고 청하기에 그와 함께 가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初三日。以文蹟之修正留主人家。午後往貞洞，李碩士不在。只與其弟勳，暫話而來，則李碩士 惠吉專訪來待矣。夕飯後，惠吉請往其家，故與之偕往，仍留。

▪ 4일. 아침밥은 안채에서 음식을 나와서 몹시 고마웠다. 오후에 일행과 영추문(迎秋門)⁴¹⁴ 안으로 가서 꺾문 밖을 지나, 그길로 유동(油洞)⁴¹⁵으로 갔다. 도중에 일행을 남겨두고, 나는 조문하기 위해 아전 안인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아전 안인성의 아들이 출타하였으므로 만나지 못하였다. 일행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종각 근처로 왔다. 마침 공단을 만나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初四日。朝飯自內間出饋，感荷感荷。午後與同行往秋門內，過闕門外，仍向油洞。留同行於中路，余則吊問次，尋安吏 寅成家，則安吏之子出他，故不見。而還同行所留處，與之偕來鍾閣邊。適逢公瑞，與之暫話而來。

▪ 5일. 밥을 먹기 전에 율지(律之)와 함께 정동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413) 정동(貞洞) :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이 현재 정동 4번지에 있던 데서 '정릉동'이라 하였던 것을 줄여 정동이라고 하였다.

414) 영추문(迎秋門) : 경복궁의 서문(西門)이며 연추문(延秋門)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문무백관들이 주로 출입했던 문이다.

415) 유동(油洞)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 기름을 파는 기름전이 있었으므로 기름전골이라 하고,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하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 낙동(洛洞)으로 가 참판 이광문(李光文)⁴¹⁶을 만나려고 하였다. 그 집 문 앞에서 참판의 아들 이 진사를 만나서 그의 부친이 집에 계신지 물으니, 오늘 제관(祭官) 일 때문에 수원에 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랫집에 들러 참판 이광정(李光貞)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용동으로 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율지, 영규(榮奎)와 함께 회동(晦洞)⁴¹⁷의 장성(長城) 현감을 지낸 송운재(宋雲載)⁴¹⁸ 집으로 갔는데 송장성⁴¹⁹이 집에 없었다. 다만 그 재종(再從, 6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완북(完北, 전주 북문)의 송민수(宋民洙)의 서간을 전한 뒤에 그길로 나왔다. 송지순(宋持淳) 집을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 오는 길에 가랑비를 만나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初五日。食前，與聿之往貞洞，暫話而來。食後，往洛洞欲見李參判 光文。至其門外，逢參判之子進士，問其大人有無，則以今日祭官，往水原云。故入下家，見李參判 光貞暫話。來龍洞暫話後，與聿之及榮奎往晦洞 宋長城 雲載家，則長城不在。只與其再從暫話，傳完北 宋民洙書簡後，仍爲出來。尋宋持淳家，暫話後出來。中路逢微雨，還來主人家。

▪ 6일. 문적을 수정하고 용동의 이 참판 집으로 갔는데, 간행소의 유사가 문적을 다 산삭(刪削)하였으므로 종일 용동에 머물렀다.

初六日。修整文蹟，往龍洞 李參奉家，則刊所有司，皆刪削文蹟，故終日留龍洞。

416) 이광문(李光文) : 1778~1838. 자는 경박(景博), 호는 소화(小華).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증조는 이재(李穡)이며, 부친은 아버지는 호조 참판 이채(李采)이다. 1801년(순조1)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807년 식년 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와 예문관검열에 이어, 전라감사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417) 회동(晦洞) : 서울 중구 충무로4가·인현동1가·인현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418) 송운재(宋雲載) : 1760~?. 자는 치회(禪會)이고,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1789년 식년시에 합격한 후 장성 부사, 전주 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419) 송장성 : 성(姓) 뒤에다 직책을 붙이는 방식인데, 지방 현감을 지낸 경우, 그 지명을 붙여 직책을 대신하였으며, 성을 빼고 지명만 써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7일. 아침 전에 박영규(朴營奎)가 내려가므로 집에 편지를 써서 부쳤다. 밥을 먹기 전에 정동으로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 회동으로 가서 송 장성을 만나, 그 삼촌 송익정(宋翼廷) 씨를 위문하고, 또 그 독자(獨子)의 상을 조문하였다. 송지순의 집으로 내려와 잠시 얘기를 하고 왔다.

初七日. 朝前, 朴營奎下去, 故修付家書. 食前, 往貞洞, 暫話而來. 食後, 往晦洞見宋長城, 慰其三寸翼廷氏, 又吊其獨子喪. 下來持淳家, 暫話而來.

■8일. 밥을 먹은 뒤 용동으로 가서 종일 놀며 쉬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구안(洞口內藥房) 앞길) 약방으로 가서 내일 거동(舉動, 임금의 행차)할 때 여기 와서 구경하겠다는 뜻을 언급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初八日. 食後, 往龍洞終日遊憩, 而來路, 往洞口內藥房, 以明日舉動時, 來此觀光之意言及, 而還主人家.

■9일. 이른 아침 일행과 동구안 약방으로 가서 구경하였는데, 소전(小殿, 세자(世子))이 경우궁(慶祐宮)⁴²⁰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거동한 것이었다.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주인(京主人)⁴²¹ 집에 들러 주인을 만나서 흥양(興陽, 고흥)에 대해 상세히 듣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조금 쉬었다가 용동으로 갔다. 저물녘에 돌아오니 정동의 이 석사가 찾아왔다고 하였다.

初九日. 早朝, 與同行往洞口內藥房觀光, 而小殿以慶祐宮夏享大祭舉動也. 觀光後, 來路入京主人家, 見主人, 詳聞興陽, 而還主人家. 少憩後, 往龍洞. 乘暮還, 則貞洞 李碩士來訪云矣.

■10일. 아침 전에 정동으로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 용동으로 가서 종일 수정 문적을 보고 왔다.

420) 경우궁(慶祐宮) : 서울시 종로구 계동에 있는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어머니인 수빈 박씨(1770~1822)의 사당이다. 1824년에 창건하였다.

421) 경주인(京主人) : 경저리(京邸吏)이다. 벼슬아치나 서민으로 서울에 머물러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던 사람을 말한다.

初十日. 朝前, 往貞洞, 暫話而來. 食後, 往龍洞, 終日見修整文蹟而來.

■11일. 아침 전에 백운동(白雲洞)⁴²²에 갔는데, 사서(司書) 이인필(李寅弼)은 광주(廣州)로 출타하여 그 조카 이정하(李正夏)하고만 작별하였다. 호정동(瓠井洞)으로 내려와 김병기(金秉耆)를 조문하고, 오면서 창정동(昌井洞)의 권중건(權中建)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에 삼청동(三清洞)⁴²³에 들러 이병하(李秉夏) 숙질(叔姪)을 조문하였다. 오면서 장생전교(長生殿橋)⁴²⁴의 생원 이장구(李章九) 집에 들러 《장릉사보(莊陵史補)》⁴²⁵를 보고, 충강공(忠剛公)⁴²⁶ 사적(事蹟)을 베껴서 왔다. 밥을 먹은 뒤 용동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十一日. 朝前, 往白雲洞, 則李司書 寅弼出去廣州, 只與其姪正夏作別. 下來瓠井洞吊金秉耆, 來入昌井洞 權中建家暫話. 來路入三清洞, 吊李秉夏叔侄. 來入長生殿橋 李生員 章九家, 見《莊陵史譜⁴²⁷》, 臚忠剛公事蹟而來. 食後, 往龍洞, 午後還來.

422) 백운동(白雲洞)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있던 마을로서, 항상 흰 구름이 떠 있는 명승지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423) 삼청동(三清洞) : 서울시 종로구의 중앙부에 있는 동이다. 지명은 도교의 태청(太淸)·상청(上淸)·옥청(玉淸)의 3위(位)를 모신 삼청전(三清殿)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424) 장생전교(長生殿橋)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과 이화동 사이에 있던 다리이다. 조선 시대 궁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필요한 관곽(棺槨)의 제작과 수선을 담당하던 관청인 장생전(長生殿) 앞에 이 다리가 놓여 있었으므로 '장생전 다리'라고 불렀다. 장경교(長慶橋), 장교(長橋) 등으로도 불렀다.

425) 장릉사보(莊陵史補) : 1796년(정조20) 왕명으로 단종에 관한 사적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앞서 1791년 5월 왕명으로 이의봉(李義鳳)과 윤광보(尹光普) 등이 편집한 것을, 1796년 5월 왕명에 따라 이서구(李書九)·이의준(李義駿)·윤광보 등이 다시 교정하고, 정족산 사고(鼎足山史庫)의 실록을 참고하여 보고된 별단(別單)을 참조하여 이서구가 최종적으로 《장릉지(莊陵誌)》 9권 3책을 완성하여 바쳤다. 찬진 당시에는 서명을 '장릉지'라 했으나 '장릉사보'로 바뀐 것은 기존 《장릉지》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26) 충강공(忠剛公) : 송간(宋侃, 1405~1480)이다. 호는 서재(西齋)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세종·문종·단종의 3조를 섬겨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단종이 영월로 쫓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하다가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3년상을 마치고,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에서 은거하였다.

427) 補 : 저본의 '譜'는 사료에 근거하여 '補'로 수정하였다.

■13일. 아침 먹기 전에 자운(子允)과 계성사(啓聖祠)⁴²⁸로 가서 김팔주(金八柱)를 만나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별하고, 경모궁(景慕宮)⁴²⁹으로 내려와 수문장(守門將) 장인원(張仁源)이 출번(出番)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옴)했는지를 물으니 아침 일찍 출번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곧바로 파천동(波川洞) 그의 집으로 갔는데, 밥을 먹고 출타한 터라 만나지 못해 몹시 아쉬웠다. 이 사람은 홍원(洪原)⁴³⁰ 사람이다. 무침교(無沈橋)⁴³¹의 진사 송현재(宋顯載) 집에 찾아갔는데, 마침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회동의 송 장성을 만나 전주 북문의 송민수 서간에 답장을 받고자 한다고 말하니, 공교롭게 몸이 아파서 답장을 쓰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대로 작별하였다. 송지순의 집으로 내려와 작별한 뒤에 낙동(洛洞)의 구백(舊伯) 이광문 집으로 와, 잠시 만나고 나서 작별하였다. 용동으로 오니 자운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개간소(開刊所)의 여러 사람과 작별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정동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확교(確橋)⁴³²의 송 판서 집에 들렀으나, 송 판서가 출타하여 작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아들 송지학(宋持學)과 작별하고 나와 주인집으로 왔다. 차동(車洞)⁴³³으로 가서 민 박사와 작별하고 오니 공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 정동의

428 계성사(啓聖祠) : 서울시 문묘(文廟) 안에 공자(孔子) 등 다섯 성현의 아버지를 모신 사당이다.

429 경모궁(景慕宮)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에 있는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그의 비(妃)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사당이다. '경모전(景慕殿)'이라고도 했다

430 홍원(洪原) : 함경남도(咸鏡南道)의 남부해안 중앙에 위치하는 군이다.

431 무침교(無沈橋) : 서울시 중구 예관동과 충무로5가 부근에 있던 다리이다. 청계천의 지류인 묵사동천(墨寺洞川)에 있던 다리로 '물에 잠기지 않는 다리'라는 의미이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와 <수선총도> 및 <수선전도>에는 이 다리 이름이 '상무침교'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무침교와 상무침교를 혼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명 '무침다리' 혹은 무침교를 줄여서 '침교'라고도 불렀다.

432 확교(確橋)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과 신창동(새창골) 북쪽에 있던 다리이다. 1966년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이 고을에 학다리가 있어 마을 이름이 학교동(鶴橋洞)이 되었다고 하며, 일명 확교(確橋)라고도 불렀다.

433 차동(車洞) : 중구 의주로1가 순화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수릿골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추모동'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태어난 터에 비석을 세우고 그를 추모했던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석사 이해길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저무는 바람에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므로 저녁을 먹고 난 뒤 정동에 와서 묵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갔다. 저녁을 먹은 후 정동으로 갔다. 밤에 비가 내렸다.

十三日. 朝前, 與子允往啓聖祠, 見金八柱, 移時談話. 仍爲作別, 下來景慕宮, 問張守門將 仁源出番與否, 則早朝出番云. 故直向波川洞其家, 則食後出他, 故仍爲不見, 悵悵. 此人卽洪原人也. 尋往無沈橋 宋進士 顯載家, 則適出他不見, 來路入晦洞見宋長城, 以完北 宋民洙書簡受答爲言, 則適以身病不爲修答云. 仍爲作別. 下來宋持淳家, 作別後, 來洛洞舊伯李光文家, 暫見後, 仍爲作別. 而來龍洞, 則子允來待矣. 與開刊所諸人作別, 來主人家. 朝飯後, 往貞洞暫話. 來入確橋 宋判書家, 判書適出他, 不得作別. 只與其子持學作別, 出來主人家. 往車洞與閱碩士, 作別而來, 則公端來待矣. 午後貞洞 李碩士 惠吉來訪談話, 以日暮之致, 不得發程, 仍留. 故夕飯後, 來留貞洞之意, 懇托而去. 夕食後, 往貞洞. 夜雨.

■14일. 아침에 나와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애초 일찌감치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곳은 날씨 탓에 그대로 아침을 먹었다.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매우 기쁘고 다행이다.

十四日. 朝出, 來主人家. 初以早發爲定矣, 以雨戲之致, 仍朝飯. 終日雨不止. 久旱之餘, 得此好雨, 忻幸忻幸.

■15일. 박 상인(喪人, 상중에 있는 사람)이 맡은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일행과 뒤쳐져 울지, 여옥(汝玉), 자운과 동행하였다. 아침 먹기 전에 비가 내렸다.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비가 조금 갠 기미가 있어 그냥 짐을 꾸려 출발하였다. 청파(靑坡,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영대(永大) 집에 이르러 잠시 쉬고 나서 출발하였다. 강가에 이르니 비가 다시 내렸다. 비를 무릅쓰고 강을 건넜다. 승방(僧房)⁴³⁴

434 승방(僧房) : 승방坪(僧房坪)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던 마을로서, 마을 뒷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 앞쪽에 있던 마을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승방돌·심방돌이라고도 불렀다.

객점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남태령(南泰嶺)⁴³⁵을 넘어 과천(果川) 고을 앞 주막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30리를 갔다.

十五日. 朴喪人以所營事未決之致, 仍爲落後, 與聿之、汝玉、子允作伴. 朝前雨. 朝飯後, 稍有開霽之望, 仍治發. 抵青坡 永大家, 暫憩後, 仍爲發程. 抵江頭, 則雨更作. 冒雨越江. 抵僧房店暫憩. 越南泰嶺, 抵果川邑前酒店留宿. 行三十里.

■16일. 이른 새벽에 출발하였지만, 비 온 뒤라 길이 질척거려 가는 길이 몹시 힘들었다. 사근천(肆覲川)⁴³⁶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지지현(遲遲峴)⁴³⁷을 넘어 화성 북문 밖에 이르러 술을 사서 마셨다. 북문으로 들어가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동장대(東將臺), 소라각(小羅閣), 창용문(蒼龍門)을 구경하였다. 큰길에서 남문 밖으로 나와 요기를 하였다. 오매(烏梅)⁴³⁸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十六日. 曉頭發程, 而雨餘路泥, 行路甚艱. 抵肆覲川朝飯. 越遲遲峴, 抵華城北門外, 沽酒以飲. 入北門, 尋玩訪花隨柳亭、東將臺、小羅閣、蒼龍門. 自大道出南門外療飢. 抵烏梅留宿. 行八十里.

■17일.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진위(振威, 경기도 평택) 고을 앞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흥양의 지자(持者, 문서를 전하는 사람) 신우당(申于堂)이라는 녀석을 만나, 그편에 아들 편지를 받았다. 집을 떠난 후 처음으로 받은 편지였다. 집안에 별다른 우환이 없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었다. 경기와 충청, 두 도는 가뭄이 극심해 보리농사를 흉작으로 치부한

435) 남태령(南泰嶺) : 서울에서 과천을 지나 수원으로 가던 길로, 삼남대로의 첫 번째 큰고개이다.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은 호현(狐峴)인데 정조가 사도세자 묘를 참배하러 가는 도중에 이 고개 이름을 물었을 때 ‘여우고개’라는 이름을 요망스럽다 여겨 거명하지 못했는데 과천 아전이 ‘남태령’이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남태령’으로 개명되었다.

436) 사근천(肆覲川) : 경기도 안양시이다.

437) 지지현(遲遲峴) : ‘지지대고개’라고 불리는 곳이며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길목이다. 지지현(遲遲峴)이라고 표기하는 곳이지만 본래는 ‘사근현(沙斤峴)’, ‘미륵현(彌勒峴)’ 등으로 불렸다.

438) 오매(烏梅) : 경기도 수원시 오산동이다.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런 데다 14일 내린 비는 겨우 쟁기질이나 할 정도의 비에 불과하여 모내기할 길이 만무하다고 하였다. 남쪽의 소식은 그간에 몇 차례 비가 내려 보리농사와 모내기는 윗지방보다는 그나마 넉넉하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소사(素沙)⁴³⁹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직산(稷山) 삼거리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十七日. 早朝發程, 抵振威邑前酒店朝飯. 逢興陽持者申于堂上京之漢, 其便得見家兒書. 離家後初見書也. 家中別無憂故云, 幸幸. 京畿、忠清兩道, 則旱乾太甚, 麥凶辦之已久. 而雖十四日雨, 不過犁雨, 萬無移秧之道云. 南中消息, 則間有數次雨, 麥事與移種, 稍贍於上道云, 可幸可幸. 抵素沙療飢. 抵稷山三巨里留宿. 行八十里.

■18일. 일찍 출발하여 부기(富機)⁴⁴⁰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목천(木川)⁴⁴¹의 새 주막에 이르러서 개장국을 사서 점심을 먹었다. 김제역(金堤驛) 마을에 이르러 낙안(樂安)으로 가는 일행과 헤어졌다. 일행과 오촌(鰲村)으로 갈 참이라 고동령(高東嶺)을 넘어 전의(全義)⁴⁴² 읍내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十八日. 早發, 抵富機朝飯. 抵木川新酒店, 買狗羹午飯. 抵金堤驛村, 與樂安同行分路. 與同行作鰲村行, 越高東嶺, 抵全義邑內留宿行. 六十里.

■19일. 일찍 출발하여 노계(蘆溪)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초치원(草致院) 저자 주변에 이르러 잠시 쉬고 나서 출발하였다. 연기(燕岐) 삼거리에서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부강(浮江)과 매포(梅浦)를 지나, 신탄강(新灘江)을

439) 소사(素沙)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이다. 삼남대로는 소사동 북쪽에서 당산을 넘어 소사원을 지나 소사교를 건너 뒤 소사벌을 지나 곧장 남쪽으로 내려갔다. 소사원은 삼남대로 경기도 구간의 마지막 원으로 충청도에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다.

440) 부기(富機) :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부장리(富長里)의 옛 지명으로 추정된다. 부장리는 부다리(富多里)와 기촌(機村) 일부 등 세 마을이 합해져 이루어진 마을이다.

441) 목천(木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이다. 1413년 목천현(木川縣)이 되었다가, 다시 목천군을 거쳐 1914년 천안군에 통합되면서 목천면이 되었다. 1963년 천안시에 속하였고, 2002년 1월 1일 읍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른다.

442) 전의(全義)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다.

건너, 저물녘 오촌에 도착하였다. 저녁밥을 먹은 뒤 들어가 장석(丈席)⁴⁴³을 뵈니, 기후(氣候, 안부)가 묘사(묘사)이 평안하여 다행이었다. 외방(外房)으로 나와 목천(木川) 현감을 지낸 송흠성(宋欽成)⁴⁴⁴을 위문하였다. 목천은 작년 12월에 그 생부(生父) 상을 당하였다. 한참 동안 안부를 묻고 회포를 풀고 나와, 처소로 내려가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十九日。早發，抵蘆溪酒店朝飯。抵草致院市邊，暫憩後登程。抵燕岐三巨里午飯。歷浮江及梅浦，越新灘江，暮抵鰲村。夕飯後，入謁丈席，則氣候近得安寧，幸幸。出外房，被慰於木川欽成。木川前年十二月，遭其生父喪矣。移時敘暄出來，下處留宿。行八十里。

▪20일. 아침 먹기 전에 들어가 장석(丈席)을 뵈었다. 일행이 장석을 만나고자 하였으므로 먼저 얼굴을 돌려 나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일행과 들어가 장석을 뵈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옥이 《충열록(忠烈錄)》 1권을 드렸다. 그길로 하직하고 나와 출발하였다. 신탄(新灘) 저자 주변에 이르러 기주(欺酒)를 사서 먹었다. 신탄을 건너 유성(油城) 저자 주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성전(星田)⁴⁴⁵의 집성사(集成祠)⁴⁴⁶에 들러 참배를 하고 봉심(奉審, 사당을 살핌)을 하였다. 곧 주 부자(朱夫子)와 송 우암(宋尤菴) 두 선생의 영정이었다. 주부자의 영정 위에는 ‘문공 회암 주선생 진상(文公晦菴朱先生眞像)’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암의 영정 위에는 ‘문정공 우암 송선생 진상(文正公尤菴宋先生眞像)’이라고 쓰여 있었다. 봉심하고 난 뒤에 강당으로 나와 잠시 쉬고 나서 출발하였다. 산정령(散亭嶺)을 넘어 척후(尺後) 주막에

443) 장석(丈席) : 송치규(宋耨圭, 1759~1838)이다. 자는 기옥(奇玉)이고, 호는 강재(剛齋)이며, 본관은 은진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송시열의 6대손으로 김정묵(金正默)의 문인이다. 당시 오촌에 살아 ‘오촌 선생(鰲村先生)’이라고도 하였다.

444) 송흠성(宋欽成) : 1794~1862. 자는 흥경(興卿)이다. 송치규의 양자이다. 생부는 송득圭(宋得圭)인데, 1827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恩津宋氏族譜 卷1 65쪽》

445) 성전(星田) :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별밭 마을이다.

446) 집성사(集成祠) :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두고 배향하는 곳으로 사당, 사우라고 한다. 고려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향촌 교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특히 중국 남송 때의 유학자 주희를 모시는 사당이 많이 건립되었다.

이르러 유숙하였다. 50리를 갔다.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천 리 먼 노정을 멀다 않고 찾아오니	千里長程不遠尋
선연히 남은 영정이 예나 지금이나 같네	分明遺像古猶今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 참배하니 비루한 마음 없어지고	趨庭瞻拜消鄙吝
저절로 천추토록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네	自發千秋敬畏心

二十日 朝前，入謁丈席。同行欲見丈席，故先爲旋容出來。朝飯後，與同行入謁，移時談話。汝玉納《忠烈錄》一卷。仍爲下直而出來，發程。至新灘市邊，買欺酒以食。越新灘，抵油城市邊午飯。歷入星田 集成祠，參謁奉審。卽朱夫子、宋尤菴兩先生畫像。如朱夫子影幀上，書文公 晦菴 朱先生眞像；尤菴影幀上，書文正公 尤菴 宋先生眞像。奉審後出來講堂，暫憩後登程。越散亭嶺，抵尺後酒店留宿。行五十里。吟一絕曰：“千里長程不遠尋，分明遺像古猶今，趨庭瞻拜消鄙吝，自發千秋敬畏心。”

▪21일. 신도(新都)를 둘러볼 생각으로 곧 아침을 먹고 고개 둘을 넘어 신도에 이르렀다. 대궐터를 둘러보니 기둥과 주춧돌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상세히 두루 구경하기도 전에 비가 쏟아졌다. 백암동(白巖洞) 앞 주막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한참 있다가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갭 기미가 있는 듯하였으므로 비를 무릅쓰고 출발하였다. 개태(開泰) 객점에 못 미쳐 들에서 모내기하는 곳을 만나 모내기 밥을 얻어먹었다. 연산(連山) 고을 앞에 이르러 개태정(開泰鼎)⁴⁴⁷을 구경하였다. 둘레는 5~6파(把) 정도이고, 깊이는 1장(丈, 10척)쯤이었다. 구경을 다하고 나서 출발하였다. 중도에 소나기를 만나 의관이 흠뻑 젖어 몹시 괴로웠다. 간신히 대천(大川)을 건너 은진(恩津) 삼거리(三거리)에 이르러 잠시 쉬고 나서, 저물녘에 시암(柿岩)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二十一日。欲玩新都之意，仍朝飯，越二嶺，抵新都。斲大關基址，則列置柱

447) 개태정(開泰鼎)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개태사에 있는 ‘개태사 철학(鐵鑊)’을 말한다. 이 솥은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개국사찰로서 개태사를 창건하였을 때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직경은 289cm이고, 높이는 96cm이며, 둘레는 910cm이다.

礎石. 未詳周翫之際, 雨作. 入白巖洞前酒店避雨. 移時少選後. 似有開霽之望, 故冒雨發程. 未及開泰店, 野中逢移秧處, 得食秧飯. 抵連山邑前, 翫開泰鼎. 周可五六把, 深可一丈. 翫後登程. 中路驟雨, 衣冠盡濕, 悶悶. 艱越大川, 抵恩津三巨里暫憩後, 暮抵柿岩留宿. 行七十里.

■22일. 일찍 출발하여 여산(礪山)⁴⁴⁸ 새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능⁴⁴⁹ 옆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용산교(龍山橋)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객방(客房)에 빈대[蝸]가 많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에 일어나니 주인이 정주간에 자리를 깔아 주었다. 그래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몹시 짜증이 났다.

二十二日. 早發, 抵礪山新店朝飯. 抵陵側午飯. 抵龍山橋店留宿. 行七十里. 店房多蝸, 夜不祗睡. 夜起, 主人鋪席廚間. 仍不祗眠達曉, 可憤可憤.

■23일. 일찍이 출발하여 부내(府內)의 전성철(全聖哲) 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북문 밖의 송민수(宋民洙) 집으로 가니 노원(魯源)이 법사산(法司山)에 간 바람에 만나지 못하였다. 그길로 그의 큰형 송약수(宋若洙) 씨 집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그길로 출발하여 법사산으로 찾아갔다. 도중에 비를 만나 의관이 쫄딱 젖어 힘겨웠다. 노원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20리를 갔다.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三日. 早發, 抵府內全聖哲家朝飯. 往北門外宋民洙家, 則魯源出去法司山, 故不得相見. 仍往其伯氏若洙氏家暫話, 還來主人家. 仍爲登程, 尋往法司山. 中路逢雨. 衣冠盡濕艱. 魯源家留宿. 行二十里. 夜雨.

■24일. 아침에 또 비가 와서 일찍 출발할 수 없었다. 너무 늦어져 비를 무릅쓰고 출발하였다. 작은 고개 하나를 넘으니 정자 돌이 있는 큰길이 나왔다. 정자동

448) 여산(礪山)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이다.

449) 능 :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익산 쌍릉으로 보인다. 마한(馬韓)의 무강왕 및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고, 백제 무왕과 왕비의 능이라고도 한다.

(亭子洞)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오원천(烏院川)⁴⁵⁰ 가에 이르니 교량이 전부 부서지고 냇물이 크게 불어 있었다. 월천군(越川軍, 강을 건네주는 인부)을 붙잡고 건너는데 물이 어깨 위를 넘자, 마음이 몹시 위태롭고 두려웠다. 날이 저물어 굴암(屈岩)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二十四日. 朝又雨, 不得早發. 最晚後, 冒雨發程. 越一小嶺, 出雙亭子大路. 抵亭子洞午飯. 抵烏院川邊, 則橋梁盡破, 川水大漲. 以越川軍扶持以越, 而水過肩上, 心甚危怕矣. 暮抵屈岩店留宿. 行七十里.

■25일. 일찍 출발하여 두치(斗峙)⁴⁵¹를 넘어, 야당(野塘)⁴⁵²의 송연영(宋延英) 집에 들러 아침을 먹었다. 주인이 1냥을 노자로 주었다. 곧바로 출발하여 국평(菊坪)⁴⁵³의 하서(夏瑞)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주막으로 와 일행과 잠시 얘기를 나누며, 이에 술을 사서 권하였다. 오수(鰲樹) 최복신(崔福臣) 집에 들러, 오수에게 김 수재(金秀才)가 남긴 편지를 전하고 나왔다. 새 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주포(周浦)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二十五日. 早發, 越斗峙, 入野塘 宋延英家朝飯. 主人以一兩錢贖行矣. 卽發, 入菊坪 夏瑞家暫話. 偕來酒幕, 與同行暫話, 仍以沽酒以勸. 而入鰲樹崔福臣家, 傳鰲樹留金秀才書簡出來. 新店午飯. 抵周浦店留宿. 行六十里.

■26일. 일찍 출발하여 울목정(栗木亭)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입진(笠津)을 건너 울지(聿之)와 여옥(汝玉)은 조막(造幕)으로 들어가고, 나는 자운과 천평(泉坪)으로 와서 유숙하였다. 90리를 갔다.

二十六日. 早發, 抵栗木亭午飯. 越笠津, 聿之與汝玉入造幕, 余與子允來泉坪留宿. 行九十里.

450) 오원천(烏院川) :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섬진강 상류이다.

451) 두치(斗峙) : 전라북도 임실과 오수를 잇는 길로 '말재'라고 하였다.

452) 야당(野塘) : 전라북도 임실군 남면 야당리이다.

453) 국평(菊坪)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국평 마을이다.

■27일.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다. 큰 고개 둘을 넘어 송광사(松廣寺)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20리를 갔다.

二十七日. 仍朝飯發程. 越二大嶺, 入松廣寺留宿. 行二十里.

■28일. 아침을 먹고 비를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서령(西嶺)⁴⁵⁴에 이르러 고개 아래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여옥은 추동(楸洞)⁴⁵⁵에 들를 생각으로 먼저 갔다. 벌교(筏橋)⁴⁵⁶에 이르러 여옥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옥이 와서 다 같이 동면(東面)⁴⁵⁷으로 왔다. 정암정(鼎岩亭)에 이르자 비가 내렸다. 여옥은 곧바로 들어가고 우리 일행은 월악(月岳)⁴⁵⁸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二十八日. 朝飯, 冒雨登程. 抵西嶺, 嶺下店午飯. 汝玉入楸洞之意先行. 抵筏橋留待汝玉矣. 非久汝玉果來, 偕來東面. 至鼎岩亭雨作. 汝玉則直入, 吾同行入月岳留宿. 行六十里.

■29일. 밥을 먹은 뒤 출발하였다. 마을 앞을 나오니 집 아이가 내가 내려온다는 기별을 듣고 며칠 전에 나와서 사교(四橋)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월악에 들어왔다는 기별을 듣고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사교로 와서 가교(柯橋)댁에서 유숙하였다. 재동(齋洞) 귀산(龜山)⁴⁵⁹이 모두 무고하다니 매우 다행이었다. 二十九日. 食後發程 出村前. 則家兒聞吾下來之奇, 日前出來, 四橋留待矣. 聞昨入月岳之奇出來. 故仍爲偕來四橋, 留柯橋宅. 齋洞、龜山皆無故云, 幸幸.

454) 서령(西嶺)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석거리재이다. 벌교에서 서울 방향으로 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이다.

455) 추동(楸洞)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이다.

456) 벌교(筏橋)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이다.

457) 동면(東面)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이다. 동강면은 옛 대강면(大江面)과 동면이 병합된 것이다.

458) 월악(月岳)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이다.

459) 재동(齋洞) 귀산(龜山) :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있는 재동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산 송씨 파족을 말한다. 재동파는 고흥 대서의 귀산파, 두원의 금성파, 동강의 대강파가 있다.

■30일. 밥을 먹은 뒤 들어왔다. 과역(過驛) 저자 변두리에 이르렀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이 우선 무고한 것이 다행이었다. 다만 날이 가문 바람에 모내기를 5마지기만 했더니 몹시 걱정이었다.

晦日. 食後入來. 抵過驛市邊. 午後還家. 家中姑無故是則幸矣. 而以日旱之致, 移秧只五斗地, 悶悶.

동행록 同行錄

정효영 울지 기사년 본관 영광(丁孝榮 聿之, 癸巳, 靈光人)
박상헌 사원 기축년 본관 창원(朴祥顯 士元, 己丑, 昌原人)
송석년 수이 무술년 본관 여산(宋錫年 壽而, 戊戌, 礪山人)
송 격 내원 신유년 본관 남양(宋 格 乃元, 辛酉, 南陽人)
송 호 여옥 을묘년 본관 남양(宋 琥 汝玉, 乙卯, 南陽人)
박종운 병오년 본관 창원(朴宗運, 丙午, 昌原人)
신희록 자운 을축년 본관 고령(申希祿 子胤, 乙丑, 高靈人)
조성령 무진년 -임피(臨陂) 서면(西面)⁴⁶⁰ 상동촌(尙洞村)에 거주-
(趙成靈, 戊辰, 人. 【居臨陂 西面 尙洞村.】)
박영규 여경 계해년 본관 밀양(朴榮珪 汝卿, 癸亥, 密陽人)

460) 서면(西面)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이다.

무자년(1828) 9월 11일

戊子九月十一日

올여름 4월에 《성원현보(姓苑賢譜)》 발간 관련 일로 친구들과 상경하였다. 다만 단자(單子, 명단)만 받고, 예물(例物)은 받지 않아, 가을을 기약하고 돌아왔다. 올해 곡식이 비록 익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보는 것이 좋겠기에 율지(聿之) 형과 동행하였다.

是年之夏四月, 以《姓苑賢譜》事, 與諸益上京. 只納單子, 不納例物, 故以秋爲期而來矣. 今年穡事, 雖云不登, 不得已往觀爲可, 故與聿之兄作伴.

■ 12일. 출발하여 과역(過驛)⁴⁶¹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율지는 마륜(馬輪)⁴⁶²으로 들어가고, 나는 침교(沈橋)⁴⁶³로 들어가 경우(敬祐) 씨 집에서 유숙하였다.

十二日. 發程, 抵過驛中火. 聿之入馬輪, 余則入沈橋, 留敬祐氏家.

■ 13일. 경우 씨와 함께 사교(四橋)로 가니 문중 형편 때문에 올해는 거둬 여장을 꾸리는 것이 안 된다고 하여 고민이었다. 그대로 유숙하였다. 율지는 먼저 낙안 동림(同林)⁴⁶⁴으로 갔다.

十三日. 與敬祐氏同往四橋, 則門中物情以如今之年, 再次治行不可云云, 悶悶. 仍留. 聿之先去樂安 同林.

■ 14일. 아들이 김노(金奴)를 데리고 나왔다. 재동(齋洞)⁴⁶⁵ 귀산(龜山)⁴⁶⁶

461) 과역(過驛)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이다.

462) 마륜(馬輪)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이다.

463) 침교(沈橋) :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이다.

464) 동림(同林)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동림 마을이다.

465) 재동(齋洞) :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있는 재동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산 송씨 파족을 말한다. 재동파는 고흥 대서의 귀산파, 두원의 금성파, 동강의 대강파가 있다.

466) 귀산(龜山) :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귀산 마을이다. 여산 송씨 재동 귀산파의 집성촌이다.

의 제족들에게 모이라고 통지하여, 개인 문중의 제수는 대략 형편에 맞게 정하고, 8냥 7전으로 여장을 꾸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김노를 율지에게 보냈다. 내일 추동(楸洞)에서 만날 생각으로 그대로 유숙하였다.

十四日. 家兒率金奴出來. 通奇于齋洞·龜山諸族來會, 私門中祭馱, 略略的定, 以八兩七錢治行爲言. 故送金奴於聿之. 以明日相會于楸洞之意, 而仍留.

■ 15일. 아들을 데리고 추동으로 오니 율지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동(壽洞)에서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는 그길로 출발하여 정문등(旌門登)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50리를 갔다.

十五日. 率家兒出來楸洞, 則聿之來待矣. 送家兒于壽洞, 余則仍爲登程, 抵旌門登留宿. 行五十里.

■ 16일. 일찍 출발하여 사미정(四美亭)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광천(廣川)⁴⁶⁷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귀정(歸亭)에 들러 잠시 외종 형수를 보고, 대초정(大抄亭)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十六日. 早發, 抵四美亭朝飯. 抵廣川療飢. 入歸亭暫見外從嫂, 抵大抄亭留宿. 行七十里.

■ 17일. 일찍 출발하여 용계(龍溪)⁴⁶⁸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남원 자생(者省)⁴⁶⁹의 원산(圓山) 필흥(弼興) 집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十七日. 早發, 抵龍溪朝飯, 抵谷城邑內療飢. 入南原者省 圓山 弼興家留宿. 行七十里.

467) 광천(廣川)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이다.

468) 용계(龍溪)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근처이다.

469) 자생(者省)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근처이다.

■18일. 아침을 먹은 후 출발하였다. 사동(蛇洞)⁴⁷⁰ 객점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오수(熬樹) 시장 주변에 이르러 술을 사서 마시고 잠시 쉬었다. 집에 있을 때 전해 듣기로 7월 대홍수에 오수장터가 물에 잠겼다고 하던데, 지금 와서 보니 도로 주변 가옥은 부서져 파손된 곳이 많았고, 저자 주변 가게들은 모두 새로 지어졌으니, 예전에 들은 소문이 실로 허튼 말이 아니었다. 임실(任實) 국평(菊坪)⁴⁷¹의 하단(夏瑞) 집에 이르니 하단은 출타하고, 그 아들 전(楨)만 있었다. 저녁 무렵 하단이 들어왔는데 그 손자가 단독(丹毒)⁴⁷²에 걸렸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대로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점심 무렵 증산(甌山)을 지날 때 절구 한 구절을 읊었다. 읊지가 다음과 같이 먼저 읊었다.

예전에도 동행하고 오늘도 같이 가건만	昔日同行今又同
수척해진 몸과 쇠약해진 뼈마디에 서릿바람 두렵네	瘠身衰骨畏霜風
증산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갈림길이 많아	甌山路黑兼多歧
먼 데서 온 객 지팡이 멈추고 끊임없이 묻네	遠客停筇問不窮

내가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천 리 먼 노정에 두 지팡이 함께 가니	千里長程二杖同
때는 9월 국화꽃 피는 시절이라네	時維九月菊花風
조룡성 아래 증산의 길에는	烏龍城下甌山路
붉은 단풍잎으로 단장한 산 풍경 무궁하네	紅葉粧山景不窮

十八日. 朝飯後, 發程. 抵蛇洞店療飢. 抵熬樹場邊, 沽酒以飲暫憩. 而在家時, 傳聞七月大水 熬樹場墟爲水所浮云矣, 今來見之, 則路邊村家, 多有破

470) 사동(蛇洞) :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이다.

471) 국평(菊坪)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국평 마을이다.

472) 단독(丹毒) :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고열이 나는 병이다.

傷之處, 市邊假家, 盡爲新造, 前日所聞 實不虛矣. 抵任實 菊坪 夏瑞家, 則夏瑞出他, 只有其子楨矣. 夕時夏瑞入來, 其孫兒之丹毒, 方在憂慮中矣. 仍留宿. 行七十里. 午過甌山時, 口號一絕. 聿之先曰: “昔日同行今又同, 瘠身衰骨畏霜風. 甌山路黑兼多歧, 遠客停筇問不窮.” 余次曰: “千里長程二杖同, 時維九月菊花風. 烏龍城下甌山路, 紅葉粧山景不窮.”

■19일. 밥을 먹은 뒤 하단과 야당(野塘)으로 와서 송필동(宋弼東) 씨를 만났다. 이에 점심을 먹고 동행하여 계동(桂洞)⁴⁷³의 송화(宋燁) 집으로 왔다. 저녁을 먹은 뒤 그 마을 종인(宗人)인 상향(象亨), 상풍(象豐), 상정(象貞), 상의(象義), 상태(象台)가 다 같이 찾아왔다.

十九日. 食後, 與夏瑞偕來野塘, 見宋弼東氏. 仍爲午飯, 而同行來桂洞 宋燁家. 夕食後, 其村宗人象亨、象豐、象貞、象義、象台, 皆來見.

■20일. 주인이 극구 만류하여 그대로 머물렀다. 낮에 김노가 다리 통증으로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니 몹시 걱정되었다. 거처 앞에는 시내가, 뒤에는 소나무가 있어 아주 고즈넉하였다. 절구 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개울물 소리는 밤새도록 울리고	澗有通宵響
둥글고 깊다라니 진종일 그늘 드네	圓深盡日陰
거처하는 곳이 시내 저자 주변이건만	攸居城市邊
혹 속인이 찾아오는 건 싫어하네	倘嫌俗人尋

二十日. 以主人之堅挽, 仍留. 午間, 金奴以脚病痛臥, 悶悶. 所居前溪後松甚幽寂. 吟一絕曰: “澗有通宵響, 圓深盡日陰. 攸居城市邊, 倘嫌俗人尋.”

■21일. 밥을 먹은 뒤 송화(宋燁) 군찬(君贊), 송낙의(宋樂義) 내직(乃直)과 나와 광암(廣岩) 객점에서 하단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참 있으니 하단이 과연

473) 계동(桂洞)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계동 마을이다.

왔길래 술을 사서 함께 마시고 군찬과 내직 두 송씨와 작별하였다. 하단과 동행하여 칩치(箠峙)를 넘어 굴암(屈岩) 아래 객점에 이르러 작별하였다. 도마교(逃馬橋)⁴⁷⁴ 주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방동(芳洞)⁴⁷⁵의 송렴(宋濂)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송상오(宋象五), 송재환(宋在煥) 두 사람의 유고에 조문하기 위해서였다. 30리를 갔다.

二十一日。食後，與宋燁 君贊、宋樂義 乃直出來，廣岩店待夏瑞來矣。移時夏瑞果來，沽酒相飲，與君贊 乃直兩宋作別。與夏瑞同行，越箠峙，抵屈岩下店作別。抵逃馬橋邊午飯。抵芳洞 宋濂家留宿。入此洞者，吊宋象五、宋在煥 兩人之故也。行三十里。

■22일. 밥을 먹은 뒤 송상오를 조문하고 출발하였다. 만마동(萬馬洞)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절구 한 구절을 읊었다.

만마동 산골에 나뭇잎 떨어지는 가을	萬馬關山落木秋
기암괴석은 길가에 우뚝우뚝 솟아있네	奇岩怪石路頭頭
무성한 신록은 단풍 든 계절만 못하니	繁陰不若丹楓節
누가 나보다 먼저 이 누정을 읊었을까	先我何人詠此樓

정자동(亭子洞)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부내(府內)의 전성철(全聖哲)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저녁참에 북문 밖으로 가서 송약수(宋若洙) 씨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그 아우 송민수(宋民洙) 씨 집에 들렀다. 그와 함께 주인집으로 와 잠시 얘기를 나누고 갔다.

二十二日。食後，吊宋象五而發。過萬馬洞，吟一絕曰：“萬馬關山落木秋，奇岩怪石路頭頭。繁陰不若丹楓節，先我何人詠此樓。”抵亭子洞午飯。抵府內全聖哲家留宿。行六十里。夕間，往北門外，見宋若洙氏暫話。來路入其弟民洙氏家。與之偕來主人家，暫話而去。

474) 도마교(逃馬橋) : 임실군 임실읍에서 내려온 시내에 놓인 나무다리로서, 말이 건너다녔다 하여 도마교(道馬橋)라고 했다. 원문 '逃'는 저본의 오류로 보이거나 확실치 않다.

475) 방동(芳洞)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방동 마을이다.

■23일. 밥을 먹은 뒤 출발하였다. 북문 밖으로 가 잠시 송약수 씨를 만났는데 서울로 보내는 편지를 주었다. 그길로 출발하여 장대(將臺) 앞에 이르자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남문 밖에 사는 류하석(柳夏錫) 영운(令倫)이었다. 내가 이미 부내에 들어섰으니 찾아가지 못할 것도 없는데, 갈 길이 바쁜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왔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 무척 기뻐했다. 그길로 동행하여 삼례(參禮)⁴⁷⁶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물녘에 능⁴⁷⁷ 옆 객점에 이르러 함께 유숙하였다. 50리를 갔다.

二十三日。食後發程。往北門外，暫見若洙氏，則付京簡矣。仍發，抵將臺前，則有呼我之人。故顧見，則乃南門外居柳夏錫 令倫也。余既入府，則非不爲尋訪，而以行忙之致，未果而來矣。忽於此地意外相面，其喜可掬。仍與同行，抵參禮午飯。暮抵陵側店，同留宿。行五十里。

■24일. 영운과 같이 자면서 실로 뜻이 맞아,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어서 주었다.

우연히 서로 만난 것이 기약해서 만난 것보다 나으니	偶與相逢勝有期
산은 온통 붉은 단풍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든 시절이라	山多紅葉野黃時
하룻밤 나란히 누워 자니 오히려 서글픈 마음만 남기에	一宵聯枕猶餘悵
은근한 마음으로 이별을 아쉬워하는 시를 지어서 주네	贈以慇懃惜別詩

영운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벗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기약도 없이 만났으니	朋自遠方會不期
단풍 물들고 노란 국화 피는 마침 좋은 계절이라	丹楓黃菊正佳時
가슴에 쌓인 회포 다하지 못했건만 도로 이별하니	襟懷未盡還爲別
은근한 마음에 같이 술을 마시며 다시 시를 논하네	慇懃同酌更論詩

476) 삼례(參禮)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이다.

477) 능 :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익산 쌍릉으로 보인다. 마한(馬韓)의 무강왕 및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고, 백제 무왕과 왕비의 능이라고도 한다.

올지가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세 늙은이 옷깃 나란히 하여 기약이 있는 듯하니	三老聯襟若有期
마침 북쪽 기러기가 남쪽으로 가는 계절이로구나	正當北雁向南時
새벽 창가에 새벽달 희미해질 때 서로 헤어지니	曉窓殘月相分手
아쉬운 작별의 회한이 남아 시를 지어서 드리네	惜別餘懷贈以詩

그길로 헤어져 출발하였다. 여산(礪山)⁴⁷⁸ 읍 앞 객점에 이르러 밥을 먹기로 하고 황산(黃山)⁴⁷⁹과 부여(扶餘)로 가는 노정(路程)을 물었다. 그곳에 들리는 것은 황산의 죽림서원(竹林書院)⁴⁸⁰에 참배하고, 그길로 부여로 가서 생원 김호일(金浩一)을 찾아가는 일 때문이었다. 황산에 못미처서 중도에 길을 잃은 것이 수차례여서 간신히 찾아가 황산의 서원 밑에 이르렀다. 먼저 장암(場岩)에서 이 마을로 이거한 송문언(宋文彦)을 찾아갔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서원을 참배하려는 뜻을 말하고, 이에 모두 원우(院宇)로 갔다. 수복(首僕)을 불러 분부하니, 수복이 재복(齋服, 재계할 때 입는 옷) 2벌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재복을 입고 서원 마당에서 참배하고 신실(神室)로 들어가 봉심(奉審, 사당을 살핌)하니, 정암(靜庵), 퇴계(退溪), 울곡(栗谷), 우계(牛溪), 사계(沙溪), 우암(尤菴) 여섯 분의 선생이 배향되어 있었다. 신실(神室)의 처마 사이에는 ‘죽림서원’이라고 걸려 있었다, 강당 앞에는 작은 석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앞면에 팔분체(八分體)로 ‘황산서원비(黃山書院碑)’라고 적혀있었다. 서원 터와 원우(院宇)가 아주 넓고 흰했다.

참배하고 나서 《심원록(審院錄)》에 이름을 적고, 송문언을 따라 황산 봉우리에 오르니 송림이 깊고 그윽한 곳에 정자 하나가 있었다. 처마에 ‘팔괘정(八卦

478) 여산(礪山) : 전라북도 익산의 옛 지명이다.

479) 황산(黃山)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이다.

480) 죽림서원(竹林書院)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서원으로 1626년(인조 4)에 세워졌다. 1663년(현종 4)에 중건하였으며, 2년 뒤 1665년 사액되었다. 본래 창건 때에는 지명을 따서 ‘황산 서원(黃山書院)’이라 하였다. 서원에 제향된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의 6인이 모두 문묘(文廟)에 배향된 유현(儒賢)이라 하여 ‘육현 서원(六賢書院)’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亭)⁴⁸¹이라는 편액이 있었다. 방안 사방 벽에는 팔괘가 그려져 있었는데 바로 노 선생(송시열)이 그 당시 독서를 하던 당이었다. 지금도 독서하는 두서너 관동(冠童)이 있었다. 당 뒤의 수풀 사이 석벽에는 “청초안(靑草岸), 몽괘벽(夢掛壁), 일감당(一鑑塘), 삼계리(三桂里), 평주도(平疇島)”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노 선생의 필적이었다. 앞에는 큰 바다(금강(錦江)을 말함)가 있고 뒤에는 강경(江鏡)이 있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갈 길이 바쁜 관계로 상세히 보지는 못하고 그길로 내려와 술을 사서 서로 마시고 작별하였다. 송문언은 영운이 알려준 사람이었다. 날이 이미 저물어 급히 강경 마을 앞 나무를 건너 5리를 갔다. 또 굴암(屈岩) 나무를 건너 출발하였다. 석성(石城)⁴⁸²의 마치(麻峙)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강경은 여염집이 즐비하고, 선박이 왕래하여 원산(元山)보다 못하지 않았다.

二十四日。與令倫同聯枕，實是意同，吟一絕以贈。 “偶與相逢勝有期，山多紅葉野黃時。一宵聯枕猶餘悵，贈以殷懃惜別詩。” 令倫次日曰：“朋自遠方會不期，丹楓黃菊正佳時。襟懷未盡還爲別，殷懃同酌更論詩。” 聿之次日曰：“三老聯襟若有期，正當北雁向南時。曉窓殘月相分手，惜別餘懷贈以詩。” 仍爲分袂而登程。抵礪山邑前店期飯，問黃山 扶餘路程。仍入者，欲爲審拜於黃山 竹林書院，仍向扶餘，訪金生員 浩一故也。未及黃山，中路失路者數次，艱尋抵黃山 院底。先訪自場岩移寓於此村宋文彦。敍寒暄後，因言瞻拜書院之意，則仍爲偕往院宇。招首僕分付，則首僕持來齋服二領。故着齋服，瞻拜院庭，入神室奉審，則靜菴、退溪、栗谷、牛溪、沙溪、尤菴六先生配享。而神室相間，揭以“竹林書院”。講堂前立小石碑，前面以八分書“黃山書院碑”。基址與院宇甚宏闊。瞻拜後，書名《審院錄》，隨宋文彦上黃山山峯，則松林深邃之地，有一間亭閣。相間扁以“八卦亭”。房內四壁畫八卦，卽老先生當日讀書之堂也。而至今有數三冠童讀書矣。堂後林間石壁，刻“靑草岸、夢掛⁴⁸³壁、一鑑塘、三桂里、

481) 팔괘정(八卦亭)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누정으로, 1663년(현종4)에 송시열이 건립하였다.

482) 석성(石城)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이다.

483) 掛 : 저본의 ‘桂’는 송병선(宋秉璿)의 《연재집(淵齋集)》〈유황산급제명승기(遊黃山及諸名勝記)〉에 의거하여 ‘掛’로 수정하였다.

平⁴⁸⁴疇島”皆是老先生筆. 前有大洋, 後有江鏡, 甚佳麗之地, 以行忙之致, 不能詳玩, 仍爲下來, 沽酒相飲而爲作別. 宋則令倫指示之人也. 日已夕矣, 急渡江鏡村前津, 行五里. 又渡屈岩津發. 抵石城 麻峙店留宿. 行六十里. 江鏡閭閻之櫛比, 船隻之往來, 不下於元山矣.

■25일. 일찍 출발하여 석성 읍 앞 콩죽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부여읍 앞에 이르러 김호일이 사는 마을을 물으니 규암(窺岩)⁴⁸⁵ 마을에 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규암 나루를 건너 김 생원 집을 찾아갔는데, 사랑채가 마침 비어있었다. 사랑 앞에서 서성거리니 소동(小童)이 안에서 나왔다. 그래서 김 생원의 거취를 자세히 물으니 주막에 갔다고 대답하였다. 소동과 주막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김 생원을 만났다. 안부를 묻기도 전에 하는 말이, 수백 리 밖에서 누추한 곳을 찾아준 것이 실로 뜻밖이라고 하였다. 이에 사랑에 들어가 안부를 물으니, 그간에 그 동생 김호선(金浩善)이 부인상을 당했다고 하였다.

안채에서 삶은 밤 한 그릇을 대접해 주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모두 나룻가 객점으로 나와 술을 사서 마셨다. 수북정(水北亭)⁴⁸⁶에 올라 잠시 구경하였는데 정자는 규암 절벽 위에 있었다. 난간 앞에는 백강(白江)⁴⁸⁷이 흐르고, 정자 뒤에는 푸른 벼랑이었다. 곳곳이 높은 봉우리고 사방은 강모래로 정취가 가득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눈에 담긴 풍경은 흥양(興陽)의 쌍충사(雙忠祠)⁴⁸⁸보다 더 아름다웠다. 정자의 사방 벽에 고인의 제영(題詠)이 많이 있었으나 바빠서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작은

484) 平 : 저본에는 없는 글자인데 송병선(宋秉璿)의 《연재집(淵齋集)》〈유황산금계명승기(遊黃山及諸名勝記)〉에 의거하여 추가하였다.

485) 규암(窺岩)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이다.

486) 수북정(水北亭) :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 절벽 위에 있는 누각으로, 광해군 때에 양주 목사로서 있던 김흥국(金興國)이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지었다.

487) 백강(白江) : 충청남도 부여의 북부를 흐르는 강이다.

488) 쌍충사(雙忠祠)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사당으로, 조선 전기 무신李大源, 1566~1587)과 정운(鄭運, 1543~1592)을 배향하였다.

나루를 건너 백강서원(白江書院)⁴⁸⁹에 가서 참배하고 붕심하였다. 신독재(愼獨齋)⁴⁹⁰ 김 선생과 백강(白江)⁴⁹¹ 이 선생이 배향되어 있었다. 《심원록(審院錄)》에 이름을 적었다. 그길로 백강 나루를 건너 김 진사 집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나서 뱃사공을 불러 배를 타고 낙화암(落花巖)⁴⁹²을 지나 고란사(皐蘭寺)⁴⁹³ 앞에 이르러 육지에 내렸다. 고란사에 오르니 암자는 큰 강가 절벽 아래 있었고, 낙화암은 그 왼쪽에 있고, 조룡대(釣龍臺)⁴⁹⁴는 그 오른쪽에 있었다.

사방에 펼쳐진 강과 산은 모두 정감에 젖게 하였고, 굽이굽이 흐르는 모래와 강물은 모두 아름답고 수려하였다. 절에는 책을 보는 관동(冠童)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유숙하였다. 30리를 갔다. 모래는 밝고 물은 푸르며 산은 수려하였지만, 평생 보아온 것이기도 하고 내가 갈 길이 바쁜 관계로, 여러 날 동안 머무를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二十五日. 早發, 抵石城邑前豆粥店朝飯. 抵扶餘邑前, 問金浩一所居村, 則居在窺岩村云. 故越窺岩津, 訪金生員家, 則舍廊適空. 廊前徘徊之際, 有小童自內而出, 故詳問金生員去就, 則答以往于酒家. 偕小童往酒家, 路上逢金生員. 則寒暄前所言, 數百里之外, 委訪陋巷, 實是意外. 仍入舍廊, 得問

489) 백강서원(白江書院) : 부산서원(浮山書院)을 말한다. 1719년(숙종45)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김집(金集)과 이경여(李敬輿)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같은 해에 ‘부산(浮山)’이라고 사액되어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철폐되었다. 그 뒤 군수 정연달(鄭然達)을 중심으로 한 지방 유림에 의해 1980년에 복원되었다.

490) 신독재(愼獨齋) : 김집(金集, 1574~1656)이다. 자는 사강(士剛)이고, 호는 신독재(愼獨齋)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아버지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의 기본적 체계를 완비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에게 학문을 전하여 기호학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491) 백강(白江) : 이경여(李敬輿, 1585~1657)이다.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봉암(鳳巖)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세종의 7대손이며, 할아버지는 첨정(僉正) 이극강(李克綱)이다. 저서로는 『백강집(白江集)』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492) 낙화암(落花巖)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에 있는 바위로, 삼국시대 백제의 의자왕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493) 고란사(皐蘭寺) : 충청남도 부여군 부소산에 있는 백제 말기에 창건된 절이다. 앞에는 백마강이 흐르고, 그 뒤 벼랑에 희귀한 고란초가 자생하기 때문에 ‘고란사’라 불리게 되었다.

494) 조룡대(釣龍臺) :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 가에 있는 바위이다.

伊間, 遭其弟浩善之妻喪云矣. 自內間待之以一器熟栗矣. 移時談話後, 皆出津頭店, 沽酒以飲. 上水北亭暫玩, 則亭在窺岩絕壁上. 檻前百江, 亭後蒼崖. 處處峯巒而面面江沙, 無非多情, 滿目景處, 勝於興陽 雙忠祠矣. 亭之四壁. 多有古人題詠. 而忙未記之可歎. 越一小津, 往白江書院, 瞻拜奉審, 則慎獨齋 金先生、白江 李先生殿享矣. 書名《審院錄》. 仍越白江津, 入金進士家, 暫憩後, 招津夫乘船, 過落花岩, 抵阜蘭寺前下陸. 上阜蘭寺, 庵在大江上絕壁下, 落花岩在其左, 釣龍臺在其右. 面面江山, 皆是多情; 曲曲沙流, 盡爲佳麗. 寺有讀書冠童數人, 與之同留宿. 行三十里. 沙明水碧, 秀麗群山, 平生所見, 以吾行忙之致, 不得數日留連, 可歎可歎.

■26일. 밥을 먹은 뒤 길을 떠날 무렵, 마침 암자 아래를 지나는 상선(商船)이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물으니 공주로 간다고 하였다. 뱃사공을 불러 급히 배에 올랐다. 배를 띄운 지 몇 리 못 가서, 바람과 일기가 순조롭지 못해 도로 배에서 내려 육지에 올랐다. 선덕(先德)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삼거리 객점을 지나 발치(發峙)⁴⁹⁵를 넘어 이인(里仁)⁴⁹⁶ 객점에 이르렀다. 잠시 쉬고 나서 우금치(于今峙)⁴⁹⁷를 넘어 공주 화산교(花山橋)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二十六日. 食後, 離發之際, 適有商船之過菴下, 故問其所向, 則往于公州云也. 招津夫急登船. 浮江數里, 以風日之不順, 還下船登陸. 抵先德店午飯. 歷三巨里店, 越發峙, 抵里仁店. 暫憩後, 越于今峙, 抵公州 花山橋店留宿. 行七十里.

■27일. 새벽에 출발하였다. 공주 감영에 들어가 산성의 남문으로 들어가서

495) 발치(發峙) : 충청북도 충주시의 직동과 살미면 재오개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옛날 삼남대로로 통하는 대로의 첫 고개였다고 한다.

496) 이인(里仁)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이다.

497) 우금치(于今峙) : 우금치(牛禁峙)를 말한다. 공주 분지의 남쪽 끝에 낮은 안부를 이루어 형성된 고개로 높이가 약 100m이며, 부여에서 공주 시내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다. 동학운동 때 관군과 싸워 동학 농민군 10만 명이 전사한 역사적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북문으로 나왔다. 곧바로 나루를 건너기 위해서였다. 모로원(慕露院)⁴⁹⁸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광정(廣亭)⁴⁹⁹에 이르러 나는 송상철(宋相哲) 집에 들어갔으나, 길보(吉甫)가 마침 집에 없어서 곧바로 나와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차령(車嶺)⁵⁰⁰에 못 미쳐서 중도에 길보를 만났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길로 헤어졌다. 차령을 넘어 덕평(德坪)⁵⁰¹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二十七日. 曉發. 歷公州監營, 入山城南門出北門. 卽爲越津. 抵慕露院朝飯. 抵廣亭, 余則入宋相哲家, 吉甫適不在, 卽爲出來, 酒幕午飯. 未及車嶺, 逢吉甫於中路. 移時談話, 仍爲分袂. 越車嶺, 抵德坪留宿行. 六十里.

■28일. 새벽에 출발하여 도토치(道吐峙) 아래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실음소(失音所)⁵⁰²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칠원(柒原)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100리를 갔다.

二十八日. 曉發, 抵道吐峙下店朝飯. 抵失音所午飯. 抵柒原留宿. 行百里.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진위(振威)⁵⁰³읍 뒤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대황교(大皇橋)⁵⁰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화성(華城)에 미치기 전에 김노가 병이 났다. 간신히 북문 밖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498) 모로원(慕露院)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양달 마을에 있었다. 원래 명칭은 '모로원(毛老院)이다.

499) 광정(廣亭)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이다.

500) 차령(車嶺)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仁豐里)와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院德里)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501) 덕평(德坪)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이다.

502) 실음소(失音所)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혈리이다. 성환에서 국도와 갈라졌던 옛길이 국도와 다시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마을로 한자 이름은 수혈리인데,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수혈원(愁歇院)'으로 되어 있고, 속칭 '실음소(悉音所)'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곳은 동쪽으로 5리 가면 직산 고을이 나타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503) 진위(振威) : 경기도 평택시이다.

504) 대황교(大皇橋)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에 있는 삼남지방과 한양을 연결하던 다리이다.

二十九日。曉發，抵振威邑後朝飯。抵大皇橋午飯。未及華城，金奴發病。艱抵北門外留宿。行七十里。

■10월 1일. 새벽에 출발하여 지지현(遲遲峴)⁵⁰⁵에 이르자 막 해가 떠올랐다. 김노가 중병이 나서 일행과 짐을 나눠서 졌다. 간신히 사근평(肆覲坪)⁵⁰⁶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김노가 주막에서 스스로 짐을 약간 졌다. 세동(細洞)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과천 읍에 이르러 비를 만나 한참을 머물렀다. 비가 갠 뒤에 남태령 객점으로 올라갔다. 김노가 뒤따라와서 몹시 기뻐다. 이에 점심을 먹고 강을 건너는데 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모래사장 반도 못가 비가 퍼붓듯이 쏟아져 옷자락이 흠뻑 젖었다. 간신히 식점 거리(食店巨里)에 이르러 비를 피하였다. 비가 갠 뒤에 청파(靑坡)⁵⁰⁷의 영대(永大) 집에 이르렀다. 의관과 짐 안의 물건들이 모조리 젖어 말할 수 없이 부아가 났다. 80리를 갔다.

十月初吉。曉發，抵遲遲峴始開東矣。以金奴之大病，分卜於同行。艱抵肆覲坪店留。金奴於酒幕自負略干卜。抵細洞朝飯。抵果川邑逢雨，移時留連。開霽後上南泰嶺店。金奴追後來到，可喜可喜。仍爲午飯，而越江，雨更作。沙場未半，雨下如注，衣裾盡濕。艱抵食店巨里避雨。開霽後，抵靑坡 永大家。衣冠與卜中諸物盡濕，憤不可言。行八十里。

■2일. 여독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주인집에 머물렀다. 오후에 대로변으로 나가 요기를 하고, 그길로 관정동(冠井洞)으로 향하였다. 중도에 박상현(朴祥顯)과 공단(公瑞)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헤어져 돌아왔다.

初二日。以路憊不能運動，留主人家。午後出去大路邊療飢。仍向冠井洞矣。中路逢朴祥顯及公瑞，談話後，相分還來。

505) 지지현(遲遲峴) : '지지대고개'라고 불리는 곳이며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길목이다. 지지현(遲遲峴)이라고 표기하는 곳이지만 본래는 '사근현(沙斤峴)', '미륵현(彌勒峴)' 등으로 불렸다.

506) 사근평(肆覲坪) : 경기도 안양시이다.

507) 청파(靑坡)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이다.

■3일. 아침을 먹은 뒤 관정동에 가서 우 참봉(禹參奉)과 박상현을 만났다. 그 자리에 모르는 손님 서너 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는 곳을 물으니 고부(古阜)에 산다고 하였다. 그 성명을 물으니 두 사람은 김씨 성이고, 한 사람은 배씨 성이었다. 내가 정축년(1637) 호란(胡亂) 당시, 덕원 부사(德原府使)로 안변(安邊)에서 전사한 배공(裴公)⁵⁰⁸이 누구인지 물으니, 그의 8대 조부라고 답하였다. 그 또한 우리 선조 승지공(承旨公)⁵⁰⁹이 누구냐고 묻기에, 나는 나로서 5대조 되신다고 하였다. 모두 같은 날 전사한 분의 후손으로, 뜻하지 않게 만나 대대로 이어온 정의를 푸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나중에 서로 찾아볼 생각으로 그가 머무는 데를 물으니 창동 객점이라고 하였다.

그길로 정동의 석사 이혜길(李惠吉) 집으로 갔다. 안부 인사를 나눈 후 그 조카 선(善)의 천연두가 어떤지 물으니, 낭패를 당해 참담하다고 하였다. 그길로 그 아우 집으로 가서 상을 당한 곡절을 위로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채에서 몇 가지 음식을 내와서 몹시 고마웠다. 그길로 묘동(廟洞)으로 가서 공단과 잠시 얘기를 나눈 뒤에 용동의 참봉 이경화(李景燁)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이 곧 《성원현록(姓苑賢錄)》의 개간소였다. 돌아오는 길에 관정동(冠井洞)에 들러 공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유숙하였다.

初三日。朝食後，往冠井洞，見禹參奉及朴祥顯。座上有不知客數三人。故問其所居，則居在古阜云。故問其姓名，則兩人以金爲姓，一人以裴爲姓。余問丁丑胡亂時，德原府使戰亡於安邊 裴公爲誰，則答以渠八世祖。而渠亦問吾祖承旨公爲誰，故余以吾爲五世祖。俱是同日戰亡人後裔，意外相逢，敘其世誼，其喜可掬。日後尋訪之意，問其所住處，則蒼洞旅店云矣。仍向貞洞 李

508) 배공(裴公) : 배명순(裴命純, 1597~1637)이다. 자는 수초(遂初)이고,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병자호란 때 퇴각하는 후금(後金) 군사의 뒤를 추격하여 안변 남산역(南山驛)까지 이르러 강행군을 하던 중, 복병의 기습을 받고 전사하였다. 무덤은 성주군 조곡에 있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509) 승지공(承旨公) : 송심(宋謹, 1590~1637)이다. 자는 사운(士允)이고,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1614년(광해군6)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복변수비에 종사하고 돌아온 뒤에는 노모를 봉양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전라도 병마우후(兵馬虞侯), 홍원 현감(洪原縣監)을 거쳐 1636년 병자호란 때 함북 병마절도사 이항(李沆) 휘하에서 척후장(斥候將)으로 있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횡포를 부리며 철수하는 후금군사를 추격하여, 안변 남산역(安邊南山驛)에서 전·후 영장(前後營將)과 함께 분전 끝에 전사했다.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고, 고흥 서동사(西洞祠)에 제향되었다.

碩士 惠吉家. 敘暄後, 問其姪兒善痘與否, 則見敗云慘矣. 仍往其弟氏家, 慰其見憾之由暫話. 自內間出送數器饌以饋, 可感可感. 仍向廟洞, 與公瑞暫話後, 來龍洞 李參奉 景燁家談話. 此卽《姓苑賢錄》開刊所也. 來路入冠井洞, 與公瑞談話, 同留宿.

■4일. 아침 전, 공단이 내려가는 김에 김노와 고부의 김 생원을 데리고 출발하였다. 밥을 먹은 뒤 10냥을 가지고 개간소로 가서 냈다. 오후에 나와서 창동의 배진환(裴珍煥)이 머무는 곳에 들렀더니, 배진환은 출타하였다. 남문으로 나와 차동(車洞)⁵¹⁰으로 가니 주인이 출타하였다. 이에 아랫사랑으로 가서 주인 민치명(閔致明)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도로 창동으로 왔는데 배진환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로 남문으로 나와 울지와 함께 주인집으로 왔다. 初四日. 朝前, 公瑞下去次, 率金奴與古阜 金生員發程. 食後, 持十兩錢往刊所納錢. 午後出來, 歷訪倉洞 裴珍煥所住處, 則裴也出他. 出南門, 往車洞, 則主人出他. 仍往下舍廊, 與主人閔致明暫話, 還來倉洞, 則裴也不來. 還出南門, 與聿之出來主人家.

■5일. 밥을 먹은 뒤 관정동으로 가서 우 참봉(禹參奉), 박 상인(朴喪人)과 잠시 이야기하였다. 그길로 용동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북치(北峙)로 가서 정학기(丁學璣)의 병문안을 하고 도로 용동으로 왔다. 비가 쏟아졌다. 비를 무릅쓰고 관정동으로 와서 유숙하였다.

初五日. 食後, 往冠井洞, 與禹參奉、朴喪人暫話. 仍往龍洞談話. 又往北峙問丁學璣病, 還來龍洞. 雨作. 冒雨來冠井洞留宿.

■6일. 밥을 먹은 뒤 용동에 갔다가 또 북치의 정학기 집에 갔다. 그런데 매우 좋지 않은 기색이 있다는 말을 자세히 듣고, 몹시 걱정되었다. 저물녘이 되어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흥양 관아의 하인이 내행(內行, 부녀자 일행)을 데리고

510) 차동(車洞) : 중구 의주로1가 순화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수릿골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추모동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태어난 터에 비석을 세우고 그를 추모했던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올라왔는데, 집에서 온 소식이 한 글자도 없어 몹시 서글펐다.

初六日. 食後, 往龍洞, 又往北峙 丁學璣家. 詳聞頗有風色之說, 可悶. 乘暮還主人家. 興陽官下人, 陪內行上來, 而無一字家信, 悵悵.

■7일. 밥을 먹은 뒤 10냥을 개간소에 냈다. 저녁 무렵 관정동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 정동으로 가 이혜길 집에서 묵었다.

初七日. 食後, 持十兩錢納刊所. 夕時還冠井洞. 夕飯後, 往貞洞留李惠吉家.

■8일. 밥을 먹기 전에 개간소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동으로 왔다. 아침을 먹은 뒤 관정동으로 와서 울지와 함께 개간소로 갔다.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참에 나와 청파로 왔다.

初八日. 食前, 往刊所相話, 而來貞洞. 朝飯後, 來冠井洞, 與聿之往刊所. 終日談話, 夕間出來青坡.

■9일. 밥을 먹은 뒤 개간소로 갔다. 낮에 회동으로 가서 송 장성을 만나 전주 송민수의 서간을 전해 주었다. 저녁에 괘교(樞橋)로 들어가 송 판서를 잠시 만나고 관정동으로 왔다. 저녁을 먹은 후 울지와 함께 정동으로 가서 유숙하였다.

初九日. 食後, 往刊所. 午間往晦洞, 見宋長城, 傳全州 宋民洙書簡. 夕間入樞橋 宋判書暫見 而來冠井洞. 夕飯後, 與聿之往貞洞留宿.

■10일. 아침 전 관정동으로 왔다. 아침을 먹고 용동으로 갔다. 그길로 북치로 가서 정 생원 병문안을 하고, 도로 개간소로 왔다. 오전에 사헌(士憲)과 신성칙(申聖則)이 들어왔다. 그길로 함께 영대 집으로 와서 머물렀다.

그길로 낙동으로 가 참판 이광문을 만나, 그의 사촌 이광헌(李光憲)의 상을 조문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아우 이광정이 있는지를 물으니 마침 출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갓집으로 내려와 곧바로 궤연(几筵)⁵¹¹에 들어가 곡을 하고 절을 하고 나서 사랑에 올라가 상인(喪人)에게

511) 궤연(几筵) : 죽은 사람의 영궤(靈几)와 주(神主)를 모셔두는 곳이다.

조의를 표하고 왔다.

初十日. 朝前, 來冠井洞. 朝飯往龍洞. 仍往北峙, 問丁生員病, 還來刊所. 午前士憲及申聖則入來. 仍爲偕來永大家留. 仍往洛洞, 見李參判 光文, 吊其從氏光憲喪, 移時談話. 問其弟氏光貞有無, 則適出他云. 故下來喪家, 直入几筵哭拜後, 入上舍廊, 與喪人致吊而來.

▪11일. 밥을 먹은 뒤 여러 벗과 개간소로 가니, 주인 이호준(李琥俊)이 말하기를 “마침 좋지 않은 조짐이 있으므로 중지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조짐’이란 고부(古阜)의 김성은(金性澑)⁵¹²이 유사를 보내 스스로 그 일을 주관한 것을 말합니다. 자못 좋지 않은 단서가 있다면 중지하는 것만 못하니, 그런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그 일의 형국을 보니, 포기하고 가는 것만 못하였기에 곧장 나와 주인집으로 왔다.

十一日. 食後, 與諸益往刊所, 則主人李琥俊曰: “適有爻象, 故中止云. 爻象, 則古阜 金性澑, 稱以送有司, 自主其事. 頗有不好之端, 不如停止, 風色寢息, 然後更設爲可.”云. 聽其言觀其事機, 則不如罷意而去, 故卽爲出來主人家.

▪12일. 밥을 먹은 뒤 개간소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사헌과 회동으로 갔다. 송 장성을 만나 전주로 가는 편지를 받았다. 잠시 송지순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十二日. 食後, 往刊所暫話後, 與士憲往晦洞. 見宋長城, 受全州所去書簡. 暫訪持淳家, 相話而來.

▪13일. 밥을 먹은 뒤 사헌(士憲)과 각교(樞橋)로 갔다. 송 판서를 만나니, 여산(礪山)의 석회 채굴을 금지하는 일로 전주 부윤에게 서간을 보냈다고

512 김성은(金性澑) : 자는 성연(聖淵)이고, 호는 인일정(引逸亭)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전라도 고창 출신으로 황윤석(黃胤錫)·이직보(李直輔)의 문인이다. 『해동삼강록(海東三綱錄)』을 간행하였고,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을 저술하였으며, 『임병창의록(壬丙倡義錄)』을 만들었다. 저서로 『인일정유고(引逸亭遺稿)』 2권이 있다.

하였다. 또 장단(長湍)의 산소에 때를 바꾸는 일로 나중에 통문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길로 반송방(盤松坊)으로 가서 구관(舊官) 남이형(南履炯)⁵¹³을 만나 그 형의 궤연에 조문하였다. 오는 길에 차동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결락- 남묘(南廟)⁵¹⁴에 들러 둘러보고 왔다.

十三日. 食後, 與士憲往樞橋. 見宋判書, 則以礪山禁灰掘事, 折簡於完伯云. 又言長湍山所 改莎草事. 從後發通云矣. 仍往盤松坊. 見舊官南履炯, 吊其兄几筵. 來路入車洞暫話, 而入【缺】南廟, 周玩而來.

▪14일. 밥을 먹은 뒤 여러 벗과 관정동으로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그길로 종루(鍾樓)로 가서 둘러 보았다. 그길로 구 광화문 밖으로 가서 잠시 안희로(安希老)를 만났다. 나는 백운동의 이정하(李正夏)에게 갔으나, 숙부와 조카가 모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정동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교로 들어갔는데 판서가 대궐에 들어간 바람에 그 아들 지학(持學)하고만 작별하였다. 저물녘에야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十四日. 食後, 與諸益往冠井洞暫話. 仍往鍾樓周玩. 仍向舊光化門外, 暫見安希老. 余則往白雲洞 李正夏, 叔侄皆不在, 不得相面. 來路入貞洞暫話. 入樞橋, 則判書入內, 只與其子持學作別. 乘暮還主人家.

▪15일. 밥을 먹은 뒤 여러 벗과 종루로 갔다. 비 때문에 발이 묶여 저녁때까지 비가 개기를 기다렸다. 나는 정동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十五日. 食後與諸益往鍾樓, 滯雨夕間待霽. 余則入貞洞留宿.

▪16일. 밥을 먹기 전에 나와 관정동으로 들어갔는데 박상현이 없었다. 창동에 있는 배생(裵生)의 객관에 들어가니 배생도 없었다. 다만 그 하인만 있어서,

513 남이형(南履炯) : 1780~1854. 자는 광보(光甫)이고,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813년(순조13) 증광시에 입격하였다. 의주 부윤을 지냈다.

514 남묘(南廟) : 서울 용산구 도동 남대문(南大門) 밖에 있는 관우(關羽)를 제사지내는 곳으로 ‘남관왕묘(南關王廟)’라고도 한다. 선조(宣祖) 31년(1598)에 세웠으며, 광무(光武) 3년(1889)에 불에 타 버렸다가 3년 뒤에 다시 지었으나, 6·25 전쟁(戰爭) 때 불타서 1957년에 다시 지었다.

며칠 전 나온 책자를 전하고, 주인집으로 왔다. 아침을 먹은 후 사헌과 신생(申生)이 내려갔다. 동향 사람은 먼저 각자 내려가는데 나와 울지는 같이 내려가지 못해 몹시 괴로웠다. 밥을 먹은 뒤 관정동으로 가니 박 상인이 또 없었다. 다만 주인 우 참봉만 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제 정동에서 묵으며 밤에 꿈을 꾸었는데, 집에 돌아가니 손자가 나왔는데, 한 살배기 아이만큼 커, 마음이 아주 흡족하였다.

우 참봉에게 점을 치게 하니 오늘 과연 해산하여 득남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꿈속 내용과 점괘가 같으니 우리 집안의 큰 행운 중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멀리 박 사정을 상세히 알지 못해 몹시 걱정되고 답답하였다. 그길로 정동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소문(西小門)으로 나와 차동으로 들어갔는데 사상(士常)은 출타하였다. 아랫사랑에 들르니 주인의 사촌 감찰(監察) 민치원(閔致遠)이 마침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뻐다. 내일 찾아보기로 약속하고 주인집으로 왔다.

十六日. 食前出來, 入冠井洞 朴祥顯不在, 入來倉洞 裴生所館, 則裴生又不在. 只有其下人, 故傳日前所來冊子出來主人家. 朝飯後, 士憲及申生下去. 同鄉之人先各下去, 而余與聿之不得同行, 悶悶. 食後, 往冠井洞, 則朴喪人又不在. 只在主人禹參奉暫話. 昨日留貞洞, 夜夢, 歸家孫兒出, 大如一歲兒, 心甚喜之矣. 作卦於禹參奉, 則今日果爲解產而得男云. 果如夢中與占理, 則吾家大幸, 孰大於此? 遠外事未能詳知, 悶盍悶盍. 仍往貞洞暫話. 出西小門入車洞, 士常出他. 入下舍廊, 則主人從氏閔監察 致遠適來, 仍與相話, 其喜何言. 明日尋訪之意相約, 而來主人家.

■17일. 울지와 함께 종루에 갔다. 나는 《사원록》을 다시 부탁할 생각으로 예조로 가서 아전 배광옥에게 말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묘동(廟洞)의 장번(長番) 집에 들어가 그 본가로 가는 편지를 받았다. 그길로 정동에 가니 혜길이가 말하길 “내일 아침 전에 울지와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차동으로 들어가니 감찰(민치원)도 왔다. 그길로 그 종형과 작별하고 주인집으로 오니 박상현이 내려가려고 행장을 꾸려서 나왔다. 그와 함께 유숙하였다.

十七日. 與聿之往鍾樓. 余則往禮曹《祠院錄》更附⁵¹⁵之意, 言及於裴吏 光玉, 則不聽. 故入廟洞 長番家, 受其本家所去書簡. 仍往貞洞則惠吉曰: “明日朝前, 與聿之入來.”云. 入車洞, 則監察亦來. 仍與其從兄作別, 而來主人家, 則朴祥顯下去次, 治裝出來. 與之同留.

■18일. 아침 전 울지와 정동으로 가서 거기서 아침을 먹고 오후에 나왔다. 박 상인이 밥을 먹은 뒤 출발하였다. 동향 사람들은 날마다 내려가는데, 나와 울지는 혜길이가 함께 가자고 하는 통에 발이 묶여, 함께 가지 못해 몹시 괴로웠다. 혜길은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뜻으로 약속하고 나왔다. 오전에 정동에 있을 때 안채에서 음식을 한 상 내와서 배불리 먹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十八日. 朝前, 與聿之往貞洞, 仍爲朝飯, 午後出來. 朴喪人食後發去. 同鄉之人日日下去, 而余與聿之拘於惠吉之同行, 未得同行, 悶悶. 惠吉則明曉出來之意相約而出來. 午前在貞洞時, 自內間食物一床出送, 故飽喫. 可感可感.

■19일. 어제 혜길이가 이른 아침에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아침밥을 일찍 짓게 해서 일찍이 먹고 기다렸지만, 해가 이미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직 오지 않아 몹시 괴로웠다. 오전에 직접 정동으로 가 보니, 혜길이가 밤새 갑자기 몸에 병이 나서 출발할 수가 없었다며 내일은 일찍 출발하자고 약속하고 나왔다. 오후에 혜길이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일 새벽에 나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이라 이 집을 찾기 어려울 듯해서 그저 집을 알아들 생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내일 새벽 일찍이 나올 생각이라며 누누이 말하고 갔다.

十九日. 昨日惠吉早朝出來云. 故朝飯使之早作早食以待, 而日已午矣, 而尚不出來, 苦悶苦悶. 午前躬往貞洞, 則惠吉夜間, 猝發身病不得發程, 明日則早發爲言. 故相約而出來矣. 午後惠吉出來曰: “明曉出來, 此村人未起之前, 尋此家似難, 故專爲知家之意出來.”云. 明曉早早出來之意, 累累言托而去.

515) 附: 저본의 '附'는 앞 '5월 3일' 자에는 '付'로 되어있다.

■20일. 새벽에 일어나 일찍 불을 지펴 밥을 먹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으나 혜길은 오지 않았다. 해가 점점 높아지도록 끝내 오지 않았다. 저녁 먹을 때까지 끝내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몹시 괴로웠다. 주인 영대(永大) 또한 같이 가자고 끊임없이 재촉해댔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출발하였다. 안주인에게 정동의 이 생원이 꼭 올 테니, 서둘러 쫓아오면 수청거리(需廳巨里)에서 기다렸다가 출발하겠다고 말해주었다. 수소거리(需所巨里)에 이르러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그길로 나루를 건너 승방점(勝房店)에 이르러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서 사근천(肆覲川)⁵¹⁶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으나 끝내 오지 않아 몹시 괴이쩍었다. 50리를 갔다.

二十日。曉起，早炊仍食。平明以待而不來。日漸高而終不來。至於晚食時，終無影形。可悶可悶。主人永大亦爲同行，而摧促不已。故最晚後。不得已發程。而言於內主人貞洞 李生員必來，急急追來，則待之需廳巨里而發。抵需所巨里，移時待之，而不來。仍爲越津，抵勝房店待之，而終不來。徐徐緩步，抵肆覲川店留宿，而終不來。可怪可怪。行五十里。

■21일. 새벽에 출발하여 화성(華城)에 이르니 막 동이 텃다. 대황교(大皇橋)⁵¹⁷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오매(烏梅)⁵¹⁸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진위(振威) 읍내를 지나 소동(蘇洞)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二十一日。曉發，抵華城，則始開東矣。抵大皇橋朝飯，抵烏梅午飯。過振威邑內，抵蘇洞留宿。行七十里。

■22일. 새벽에 칠원(柒原) 아래 이르니 막 동이 터 올랐다. 소사(素沙)⁵¹⁹에

516) 사근천(肆覲川) : 경기도 안양시에 있으며 '사근내'라고도 칭한다.

517) 대황교(大皇橋) :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을 말한다. 대황교는 용릉(隆陵)으로 들어가는 다리인데 대황교 근처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518) 오매(烏梅) : 경기도 수원시 오산동이다.

519) 소사(素沙)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이다. 삼남대로는 소사동 북쪽에서 당산을 넘어 소사원을 지나 소사교를 건너 뒤 소사벌을 지나 곧장 남쪽으로 내려갔다. 소사원은 삼남대로 경기도 구간의 마지막

이르러 아침을 먹고 직산(稷山)⁵²⁰ 삼거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천안 읍 앞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二十二日。曉抵柒原下，始開東矣。抵素沙朝飯，抵稷山三巨里午飯。抵天安邑前店留宿。行八十里。

■23일. 새벽에 출발하여 덕평(德坪)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차령을 넘어 광정(廣亭)에 이르렀다. 상철(相喆)의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로원(慕露院) 아래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85리를 갔다.

二十三日。曉發，抵德坪朝飯。越車嶺。抵廣亭入相喆家暫話。抵慕露院下店留宿。行八十五里。

■24일. 새벽에 출발하여 금강(錦江)을 건너니 막 동이 터 올랐다. 널티[板峙]⁵²¹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노성(魯城)⁵²² 읍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사교(沙橋)⁵²³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90리를 갔다.

二十四日。曉發，越錦江，則始開東矣。抵板峙朝飯。抵魯城邑午飯。抵沙橋留宿。行九十里。

■25일. 새벽에 출발하여 여산 읍내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삼례(參禮)⁵²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물녘 전주부(全州府) 서쪽의 전성철(全聖哲) 집에 이르렀다.

二十五日。曉發，抵礪山邑內朝飯。抵參禮午飯。暮抵府西全聖哲家。

원으로, 충청도에서 넘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다.

520) 직산(稷山)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이다.

521) 널티[板峙]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에 있는 야트막한 고개이다.

522) 노성(魯城)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이다.

523) 사교(沙橋)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이다.

524) 삼례(參禮)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이다.

■26일. 아침 전 북문 밖 송약수(宋若洙) 집으로 가니 형제가 모두 없어서 도로 주인집으로 왔다. 아침을 먹기 전에 읍인 박광옥(朴光玉)이 관원을 데리고 부중(府中)으로 찾아왔다. 아들이 보낸 편지를 열어보니 집안은 별고 없고 14일에 손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우리 집안의 경사로 아주 큰 행운이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꾸 꿈과 점괘가 실로 헛되지 않았다. 밥을 먹은 뒤 율지와 함께 영주인(營主人)⁵²⁵ 집으로 가서 흥양 하인을 만났다. 돌아서 남문 밖으로 가서 류석하(柳錫夏)를 찾았는데 마침 출타하고 없었다. 그길로 동문으로 들어가 북문으로 나왔다. 마침 종인(宗人) 상준(相俊)을 만나 송약수 씨 형제가 들어왔는지를 상세히 물으니, 오늘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노자가 부족해서 김제의 이 상인(李喪人)에게 1냥을 꾸었다. 그길로 출발하여 동문(東門)을 나와 법사산(法司山)의 노원(魯源) 집으로 가서 유숙하였다. 회동의 일가 송 장성의 서간을 전하고 여산의 석회 채굴을 금하는 일에 대해 상의하였는데, 11월 시사(時祀) 때 각처의 일가와 상의하여 소장을 올리겠다고 하였다.

二十六日. 朝前, 往北門外宋若洙家, 則兄弟皆不在, 還來主人家. 朝飯前, 邑人朴光玉陪官行來, 府中來訪. 傳家兒書披覽, 則家中無故, 十四日得男孫云. 吾家之慶, 極爲大幸. 向日在京時, 夢中與占理, 實不虛矣. 食後, 與車之往營主人家, 見興陽下人, 轉向南門外, 訪柳錫夏, 適出他 仍入東門出北門. 適相俊宗人, 詳問⁵²⁶若洙氏兄弟入來與否, 則今日不入云, 故還來主人家. 以路貫之不足. 推一兩錢於金堤 李喪人. 仍爲發程, 出東門, 往法司山魯源家留. 傳晦洞 長城宗氏書簡, 相議於礪山禁灰事, 則至月時祀時, 與各處宗人相議入呈云.

■27일. 새벽에 출발하여 신안서원(新安書院)⁵²⁷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525) 영주인(營主人) : '영저리(營邸吏)'라고도 하며, 감영(監營)과 각 고을의 연락을 맡아보는 아전을 말한다.

526) 問 : 저본에는 '聞'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527) 신안서원(新安書院)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서원이다. 선조 21년(1588)에 주희와 한호겸(韓好謙)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슬치(瑟峙)⁵²⁸에 이르러 떡을 사서 요기를 하였다. 두치(斗峙)⁵²⁹를 넘어 평당(坪塘)에 들러 잠시 필동(弼東) 일가불이를 보고 저물녘에 국평의 하단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90리를 갔다.

二十七日. 曉發, 抵新院朝飯. 抵瑟峙賣餅療飢. 越斗峙, 入坪塘, 暫見弼東宗人. 暮抵菊坪 夏瑞家留宿. 行九十里.

■28일. 주인 하단이 극구 말렸으나 갈 길이 바쁜 관계로 밥을 먹은 뒤 출발하였다. 이현대(李顯大)를 위로할 생각으로 아산(牙山) 번천(樊川) 길을 찾아가려 하니 하단이 길을 안내해 3리쯤 가서 그대로 작별하였다. 번천의 이현대(李顯大) 집을 찾아가 그 궤안에 조문하였다. 점심을 먹은 뒤 출발하려고 하니 주인이 극구 만류하여 그대로 유숙하였다.

二十八日. 主人夏瑞堅挽不已, 而以行忙之致, 食後發程. 爲慰李顯大之意, 尋牙山 樊川路, 則夏瑞指路行至三里許, 仍爲作別. 尋樊川 李顯大家, 吊其几筵. 午飯後, 欲爲發程, 則主人堅挽, 仍留宿.

■29일. 밥을 먹기 전에 출발하여 선제정(先帝亭) 주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부용치(芙蓉峙)를 넘어 창화(昌華)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상동(上東) 주막에 이르자 날이 벌써 저물었다. 마침 강성주(姜聖周)를 만나 그와 함께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二十九日. 食前發程, 抵先帝亭酒店朝飯. 越芙蓉峙, 抵昌華店午飯. 抵上東幕日已暮矣. 適逢姜聖周. 與之同留. 行八十里.

■30일. 출발하여 묘치(猫峙)⁵³⁰를 넘어 대초정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광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나는 원동(院洞)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출발하였다. 저물녘 무동정(舞童亭)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90리를 갔다.

528) 슬치(瑟峙)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과 완주군 상관면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529) 두치(斗峙) : 전라북도 임실과 오수를 잇는 고개로 '말재'라고 하였다.

530) 묘치(猫峙) : 전라남도 화순군의 동면·이서면·동북면이 만나는 경계에 있는 고개로 순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晦日。發越猫峙，抵大抄亭朝飯。抵廣川午飯。余則入院洞暫話後發程。暮抵舞童亭留宿。行九十里。

■11월 1일. 새벽에 출발하여 사미정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구암(龜岩)⁵³¹⁾ 앞에 이르러 울지는 곧장 동림으로 향하고, 나는 장수동(長壽洞)으로 향하였다. 알룡치(謁龍峙)의 강이백(姜利伯) 집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마을 뒤 고개를 넘어 수동(壽洞)에 이르렀다. 우선 별 탈 없이 손자가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었다. 수동 마을 앞에 이르러 마침 류 서방(柳書房) 원거(元舉)를 만났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흥양 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음날 동행할 생각으로 함께 들어가 유숙하였다.

十一月初吉。曉發，抵四美亭朝飯。至龜岩前，聿之直向東林。余則向長壽洞。入謁龍峙 姜利伯家午飯。越村後嶺，抵壽洞。姑無故孫兒善長，幸幸。至壽洞村前，適逢柳書房 元舉。問向何處 則作興陽云。故明日同行之意，偕入與之同留。

■2일. 밥을 먹은 뒤 류 서방, 안(安) 서방과 동행하여 주로치(周魯峙)를 넘었다. 별교에 이르니 울지가 과연 일찍 와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요기하고 나서 출발하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울지는 곧바로 마륵으로 들어가고 나는 안 서방, 류 서방 두 친구와 함께 용전(龍田)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저녁을 먹은 뒤 증손자가 가교(柯橋) 댁으로 올라왔다. 내가 내려온다는 기별을 듣고 오늘 나온 것이다.

初二日。食後，與柳書房、安書房作伴，越周魯峙。抵筏橋，則聿之果如早來，尙今企待矣。療飢後，登程。日已暮矣。聿之直入馬輪，余則與安、柳兩友，入龍田留。夕食後，曾兒自柯橋宅上來。聞⁵³²⁾吾下來之奇，今日出來矣。

■3일. 나는 밥을 먹기 전에 사교로 내려가 먼저 문옥(文玉)을 만나고, 가교

댁으로 내려와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다. 구룡정(九龍亭)에 들러 잠시 경수(敬叟) 씨를 만났다. 탄포(炭浦)⁵³³⁾ 객점을 나오니 울지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박상현을 만나 동행하여 과역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문등(門登)에 이르러 울지와 박상현은 곧바로 간촌(看村)으로 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의 사당에 공경히 배알하였다. 안으로 들어가 손자를 보니 그 기쁨이 한량없었다. 그러나 산모가 유종(乳腫, 젖멍울)이 점점 더해지는 듯하니 이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다.

初三日。余則食前下去四橋先見文玉，下來柯橋宅，朝飯發程。入九龍亭，暫見敬叟氏。出炭浦店，則聿之早來待矣。又逢朴祥顯與之同行，抵過驛午飯。抵門登，聿之與朴祥顯直向看村，余則還家，祇謁家廟。入內見孫兒，其喜不可量。而產母似有乳腫之漸，此亦悶慮處也。

531) 구암(龜岩):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구강리이다.

532) 聞: 저본은 '問'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聞'으로 보고 수정하였다.

533) 탄포(炭浦):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탄포이다.

신묘년(1831) 10월 일

辛卯十月日

충청도 공주(公州)의 계룡산(鷄龍山) 동학서원(東學書院)⁵³⁴은 포은(圃隱) 정 선생(鄭先生,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 선생(李先生,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 선생(吉先生, 길재(吉再)) 및 단종조 삼상(三相)⁵³⁵과 육신(六臣)⁵³⁶의 영령이 모셔진 곳이다. 우리 선조 충강공(忠剛公)⁵³⁷을 이 서원에 배향할 생각으로 화양서원(華陽書院)과 돈암서원(澗巖書院) 두 서원에서 동학서원에 통문을 보냈고, 동학서원도 흥양(興陽) 향교에 통문을 보냈다. 그러므로 향교에서 지난번 통문에 답을 하였고, 우리 문중 또한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가서 알아보라는 뜻으로 나와 윤경(允卿), 이찬(而贊)을 보냈다. 그러므로 10월 1일에 두 사람이 출발하여 낙안의 고읍(古邑)⁵³⁸ 마을 앞에 이르러 윤경과 이찬은 고읍으로 들어가고, 나는 혼자 죽판(竹坂)의 김 곡성(金谷城) 집으로 왔다. 곡성은 정등문(旌門登)에서 이곳으로 와서 우거한 사람이다. 내외가 그지없이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이것은 실로 오랜 이웃의 정의이니 참으로 고마웠다. 밤에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534 동학서원(東學書院) : 본래 동학사(東鶴寺)였다. 신라 때 창건되어, 고려 초에 도선(道詵) 국사가 중창하였다. 고려의 건국 공신 유차달(柳車痘)이 박혁거세의 사당을 봉안하고 동학사라고 하였다. 1457년 김시습(金時習) 등이 초혼각(招魂閣)을 세워 단종(端宗)에 대한 제사를 봉행하였다. 1814년에는 주지 월인(月印)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전각을 중수하고 세조의 초혼기를 봉안하기 위해 혼록봉장각(魂錄奉藏閣)을 새로 지었다. 왕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었으므로 유자(儒者)들이 강제적으로 절의 간판을 내리고 동학서원(東學書院)으로 바꿨다. 1836년 서원을 관리하던 유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서원을 몰수하여 다시 사찰로 환원시켰다.

535 삼상(三相) : 계유정난 때 죽은 정승 삼상신(三相臣)으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本)을 가리킨다.

536 육신(六臣) : 병자년(1456, 세조2) 단종 복위 사건으로 죽은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이개(李瑄)·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를 말한다.

537 충강공(忠剛公) : 송간(宋侃, 1405~1480)이다. 호는 서재(西齋)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세종·문종·단종의 3조를 섬겨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단종이 영월로 쫓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하다가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3년상을 마치고,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에서 은거하였다.

538 고읍(古邑)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이다. 옛날에는 낙안 현에 속하였다.

이번 일로 초겨울에 먼 노정에 올랐으니	這事初冬啓遠程
선조를 위한 깊은 뜻 이 행차에 달려있네	爲先深意在斯行
우리 선조의 높은 충정과 참된 행실이 아니면	若非吾祖危忠實
어떻게 호남의 유현이 예악을 이루었겠는가	胡奈湖儒樂禮成

忠淸道 公州 鷄龍山 東學書院, 卽圃隱 鄭先生、牧隱 李先生、冶隱 吉先生暨 端廟朝三相、六臣妥靈之所也。以吾先祖忠剛公配享是院之意, 華陽、遯菴兩院發通于學院, 學院, 亦以發通于興陽鄉校。故校中頃以答通, 吾門中, 亦以余及允卿、而贊, 往探事機之意起送。故十月之初吉, 仍與兩人發程, 抵樂安古邑村前, 允卿與而贊入于古邑, 余則獨來竹坂 金谷城家。谷城卽自旌門登來寓此土者。而內外款待不已。此實舊隣之誼也, 可感可感。夜吟一絕曰: “這事初冬啓遠程, 爲先深意在斯行。若非吾祖危忠實, 胡奈湖儒樂禮成。”

■2일. 새벽 무렵 비가 시작되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일행은 오지 않고 혼자 황량한 객점에 남아있자니,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에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낮엔 세 사람이 동행하다 밤에 혼자 남으니	晝伴三人夜獨留
문 앞에는 오직 물소리만 그윽하게 들리네	門前惟有水聲悠
나그네 묵는 창가에 온종일 단비가 내리니	旅窓永日兼時雨
내 가는 길에 온갖 수심이 더해지는 듯하네	添我行中萬端愁

밤새 비가 내렸다.

初二日。曉頭雨始, 終日不止。同行不來, 獨留荒店, 其苦難耐。仍吟一絕曰: “晝伴三人夜獨留, 門前惟有水聲悠。旅窓永日兼時雨, 添我行中萬端愁。” 達夜雨。

■3일. 비가 개었다. 아침을 먹으니 해가 높이 떴다. 일행이 끝내 오지 않아 몹시 괴로웠다. 또 시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일행을 애타게 기다려도 끝내 오지 않고
언제쯤 이 노정을 함께 떠날지 모르겠네
나는 그대와 단란했던 만남을 떠올리는데
그대는 나의 적막한 마음을 저버리는구나
밤새도록 울며 냇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하늘 가득 안개처럼 낀 수심 걷히지 않네
출발하려고 했는데 장차 비가 내릴 것 같아
우선 머물러 지켜보며 이따금 머리를 드네

苦待同行終不來
未知何日此筇偕
吾想君所團樂會
君却吾邊寂寞懷
達夜鳴川流不息
滿天愁霧結無開
欲爲前進天將雨
姑留望眼有時擡

집 떠난 지 나흘 만에 용계에 도착하였으니
채찍질 바투 해 말을 몰아도 해는 이미 서산이네
주인집엔 특별히 천하절색의 인물이 있으니
아름답고 교태로운 자태의 출가하지 않은 처자라네

離家四日到龍溪
促鞭長驅日已西
主家別有奇觀物
美貌嬌態年未笄

이찬이 <초하루> 시에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일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출발하였으니
세 사람 중 반드시 내 스승이 될만한 사람이 있네
호남 유현은 다행히 우리 선조의 아름다움 천명하였는데
언제쯤 동학서원에 배향될 수 있으려나

事逢疑處問發程
三人必有我師行
湖儒幸闡吾先美
東學何時享禮成

윤경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예전에 우리 동지가 앞서 노정을 떠난 적 있으니
지금 사람은 그에 힘입어 이런 행차가 있는 게지
곧은 절개는 오랜 세월 응당 사라지지 않을 테니
제현과 더불어 예를 반드시 이루리라 기약하네

昔我同志有前程
今人賴力在斯行
苦節千秋應不昧
期與諸賢禮必成

윤경이 '계(溪)' 자 운에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어둑어둑 찬 기운이 날 즈음 용계에 도착하였으니
사람은 수척하고 말도 지치고 해는 벌써 서산이네
우리 종중에 애타는 어린 처자가 하나가 있으니
나이 열여섯이 되도록 아직 비녀를 꽂지 않았네

冥色生寒到龍溪
人瘦馬困日已西
吾宗斷腸一少娥
年可二八未爲笄

이찬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맑은 시내 건너 용계에 이르렀으니

清溪果渡到龍溪

아주 늦게서야 일행이 모두 왔길래 그길로 출발하였다. 나는 기동(基洞)의 이 좌수(李座首) 집에 들러 그 아들 좌수 효근(孝根)의 상에 조문하였다. 그대로 요기를 하고 나와 정문등 주막에서 일행과 출발하였다. 중도에 비를 만나 옷이 몽땅 젖었다. 간신히 무동정(舞童亭)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밤새 비가 내렸다.

初三日。雨霽。仍朝飯，日上三竿。同行終不來，苦哉苦哉。又吟一首：“苦待同行終不來，未知何日此筇偕。吾想君所團樂會，君却吾邊寂寞懷。達夜鳴川流不息，滿天愁霧結無開。欲爲前進天將雨，姑留望眼有時擡。”最晚同行偕來，仍爲登程。余則入基洞 李座首家，慰其子座首孝根之喪。仍爲療飢出來旌門登酒幕，與同行發程。中路逢雨，衣服盡濕。艱到舞童亭留。達夜雨。

■4일. 아침 전에 또 비가 내렸다. 그러므로 이에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여 원동(院洞) 앞에 이르렀다. 일행은 곧바로 광청(廣淸)⁵³⁹⁾ 객점에 이르고, 나는 원동 이 상인(李喪人)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담제(禫祭) 중이었다. 먼저 제때 와서 위로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잠시 얘기를 나눈 뒤에 나와 객점으로 왔다. 거기서 요기를 하고 출발하였다. 용계(龍溪)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밤에 다음과 같이 절구 1수를 읊었다.

539) 광청(廣淸):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며칠 만에 우리 행차 호서로 들어섰네	幾日吾行入湖西
꽃을 보고 어찌 나비가 향기를 탐하지 않겠는가만	看花孰非探香蝶
자기 마음속에 먼저 혼인할 뜻이 있어야지	自家心中先有筭

初四日. 朝前亦雨. 故仍朝飯發程, 抵院洞前. 同行則直抵廣淸店, 余則入院洞 李喪人家, 尙在禫中矣. 先謝其趁未來慰, 暫話後出來酒店. 仍爲療飢發程. 抵龍溪留宿. 行六十里. 夜吟一絕曰: “離家四日到龍溪, 促鞭長驅日已西. 主家別有奇觀物, 美貌嬌態年未笄.” 而贊次《初一日》韻曰: “事逢疑處問發程, 三人必有我師行. 湖儒幸聞吾先美, 東學何時享禮成.” 允卿次曰: “昔⁵⁴⁰我同志有前程, 今人賴力在斯行. 苦節千秋應不昧, 期與諸賢禮必成.” 允卿次溪字韻曰: “冥色生寒到龍溪, 人瘦馬困日已西. 吾宗斷腸一少娥, 年可二八⁵⁴¹未爲笄.” 而贊次曰: “淸溪果渡到龍溪, 幾日吾行入湖西. 看花孰非探香蝶, 自家心中先有筭.”

■5일. 아침 전에 출발하여 묘치(猫峙)⁵⁴²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곡성 읍내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중주원(中周院)을 넘어 나루터 객점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였다. 도중에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제 가서 배를 기다리지 않기를 어찌 바라겠는가	幸何今行不待舟
뱃사공이 나를 강 가운데로 떨어뜨려 놓았네	梢工教我阻中流
순강 ⁵⁴³ 을 건너 다급하게 객점을 빌렸으니	蕁江利涉蒼店借
제날짜에 동학서원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지	趁日可參學院遊

이찬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540) 昔 : 저본은 ‘借’로 되어있으나 앞뒤 문장의 호응과 문맥의 흐름에 따라 ‘昔’으로 수정하였다.

541) 八 : 저본은 ‘人’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에 따라 ‘八’로 수정하였다.

542) 묘치(猫峙)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에서 곡성읍으로 가는 고개로 ‘괘재’라고도 부른다.

543) 순강(蕁江) : 전라남도 곡성 일대를 흐르는 섬진강의 옛 이름으로 순자강(鶻子江)을 말한다. 저자는 ‘순강(蕁江)’ 혹은 ‘순자강(鶻子江)’으로 썼다.

가는 길 재촉하여 작은 배에 올랐으니	促我征鞭登小舟
남쪽 회수(淮水) 한 줄기 동방으로 흐르네	南淮一帶大東流
용성 북쪽에는 계룡산이 우뚝 서 있으니	鷄山屹立龍城北
제현과 함께 단란하게 모여 유람하길 기약하네	期與諸賢樂會遊

운경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빛나는 모래섬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건너	馳入光渚利涉舟
한낮에 순강에서 증류로 내려갔네	蕁江日午下中流
우리 선조의 일을 꼭 이루리라는 뜻을 가지면	有志必成吾先事
호서로 나선 오늘 행차가 헛된 유람이 아니라	西出今行非浪遊

창화(昌華)에 이르러 길에서 유둔(油屯)⁵⁴⁴ 시장 변두리 사는 오재권(吳在權)이 전주에서 내려오는 편에 만났다. 길 가는 도중인 관계로 집에 편지를 부칠 수가 없어서 다만 말로 소식을 전하였다. 저물녘에 운교(雲橋)⁵⁴⁵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밤에 빈대[蝸]가 많을까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어 몹시 짜증이 났다.

初五日. 朝前發程, 抵猫峙店朝飯. 抵谷城邑內暫憩. 越中周院, 中火于津頭酒店發程. 路中吟一絕曰: “幸何今行不待舟, 梢工教我阻中流. 蕁江利涉蒼店借, 趁日可參學院遊.” 而贊次曰: “促我征鞭登小舟, 南淮一帶大東流. 鷄山屹立龍城北, 期與諸賢樂會遊.” 允卿次曰: “馳入光渚利涉舟, 蕁江日午下中流. 有志必成吾先事, 西出今行非浪遊.” 抵昌華, 路上逢油屯市邊吳在權之自全州下來便, 以路中之致, 不得付書于家中, 只傳口傳消息. 暮抵雲橋店留宿. 行六十里. 夜多蝸患, 不能抵枕, 憤憤.

544) 유둔(油屯)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이다. 옛날 동강 장터가 있던 마을로 별교에서 고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545) 운교(雲橋)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운교리이다.

■6일. 출발하여 사동(蛇洞)⁵⁴⁶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도중에 밤사이 지은 시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날 저물녘 운교에 투숙하였는데	雲橋此日暮投身
낡은 주막은 쓸쓸하여 이웃이 적네	廢幕蕭條小結隣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을 꿈꾸니	就寢不成鄉里夢
빈대가 우리 두세 사람을 물어대네	蝸虫侵我兩三人

윤경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만물 가운데 너는 몸이 가지고 있는데도	萬物之中爾有身
평생 미워하며 가까이 이웃하지 못하였네	平生可憎不近鄰
그놈은 살갓도 피도 없고 부르기도 더러운데	渠無膚血喚亦醜
아무 때나 품속에 들어와 몰래 사람을 무네	時入懷中暗噬人

이찬은 병으로 화답하지 못하였다. 국평(菊坪)⁵⁴⁷ 앞에 이르러 서울에서 내려오는 배덕손(裴德孫)을 만났다. 서서 몇 마디 나누고, 다만 입으로 소식을 전하였다. 평당(坪塘)⁵⁴⁸ 앞에 이르러 일행은 곧바로 객점으로 가고, 나는 평당의 일가 송필동(宋必東) 씨 집에 들러 잠시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요기를 하였다. 하단(夏瑞)이 사는 마을을 상세히 묻고 객점으로 나와 일행과 출발하였다. 두치(斗峙)⁵⁴⁹를 넘다 중도에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세 사람 중에 나만 유독 쫓아갈 수 없어서	三人我獨不能從
번번이 일행과 뒤쳐져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네	每後行裝但一筇

546) 사동(蛇洞) :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이다.

547) 국평(菊坪)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국평 마을이다.

548) 평당(坪塘)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평당 마을이다.

549) 두치(斗峙) : 전라북도 임실과 오수를 잇는 길로 '말재'라고 하였다.

천천히 걸어서 오르고 올라 두치에 이르니	緩步登登臨斗峙
눈앞에 천만 개의 산봉우리가 펼쳐져 있네	眼前羅列萬千峰

굴암(屈岩)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도마교(逃馬橋)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60리를 갔다. 이날 밤에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初六日. 發抵蛇洞店朝飯. 路吟夜間韻曰: “雲橋此日暮投身, 廢幕蕭條小結隣. 就寢不成鄉里夢, 蝸虫侵我兩三人.” 允卿次曰: “萬物之中爾有身, 平生可憎不近鄰. 渠無膚血喚亦醜, 時入懷中暗噬人.” 而贊病未和. 抵菊坪前, 逢裴德孫之自京下來. 立談數語, 只傳口傳消息. 抵坪塘前, 同行直往酒店, 余則入坪塘宗人必東氏家暫話, 仍爲療飢. 詳問夏瑞所居村名出來酒店, 與同行發程. 越斗峙, 路中吟一絕曰: “三人我獨不能從, 每後行裝但一筇. 緩步登登臨斗峙, 眼前羅列萬千峰.” 抵屈岩暫憩. 抵逃馬橋留宿. 是日行六十里. 是夜雨達夜.

■7일. 아침 전에 비를 무릅쓰고 출발하여 노고암(老姑岩)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신안서원(新安書院)⁵⁵⁰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찬바람이 크게 불었다. 종일 비를 맞고 추위에 부대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간신히 전주 감영 서문 밖 주인 전종백(全宗伯)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은 무사도시(武士都試)⁵⁵¹가 있는 날로, 무사가 많이 모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몹시 짜증이 났다.

初七日. 朝前, 冒雨發程, 抵老姑岩朝飯. 抵新院中火. 午後寒風大吹. 終日冒雨觸寒, 其苦難耐. 艱到完營西門外主人全宗伯家留宿. 是日即武士都試日也, 武士多會, 夜不抵枕, 可憤可憤.

550) 신안서원(新安書院)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서원이다. 선조 21년(1588)에 주희와 한호겸(韓好謙)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551) 무사도시(武士都試) : 조선 시대 무사(武士)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 시험으로,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군사와 동·서반의 종3품 당하관 또는 한량(閑良)을,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중앙의 예에 의하되, 그 도의 수령(守令)·우후(虞候)·만호(萬戶) 및 그들의 자제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8일. 아침을 먹은 뒤 일행과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정읍의 일가 인옥(紉玉)을 만나, 서서 몇 마디 나누었다. 그길로 일행과 남문 밖 필혁(弼赫) 씨 집으로 갔다. 주인 형제 모두 평안하였다. 서울에서 족보를 재촉하는 간통(簡通)이 또 와서 흥양에 전송하였다고 하였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일가 노원(魯源)을 만났다. 함께 주인집으로 오니 노원이 함께 그의 집으로 가자는 뜻을 자꾸만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사위 이 석사(李碩士)와 함께 법사산(法司山) 주인 노원에게 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와서 유숙하였다.

初八日。朝飯後，與同行入門內。適逢井邑宗人紉玉，立談數語。仍與同往南門外弼赫氏家。主人兄弟皆平安。而自京中促譜簡通又來，傳送于興陽云。移時談話，來路逢魯源宗人。偕來主人家，則魯源偕往其家之意，累累不已。故不得已與其壻李碩士偕來法司山主人魯源，乘暮還來，仍留宿。

■9일. 일찍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다. 능⁵⁵² 옆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여산(礪山)에 이르러 곧장 산소에 올라가 성묘를 하고, 산지기 집으로 내려와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初九日。早飯發程。抵陵側中火 抵礪山，直上山所省墓，下來山直家留宿。行六十里。

■10일. 《성묘록(省墓錄)》에 이름을 적었다. 밤에 <성묘> 시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우리 선조의 산소에 성묘를 하면서	省拜吾先墓
어찌 근본에 보답하는 ⁵⁵³ 마음 없으리	孰無報本心
때는 서리 이슬 내리는 계절이니	時維霜露節

552) 능 :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익산 쌍릉으로 보인다. 마한(馬韓)의 무강왕 및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고, 백제 무왕과 왕비의 능이라고도 한다.

553) 근본에 보답하는 : 원문의 '보본(報本)'은 조상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 제사를 이른다. 옛날 가을에 서리가 내려 초목의 잎이 모두 떨어지면 조상을 추모하여 제향을 올렸다.

추모의 감회를 서글퍼 억누르기 어렵네

追感愴難禁

이찬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듣기로 선조의 산소를 돌보는 계절이라는데
산소에 들어서니 후손의 마음 부끄럽기 그지없네
사패지의 경계가 칠 리라는 유언이 남아있기에
조서가 언제쯤 대궐에서 내려졌는지 생각하네

聞得先壠守護節
入山多愧後孫心
環封七里遺言在
思詔何時降紫禁

윤경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우리의 관향은 호산이니
어제 저물녘 투숙함은 근본에 보답하는 마음에서네
귀두가 떨어져 나간 옛 유적 남아 있건만
묘소 모양은 새롭게 변해 한탄을 금치 못하겠네

吾人貫鄉是壺山
昨暮投宿報本心
龜頭剝落遺古蹟
墓貌維新恨不禁

이에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다. 소로(小路)를 거쳐 대로(大路) 객점에 이르니 심천(深川)에 사는 일가 철(澈)과 필(泌)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한 터에 오늘 이렇게 만나니 기쁘고 행복하였다. 그 산송(山訟)에 대해 듣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분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닭과 술을 내와서 참으로 고마웠다. 출발하여 올정(兀頂)에 이르기 전, 내려가는 사람이 길보가 사교(沙橋)⁵⁵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래서 급히 사교로 갔는데, 길보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말을 재촉하여 전당(錢塘)의 길보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학동(學洞) 소식을 물으니, 재회(齋會)가 20일로 정해졌다고 하여 몹시 기대되었다. 初十日。書名《省墓錄》。夜間吟《省墓》韻一絕曰：“省拜吾先墓，孰無報本心。時維霜露節，追感愴難禁。”而贊次曰：“聞得先壠守護節，入山多愧後孫心。

554) 사교(沙橋)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이다.

環封七里遺言在, 思詔何時降紫禁.” 允卿次曰: “吾人貫鄉是壺山, 昨暮投宿報本心. 龜頭剝落遺古蹟, 墓貌維新恨不禁.” 仍朝飯發程. 由小路抵大路酒店, 則深川居宗人澈及泌兩人來待, 而積年阻面之餘, 今此逢面 忻幸. 聞其山訟事, 憤不勝言. 移時談話. 仍進鷄酒, 可賀可賀. 發程, 未及兀項, 下去之人, 傳吉甫留待沙橋之奇. 故急來沙橋, 則吉甫入去其家矣. 仍促鞭, 得達錢塘 吉甫家留宿. 問⁵⁵⁵學洞消息, 則齊會以十二日爲定, 故苦待苦待矣.

■ 11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연산(連山)⁵⁵⁶의 관동(館洞)⁵⁵⁷ 앞에 이르러 노비와 말을 곧장 주막으로 보냈다. 길보(吉甫)는 일행과 관동의 김의현(金義鉉) 집으로 들어갔다. 그와 더불어 동행하겠다고 말하니 말이 없다고 일컫고, 또 구애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세마(貰馬, 세를 받고 빌려주는 말)를 타고 갈 생각으로 1냥을 내고 나와 주막에서 아침을 먹었다. 신도(新都)의 석보(石深)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에 눈보라가 매서웠다. 앞으로 갈 길은 20여 리인데 날은 이미 저물었다. 저물녘에 밀목치(密木峙)⁵⁵⁸를 넘는데, 돌길로 된 고개가 높고 험했다. 간신히 서원 밑에 이르니 밤이 벌써 삼경(三更)이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당한 고초는 평생 처음 겪은 것이었다.

十一日. 早發, 抵連山 館洞前, 奴馬直送酒幕. 吉甫與同行入館洞 金義鉉家, 與之同行爲言, 則稱以無馬, 又有拘碍之事云. 故以騎來貰馬之意, 出給一兩錢, 出來酒幕朝飯. 抵新都 石深店中火發程. 中路風雪極寒. 前路二十餘里而日已暮矣. 暮越密木峙, 石路峙嶇. 艱抵院底, 則夜已三更矣. 中路困苦之辱, 平生初見矣.

555) 問: 저본에는 ‘聞’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에 따라 ‘問’으로 수정하였다.

556) 연산(連山):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이다.

557) 관동(館洞):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이다.

558) 밀목치(密木峙):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의 학봉리와 계룡시 신도안면의 용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12일. 몹시 추웠다. 재회(齋會)에 많은 선비가 차례로 들어왔다. 윤경과 이찬이 도포를 입고 서원 마당에서 배알하고, 그길로 들어가 봉심하였다. 곧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수위(首位)에 두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야은(冶隱, 길재(吉再))·황보 선생(황보인(皇甫仁))·김 선생(김종서(金宗瑞))·정 선생(정분(鄭芬))·성 선생(성삼문(成三問))·박 선생(박팽년(朴彭年))·하 선생(하위지(河緯地))·이 선생(이개(李塏))·유 선생(유성원(柳誠源))·유 선생(유응부(兪應孚))·계림 백(鷄林伯) 박 선생(朴先生)⁵⁵⁹이 배향되어 있었다. 사우(祠宇)는 5량 5칸으로 새로 지어서 단청이 선명하였다. 강당은 4칸만 겨우 세워지고 아직 기와를 올리지 않았다. 동재와 서재가 모두 정갈하였다. 많은 선비가 해가 질 때까지 많이 모여들었다.

十二日. 極寒. 齋⁵⁶⁰會多士次次入來矣. 與允卿及而贊着道袍, 參謁院庭, 仍入奉審. 則以牧隱首位, 圃隱, 冶隱, 皇甫先生, 金先生, 鄭先生, 成先生, 朴先生, 河先生, 李先生, 柳先生, 兪先生, 鷄林伯 朴先生則曲配. 而祠宇, 則五椽五間新造, 丹青鮮明. 講堂, 則四間纔立, 而尙未盖瓦. 東, 西齋, 皆精灑矣. 多士限日暮多會.

■ 13일. 아침을 먹은 뒤 재실에 회의석을 마련하였다. 모두 자리에 모여 논의를 낼 적에 먼저 회의 안건의 조목을 적었다. 매월당(梅月堂) 김 선생(김시습(金時習))과 서재(西齋) 송 선생(송간(宋侃)), 망월암(望越菴) 이 선생(李先生) 축(蓄)⁵⁶¹을 추배할 생각으로 당장(堂長) 3명, 공사원(公事員) 1명, 색장(色掌) 1명을 정하였다. 이에 논의를 만들기 위해 공사원이 먼저 의견을 내니, 당장 이하 모두가 말하기를 “여러분의 의견과 서로 같습니다.”라고

559) 박 선생(朴先生):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의 충신 박제상(朴堤上)이다.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후손으로 눌지왕의 동생을 왜와 고구려에서 구하였다.

560) 齋: 저본에는 ‘齊’로 되어있으나 문맥에 따라 ‘齋’로 수정하였다.

561) 이 선생(李先生) 축(蓄): 1402~1473. 자는 윤보(潤甫)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이색(李穡)의 증손이다.

하였다. 오촌(鰲村) 장석(丈席)⁵⁶²에게 정품(呈稟)하고, 감영에 정서(呈書)하고, 원장에게 정품할 뜻으로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상의를 하였다. 자리를 파한 뒤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남았다.

오후에 일행과 광정(廣亭)의 김계원(金啓源)과 동학사(東鶴寺)로 갔다. 초혼각(招魂閣)을 둘러보았는데 전각 안의 단종이 쓴 어휘(御諱)와 궤(櫃) 안에서 나온 《초혼록(招魂錄)》을 다 보고 나서, 그길로 절 안에 들어가 월인(月仁) 스님을 불러서 만났다. 스님은 이 절을 중창한 스님으로 당시 나이가 83세였는데, 아주 많은 고적을 전해 주었다. 조금 쉬고 나서 서원 밑으로 내려와 유숙하였다.

十三日. 朝飯後, 設齋會席. 濟濟會座, 發論之際, 先書會議事節目. 而梅月堂 金先生、西齋 宋先生、望越菴 李先生 蓄迫配之意, 定堂長三人, 公事員一人, 色掌一人. 仍爲成議, 而公事員先爲發論, 則堂長以下皆曰: “僉議詢同.” 呈稟于鰲村丈席, 呈書于營門, 呈稟于院長之意, 爛熳商議, 而罷坐後, 或去或留. 午後與同行及廣亭 金啓源, 往東鶴寺. 玩招魂閣, 則閣內書端宗御諱, 自櫃中出《招魂錄》, 皆玩後, 仍入寺中招見月仁僧. 僧卽此寺重創之僧, 而時年八十三, 頗傳古蹟. 小憩後, 下來院底留宿.

■14일. 윤경(允卿)은 출발하여 서울로 갔다. 종일 서원에 남아 서원 설립 문적을 베껴 썼다.

十四日. 允卿發向京行. 終日留院, 謄書設院文蹟.

■15일. 일찍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밥을 먹은 뒤 눈이 내렸으므로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였다. 길보는 먼저 공암(孔岩)으로 가고, 나는 백정자(栢亭子)로 가서 기다릴 생각으로 눈을 무릅쓰고 먼저 출발하였다. 약간 늦게 생원 송여규(宋如圭)와 유사 정규흠(鄭圭欽)가 동행하여 백정자에 도착하였다. 송생원은 먼저 유성(油城)으로 가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562) 장석(丈席) : 송치규(宋樞圭, 1759~1838)이다. 자는 기옥(奇玉)이고, 호는 강재(剛齋)이며, 본관은 은진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송시열의 6대손으로 김정목의 문인이다. 당시 오촌에 살아 ‘오촌 선생(鰲村先生)’이라고도 하였다.

정 유사와 작별하고 거기서 이찬과 길보를 기다렸다. 오후에 길보가 공암에서 올라왔지만, 날은 이미 저녁이었다. 그길로 길보와 작별하고, 저물녘에 유성에 이르니 송생원은 이미 떠났다. 이에 유성에서 유숙하였다.

十五日. 早發爲計矣, 食後雨雪, 故待開霽發行. 而吉甫則先去孔岩, 來待栢亭子之意, 冒雪先發. 稍晚與宋生員 如圭、鄭有司 圭欽同行, 至栢亭子. 宋生員先去油城, 以待吾行之意, 爲約而去. 與鄭有司作別, 仍與而贊留待吉甫. 而午後吉甫自孔岩上來, 而日已夕矣. 仍與吉甫作別, 暮抵油城, 則宋生員已去矣. 仍留油城.

■16일. 일찍 출발하였다. 아침 이슬이 눈 위에 더해져 몹시 춥고 아주 괴로웠다. 울목정(栗木亭)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진창길이 너무 심해 무릎이 빠질 정도였다. 간신히 신탄(新灘) 저자 변두리에 이르러 떡을 사서 요기를 하였다. 오촌(鰲村)에 이르도록 겪은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생원(宋生員)이 들어왔다. 잠시 쉬고 나니 정품(呈稟)하려고 동학서원 서재(西齋)에서도 들어왔다. 각기 세 곳에서 와 뜻밖에 서로 만났으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들어가 장석을 보니 건강은 달리 크게 나빠진 않았지만, 숙환으로 오래도록 신음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행랑채로 나와서 정품 차 들어온 서재를 들여보내고, 품목(稟目)⁵⁶³을 서재에 봉류(捧留)⁵⁶⁴하고 바로 나왔다. 한참 있다가 서재에서 불러들였다. 서재에서 품목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바로 열어보았는데, 그 글을 보고 삼현(三賢)을 추배(追配)하는 논의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으니, 현인을 존모하고 의(義)를 앙모하는 정성이 매우 흠앙(欽仰)할 만하였다. 돌아보면 비루하고 용렬한 내가 어찌 족히 미치겠는가. 사론(士論)이 이미 다 모였으니 정품할 일이 있어 …… -결락- …… 가부를 얻었다. 신묘년(1831) -결락- ……하여 기뻐다. 민어, 황향(黃香, 송진) 5개를 가지고 와서 장석께 드리니, 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추운 노정에도 정성을

563) 품목(稟目) : 서원이나 향교에서 그 지방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장석에게 올리는 글을 말한다.

564) 봉류(捧留) : 거두어들인 물건이나 돈을 보관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다해 이런 물건들을 매번 이렇게 가져오니, 도리어 편치 않소.”라고 하였다. 행랑채로 물러 나와 흥룡(興龍) 송흠모(宋欽模)와 함께 유숙하였다.

十六日。早發。朝露甚於雪上，極寒極寒，苦哉苦哉。抵栗木亭朝飯。泥濘莫甚，可謂沒膝。艱抵新灘市邊，買餅療飢。得達鰲村，困苦難狀。不移時，宋生員入來。小憩後，呈稟次學院西齋，亦爲入來。各在三處，不期相會，幸幸。入謁丈席，則氣候別無大端失和，而以宿患長在呻吟云。出來廊底，入送呈稟西齋矣，稟目捧留西齋卽出矣。稍久招入西齋矣。西齋持稟目出來，故卽爲披覽，則來示備悉三賢追配之議，尊賢慕義之誠，殊可欽仰。顧此陋劣，何足與及？士論旣成，則猶在稟，【缺】得其可否之已。辛卯【缺】忻幸。持來民魚、黃香五介，納于丈席前，答曰：“如此寒程，何以致身，而此等物，每每如是，還爲不安云矣。”退來廊底，與興龍 宋欽模同留宿。

■17일. 밥을 먹은 뒤 송 생원과 함께 출발하였다. 일마장(一馬場, 5리나 10리 미만의 거리)쯤 이르러 송 생원이 -결락- …… 말을 매어두고 우리 두 사람을 기다렸다. 거기서 말을 주고 자기는 걸어서 집에 가겠다고 하여서 그대로 서로 작별하였다. 유성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 김새가 있어서 그 연고를 물으니, 송 생원의 아들 지(枝)였다. 바야흐로 도회(都會)에 갈 참이라서 거기서 같이 요기를 하였다. 동행하여 도로 동학서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이것은 노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十七日。食後，與宋生員發程。至一馬場，宋生員【缺】馬留，待吾二人。仍給馬匹，自家則步往其家云。故仍與作別，抵油城，則有一人頗有相知之機。故問其故，則宋生員之子枝。而方作都會行，仍與療飢。同行還入東學院留宿。此則無路資之故也。

■18일. 송흠준(宋欽俊), 박광승(朴光昇)이 동구 밖까지 나와 작별하였다. 밀목치를 넘어 신도(新都)를 지나 연산(連山) 읍 앞에 이르렀다. 요기 차한 주막에 들어가니 주막 안이 몹시 북적거리고 어수선하였다. 그 연고를

물으니, 이 읍의 향회(鄉會)⁵⁶⁵가 열려, 유향(儒鄉)⁵⁶⁶과 이교(吏校)⁵⁶⁷가 많이 모였다고 하였다. 술과 안주와 떡과 국을 얻어먹고 곧바로 출발하였다. 밤이 되어 전당(錢塘)에 도착하였다. 어젯밤 서원에 머무를 때 박광승이 《동학원(東學院)》 시축을 꺼내 보여 주었다. 원운은 송 생원의 시로 다음과 같다.

땅이 감추고 하늘이 아끼는 몇 이랑 언덕에
청산은 우뚝 서 있고 물은 유유히 흘러가네
드디어 열두 선생의 사당을 완성하였으니
나무에서 이는 바람 소리 만고토록 유장하리

地秘天慳數畝邱
靑山屹立水長流
終成十二先生廟
樹得風聲萬古悠

평생토록 부지런히 우리렀는데⁵⁶⁸
오늘 저녁 다행히 바람대로 되었네
도학은 푸른 산처럼 우뚝 서 있고
순수한 충정은 밝은 해처럼 빛나네
매월당의 풍모는 감개가 무량하고
세조의 뜻은 깊고 은미하였네
일 년 만에 황폐해진 곳을 수리하니
우리가 귀의할 곳이 만들어졌네

平生勤仰止
今夕幸望依
道學靑山立
精忠白日輝
梅翁風感慨
光廟旨深微
一載修荒廢
吾徒有所歸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동학사를 새로이 이 언덕에 세우니

東學新祠關此邱

565) 향회(鄉會) :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지방자치회이다. 사족이 향안(鄉案)을 기반으로 향촌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566) 유향(儒鄉) : 유생(儒生)과 향청(鄉廳)의 직원을 이르는 말이다.

567) 이교(吏校) : 관아의 하급관리인 이서와 군교를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568) 평생토록 …… 우리렀는데 : 존경할 만한 선현(先賢)을 사모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차할(車輦)에 “저 높은 산봉우리 우리러보며, 큰길을 향해 나아가노라.[高山仰止，景行仰止.]”라는 말이 나온다.

앞 시내 굽이굽이 반드시 동으로 흐르네
우리 또한 충신의 후예로서
지금 조정에 망배하니 만감이 아득하네

前川萬折必東流
而吾亦是忠賢後
望拜今朝百感悠

동학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으니
이곳에 제각(祭閣)과 사당이 지어졌네
충혼은 위 아래가 같으니
화려한 제도 아울러 밝게 빛나네
우리 선조 배향하지 못한 게 한이니
도리어 뜻이 미약했음을 참담히 느끼네
오늘의 행차에 충분한 뜻이 있으니
줄구를 읊고서 돌아가네

有洞名東學
此間閣廟依
忠魂同上下
華制并光輝
恨未吾先配
還慚感意微
今行餘意在
拙句詠而歸

이찬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벼랑을 끼고 시내와 이어진 옛 언덕을 찾으니
깎아지른 제각과 사당이 푸른 시내를 굽어보네
오늘에 와서 임금과 신하가 일체가 될 즈음
뜻있는 선비의 천추 감회가 아련히 배가되네

拚壁緣溪訪古邱
巍然閣廟俯清溪
于今一體君臣際
志士千秋感倍悠

오늘 계룡산 골짜기에
임금과 신하가 의지한 곳 있네
서교⁵⁶⁹의 피는 붉게 남아 있고
동봉⁵⁷⁰의 달은 더욱 밝게 빛나네
충절은 밝은 해를 관통하였고
충혼각엔 자미가 빙 둘러있네

是日鷄山洞
君臣有所依
西橋血有赤
東峯月更輝
忠節貫白日
魂閣繞紫微

569 서교 : 서재(西齋) 송간(宋侃)을 가리킨다.

570 동봉 :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가리킨다.

만약 우리 선조를 배향하면
영령이 저절로 돌아오리라

若配吾先祖
英靈自越歸

十八日. 與宋欽俊、朴光昇出洞口外作別. 越密木時, 歷新都, 至連山邑前. 療飢次入一幕, 則幕中頗煩撓. 故問其故, 則此邑鄉會云, 而儒鄉及吏校多會云. 酒肴及餅羹得食, 卽爲發程. 乘夜得達錢塘. 昨夜留院時, 朴光昇出見《東學院》韻軸. 而元韻卽宋生員韻. “地秘天慳數畝邱, 青山屹立水長流. 終成十二先生廟, 樹得風聲萬古悠.” “平生勤仰止, 今夕幸望依. 道學青山立, 精忠白日輝. 梅翁風感慨, 光廟旨深微. 一載修荒廢, 吾徒有所歸.” 余拙次日: “東學新祠闢此邱, 前川萬折必東流. 而吾亦是忠賢後, 望拜今朝百感悠.” “有洞名東學, 此間閣廟依. 忠魂同上下, 華制并光輝. 恨未吾先配, 還慚感意微. 今行餘意在, 拙句詠而歸.” 而贊次日: “拚壁緣溪訪古邱, 巍然閣廟俯清溪. 于今一體君臣際, 志士千秋感倍悠.” “是日鷄山洞, 君臣有所依. 西橋血有赤, 東峯月更輝. 忠節貫白日, 魂閣繞紫微. 若配吾先祖, 英靈自越歸.”

▪19일. 지난번 동학사(東學祠)에 들어갔을 때 우리 두 사람 노자를 주인에게 맡겨두었다. 그런데 주인이 이번 재회(齋會)와 감영에 보낼 편지를 올리는 데에다 경비를 미리 써버렸다. 그래서 노자를 마련할 생각으로 그대로 전당에 남아있었다. 오후에 김상규(金相奎)가 혼자 찾아와서 그와 함께 유숙하였다. 十九日. 頃入東學祠時, 吾兩人路資留置主人矣. 主人推用於今番齋會及營門呈書所入. 故以行資辦備之意, 仍留錢塘. 午後金相奎專訪而來, 與之同留.

▪20일. 아침을 먹은 뒤 김상규와 작별하였다. 길보(吉甫)와 함께 사교(沙橋)로 가서 작별하였다. 황화정(皇華亭)⁵⁷¹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저물녘 탄현(炭峴)⁵⁷²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571 황화정(皇華亭) : 전라북도 여산군(礪山郡)의 북쪽 11리에 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있는 전라도의 관문으로 전라도 신구 관찰사가 교대하던 곳이었다.

572 탄현(炭峴) : ‘쑤고개’ 또는 ‘숯고개’라고 하며,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와 왕궁면 용화리를 잇는 고개이다.

二十日. 朝飯後, 與金相奎作別. 與吉甫偕往沙橋作別. 抵皇華亭療飢. 暮抵炭峴留宿.

■21일. 새벽에 출발하여 능 옆에 이르러 떡과 국을 사서 요기를 하니 날이 막 밝았다. 통천등(桶泉登)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영점(營店) 서문 밖 주인집에 이르러 해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피곤하고 힘들어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그대로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曉發, 抵陵側買餅羹療飢, 日始明矣. 抵桶泉登朝飯. 抵營店西門外主人家, 日猶餘矣, 而以困苦之致, 不得前進, 仍留宿.

■22일. 아침 전에 출발하였으나 설사 증세가 몹시 심해 갈 길을 재촉할 수 없었다. 간신히 애치(艾峙)⁵⁷³에 이르러 요기를 하고, 도마교(逃馬橋) 객점에 이르렀다. 밤새도록 변소를 들락거리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몹시 괴로웠다.

二十二日. 朝前發程, 而以痢症苦劇, 不得促行. 艱抵艾峙療飢, 抵逃馬橋酒店. 達夜立廁, 不能抵枕, 苦哉苦哉.

■23일. 일찍 출발하여 송 좌수를 만나기 위해 화성리(火星里)로 들어가니 좌수가 출타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와 굴암(屈岩) 객점으로 와서 점심을 먹었다. 설사 증세로 걸어서 내려가기가 몹시 어려웠으므로 5냥 5전으로 세마(貰馬)를 구했다. 두치(斗峙)를 넘다가 마침 도양(道陽)⁵⁷⁴의 주생(朱生)을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오수(檜樹)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운교(雲橋)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三日. 早發, 爲見宋座首, 入火星里, 則座首出他云. 故不得已出來屈岩店朝飯. 以痢症徒步下去甚難, 故以五兩五錢得貰馬. 越斗峙, 適逢道陽朱生暫話. 抵檜樹療飢. 抵雲橋店留宿.

573) 애치(艾峙)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과 완주군 상관면을 잇는 고개이다.

574) 도양(道陽)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이다.

■24일. 일찍 출발하여 주포(周浦)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수침동(水枯洞)⁵⁷⁵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물녘 석곡(石谷)⁵⁷⁶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四日. 早發, 抵周浦店朝飯. 抵水枯洞店中火. 暮抵石谷留宿.

■25일. 일찍 출발하여 광청(廣淸)⁵⁷⁷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사미정(四美亭)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그러나 말은 먹지 않은 채 어떤 놈은 누워 있고, 어떤 놈은 서 있어 걱정이었다. 저녁 무렵 간신히 정문등(旌門登)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五日. 早發, 抵廣淸店朝飯. 抵四美亭中火. 而蠶者不食, 或臥或立, 悶悶. 夕時艱到旌門登留宿.

■26일. 일찍 출발하여 강변(江邊)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사촌 서재(社村書齋)로 들어가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곧장 유둔(油屯) 저자 변두리에 이르렀다. 문중의 어떤 사람을 만나 마세(馬貰) 5냥 5전을 변통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六日. 早發, 抵江邊店朝飯. 入社村書齋暫話. 直抵油屯市邊. 逢門中某人, 辦出馬貰五兩五錢而還家.

575) 수침동(水枯洞)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울사리이다.

576) 석곡(石谷)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이다.

577) 광청(廣淸)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통문을 붙이다

附通文

동학(東學) 침존(僉尊) 집사(執事)⁵⁷⁸

연산(連山) 김생(金生)의 문안 편지

東學 僉尊 執事

連山 金生 候書

서리 내리는 계절 여러분의 안부 매우 건강하고 평안하시다니 우리러 위로되고 간절히 그리는 마음 각별합니다. 저는 병으로 외딴 시골에 칩거하여 스스로 소식을 단절하고 지냅니다. 사우의 회의 석상에서 돈암서원(遯巖書院)의 통문을 살펴보고, 또 송 사문(宋斯文)이 소매에 넣어 직접 가져온 서재(西齋) 송 선생(宋先生)⁵⁷⁹의 절의(節義) 관련 문적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감격하여 머리털이 주뻗해졌습니다. -결락- 강상(綱常)을 부지하고, 우주에 동량(棟樑)이 되는 것 -결락- 아닙니다. 또 듣기로 매월당 김 선생(김시습(金時習))도 아울러 제향한다고 하던데, 모두 사림의 성대한 일이자 국가가 포장(褒獎)하는 전장(典章) …… -결락- 여러분의 논의 …… . 그 의를 주창했던 곳에 유적이 아직 남아 있으니 오히려 예전에 경황이 없었던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누군들 공경하고 우리르지 않겠습니까. 두 선생의 높은 절의와 대의는 모두 하나로 귀결되니 오늘날 아울러 제사 지내는 일은 다 병이(秉彝, 떳떳한 도리)에서 나온 논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머지는 병이 들어 대신 쓰게 하여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십시오. 삼가 글월 올립니다.

신묘년 10월 10일 진사 재말(齋末) 김기욱(金箕煜)

578) 집사(執事) :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겹봉의 택호(宅號) 밑에,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받아서 전하여 달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579) 송 선생(宋先生) : 송간(宋侃)이다. 조선 전기의 충신으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호는 서재(西齋)이며, 시호는 충강(忠剛)이다. 세종·문종·단종의 3조를 섬겨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단종의 왕명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왕이 영월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복명하였다. 단종 사후 산속에 들어가 3년상을 마치고 은둔하였다.

伏惟霜令僉齋⁵⁸⁰候, 萬衛安勝, 仰慰溱區區, 不用常品. 齋末病蟄窮巷, 聞問自絕. 於士友會議之席, 謹按遯院通章, 且見宋斯文袖來西齋 宋先生節義文蹟, 自不覺激肝而堅髮矣. 【缺】扶持乎綱常、棟樑乎宇宙者, 非斯【缺】. 又聞梅月堂 金先生并侑云. 儘是士林之盛舉, 國家褒獎之典章, 【缺】諸公之議, 於其首義之地, 遺蹟尙存, 則猶有慨於前日之未遑. 而況於今者, 孰不欽仰乎! 兩先生卓節大義, 同歸一揆, 則今日并侑之舉, 盡出於秉彝之論. 猶未知僉意之如何? 不勝悚悚. 餘病倩不備. 伏惟僉照. 謹上⁵⁸¹狀.

辛卯十月十日. 進士齋末金箕煜.

580) 齋 : 저본에는 '齊'로 되어있으나 문맥에 따라 '齋'로 수정하였다.

581) 上 : 저본에는 '下'로 되어있으나 다수 용례와 문맥에 따라 '上'으로 수정하였다.

동학서원의 회답

東學回通

위의 글을 통지해 왔기에, 서재(西齋) 송 선생(宋先生)의 탁행(卓行)과 고절(高節)은 부녀자나 어린애도 다 아는 것인데 본원의 추향(追享)에 관한 논의가 또한 늦었음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함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세 상 장차 모여서 의논하여 여러 사람의 의론을 따른 뒤에야 의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이번 달 12일 회의를 구성하니, 바라건대 꼭 모두 와서 참석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상 돈암서원 여러 재임(齋任)께 삼가 통지합니다.

신묘년(1831) 10월 4일, 동학서원 재임(齋任) 송여규(宋如圭), 정규흠(鄭圭欽)

右文爲來通, 備審西齋 宋先生卓行高節, 婦孺共知, 本院追享之論, 亦云晚矣. 而此非一二人所可擅議者, 勢將聚議, 僉論從後, 可以議定. 故茲以今月十二日成會, 望須濟濟來參, 幸甚. 遜院僉齋⁵⁸², 右敬通于.

辛卯十月初四日. 學院齋任宋如圭、鄭圭欽.

582) 齋 : 저본에는 '齊'로 되어있으나 문맥에 따라 '齋'로 수정하였다.

임진년(1832) 윤 9월 일

壬辰閏九月日

■임진년(1832) 윤 9월 22일. 우리 종중의 족보 일로 오후에 출발하였다. 정암(鼎岩) 주점에 이르러 무열(武說) 씨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열 씨가 와서 함께 유숙하였다.

壬辰閏九月二十二日. 以吾宗譜牒事, 午後發程. 抵鼎岩酒店, 留待武說氏矣. 不移時踵至⁵⁸³ 仍與同留宿.

■23일. 출발하여 벌교(筏橋)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서령(西嶺)⁵⁸⁴을 넘어 정문등(旌門登)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무동정(舞童亭)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다음과 같이 절구 1수를 읊었다.

다행히 우리 일가붙이 예닐곱 사람이	幸我同宗六七人
함께 천릿길을 가 조상을 극진히 섬기네	聯筇千里別親親
때는 9월 노란 국화 피는 시절로	時維九月黃花節
붉은 단풍으로 단장한 산이 면면이 새롭네	紅葉粧山面面新

二十三日. 發程, 抵筏橋朝飯. 越西嶺, 抵旌門登午飯. 抵舞童亭留宿. 吟一絕曰: “幸我同宗六七人, 聯筇千里別親親. 時維九月黃花節, 紅葉粧山面面新.”

■24일. 동이 틀 무렵 출발하여 낙수(洛水)⁵⁸⁵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낙수교(洛水橋)를 건너며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583) 至 : 저본에는 '止'로 되어있으나, 다수의 용례와 문맥에 따라 '至'로 수정하였다.

584) 서령(西嶺)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석거리재이다. 벌교에서 서울 방향으로 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이다.

585) 낙수(洛水)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이다. 옛날 낙수역(洛水驛)이라는 역참이 있었다.

집 떠난 지 삼일 만에	移發三之日
행차가 낙수교에 다다랐네	行臨洛水橋
물 깊이를 익숙히 아는 길이라	慣知深淺路
역장(驛長)을 굳이 부르지 않았네	亭長不須招

무열 씨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나라의 교화 덕분에 사람들 강 건널 걱정 없으니	人無病涉賴邦教
시월에 완성된 도강 ⁵⁸⁶ 이 바로 이 다리라네	十月徒杠卽此橋
낙수로 향하는 우리 행차가 같은 날 건너니	向洛吾行同日渡
뱃사공을 부르는 ⁵⁸⁷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네	不勞舟子也招招

심형(心洞)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행차가 낙수 가에 이르니	行到洛之上
긴 시내에 짧은 다리가 놓여있네	長川浮短橋
오는 길에는 물소리가 세차	來路水聲立
뱃사공을 부를 수가 없네	舟人不可招

제호(霽浩)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이곳은 서울 가는 노정이라	此去京城路
푸른 구름이 낙교에 비추네	靑雲映洛橋

586) 도강(徒杠) : 걸어서 건너는 다리이다.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자산(子產)이 자신의 수레로 강에서 백성들을 건네주자, 맹자가 “은혜로우나 정치를 하는 법을 모른다. 11월에 도강이 이루어지고 12월에 여량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물 건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惠而不知爲政. 歲十一月 徒杠成, 十二月興梁成, 民未病涉也.]”라고 하였다.

587) 뱃사공을 부르는 : 《시경》〈포유고엽(匏有苦葉)〉에, “손짓하며 부르는 뱃사공에게 남들은 건너도 나는 건너지 않노라. 남은 건너도 나는 건너지 않음은, 나는 내 짝을 기다려서이다.[招招舟子, 人涉卬否. 人涉卬否, 卬須我友.]” 하였다.

큰 시내 우리가 건너기 편해	大川吾利涉
뱃사공을 부르지 않았네	舟子不招招

광청(廣淸)⁵⁸⁸ 객점에 이르러 잠시 쉬 후, 먼저 출발하여 귀정(歸亭)⁵⁸⁹에 들러 조정화(趙廷燁)의 궤연에 조문하였다. 잠시 외종 형수를 뵈고 곧바로 출발하였다. 석곡(石谷)⁵⁹⁰에 이르러 일행을 만나, 요기를 하였다. 울정(栗亭)⁵⁹¹에 이르러 길에서 고창진(高昌鎭) 부자를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용계(龍溪)⁵⁹² 객점에 이르렀다. 어제 광청 객점을 지나며 무열 씨가 먼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손을 잡고 떠난 먼 여행길 광청에 이르도록	携手長程到廣淸
지리지에 나온 강과 이름난 산을 보며 지났네	閱過水誌與山名
다만 족보 일로 인해 서울 가는 날이기에	徒緣譜事之京日
몸이 고달픈 건 생각지 않고 걸어서 가네	不計身勞作步行

내가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한 줄기 장강은 넓고도 맑으니	一派長江廣又淸
지금도 옛날 남겨진 이름으로 불리네	至今稱說古遺名
막힌 길을 긴 다리를 통해 건너니	長橋以濟不通路
오가는 유람객이 머물지 않고 가네	來去遊人莫住行

588) 광청(廣淸)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589) 귀정(歸亭) : 순천시 주암면 마전리에 있던 영귀정(詠歸亭)으로 보인다. 삼탄(三灘) 조태망(趙泰望 1678~?)이 지은 별업이다.

590) 석곡(石谷)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이다.

591) 울정(栗亭)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울정 마을이다.

592) 용계(龍溪)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용계리이다.

二十四日. 平明發程, 抵洛水店朝飯. 渡洛水橋, 吟一絕曰: “移發三之日, 行臨洛水橋. 慣知深淺路, 亭長不須招.” 武說氏次曰: “人無病涉賴邦教, 十月徒杠即此橋. 向洛吾行同日渡, 不勞舟子也招招.” 心洞次曰: “行到洛之上, 長川浮短橋. 來路水聲立, 舟人不可招.” 霽浩次曰: “此去京城路, 青雲映洛橋. 大川吾利涉, 舟子不招招.” 抵廣清店暫憩後, 先行入歸亭, 吊趙廷燁几筵. 暫見外從嫂, 即發. 抵石谷逢同行, 仍爲療飢. 抵栗亭, 路上逢高昌鎮父子暫話. 抵龍溪店. 昨日過廣清店, 武說氏先吟曰: “携手長程到廣清, 閱過水誌與山名. 徒緣譜事之京日, 不計身勞作步行.” 余次曰: “一派長江廣又清, 至今稱說古遺名. 長橋以濟不通路. 來去遊人莫住行.”

■25일. 새벽에 출발하여 불로치(不老峙)⁵⁹³에 이르러 나와 심형과 오서 객은 농소막(農所幕)⁵⁹⁴의 송진형(宋鎭亨) 집에 들러 아침을 먹었다. 서울 보청(譜廳)⁵⁹⁵에 쓸 경비로 8냥을 우리 일행에게 납입하였다. 곧바로 출발하여 묘치(猫峙)⁵⁹⁶를 넘어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니 일행은 먼저 갔다. 그래서 그대로 요기를 하고 서둘러 나루터로 가서 순자강(蓴子江)⁵⁹⁷을 건너 일행을 만났다. 창화역(昌華驛) 주점에 이르러 일행 중 송재화(宋再華)는 먼저 가고, 나, 무열씨, 심형, 오서 객(烏栖客)은 도산(道山)⁵⁹⁸의 족손(族孫) 일호(一浩)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주인 부자는 명전(名錢)⁵⁹⁹ 2냥을 우리 일행에게 냈다.

二十五日. 曉發, 抵不老峙, 余與心洞及烏栖客, 入農所幕 宋鎭亨家朝飯. 以八兩錢京譜廳所用次, 納于行中. 即發, 越猫峙, 抵谷城邑內, 則同行先行. 故仍爲療飢, 促往津頭, 利涉蓴子江, 逢同行. 抵昌華驛酒店, 同行中宋再華

593 불로치(不老峙)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에 있던 고개이다.

594 농소막(農所幕)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마을이었다.

595 보청(譜廳) : 족보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596 묘치(猫峙)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에서 곡성읍으로 가는 고개로 '괘재'라고도 부른다.

597 순자강(蓴子江) : 전라남도 곡성 일대를 흐르는 섬진강의 옛 이름이다.

598 도산(道山)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이다.

599 명전(名錢) : 족보를 간행할 때 종종 남자 이름에 매긴 돈이다.

先行, 余與武說氏 心洞及烏栖客, 入道山族孫一浩家留宿. 主人父子名錢二兩入于行中.

■26일. 노비의 짐이 무거워서 족손 일호에게 짐을 나누었다. 새 주막에 이르니 비가 시작되어 그대로 아침을 먹었다. 점심때가 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비가 개자 출발하였다. 증산(甌山) 객점에 이르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그러나 일행이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뒤쫓아가려면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가고 또 가도 날은 저물고 길은 진창이라 행색이 몹시 곤고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간신히 사동(蛇洞) 객점에 도착하니 일행은 과연 이곳 주막에 있었다. 그들과 이곳 주막에서 묵었다. 밥값은 5푼이었다.

二十六日. 以奴子之卜重, 分卜於族孫一浩. 抵新酒幕, 則雨作. 仍爲朝飯. 雨不止而至午, 故仍午飯. 午後開霽發程. 抵甌山店, 日已暮矣. 而以同行之先行, 欲爲追及, 不得遲滯. 仍爲行行 而日暮泥濘, 行色甚困. 深夜後, 艱抵蛇洞店, 則同行果留此幕矣. 與之同留此幕. 烟價五分.

■27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오수(槩樹)⁶⁰⁰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무열씨가 먼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장정 몇 리마다 단정 ⁶⁰¹ 으로 이어져 있어	長亭幾里短亭連
명을 전하는 파발이 하늘에서 온 듯하네	傳命置郵若自天
돌아보건대 이 역참 이름에는 의미가 있으니	顧此驛名應有意
회남왕의 개 짖는 소리 들리던 옛 신선이라네 ⁶⁰²	淮南聞吠舊時仙

600 오수(槩樹)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이다.

601 장정(長亭) …… 단정(短亭) : 행인들의 휴게소로서, 5리(里)마다 단정을 설치하고 10리마다 장정을 설치하였다.

602 회남왕(淮南王) …… 신선이라네 : 회남왕 유안(劉安)이 도술(道術)을 좋아하여 그의 문하에 항상 방사(方士) 수천 명이 있었다. 훗날 팔공(八公)이라 일컫는 여덟 명의 방사가 유안에게 신선술을 가르쳐서 온 집안이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단약을 만들었던 그릇이 남아 있어 집에서 기르던 개와 닭이 그 그릇에 남아 있는 단약을 먹고는 역시 모두 신선이 되어 승천하여 천상에서 닭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역참이 장정과 단정으로 실로 서로 이어져 있으니	郵亭長短信相連
가는 길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다 말게	莫謂行難若上天
웃으며 객점 여인 불러 문득 길을 묻노니	笑喚店娥俄問路
혹시 영주 ⁶⁰³ 바다 먼 데서 오는 배를 아는가	倘知瀛海遠來船

내가 먼저 평당의 송필동 씨 집으로 가니 주인은 없고, 어린 주인만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출발하여 평당 객점으로 왔다. 일행이 이 주막에서 기다리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일행이 없었으므로 머뭇거리고 있던 터에 마침 한 소년을 만났다. 필동 씨 소식을 물으니 아까 계곡(桂谷)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년을 시켜 오라고 기별하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미 족보에 들어갈 명단은 겨우 마쳤지만, 노자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때맞춰 올려보내지 못하였고, 또 여산의 시조 묘소 가까운 곳에 투장(偷葬)한 묘로 인해 송사가 일어나 서울에서 통문이 내려왔기에 전주에다 상의하여 6일 날 여산의 제각에서 종회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이 기별을 듣고는 인사의 도리상 그대로 갈 수가 없었다. 일행과 상의해볼 생각으로 빨리 재촉해 갔는데 일행은 두치(斗峙)⁶⁰⁴를 넘었다. 그래서 간신히 굴암 주점에 이르러 일행과 만나 상의하였다. 그대로 이 주막에서 묵었다.

二十七日。早發，抵檠樹朝飯。武說氏先吟曰：“長亭幾里短亭連，傳命置郵若自天。顧此驛名應有意，淮南聞吠舊時仙。”余次曰：“郵亭長短信相連，莫謂行難若上天。笑喚店娥俄問路，倘知瀛海遠來船。”余則先行坪塘 宋必東氏家，則主人不在，只有少主。故即發出，來坪塘酒店。以同行留待此幕爲約矣。同行不在，故逗遛之際，適逢一少年。問必東氏消息，則俄自桂谷還來云。故使少年通奇要來。暫話，則既單才畢，而以路貫之尙未辦備，趁未上送，且礪

우는 소리가 들리고 구름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神仙傳 劉安》

603) 영주(瀛州) : 흥양(興陽, 전라남도 고흥)의 옛 지명이다.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러 사신을 보냈다는 선경을 의미하는데, 고흥 팔영산에는 서복(徐福)이 찾아온 전설이 남아있다.

604) 두치(斗峙) : 전라북도 임실과 오수를 잇는 고개로 '말재'라고 하였다.

山始祖山所至近處，偷葬起訟事，京中通文下來，故自全州相議來，而初六日，宗會于礪山祭閣云。故既聞此奇，則人事道理，不可前進。與同行相議之意，急急促往，則同行已越斗峙。故艱抵屈岩酒店，逢同行與之相議。仍留此幕。

▪28일. 주막에 일행을 남겨두고, 나는 무열 씨와 하단을 만나기 위해 이인면(里仁面) 입점촌(笠店村)의 하단(夏瑞) 집을 찾아갔는데, 하단은 없고, 다만 그 아들 상인(喪人) 지언(持彦) 형제만 있었다. 이에 치위(致慰, 상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함)하였다. 영남(嶺南) 안의(安義)의 류재철(柳載喆)이 나보다 먼저 그 집에 있었다. 오후에는 남원(南原)의 김성채(金星采)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왔다. 김성채는 하단과 친사돈인 사람이다. 그와 함께 묵었다. 二十八日。留同行於幕中，余與武說氏爲見夏瑞，尋往里仁面 笠店村 夏瑞家，則夏瑞不在，只有其子喪人持彦兄弟。仍爲致慰。嶺南 安義 柳載喆，先我留在其家。午後南原 金星采爲名人入來。金，則夏瑞親查之人也。與之同留。

▪29일. 온종일 비가 내려 나갈 수가 없어서 두 친구와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록 빗속의 객고(客苦)에는 위로가 되었지만, 주인이 없어서 몹시 서글펐다. 二十九日。終日雨，不得出來，與兩友終日談話。雖慰雨中之客苦，以主人之不在，甚爲悵悵。

▪10월 1일. 하단(夏瑞)을 만나기 위해 아침 전에 류재철을 하단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그와 함께 신안서원(新安書院)⁶⁰⁵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을 먹은 뒤 곧바로 신안서원으로 갔다. 참배하고 나서 한용(韓溶)의 아들을 만나려던 차에, 마침 한 소년이 오기에, 물어보니 과연 한용의 아들 한재유(韓在裕)였다. 이에 그가 상중에 있을 때 멀리서 조문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조금 있다가 류재철이 와서 그 연고를 물으니, 서너 군대를 찾아다녀 봤지만 끝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끝내 만나지 못해

605) 신안서원(新安書院)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서원이다. 선조 21년(1588)에 주희와 한호겸(韓好謙)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몹시 안타까웠다. 그 길로 출발하여 임실(任實) 읍내 저자 주변에 이르러 일행을 만나 함께 굴암(屈巖) 객점으로 왔다. 일행과 함께 출발하여 슬치(瑟峙)⁶⁰⁶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十月初吉. 爲見夏瑞, 朝前, 勸送柳載結於夏瑞所在處. 與之偕來新安書院之意, 朝飯後, 直往新安書院. 參謁後, 欲見韓溶之子之際, 有一少年適來, 故問之, 則果是溶之子在裕也. 仍敍其在喪時, 遠未來問之意. 少頃柳友入來, 問其故, 則推尋數三處, 終不知去處. 仍不得相見, 可歎可歎. 仍爲發程, 抵任實邑內市邊, 逢同行, 偕來屈巖酒店. 與同行仍發, 抵瑟峙留宿.

■2일.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하였다. 애치(艾峙)⁶⁰⁷에 이르자 날이 비로소 밝았다. 저소(詆所) 앞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완서(完西, 전주 서문)의 전종백(全宗伯) 집에 도착하였다. 세포(細布, 울이 가늘고 고운 삼베) 1필, 참빗 20개, 전복 20개를 사고, 노원을 만나려고 서문 밖 그의 소가(小家)로 갔다. 소동을 불러 내가 왔다는 기별을 전하고 다시 주인집으로 왔다. 오후에 노원이 영동(永同)의 일가 경순(敬純)과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산에서 발생한 송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갔다. 그러므로 일행과 그대로 유숙하였다.

初二日. 未明發程. 抵艾峙, 日始明矣. 至詆所前幕朝飯. 得達完西 全宗伯家. 買細布一匹、眞梳二十介、全卜二十介, 欲見魯源, 往西門外其小家. 呼小童傳余來之奇, 還來主人家矣. 午後魯源與永同宗人敬純偕來, 仍與談話. 詳說礪山起訟事, 且來日更來而去. 故與同行, 仍留宿.

■3일. 오전에 노원이 경순과 같이 왔다. 경순이 내일 동행할 생각으로 극구 만류하였으므로 여산에 일행을 권하여 보내고, 나와 무열 씨와 경순이 함께 묵었다. 어제 전주에 들어갔을 때 무열 씨가 먼저 다음과 같이 읊었다.

606) 슬치(瑟峙)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과 완주군 상관면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607) 애치(艾峙)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과 완주군 상관면을 잇는 고개이다.

성조가 이 고을에서 개창하였으니
패풍⁶⁰⁸의 산수 형세 오래도록 남아있네
우뚝한 사당에 아름다운 기운을 바치고
눈에 가득 봄꽃 만발한 명승을 유람하네

聖祖龍興自此州
沛豐山水勢長留
巋然殿廟呈佳氣
滿目烟花勝地遊

내가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호남을 날날이 헤아려 제일의 고을이니
신평⁶⁰⁹의 용덕⁶¹⁰이 이곳에 남아있네
눈앞에는 모두 변화한 물색이 있으니
소인목객이 유람하며 몇 번이나 무릎을 치네

歷數湖南第一州
新豐龍德此間留
眼前都是繁華物
幾度騷人擊節遊

오서 객이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아름다운 산과 수려한 강이 풍부한 전주라
호남 좌도의 풍경이 이곳에 남아있네
의관이 모두 다 화려한 자제들이
객점에서 젊은 기생⁶¹¹과 진종일 노니네

佳山麗水饒全州
湖左風烟此地留
衣冠總是繁華子
店錦纏青盡日遊

608) 패풍(沛豐) : ‘풍패(豐沛)’라고도 하는데, 한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고향이므로 후세에는 제왕의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는 전주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선대가 살던 곳이므로 패풍이라고 한 것이다.

609) 신평(新豐)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부친을 모셔 와 장안(長安)의 황궁(皇宮)에서 태상황(太上皇)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그 부친이 고향인 풍현(豐縣)을 못 잊어 하자 장안 부근에 새로운 풍현[新豐]을 조성(造成)하여 위로해 드렸다는 고사가 있다. 《西京雜記 卷2》

610) 용덕(龍德) : 임금의 덕을 말한다.

611) 젊은 기생 : 원문 ‘금전(錦纏)’은 옛날 예인(藝人)이 가무를 끝내고 나면 손님들이 그 대가로 주던 비단, 즉 금전두(錦纏頭)를 말한다.

初三日. 午前魯源與敬純偕來. 敬純以明日同行之意堅挽. 故勸送同行於礪山, 余與武說氏及敬純同留. 昨日入完時, 武說氏先吟曰: “聖祖龍興自此州. 沛豐山水勢長留. 巋然殿廟呈佳氣, 滿目烟花勝地遊.” 余次曰: “歷數湖南第一州, 新豐龍德此間留. 眼前都是繁華物, 幾度騷人擊節遊.” 烏栖客次曰: “佳山麗水饒全州, 湖左風烟此地留. 衣冠總是繁華子, 店錦纏青盡日遊.”

■4일. 식전에 무열 씨와 경순과 함께 출발하였다. 수정(藪亭)에 이르니 비가 시작되었다. 주점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었다. 잠시 뒤 비가 조금 갠 기세여서 출발하였다. 감소촌(甘所村) 주점을 지날 무렵 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비를 무릅쓰고 하삼례(下三禮)에 다다랐다. 마침 보성(寶城)의 박 곡성(朴谷城) 덕일(德一)을 만나 그와 함께 유숙하였다.

初四日. 食前, 與武說氏及敬純發程. 抵藪亭, 則雨始. 入酒店, 仍朝飯. 稍間, 雨勢少霽, 故發程. 過甘所村酒店, 雨更作. 冒雨, 抵下參禮. 適逢寶城 朴⁶¹² 谷城⁶¹³ 德一, 與之同留宿.

■5일. 아침 전에 성우(成友)가 먼저 출발하였다. 나와 두 송씨와 함께 출발하여 능⁶¹⁴ 옆 객점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여산(礪山) 제각(祭閣)에 이르렀으나, 일행이 오지 않아 몹시 의아하고 답답했다.

初五日. 朝前, 成友先發. 余與兩宋發程, 抵陵側療飢. 抵礪山祭閣, 同行不來, 甚爲訝盍.

■6일. 오전에 일행이 와서 함께 산소에 올라가 성묘하고 제각으로 내려왔다. 오후에 노원(魯源)이 서울의 일가 종륜(鍾崙)과 함께 왔다. 본읍(本邑)에 사는 일가인 낙(洛)과 필(泌)도 왔다. 이 외에 별도로 와서 참석한 사람이 없어 아주 놀라웠다. 밤사이 무열 씨가 글을 짓고 오서 객이 글씨를 썼다.

612) 朴 : 저본에는 ‘毫’으로 되어있으나 성씨 용례와 문맥에 따라 ‘朴’으로 수정하였다.

613) 城 : 저본에는 ‘成’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에 따라 ‘城’으로 수정하였다.

614) 능 :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익산 쌍릉으로 보인다. 마한(馬韓)의 무강왕 및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고, 백제 무왕과 왕비의 능이라고도 한다.

初六日. 午前同行入來, 與之上山所省拜, 下來祭閣. 午後魯源與京中宗人鍾崙入來. 本邑宗人洛與泌亦來. 此外別無來參之人, 可駭可駭. 夜間武說氏製狀, 烏栖客書之.

■7일. 아침 전에 제종(諸宗)⁶¹⁵이 읍으로 들어가 소장을 내니, 관청에서는 “양조(兩造, 원고와 피고)가 대질하여 시비를 가려라.”라고 조치하였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로 가서 이회종(李會宗)을 송처(訟處)로 끌고 와, 사창(司倉)의 봉환소(捧還所)에서 대질하니, (봉환소에서는 산송이 일어난 곳의) 형상을 그려 올 뜻으로 향색(鄉色)⁶¹⁶을 보냈다. 그러므로 읍에서 아침을 먹고 제각으로 올라왔다. 이에 그림을 그렸는데 5백 20척이었다. 향색은 저물녘에 내려갔다.

初七日. 朝前, 與諸宗入邑呈狀. 則題內“兩造對下事”. 故主人即往, 提來訟處李會宗, 對下於司倉捧還所, 則圖形以來之意, 出送鄉色. 故朝飯於邑中, 上來祭閣, 仍爲圖形, 則五百二十尺. 鄉色乘暮下去.

■8일. 아침 전에 주관(主官)이 직접 살펴보고 올라왔기에 뒤를 따라 이씨 무덤으로 갔다. 주관의 말하던 중에 “이미 송씨 산소의 백호(白虎) 안에 있으니 이가(李哥)가 산송에 지겠다.”하고 갔다. 그러므로 나는 일행과 경순, 종륜 두 일가와 함께 읍으로 왔다. 어제 측량한 읍리(邑吏) 김진홍(金鎭洪)에게 물으니, 도형기(圖形記, 지적도와 유사)에 결과를 적어두었다고 하였다. 과연 베껴서 나오니, 관청의 판결 내용에 “송씨 측 산소는 곧 용호(龍虎)가 수호하는 땅 7리를 분할하여 준다. 이씨 측 고조부 무덤은 비록 장례를 지낸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보수(步數)⁶¹⁷의 원근을 막론하고, 송씨 산소의 백호 내에 있으니, 송리(訟理)로 헤아려보면 구금해야 마땅하거늘, 송사가 변하여 지금 송사를 일으켰으니,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 이씨 측이 송사에

615) 제종(諸宗) : 일가붙이의 본종(本宗)과 지파(支派)를 말한다.

616) 향색(鄉色) : 조선 시대 지방 기구인 향청(鄉廳)의 임원(任員)이었던 좌수(座首)·별감(別監)·색리(色吏)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617) 보수(步數) : 남의 무덤의 용호(龍虎) 이내에는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패소한 것으로 치부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경순과 종륜 두 일가는 다시 관아로 들어가서 무덤을 파서 이장할 날짜를 다짐(考音)⁶¹⁸ 받으려고 읍내에 남아있었다. 나는 일행과 같이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지아미(芝娥眉) 고개⁶¹⁹에 이르러 요기를 하고, 율항(兀項)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初八日. 朝前, 主官親審次上來, 隨後往李塚. 主官言內“既是宋氏山所白虎內, 則李哥落訟.”云而去. 故余與同行及敬純、鍾崙兩宗. 偕來邑中. 昨日尺量邑吏金鎮洪問之, 則題課於圖形記云矣. 果爲膽出, 而題內“宋班先山, 卽畫給七里守護之地也. 而李班高祖塚, 雖葬在年久, 毋論步數遠近, 是在宋山白虎之內, 揆以訟理, 在所當禁是去乙, 訟變今始起訟, 尙云晚矣. 李班置諸落科事”. 敬純、鍾崙兩宗, 更入官庭, 掘移日納考音次, 留在邑中. 余與同行發向京行. 抵芝娥眉峴療飢, 抵兀項留宿.

■9일. 새벽에 출발하였다. 밤새 내린 비로 길이 진창이 되어 행보가 몹시 힘겨웠다. 사교(沙橋)⁶²⁰ 객점에 이르러 무열 씨와 심형을 전당(錢塘)의 상철(相詰) 집으로 보내고, 나는 다른 일행과 거기서 밥을 먹고 출발하였다. 마고坪(馬古坪)에 이르니 진창길이 아주 힘들었다. 초포(草浦)⁶²¹ 객점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거사(去思) 주막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점심 무렵 길에서 무열 씨가 먼저 <계룡산(鷄龍山)> 시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금계를 부르고 용이 나타나는 산	山號金鷄與見龍
요순시대의 구물이 진객에게 드러났네	唐虞舊物露眞客
서쪽엔 금강이 띠처럼 둘러 있으니	西望錦水環如帶
올라가 선령을 한번 만나고 싶구나	上有仙靈願一逢

618) 다짐(考音) : 백성이 관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 주는 판결문이나 처결문을 말한다.

619) 지아미(芝娥眉) 고개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의 북쪽으로 3km쯤 되는 곳에 있는 고개로 ‘지아미 고개’라고도 하였다.

620) 사교(沙橋)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이다.

621) 초포(草浦)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계룡이라 부르는 들쭉날쭉 높은 산이 있는데	有山高巖號鷄龍
늘 안개가 감싸고 있어 그 위용을 분별하지 못하네	常護烟霞不辨容
봉우리 늘어서고 물이 돌아가는 건 우연이 아니고	峯列水回非偶爾
하늘의 법칙과 땅의 축이 서로 조화롭게 만나서라네	乾經坤軸好相逢

오서 객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닭 머리가 늘어선 듯 용이 엮드린 듯이	列似鷄頭伏似龍
하늘이 아름다움을 산의 위용에 다 주었네	天將佳錫盡山容
흰 구름 푸른 이내 낀 기이한 절경이 많으니	白雲靑靄多奇絕
이곳에 사는 신선을 나는 만나고 싶네	這處仙人我欲逢

初九日. 曉發. 夜雨泥濘, 行步甚艱. 抵沙橋店, 送武說氏及心洞於錢塘 相詰家, 余則他同行仍朝飯發程. 至馬古坪, 則泥路極難. 抵草浦店暫憩. 抵去思幕留宿. 午間路上, 武說氏先吟《鷄龍山》韻曰: “山號金鷄與見龍, 唐、虞舊物露眞客. 西望錦水環如帶, 上有仙靈願一逢.” 余次曰: “有山高巖號鷄龍, 常護烟霞不辨容. 峯列水回非偶爾, 乾經坤軸好相逢.” 烏栖客次曰: “列似鷄頭伏似龍, 天將佳錫盡山容. 白雲靑靄多奇絕, 這處仙人我欲逢.”

■10일. 새벽에 출발하여 고대로(高大路)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금강(錦江)을 건널 적에 무열 씨가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른 새벽 금강에 와서 배를 타고	侵晨來到錦江船
넘실넘실한 강물에 신선처럼 앉아 있네	維水泱泱坐若仙
안개도 걷히고 연기도 사라져 밝게 갠 즈음에	霧罷烟消開朗際
가슴 활짝 열어젖히고 장쾌하게 하늘을 보네	塵襟被盡快觀天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내 시를 읊조리며 배를 대기를 기다리니	待我晴吟艤一船
오늘 아침 문득 물 가운데 신선이 되었네	今朝便作水中仙
안개 속에서 몇 가락 뱃노래 소리 들려 오고	數聲欸乃烟霞裏
강 건너는 여정 마치 푸른 하늘에 앉아 있는 듯하네	利涉行裝坐碧天

오서 객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손을 잡고 함께 금강의 배에 올라서	携手同乘錦水船
허공에 기댄 신세 신선처럼 앉아 있네	憑虛身勢坐如仙
끝없이 아득한 아름다운 저곳을 응시하니	眼穿無際看佳適
안개 낀 수면이 푸른 하늘과 같은 빛깔이네	一色烟波共碧天

궁원(弓院)⁶²²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원기(院基)⁶²³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初十日. 曉發, 抵高大路朝飯. 渡錦江, 武說氏即到吟曰: “侵晨來到錦江船, 維水泱泱坐若仙. 霧罷烟消開朗際, 塵襟被盡快觀天.” 余次曰: “待我晴吟艤一船, 今朝便作水中仙. 數聲欸乃烟霞裏, 利涉行裝坐碧天.” 烏栖客次曰: “携手同乘錦水船, 憑虛身勢坐如仙. 眼穿無際看佳適, 一色烟波共碧天.” 抵弓院療飢. 抵院基留宿.

■11일. 새벽에 출발하여 덕평(德坪)⁶²⁴에 이르자 막 동이 났다. 천안(天安) 도리치(道理峙)⁶²⁵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직산(稷山)⁶²⁶ 삼거리(三거리)에 이르러

622 궁원(弓院):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이다.

623 원기(院基):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원기마을이다.

624 덕평(德坪):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이다.

625 도리치(道理峙): 천안 남쪽에서 공주로 통하는 고갯길이다.

626 직산(稷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이다.

점심을 먹었다. 홍경(洪景)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새벽에 출발할 때 무설 씨가 먼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집 남쪽 새벽닭 소리 귓전 가득 들리는데	屋南晨鷄滿耳聽
동녘에 아직 해는 뜨지 않고 별만 반짝이네	東猶不出啓明星
승려가 등불을 가지고 앞길을 재촉하니	有僧持燭催前路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산은 푸르름을 갈아놓은 듯하네	當面群山只磨靑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금계가 한 차례 우니 객이 먼저 듣고	金鷄一唱客先聽
길 안내 등불을 켜니 완전히 별처럼 보이네	指路點燈完似星
오르락내리락 산길의 어둠 속에서는	低仰山蹊冥色裏
연장자가 젊은 소년에 미치지 못하네	大年不及少年靑

오서 객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나그네 가장 먼저 새벽닭 소리 듣고 일어나니	旅客最先曉鷄聽
구름 낀 하늘에 비가 오려나 별이 보이지 않네	雲天欲雨未看星
승려는 등불로 길을 안내하며 여행길을 재촉하고	僧燈指路催行李
그림처럼 아름다운 수많은 산은 푸르스름하네	活畫群山影裏靑

十一日. 曉發, 抵德坪始開東矣. 抵天安 道理峙朝飯. 抵稷山三巨里中火. 抵洪景店留宿. 曉發時, 武說氏先吟曰: “屋南晨鷄滿耳聽, 東猶不出啓明星. 有僧持燭催前路, 當面群山只磨靑.” 余次曰: “金鷄一唱客先聽, 指路點燈完似星. 低仰山蹊冥色裏, 大年不及少年靑.” 烏栖客次曰: “旅客最先曉鷄聽, 雲天欲雨未看星. 僧燈指路催行李, 活畫群山影裏靑.”

■12일. 새벽에 출발하여 소사(素沙) 객점에 이르니 막 동이 났다. 칠원(柒原)

에 이르러 아침을 먹은 뒤에 진위(振威, 경기도 평택) 읍 앞에 이르렀다. 비를 만나, 서둘러 오매(烏梅, 수원시 오산동) 객점에 이르렀다. 의관이 다 젖었다. 점심을 먹고 비가 그칠 기세가 아니어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十二日. 曉發, 抵素沙店, 則始開東. 抵柴原朝飯後, 抵振⁶²⁷威邑前. 逢雨急抵烏梅店. 衣冠盡濕. 午飯, 雨勢不止, 故仍爲留宿.

■13일. 새벽에 출발하여 진창길을 가니 몹시 건디기 어려웠다. 병점(餅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화성(華城) 북문 밖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세동(細洞)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화성에 도착하였을 때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며칠 동안 고생고생하여 이 성에 이르니	間關多日到此城
누대와 성첩이 서울보다 멋지구나	樓觀雉堞勝於京
선왕의 뜻을 깊이 걱정하고 염려하여	憂深慮遠先朝意
당시 하루도 안 되어 완공함을 송축하네	頌祝當時不日成

十三日. 曉發, 泥路行, 極爲難堪. 抵餅店朝飯. 抵華城北門外午飯. 抵細洞留宿. 到華城時吟一絕曰: “間關多日到此城, 樓觀雉堞勝於京. 憂深慮遠先朝意, 頌祝當時不日成.”

■14일. 새벽에 일어나 과천(果川) 읍내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강을 건너 청파(靑坡,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의 영대(永大) 집에 이르니 영대는 입번(入番⁶²⁸)하였다. 그길로 나와 청파 도로변 주막에서 유숙하였다. 심형이 오한으로 몸을 떨며 크게 아팠다. 몹시 걱정되었다.

十四日. 曉發, 抵果川邑內朝飯. 越江抵靑坡 永大家, 則永大入番, 仍出靑坡路邊酒幕留宿. 心洞寒戰大病. 悶悶.

627) 振 : 저본에는 없는 글자지만, 다수의 지명 용례에 따라 추가하였다.

628) 입번(入番) : 관리가 관청에 들어가 숙직하거나 근무하는 일을 이른다.

■15일. 심형의 병이 차도가 없었다. 나는 오서 객과 같이 약방으로 가서 병을 말하고 약을 지어 보냈다. 나는 무열 씨와 함께 대묘동(大廟洞⁶²⁹)의 공단(公端)과 이지문(李志文)이 머무는 곳에 가서 물으니 지난달에 모두 내려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저물녘을 틈타 주인집으로 돌아오니 심형이 약을 복용하고, 그대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 몹시 걱정이었다.

十五日. 心洞之病不差. 余與烏栖客往藥房, 論病製藥以送. 余與武說氏往大廟洞 公端及李志文所住處問之, 則去月皆下去云. 故乘暮還來主人家, 則心洞服藥, 仍臥吟病, 悶悶.

■16일. 심형의 병이 여전히 차도가 없어서 연달아 탕약을 복용하여, 오후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하였다. 이날 종루에 갔다가 돌아왔다.

十六日. 心洞之病, 仍爲不差, 連用湯製, 午後如有微. 是日往鍾樓而還.

■17일. 무열 씨와 함께 야현(冶峴)의 족보 간행소로 가니 만재(晩載)와 지극(持棘)과 나이 어린 일가들이 모두 있었다. 흥양 종파의 단자(單子, 명단)가 이제 겨우 올라왔다고 크게 책망하였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주인집으로 오니, 심형의 병이 점차 차도가 있어 무척 다행이었다.

十七日. 與武說氏往冶峴譜所, 則晩載及持棘與年少諸宗皆在. 以興陽派單子, 今才上來之意, 大端致責. 而移時談話出來主人家, 則心洞之病漸差, 可幸可幸.

■18일. 단자(單子)와 약간의 물건을 가지고 족보 간행소로 가니 임실의 일가 연태(延泰)와 몇몇 사람이 먼저 자리에 있었다. 물어보니 어제 왔다고 하였다. 또 하단이 왔는지 물으니, 오늘 왔다고 하였다. 단자를 고준(考準, 원본과 대조)할 생각으로 내일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임실 일가와 함께 나와 남문 밖 하단의 주인집으로 와서 함께 묵었다.

十八日. 持單子及略干物往譜所, 則任實宗人延泰數人先在座矣. 問之,

629) 대묘동(大廟洞) : 서울 종로구 훈정동·묘동·봉익동·종로3가·종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대묘인 종묘가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대못골·대못골·대묘동·묘동’이라고도 하였다.

昨日入來. 又問夏瑞來否, 則今日入來云矣. 以考準單子之意, 明日更爲入來之意相約, 而與任實宗人同爲出來南門外夏瑞主人家, 仍爲同宿.

■19일. 아침 전에 각교(權橋)로 가서 판서 면재(冕載) 씨를 만났다. 오는 길에 차동(車洞)⁶³⁰에 들러 민치항(閔致恒) 형제를 만나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고 곧바로 야현의 족보 간행소로 가서 단자를 고준하였다. 음식을 준비하여 배불리 먹고 하단(夏瑞)과 행랑에서 머물렀다. 저녁을 먹은 후 사랑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거처로 왔다. 날이 저물고 나서 만재 형제와 젊은이 대여섯 명과 나와서,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유숙하였다.

十九日. 朝前往權橋, 見判書冕載氏. 來路入車洞見閔致恒兄弟, 還來主人家. 朝飯, 卽往治峴譜所, 考準單子. 備飲食相飽, 與夏瑞同留行廊. 夕食後, 入舍廊談話出來所留處. 昏後晚載兄弟及年少五六人出來, 深夜談話, 仍爲飲喫而留.

■20일. 몹시 추웠다. 종일 고준(考準)하였다. 점심 무렵 음식을 마련하여 주인과 객이 함께 먹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二十日. 極寒. 終日考準. 而午間備飲食, 主客飲啖, 仍留.

■21일. 몹시 추웠다. 단자를 다 고준하고 오후에 나와 주인집으로 와서 그대로 머물렀다. 오전에 족보 간행소 가는 길에 필동(筆洞), 서울시 중구 필동의 교리(校理) 황협(黃浹) 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마침 없어서 가지고 간 약간의 물건을 거직(居直)에게 맡기고, 그길로 간행소로 갔다.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또 필동에 들렀는데 들어와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날이 저문 바람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그길로 나왔다.

630 차동(車洞) : 중구 의주로1가 순화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수릿골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추모동'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태어난 터에 비석을 세우고 그를 추모했던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二十一日. 極寒. 單子盡爲考準, 午後出來主人家, 仍留. 午前入去譜所之路, 入筆洞 黃校理 浹家, 則主人適不在, 持去略干物, 付于居直, 仍往譜所矣. 午後來路, 又入筆洞, 則方入內夕食云. 而以日暮之致, 不得久留, 仍爲出來.

■22일. 심형과 오서 객과 필동(筆洞)으로 가서 황 교리(黃校理)를 만났는데, 사람됨이 단아하고 매우 근후(勤厚)하였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 홍원(洪原)의 비석을 세우는 일을 위로하니 비석을 처음 세웠을 때의 일에 대해 대략 설명해 주었다. 그길로 작별하고 나왔다. 비를 만나 의관이 다 젖어 간신히 왔다.

二十二日. 與心洞及烏栖客往筆洞, 見黃校理, 爲人端雅, 甚爲勤厚. 敍暄後, 慰其洪原立碑事, 則略說其設始之事矣. 仍爲作別出來. 逢雨, 衣冠盡濕, 艱爲出來.

■23일. 일행과 출발하였다. 청파의 영대 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행장을 꾸러 길가로 나오니 임실의 일행은 먼저 출발하였다. 노량(露梁, 서울 노량진)으로 가니 내년 동가(動駕)⁶³¹ 때 쓸 배다리[舟橋]⁶³²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배가 다 와서 강 가운데 정박해 있어, 가히 장관이라 이를 만하였다. 그길로 강을 건너기 위해 강기슭 육신묘(六臣墓)⁶³³ 앞에 이르러 육신묘비(六臣墓碑)⁶³⁴를 봤다. 산소를 둘러보고, 망배(望拜)하고 싶었지만, 눈이 쌓여 묘정(墓庭)을 막아 성묘를 할 수 없었다. 가다가 시흥(始興) 읍내에 이르러 콩죽을 사서 요기를 하였다. 군포천(軍布川) 주막에 이르러 임실 일행을 만나 함께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큰 눈이 왔다.

631 동가(動駕) :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632 배다리[舟橋] : 작은 배를 잇달아 띄워 놓고 그 위에 널판을 건너질러 간 다리이다.

633 육신묘(六臣墓) : 서울 노량진에 있는 단종 복위 사건으로 죽은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의 묘이다.

634 육신묘비(六臣墓碑) : 서울 노량진 남쪽 기슭에 있는 사육신(死六臣)의 묘비로 1782년에 세워졌으며,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이 찬(撰)하고 이휘지(李徽之, 1715~1785)가 글씨를 썼다.

二十三日。朝前，與同行發程。抵青坡 永大家，仍朝飯。治發行裝，出來路邊，則任實同行先去矣。行去露梁，則以明年動駕時舟橋次，船隻盡爲來泊於江中，可謂壯觀矣。仍爲越江，抵江岸六臣墓前，見六臣墓碑。周觀山所欲爲望拜，而以雪塞墓庭，不得省拜。行至始興邑內。買太粥療飢 抵軍布川酒幕，逢任實同行，仍爲同留。是夜大雪。

■24일. 눈을 무릅쓰고 새벽에 출발하였다. 화성(華城)에 이르자 막 동이 터 올랐다. 남문 밖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축저(築底)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진위(振威) 읍 앞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눈이 쌓여 진창길이 되고, 옷이 다 젖어 괴로웠다.

二十四日。冒雪曉發。抵華城始開東矣。至南門外朝飯。抵築底午飯。抵振威邑前留宿。雪積泥濘，衣服盡濕，苦哉。

■25일. 새벽에 출발하여 칠원(柒原)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성환(成歡)에 이르러 떡과 탕을 사서 먹고 요기를 하였다. 직산(稷山) 삼거리(三巨里)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五日。曉發，抵柒原朝飯。抵成歡買餅湯療飢。抵稷山三巨里留宿。

■26일. 새벽에 출발하여 천안(天安) 읍 앞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김제역(金堤驛) 앞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올라올 때 오촌(鰲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갈 길이 바쁜 바람에 곧바로 올라왔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이 주막에 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또 갈 길이 바빠, 들어가지 못하고 곧바로 내려가게 되어 마음이 몹시 서운하였다. 원기(院基)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날이 갈수록 길은 험난하고, 진창길이 무릎이 빠질 지경이라 실로 견디기 어려웠다.

二十六日。曉發，抵天安邑前朝飯。抵金堤驛前療飢。初意上來時入去鰲村爲計矣。以行忙之致，直爲上來。而下去路，自此幕入去計矣。亦以行忙，不得入去，直爲下去，心甚悵然。抵院基留宿。日日險路，泥濘沒膝，實爲難堪。

■27일. 새벽에 출발하여 궁원(弓院)⁶³⁵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재화(再華)와 연화(延燁)가 먼저 내려가서 그대로 작별하였다. 모로원(慕露院)⁶³⁶ 저자 주변에 이르렀다. 금강(錦江)을 건너 거사(去思) 주막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七日。曉發，抵弓院朝飯。再華及延燁，先爲下去，仍爲作別。抵慕露院市邊。越錦江，抵去思幕留宿。

■28일. 새벽에 출발하여 경천(擎天)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초포(草浦)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올항(兀項)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八日。曉發，抵擎天朝飯。抵草浦午飯。抵兀項留宿。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저교(楮橋)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송함(宋涵)을 조문할 생각으로 심천(深川)의 송심(宋沁)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二十九日。曉發，抵楮橋朝飯。吊宋涵之意，入深川 宋沁家留宿。

■30일. 아침을 먹은 뒤 송함(宋涵)의 궤연(軌堧)에 조문하였다. 시조의 산소 동지향사(冬至享祀)에 참석하기 위해 사동(沙洞)의 제각(祭閣)으로 올라가니 경빈(敬賓) 씨가 참사원(參祀員)으로 올라왔다. 각처의 참사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모인 것은 산송(山訟) 때문이었다. 경빈 씨에게 집안 소식을 자세히 들었다. 조금 쉬고 나서 여러 일가와 읍으로 내려가 송정(訟庭)⁶³⁷으로 들어갔는데, 주관(主官)의 의향은 전적으로 이회종(李會宗)이 다짐(考音)을 받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서 몹시 분했다. 곧바로 올라와 제각에서 묵었다.

晦日。朝飯後，吊宋涵几筵。爲參始祖山所冬至享祀，上去沙洞祭閣，則敬賓氏以參祀員上來。各處參祀員比前多會者，以山訟之意故也。與敬賓氏詳聞家中消息。少憩後，與諸宗下去邑中，仍入訟庭，則主官意向，全爲李會宗不捧考音，可憤可憤。卽爲上來，留祭閣。

635) 궁원(弓院)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이다.

636) 모로원(慕露院)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양달 마을에 있었다. 원래 명칭은 '모로원(毛老院)'이다.

637) 송정(訟庭) : 송사를 판결하는 뜰이다.

■11월 1일. 오늘은 동짓날이다. 밥을 먹은 뒤 산소에 올라가 제사에 참석하였다. 초헌(初獻)은 임실의 하단으로, 아헌(亞獻)은 나로 정해 분방기(分榜記)⁶³⁸에 적혀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경빈(敬賓) 씨가 참사원으로 올라왔으니 참사원으로서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하니, 좌중이 모두 말하기를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름이 적혀있으니 굳이 사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각으로 내려와 유숙하였다.

十一月初吉. 是日冬至日也. 食後, 上山所參祀. 而初獻任實 夏瑞, 亞獻以余, 填書於分榜記. 故余以敬賓氏既以上來, 則以參祀員行亞獻禮云爾, 則座中皆曰: “言則是也, 而既爲填名, 則不必固辭”云. 故不得已當行. 行祀後, 下來祭閣留宿.

■2일. 새벽에 출발하여 연봉정(延逢亭)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간천교(艮川橋) 가에 이르러, 가덕(加德)에서 올라오는 연산의 송상철(宋相喆) 형제를 만났다. 길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대로 헤어졌다. 부(府) 서쪽 주인집으로 들어와 유숙하였다.

初二日. 曉發, 抵延逢亭朝飯. 抵艮川橋邊, 逢連山 宋相喆兄弟之自加德上來. 暫話路邊, 仍爲分路. 入來府西主人家留宿.

■3일. 중군(中軍)을 만나고 싶어, 밥 먹기 전에 중군(中軍)을 만나러 갔다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나왔다. 감영의 수리(首吏) 송덕일(宋德一)을 찾아보고 나와 주인집으로 왔다. 아침을 먹고 일행과 길을 나누어, 나는 순창(淳昌)으로 길을 잡고 오서 객과 동행하였다. 용두치(龍頭峙)⁶³⁹를 넘어 모음치(毛音峙)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初三日. 欲見中軍, 食前, 往見中軍, 暫敘後出來. 尋見營首吏宋德一出來主人家. 朝飯, 與同行分路, 余則以淳昌作路, 與烏栖客作行. 越龍頭峙, 抵毛音峙留宿.

638) 분방기(分榜記) : 제사 지낼 적에 제관(祭官) 등의 직책을 적은 명단이다.

639) 용두치(龍頭峙) : ‘용머리 고개’라고 한다. 고개의 북쪽에는 전주천과 전주 구도심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김제시로 이어진다.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일. 아침에 출발하여 염암(鹽岩)⁶⁴⁰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운암(雲岩)⁶⁴¹ 객점에 이르렀다. 일행과 임실 범오리(凡五里)에 사는 송철재(宋喆載) 경지(敬之) 집으로 들어가니 꿀물을 내왔다. 조금 있다가 또 메밀탕에 꿀을 타서 내왔다. 추위에 부대끼고 노정에 시달린 끝이라 죽히 추위를 막아 주었다. 거기에서 유숙하였다.

初四日. 朝發, 抵鹽岩朝飯. 抵雲岩店, 與同行入任實 凡五里居宋喆載 敬之家, 則進蜜水. 少頃, 又爲木麥湯和蜜以進. 觸寒行役之餘, 足爲禦寒. 仍爲留宿.

■5일. 바람이 매우 찬 날씨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극구 만류하여 또 범오리에서 머물렀다.

初五日. 非但風日之極寒, 以主人之堅挽, 又留凡五里.

■6일. 일찍 밥을 먹고 출발하였다. 강을 따라 30리를 가다, 덕산(德山) 앞에 이르러 대로로 나왔다. 노령(蘆嶺)⁶⁴²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순창(淳昌) 읍내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몹시 추웠다. 올라오는 행로객(行路客)들 모두 얼굴빛이 푸르뎡뎡하였다.

初六日. 早飯即發. 緣江三十里, 抵德山前出大路. 抵蘆嶺店午飯. 抵淳昌邑內留宿. 是日極寒. 上來行路之人, 皆屍色矣.

■7일. 일찍 출발하여 송치(松峙)⁶⁴³ 아래 객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익정(翌亭)에 이르러 떡을 사서 요기를 하였다. 곡성 농소막(農所幕)⁶⁴⁴의 송진형

640) 염암(鹽岩)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염암 마을이다. 마을 안쪽 계곡을 따라 임실 신덕면 삼길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큰 바위가 있는데 모습이 소금 결정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소금바우”라고도 하였다.

641) 운암(雲岩)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이다.

642) 노령(蘆嶺) : 전라남·북도를 경계 짓는 전북 정읍시와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이의 고개이다.

643) 송치(松峙)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엄곡리 뒤에 있는 고개이다.

644) 농소막(農所幕)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마을이었다.

(宋鎮亨) 집에 도착하니 무설 씨와 심형이 어제 와서 묵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그대로 유숙하였다. 밤에 눈이 내렸다. 주인은 아이들 천연두를 걱정하였다.

初七日。早發，抵松峙下店朝飯。抵翌亭買餅療飢。得達谷城 農所幕宋鎮亨家，則武說氏及心洞昨日來留，今朝發程云矣。仍爲留宿。夜雪。主人以兒童西神爲慮。

■8일. 아침을 먹고 광청(廣淸)⁶⁴⁵에 도착하여 떡을 사서 요기를 하였다. 낙수(洛水)⁶⁴⁶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도 몹시 추웠다.

初八日。朝飯，抵廣淸買餅療飢。抵洛水留宿。是日亦爲極寒。

■9일. 새벽에 출발하여 매치(埋峙)에 이르렀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찬바람이 아주 매서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주막집 일꾼을 불러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비로소 동이 텅다. 다시 출발하여 무동정(舞童亭)에 이르렀는데 아침을 먹기엔 너무 일러, 조막(造幕)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장수동(長壽洞)으로 들어가려고 구암(龜岩)⁶⁴⁷ 앞에 이르러 작은 길로 들어섰다. 알룽치(謁龍峙)의 최정환(崔正煥) 집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고개를 넘어 수동(壽洞)에 이르니 경달(敬達)의 어머니가 감기로 인해 큰 병이 나서 몹시 걱정되었다. 그대로 유숙하였다.

初九日。曉發，抵埋峙。日未明，而寒風極酷，不得前進。招幕漢開門入房。移時始爲開東。又爲發行，抵舞童亭，則朝飯尙早，抵造幕朝飯。欲入長壽洞，抵龜岩前入小路。抵謁龍峙 崔正煥家療飢。越嶺，抵壽洞，則敬達之母以感氣，仍爲大病，悶悶。仍爲留宿。

■10일. 택촌(宅村)의 계윤(季允) 씨가 와서 달원(達元) 집에 머물고 있다는

645) 광청(廣淸):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646) 낙수(洛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이다. 옛날 낙수역(洛水驛)이라는 역참이 있었다.

647) 구암(龜岩):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구강리이다.

소식을 듣고, 밥을 먹은 뒤 보러 가니 산송 일 때문에 와서 며칠 머물렀고, 오늘은 산처(山處)로 곧 출발한다고 하였다. 잠시 회포를 풀고 나서 곧바로 출발하였다. 주로치(周老峙)를 넘어 고읍촌(古邑村) 앞에 이르렀다. 도중에 오서 객이 ‘환(還)자 운을 불렀으므로 내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더디고 더딘 여행길 삼 개월 만에 돌아오니 遲遲行李月三還
시내와 골짜기 얼어붙어 옛 모습이 바뀌었네 澗壑成凍變舊顏
점점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고향은 절로 가까워지니 漸遠京城鄉自近
달리 나를 위로하는 건 없어도 평안하다는 소식있네 別無慰我報平安

별교(筏橋)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별 탈이 없어서 매우 다행이었다. 대곡(大谷) 형님과 택촌(宅村)의 옥과(玉果) 객이 마침 와서 머물렀다.

初十日。聞宅村 季允氏來留達元家，食後往見，則以其山訟事來留數日，而今日則往山處臨發云矣。暫紱後卽發。越周老峙，抵古邑村前。路中烏栖客呼“還”字韻，故余拙吟曰：“遲遲行李月三還，澗壑成凍變舊顏。漸遠京城鄉自近，別無慰我報平安。”抵筏橋療飢。乘暮還家。家中別無故 幸幸耳。大谷兄主及宅村 玉果客適來留矣。

영행일기 기해년(1839) 3월 일

嶺行日記 己亥三月日

■기해년(1839) 3월 12일. 영남으로 가려고 내기(乃記), 학운(學允)과 짝을 지어 출발하였다. 벌교(筏橋)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저물녘 순천(順天) 수덕(修德)⁶⁴⁸ 마을의 정생(丁生) 집에 이르렀다. 정생은 성리(城里)에서 이 마을로 이거한 사람이다. 정생이 출타하여 주인이 없는 바람에, 물리치고 들이지 않아서 나왔다. 안채에서 우리가 간 것을 알고 다시 들어오라고 청하였으므로 도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쫓겨나올 때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저물녘 수덕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暮到村修德
주인은 가장 인정 없는 사람이네	主人最不仁
온 마을이 다 물리쳐 쫓아내니	一里皆揮却
응당 좋은 손님이 적게 모이겠네	應少會佳賓

己亥三月十二日。作嶺行，與乃記及學允作伴發程。抵筏橋療飢。暮抵順天修德村 丁生家。丁生即自城里移居于此村者也。丁生出去他以無主之致，退却不納，故出來矣。自內間知吾行，更爲請入，故還入仍留宿。行六十里。退出之際，吟一絕曰：“暮到村修德，主人最不仁。一里皆揮却，應少會佳賓。”

■13일. 밥을 먹은 뒤 출발하였다. 그길로 순천의 좌수(座首) 박윤원(朴允源)을 보려고 읍으로 들어갔다. 향청(鄉廳)에 기별을 보내니, 나오겠다는 답이 왔으므로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출발하여 객사 동헌 밖에서 요기를 하였다. 광양(光陽)의 유정(楡亭)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70리를 갔다.

648 수덕(修德)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수덕리이다.

十三日。食後發程。仍見順天座首朴允源入邑。通奇鄉廳，則出來爲答，故移時企待，而終不來。故移發，客舍東軒外療飢。抵光陽 楡亭留宿。行七十里。

■14일. 일찍 출발하여 실(實)⁶⁴⁹ 저자 주변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비를 무릅쓰고 출발하였다. 울동(栗洞) 마을 앞에 이르러, 비를 피하려고 한 행랑으로 들어가, 그 성명을 물으니 서영주(徐永周)라고 하였다.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아 종일 머물렀다. 잠을 자려고 하니 파리 떼가 극성이라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몹시 괴로웠다. 저녁 무렵 비가 좀 개어 출발하였다. 진창길에 무릎이 빠지고, 옷과 버선이 모두 젖어 몹시 짜증이 났다. 간신히 성부(成部) 장터 주막에 도착하였다. 비가 다시 시작되어 그대로 유숙하였다. 10리를 갔다.

十四日。早發，抵實市邊朝飯。雨始，冒雨發程。至栗洞村前，避雨次入一行廊。問其姓名，則徐永周也。仍雨不止，留終日。而欲眠，則蒼蠅之多侵，不得就寢，苦哉苦哉。夕時稍霽，故移發。泥濘沒膝，衣襪盡濕，憤憤。艱到成部場墟酒幕。雨更作，仍留宿。行十里。

■15일. 일찍 출발하여 수달치(水獺峙)⁶⁵⁰를 넘어 둔탁(敦托)⁶⁵¹ 나루를 건너 영남 하동(河東)의 선교(船橋) 저자 주변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아침 전에 30리를 갔다. 저자 안을 두루 둘러 보았는데 곳곳에서 마주친 사람이 모두 생소하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마륜(馬輪)의 일가 곡성(谷城)을 만났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 일가를 만나 한없이 기뻐했다. 그래서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타향 사람이 무수히 많은 속에서	他鄉人海裏
갑자기 우리 종친을 만났다네	忽逢我宗親

649 실(實) : 원래 지명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650 수달치(水獺峙) : 광양 옥곡면에서 진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현재 광양에서 하동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다.

651 둔탁(敦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둔탁 마을이다.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절로 기뻐는데
이별한 뒤 마음은 오히려 새롭구나
逢初心自喜
別後意猶新

그길로 작별하여 하동 진암(陣巖)⁶⁵²의 성 부자(成富者) 우열(偶烈) 집에 이르렀다. 우열은 마침 병이 나서 만나지 못하고 다만 그 아들 필우(弼宇)를 만났다. 거기서 요기를 하였다. 주인이 객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소홀하였다. 출발하여 세곡(細谷)⁶⁵³의 김 부자(金富者) 종이(宗頤) 집에 이르렀다. 김종이는 흥양의 점암(占岩)에서 이 읍으로 이거하였는데 학운(學允)의 고모부이다. 본래 동향 사람인 데다 또 외가(外家)의 정의(情誼) 때문에 노소와 내외가 그지없이 환대하며 대접해 주어 아주 고마웠다. 아침을 먹은 뒤에 10리를 가서 유숙하였다.

十五日。早發，越水⁶⁵⁴獐峙，越敦托津，抵嶺南 河東 船橋市邊朝飯。朝前行三十里。周觀市中，處處逢人，皆生面目，四顧無一人知者矣。適逢馬輪 谷城宗人。千萬意外逢此宗人，其喜可斗。因吟一絕曰：“他鄉人海裏，忽逢我宗親。逢初心自喜，別後意猶新。”仍爲作別，抵河東 陣巖 成富者 偶烈家。偶烈則適病不見，只見其子弼宇。仍爲療飢。主人對客之，甚爲疏忽。移發，抵細谷 金富者 宗頤家。金卽興陽 占岩移居于此邑，而爲學允之姑母夫也。本是同鄉之人，又爲外家之誼，老少內外，歡接不已，可感可感。朝飯後，行十里，仍留宿。

▪16일. 내기가 당두(唐頭)의 김모(金某) 집으로 갔다. 바로 그의 처가였다. 내일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갔다. 여러 날 타관에서 고생한 나머지 비록 하룻밤 떨어져 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十六日。乃記往唐頭 金某家。卽其妻家也。明日來會此處而去矣。數日勞苦他官之餘，雖爲一夜之離，悵缺難抑。

652) 진암(陣巖)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진암 마을이다.

653) 세곡(細谷)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세곡 마을이다.

654) 水 : 저본에는 '小'로 되어있으나 광양 지역의 지명 용례에 의거하여 '水'로 수정하였다.

▪17일. 내기가 당두에서 내려왔다. 노량(露梁)의 충렬사(忠烈祠)를 보려고 주인 김종순(金宗順)과 동행하여 출발하였다. 선교(船橋)를 지나 세진(細津) 앞에 이르러, 내기가 그 처남 김방영(金邦營)을 만나려고 세진으로 들어갔다. 일행은 마을 앞 주막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곧바로 나왔다. 김방영이 광양(光陽) 땅에 간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왔다면 그길로 출발하였다. 저물녘 노랑 나룻가 객점에 이르렀다. 40리를 갔다.

十七日。乃記自唐頭下來。欲見露梁 忠烈祠，與主人金宗順同行發程。歷船橋，抵細津前，乃記欲見其妻男金邦營，入去細津。同行則稍待於村前酒幕矣，卽出來。而邦營出去光陽地，不見而來，仍爲登程。暮抵露梁津頭店留宿。行四十里。

▪18일. 새벽 비가 그치지 않았다. 비 내리는 기세가 장난이 아닐뿐더러 나룻배가 해안을 건너 오지 못한 관계로 거기서 아침을 먹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파리 떼가 어찌나 달라붙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몹시 괴로웠다. 오후에 비가 맑게 개었다. 나룻배가 건너왔지만, 남해 저자 장사꾼들이 앞다투어 모두 올라가 무거운 짐을 싣는 바람에 배를 못 탔다. 저녁때 다시 나룻배가 건너와 비로소 배를 타고 건넜다. 육지에 내리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곧바로 충렬사로 올라가니 번을 서는[守番] 승려가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다. 다시 번거롭게 말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룻가 주막으로 내려와 밥을 사서 도로 서원으로 올라갔다. 번을 서는 승방에서 묵으며 그 승려에게 물으니, 그는 남해 화방사(華芳寺)에서 이곳으로 와 번을 선다고 하였다.

十八日。曉雨不止。非但雨勢之所戲，津船係越岸不來，故仍朝飯仍留。而以蒼蠅多侵，不得就寢，苦哉苦哉。午後雨勢快晴。津船越來，而南海市商賈，爭先多登，以卜重之致，不得登船矣。夕時更爲越來，始爲登船利涉。下陸，則日已昏矣。直上忠烈祠，則守番僧徒，已夕飯矣。不得更煩爲言，故不得已下來津頭酒幕買食，還爲上去書院。留守番僧房，問其僧徒，則渠自南海 華芳寺來此守番云爾。

■19일. 밥을 먹기 전 재복(齋服, 재계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서원 마당으로 들어갔다. 먼저 참배를 한 뒤에 들어가서 봉심(奉審)을 하니 위패는 -결락- 가장 높고 컸다. 하얗게 칠한 면에 “유명수군 -결락- 조선국 삼도통제사 증 영의정 -결락- 이 -결락- 공 신위(有明水軍【缺】朝鮮國三道統制使贈領議政【缺】李【缺】公神位)”라고 쓰여있었다. 사우에는 ‘충렬사’라고 편액이 걸려 있었다. 참배한 뒤에 묘정비(廟庭碑)를 구경하였다. 묘각은 -결락- 문 안에 있었다. 묘문은 우암(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짓고, 동춘당(송준길(宋浚吉)) 선생이 글씨를 썼다. 이 비문에는 마땅히 우리 방계 6대조 수사공(水使公)⁶⁵⁵의 사적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사공의 사적이 오롯이 빠진 것은 필시 글을 청한 사람이 수사공의 사적을 몰라서 글을 부탁할 적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우리 송씨에게는 크게 흠이 되는 일이다. 승방으로 나와 아침을 먹은 뒤에 《심원록(審院錄)》에 이름을 적고, 사적 책과 활기(笏記)를 찾으니, 책은, 승려 말로는 “서원에 있는 서책은 모두 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승려가 열쇠를 가지고 출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니, 흡사(欠事)이고 흡사이다.

그길로 강당 문루에 이르니 ‘청해루(淸海樓)’라는 현판이 있었고 또 중수기문(重修記文)이 걸려 있었다. 또 여러 사람이 읊은 시문이 많았으나, 갈 길이 바쁠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운 관계로 상세히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었다. 서원 터를 두루 돌아보니 지형이 녹도(鹿島)의 쌍충사(雙忠祠) 터와 흡사하였다. 주산(主山)과 안산(案山)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집들이 즐비하였는데 모두 서원의 소유물이었다. 참으로 명승지라고 이를 만하였다. 앞바다에는 세곡(稅穀)을 실은 조군선(漕軍船)이 많이 정박해 있었는데 차례차례 들어와 그 수가 20여 척에 달하였다. 이 또한 장관이었다.

서원 옆에 또 하나의 비각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 앞면에 큰 글자로 “자암

655 수사공(水使公) : 송희립(宋希立, 1553년~1623)이다. 송간(宋侃)의 6대손으로, 자는 신중(信仲)이고, 호는 삼규당(三規堂)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녹도(鹿島) 만호 정운(鄭運)의 군관으로서 영남지역에 원병파견을 주장하였다. 지도(智島) 만호가 되어 형 송대립(宋大立)과 함께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남해 관음포 앞바다에서 명나라 진린 제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송희립은 중상을 당하고 이순신은 전사했다.

김 선생⁶⁵⁶ 적려 유허비(自菴金先生謫廬遺墟碑)”라고 쓰여 있었다. 뒷면에도 비음이 새겨져 있었으나 상세히 볼 수 없었다. 서원 아래는 또 남해와 하동 두 읍과 영남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조운선(漕運船)이 이곳에 모여 실어간다고 하였다. 이렇게 빼어난 경치를 일찍 보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처음에는 이곳에서 방향을 바꿔 진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내기와 학운이 도로 내려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 나루 앞에 이르러 김종이(金宗頤), 학운과 헤어졌다. 둔탁(敦托) 나룻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내기와 함께 조진(助津) 나룻가로 들어갔다. 노랑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시 1수를 읊었다.

지팡이 나란히 짚은 서너 길손이	聯筇三四客
오롯이 노랑의 사당에 도착하였네	專到露梁祠
층계 사이 자리에서 공경히 참배하고	敬拜階間席
탁상 위의 신위(神位)에 봉심하였네	奉審卓上位
충심으로 임금을 지탱하였고	忠心撐北極
씩씩한 기상은 남쪽 지역을 덮었네	壯氣蓋南陲
당시의 일을 추모하자니	追慕當時事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不覺涕泗洩

十九日。食前着齋服，而入院庭。先爲瞻拜後，入奉審，則位牌【缺】取爲高大。粉以塗面，書之以有明水軍【缺】朝鮮國三道統制使贈領議政【缺】李缺公神位。祠宇扁以忠烈祠。參謁後，玩廟庭碑。碑閣在【缺】門內。而碑文則尤菴先生撰，同春先生書之。此碑文當入我傍六代祖水使公事蹟，而專沒水使公事蹟者，必請文之人不知水使公之事蹟，不告於請文時故也。實如我宋之大欠事也。出來僧房朝飯後，書名《審院錄》，推尋事蹟冊與笏記。冊則僧曰：

656 자암 김 선생 : 김구(金絀, 1488~1534)이다. 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自庵)·삼일재(三一齋), 시호는 문의(文懿),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511년에 별시 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한 뒤 좌승지·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개령(開寧)에 유배되었다가 수개월 뒤에 남해로 이배되었다. 남해에 이배된 지 13년 만에 임피(臨陂)로 다시 옮겨다가, 2년 뒤에 풀려나와 고향인 예산으로 돌아왔다. 저서로 《자암집(自庵集)》이 있다.

“院中所在書冊盡藏櫃中，而開金僧將佩去出他云。”故不得詳玩，欠事欠事。仍上講堂門樓，則扁以清海樓，又揭重修記文。又多諸人題咏，而非但行忙，以眼昏之致，不得詳玩，可歎耳。周觀院基址，則地形治似鹿島 雙忠祠基地矣。主山與案山，松楸鬱密，村家櫛比，而皆院中所有物。真可謂名勝之地。前洋多泊載稅漕軍船，次次入來，其數至於二十餘隻。此亦壯觀也。院傍，又有一碑閣，故入玩，則前面大字書自菴 金先生謫廬遺墟碑。後面，又刻碑陰，而不能詳玩。院下，又有南海、河東兩邑及嶺南左右道漕船，來會此處，載去云爾。如此勝景，恨未早見也。仍爲暫憩，初意，則自此轉向晉州計矣。非但路資之不足，乃記與學允還爲下去爲言，故不得已同行。到津前，與金宗頤及學允分袂。而相會于敦托津頭爲約，與乃記入助津頭。當在露梁時，吟一首曰：“聯筇三四客，專到露梁祠。敬拜階間席，奉審卓上位。忠心撐北極，壯氣蓋南陲。追慕當時事，不覺涕泗洩。”

■20일. 아침을 먹은 뒤 출발하였다. 돈탁 나룻가에 이르러 학운을 기다렸으나 해가 이미 정오가 되도록 여태 오지 않아 몹시 괴로웠다. 날이 늦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쫓아오라는 뜻을 가게 기둥에 써 붙여 두고 출발하였다. 수신치(水信峙) 아래 이르러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만나 보니 바로 학운이었다. 그길로 동행하여 고개를 넘어 성부(成部) 장터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노자가 다 떨어져 길가 시골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일행이 마다하였다. 저물녘 국진(掬津)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日. 朝飯後, 發程. 抵敦托津頭, 留待學允, 而日已午矣, 尙今不來, 苦哉苦哉. 以日晚之致, 不得已以追及之意, 書付假家柱離發. 抵水信峙下, 有人呼之, 故留待見之, 則乃學允矣. 仍與同行, 越嶺抵成部場墟療飢. 以路資之乏盡, 欲入路邊村家, 而同行不肯. 暮抵掬津店留宿.

■21일. 비가 내렸다. 비를 무릅쓰고 일찍 출발하였다. 광양 읍내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오리정(五里亭) 객점에 이르러 잠시 쉬고 나서 자인(子仁)이 사는 마을을 물으니 주막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행과 헤어져 양곡(良谷)의 자인 집을 찾아갔다. 자인은 과연 집에 있었다. 극구

만류하기에 그대로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雨. 冒雨早發. 抵光陽邑內朝飯. 至五里亭店, 暫憩後, 問子仁所居村, 則自幕不遠云. 故與同行分袂, 尋求良谷 子仁家. 子仁果在, 而堅挽, 故仍留宿.

■22일. 출발하여 순천(順天) 읍내에 이르러 마침 회침(會玆)을 만나 함께 갔다. 저물녘에 관남(冠南)⁶⁵⁷의 군직(君直)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二日. 離發. 抵順天邑內, 適逢會玆同行. 暮抵冠南 君直家留宿.

■23일. 비가 와서 그대로 머물렀다.

二十三日. 雨, 仍留.

■24일. 출발하여 고모님 산소와 동촌(東村) 형님 산소로 올라가 성묘를 하였다. 세곡(世谷)⁶⁵⁸의 최생(崔生) 집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주인이 극구 만류하여 그대로 묵었다.

二十四日. 發程, 上姑母主山所及東村兄主山所省拜. 抵世谷 崔生家療飢. 以主人之堅挽, 仍留.

■25일. 출발하여 동림(東林)에 들러 일성(日聖)을 잠시 만나고 그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五日. 發程, 入東林暫見日聖, 仍爲還家.

657) 관남(冠南)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관남 마을이다.

658) 세곡(世谷)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 세곡 마을이다.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6 『서행록』 3

송지행(宋志行)·송석년(宋錫年) 지음

인쇄 2022. 5. 18

발행 2022. 5. 18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 9600 fax. 062)941. 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송지행(宋志行)·송석년(宋錫年)

역자 김성희 - 경상대학교 문학박사

문희숙 - 전남대학교 박사수료

편집·제작 (주)나무와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8, 201호

tel. 062)529. 9179 fax. 062)529. 9178

<비매품/별매>

ISBN 979-11-90608-10-7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호남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